수원청년 생태계조사 학술연구

수원시
SUWON CITY

연구진

책임연구원	최지연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김도영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참여연구원	김진원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박천희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홍은영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연구 자문위원

김기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안정희 (도시재생주거환경 시민연대 대표)
이선이 (아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이현서 (아주대학교 스포츠레저학부 교수)
정수남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연구원)
최창민 (서울시청년허브 정책협력팀 파트장)
한지혜 (경기도청년네트워크 대표)

제 출 문

수원시장 귀하

본 보고서를 「수원청년 생태계조사 학술연구」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7년 12월

연구기관명 : 수원시정연구원
책임연구원 : 최지연
공동연구원 : 김도영
연구원 : 김진원, 박천희, 홍은영

| 차 례 |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방법 및 수행절차 ····· 2
1. 연구방법 ····· 2
2. 연구 수행절차 ····· 2

제2장 연구 배경 ····· 5
제1절 청년 개념 ····· 5
1. 법령 및 정책 ····· 5
2. 국외 청년 연령 및 학계 연구 ····· 6
제2절 국가통계 상의 청년 실태 ····· 7
1. 청년관련 정부통계 현황 ····· 7
2. 고용 및 실업통계 ····· 8
3. 청년 생활실태 ····· 10
4. 청년 관련 정책사업 현황 ····· 12
제3절 수원시 청년 관련 현황 ····· 14
1. 인구현황 ····· 14
2. 청년 정책 추진 현황 ····· 14
3. 수원시 청년정책 목표 및 방향 ····· 15
4. 세부 실행사업 ····· 16

제3장 FGI 조사 ····· 19
제1절 조사 개요 ····· 19
1. 일시 ····· 19
2. 장소 ····· 19
3. 주요 내용 ····· 19
제2절 조사 대상자 ····· 19
제3절 주요 조사 내용 ····· 21

1. 거주 관련 ····· 21
2. 수원 내 활동 ····· 22
3. 수원에 대한 이미지 ····· 23
4. 정책 관련 ····· 25

제4장 실태조사 ····· 29
제1절 조사 개요 ····· 29
1. 조사 목적 ····· 29
2. 조사 내용 및 방법 ····· 29
3. 표본설계 ····· 30
4. 조사 현황 ····· 31
제2절 조사지표 ····· 32
1. 청년다움 ····· 32
2. 발돋움 ····· 33
3. 비움채움 ····· 35
4. 즐거움 ····· 36
제3절 조사 결과 ····· 37
1. 청년다움 ····· 37
2. 즐거움 ····· 188
3. 발돋움 ····· 301
4. 비움채움 ····· 471

제5장 영역별 주요 지표 분석 ····· 563
제1절 청년다움 ····· 563
1. 청년정책 ····· 563
2. 사회문제 인식 및 차며 ····· 569
3. 지역 정체성 ····· 575
4. 자아 정체성 ····· 578
제2절 즐거움 ····· 581
1. 관계 ····· 581

2. 여가문화 ····· 586
3. 미디어 ····· 589
제3절 발돋움 ····· 591
1. 교육 ····· 591
2. 경제활동상태 ····· 594
3. 취업 및 이직 준비 ····· 600
4. 아르바이트 ····· 605
제4절 비움채움 ····· 606
1. 주거 ····· 606
2. 소비 및 부채 ····· 609
3. 건강 및 영양 ····· 611

제6장 결론 ····· 615
제1절 정책적 함의 ····· 615
1. 조사결과의 시사점 ····· 615
2. 정책방향 요약 ····· 618
제2절 향후 과제 ····· 620
1. 향후 과제 ····· 620

참고문헌 ····· 623
부록 : 설문지 ····· 625

| 표 차 례 |

〈표 2-1〉 20대 국회 청년기본법 비교 ····· 6
〈표 2-2〉 전 세계 청소년 및 청년(youth) 대상 하한-상한 연령 ····· 7
〈표 2-3〉 청년관련 정부통계 현황 ····· 8
〈표 2-4〉 과일 및 채소 1일 500g 이상 섭취자 비율 ····· 10
〈표 2-5〉 청년 구직자의 항목별 생활비 ····· 11
〈표 2-6〉 2016년 청년 사회 · 경제 실태 지표체계 ····· 12
〈표 2-7〉 청년 관련 정책사업 현황 ····· 13
〈표 2-8〉 수원시 거주 청년 비율 ····· 14
〈표 2-9〉 수원 소재 주요 대학 재학생 ····· 14
〈표 2-10〉 세부 실행사업 ····· 16
〈표 3-1〉 조사 대상자 특성표 ····· 20
〈표 3-2〉 시설별 이용 선호도 ····· 23
〈표 3-3〉 주요 약속 장소 ····· 23
〈표 3-4〉 수원에 대한 이미지 비교 ····· 25
〈표 3-5〉 그룹별 정책에 대한 인지도 ····· 27
〈표 4-1〉 대면조사 배분현황 ····· 30
〈표 4-2〉 온라인조사 배분현황 ····· 30
〈표 4-3〉 표본현황 ····· 31
〈표 4-4〉 청년다움 조사지표 ····· 32
〈표 4-5〉 발돋움 핵심지표 ····· 33
〈표 4-6〉 비움채움 조사지표 ····· 35
〈표 4-7〉 즐거움 핵심지표 ····· 36
〈표 4-8〉 응답자 특성별 청년실업 원인 ····· 38
〈표 4-9〉 응답자 특성별 연수체험(직장체험, 인턴) 사업 참여경험 ····· 39
〈표 4-10〉 응답자 특성별 단기 일자리 제공 사업 참여 경험 ····· 40
〈표 4-11〉 응답자 특성별 해외취업, 인턴사업 참여경험 ····· 41
〈표 4-12〉 응답자 특성별 직업훈련사업 참여경험 ····· 42
〈표 4-13〉 응답자 특성별 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경험 ····· 43

〈표 4-14〉 응답자 특성별 직업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경험 ····· 44
〈표 4-15〉 응답자 특성별 연수체험(직장체험, 인턴) 사업 도움 정도 ····· 46
〈표 4-16〉 응답자 특성별 단기 일자리 제공 사업 도움 정도 ····· 48
〈표 4-17〉 응답자 특성별 해외취업, 인턴사업 도움 정도 ····· 50
〈표 4-18〉 응답자 특성별 직업훈련사업 도움 정도 ····· 52
〈표 4-19〉 응답자 특성별 장려금 지원 사업 도움 정도 ····· 54
〈표 4-20〉 응답자 특성별 직업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도움 정도 ····· 56
〈표 4-21〉 응답자 특성별 노동 공급 및 수요 측면 중요항목 ····· 57
〈표 4-22〉 응답자 특성별 노동 공급 측면 필요 항목 ····· 59
〈표 4-23〉 응답자 특성별 노동 수요 측면 필요 항목 ····· 61
〈표 4-24〉 응답자 특성별 확대필요 출산정책 ····· 63
〈표 4-25〉 응답자 특성별 확대필요 육아정책 ····· 65
〈표 4-26〉 응답자 특성별 비취업 청년 비용 지급에 대한 의견 ····· 67
〈표 4-27〉 응답자 특성별 수원시 추진 청년정책 인지도 ····· 69
〈표 4-28〉 응답자 특성별 수원시 추진 청년정책 참여 희망도 ····· 71
〈표 4-29〉 응답자 특성별 수원시 청년정책 실효성 ····· 73
〈표 4-30〉 응답자 특성별 청년 정책 참여 여부 ····· 74
〈표 4-31〉 응답자 특성별 수원시 운영 공간 인지여부 ····· 75
〈표 4-32〉 응답자 특성별 수원시 운영 공간 이용 경험 여부 ····· 76
〈표 4-33〉 응답자 특성별 사회 문제 관심 정도 ····· 78
〈표 4-34〉 사회 문제에 관심 없는 이유 ····· 80
〈표 4-35〉 응답자 특성별 직장 및 사회에서 성차별적인 분위기 문제 관심 정도 ··· 82
〈표 4-36〉 응답자 특성별 계층 간 불평등 문제 관심 정도 ····· 84
〈표 4-37〉 응답자 특성별 미세먼지, 생태계파괴 등 환경문제 관심 정도 ····· 86
〈표 4-38〉 응답자 특성별 일자리, 연금 등을 둘러싼 세대 갈등 문제 관심 정도 ···· 88
〈표 4-39〉 응답자 특성별 '가족의 생계는 주로 남성이 책임져야한다' 동의 정도 ··· 90
〈표 4-40〉 응답자 특성별 '여성은 자신의 직장생활보다는 어린 자녀를 돌보는 것을 더 우선시해야 한다' 동의 정도 ···· 92
〈표 4-41〉 응답자 특성별 '남녀(이성) 관계에서 데이트 는 남성이 주도해야 한다' 동의 정도 ···· 94
〈표 4-42〉 응답자 특성별 전반적인 성 평등 수준 ····· 96
〈표 4-43〉 응답자 특성별 대중매체 상에서의 차별, 편견, 비하 ····· 98

〈표 4-44〉 업무의 양과 질 및 승진 ····· 100
〈표 4-45〉 응답자 특성별 공공 서비스 수혜 수준 ····· 102
〈표 4-46〉 응답자 특성별 '나는 정부가 하는 일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다' 동의 정도 ···· 104
〈표 4-47〉 '나는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정치 현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동의 정도 ···· 106
〈표 4-48〉 응답자 특성별 '나는 수원시정 운영에 대해 관심이 많다' 동의 정도 ···· 108
〈표 4-49〉 응답자 특성별 '나는 수원시에 불만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항의할 것이다' 동의 정도 ···· 110
〈표 4-50〉 응답자 특성별 정치·사회 문제에 대해 주변 사람과 이야기하기 경험 유무 ···· 111
〈표 4-51〉 응답자 특성별 블로그 / SNS / 온라인 게시판 등에 의견 올리기 경험 유무 ···· 112
〈표 4-52〉 응답자 특성별 서명운동 참여하기(온라인 서명 포함) 경험 유무 ····· 113
〈표 4-53〉 응답자 특성별 시위, 집회 등에 참여하기 경험 유무 ····· 114
〈표 4-54〉 응답자 특성별 정치·사회 문제에 대해 주변 사람과 이야기하기 참여 의향 ···· 116
〈표 4-55〉 응답자 특성별 블로그 / SNS / 온라인 게시판 등에 의견 올리기 참여 의향 ···· 118
〈표 4-56〉 응답자 특성별 서명운동 참여하기(온라인 서명 포함) 참여 의향 ····· 120
〈표 4-57〉 응답자 특성별 시위, 집회 등에 참여하기 참여 의향 ····· 122
〈표 4-58〉 응답자 특성별 지지정당 보유 여부 ····· 123
〈표 4-59〉 기성세대(4·50대)는 '노력에 비해 더 큰 혜택을 누린다' 동의 여부 ···· 125
〈표 4-60〉 기성세대(4·50대)는 ' 다른 세대에 대한 배려가 없다' 동의 정도 ····· 127
〈표 4-61〉 응답자 특성별 노인(70세 이상)은 '다른 세대보다 정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는다' 동의 정도 ···· 129
〈표 4-62〉 응답자 특성별 노인(70세 이상)의 '정치적 영향력이 너무 크다' 동의 정도 ···· 131
〈표 4-63〉 응답자 특성별 수원시 거주 이유 ····· 133
〈표 4-64〉 응답자 특성별 수원시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의향 ····· 135
〈표 4-65〉 응답자 특성별 수원시 거주 추천 의향 ····· 137
〈표 4-66〉 응답자 특성별 수원시 재거주 의향 ····· 139
〈표 4-67〉 응답자 특서별 지역 소속감 ····· 141
〈표 4-68〉 응답자 특성별 수원시에 대한 느낌 ····· 143
〈표 4-69〉 응답자 특성별 수원시민 자부심 ····· 145
〈표 4-70〉 응답자 특성별 수원시 이미지 만족 여부 ····· 147
〈표 4-71〉 응답자 특성별 수원시 생활 환경 만족도 ····· 149
〈표 4-72〉 응답자 특성별 자신의 건강 상태 만족도 ····· 151
〈표 4-73〉 응답자 특성별 자신의 재정상태 만족도 ····· 153

〈표 4-74〉 응답자 특성별 가정생활 만족도 ····· 155
〈표 4-75〉 응답자 특성별 사회생활 만족도 ····· 157
〈표 4-76〉 응답자 특성별 본인의 계층구분 ····· 159
〈표 4-77〉 응답자 특성별 본인의 부모님 계층구분 ····· 161
〈표 4-78〉 응답자 특성별 배우자 부모님의 계층구분 ····· 163
〈표 4-79〉 응답자 특성별 성공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조건 ····· 165
〈표 4-80〉 응답자 특성별 본인의 장점 ····· 167
〈표 4-81〉 응답자 특성별 본인의 성공 가능성 ····· 169
〈표 4-82〉 응답자 특성별 본인에 대한 긍정적 평가 ····· 171
〈표 4-83〉 응답자 특성별 본인의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 173
〈표 4-84〉 응답자 특성별 본인이 성인이라는 느낌 ····· 175
〈표 4-85〉 응답자 특성별 생활비 / 용돈 마련 능력에 따른 성인 판별 ····· 177
〈표 4-86〉 결혼 / 가정 보유 여부에 따른 성인 판별 ····· 179
〈표 4-87〉 응답자 특성별 자녀 유무에 따른 성인 판별 ····· 181
〈표 4-88〉 응답자 특성별 자기문제 해결 능력에 따른 성인 판별 ····· 183
〈표 4-89〉 응답자 특성별 자기문제 해결 능력에 따른 성인 판별 ····· 185
〈표 4-90〉 응답자 특성별 본인의 행동에 대한 책임에 따른 성인 판별 ····· 187
〈표 4-91〉 응답자 특성별 진정한 친구 보유 여부 ····· 188
〈표 4-92〉 응답자 특성별 진정한 친구 보유 수 ····· 190
〈표 4-93〉 응답자 특성별 친구 및 지인 만남 횟수 ····· 192
〈표 4-94〉 응답자 특성별 친구 및 지인 관계에 대한 만족도 ····· 194
〈표 4-95〉 응답자 특성별 연애 경험 횟수 ····· 196
〈표 4-96〉 응답자 특성별 혼전 동거 경험 ····· 197
〈표 4-97〉 응답자 특성별 불안정 때문에 연애를 망설인 경험 여부 ····· 198
〈표 4-98〉 응답자 특성별 결혼 의향 ····· 200
〈표 4-99〉 응답자 특성별 생각하고 있는 결혼 연령 ····· 202
〈표 4-100〉 응답자 특성별 비혼 이유 ····· 204
〈표 4-101〉 응답자 특성별 직업 및 학과 선택에서의 부모님의 영향 ····· 206
〈표 4-102〉 응답자 특성별 현재 나의 삶에 대한 부모님의 영향 ····· 208
〈표 4-103〉 응답자 특성별 본인 부모님댁 방문 빈도 ····· 210

〈표 4-104〉 응답자 특성별 배우자 부모님댁 방문 빈도 ····· 212
〈표 4-105〉 응답자 특성별 부모님 동거 사유 ····· 214
〈표 4-106〉 본인의 부모님과의 관계 만족도 ····· 216
〈표 4-107〉 응답자 특성별 배우자 부모님과의 관계 만족도 ····· 218
〈표 4-108〉 응답자 특성별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 ····· 220
〈표 4-109〉 응답자 특성별 형제·자매와의 관계 만족도 ····· 222
〈표 4-110〉 응답자 특성별 평일 하루 평균 여가 시간 ····· 224
〈표 4-111〉 응답자 특성별 휴일 하루 평균 여가 시간 ····· 226
〈표 4-112〉 응답자 특성별 평일 주요 여가 활동 ····· 228
〈표 4-113〉 응답자 특성별 휴일 주요 여가 활동 ····· 230
〈표 4-114〉 응답자 특성별 한 달 평균 여가 비용 ····· 232
〈표 4-115〉 응답자 특성별 여가활동 중요도 ····· 234
〈표 4-116〉 응답자 특성별 여가활동 충족도 ····· 236
〈표 4-117〉 응답자 특성별 여가활동 만족도 ····· 238
〈표 4-118〉 응답자 특성별 국내 외박 일수 ····· 240
〈표 4-119〉 응답자 특성별 해외 외박 일수 ····· 242
〈표 4-120〉 응답자 특성별 여가활동 동반객 형태 ····· 244
〈표 4-121〉 응답자 특성별 여가 활동 동호회 가입 여부 ····· 245
〈표 4-122〉 응답자 특성별 동아리 종류 ····· 247
〈표 4-123〉 응답자 특성별 문학행사 관람 여부 ····· 248
〈표 4-124〉 응답자 특성별 미술전시회 관람여부 ····· 249
〈표 4-125〉 응답자 특성별 서양음악 관람여부 ····· 250
〈표 4-126〉 응답자 특성별 전통예술 관람여부 ····· 251
〈표 4-127〉 응답자 특성별 연극 관람여부 ····· 252
〈표 4-128〉 응답자 특성별 뮤지컬 관람 여부 ····· 253
〈표 4-129〉 응답자 특성별 무용 관람 여부 ····· 254
〈표 4-130〉 응답자 특성별 영화 관람 여부 ····· 255
〈표 4-131〉 응답자 특성별 대중음악, 연예 관람 여부 ····· 256
〈표 4-132〉 응답자 특성별 문학행사 관람지역 ····· 258
〈표 4-133〉 응답자 특성별 미술전시회 관람 지역 ····· 260

〈표 4-134〉 응답자 특성별 서양음악 관람 지역 ····· 262
〈표 4-135〉 응답자 특성별 전통예술 관람 지역 ····· 264
〈표 4-136〉 응답자 특성별 연극 관람 지역 ····· 266
〈표 4-137〉 응답자 특성별 뮤지컬 관람 지역 ····· 268
〈표 4-138〉 응답자 특성별 무용 관람 지역 ····· 270
〈표 4-139〉 응답자 특성별 영화 관람 지역 ····· 272
〈표 4-140〉 응답자 특성별 대중음악, 연예 관람 지역 ····· 274
〈표 4-141〉 응답자 특성별 예술행사 관람 기준 ····· 276
〈표 4-142〉 응답자 특성별 가장 자주 접한 뉴스 매체 ····· 278
〈표 4-143〉 응답자 특성별 지난 1년 간 독서량 ····· 280
〈표 4-144〉 응답자 특성별 최근 3개월간의 인터넷 동호회/카페/클럽 활동 ····· 282
〈표 4-145〉 응답자 특성별 최근 3개월간의 인터넷 뉴스/토론 게시판 이용 ····· 284
〈표 4-146〉 응답자 특성별 최근 3개월간의 인터넷 지식 서비스 이용 ····· 286
〈표 4-147〉 응답자 특성별 최근 3개월간의 SNS 활동 ····· 288
〈표 4-148〉 응답자 특성별 사용 중인 IT기기 ····· 290
〈표 4-149〉 응답자 특성별 스마트폰 대수 ····· 292
〈표 4-150〉 응답자 특성별 태블릿 / 패드 대수 ····· 293
〈표 4-151〉 응답자 특성별 웨어러블 기기 대수 ····· 294
〈표 4-152〉 응답자 특성별 월평균 통신 요금 ····· 296
〈표 4-153〉 응답자 특성별 통신요금 부담 정도 ····· 298
〈표 4-154〉 응답자 특성별 최빈 사용 애플리케이션 ····· 300
〈표 4-155〉 응답자 특성별 대학 소재지 ····· 302
〈표 4-156〉 응답자 특성별 대학 입학(년) ····· 303
〈표 4-157〉 응답자 특성별 대학 졸업(년) ····· 304
〈표 4-158〉 응답자 특성별 전공 ····· 306
〈표 4-159〉 응답자 특성별 복수/부전공 이수여부 ····· 308
〈표 4-160〉 응답자 특성별 대학원 진학 의사 ····· 309
〈표 4-161〉 응답자 특성별 대학원 진학 이유 ····· 311
〈표 4-162〉 응답자 특성별 졸업 늦춘 경험 여부 ····· 312
〈표 4-163〉 응답자 특성별 졸업 유예 이유 ····· 314

〈표 4-164〉 응답자 특성별 휴학 경험 여부 ····· 315
〈표 4-165〉 응답자 특성별 휴학 학기 ····· 317
〈표 4-166〉 응답자 특성별 휴학 이유 ····· 319
〈표 4-167〉 응답자 특성별 전공 공부(복수전공, 이중전공, 부전공 포함)를 위한 사교육 여부 ····· 320
〈표 4-168〉 응답자 특성별 영어 사교육 여부 ····· 321
〈표 4-169〉 응답자 특성별 제2외국어(영어 제외) 사교육 여부 ····· 322
〈표 4-170〉 응답자 특성별 여타 취업 준비를 위한 사교육 여부 ····· 323
〈표 4-171〉 응답자 특성별 대학 전반적 만족도 ····· 325
〈표 4-172〉 응답자 특성별 대학 특별활동(동아리 및 소학회) 만족도 ····· 327
〈표 4-173〉 응답자 특성별 대학 취업가능성 만족도 ····· 329
〈표 4-174〉 응답자 특성별 대학 등록금 만족도 ····· 331
〈표 4-175〉 응답자 특성별 학비 주 부담자 ····· 333
〈표 4-176〉 응답자 특성별 학자금 대출 경험 여부 ····· 334
〈표 4-177〉 응답자 특성별 학자금 대출 금액 ····· 336
〈표 4-178〉 응답자 특성별 학자금 대출 유형 ····· 338
〈표 4-179〉 응답자 특성별 대출 원금/이자 연체 경험 여부 ····· 339
〈표 4-180〉 응답자 특성별 대출 원금/이자 부담 정도 ····· 341
〈표 4-181〉 응답자 특성별 대학에 가지 않은 이유 ····· 343
〈표 4-182〉 응답자 특성별 추후 대학 진학 의사 ····· 344
〈표 4-183〉 응답자 특성별 지난 1주간 주로 경험한 활동 ····· 346
〈표 4-184〉 응답자 특성별 일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주된 이유 ····· 348
〈표 4-185〉 응답자 특성별 경제적 문제 해결 ····· 350
〈표 4-186〉 응답자 특성별 현 직장 근무기간(개월 단위) ····· 352
〈표 4-187〉 응답자 특성별 직장 위치(시/도) ····· 354
〈표 4-188〉 응답자 특성별 출퇴근 시 이용 교통수단 ····· 356
〈표 4-189〉 응답자 특성별 출퇴근 시간 ····· 358
〈표 4-190〉 응답자 특성별 직장 형태 ····· 360
〈표 4-191〉 응답자 특성별 종사상 지위 ····· 362
〈표 4-192〉 응답자 특성별 사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 ····· 364
〈표 4-193〉 응답자 특성별 창업과정에서 어려웠던 점 ····· 366

〈표 4-194〉 응답자 특성별 창업훈련 경험여부 ····· 367
〈표 4-195〉 응답자 특성별 고용형태 ····· 368
〈표 4-196〉 응답자 특성별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이유 ····· 370
〈표 4-197〉 응답자 특성별 전공분야와 일치 정도 ····· 372
〈표 4-198〉 응답자 특성별 적응하는데 어려웠던 점 ····· 374
〈표 4-199〉 응답자 특성별 현 직장에 들어가게 된 경로 ····· 376
〈표 4-200〉 응답자 특성별 주당 정규 근로시간(시간) ····· 378
〈표 4-201〉 응답자 특성별 주당 평균 초과 근로시간(시간) ····· 380
〈표 4-202〉 응답자 특성별 주당 정규 근로일수(일) ····· 382
〈표 4-203〉 응답자 특성별 주당 평균 초과 근로일수(일) ····· 384
〈표 4-204〉 응답자 특성별 노동조합 가입여부 ····· 385
〈표 4-205〉 응답자 특성별 현직장 전반적 만족정도 ····· 387
〈표 4-206〉 응답자 특성별 현직장 업무 내용 만족도 ····· 389
〈표 4-207〉 응답자 특성별 현직장 임금과 수입 만족도 ····· 391
〈표 4-208〉 응답자 특성별 현직장 고용의 안정성 만족도 ····· 393
〈표 4-209〉 응답자 특성별 현직장 일의 자율성과 권한 만족도 ····· 395
〈표 4-210〉 응답자 특성별 현직장 일하는 시간(근로시간, 근무일수) 만족도 ····· 397
〈표 4-211〉 응답자 특성별 현직장 사무실(작업장)의 물리적 근로환경 만족도 ····· 399
〈표 4-212〉 응답자 특성별 현직장 직장동료 간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만족도 ····· 401
〈표 4-213〉 응답자 특성별 일자리 이외에 다른 일 병행 여부 ····· 402
〈표 4-214〉 응답자 특성별 병행하는 일자리 수 ····· 404
〈표 4-215〉 응답자 특성별 이직 의향 ····· 405
〈표 4-216〉 응답자 특성별 이직을 희망하는 주된 이유 ····· 407
〈표 4-217〉 응답자 특성별 향후 1년 계획 ····· 409
〈표 4-218〉 응답자 특성별 취업 준비 여부 ····· 410
〈표 4-219〉 응답자 특성별 구직활동 여부 ····· 411
〈표 4-220〉 응답자 특성별 성적 관리 유부 ····· 412
〈표 4-221〉 응답자 특성별 외국어 스펙 유무 ····· 413
〈표 4-222〉 응답자 특성별 자격증 유무 ····· 414
〈표 4-223〉 응답자 특성별 해외경험, 직무경험 등 경험 유무 ····· 415

〈표 4-224〉 응답자 특성별 수상경력 유무 ····· 416
〈표 4-225〉 응답자 특성별 석·박사학위 유무 ····· 417
〈표 4-226〉 응답자 특성별 봉사활동 경험, 동아리활동 등 활동 스펙 유무 ····· 418
〈표 4-227〉 응답자 특성별 성적 관리 영향 정도 ····· 420
〈표 4-228〉 응답자 특성별 외국어 영향 정도 ····· 422
〈표 4-229〉 응답자 특성별 자격증 영향 정도 ····· 424
〈표 4-230〉 응답자 특성별 경험 영향 정도 ····· 426
〈표 4-231〉 응답자 특성별 수상경력 영향 정도 ····· 428
〈표 4-232〉 응답자 특성별 활동 영향 정도 ····· 430
〈표 4-233〉 응답자 특성별 석·박사학위 영향 정도 ····· 432
〈표 4-234〉 응답자 특성별 구직정보를 얻는 경로(1+2+3순위) ····· 434
〈표 4-235〉 응답자 특성별 취업준비/구직활동 시 어려웠던 점(1+2+3순위) ····· 436
〈표 4-236〉 응답자 특성별 희망하는 직업 여부 ····· 437
〈표 4-237〉 응답자 특성별 희망하는 이유 ····· 439
〈표 4-238〉 응답자 특성별 일하고 싶은 기업 유형 ····· 441
〈표 4-239〉 응답자 특성별 그 기업유형을 선택한 주된 이유 ····· 443
〈표 4-240〉 응답자 특성별 창업 생각을 갖게 된 가장 큰 이유 ····· 445
〈표 4-241〉 응답자 특성별 창업 여부 ····· 446
〈표 4-242〉 응답자 특성별 공무원/공사/교원/국가자격시험 준비 경험 여부 ····· 447
〈표 4-243〉 응답자 특성별 희망 연봉 ····· 449
〈표 4-244〉 응답자 특성별 업무 독립성 중요도 ····· 451
〈표 4-245〉 응답자 특성별 충분한 금전적 보상 중요도 ····· 453
〈표 4-246〉 응답자 특성별 타인의 인정 중요도 ····· 455
〈표 4-247〉 응답자 특성별 고용의 안정성 중요도 ····· 457
〈표 4-248〉 응답자 특성별 업무의 유연성 중요도 ····· 459
〈표 4-249〉 응답자 특성별 업무의 자율성 중요도 ····· 461
〈표 4-250〉 응답자 특성별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 ····· 462
〈표 4-251〉 응답자 특성별 아르바이트 횟수 ····· 464
〈표 4-252〉 응답자 특성별 최초 아르바이트 시작 시기 ····· 466
〈표 4-253〉 응답자 특성별 아르바이트 종류 ····· 468

〈표 4-254〉 응답자 특성별 아르바이트를 한 주된 이유 ····· 470
〈표 4-255〉 응답자 특성별 본인 명의의 집 마련 시기 ····· 472
〈표 4-256〉 응답자 특성별 공동주거 여부 ····· 473
〈표 4-257〉 응답자 특성별 공동주거 의향 ····· 474
〈표 4-258〉 응답자 특성별 자가 소유 집의 필요성 ····· 476
〈표 4-259〉 응답자 특성별 자력으로 집 마련 가능성 ····· 478
〈표 4-260〉 응답자 특성별 부모님의 도움 없이 집 마련 가능성 ····· 480
〈표 4-261〉 응답자 특성별 거주지역 청결도 ····· 482
〈표 4-262〉 응답자 특성별 인근 지역과 집값 비교 ····· 484
〈표 4-263〉 응답자 특성별 거주 지역 인프라 ····· 486
〈표 4-264〉 응답자 특성별 최대 소비 항목 ····· 488
〈표 4-265〉 응답자 특성별 지출을 늘리고 싶은 항목 ····· 490
〈표 4-266〉 응답자 특성별 계획적 소비 정도 ····· 492
〈표 4-267〉 응답자 특성별 가족으로부터의 고정적 지원 여부 ····· 493
〈표 4-268〉 응답자 특성별 지원 받는 금액 ····· 495
〈표 4-269〉 응답자 특성별 가족에게의 고정적 지원 여부 ····· 496
〈표 4-270〉 응답자 특성별 지원하는 금액 ····· 498
〈표 4-271〉 응답자 특성별 대학등록금 마련 계획 ····· 500
〈표 4-272〉 응답자 특성별 결혼비용 마련 계획 ····· 502
〈표 4-273〉 응답자 특성별 주택구입 비용 마련 계획 ····· 504
〈표 4-274〉 응답자 특성별 분가 독립 후 생활비용 마련 계획 ····· 506
〈표 4-275〉 응답자 특성별 특정 브랜드 선호 정도 ····· 508
〈표 4-276〉 응답자 특성별 신제품 선호 정도 ····· 510
〈표 4-277〉 응답자 특성별 외국 제품 선호 정도 ····· 512
〈표 4-278〉 응답자 특성별 충동 구매 정도 ····· 514
〈표 4-279〉 응답자 특성별 유행 습득 정도 ····· 516
〈표 4-280〉 응답자 특성별 주요 상품 구매처 ····· 518
〈표 4-281〉 응답자 특성별 외식 빈도 ····· 520
〈표 4-282〉 응답자 특성별 한 달 평균 외식 비용 ····· 522
〈표 4-283〉 응답자 특성별 부채 유무 ····· 523

〈표 4-284〉 응답자 특성별 부채 액수 ····· 525
〈표 4-285〉 응답자 특성별 키 ····· 527
〈표 4-286〉 응답자 특성별 몸무게 ····· 529
〈표 4-287〉 응답자 특성별 본인의 체형 정도 ····· 531
〈표 4-288〉 응답자 특성별 주관적 건강 수준 ····· 533
〈표 4-289〉 응답자 특성별 스트레스 정도 ····· 535
〈표 4-290〉 응답자 특성별 숙면 정도 ····· 537
〈표 4-291〉 응답자 특성별 수면 시간 ····· 539
〈표 4-292〉 응답자 특성별 규칙적 운동 빈도 ····· 541
〈표 4-293〉 응답자 특성별 흡연 여부 ····· 542
〈표 4-294〉 응답자 특성별 흡연 량 ····· 544
〈표 4-295〉 응답자 특성별 음주 빈도 ····· 546
〈표 4-296〉 응답자 특성별 외모의 중요도 ····· 548
〈표 4-297〉 응답자 특성별 성형수술 여부 ····· 550
〈표 4-298〉 응답자 특성별 우울감 여부 ····· 551
〈표 4-299〉 응답자 특성별 규칙적 식사 ····· 553
〈표 4-300〉 응답자 특성별 과일 및 야채 섭취 ····· 555
〈표 4-301〉 응답자 특성별 체중 관리를 위한 식단 조절 ····· 557
〈표 4-302〉 응답자 특성별 과식 정도 ····· 559
〈표 4-303〉 응답자 특성별 야식 여부 ····· 561
〈표 5-1〉 정책참여 유무에 따른 참여의지 및 필요성 인식 ····· 564
〈표 5-2〉 연령별 청년정책 참여의지 ····· 565
〈표 5-3〉 성별에 따른 청년정책 필요성 인식 ····· 565
〈표 5-4〉 수원청년 정책욕구(다중응답) ····· 568
〈표 5-5〉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정책욕구 ····· 568
〈표 5-6〉 성별에 따른 주요 사회문제 관심 수준 ····· 569
〈표 5-7〉 주관적 계층의식에 따른 주요 사회문제 관심 수준 ····· 570
〈표 5-8〉 참여방식별 경험 및 참여의향 ····· 571
〈표 5-9〉 연령별 사회참여 관심 및 역량 수준 ····· 572
〈표 5-10〉 성별에 따른 성역할 고정관념 ····· 573

〈표 5-11〉 성별에 따른 성 평등에 관한 인식 ····· 574
〈표 5-12〉 거주지역별 수원시에 대한 인식 ····· 577
〈표 5-13〉 주관적 계층의식에 따른 성공조건 ····· 580
〈표 5-14〉 연령별 성인의 자격요건 인식 ····· 581
〈표 5-15〉 성별에 따른 사회적 관계 ····· 583
〈표 5-16〉 성별에 따른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1+2순위) ····· 584
〈표 5-17〉 성별에 따른 가족 관계 만족도 ····· 586
〈표 5-18〉 성별에 따른 문화예술 관람 여부 ····· 588
〈표 5-19〉 종사상 지위별 경제활동 실태 ····· 595
〈표 5-20〉 종사상 지위별 이직의도 ····· 597
〈표 5-21〉 취업여부별 취업정보 획득경로 ····· 602
〈표 5-22〉 취업여부별 일하고 싶은 기업유형 ····· 603
〈표 5-23〉 주관적 계층의식에 따른 자가 마련을 위해 필요 시간 ····· 607
〈표 5-24〉 거주지별 현 거주지역에 대한 인식 ····· 608
〈표 5-25〉 연령별 경제적 지원여부 ····· 610
〈표 5-26〉 주관적 계층의식에 따른 주관적 건강 인식 ····· 613
〈표 5-27〉 수면시간 및 운동횟수와 주관적 건강 인식의 상관관계 ····· 613
〈표 5-28〉 집단별 체질량지수(BMI) 분포 ····· 614
〈표 5-29〉 집단별 주관적 체형 인식 ····· 614

| 그림 차례 |

<그림 2-1> 청년 관련 주요 정책 ····· 5
<그림 2-2> 청년 실업률 ····· 9
<그림 2-3> 청년층 실업자 및 취업시험 준비자 ····· 9
<그림 2-4> 청년층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 ····· 9
<그림 2-5> 아침식사 결식률 (만1세 이상) ····· 10
<그림 2-6> 부채 발생 원인 ····· 12
<그림 2-7> 대출이용기관 ····· 12
<그림 2-8> 수원시 청년 정책 추진 현황 ····· 14
<그림 2-9> 수원시 청년정책 방향 ····· 15
<그림 3-1> 거주 지역 ····· 21
<그림 3-2> 가족 구성원 ····· 21
<그림 3-3> 연고지(출신지) ····· 21
<그림 3-4> 수원외 지역 거주자 출퇴근 수단 ····· 22
<그림 3-5> 수원외 지역 거주자 출퇴근 소요시간 ····· 22
<그림 3-6> 청년들이 생각하는 청년의 범주 ····· 26
<그림 3-7> 청년 공간에 대한 인지도 ····· 28
<그림 4-1> 청년실업 원인 ····· 37
<그림 4-2> 연수체험(직장체험, 인턴) 사업 참여경험 ····· 39
<그림 4-3> 단기 일자리 제공 사업 참여 경험 ····· 40
<그림 4-4> 해외취업, 인턴사업 참여경험 ····· 41
<그림 4-5> 직업훈련사업 참여경험 ····· 42
<그림 4-6> 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경험 ····· 43
<그림 4-7> 직업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경험 ····· 44
<그림 4-8> 연수체험(직장체험, 인턴) 사업 도움 정도 ····· 45
<그림 4-9> 단기 일자리 제공 사업 도움 정도 ····· 47
<그림 4-10> 해외취업, 인턴사업 도움 정도 ····· 49
<그림 4-11> 직업훈련사업 도움 정도 ····· 51
<그림 4-12> 장려금 지원 사업 도움 정도 ····· 53

〈그림 4-13〉 직업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도움 정도 ····· 55
〈그림 4-14〉 노동 공급 및 수요 측면 중요항목 ····· 57
〈그림 4-15〉 노동 공급 측면 필요 항목 ····· 58
〈그림 4-16〉 노동 수요 측면 필요 항목 ····· 60
〈그림 4-17〉 확대필요 출산정책 ····· 62
〈그림 4-18〉 확대필요 육아정책 ····· 64
〈그림 4-19〉 비취업 청년 비용 지급에 대한 의견 ····· 66
〈그림 4-20〉 수원시 추진 청년정책 인지도 ····· 68
〈그림 4-21〉 수원시 추진 청년정책 참여 희망도 ····· 70
〈그림 4-22〉 수원시 청년정책 실효성 ····· 72
〈그림 4-23〉 청년 정책 참여 여부 ····· 74
〈그림 4-24〉 수원시 운영 공간 인지여부 ····· 75
〈그림 4-25〉 수원시 운영 공간 이용 경험 여부 ····· 76
〈그림 4-26〉 사회 문제 관심 정도 ····· 77
〈그림 4-27〉 사회 문제에 관심 없는 이유 ····· 79
〈그림 4-28〉 직장 및 사회에서 성차별적인 분위기 문제 관심 정도 ····· 81
〈그림 4-29〉 계층 간 불평등 문제 관심 정도 ····· 83
〈그림 4-30〉 미세먼지, 생태계파괴 등 환경문제 관심 정도 ····· 85
〈그림 4-31〉 일자리, 연금 등을 둘러싼 세대 갈등 문제 관심 정도 ····· 87
〈그림 4-32〉 '가족의 생계는 주로 남성이 책임져야한다' 동의 정도 ····· 89
〈그림 4-33〉 '여성은 자신의 직장 생활보다는 어린 자녀를 돌보는 것을 더 우선시해야 한다' 동의 정도 ··· 91
〈그림 4-34〉 '남녀(이성) 관계에서 데이트 는 남성이 주도해야 한다' 동의 정도 ··· 93
〈그림 4-35〉 전반적인 성 평등 수준 ····· 95
〈그림 4-36〉 대중매체 상에서의 차별, 편견, 비하 ····· 97
〈그림 4-37〉 업무의 양과 질 및 승진 ····· 99
〈그림 4-38〉 공공 서비스 수혜 수준 ····· 101
〈그림 4-39〉 '나는 정부가 하는 일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다' 동의 정도 ···· 103
〈그림 4-40〉 '나는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정치 현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동의 정도 ···· 105
〈그림 4-41〉 '나는 수원시정 운영에 대해 관심이 많다' 동의 정도 ····· 107
〈그림 4-42〉 '나는 수원시에 불만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항의할 것이다' 동의 정도 ··· 109

<그림 4-43> 정치·사회 문제에 대해 주변 사람과 이야기하기 경험 유무 ····· 111
<그림 4-44> 블로그 / SNS / 온라인 게시판 등에 의견 올리기 경험 유무 ····· 112
<그림 4-45> 서명운동 참여하기(온라인 서명 포함) 경험 유무 ····· 113
<그림 4-46> 시위, 집회 등에 참여하기 경험 유무 ····· 114
<그림 4-47> 정치·사회 문제에 대해 주변 사람과 이야기하기 참여 의향 ····· 115
<그림 4-48> 블로그 / SNS / 온라인 게시판 등에 의견 올리기 참여 의향 ····· 117
<그림 4-49> 서명운동 참여하기(온라인 서명 포함) 참여 의향 ····· 119
<그림 4-50> 시위, 집회 등에 참여하기 참여 의향 ····· 121
<그림 4-51> 지지정당 보유 여부 ····· 123
<그림 4-52> 기성세대(4·50대)는 '노력에 비해 더 큰 혜택을 누린다' 동의 여부 ···· 124
<그림 4-53> 기성세대(4·50대)는 ' 다른 세대에 대한 배려가 없다' 동의 정도 ···· 126
<그림 4-54> 노인(70세 이상)은 '다른 세대보다 정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는다' 동의 여부 ···· 128
<그림 4-55> 노인(70세 이상)의 '정치적 영향력이 너무 크다' 동의 정도 ····· 130
<그림 4-56> 수원시 거주 이유 ····· 132
<그림 4-57> 수원시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의향 ····· 134
<그림 4-58> 수원시 거주 추천 의향 ····· 136
<그림 4-59> 수원시 재거주 의향 ····· 138
<그림 4-60> 지역 소속감 ····· 140
<그림 4-61> 수원시에 대한 느낌 ····· 142
<그림 4-62> 수원시민 자부심 ····· 144
<그림 4-63> 수원시 이미지 만족 여부 ····· 146
<그림 4-64> 수원시 생활 환경 만족도 ····· 148
<그림 4-65> 자신의 건강상태 만족도 ····· 150
<그림 4-66> 자신의 재정상태 만족도 ····· 152
<그림 4-67> 가정생활 만족도 ····· 154
<그림 4-68> 사회생활 만족도 ····· 156
<그림 4-69> 본인의 계층구분 ····· 158
<그림 4-70> 본인의 부모님의 계층구분 ····· 160
<그림 4-71> 배우자 부모님의 계층구분 ····· 162
<그림 4-72> 성공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조건 ····· 164

〈그림 4-73〉 본인의 장점 ····· 166
〈그림 4-74〉 본인의 성공 가능성 ····· 168
〈그림 4-75〉 본인에 대한 긍정적 평가 ····· 170
〈그림 4-76〉 본인의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 172
〈그림 4-77〉 본인이 성인이라는 느낌 ····· 174
〈그림 4-78〉 생활비 / 용돈 마련 능력에 따른 성인 판별 ····· 176
〈그림 4-79〉 결혼 / 가정 보유 여부에 따른 성인 판별 ····· 178
〈그림 4-80〉 자녀 유무에 따른 성인 판별 ····· 180
〈그림 4-81〉 자기문제 해결 능력에 따른 성인 판별 ····· 182
〈그림 4-82〉 자기문제 해결 능력에 따른 성인 판별 ····· 184
〈그림 4-83〉 본인의 행동에 대한 책임에 따른 성인 판별 ····· 186
〈그림 4-84〉 진정한 친구 보유 여부 ····· 188
〈그림 4-85〉 진정한 친구 보유 수 ····· 189
〈그림 4-86〉 친구 및 지인 만남 횟수 ····· 191
〈그림 4-87〉 친구 및 지인 관계에 대한 만족도 ····· 193
〈그림 4-88〉 연애 경험 횟수 ····· 195
〈그림 4-89〉 혼전 동거 경험 ····· 197
〈그림 4-90〉 불안정 때문에 연애를 망설인 경험 여부 ····· 198
〈그림 4-91〉 결혼 의향 ····· 199
〈그림 4-92〉 생각하고 있는 결혼 연령 ····· 201
〈그림 4-93〉 비혼 이유 ····· 203
〈그림 4-94〉 직업 및 학과 선택에서의 부모님의 영향 ····· 205
〈그림 4-95〉 현재 나의 삶에 대한 부모님의 영향 ····· 207
〈그림 4-96〉 본인 부모님댁 방문 빈도 ····· 209
〈그림 4-97〉 배우자 부모님댁 방문 빈도 ····· 211
〈그림 4-98〉 부모님 동거 사유 ····· 213
〈그림 4-99〉 본인의 부모님과의 관계 만족도 ····· 215
〈그림 4-100〉 배우자 부모님과의 관계 만족도 ····· 217
〈그림 4-101〉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 ····· 219
〈그림 4-102〉 형제・자매와의 관계 만족도 ····· 221

<그림 4-103> 평일 하루 평균 여가 시간 ····· 223
<그림 4-104> 휴일 하루 평균 여가 시간 ····· 225
<그림 4-105> 평일 주요 여가 활동 ····· 227
<그림 4-106> 휴일 주요 여가 활동 ····· 229
<그림 4-107> 한 달 평균 여가 비용 ····· 231
<그림 4-108> 여가활동 중요도 ····· 233
<그림 4-109> 여가활동 충족도 ····· 235
<그림 4-110> 여가활동 만족도 ····· 237
<그림 4-111> 국내 외박 일수 ····· 239
<그림 4-112> 해외 외박 일수 ····· 241
<그림 4-113> 여가활동 동반객 형태 ····· 243
<그림 4-114> 여가 활동 동호회 가입 여부 ····· 245
<그림 4-115> 동아리 종류 ····· 246
<그림 4-116> 문학행사 관람 여부 ····· 248
<그림 4-117> 미술전시회 관람여부 ····· 249
<그림 4-118> 서양음악 관람여부 ····· 250
<그림 4-119> 전통예술 관람여부 ····· 251
<그림 4-120> 연극 관람여부 ····· 252
<그림 4-121> 뮤지컬 관람 여부 ····· 253
<그림 4-122> 무용 관람 여부 ····· 254
<그림 4-123> 영화 관람 여부 ····· 255
<그림 4-124> 대중음악, 연예 관람 여부 ····· 256
<그림 4-125> 문학행사 관람지역 ····· 257
<그림 4-126> 미술전시회 관람 지역 ····· 259
<그림 4-127> 서양음악 관람 지역 ····· 261
<그림 4-128> 전통예술 관람 지역 ····· 263
<그림 4-129> 연극 관람 지역 ····· 265
<그림 4-130> 뮤지컬 관람 지역 ····· 267
<그림 4-131> 무용 관람 지역 ····· 269
<그림 4-132> 영화 관람 지역 ····· 271

〈그림 4-133〉 대중음악, 연예 관람 지역 ····· 273
〈그림 4-134〉 예술행사 관람 기준 ····· 275
〈그림 4-135〉 가장 자주 접한 뉴스 매체 ····· 277
〈그림 4-136〉 지난 1년 간 독서량 ····· 279
〈그림 4-137〉 최근 3개월간의 인터넷 동호회/카페/클럽 활동 ····· 281
〈그림 4-138〉 최근 3개월간의 인터넷 뉴스/토론 게시판 이용 ····· 283
〈그림 4-139〉 최근 3개월간의 인터넷 지식 서비스 이용 ····· 285
〈그림 4-140〉 최근 3개월간의 SNS 활동 ····· 287
〈그림 4-141〉 사용 중인 IT기기 ····· 289
〈그림 4-142〉 스마트폰 대수 ····· 291
〈그림 4-143〉 월평균 통신 요금 ····· 295
〈그림 4-144〉 통신요금 부담 정도 ····· 297
〈그림 4-145〉 최빈 사용 애플리케이션 ····· 299
〈그림 4-146〉 대학 소재지 ····· 301
〈그림 4-147〉 대학 입학(년) ····· 303
〈그림 4-148〉 대학 졸업(년) ····· 304
〈그림 4-149〉 전공 ····· 305
〈그림 4-150〉 복수/부전공 이수여부 ····· 307
〈그림 4-151〉 대학원 진학 의사 ····· 309
〈그림 4-152〉 대학원 진학 이유 ····· 310
〈그림 4-153〉 졸업 늦춘 경험 여부 ····· 312
〈그림 4-154〉 졸업 유예 이유 ····· 313
〈그림 4-155〉 휴학 경험 여부 ····· 315
〈그림 4-156〉 휴학 학기 ····· 316
〈그림 4-157〉 휴학 이유 ····· 318
〈그림 4-158〉 전공 공부(복수전공, 이중전공, 부전공 포함)를 위한 사교육 여부 ··· 320
〈그림 4-159〉 영어 사교육 여부 ····· 321
〈그림 4-160〉 제2외국어(영어 제외) 사교육 여부 ····· 322
〈그림 4-161〉 여타 취업 준비를 위한 사교육 여부 ····· 323
〈그림 4-162〉 대학 전반적 만족도 ····· 324

〈그림 4-163〉 대학 특별활동(동아리 및 소학회) 만족도 ····· 326
〈그림 4-164〉 대학 취업가능성 만족도 ····· 328
〈그림 4-165〉 대학 등록금 만족도 ····· 330
〈그림 4-166〉 학비 주 부담자 ····· 332
〈그림 4-167〉 학자금 대출 경험 여부 ····· 334
〈그림 4-168〉 학자금 대출 금액 ····· 335
〈그림 4-169〉 학자금 대출 유형 ····· 337
〈그림 4-170〉 대출 원금/이자 연체 경험 여부 ····· 339
〈그림 4-171〉 대출 원금/이자 부담 정도 ····· 340
〈그림 4-172〉 대학에 가지 않은 이유 ····· 342
〈그림 4-173〉 추후 대학 진학 의사 ····· 344
〈그림 4-174〉 지난 1주간 주로 경험한 활동 ····· 345
〈그림 4-175〉 일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주된 이유 ····· 347
〈그림 4-176〉 경제적 문제 해결 ····· 349
〈그림 4-177〉 현 직장 근무기간(개월 단위) ····· 351
〈그림 4-178〉 직장 위치(시/도) ····· 353
〈그림 4-179〉 출퇴근 시 이용 교통수단 ····· 355
〈그림 4-180〉 출퇴근 시간 ····· 357
〈그림 4-181〉 직장 형태 ····· 359
〈그림 4-182〉 종사상 지위 ····· 361
〈그림 4-183〉 사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 ····· 363
〈그림 4-184〉 응답자 특성별 창업과정에서 어려웠던 점 ····· 365
〈그림 4-185〉 창업훈련 경험여부 ····· 367
〈그림 4-186〉 고용형태 ····· 368
〈그림 4-187〉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이유 ····· 369
〈그림 4-188〉 전공분야와 일치 정도 ····· 371
〈그림 4-189〉 적응하는데 어려웠던 점 ····· 373
〈그림 4-190〉 현 직장에 들어가게 된 경로 ····· 375
〈그림 4-191〉 주당 정규 근로시간(시간) ····· 377
〈그림 4-192〉 주당 평균 초과 근로시간(시간) ····· 379

〈그림 4-193〉 주당 정규 근로일수(일) ····· 381
〈그림 4-194〉 주당 평균 초과 근로일수(일) ····· 383
〈그림 4-195〉 노동조합 가입여부 ····· 385
〈그림 4-196〉 현직장 전반적 만족정도 ····· 386
〈그림 4-197〉 현직장 업무 내용 만족도 ····· 388
〈그림 4-198〉 현직장 임금과 수입 만족도 ····· 390
〈그림 4-199〉 현직장 고용의 안정성 만족도 ····· 392
〈그림 4-200〉 현직장 일의 자율성과 권한 만족도 ····· 394
〈그림 4-201〉 현직장 일하는 시간(근로시간, 근무일수) 만족도 ····· 396
〈그림 4-202〉 현직장 사무실(작업장)의 물리적 근로환경 만족도 ····· 398
〈그림 4-203〉 현직장 직장동료 간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만족도 ····· 400
〈그림 4-204〉 일자리 이외에 다른 일 병행 여부 ····· 402
〈그림 4-205〉 병행하는 일자리 수 ····· 403
〈그림 4-206〉 이직 의향 ····· 405
〈그림 4-207〉 이직을 희망하는 주된 이유 ····· 406
〈그림 4-208〉 향후 1년 계획 ····· 408
〈그림 4-209〉 취업 준비 여부 ····· 410
〈그림 4-210〉 구직활동 여부 ····· 411
〈그림 4-211〉 성적 관리 유무 ····· 412
〈그림 4-212〉 외국어 스펙 유무 ····· 413
〈그림 4-213〉 자격증 유무 ····· 414
〈그림 4-214〉 해외경험, 직무경험 등 경험 유무 ····· 415
〈그림 4-215〉 수상경력 유무 ····· 416
〈그림 4-216〉 석·박사학위 유무 ····· 417
〈그림 4-217〉 봉사활동 경험, 동아리활동 등 활동 스펙 유무 ····· 418
〈그림 4-218〉 성적 관리 영향 정도 ····· 419
〈그림 4-219〉 외국어 영향 정도 ····· 421
〈그림 4-220〉 자격증 영향 정도 ····· 423
〈그림 4-221〉 경험 영향 정도 ····· 425
〈그림 4-222〉 수상경력 영향 정도 ····· 427

<그림 4-223> 활동 영향 정도 ····· 429
<그림 4-224> 석·박사학위 영향 정도 ····· 431
<그림 4-225> 구직정보를 얻는 경로(1+2+3순위) ····· 433
<그림 4-226> 취업준비/구직활동 시 어려웠던 점(1+2+3순위) ····· 435
<그림 4-227> 희망하는 직업 여부 ····· 437
<그림 4-228> 희망하는 이유 ····· 438
<그림 4-229> 일하고 싶은 기업 유형 ····· 440
<그림 4-230> 그 기업유형을 선택한 주된 이유 ····· 442
<그림 4-231> 창업 생각을 갖게 된 가장 큰 이유 ····· 444
<그림 4-232> 창업 여부 ····· 446
<그림 4-233> 공무원/공사/교원/국가자격시험 준비 경험 여부 ····· 447
<그림 4-234> 희망 연봉 ····· 448
<그림 4-235> 업무 독립성 중요도 ····· 450
<그림 4-236> 충분한 금전적 보상 중요도 ····· 452
<그림 4-237> 타인의 인정 중요도 ····· 454
<그림 4-238> 고용의 안정성 중요도 ····· 456
<그림 4-239> 업무의 유연성 중요도 ····· 458
<그림 4-240> 업무의 자율성 중요도 ····· 460
<그림 4-241>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 ····· 462
<그림 4-242> 아르바이트 횟수 ····· 463
<그림 4-243> 최초 아르바이트 시작 시기 ····· 465
<그림 4-244> 아르바이트 종류 ····· 467
<그림 4-245> 아르바이트를 한 주된 이유 ····· 469
<그림 4-246> 본의 명의 주거 마련 기대 시기 ····· 471
<그림 4-247> 공동주거 여부 ····· 473
<그림 4-248> 공동주거 의향 ····· 474
<그림 4-249> 자가 소유 집의 필요성 ····· 475
<그림 4-250> 자력으로 집 마련 가능성 ····· 477
<그림 4-251> 부모님의 도움 없이 집 마련 가능성 ····· 479
<그림 4-252> 거주지역 청결도 ····· 481

〈그림 4-253〉 인근 지역과 집값 비교 ····· 483
〈그림 4-254〉 거주 지역 인프라 ····· 485
〈그림 4-255〉 최대 소비 항목 ····· 487
〈그림 4-256〉 지출을 늘리고 싶은 항목 ····· 489
〈그림 4-257〉 계획적 소비 정도 ····· 491
〈그림 4-258〉 가족으로부터의 고정적 지원 여부 ····· 493
〈그림 4-259〉 지원 받는 금액 ····· 494
〈그림 4-260〉 가족에게의 고정적 지원 여부 ····· 496
〈그림 4-261〉 지원 하는 금액 ····· 497
〈그림 4-262〉 대학등록금 마련 계획 ····· 499
〈그림 4-263〉 결혼비용 마련 계획 ····· 501
〈그림 4-264〉 주택구입 비용 마련 계획 ····· 503
〈그림 4-265〉 분가 독립 후 생활비용 마련 계획 ····· 505
〈그림 4-266〉 특정 브랜드 선호 정도 ····· 507
〈그림 4-267〉 신제품 선호 정도 ····· 509
〈그림 4-268〉 외국 제품 선호 정도 ····· 511
〈그림 4-269〉 충동 구매 정도 ····· 513
〈그림 4-270〉 유행 습득 정도 ····· 515
〈그림 4-271〉 주요 상품 구매처 ····· 517
〈그림 4-272〉 외식 빈도 ····· 519
〈그림 4-273〉 한 달 평균 외식 비용 ····· 521
〈그림 4-274〉 부채 유무 ····· 523
〈그림 4-275〉 부채 금액 ····· 524
〈그림 4-276〉 키 ····· 526
〈그림 4-277〉 몸무게 ····· 528
〈그림 4-278〉 본인의 체형 정도 ····· 530
〈그림 4-279〉 주관적 건강 수준 ····· 532
〈그림 4-280〉 스트레스 정도 ····· 534
〈그림 4-281〉 숙면 정도 ····· 536
〈그림 4-282〉 수면시간 ····· 538

<그림 4-283> 규칙적 운동 빈도 ····· 540
<그림 4-284> 흡연 여부 ····· 542
<그림 4-285> 흡연 량 ····· 543
<그림 4-286> 음주 빈도 ····· 545
<그림 4-287> 외모의 중요도 ····· 547
<그림 4-288> 성형수술 여부 ····· 549
<그림 4-289> 우울감 여부 ····· 551
<그림 4-290> 규칙적 식사 ····· 552
<그림 4-291> 과일 및 야채 섭취 ····· 554
<그림 4-292> 체중 관리를 위한 식단 조절 ····· 556
<그림 4-293> 과식 정도 ····· 558
<그림 4-294> 야식 여부 ····· 560
<그림 5-1> 정책 참여율 및 도움정도 ····· 563
<그림 5-2> 청년바람지대(청바지) 인식 및 이용 경험 ····· 565
<그림 5-3> 청년실업의 원인 ····· 566
<그림 5-4> 고용위기 해법 ····· 566
<그림 5-5> 수원청년 정책욕구 ····· 567
<그림 5-6> 주요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 수준 ····· 569
<그림 5-7> 참여방식별 경험 및 참여의향 ····· 571
<그림 5-8> 사회참여에 대한 관심과 역량의 수준 ····· 571
<그림 5-9>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동의 수준 ····· 573
<그림 5-10> 성 평등에 관한 인식 ····· 574
<그림 5-11> 세대갈등 수준에 대한 인식 ····· 575
<그림 5-12> 수원시에 거주하는 이유 ····· 576
<그림 5-13> 연령대별 수원시에 거주하는 이유 ····· 576
<그림 5-14> 수원시에 대한 선호수준 ····· 577
<그림 5-15> 수원시에 대한 애착심 ····· 578
<그림 5-16> 수원시 청년들의 자기평가인식 ····· 578
<그림 5-17> 본인 및 본인의 부모님 계층인식 ····· 579
<그림 5-18> 성공하는데 필요한 조건 ····· 579

〈그림 5-19〉 성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자격요건 ····· 580
〈그림 5-20〉 친구 유무 및 친구의 수 ····· 582
〈그림 5-21〉 친구 및 지인과의 만남 횟수(한 달 평균) ····· 582
〈그림 5-22〉 결혼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 ····· 583
〈그림 5-23〉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1+2순위) ····· 584
〈그림 5-24〉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님 댁 방문 빈도 ····· 585
〈그림 5-25〉 가족 관계에 대한 만족도 ····· 585
〈그림 5-26〉 평일에 즐기는 여가활동 순위 ····· 587
〈그림 5-27〉 휴일에 즐기는 여가활동 순위 ····· 587
〈그림 5-28〉 문화예술 관람 여부 ····· 588
〈그림 5-29〉 문화예술 관람 지역 ····· 589
〈그림 5-30〉 관람 시 판단기준 ····· 589
〈그림 5-31〉 지난 1년 동안 독서량(권) ····· 590
〈그림 5-32〉 월평균 통신요금(만원)과 부담 수준 ····· 590
〈그림 5-33〉 자주 이용하는 어플리케이션(1+2+3순위) ····· 591
〈그림 5-34〉 졸업유예 경험 및 이유 ····· 591
〈그림 5-35〉 휴학 이유 ····· 592
〈그림 5-36〉 학자금 대출 유형 ····· 592
〈그림 5-37〉 대학시절 사교육 경험 여부 ····· 593
〈그림 5-38〉 대학원에 진학하는 이유 ····· 593
〈그림 5-39〉 수원시 청년들의 경제활동 현황 ····· 594
〈그림 5-40〉 취업자들의 종사상 지위 ····· 594
〈그림 5-41〉 현 직장에 대한 항목별 만족도 ····· 596
〈그림 5-42〉 종사상 지위별 현 직장에 대한 전반적 만족 ····· 597
〈그림 5-43〉 사업을 시작한 이유 ····· 598
〈그림 5-44〉 창업과정 중 어려웠던 점 ····· 598
〈그림 5-45〉 현재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주된 이유 ····· 599
〈그림 5-46〉 미취업자들의 향후 계획(N=351) ····· 600
〈그림 5-47〉 수원시 청년들이 보유하고 있는 취업역량(스펙) ····· 600
〈그림 5-48〉 각 취업역량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력 수준 ····· 601

<그림 5-49> 구직정보 획득 경로(1+2+3순위) ····· 601
<그림 5-50> 일하고 싶은 기업유형 ····· 603
<그림 5-51> 희망 일자리 유형의 선택 이유(창업, 기타 응답자 제외) ····· 604
<그림 5-52> 창업하자는 생각을 갖게 된 이유(창업 선택자만) ····· 604
<그림 5-53> 직업선택 시 주요 고려사항 ····· 605
<그림 5-54> 경험했던 아르바이트 유형(복수응답) ····· 606
<그림 5-55> 아르바이트를 한 이유 ····· 606
<그림 5-56> 자가 마련을 위해 필요한 시간 ····· 607
<그림 5-57> 현 거주지역에 대한 인식 ····· 608
<그림 5-58> 주요 지출 항목 ····· 609
<그림 5-59> 재정상황 개선 시, 지출을 증가할 항목 ····· 609
<그림 5-60> 부채 수준 현황 ····· 610
<그림 5-61> 주요 항목에 대한 비용마련 계획 ····· 611
<그림 5-62>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 수준 ····· 612
<그림 6-1> 정책 운영방향 ····· 619
<그림 6-2> 향후 정책과제 ····· 622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청년들의 불안정한 삶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함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에 따르면 청년층 취업경험자들의 첫 취업 평균소요기간은 2015년 11개월에서 2016년 11.2개월로 늘어났고 실업률 또한 증가하는 추세임
- 실업자뿐 아니라 취업시험 준비자 또한 2007년 53만 명에서 2016년 65.2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청년층 임금근로자는 비정규직 비중이 높아 고용의 질도 낮음

○ 청년 문제의 양상은 청년 고용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삶 전반에 걸친 문제로 확대되고 있음
- 청년유니온의 2016 구직자 실태조사에서 청년 구직자의 한 달 생활비는 불과 84만원에 불과한데 이중 식비와 주거비로 거의 절반을 소비하고 있음
- 더 심각한 것은 응답자의 36%가 본인 명의의 부채를 갖고 있다는 것임. 사유는 주로 등록금으로 평균 부채는 1,201만원에 달하고 있음.
- 청년들의 삶의 질적인 면도 좋지 않은데 19~29세의 아침 식사 결식률이 가장 높았으며 다른 연령대에 비해 신선한 식재료의 섭취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질병관리본부, 2015 국민건강영양조사)

○ 청년 관련 정부 통계가 존재하지만 대체로 고용 문제에 초점을 맞춘 실태조사이거나 특정 주제에 대한 조사로서 다양한 맥락이 반영된 청년들의 삶 전반을 파악하기 어려움

○ 수원시 청년 정책 비전과 목표, 분야별 전략과제들을 수립하는 등 수원형 청년정책을 모색해 오고 있으나 현재는 수원시의 청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임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시행한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가 가장 전반적인 청년들에 대한 조사이지만 전국표본 2,534명, 경기도 564명으로 수원시 정책의 기초자료로 쓰기 어려움
- 한편으로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을 정량적으로도 파악할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음

○ 수원지역의 청년 현실에 대해 이해하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원형 청년정책」 수립과 정책 발굴을 위해서 청년 문제의 양상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수원 청년들의 현실을 다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원 청년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토대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원청년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토대를 구축하고자 함

제2절 연구방법 및 수행절차

1. 연구방법

○ 자료수집 및 문헌연구
- 기존 청년관련 통계 데이터 및 정책 현황 수집
- 성인기 이행 관련 이론적 관점 및 청년 지표, 이슈 검토

○ 전문가 자문
- 이론적으로 청년 대상 연구를 수행해 온 학계 전문가 및 연구자, 실무적으로 현장 전문가 및 정책 전문가 등

○ FGI 조사
- 모집단과 표본추출 틀을 파악할 수 없는 수원 소재 청년단체 활동 청년 및 직장인 (수원시 비거주자)

○ 설문조사
- 수원시 거주 청년 및 수원 소재 대학의 대학생을 대상

○ 2차 자료 비교 분석
-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와 기존 청년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의 데이터 비교 분석

2. 연구 수행절차

1) 수원청년 기본현황의 수집 및 분석

■ 기초 현황

○ 수원 거주 청년의 현황을 파악하는 기초항목 : 행정구동별, 연령별, 성별 현황 등 기초자료

○ 경제 활동 현황을 파악하는 기초자료 :: 경제 활동 여부, 고용 여부 및 직업 등에 따른 경제 수준과 생활 여건 등

○ 생활 실태를 파악하는 기초자료 : 거주, 이동, 공간이용, 문화향유, 청년단체 및 동아리 등

■ 정부통계 분석

○ 고용 및 실업 통계 등 분석

○ 고용 현황 및 고용 여건 등 분석

○ 대졸자 이동경로 조사, 청년 패널 등 분석

2) 수원 청년비전 4대 분야 현황 조사 및 분석

■ 청년다움 분야
- ○ 사회활동 현황, 청년 소득수준
- ○ 수원 생활환경 만족도, 타 지역 이주여부, 수원의 도시이미지, 정치관심도 및 참여, 정치성향 등
- ○ 지역청년들의 자존감 정도와 자아정체성 형성 과정
- ○ 수원시 청년정책 방향, 청년바람지대, 청년정책 인지도 등

■ 발돋움 분야 현황 조사 및 분석
- ○ 진로결정, 취업교육 및 준비, 직업선택 시 고려사항
- ○ 근로경험/취업관련 희망, 고용형태·월 급여·만족도·이직 등
- ○ 직업에 대한 인식, 직업 선택의 기준
- ○ 직업과 진로 정보 취득 및 일자리 선택 경로
- ○ 계층별・경제수준별 직업관과 진로관 등

■ 비움채움 분야 현황 조사 및 분석
- ○ 가구소득, 개인지출 현황, 학자금 대출 등 개인 부채현황
- ○ 청년주거실태, 청년주거비용 등

■ 즐거움 분야 현황 조사 및 분석
- ○ 지역청년 문화향유 활동, 여가생활 등
- ○ 청년 이용 공간 실태, 공간에서의 활동 및 프로그램, 이용 만족도 등
- ○ 지역의 문화 관련 인력 수요 및 내용
- ○ 사회관계망 형성, 교류활동 유형과 내용, 네트워크 구성 정도

3) 종합실태분석에 따른 전략별 정책제언

- ○ 전략1(청년다움)의 지역인식 및 사회참여 실태조사를 수행을 통해 사회참여 확대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
- ○ 전략2(발돋움)의 청년고용 실태조사를 수행을 바탕으로 일자리 진입지원 및 안전망 구축 기반을 마련을 위한 정책 제언
- ○ 전략3(비움채움)의 청년주거 실태조사를 수행을 바탕으로 생활안정 및 주거 자립성 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
- ○ 전략4(즐거움)의 지역문화 환경 및 라이프스타일 실태조사를 통해 문화정체성 확립 및 소통교류망 구축을 위한 정책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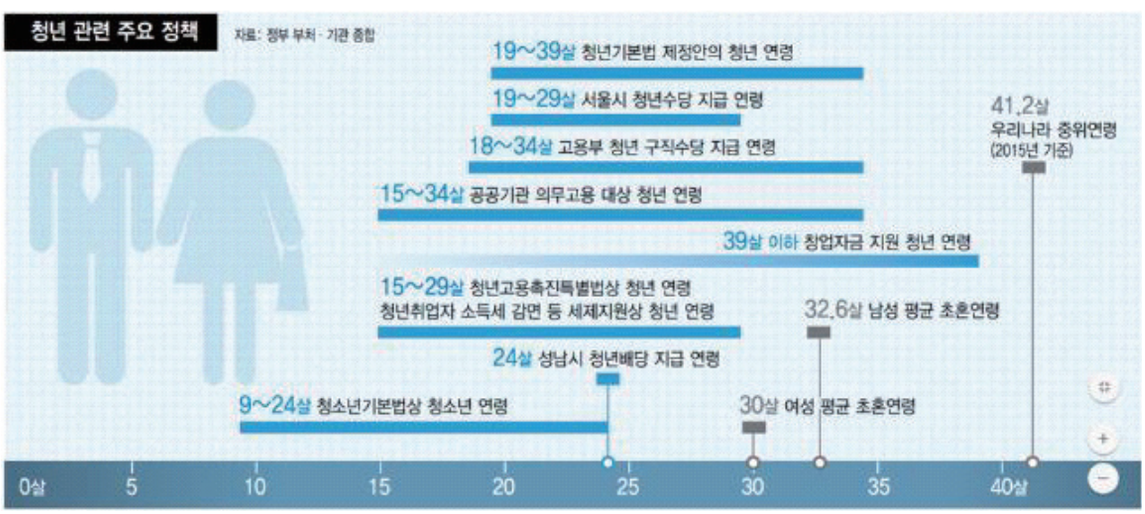
제2장 연구 배경

제1절 청년 개념

■ 청년(Youth)에 대한 단일한 연령 기준의 부재

○ 청년 연령 집단에 관한 정의는 사회마다, 시대에 따라,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 청년층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는데, 상황에 따라 각자 상이한 연령 기준으로 청년대책이 수립됨



<그림 2-1> 청년 관련 주요 정책

자료: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61748.html

1. 법령 및 정책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는 15세~29세를 뜻하며,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경우에는 15세~24세로 규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6.9.13.] [대통령령 제27497호, 2016.9.13., 일부개정]

제2조(청년의 나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10.30>

[전문개정 2009.12.15.]

○ 대다수의 국제기구들이 유스(youth) 통계를 15세에서 24세로 제시하지만, 군입대와 높은 대학진학률 등 한국사회의 특성을 반영하여 29세까지로 규정

○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에서는 청년을 19세~39세로 규정

- 「민법」(법률 제13125호) 제4조에서 성년 기준을 20세에서 19세로 변경한 것을 반영, 또한 창업 지원 연령에서 청년 대상이 39세까지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령기준을 확대

○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및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19~29세를 청년으로 규정, 청년 창업 지원 조례는 20~39세를 청년으로 규정

- 경기도 청년 실태조사(가족여성연구원, 2017.2) : 20~34세 이하의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 총 1,200명

○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

-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되, 개별사업 및 활동의 성격과 관련 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표 2-1> 20대 국회 청년기본법 비교

(17’ 2월 기준)

명칭	청년기본법안	청년정책기본법안	청년기본법안	청년발전기본법안	청년기본법안
대표발의	신보라 외 121인	박홍근 외 9인	이원욱 외 9인	김해영 외 11인	박주민
제안일자	2016.05.30	2016.08.17	2016.08.24	2016.12.02	-
소관위	기재위	여가위	여가위	여가위	기재위
연령기준	19~39세	19~34세	19~39세	19~34세	19~34세

2. 국외 청년 연령 및 학계 연구

1) 국외 청년(youth) 연령

○ 국제연합(U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World Bank), 국제노동기구(ILO), 세계보건기구(WHO) 등은 15세에서 24세를 기준으로 청소년 혹은 청년 통계를 제시하고 있음

○ 현재 Youthpolicy.org는 전세계 189개국가(사회)의 청소년 및 청년 대상 정책 현황을 국가별로 정리해 제시하고 있음

○ 청(소)년연령을 대다수 국가들이 15세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상한연령은 30대를 포괄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성인기로의 이행이 지연되고 있는 현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됨

○ 유럽의 청년보장정책(Youth Guarantee)은 정책 대상을 25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음

○ 국제연합(U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World Bank), 국제노동기구(ILO), 세계보건기구(WHO) 등은 15~24세를 기준

○ 일본은 19~34세로 청년을 정의하고 있음

<표 2-2> 전 세계 청소년 및 청년(youth) 대상 하한-상한 연령

하한 연령		상한 연령	
구분	국가 수	구분	국가 수
0세부터	14	19세 이하	3
1~9세	7	20~24세	21
10~14세	48	25~29세	62
15~20세	111	30~34세	48
21세 이상	0	35~39세	43
		40세 이상	3

자료 : 김기헌 외(2017), <청년 사회• 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 청년 연구

○ Arnett(2000; 2004; 2006)은 새로운 인생단계로서 '발현성인기(emerging adulthood)' 이론을 제안하고, 18~25세에 초점을 맞춤

○ 유럽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후기 청소년기(post-adolescence)' 이론에서는 주로 20~29세 사이를 주목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5)에서는 후기청소년정책의 대상으로 20대를 선정하여, 19~29세를 조사함

○ 정수남 외(2012)는 빈곤 청년 연구의 조사대상자로 19세~29세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선정

제2절 국가통계 상의 청년 실태

1. 청년관련 정부통계 현황

○ 청년대상 조사는 주로 고용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음

<표 2-3> 청년관련 정부통계 현황

조사명	조사기관	조사내용	조사대상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부가조사)	통계청	본 조사는 국민의 경제활동 (취업, 실업, 노동력 등) 특성을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청년층 (15~29세) 부가 조사는 취업실태를 세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학교, 직업교육 및 직장체험, 첫 일자리(직장), 지난주/가장 최근 일자리(직장), 미취업 등에 대하여 조사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섬 및 시설 단위 조사구를 제외한 27,011개 보통 조사구 및 아파트 조사구를 지역별 층화를 통해 약 33,000가구 선정
생활시간조사	통계청	가구 관련 사항, 개인 관련 사항 (주관적 만족감, 가사 분담에 대한 만족도), 시간일지(시간 활용 만족도, 건강상태, 휴일여부, 방문자, 작성 방법 등) 조사	조사시점 현재 전국에 거주하는 만10세 이상 가구원 약 27,000명 표본
청년패널조사 (Youth Panel)	한국고용정보원	패널 유형에 따라 설문지 설계가 다르지만 가구용 설문은 모든 유형 공통 설문이며, 가계 배경, 학교생활, 사회· 경제 활동 등에 대한 조사	만 15세~29세 청년층 8,296명(1차, 2001년)으로 (중)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미취업자/취업자로 구성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 (GOMS)	한국고용정보원	교육 과정, 구직활동, 일자리 경험, 직업훈련, 자격증, 개인신상정보 및 가계 배경 등 노동시장 진입 및 정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 조사	전문대학 이상 고등교육 과정을 이수한 졸업자 26,544명 (1차 2006년)
청년 사회· 경제 실태조사	한국 청소년 정책 연구원	청년들의 생활 실태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7개 영역의 조사로 구성하였는데, 인구와 가족, 교육, 경제, 주거, 건강, 문화와 가치관, 관계와 참여를 조사	국내에 거주하는 만 15세~39세 국민 2,534명 (2016년)

자료 :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한국고용정보원(http://survey.keis.or.kr/),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http://www.nypi.re.kr/)

■ 청년들의 생활실태 전반을 파악하려는 조사로는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가 있음

○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에서 2013년도에 시작

○ 2016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으로 조사 주체가 변경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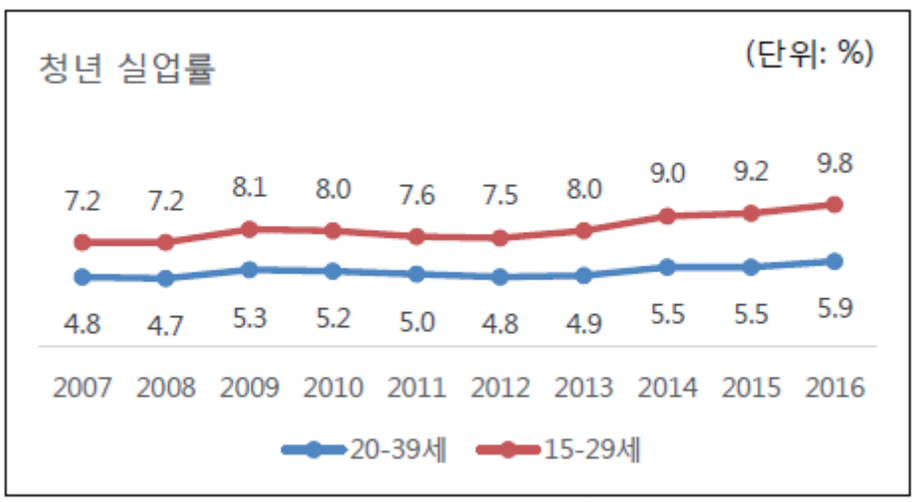
○ 만 15~39세 국민을 대상으로 인구와 가족, 교육, 경제, 주거, 건강, 문화와 가치관, 관계와 참여의 7개 영역으로 청년들의 생활실태 전반을 파악하고 있음

2. 고용 및 실업통계

○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에 따르면, 청년층 취업경험자들의 첫 취업 평균 소요기간은 2015년 11.0개월에서 2016년 11.2개월로 증가하였고, 첫 직장 근속기간은 1년 6.7개월임

○ 2016년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9.8%이며, 20~39세의 실업률은 5.9%로 증가하는 추세임

○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의 비율을 의미하므로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하면 그 비율은 더 확대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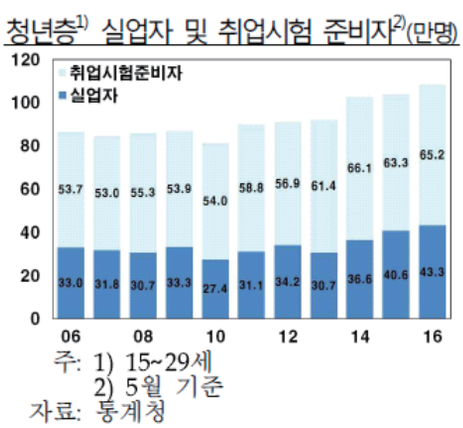
<그림 2-2> 청년 실업률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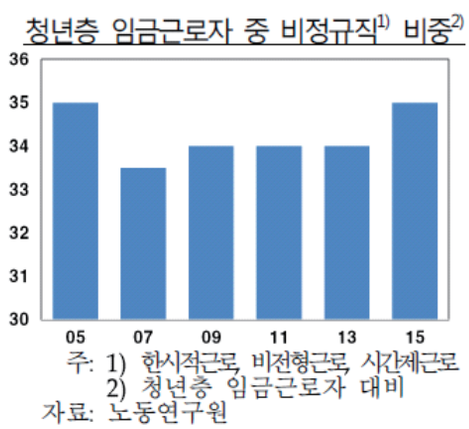
○ 청년층 실업자 뿐만 아니라 취업시험 준비자 또한 꾸준히 증가 ('07년 53.0만명 → ' 16년 65.2만명) 하고 있어 청년층이 체감하는 고용상황 역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시험준비자는 65만 2000명(13.1%)로 전년 동월 대비 0.8% 포인트 상승
- 그 중 일반직 공무원을 준비하는 청년이 25만 7000명인 39.3%로 집계됨

○ 또한 청년층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이 높고, 정규직 전환율이 낮아서 청년층의 첫 취업 평균 소요기간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그림 2-3> 청년층 실업자 및 취업시험 준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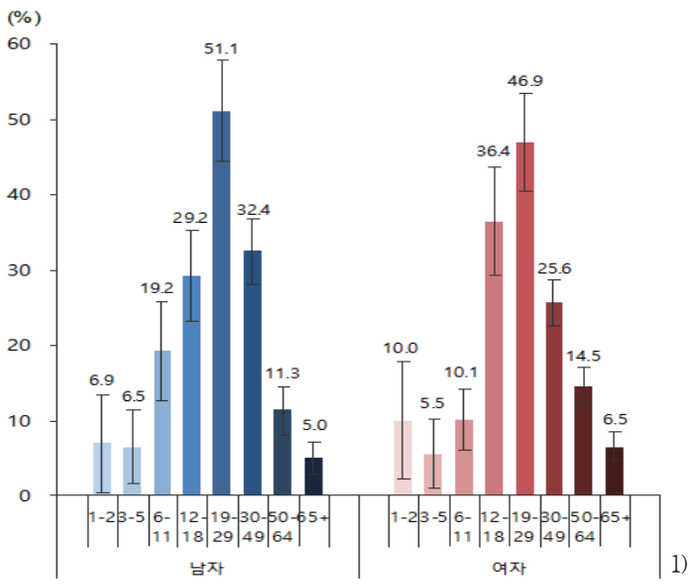
<그림 2-4> 청년층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

자료 : 오은실 외(2016), <EU 주요 국가의 청년고용 현황 및 시사점>, 한국은행
자료 : http://www.weekly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48369

3. 청년 생활실태

○ 질병관리본부의 <2015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전 연령대 가운데 19~29세의 아침식사 결식률이 가장 높았으며, 20대 남녀 모두 절반 가까이(남51.1%,여46.9%) 아침식사를 거르는 것으로 나타남

○ 과일 및 채소 1일 500g 이상 섭취자 비율을 살펴보면, 19-29세가 28.8%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신선한 식재료의 섭취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2-5> 아침식사 결식률 (만1세 이상)

자료: 질병관리본부국민건강영양조사(https://knhanes.cdc.go.kr/knhanes/index.do)

<표 2-4> 과일 및 채소 1일 500g 이상 섭취자 비율

연령(세)	빈도	%(sd)
6-9	295	22.6(2.6)
10-18	681	25.3(2.0)
19-29	661	28.8(2.2)
30-39	718	38.6(1.8)
40-49	904	48.0(2.0)
50-59	1,081	54.9(2.0)
60-69	960	53.8(2.2)
70+	982	32.3(1.9)

자료: 질병관리본부국민건강영양조사(https://knhanes.cdc.go.kr/knhanes/index.do)

1) 아침식사 결식률 : 조사 1일 전 아침식사를 결식한 분율

○ 청년유니온이 발표한 <2016 구직자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 달 생활비가 약 84만원으로 나타났는데, 항목별로는 식비 23만원, 주거비 21만원을 지출하고 있음

○ 전체 응답자 483명 가운데 부모나 가족으로부터 생활비·교육비를 지원받는 경우는 344명이었고, 월 평균 약 47만원을 받고 있음

○ 응답자의 36%가 본인명의의 부채를 가지고 있으며, 사유는 주로 등록금(87%)으로 나타났고, 부채가 있는 경우 총액은 평균 1,201만원으로 나타남

<표 2-5> 청년 구직자의 항목별 생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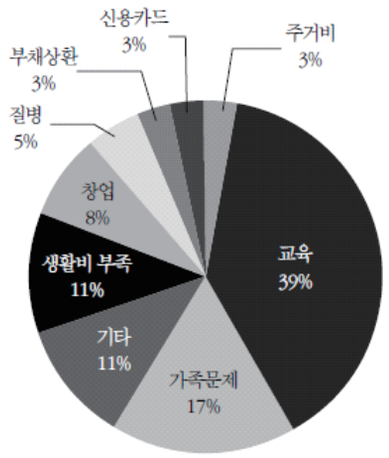
항목	응답수(명)	평균(만원)
주거비	411	21.1
교통비	470	8.0
통신비	465	7.0
식비	464	23.0
교육비	415	14.3
문화/여가비	456	10.1
학습공간비	409	6.7
생활비합계	**473**	**83.8**

자료 : 김영민 (2017), <구직자 실태조사 결과와 청년취업지원정책의 방향> , 청년유니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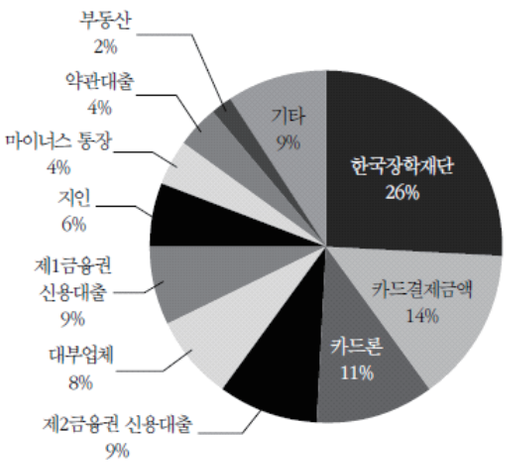
○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에서 20~30대 성인 남녀 1,774명을 대상으로 '사회 진출 전 빚진 경험'을 조사한 바 있는데, 응답자의 39.1%가 빚진 경험이 있었고, 이들 중 12.6%가 신용불량 기록까지 있었음

○ 금융정의연대, 토닥토닥협동조합, 에듀머니가 2013년 6월부터 9월까지 서울 지역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빚이 있는 35세 미만의 미혼자 807명 대상 설문조사 실시

- 부채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은 교육비
-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이 절반으로 상환 가능성 낮음



<그림 2-6> 부채 발생 원인



<그림 2-7> 대출이용기관

자료 : 최계연(2014), <빚쟁이 청년들 : 청년부채 실태조사 및 대안 제시>, 월간 복지동향

<표 2-6> 2016년 청년 사회 · 경제 실태 지표체계

구분	분류
인구와 가족	청년층 인구수, 혼인율, 초혼 연령 등
교육	대학등록금, 졸업 유예, 대학교육 졸업 후 취업 도움 정도 등
경제	경제활동 참여율, 청년 고용대책 의견, 직무 불일치, 최저임금 등
주거	청년 가구 비율, 청년 주거 대책 의견 등
건강	일상생활 스트레스, 정식적 문제, 청년 의료비 지출 등
문화와 가치관	여가생활, 여가활동 대상, 계층의식, 생활 만족도 등
관계와 참여	세대갈등, 좋은 시민 행동 의견, 정치 성향 등

자료 : 김기헌 외(2017), <청년사회 · 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4. 청년 관련 정책사업 현황

○ 청년사회· 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김기헌 외, 2017)에서는 청년 관련 기본계획이나 종합대책 중 청년 과제를 담고 있는 것을 11개로 정리하고 있음

<표 2-7> 청년 관련 정책사업 현황

소관부처	계획 및 대책	청년 관련 정책 과제
여성가족부	제1차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	청년층 여성의 경력개발지원 확대 청년기 여성의 건강지원 확대 양성평등 진로 및 직업의식 교육
고용노동부	제4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인프라 구축 청년층 시험고용 확대 및 장년 적합직종 개발
보건복지부	제1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사회서비스 분야 공공부문 청년일자리 확대 공공기관 청년 의무고용제 실시 청년 채용형 인턴제 확대 청년 창업 활성화 청년의 해외진출 기회 확대 선취업 후진학 체제 강화 일학습병행제 추진 중소기업 취업 맞춤형 인력양성 지원
교육부	산학협력 활성화 5개년 기본계획	대학원생 기술창업 촉진 대학 내 창업교육 내실화 창업 경험·노하우 공유 및 창업도전자 우대 창업 재도전 기회 제공
국토교통부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 방안	신혼부부·대학생 수요 맞춤형 주택공급 청년층 특화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고용노동부	해외취업 촉진대책	현지 청년 사업가 성장기회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	청장년 열린 독서환경 조성
보건복지부	제3차 저출산· 고령화 사회 기본계획	민간의 청년일자리 창출 노력 적극지원 청년 해외취업 촉진 및 해외일자리 영토 확대 청년의 기술창업 활성화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고용지원 인프라 확충 청년 예비부부 주거 지원 강화
여성가족부	제4차 여성정책 기본계획	청년층 창업지원 확대 공공부문 청년인턴의 정규직 전환 및 여성친화적 청년인턴 사업 확대 여대생 경력개발지원 확대 여성 1인가구 및 저소득 청년여성 주거안전 지원 청년여성인재의 주요 국제기구 인턴십 진출 지원 강화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중소기업청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	공공기관 의무적 청년고용 비율조상의 일몰기한 연장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청년인턴제 우량기업 인증제도 도입 대학생 장기현장실습제 도입 확대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확대 중소기업 취업 장려 장학금 확대 중소기업 청년고용 확대 유도 청년 일자리 사업 통폐합 재정지원 대상 청년 연령기준 확대 청년내일찾기 패키지 신설 청년고용 + 센터 확대 청년 해외취업 촉진
고용노동부	청년·여성취업연계강화방안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자산형성 지원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대출상환 부담 완화 청년 친화 강소기업 및 우수 훈련과정 엄선 청년의 조기 진로탐색 지원

자료 : 김기헌 외(2017),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제3절 수원시 청년 관련 현황

1. 인구현황

○ 수원시 거주 청년 비율은 약 31.8%, 수원 소재 주요 대학의 재학생은 약 4만명

<표 2-8> 수원시 거주 청년 비율

	수원시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전체인구(명)	1,194,074	295,445	358,768	197,950	341,911
청년인구(명)	380,028	86,538	116,356	61,020	116,114
청년비율(%)	31.8	29.3	32.4	30.8	34.0
남(%)	32.8	30.5	33.3	32.0	34.6
여(%)	30.8	28.0	31.6	29.6	33.3

자료: 통계로 보는 수원 - 인구 - 5세 계급별 인구현황에서 20-39세 연령인구 가공

<표 2-9> 수원 소재 주요 대학 재학생

대학	계	경기대학교	아주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수원캠퍼스)	동남보건 대학교	수원여자 대학교
2014	39,723	12,234	9,988	7,976	5,036	4,489
2015	39,782	12,354	9,954	7,938	4,973	4,563
2016	38,855	12,099	9,580	7,818	4,892	4,466

자료: 대학알리미, 각 학교 데이터 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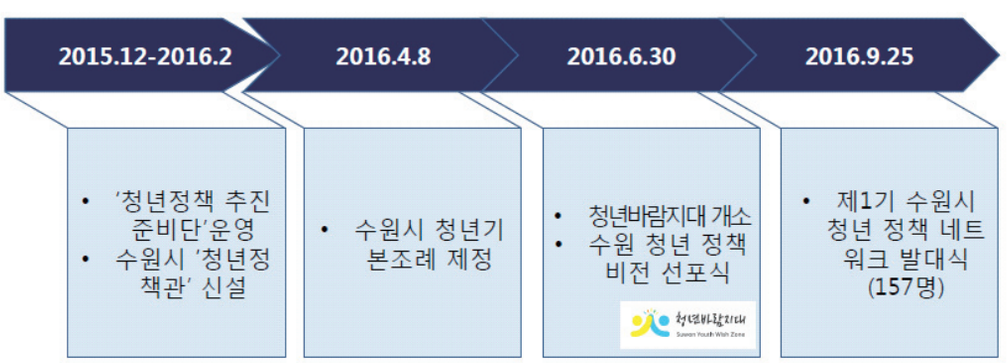
2. 청년 정책 추진 현황

○ 수원시 청년정책관 신설(2016.2.25)

○ 수원시 청년기본조례 (제3518호)를 통해 ‘수원청년바람지대 ‘ 개소 및 수원형 청년정책 비전 선포식 진행

○ 수원시 청년정책 네트워크 구성 운영 (157명, 2016.9.25)

○ 청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청년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31명)



<그림 2-8> 수원시 청년 정책 추진 현황

3. 수원시 청년정책 목표 및 방향

<그림 2-9> 수원시 청년정책 방향

4. 세부 실행사업

<표 2-10> 세부 실행사업

세 부 사 업 명		소요예산 (백만원)	관련부서	비고
4대 전략 42개 사업		**12,531 (단기:9,017, 중기:2,597, 장기:917)**		
청 년 다 (움)		**142 (단기:72, 중기:70 장기:-)**		
1-1	수원청년「행복한 삶 만들기 Project」추진	30	청년정책관	중기
1-2	내일의 리더 만들기!「통섭형 인재양성 프로그램」운영	20	청년정책관 교육청소년과	단기
1-3	AFTER YOU, 아주 희망 프로그램 사업참여 지원	기부・모금 등	청년정책관,자치행정과 교육청소년과	중기
1-4	서울대 부지「청년(시민)휴식공간」조성	협약 후 편성	정책기획과,공원관리과, 체육진흥과	장기
1-5	생애주기별・계층별「맞춤형 탄탄교육」	미정	교육청소년과,자치행정과 여성정책과,일자리정책과	장기
1-6	이주배경(다문화) 청년 기술력 향상 및 전문가 양성	25	여성정책과	단기
1-7	청!심!환(청년 심신안정 환경) 프로그램 운영	27	4개 보건소	단기
1-8	수원청년 인권보호 마스터 플랜 구축	40	감사관, 청년정책관, 기업지원과	중기
발 돋 (움)		**9,115 (단기:7,575 중기:1,490, 장기:50)**		
2-1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사업	200	청년정책관	단기
2-2	취업청년 직무능력 향상「맞춤형 교육」지원	50 (2017년)	청년정책관,기업지원과	중기
2-3	열정발산! 청년취업「길거리캐스팅」도입	10	청년정책관,일자리정책과	중기
2-4	헤드헌팅「청년인력뱅크제」운영 및 구인·구직 강화	30 (2017년)	청년정책관, 일자리정책과	중기
2-5	청년「세상 밖 풍경 보기!」 현장 체험	50 (2017년)	청년정책관, 일자리정책과	장기
2-6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 「글로벌 현장학습」공모사업 지원	400	교육청소년과	중기
2-7	청년 해외취업 프로그램 운영(일본)	429	일자리정책과	단기
2-8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지원대책 추진	973	일자리정책과	단기
2-9	대학생 및 청년층 인턴 사업	510	일자리정책과	단기
2-10	혁신형 창업자 발굴을 위한 「2016 수원 창업아이디어 오디션」개최	60	일자리정책과	단기
2-11	청년사업가 해외교류 사업 지원	70	기업지원과	단기
2-12	미래산업 콘텐츠 활성화 지원	110	기업지원과	단기
2-13	전통시장 청년 상인점포 개설 지원	300	경제정책과	단기
2-14	2016. 수원 영동시장 청년몰 조성	1,350	경제정책과	단기
2-15	수원남문시장 야시장 조성	1,000	경제정책과	중기
2-16	청년창업 푸드트럭 추진	300	정책기획과, 경제정책과	단기
2-17	지역의 우수인재 채용을 위한 청년 멘토링	10	행정지원과	단기
2-18	청년 장애인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 운영	3,263	장애인복지과	단기
비 움 채 (움)		**1,747 (단기:247, 중기:700, 장기:800)**		
3-1	민·관 협력「수원의 宿」장학관 사업	80 (2017년)	청년정책관	중기
3-2	희년 (jubilee)「청년부채탕감」사업추진	기금・후원 등	청년정책관, 자치행정과	중기
3-3	수원형 「대학생 반값 등록금」지원	800 (2017년)	청년정책관	장기
3-4	「청년안심 희망대출」수원시 보증인제 실시	비예산	청년정책관	중기
3-5	수원청년 「보통의 행복한 삶」회복사업	600	청년정책관, 교육청소년과, 사회복지과, 자치행정과	중기
3-6	청년임차인 보호「보금자리 지킴이」추진	20	토지정보과, 청년정책관	중기
3-7	희망두배「일하는 청년통장」사업	247	사회복지과	단기

세 부 사 업 명		소요예산 (백만원)	관련부서	비고
즐 거 (움)		1,527 (단기:1,123, 중기:337, 장기:67)		
4-1	「수원 청년 아티스트 나르샤」 프로그램	267	문화예술과, 공보관, 청년정책관	중기
4-2	대학생(청년) 주민참여예산제 시범운영	비예산	예산재정과	단기
4-3	수원형「청년특구」조성사업	67	청년정책관, 문화예술과, 경제정책과	장기
4-4	청년문제 인식확산을 위한 시민운동 전개	20 (2017년)	청년정책관	중기
4-5	전국청년활동가 컨퍼런스(Conference) 개최	20 (2017년)	청년정책관	중기
4-6	수원 청년 소통・교류 확대 및 자치역량 강화	1,100	청년정책관	단기
4-7	수원시 청년정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18	청년정책관	단기
4-8	아름다운 청년! 고마운 기업! 선정 시상	5	청년정책관	단기
4-9	수원청년 백서 제작	30	청년정책관	중기

제3장 FGI 조사

제1절 조사 개요

1. 일시

- 1차 : 2017년 7월 25일(화) 19:00~21:00
- 2차 : 2017년 7월 27일(목) 19:00~21:00
- 3차 : 2017년 8월 01일(화) 19:00~21:00
- 4차 : 2017년 10월 12일(목) 16:00~18:00
- 5차 : 2017년 10월 18일(수) 20:00~22:00
- 6차 : 2017년 10월 27일(금) 16:00~20:00

2. 장소

- 수원시정연구원 공동연구실

3. 주요 내용

- 출퇴근 시간 및 과정, 현재 거주지, 이사 경험 등
- 수원 외 지역에 거주하는 이유
- 직장생활 이외 수원시에서 하는 활동
- 수원시에 대한 이미지 또는 인식
- 청년정책에 대한 인지 및 인식 등

제2절 조사 대상자

- 1차 : 대기업 종사자 (3인)
- 2차 : 공공기관 종사자 (2인)
- 3차 : 중소기업 및 자영업 종사자 (5인)
- 4차 : 타지역 출신 대학생 (5인)
- 5차 : 수원시 거주 타지역 근무자 (6인)
- 6차 : 수원시 청년창업지원 관련정책 경험자 (4인)

<표 3-1> 조사 대상자 특성표

번호	이름	연령	성별	거주지	출생지	혼인 여부	해당 그룹
1	김OO	20대	여	경기 화성	부산	기혼	대기업
2	김OO	30대	남	서울	대구	기혼	대기업
3	김OO	30대	여	경기 화성	전북 전주	미혼	대기업
4	남OO	30대	여	경기 오산	서울	미혼	공공기관
5	정OO	30대	여	수원 (경기 안산)	경남 창원	미혼	공공기관
6	김OO	30대	여	경기 오산	경기 동두천	기혼	중소기업 및 자영업
7	박OO	20대	여	경기 안양	서울	미혼	중소기업 및 자영업
8	박OO	20대	여	서울	서울	미혼	중소기업 및 자영업
9	유OO	30대	남	경기 오산	충남 아산	기혼	중소기업 및 자영업
10	최OO	30대	여	경기 고양	서울	기혼	중소기업 및 자영업
11	심OO	20대	여	기숙사 (수원)	인천	미혼	대학생
12	이OO	20대	남	안양	안양	미혼	대학생
13	이OO	20대	여	기숙사 (수원)	전북 김제	미혼	대학생
14	이OO	20대	여	안산/수원	안산	미혼	대학생
15	최OO	20대	남	성남	성남	미혼	대학생
16	강OO	30대	여	수원	수원	미혼	수원거주 타지역 직장
17	권OO	20대	남	수원	분당	미혼	수원거주 타지역 직장
18	이OO	20대	남	수원	수원	미혼	수원거주 타지역 직장
19	이OO	30대	남	수원	전북	미혼	수원거주 타지역 직장
20	전OO	30대	남	수원	수원	미혼	수원거주 타지역 직장
21	정OO	20대	여	수원	수원	미혼	수원거주 타지역 직장
22	김OO	20대	여	수원	수원	미혼	수원시 청년창업지원 관련 정책 경험자
23	안OO	30대	남	수원	수원	미혼	수원시 청년창업지원 관련 정책 경험자
24	오OO	30대	남	수원	서울	미혼	수원시 청년창업지원 관련 정책 경험자
25	임OO	30대	남	수원	구미	미혼	수원시 청년창업지원 관련 정책 경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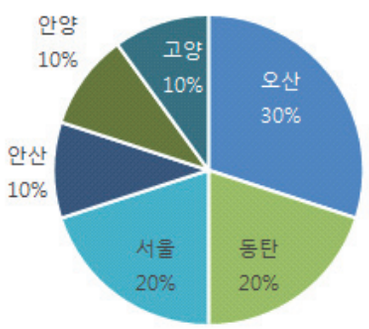
제3절 주요 조사 내용

1. 거주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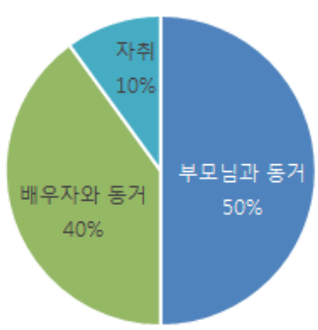
1) 거주 사유

○ 수원 외 지역 거주자의 경우, 과반수 이상의 대상자들이 직장에 가깝게 살기를 선호
- 본인 또는 배우자 등 가족 구성원의 직장 때문에 현재 거주지 선택(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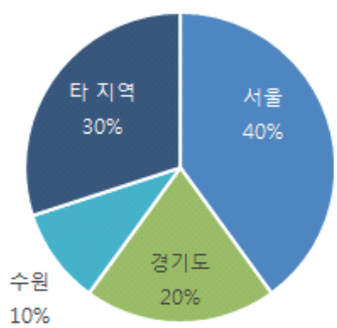
○ 수원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
- 수원의 비싼 집값 (40%)
-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 독립이 어려움 (40%)



<그림 3-1> 거주 지역



<그림 3-2> 가족 구성원



<그림 3-3> 연고지(출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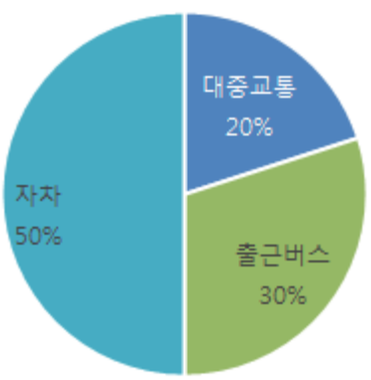
○ 대학생의 경우, 부모님과 동거하거나 기숙사 거주
- 기숙사에 거주하거나 거주 경험이 있는 학생이 50%를 차지함
- 경기도권에 거주하는 대학생의 경우는 모두 부모님 집에서 통학
- 자취하는 경우 형제 · 자매와 동거하며 혼자 자취하는 경우는 없었음

○ 수원거주 타지역 근무자의 경우, 2/3(66.7%)가 부모님과 동거 중인 것으로 나타남
- 부모님과 동거하는 경우, 75%는 금전적 부담 등의 이유로 독립 의지를 보이지 않았음
- 자취하는 2명 중 1명은 부모님 집 근처에 살면서 자주 왕래하고 있었음
- 83.3%의 조사 대상자들이 10대 시절부터 수원에 거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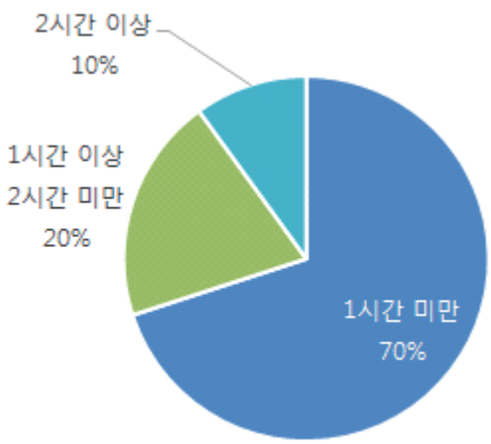
○ 그룹에 상관없이 조사 대상자들의 상당수가 주거의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부모님과 동거하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음

2) 출퇴근

- ○ 수원 외 지역 거주자의 경우, 출퇴근 수단은 자차50%, 출근버스30%, 기타 대중교통20%
- ○ 대학생들은 모두 대중교통 이용 (기숙사 제외)
- ○ 타지역 근무자의 경우, 회사차를 이용하는 1명 제외 모두 대중교통 이용 (83.3%)
- ○ 출근버스와 자차 이용 비율이 높은 수원외 지역 거주자는 출퇴근 소요시간은 70% 이상이 1시간 이내인 데 반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타지역 근무자들은 1~2시간 소요



<그림 3-4> 수원외 지역 거주자 출퇴근 수단



<그림 3-5> 수원외 지역 거주자 출퇴근 소요시간

2. 수원 내 활동

- ○ 직장인들의 대부분의 활동은 직장과 가까운 곳에서 이루어졌음.
  - 그 외 지역은 주로 회사 활동의 일원으로 방문 (봉사 활동, 문화의 날 등)
  - 특히, 서수원 지역은 방문 경험 전무
- ○ 문화생활은 사실상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 문화생활에 대한 혜택이 별로 없음
  - 주말에 서울로 가서 문화생활을 향유
  - 퇴근 후 취미활동의 경우, 귀가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가까운 수원에서 하기도 함

<표 3-2> 시설별 이용 선호도

야구장	이용 비율 거의 없음(10%)
공원 (ex. 만석공원)	이용 및 방문 비율이 높은 편
수원 화성	방문 경험은 대부분 있었지만 재방문 비율은 낮음
어린이집 또는 문화 센터	거주지가 아닌 수원에서 이용(자녀가 있는 경우)

○ 대학생의 경우, 주로 대학가에서 활동
- 수원역, 인계동은 방문 경험 있으나 빈도가 높지는 않음
- 수원에서 가장 많이 하는 문화생활은 영화 관람임
- 연극, 뮤지컬, 전시 및 스포츠 관람 등은 모두 서울에서 향유

○ 타지역 근무자의 경우, 문화생활 및 활동의 대부분이 수원에서 이루어짐
- 쉬는 날 전날이나 주말에 주로 활동함
- 출근이 늦거나 퇴근이 이른 경우에는 평일에도 활동하는 모습을 보임
  (ex. 음악 등 개인 작업, 청년 또는 종교 모임 등)

○ 만나는 대상에 따라 주 활동 장소가 달라짐
- 대학 친구 또는 직장 동료를 만날 때에는 대학 또는 직장과 가까운 곳에서 활동
- 고향 친구를 만날 때에는 출신지에서 주로 활동

<표 3-3> 주요 약속 장소

수원 외 지역 지인과의 약속	교통이 편리한 수원역 인근
수원 내 약속	인계동 선호

3. 수원에 대한 이미지

1) 수원 외 지역 거주자

○ 대상자의 대부분이 수원을 직장을 제외하고는 연고가 없는 지역이라 생각함

○ 서울 및 수도권 지역 출신의 경우
- 수원이 낙후된 도시라 느끼는 경향이 있음. 다만, 이런 수원의 모습에서 마을 또는 동네 같은 느낌을 받고 이를 통해 매력을 느끼는 경우도 있음.

- 생활의 편의성이나 인프라 역시 다른 지역에 비해 부족하다고 느낌.
- 치안 문제가 심각하고 개선이 시급하다 생각함. 또한 교통 문제도 개선이 필요

○ 경기도 외 지방 출신의 경우
- 수원을 (번잡한) 대도시라고 느끼고 있음

○ 수원 화성 관련 이벤트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문화적인 요소가 많으나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랜드마크는 부족

2) 대학생

○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수원의 교통 체계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음
- 대중교통의 노선들이 수원역 쪽으로만 집중되어 있음
- 서울 등으로 연결된 시외버스 노선은 잘 구성되어 있는 반면, 수원 내 버스 노선이 불편하고 버스 수도 부족함
- 차가 너무 많아 복잡하고 교통 체증이 심함
- 택시를 타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 대학생 중 향후 수원에 취직하거나 정착하기를 희망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음
- 대부분의 학생들이 서울로의 취업 희망

○ 기타 의견
- 수원을 대표하는 것이 부족한 애매한 이미지
- 다른 지방 도시들에 비해 문화생활 등 활동의 여지가 많음
- 다른 지방에 비해 일자리가 많아 취업이 수월할 것으로 생각됨
- 관광 측면에서 문화재의 보존이 잘 되어 있음

3) 수원 거주 타지역 근무자

○ 수원이 살기 좋은 곳이라 생각함
- 화성에서 다양한 축제 및 행사가 이루어짐
- 기차(KTX포함), 버스 터미널이 가까이에 있는 등 교통편이 매우 좋음
- 어딜 가나 사람이 많은 서울에 비해 빠르게 시설을 이용 가능 (수원역, 인계동 제외)
- 집값이 비싼 것이 큰 단점이지만, 그리 비싸지 않은 곳도 존재함(ex. 화서동)

○ 수원은 대도시 느낌이 강함

- 서울과 별 차이가 없이 비슷함
- 안양과도 삶의 수준이나 인프라 등은 비슷하나 도시의 규모가 크고 정책적으로 활발함
- 다른 경기도 지역(안산, 광명 등)과 비교했을 때 규모도 크고 편의시설 및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음

<표 3-4> 수원에 대한 이미지 비교

분류		수원에 대한 이미지
수원 외 지역 거주자	서울 및 수도권 지역 출신	• 수원 외 지역 거주자 대부분이 수원을 직장일 뿐 연고가 없는 지역이라 생각함 • 서울 및 수도권 지역 출신의 경우 수원이 낙후된 도시라 느끼는 경향이 있음. 다만, 이런 수원의 모습에서 마을 또는 동네 같은 느낌을 받고 이를 통해 매력을 느끼는 경우도 있음 - 치안 문제 및 교통 문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경기도 외 지방 출신	• 수원을 (번잡한) 대도시라고 느끼고 있음
	대학생	•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수원의 교통 체계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음 • 향후 수원에 취직하거나 정착하기를 희망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음 (대부분 서울로의 취업 희망)
수원 거주 타지역 근무자		• 수원이 살기 좋은 곳이라 생각함 - 화성에서 다양한 축제 및 행사가 이루어짐 - 기차(KTX포함), 버스 터미널이 가까이에 있는 등 교통편이 매우 좋음 - 어딜 가나 사람이 많은 서울에 비해 빠르게 시설을 이용 가능 (수원역, 인계동 제외) - 집값이 비싼 것이 큰 단점이지만, 그리 비싸지 않은 곳도 존재함(ex. 화서동) • 수원은 대도시 느낌이 강함 - 서울과 별 차이가 없이 비슷함 - 안양과도 삶의 수준이나 인프라 등은 비슷하나 도시의 규모가 크고 정책적으로 활발함 - 다른 경기도 지역(안산, 광명 등)과 비교했을 때 규모도 크고 편의시설 및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음

4. 정책 관련

1) 청년의 범주

○ 청년의 범주는 크게 두 가지 기준에서 차이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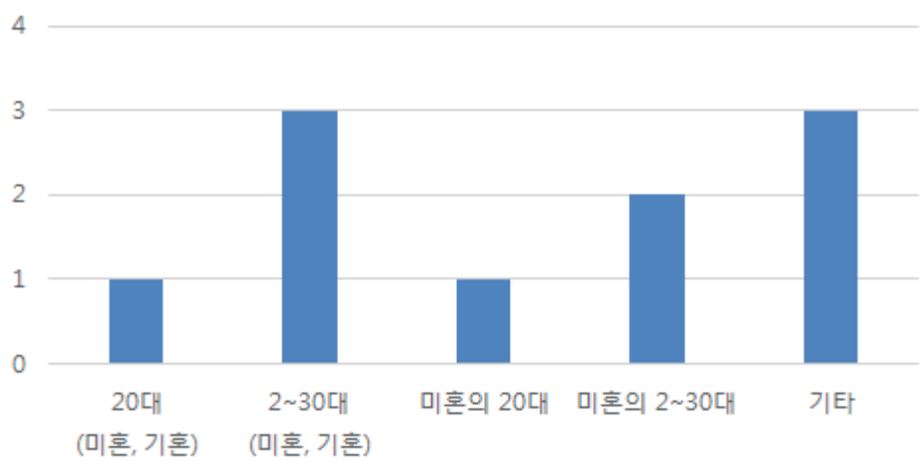
① 결혼 여부

② 30대 포함 여부

○ 모두 공통적으로 20대 이전(10대)은 청년으로 고려하지 않았음

○ 기타 의견

- 연령에 관계없이 소속된 집단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연령대가 청년
- 마음먹기에 달렸음. 뭔가에 도전할 수 있으면 청년
- 자의로 가정을 꾸릴 수 있을지 선택할 수 있으면 청년



<그림 3-6> 청년들이 생각하는 청년의 범주

2) 정책 효용성 및 인지도

○ 본인에게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 정책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게 됨

- 수원에 거주하더라도 주민등록상 주소가 타지역인 경우 정책 지원 자격이 되지 않음
- 소득분위에 따라서 저소득층 위주로 정책적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의 청년들이 지원을 받지 못함

○ 청년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음

- 청년정책으로 제시되는 사업들은 사업을 위한 사업이란 생각이 들게 하며 실효성은 떨어지는 경우가 많음
- 지원받는 과정에서 준비해야 할 요구 사항이 너무 많아 참여를 제한하게 됨
- 청년 창업·스타트업의 경우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지 않고 참여자들의 스펙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음

○ 금전적 보조금보다는 취업과 관련된 기회 제공 중심의 정책을 요구함

- 금전적인 지원보다는 직업 훈련·체험·교육 등 전공·적성을 스스로 파악할 수 있도록 많은 경험의 기회 제공과 이를 직업과 매칭해주는 과정이 필요
- 많은 청년들이 중소기업에서 일하게 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정책에 대해 권한의 가진 참여 요구가 높음

- 참여와 관련해서는 시의 개입을 축소하고 청년들의 권한을 확대해 청년들 스스로 할 수 있는 정책 필요
- 정책 관계자들이 청년들에 대해 장기적으로 책임감을 갖는 자세가 필요함

<표 3-5> 그룹별 정책에 대한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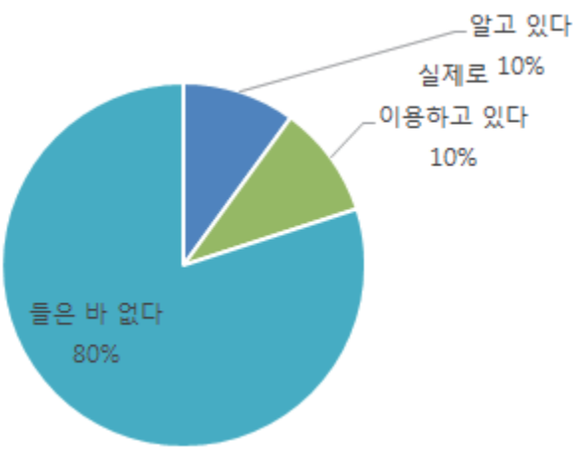
대기업 종사자	• 청년 관련 정책에 대해 잘 모르고 특히 수원시 청년 정책은 전혀 들은 바 없음
공기업 종사자	• 청년 정책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으나 연관성이 낮거나 대상자 또는 혜택 수혜자였던 적이 없어 관심도가 떨어짐
중소기업 종사자	• 청년 정책에 대해 인지하고 있고, 직접 찾아보거나 실제 경험해 본 비율이 높음 (85.7%) • 다만 국가 차원이 아닌 지자체(수원시) 차원의 청년 정책에 대해서는 인지도가 낮음
자영업자, 예술가	
대학생	• 실업급여 , 창업지원 등에 대해 들어보고 알아본 바 있으나 수언 주민이 아닌 타지역 출신 인 본인에게는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없어 관심도가 낮음
수원지역 거주 타지역 근무자	• 정책에 대해 인지하고 있고 수혜를 받은 경험이 존재함 • 그러나 대부분의 정책과 사업들이 일반 청년들이 누리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 틀만 있고 실질적인 내용이 부족하다고 생각함

3) 청년 공간

○ 수원 외 지역 거주자들의 청년 공간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낮았음

○ 공간이용에 있어 불편사항이 있음

- 공간을 이용하는 데 요구하는 조건이 너무 까다로움
- 실제로 이용하고자 해도 공간적인 제약이 있는 경우가 있었음
  - 제조업의 경우, 공간이 너무 협소해 이용이 불가능했음



<그림 3-7> 청년 공간에 대한 인지도

4) 홍보

○ 조사 대상자 모두 정책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다고 생각함
- 찾아보지 않으면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렵다고 생각
- 47.6%는 필요에 의해 직접 정책 및 사업을 찾아본 경험이 있음

○ 정책에 대한 정보를 얻은 경로로는 기사, 현수막인 버스 광고, 교수님이나 친구를 통하고 있으며 취업 준비생들끼리 정보를 공유하기도 함

○ 관련정보를 한 번에 얻을 수 있는 통합 SNS 계정 개설 및 활용을 제안함

제4장 실태조사

제1절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 수원시 청년들의 경제활동 및 생활실태를 조사함으로써 수원시 청년들의 현 상황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음

2. 조사 내용 및 방법

○ 조사 대상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수원시이며, 만19-39세 연령의 청년

○ 조사 지역
- 수원시 행정구역 전역

○ 조사 기간
- 2017년 9월 25일 ~ 10월 23일

○ 조사방법
- 대면조사 F2F (Face to Face) / PI(Personal Interview) 및 온라인조사 CAWI (Computer-Aided Web Interview) 병행

○ 조사 내용
- 본 조사는 크게 네 가지 영역(청년다움, 즐거움, 발돋움, 비움채움)으로 구분하여 진행하였음
- 청년다움은 청년들의 지역 인식 및 사회참여와 관련된 영역이며, 청년정책, 사회참여, 지역정체성, 자아정체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즐거움은 지역문화 환경 및 라이프스타일과 관련된 영역이며, 사회적 관계, 여가문화, 미디어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발돋움은 청년 교육력 및 고용 실태와 관련된 영역이며, 교육, 경제활동상태, 취업 및 이직 준비,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비움채움은 청년 부채 및 주거 실태와 관련된 영역이며, 소비 및 부채, 건강 및 영양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3. 표본설계

○ 표본 수 : 800명

- 온라인조사 CAWI(Computer-Aided Web Interview) 300명
- 대면조사 PI(Personal Interview) 500명

○ 층화

- 성별 : 남/녀(2개)
- 지역별 : 장안구/권선구/팔달구/영통구(4개)
- 연령별 : 19-24세/25-29세/30-34세/35-39세(4개)

<표 4-1> 대면조사 배분현황

행정구역	19-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장안구	20	17	14	12	12	11	14	14
권선구	21	19	18	17	19	18	22	20
팔달구	11	10	10	9	10	9	10	9
영통구	20	19	19	17	19	18	21	21
계	72	65	61	55	60	56	67	64

<표 4-2> 온라인조사 배분현황

행정구역	19-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장안구	12	10	9	7	7	7	8	8
권선구	12	11	11	10	11	11	13	12
팔달구	7	6	6	6	6	5	6	6
영통구	12	12	11	10	11	11	13	13
계	43	39	37	33	35	34	40	39

4. 조사 현황

<표 4-3> 표본현황

	사례수 (명)	구성비(%)
전체	**(800)**	**100.0**
성별		
남성	(415)	51.9
여성	(385)	48.1
연령대		
20-24세	(219)	27.4
25-29세	(186)	23.3
30-34세	(185)	23.1
35-39세	(210)	26.3
거주지역		
장안구	(182)	22.8
권선구	(245)	30.6
팔달구	(126)	15.8
영통구	(247)	30.9
주택 유형		
단독주택	(60)	7.5
아파트	(543)	67.9
연립주택	(83)	10.4
다세대주택	(103)	12.9
기타	(11)	1.4
주택 형태		
본인 소유	(169)	21.1
본인 전세	(110)	13.8
본인 월세	(86)	10.8
부모 가구주	(408)	51.0
기숙사/관사	(17)	2.1
기타	(10)	1.3
가구 구성원 수		
1명	(91)	11.4
2명	(109)	13.6
3명	(189)	23.6
4명	(349)	43.6
5명 이상	(62)	7.8
가구주 여부		
본인이 가구주임	(249)	31.1
본인이 가구주가 아님	(551)	68.9
가구주와의 관계		
배우자	(134)	24.3
미혼자녀	(379)	68.8
형제/자매	(27)	4.9
기타 친인척	(3)	0.5
기타	(8)	1.5

	사례수 (명)	구성비(%)
전체	**(800)**	**100.0**
직업		
고위관리직	(15)	1.9
전문직	(54)	6.8
준전문직	(22)	2.8
사무직	(204)	25.5
서비스/판매직	(158)	19.8
농업, 어업, 축산업, 임업	(1)	0.1
기능직	(13)	1.6
장치 및 기계 관련직	(10)	1.3
단순노무직	(1)	0.1
전업주부	(71)	8.9
학생	(174)	21.8
무직	(73)	9.1
기타	(4)	0.5
최종 학력		
고등학교	(169)	21.1
대학(4년제 미만)	(146)	18.3
대학교(4년제 이상)	(432)	54.0
대학원 석사	(46)	5.8
대학원 박사	(7)	0.9
결혼 상태		
기혼	(261)	32.6
이혼	(10)	1.3
미혼	(529)	66.1
월 평균 소득		
소득 없음	(246)	30.8
100만원 미만	(72)	9.0
100만원 ~ 200만원	(106)	13.3
200만원 ~ 300만원	(148)	18.5
300만원 ~ 400만원	(102)	12.8
400만원 ~ 500만원	(55)	6.9
500만원 이상	(46)	5.8
모르겠음	(25)	3.1
월 평균 가구 소득		
소득 없음	(16)	2.0
100만원 미만	(29)	3.6
100만원 ~ 200만원	(45)	5.6
200만원 ~ 300만원	(82)	10.3
300만원 ~ 400만원	(97)	12.1
400만원 ~ 500만원	(121)	15.1
500만원 ~ 600만원	(125)	15.6
600만원 이상	(154)	19.2
모르겠음	(131)	16.4

제2절 조사지표

○ 수원청년의 기초현황 및 수원형 청년정책의 4대분야를 중심으로 조사 설계

1. 청년다움

■ 청년들의 지역 인식 및 사회참여

<표 4-4> 청년다움 조사지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문항 유형	비교 가능성
청년 정책	실업 /고용 정책 인식 및 참여경험	청년실업 원인	선택형	
		실업 /고용 정책 참여경험	이분형	
		실업 /고용 정책 도움정도	척도형	
	청년 고용위기 해법	고용위기 해법	이분형	o
		노동공급 측면의 해법	선택형	o
		노동수요 측면의 해법	선택형	o
		적절한 최저임금	오픈형	o
		청년 배당에 대한 인식	척도형	o
	출산 및 육아정책	확대필요 출산정책	선택형	o
		확대필요 육아정책	선택형	o
	수원시 청년정책	수원시 청년정책에 대한 인식	척도형	
		수원시 청년정책 경험	이분형	
			오픈형	
사회 참여	사회문제 관심도	개인의 관심 수준	척도형	o
		또래의 사회문제 관심도	척도형	o
		관심 없는 이유	선택형	o
	우리나라의 정치 및 경제 상황	계층이동에 대한 가능성	척도형	
		현재 정치 및 경제 상황	척도형	
		5 년 이후 정치 및 경제 상황 예측	척도형	
		국가 목표	선택형	
		북한과의 관계	선택형	
	경제 가치관	성장 vs. 분배	선택형	
		공동체 이익 vs. 개인 이익	선택형	
	정치 참여	정치 참여에 대한 인식	척도형	
		정치 효능감	척도형	
		정치 관심도	척도형	
		정치 ·사회 현안 관련 활동	척도형	
		대통령 선거 참여	이분형	
		전국동시지방선거 참여	이분형	
	정치 성향	지지정당	이분형	
		정치적 성향	척도형	o
	세대에 대한 인식	기성세대 (40, 50 대)에 대한 인식	척도형	o
		노인 (70 세 이상)에 대한 인식	척도형	o

지역 정체성	수원시 거주 이유		선택형	
	수원시에 대한 느낌		선택형	
	수원시 이미지		척도형	
	타지역 이주 및 지인추천 의향		척도형	
	수원시 치안 및 위험 정도		척도형	
	수원시 생활환경 만족도		척도형	
	수원시민 자부심		척도형	
	지역소속감		척도형	
자아 정체성	삶의 만족	주관적인 상태 평가	척도형	
		삶의 만족도	척도형	
		주관적 자기 평가	척도형	o
	행복 및 성공한 삶	행복의 요건	선택형	o
		행복 요건 충족	척도형	o
		성공한 삶의 조건	선택형	o
		성공 가능성	척도형	o
	성인기 이행	성인 자격에 대한 인식	척도형	
		주거독립에 대한 인식 및 기준 연령	선택형 및 오픈형	o
		결혼에 대한 인식 및 기준 연령		o
		출산에 대한 인식 및 기준 연령		o

2. 발돋움

■ 청년 교육력 및 고용 실태

<표 4-5> 발돋움 핵심지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문항유형	비교 가능성
교육	대학경험	현재 교육상태	선택형	o
		출신대학	오픈형	o
		대학 입학 (편입)시기 및 졸업시기	오픈형	o
		전공	선택형	o
		복수전공 및 부전공	선택형	
		대학원 진학	이분형	o
		향후 대학원 진학 의향	이분형	o
		대학원 진학 이유	선택형	o
		졸업유예 경험	선택형	o
		졸업유예 이유	선택형	
		휴학 경험	이분형	o
		휴학 이유	선택형	o
		대학시절 사교육 경험	이분형	o
	교육에 대한 가치관		척도형	o
	학교생활 (대학재학생문항)	학교생활 만족도	척도형	
		학비 부담 주체	선택형	
	대학 진학 (대학비진학자문항)	대학 비진학 이유	선택형	o
		향후 대학 진학 의향	이분형	o
취업 (공통)	아르바이트	최초 아르바이트 시작 시기	선택형	
		경험한 아르바이트 종류	선택형	
		아르바이트 이유	선택형	o

	취업준비 및 구직활동		향후 1 년 계획	선택형		
			취업준비 여부	이분형		o
			구직활동 여부	이분형		
	스펙 준비 및 영향 인식		취업 스펙 준비	이분형		o
			준비 예정인 스펙	이분형		
			취업에의 영향정도	척도형		
	구직 경험		구직정보 경로	선택형		
			취업준비 및 구직활동 어려움	선택형		
	취업 희망		희망직업 유무	이분형		
			희망직업 분야	선택형		
			직업 희망 이유	선택형		
			희망기업 유형	선택형		
			기업 희망 이유	선택형		
			창업 결심 유무	이분형		o
			창업 경험	이분형		
			창업 결심의 이유	선택형		o
			고시준비 경험	이분형		o
			희망 소득	오픈형		
	직업선택 기준		직업 선택시 중요한 기준	척도형		
	경제활동 상태		지난 1 주간 활동	선택형		
			활동시작 시기	오픈형		
취업 (개별)	미취업자 문항		일을 하지 않는 이유	선택형	33)	o
			경제적 문제해결 방법	선택형	34)	o
	취업자 문항	현직장 특성	현직장 근무기간	오픈형	35)	o
			현직장 위치	오픈형	36)	
			현직장 출퇴근 교통수단	선택형	37)	
			현직장 출퇴근 시간	오픈형	38)	
			현직장 유형	선택형	39)	
		직업특성 및 만족도	종사상 지위	선택형	40)	o
			고용형태	이분형	41)	o
			직업 유형	선택형	42)	o
			직장 종사자 수	선택형	43)	o
			전공 일치도	척도형	44)	o
			일자리 적응 어려움	이분형	45)	
				선택형	45-1)	
			현직장 취업 경로	선택형	46)	
			노조 가입 유무	이분형	47)	
			현직장 주당 평균 근로시간	오픈형	48)	
			현직장 주당 평균 근로일수	오픈형	49)	
			직장 만족도	척도형	50)-(1)~(15)	
		현 직장 이외의 직업	부업 유무	이분형 /오픈형	51)	
			이직의향	이분형	52)	o
			이직 희망 이유	선택형	52-1)	o
		비정규직 문항	비정규직 근무 이유	선택형	53)	
			비정규직 희망 이유	선택형	53-1)	
	고용주 및 자영업자 문항		연간 매출액	오픈형	54)	
			사업 (창업) 동기	선택형	55)	
			창업과정의 어려움	선택형	56)	
			창업훈련 유무	이분형	57)	

3. 비움채움

■ 청년 부채 및 주거 실태

<표 4-6> 비움채움 조사지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문항유형	비교 가능성
주거	주거마련	본인명의 주거마련 기대 시기	선택형	
	공동주거	공동주거 경험	이분형	o
		공동주거 의향	이분형	o
	주거에 대한 인식	주거 가치관	척도형	o
				o
		주거마련에 대한 희망	척도형	o
				o
		거주지역에 대한 인식	척도형	
	부모 및 친척 동거	동거 이유	선택형	
		동거 예상 기한	선택형	o
건강 및 영양	신체 건강 및 정신건강	키 및 몸무게	오픈형	o
		본인 체형에 대한 인식	척도형	o
		주관적 건강수준	척도형	o
		스트레스 정도	척도형	
		하루 평균 수면시간	오픈형	
		규칙적 운동	척도형	
		흡연 유무 및 정도	이분형 및 오픈형	
		음주 빈도	척도형	
		외모의 중요성	척도형	o
		성형수술 경험	이분형	o
		성형 목적	선택형	o
		우울 정도	이분형	
	영양	식습관	척도형	
소비 및 부채	소비항목	최대 소비항목	선택형	o
		증가할 지출항목	선택형	o
	소비 가치관	소비 가치	이분형	o
		계획적 소비정도	척도형	o
	경제적 지원	가족으로부터의 고정적 지원	이분형 및 오픈형	
		가족에게의 고정적 지원	이분형 및 오픈형	
	생애사건 비용 부담 주체		척도형	
	소비행태	소비 습관	척도형	
		주요 상품 구매처	선택형	
		외식 정도	선택형	
		한 달 평균 외식 비용	오픈형	
		배달음식 빈도	선택형	
	부채 상황	부채 유무	이분형	
		부채 액수	오픈형	
	학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 경험	이분형	o
		등록 및 대출 학기	오픈형	
		학자금 대출 총액	오픈형	
		학자금 대출 유형	선택형	
		대출 원금 및 이자 납부 지연 경험	이분형	
		학자금 대출 부담정도	척도형	

4. 즐거움

■ 지역문화 환경 및 라이프스타일

<표 4-7> 즐거움 핵심지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문항유형	비교 가능성
관계	관계 인식	고민 상담 대상	선택형	
		관계만족도	척도형	
	친구 및 지인	친밀한 지인 유무	이분형 및 오픈형	o
		지인과의 교류 횟수	오픈형	
	이성교제 및 결혼	이성교제 시작 시기	오픈형	
		연애 경험 횟수	오픈형	
		혼전 동거 경험	이분형	
		결혼 준비 경험	이분형	o
		연애 망설임	이분형	o
		결혼 망설임	이분형	o
		결혼 의향 및 시기	선택형	
			오픈형	
		비혼 이유	선택형	
	부모님과의 관계	부모님의 생활 영향력	척도형	
		부모님과의 관계	척도형	
		부모님 댁 방문 빈도	척도형	
	이웃과의 관계	친분있는 가구 및 가구수	이분형 및 오픈형	
		친분 동기	선택형	
		이웃과의 교류정도	척도형	
여가문화	여가생활	하루 평균 여가시간	오픈형	
		주요 여가활동	선택형	
		한달 평균 여가비용	오픈형	
		여가활동 인식	척도형	
		여가생활 어려움	선택형	
		여행 일수	오픈형	
		여가생활 동반자	선택형	o
		여가활동 동호회 가입 여부	이분형	o
		동호회 종류	선택형	
	문화예술 관람 경험	문화예술행사 관심정도	척도형	o
		문화예술 관람여부	이분형	
		관람횟수	오픈형	
		관람 동행자	선택형	
		관람 지역	선택형	
		예술행사 관람 기준	선택형	
		예술행사 관람 어려움	선택형	
		아동 및 청소년기 경험	척도형	
미디어	미디어 활용	가장 자주 접한 뉴스매체	선택형	o
		독서 수준	이분형 및 오픈형	o
		온라인 활동	이분형	
			척도형	
		휴대폰 현황	이분형 및 오픈형	
		통신요금	오픈형	
		휴대폰 요금 부담 주체	선택형	
		최빈 사용 애플리케이션	선택형	

제3절 조사 결과

1. 청년다움

1) 청년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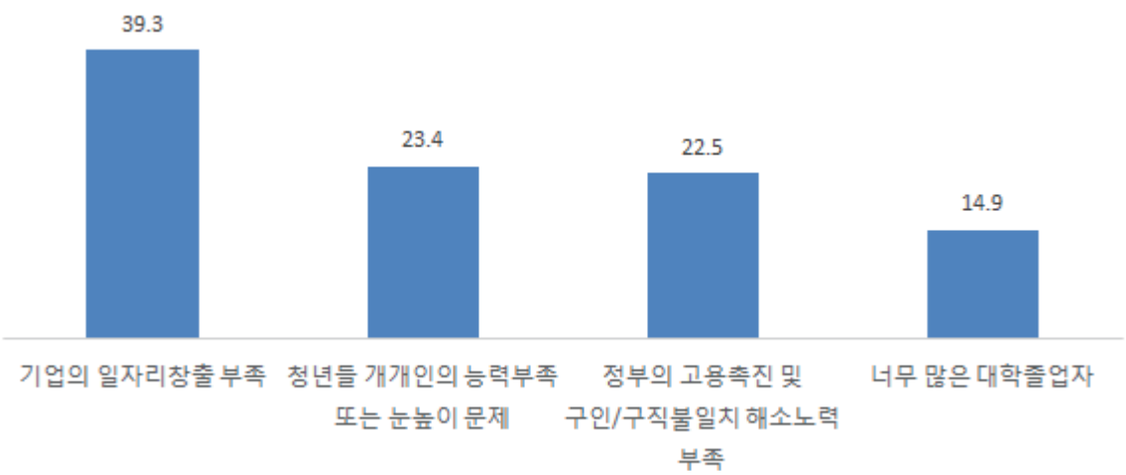
(1) 실업 / 고용 정책 인식 및 참여경험

가. 청년실업 원인

○ 청년 실업의 원인으로 ‘기업의 일자리 창출 부족’이 39.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이어서 ‘청년들 개개인의 능력부족 또는 눈높이 문제’ 23.4%, ‘정부의 고용촉진 및 구인/구직불일치 해소노력 부족’ 22.5%, ‘너무 많은 대학졸업자’ 14.9% 순으로 나타남

(단위 : %)



<그림 4-1> 청년실업 원인

○ 남녀 모두 ‘기업의 일자리 창출 부족’이 청년실업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했으나, 남성은 ‘청년들 개개인의 능력부족 또는 눈높이 문제’가 27.0%, 여성은 ‘정부의 고용촉진 및 구인·구직 불일치 해소노력 부족’이 26.8%를 차지하면서 차순으로 높게 나타남

○ 20~34세에서는 ‘기업의 일자리창출 부족’이 가장 높게 나타난 데 반해, 35~39세에서는 ‘청년들 개개인의 능력부족 또는 눈높이 문제’가 가장 높은 31.9%를 차지함

○ 취업 상태에 따라서 ‘기업의 일자리 창출 부족’이 청년실업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37.0%인 취업자에 비해 미취업자가 42.2%로 더 높게 나타남

○ 대학교 재학 중인 경우 ‘기업의 일자리 창출 부족’ 이 청년실업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46.8%로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응답자 및 대학교 졸업 이상에 비해 가장 높음

<표 4-8> 응답자 특성별 청년실업 원인

(단위 : %)

	사례수 (명)	기업의 일자리창출 부족	너무 많은 대학졸업자	청년들 개개인의 능력부족 또는 눈높이 문제	정부의 고용촉진 및 구인·구직 불일치 해소 노력 부족	계
전체	**(800)**	**39.3**	**14.9**	**23.4**	**22.5**	**100.0**
성별						
남성	(415)	37.6	16.9	27.0	18.6	100.0
여성	(385)	41.0	12.7	19.5	26.8	100.0
연령대						
20-24세	(219)	47.0	19.6	15.1	18.3	100.0
25-29세	(186)	32.8	14.5	29.6	23.1	100.0
30-34세	(185)	46.5	11.9	17.3	24.3	100.0
35-39세	(210)	30.5	12.9	31.9	24.8	100.0
거주 지역						
장안구	(182)	39.6	14.8	28.6	17.0	100.0
권선구	(245)	43.7	14.3	23.3	18.8	100.0
팔달구	(126)	34.9	15.9	22.2	27.0	100.0
영통구	(247)	36.8	15.0	20.2	27.9	100.0
취업상태						
취업	(449)	37.0	14.3	26.1	22.7	100.0
미취업	(351)	42.2	15.7	19.9	22.2	100.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39.1	11.2	23.1	26.6	100.0
대학교 재학	(231)	46.8	16.0	19.0	18.2	100.0
대학교 졸업 이상	(400)	35.0	15.8	26.0	23.3	100.0

나. 실업 / 고용 정책 참여경험

■ 연수체험(직장체험, 인턴)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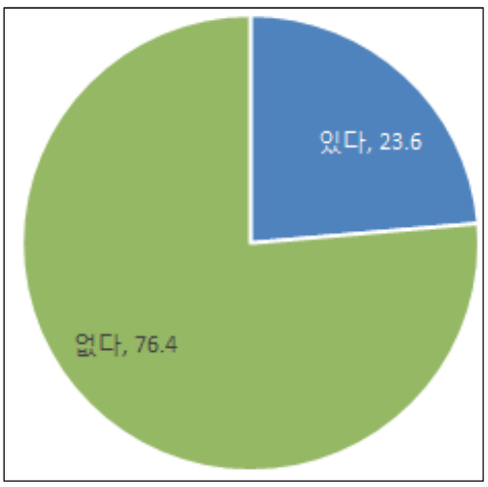
○ 직장체험, 인턴 등 연수체험 사업 참여 경험은 23.6%이고, 참여자는 남자가 24.8%, 여자가 22.3%로 남자가 더 높은 비율로 참여했음

○ 30~34세가 28.1%로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임

○ 권선구 거주자가 25.3%로 가장 높았고 영통구 거주자가 21.5%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임

○ 취업자의 경우 26.1%로 미취업자의 20.5% 비율보다 참여 비율이 높게 나타남

○ 대학교 졸업 이상 응답자가 29.5%로 참여율이 가장 높은데, 이는 최저 참여율을 보인 고등학교 이하 졸업 응답자의 참여율 13.6%의 2배가 넘는 수치임



<그림 4-2> 연수체험(직장체험, 인턴) 사업 참여경험

<표 4-9> 응답자 특성별 연수체험(직장체험, 인턴) 사업 참여경험

(단위 : %)

	사례수 (명)	있다	없다	계
전체	**(800)**	**23.6**	**76.4**	**100.0**
성별				
남성	(415)	24.8	75.2	100.0
여성	(385)	22.3	77.7	100.0
연령대				
20-24세	(219)	20.5	79.5	100.0
25-29세	(186)	28.5	71.5	100.0
30-34세	(185)	28.1	71.9	100.0
35-39세	(210)	18.6	81.4	100.0
거주 지역				
장안구	(182)	24.7	75.3	100.0
권선구	(245)	25.3	74.7	100.0
팔달구	(126)	23.0	77.0	100.0
영통구	(247)	21.5	78.5	100.0
취업상태				
취업	(449)	26.1	73.9	100.0
미취업	(351)	20.5	79.5	100.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13.6	86.4	100.0
대학교 재학	(231)	20.8	79.2	100.0
대학교 졸업 이상	(400)	29.5	70.5	100.0

■ 단기 일자리 제공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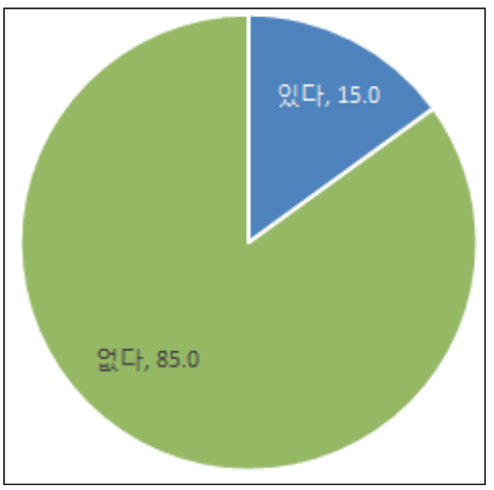
○ 단기 일자리 제공 사업 참여 경험은 15.0%이고, 여성이 15.1%로 남성의 14.9%보다 높게 나타남

○ 25~29세가 21.0%의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였는데, 이는 최저 참여율을 보인 35~39세의 참여율 11.0%의 약 2배 수치임

○ 장안구 거주자가 16.5%로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임

○ 취업 상태에 따라서 취업자의 참여율을 16.3%로 미취업자의 참여율 13.4% 보다 높은 수치를 보임

○ 대학교 재학생이 16.9%로 참여율이 가장 높음



<그림 4-3> 단기 일자리 제공 사업 참여 경험

<표 4-10> 응답자 특성별 단기 일자리 제공 사업 참여 경험

(단위 : %)

	사례수 (명)	있다	없다	계
전체	**(800)**	**15.0**	**85.0**	**100.0**
성별				
남성	(415)	14.9	85.1	100.0
여성	(385)	15.1	84.9	100.0
연령대				
20-24세	(219)	15.1	84.9	100.0
25-29세	(186)	21.0	79.0	100.0
30-34세	(185)	13.5	86.5	100.0
35-39세	(210)	11.0	89.0	100.0
거주 지역				
장안구	(182)	16.5	83.5	100.0
권선구	(245)	13.9	86.1	100.0
팔달구	(126)	19.0	81.0	100.0
영통구	(247)	13.0	87.0	100.0
취업상태				
취업	(449)	16.3	83.7	100.0
미취업	(351)	13.4	86.6	100.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13.0	87.0	100.0
대학교 재학	(231)	16.9	83.1	100.0
대학교 졸업 이상	(400)	14.8	85.3	100.0

■ 해외취업, 인턴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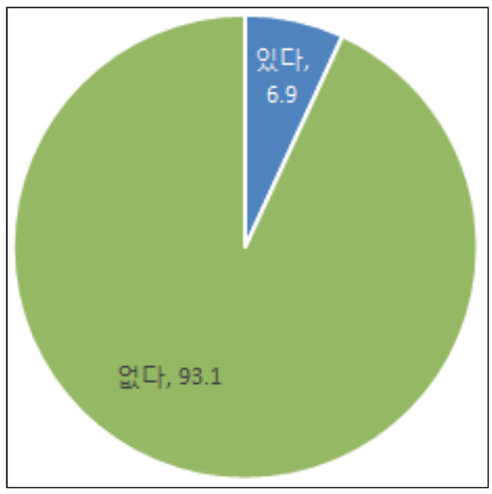
○ 해외취업, 인턴사업 참여경험은 6.9%로 나타나고, 남성의 참여비율은 7.7%로 여성의 참여 비율인 6.0%보다 높게 나타남

○ 25~29세가 9.7%로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였는데, 이는 최저 참여율을 보인 35~39세의 참여율 4.8%의 2배가 넘는 수치임

○ 영통구 거주자가 8.1%로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임

○ 취업 상태에 따라서 취업자의 참여율을 7.1%로 미취업자의 참여율 6.6% 보다 높은 수치를 보임

○ 대학교 졸업 이상 응답자가 7.5%로 참여율이 가장 높음



<그림 4-4> 해외취업, 인턴사업 참여경험

<표 4-11> 응답자 특성별 해외취업, 인턴사업 참여경험

(단위 : %)

	사례수 (명)	있다	없다	계
전체	**(800)**	**6.9**	**93.1**	**100.0**
성별				
남성	(415)	7.7	92.3	100.0
여성	(385)	6.0	94.0	100.0
연령대				
20-24세	(219)	6.4	93.6	100.0
25-29세	(186)	9.7	90.3	100.0
30-34세	(185)	7.0	93.0	100.0
35-39세	(210)	4.8	95.2	100.0
거주 지역				
장안구	(182)	7.1	92.9	100.0
권선구	(245)	5.3	94.7	100.0
팔달구	(126)	7.1	92.9	100.0
영통구	(247)	8.1	91.9	100.0
취업상태				
취업	(449)	7.1	92.9	100.0
미취업	(351)	6.6	93.4	100.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4.7	95.3	100.0
대학교 재학	(231)	7.4	92.6	100.0
대학교 졸업 이상	(400)	7.5	92.5	100.0

■ 직업훈련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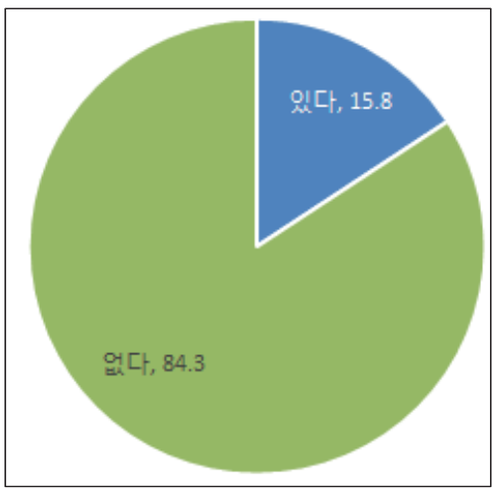
○ 응답자의 15.8%가 직업훈련사업에 참여 한 경험을 갖고 있다고 답하였는데, 남성 경험자는 16.9%로 여성 경험자의 14.5%보다 높은 비율을 보임

○ 35~39세가 19.5%로 가장 높음

○ 팔달구 거주자가 19.0%로 가장 높은 참여 경험을 갖고 있음

○ 취업자는 18.9%, 미취업자는 11.7%가 사업 참여 경험을 갖고 있음

○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응답자의 사업 참여 경험은 20.1%로 대학 재학생의 참여율 10.0%의 2배가 넘는 수치임



<그림 4-5> 직업훈련사업 참여경험

<표 4-12> 응답자 특성별 직업훈련사업 참여경험

(단위 : %)

	사례수 (명)	있다	없다	계
전체	**(800)**	**15.8**	**84.3**	**100.0**
성별				
남성	(415)	16.9	83.1	100.0
여성	(385)	14.5	85.5	100.0
연령대				
20-24세	(219)	11.4	88.6	100.0
25-29세	(186)	16.1	83.9	100.0
30-34세	(185)	16.2	83.8	100.0
35-39세	(210)	19.5	80.5	100.0
거주 지역				
장안구	(182)	16.5	83.5	100.0
권선구	(245)	15.5	84.5	100.0
팔달구	(126)	19.0	81.0	100.0
영통구	(247)	13.8	86.2	100.0
취업상태				
취업	(449)	18.9	81.1	100.0
미취업	(351)	11.7	88.3	100.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20.1	79.9	100.0
대학교 재학	(231)	10.0	90.0	100.0
대학교 졸업 이상	(400)	17.3	82.8	100.0

■ 장려금 지원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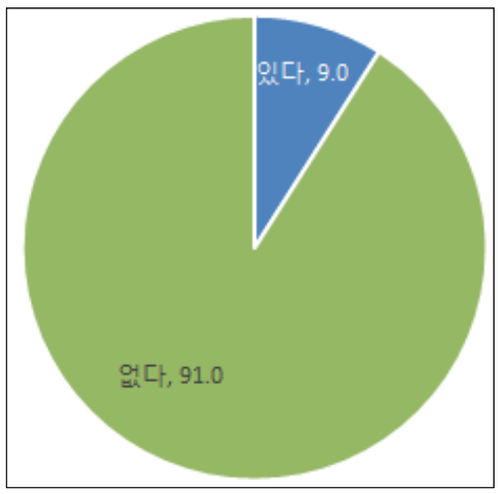
○ 응답자의 9.0%가 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경험을 갖고 있다고 답하였는데, 남성의 참여 비율이 9.2%로 여성의 참여비율인 8.8%보다 높게 나타남

○ 25~29세가 11.8%로 가장 높은 참여 경험을 갖고 있음

○ 장안구 거주자가 11.5%로 가장 높은 참여 경험을 갖고 있음

○ 취업자의 11.4%가 사업 참여 경험을 갖고 있었으며, 반면 미취업자는 6.0%만이 참여 경험을 갖고 있음

○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응답자의 경우 7.1%의 참여 경험을 보였으며, 대학교 재학과 대학교 졸업 이상 응답자는 9.5%로 동일한 참여율을 보임



<그림 4-6> 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경험

<표 4-13> 응답자 특성별 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경험

(단위 : %)

	사례수 (명)	있다	없다	계
전체	**(800)**	**9.0**	**91.0**	**100.0**
성별				
남성	(415)	9.2	90.8	100.0
여성	(385)	8.8	91.2	100.0
연령대				
20-24세	(219)	6.8	93.2	100.0
25-29세	(186)	11.8	88.2	100.0
30-34세	(185)	7.0	93.0	100.0
35-39세	(210)	10.5	89.5	100.0
거주 지역				
장안구	(182)	11.5	88.5	100.0
권선구	(245)	9.0	91.0	100.0
팔달구	(126)	10.3	89.7	100.0
영통구	(247)	6.5	93.5	100.0
취업상태				
취업	(449)	11.4	88.6	100.0
미취업	(351)	6.0	94.0	100.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7.1	92.9	100.0
대학교 재학	(231)	9.5	90.5	100.0
대학교 졸업 이상	(400)	9.5	90.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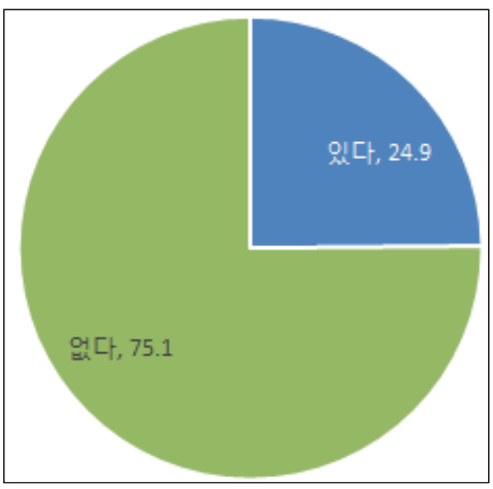
■ 직업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 응답자의 약 1/4이 직업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경험을 갖고 있다고 답하였는데, 여성의 참여 경험이 27.3%로 남성의 22.7%보다 높게 나타남

○ 25~29세가 33.9%로, 35~39세의 참여율 14.3%의 2배가 넘는 수치임

○ 장안구 거주자가 30.2%로 가장 높았으며 영통구 거주자가 19.8%로 가장 낮음

○ 학력별로는 대학교 재학생의 경우가 29.0%로 가장 높은 참여 경험을 보임



<그림 4-7> 직업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경험

<표 4-14> 응답자 특성별 직업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경험

(단위 : %)

	사례수 (명)	있다	없다	계
전체	**(800)**	**24.9**	**75.1**	**100.0**
성별				
남성	(415)	22.7	77.3	100.0
여성	(385)	27.3	72.7	100.0
연령대				
20-24세	(219)	29.7	70.3	100.0
25-29세	(186)	33.9	66.1	100.0
30-34세	(185)	22.2	77.8	100.0
35-39세	(210)	14.3	85.7	100.0
거주 지역				
장안구	(182)	30.2	69.8	100.0
권선구	(245)	24.5	75.5	100.0
팔달구	(126)	27.8	72.2	100.0
영통구	(247)	19.8	80.2	100.0
취업상태				
취업	(449)	25.4	74.6	100.0
미취업	(351)	24.2	75.8	100.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21.9	78.1	100.0
대학교 재학	(231)	29.0	71.0	100.0
대학교 졸업 이상	(400)	23.8	76.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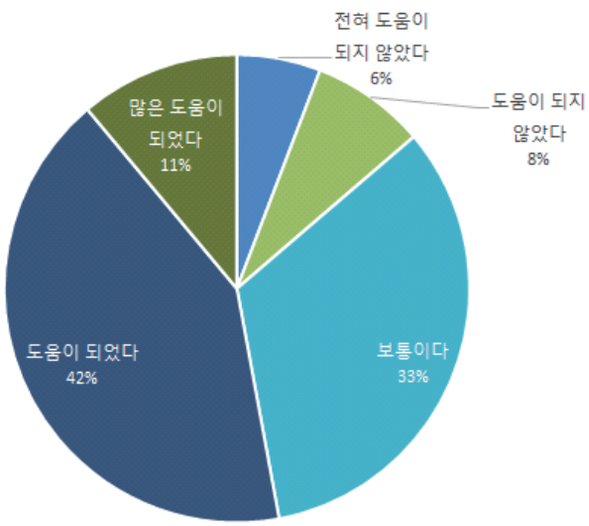
다. 실업 / 고용 정책 도움정도

■ 연수체험(직장체험, 인턴) 사업

○ 연수체험(직장체험, 인턴) 사업의 도움 정도에 대한 평균은 3.4로 보통보다 높게 나타남

- 긍정 응답률이 반수 이상인 52.9%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단위 : %)



<그림 4-8> 연수체험(직장체험, 인턴) 사업 도움 정도

○ 남성의 평균은 3.4, 여성의 평균은 3.5로 남녀 모두 보통 이상의 값을 보임

- 사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한 응답자는 여성이 54.7%로 남성 51.5%보다 높게 나타남

○ 연령에 관계없이 모두 평균 3.4~3.5로 보통 이상으로 나타남

- 35~39세가 56.4%로 가장 높은 비율로 사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함

○ 거주 지역별로도 전 지역에서 보통 이상의 평균을 보였고, 특히 영통구 거주자의 평균이 3.7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영통구 거주자가 64.2%의 가장 높은 비율로 다른 지역 거주자에 비해 연수체험 사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함

○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평균의 평균은 3.4~3.5를 나타냄

○ 학력에 관계없이 평균은 3.3~3.5로 모두 보통 이상의 값을 보임

- 대학교 졸업 이상 응답자가 가장 높은 56.8%의 비율로 사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함

<표 4-15> 응답자 특성별 연수체험(직장체험, 인턴) 사업 도움 정도

(단위 :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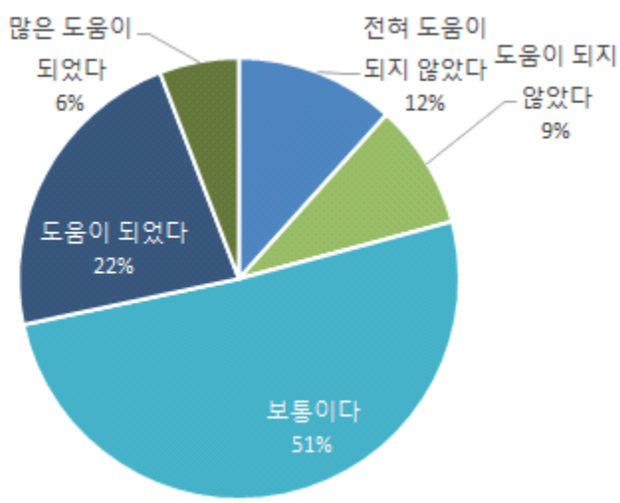
	사례수 (명)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	①+②	보통이다	→	많은 도움이 되었다	④+⑤	계	평균
전체	**(189)**	**5.8**	**7.9**	**13.8**	**33.3**	**41.8**	**11.1**	**52.9**	**100.0**	**3.4**
성별										
남성	(103)	7.8	7.8	15.5	33.0	38.8	12.6	51.5	100.0	3.4
여성	(86)	3.5	8.1	11.6	33.7	45.3	9.3	54.7	100.0	3.5
연령대										
20-24세	(45)	4.4	8.9	13.3	35.6	35.6	15.6	51.1	100.0	3.5
25-29세	(53)	7.5	11.3	18.9	32.1	35.8	13.2	49.1	100.0	3.4
30-34세	(52)	3.8	5.8	9.6	34.6	46.2	9.6	55.8	100.0	3.5
35-39세	(39)	7.7	5.1	12.8	30.8	51.3	5.1	56.4	100.0	3.4
거주 지역										
장안구	(45)	2.2	11.1	13.3	37.8	44.4	4.4	48.9	100.0	3.4
권선구	(62)	8.1	8.1	16.1	32.3	38.7	12.9	51.6	100.0	3.4
팔달구	(29)	13.8	6.9	20.7	37.9	31.0	10.3	41.4	100.0	3.2
영통구	(53)	1.9	5.7	7.5	28.3	49.1	15.1	64.2	100.0	3.7
취업상태										
취업	(117)	4.3	7.7	12.0	32.5	47.0	8.5	55.6	100.0	3.3
미취업	(72)	8.3	8.3	16.7	34.7	33.3	15.3	48.6	100.0	3.5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23)	8.7	4.3	13.0	43.5	39.1	4.3	43.5	100.0	3.5
대학교 재학	(48)	8.3	10.4	18.8	33.3	29.2	18.8	47.9	100.0	3.4
대학교 졸업 이상	(118)	4.2	7.6	11.9	31.4	47.5	9.3	56.8	100.0	3.3

■ 단기 일자리 제공 사업

○ 단기 일자리 제공 사업의 도움 정도에 대한 평균은 3.0으로 보통인 것으로 나타남

- ‘보통이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반수 이상인 50.8%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단위 :%)



<그림 4-9> 단기 일자리 제공 사업 도움 정도

○ 남성의 평균은 2.9로 평균에 미치지 못했고, 여성의 평균은 3.1로 보통을 조금 넘는 것으로 나타남

○ 20~34세에서는 평균이 3.1~3.2로 보통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고, 35~39세에서는 2.6으로 보통에 미치지 못함

- 35~39세에서는 47.8%의 비율로 사업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함

○ 장안구, 영통구 거주자는 평균이 3.0로 보통이었고, 권선구 거주자는 3.2로 나타났으며 팔달구 거주자는 2.8로 보통에 약간 미치지 못함

- 권선구 거주자는 44.1%의 비율로 다른 지역 거주자에 비해 사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함

○ 취업자의 평균은 2.9로 보통에 약간 미치지 못하는데 반해 미취업자의 평균은 3.2로 평균을 조금 넘어섬

○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응답자와 대학교 재학생은 평균이 각각 3.3, 3.2로 사업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으나 대학교 졸업 이상 응답자들은 평균이 2.8로 보통에 미치지 못함

-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응답자의 경우는 40.9%의 비율로 다른 학력 응답자에 비해 사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함

<표 4-16> 응답자 특성별 단기 일자리 제공 사업 도움 정도

(단위 :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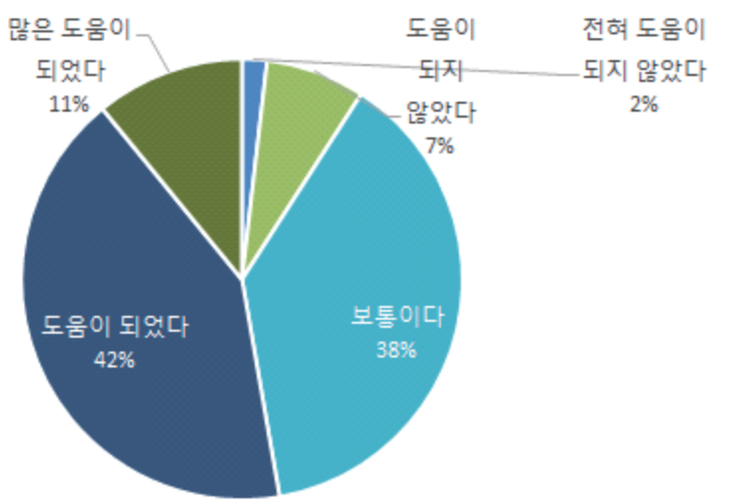
	사례수 (명)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	①+②	보통이다	→	많은 도움이 되었다	④+⑤	계	평균
전체	**(120)**	**11.7**	**9.2**	**20.8**	**50.8**	**22.5**	**5.8**	**28.3**	**100.0**	**3.0**
성별										
남성	(62)	12.9	14.5	27.4	48.4	16.1	8.1	24.2	100.0	2.9
여성	(58)	10.3	3.4	13.8	53.4	29.3	3.4	32.8	100.0	3.1
연령대										
20-24세	(33)	6.1		6.1	66.7	21.2	6.1	27.3	100.0	3.2
25-29세	(39)	10.3	7.7	17.9	53.8	23.1	5.1	28.2	100.0	3.1
30-34세	(25)	8.0	12.0	20.0	52.0	20.0	8.0	28.0	100.0	3.1
35-39세	(23)	26.1	21.7	47.8	21.7	26.1	4.3	30.4	100.0	2.6
거주 지역										
장안구	(30)	6.7	6.7	13.3	63.3	23.3		23.3	100.0	3.0
권선구	(34)	11.8	11.8	23.5	32.4	35.3	8.8	44.1	100.0	3.2
팔달구	(24)	25.0	4.2	29.2	50.0	12.5	8.3	20.8	100.0	2.8
영통구	(32)	6.3	12.5	18.8	59.4	15.6	6.3	21.9	100.0	3.0
취업상태										
취업	(73)	13.7	9.6	23.3	53.4	19.2	4.1	23.3	100.0	3.1
미취업	(47)	8.5	8.5	17.0	46.8	27.7	8.5	36.2	100.0	3.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22)	9.1		9.1	50.0	36.4	4.5	40.9	100.0	2.9
대학교 재학	(39)	5.1	5.1	10.3	64.1	15.4	10.3	25.6	100.0	3.2
대학교 졸업 이상	(59)	16.9	15.3	32.2	42.4	22.0	3.4	25.4	100.0	

■ 해외취업, 인턴사업

○ 해외취업, 인턴사업의 도움 정도에 대한 평균은 3.5로 보통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52.7%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단위 : %)



<그림 4-10> 해외취업, 인턴사업 도움 정도

○ 남성의 평균은 3.4, 여성의 평균은 3.7로 남녀 모두 보통 이상의 값을 보임

- 여성 응답자의 반수가 넘는 60.9%가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함

○ 연령에 관계없이 전 연령에서 3.4~3.6의 평균을 보임

○ 거주 지역별로도 전 지역에서 보통 이상의 평균을 보였고, 특히 영통구 거주자의 평균이 3.8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영통구 거주자가 70.0%의 가장 높은 비율로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함

○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평균의 평균은 취업자 3.4, 미취업자 3.7로 모두 보통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 미취업자의 긍정 응답률은 60.9%로 취업자의 긍정 응답률 46.9%에 비해 높게 나타남

○ 학력에 관계없이 평균은 모두 보통 이상의 값을 보였고, 특히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응답자의 경우 평균이 3.9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응답자 응답자가 가장 높은 62.5%의 비율로 사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함

<표 4-17> 응답자 특성별 해외취업, 인턴사업 도움 정도

(단위 :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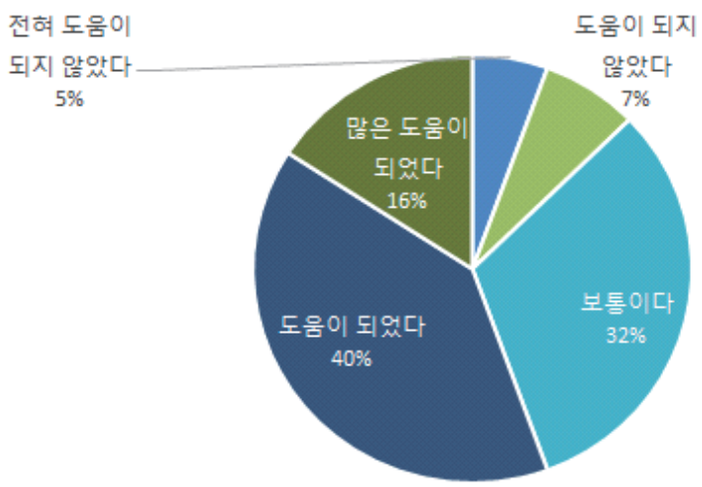
	사례수 (명)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	①+②	보통이다	→	많은 도움이 되었다	④+⑤	계	평균
전체	**(55)**	**1.8**	**7.3**	**9.1**	**38.2**	**41.8**	**10.9**	**52.7**	**100.0**	**3.5**
성별										
남성	(32)	3.1	12.5	15.6	37.5	37.5	9.4	46.9	100.0	3.4
여성	(23)				39.1	47.8	13.0	60.9	100.0	3.7
연령대										
20-24세	(14)		7.1	7.1	42.9	28.6	21.4	50.0	100.0	3.6
25-29세	(18)		11.1	11.1	33.3	55.6		55.6	100.0	3.4
30-34세	(13)	7.7	7.7	15.4	30.8	30.8	23.1	53.8	100.0	3.5
35-39세	(10)				50.0	50.0		50.0	100.0	3.5
거주 지역										
장안구	(13)		15.4	15.4	61.5	23.1		23.1	100.0	3.1
권선구	(13)		7.7	7.7	30.8	46.2	15.4	61.5	100.0	3.7
팔달구	(9)	11.1		11.1	44.4	33.3	11.1	44.4	100.0	3.3
영통구	(20)		5.0	5.0	25.0	55.0	15.0	70.0	100.0	3.8
취업상태										
취업	(32)	3.1	6.3	9.4	43.8	40.6	6.3	46.9	100.0	3.4
미취업	(23)		8.7	8.7	30.4	43.5	17.4	60.9	100.0	3.7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8)				37.5	37.5	25.0	62.5	100.0	3.9
대학교 재학	(17)		11.8	11.8	35.3	29.4	23.5	52.9	100.0	3.6
대학교 졸업 이상	(30)	3.3	6.7	10.0	40.0	50.0		50.0	100.0	3.4

■ 직업훈련사업

○ 직업훈련사업의 도움 정도에 대한 평균은 3.5로 보통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55.6%로 나타남

(단위 : %)



<그림 4-11> 직업훈련사업 도움 정도

○ 남성의 평균은 3.4, 여성의 평균은 3.7로 남녀 모두 보통 이상의 값을 보임

-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한 응답자는 여성이 60.7%, 남성 51.4%로 여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에 관계없이 전 연령에서 보통 이상의 평균을 보였고, 특히 20~24세는 3.8, 30~34세는 3.9로 높은 평균을 보임

- 30~34세가 76.7%로 가장 높은 비율로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함

○ 거주 지역별로도 전 지역에서 모두 3.4~3.6의 보통 이상의 평균을 보임

- 영통구 거주자가 61.8%의 가장 높은 비율로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함

○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평균의 평균은 모두 3.5로 보통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취업자 긍정 응답률 57.6%, 미취업자 긍정 응답률 51.2%)

○ 학력에 관계없이 평균은 3.5~3.6으로 모두 보통 이상의 값을 보임

<표 4-18> 응답자 특성별 직업훈련사업 도움 정도

(단위 :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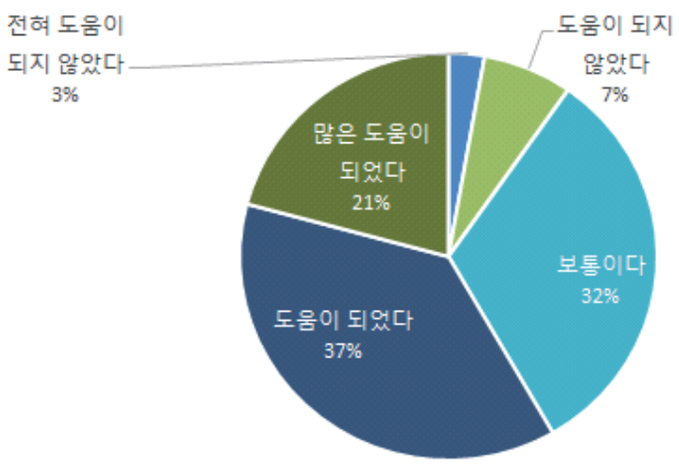
	사례수 (명)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	①+②	보통이다	→	많은 도움이 되었다	④+⑤	계	평균
전체	**(126)**	**5.6**	**7.1**	**12.7**	**31.7**	**39.7**	**15.9**	**55.6**	**100.0**	**3.5**
성별										
남성	(70)	7.1	11.4	18.6	30.0	37.1	14.3	51.4	100.0	3.4
여성	(56)	3.6	1.8	5.4	33.9	42.9	17.9	60.7	100.0	3.7
연령대										
20-24세	(25)	8.0		8.0	28.0	36.0	28.0	64.0	100.0	3.8
25-29세	(30)	6.7	10.0	16.7	46.7	26.7	10.0	36.7	100.0	3.2
30-34세	(30)		6.7	6.7	16.7	53.3	23.3	76.7	100.0	3.9
35-39세	(41)	7.3	9.8	17.1	34.1	41.5	7.3	48.8	100.0	3.3
거주 지역										
장안구	(30)	6.7	6.7	13.3	40.0	30.0	16.7	46.7	100.0	3.4
권선구	(38)	7.9	5.3	13.2	28.9	42.1	15.8	57.9	100.0	3.5
팔달구	(24)	4.2	12.5	16.7	29.2	33.3	20.8	54.2	100.0	3.5
영통구	(34)	2.9	5.9	8.8	29.4	50.0	11.8	61.8	100.0	3.6
취업상태										
취업	(85)	5.9	4.7	10.6	31.8	44.7	12.9	57.6	100.0	3.5
미취업	(41)	4.9	12.2	17.1	31.7	29.3	22.0	51.2	100.0	3.5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34)	5.9	2.9	8.8	35.3	41.2	14.7	55.9	100.0	3.6
대학교 재학	(23)	8.7	4.3	13.0	34.8	26.1	26.1	52.2	100.0	3.6
대학교 졸업 이상	(69)	4.3	10.1	14.5	29.0	43.5	13.0	56.5	100.0	3.5

■ 장려금 지원 사업

○ 장려금 지원 사업의 도움 정도에 대한 평균은 3.7로 보통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 사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58.3%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단위 : %)



<그림 4-12> 장려금 지원 사업 도움 정도

○ 남성의 평균은 3.6, 여성의 평균은 3.7로 남녀 모두 보통 이상의 값을 보임

- 사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한 응답자는 여성이 64.7%, 남성 52.6%로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남

○ 연령에 관계없이 전 연령에서 보통 이상의 평균을 보임

- 25~29세가 68.2%로 가장 높은 비율로 사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함

○ 거주 지역별로도 전 지역에서 모두 보통 이상의 평균을 보였는데, 장안구 거주자의 평균은 3.3인데 반해 권선구 거주자의 평균은 3.9, 팔달구 영통구 거주자의 평균은 3.8로 비교적 높게 나타남

- 권선구 거주자가 72.7%의 가장 높은 비율로 사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함

○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평균의 평균은 3.6~3.7로 모두 보통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 학력에 관계없이 평균은 3.6~3.7로 모두 보통 이상의 값을 보임

- 대학교 졸업 이상 응답자가 65.8% 비율로 사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함

<표 4-19> 응답자 특성별 장려금 지원 사업 도움 정도

(단위 :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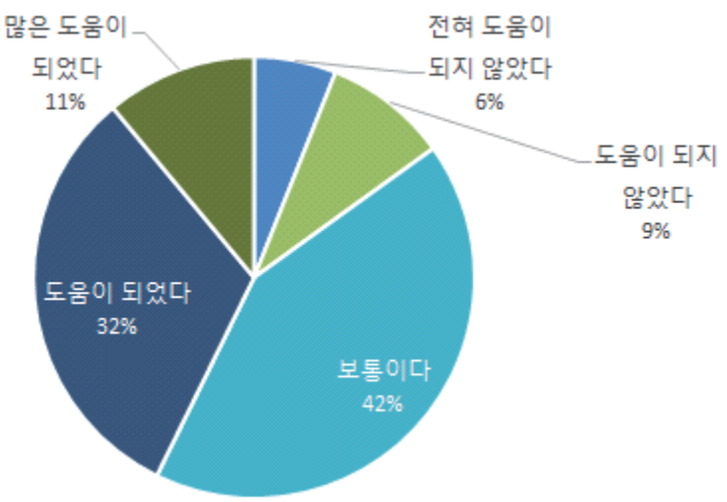
	사례수 (명)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	①+②	보통이다	→	많은 도움이 되었다	④+⑤	계	평균
전체	**(72)**	**2.8**	**6.9**	**9.7**	**31.9**	**37.5**	**20.8**	**58.3**	**100.0**	**3.7**
성별										
남성	(38)		10.5	10.5	36.8	31.6	21.1	52.6	100.0	3.6
여성	(34)	5.9	2.9	8.8	26.5	44.1	20.6	64.7	100.0	3.7
연령대										
20-24세	(15)				53.3	20.0	26.7	46.7	100.0	3.7
25-29세	(22)	4.5	4.5	9.1	22.7	50.0	18.2	68.2	100.0	3.7
30-34세	(13)		23.1	23.1	30.8	30.8	15.4	46.2	100.0	3.4
35-39세	(22)	4.5	4.5	9.1	27.3	40.9	22.7	63.6	100.0	3.7
거주 지역										
장안구	(21)	4.8	9.5	14.3	52.4	14.3	19.0	33.3	100.0	3.3
권선구	(22)		4.5	4.5	22.7	54.5	18.2	72.7	100.0	3.9
팔달구	(13)	7.7	7.7	15.4	15.4	38.5	30.8	69.2	100.0	3.8
영통구	(16)		6.3	6.3	31.3	43.8	18.8	62.5	100.0	3.8
취업상태										
취업	(51)	2.0	5.9	7.8	35.3	39.2	17.6	56.9	100.0	3.6
미취업	(21)	4.8	9.5	14.3	23.8	33.3	28.6	61.9	100.0	3.7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2)				58.3	25.0	16.7	41.7	100.0	3.6
대학교 재학	(22)	4.5		4.5	40.9	27.3	27.3	54.5	100.0	3.7
대학교 졸업 이상	(38)	2.6	13.2	15.8	18.4	47.4	18.4	65.8	100.0	3.7

■ 직업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 직업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도움 정도에 대한 평균은 3.3으로 보통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 프로그램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42.7%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단위 : %)



<그림 4-13> 직업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도움 정도

○ 남성의 평균은 3.3, 여성의 평균은 3.4로 남녀 모두 보통 이상의 값을 보임

- 긍정 응답률은 남성이 43.6%, 여성이 41.9%로 남성이 더 높게 나타남

○ 연령에 관계없이 전 연령에서 보통 이상의 평균을 보였는데, 25~29세의 평균이 3.4로 가장 높고, 35~39세의 평균이 3.2로 가장 낮음

○ 거주 지역별로도 전 지역에서 모두 보통 이상의 평균을 보였는데, 팔달구 거주자의 평균이 3.1로 타 지역 거주자에 비해 낮게 나타남

- 권선구 거주자가 50.0%의 비율로 프로그램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함

○ 취업자의 평균은 3.4, 미취업자의 평균은 3.2로 모두 보통 이상의 값을 보였으나 취업자의 평균이 미취업자의 평균보다 약간 높았음

- 취업자의 긍정률은 50.9%로 미취업자의 긍정률 31.8%보다 높은 수치를 보임

○ 학력에 관계없이 모두 보통 이상의 평균을 보였는데, 학력이 높을수록 평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표 4-20> 응답자 특성별 직업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도움 정도

(단위 : %, 점)

	사례수 (명)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	①+②	보통이다	→	많은 도움이 되었다	④+⑤	계	평균
전체	**(199)**	**6.0**	**9.0**	**15.1**	**42.2**	**31.7**	**11.1**	**42.7**	**100.0**	**3.3**
성별										
남성	(94)	9.6	9.6	19.1	37.2	31.9	11.7	43.6	100.0	3.3
여성	(105)	2.9	8.6	11.4	46.7	31.4	10.5	41.9	100.0	3.4
연령대										
20-24세	(65)	6.2	6.2	12.3	47.7	30.8	9.2	40.0	100.0	3.3
25-29세	(63)	3.2	11.1	14.3	39.7	34.9	11.1	46.0	100.0	3.4
30-34세	(41)	9.8	9.8	19.5	31.7	34.1	14.6	48.8	100.0	3.3
35-39세	(30)	6.7	10.0	16.7	50.0	23.3	10.0	33.3	100.0	3.2
거주 지역										
장안구	(55)	3.6	7.3	10.9	47.3	27.3	14.5	41.8	100.0	3.4
권선구	(60)	5.0	10.0	15.0	35.0	38.3	11.7	50.0	100.0	3.4
팔달구	(35)	8.6	11.4	20.0	48.6	22.9	8.6	31.4	100.0	3.1
영통구	(49)	8.2	8.2	16.3	40.8	34.7	8.2	42.9	100.0	3.3
취업상태										
취업	(114)	6.1	6.1	12.3	36.8	39.5	11.4	50.9	100.0	3.4
미취업	(85)	5.9	12.9	18.8	49.4	21.2	10.6	31.8	100.0	3.2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37)	8.1	5.4	13.5	54.1	24.3	8.1	32.4	100.0	3.2
대학교 재학	(67)	6.0	9.0	14.9	46.3	26.9	11.9	38.8	100.0	3.3
대학교 졸업 이상	(95)	5.3	10.5	15.8	34.7	37.9	11.6	49.5	100.0	3.4

(2) 청년고용위기해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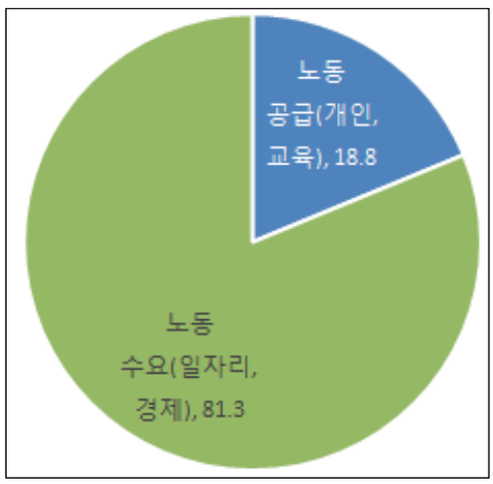
가. 고용위기 해법

○ 응답자의 81%가 노동 공급 측면보다는 노동 수요 측면에 고용위기의 해법이 있을 것이라 응답함

○ 여성의 81.0%, 남성의 81.4%가 노동 수요 측면이 더 중요하다 생각함

○ 20~24세가 84.5%로 가장 높은 비율로 수요 측면을, 25~29세가 21.0%로 가장 높은 비율로 공급 측면을 중요시함

○ 팔달구 거주자가 82.5%로 가장 노동 수요 측면을 중시했고, 권선구 거주자가 20.8%로 노동 공급 측면을 중시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그림 4-14> 노동 공급 및 수요 측면 중요항목

○ 학력별로는 대학교 재학생의 85.7%가 가장 높은 비율로 노동 수요를 중시했고,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응답자가 22.5%로 노동 공급을 중요시함

<표 4-21> 응답자 특성별 노동 공급 및 수요 측면 중요항목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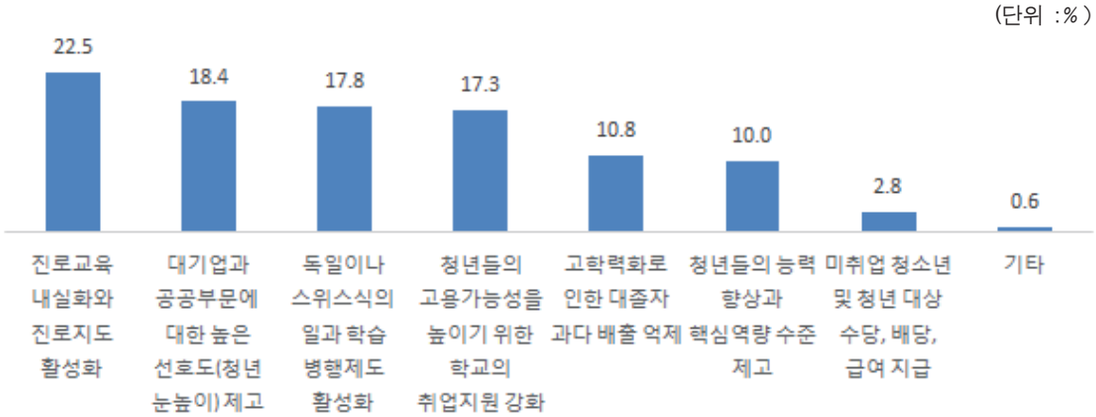
	사례수 (명)	노동 공급 (개인, 교육)	노동 수요 (일자리, 경제)	계
전체	**(800)**	**18.8**	**81.3**	**100.0**
성별				
남성	(415)	18.6	81.4	100.0
여성	(385)	19.0	81.0	100.0
연령대				
20-24세	(219)	15.5	84.5	100.0
25-29세	(186)	21.0	79.0	100.0
30-34세	(185)	18.4	81.6	100.0
35-39세	(210)	20.5	79.5	100.0
거주 지역				
장안구	(182)	18.1	81.9	100.0
권선구	(245)	20.8	79.2	100.0
팔달구	(126)	17.5	82.5	100.0
영통구	(247)	17.8	82.2	100.0
취업상태				
취업	(449)	21.6	78.4	100.0
미취업	(351)	15.1	84.9	100.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22.5	77.5	100.0
대학교 재학	(231)	14.3	85.7	100.0
대학교 졸업 이상	(400)	19.8	80.3	100.0

나. 노동공급 측면의 해법

○ 노동 공급 측면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은 ‘진로교육의 내실화와 진로 지도 활성화’로 22.5%를 차지함

- 이어서 ‘대기업과 공공부문에 대한 높은 선호도(청년 눈높이 제고)’ 18.4%, ‘독일이나 스위스식의 일과 학습 병행제도 활성화’ 17.8%, ‘청년들의 고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학교의 추업지원 강화’ 17.3% 등의 순으로 나타남.

(단위 : %)



<그림 4-15> 노동 공급 측면 필요 항목

○ 여성과 남성 응답자 모두 ‘진로교육의 내실화와 진로 지도 활성화’를 노동 공급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 답함 (남성 응답률 22.2%, 여성 응답률 22.9%)

- 차순으로 남성은 ‘대기업과 공공부문에 대한 높은 선호도(청년 눈높이 제고)’가 필요하다고 답한 반면 여성은 ‘독일이나 스위스식의 일과 학습 병행제도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답함

○ 20~24세는 ‘진로교육의 내실화와 진로 지도 활성화’, 25~29세는 ‘독일이나 스위스식의 일과 학습 병행제도 활성화’, 30~34세는 ‘청년들의 고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학교의 취업지원 강화’, 그리고 35~39세는 ‘대기업과 공공부문에 대한 높은 선호도(청년 눈높이 제고)’가 가장 필요한 항목이라 응답함

○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진로교육의 내실화와 진로 지도 활성화’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장안구에서는 ‘진로교육의 내실화와 진로 지도 활성화’와 ‘대기업과 공공부문에 대한 높은 선호도(청년 눈높이 제고)’ 두 항목이 동일하게 18.1%의 수치를 보임

○ 취업 상태에 따라서 취업자들은 22.0%로 ‘대기업과 공공부문에 대한 높은 선호도(청년 눈높이 제고)’ 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미취업자들의 26.5%가 ‘진로교육의 내실화와 진로 지도 활성화’ 가 가장 필요하다고 답함

○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응답자에서는 ‘청년들의 고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학교의 취업지원 강화’ 가 21.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학교 재학생은 ‘진로교육 내실화와 진로 지도 활성화’ 가 29.4%, 그리고 대학교 졸업 이상 응답자에서는 ‘대기업과 공공부문에 대한 높은 선호도(청년 눈높이 제고)’ 가 21.5%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22> 응답자 특성별 노동 공급 측면 필요 항목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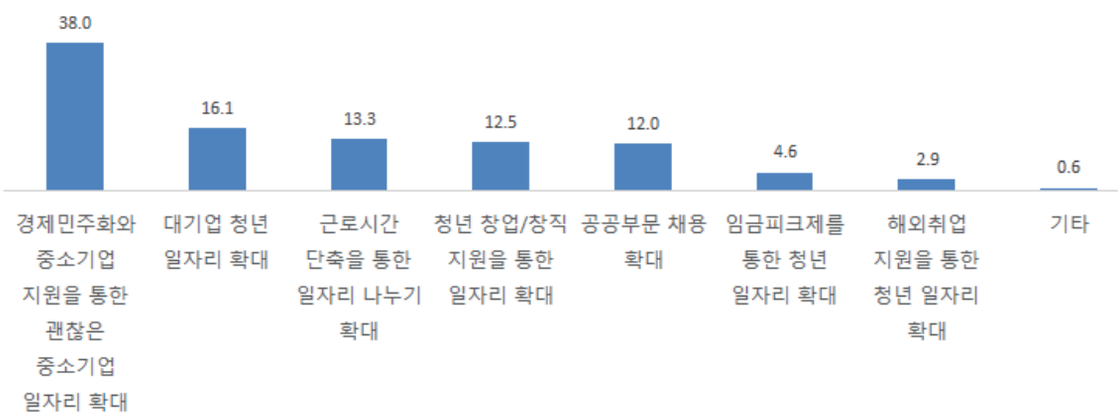
	사례수 (명)	진로교육 내실화와 진로지도 활성화	대기업과 공공부문에 대한 높은 선호도(청년 눈높이) 제고	독일이나 스위스식의 일과 학습 병행제도 활성화	청년들의 고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학교의 취업지원 강화	고학력화로 인한 대졸자 과다 배출 억제	청년들의 능력 향상과 핵심역량 수준 제고	미취업 청소년 및 청년 대상 수당, 배당, 급여 지급	기타	계
전체	**(800)**	**22.5**	**18.4**	**17.8**	**17.3**	**10.8**	**10.0**	**2.8**	**0.6**	**100.0**
성별										
남성	(415)	22.2	19.3	17.6	16.9	10.1	10.8	2.4	0.7	100.0
여성	(385)	22.9	17.4	17.9	17.7	11.4	9.1	3.1	0.5	100.0
연령대										
20-24세	(219)	26.9	10.0	16.0	16.0	16.0	10.0	4.1	0.9	100.0
25-29세	(186)	22.0	11.3	22.6	21.5	7.5	11.8	2.7	0.5	100.0
30-34세	(185)	13.0	20.5	20.5	21.1	10.3	11.4	2.2	1.1	100.0
35-39세	(210)	26.7	31.4	12.9	11.4	8.6	7.1	1.9		100.0
거주 지역										
장안구	(182)	18.1	18.1	14.8	17.6	13.7	13.2	4.4		100.0
권선구	(245)	24.5	14.3	19.2	20.8	10.2	8.6	1.6	0.8	100.0
팔달구	(126)	20.6	15.9	19.0	18.3	12.7	8.7	3.2	1.6	100.0
영통구	(247)	24.7	23.9	17.8	13.0	8.1	9.7	2.4	0.4	100.0
취업상태										
취업	(449)	19.4	22.0	17.1	18.5	10.0	10.2	2.4	0.2	100.0
미취업	(351)	26.5	13.7	18.5	15.7	11.7	9.7	3.1	1.1	100.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17.8	20.7	16.0	21.9	14.2	6.5	2.4	0.6	100.0
대학교 재학	(231)	29.4	11.3	16.9	16.0	10.4	11.7	3.5	0.9	100.0
대학교 졸업 이상	(400)	20.5	21.5	19.0	16.0	9.5	10.5	2.5	0.5	100.0

다. 노동수요 측면의 해법

○ 노동 수요 측면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은 ‘경제민주화와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괜찮은 중소기업 일자리 확대’로 38.0%를 차지함

- 이어서 ‘대기업 청년 일자리 확대’ 16.1%,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확대’ 13.3%, ‘청년 창업/창직 지원을 통한 일자리 확대’ 12.5%, ‘공공부문 채용 확대’ 12.0% 등의 순으로 나타남.

(단위 : %)



<그림 4-16> 노동 수요 측면 필요 항목

○ 여성과 남성 응답자 모두 ‘경제민주화와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괜찮은 중소기업 일자리 확대’를 노동 수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 답함 (남성 응답률 33.7%, 여성 응답률 42.6%)

○ 20~24세만이 ‘대기업 청년 일자리 확대’를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고,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모두 ‘경제민주화와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괜찮은 중소기업 일자리 확대’를 노동 수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 응답했는데,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증가함

○ 거주 지역별로도 모두 ‘경제민주화와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괜찮은 중소기업 일자리 확대’를 노동 수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 응답함

○ 취업 상태에 관계없이 취업자, 미취업자 모두 ‘경제민주화와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괜찮은 중소기업 일자리 확대’를 노동 수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 응답함 (취업자 응답률 40.1%, 미취업자 응답률 35.3%)

○ 학력에 관계없이 ‘경제민주화와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괜찮은 중소기업 일자리 확대’를 노동 수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조사됨

- 대학교 졸업 이상 응답자에서는 47.0%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고 대학교 재학생은 27.3%가 ‘경제민주화와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괜찮은 중소기업 일자리 확대’를 노동 수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 응답함

<표 4-23> 응답자 특성별 노동 수요 측면 필요 항목

(단위 : %)

	사례수 (명)	경제민주화와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괜찮은 중소기업 일자리 확대	대기업 청년 일자리 확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확대	청년 창업 / 창직 지원을 통한 일자리 확대	공공부문 채용 확대	임금피크제를 통한 청년 일자리 확대	해외취업 지원을 통한 청년 일자리 확대	기타	계
전체	**(800)**	**38.0**	**16.1**	**13.3**	**12.5**	**12.0**	**4.6**	**2.9**	**0.6**	**100.0**
성별										
남성	(415)	33.7	19.0	13.7	13.3	13.0	4.8	1.4	1.0	100.0
여성	(385)	42.6	13.0	12.7	11.7	10.9	4.4	4.4	0.3	100.0
연령대										
20-24세	(219)	24.7	26.5	11.9	13.7	12.8	4.6	5.9		100.0
25-29세	(186)	36.0	14.5	15.1	13.4	12.4	5.4	1.6	1.6	100.0
30-34세	(185)	43.2	10.8	14.6	11.9	14.1	3.2	1.1	1.1	100.0
35-39세	(210)	49.0	11.4	11.9	11.0	9.0	5.2	2.4		100.0
거주 지역										
장안구	(182)	40.1	14.3	14.8	13.2	11.0	2.2	2.7	1.6	100.0
권선구	(245)	40.0	13.9	11.0	15.1	11.0	5.3	3.3	0.4	100.0
팔달구	(126)	38.1	19.0	15.9	9.5	10.3	4.8	2.4		100.0
영통구	(247)	34.4	18.2	13.0	10.9	14.6	5.7	2.8	0.4	100.0
취업상태										
취업	(449)	40.1	12.5	13.1	14.3	12.7	4.7	2.0	0.7	100.0
미취업	(351)	35.3	20.8	13.4	10.3	11.1	4.6	4.0	0.6	100.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31.4	17.2	12.4	16.0	11.8	7.1	3.6	0.6	100.0
대학교 재학	(231)	27.3	24.7	11.7	13.0	13.4	4.8	4.8	0.4	100.0
대학교 졸업 이상	(400)	47.0	10.8	14.5	10.8	11.3	3.5	1.5	0.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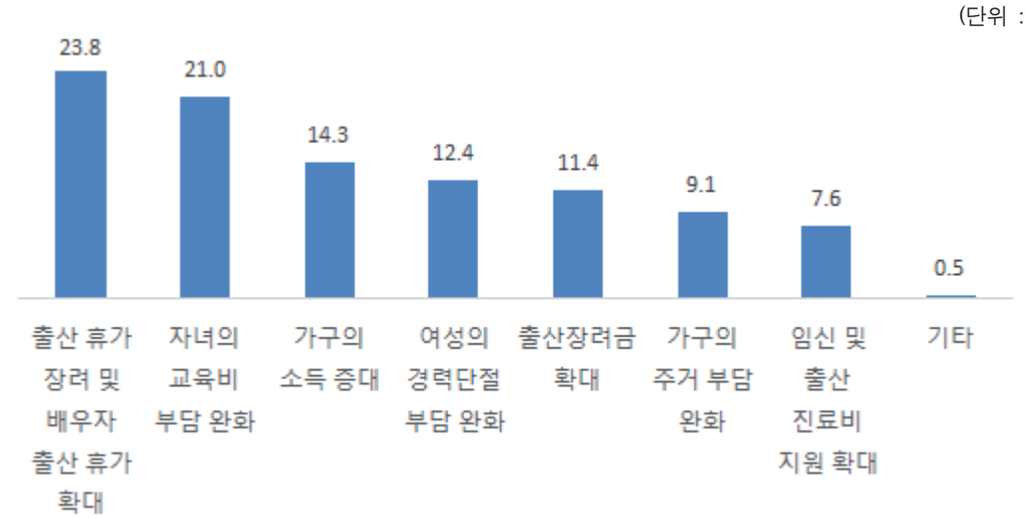
(3) 출산 및 육아정책

가. 확대필요 출산정책

○ 가장 확대가 필요한 출산 정책은 ‘출산 휴가 장려 및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로 23.8%를 차지함

- 이어서 ‘자녀의 교육비 부담 완화’ 21.0%, ‘가구의 소득 증대’ 14.3%, ‘여성의 경력단절 부단 완화’ 12.4%, ‘출산장려금 확대’ 11.4% 등의 순으로 나타남.

(단위 :%)



<그림 4-17> 확대필요 출산정책

○ ‘출산 휴가 장려 및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가 중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여성이 27.0%였고, 남성의 22.7%가 ‘자녀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가장 확대가 필요한 출산 대책으로 답함

○ 20~34세는 모두 ‘출산 휴가 장려 및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가 중요하다고 답했고, 35~39만이 31.9%의 비율로 ‘자녀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가장 필요한 출산 대책이라 응답함

○ 장안구, 팔달구, 영통구에서는 각각 24.2%, 23.8%, 28.7%로 ‘출산 휴가 장려 및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가 중요하다고 답했고, 권선구는 20.8%로 ‘자녀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가장 필요한 출산 대책이라 응답함

○ 취업자는 22.9%로 ‘자녀의 교육비 부담 완화’가 중요하다고 답했고, 미취업자는 25.1%로 ‘출산 휴가 장려 및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를 가장 필요한 출산 대책이라 응답함

○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응답자가 25.4%로 ‘자녀의 교육비 부담 완화’가 중요하다고 답했고, 대학교 재학 및 졸업 이상에서는 각각 26.0%로 ‘출산 휴가 장려 및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를 가장 필요한 출산 대책이라 응답함

<표 4-24> 응답자 특성별 확대필요 출산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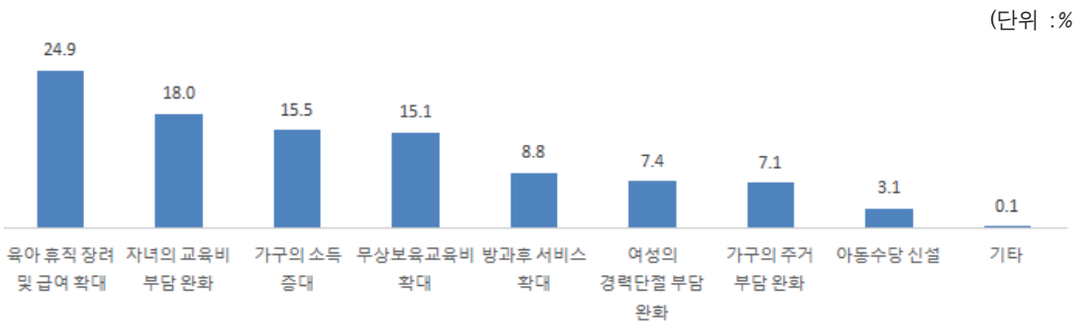
(단위 : %)

	사례수 (명)	출산장려금 확대	출산 휴가 장려 및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임신 및 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자녀의 교육비 부담 완화	가구의 소득 증대	가구의 주거 부담 완화	여성의 경력단절 부담 완화	기타	계
전체	**(800)**	**11.4**	**23.8**	**7.6**	**21.0**	**14.3**	**9.1**	**12.4**	**0.5**	**100.0**
성별										
남성	(415)	13.3	20.7	8.4	22.7	17.3	11.8	5.5	0.2	100.0
여성	(385)	9.4	27.0	6.8	19.2	10.9	6.2	19.7	0.8	100.0
연령대										
20-24세	(219)	11.9	25.1	9.1	16.9	12.3	7.8	16.0	0.9	100.0
25-29세	(186)	11.8	28.5	6.5	17.7	12.4	12.4	10.2	0.5	100.0
30-34세	(185)	11.4	25.9	5.9	16.8	18.9	8.1	13.0		100.0
35-39세	(210)	10.5	16.2	8.6	31.9	13.8	8.6	10.0	0.5	100.0
거주 지역										
장안구	(182)	12.1	24.2	6.6	20.9	12.6	10.4	13.2		100.0
권선구	(245)	9.8	18.4	10.2	20.8	15.1	12.2	12.7	0.8	100.0
팔달구	(126)	7.9	23.8	4.8	23.0	15.9	8.7	15.1	0.8	100.0
영통구	(247)	14.2	28.7	7.3	20.2	13.8	5.3	10.1	0.4	100.0
취업상태										
취업	(449)	12.2	22.7	7.1	22.9	13.8	10.5	10.5	0.2	100.0
미취업	(351)	10.3	25.1	8.3	18.5	14.8	7.4	14.8	0.9	100.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15.4	15.4	5.9	25.4	16.0	12.4	8.9	0.6	100.0
대학교 재학	(231)	14.3	26.0	9.5	15.2	13.4	8.2	12.6	0.9	100.0
대학교 졸업 이상	(400)	8.0	26.0	7.3	22.5	14.0	8.3	13.8	0.3	100.0

나. 확대필요 육아정책

○ 가장 확대가 필요한 육아 정책은 ‘육아 휴직 장려 및 급여 확대’로 24.9%를 차지함.

- 이어서 ‘자녀의 교육비 부담 완화’ 18.0%, ‘가구의 소득 증대’ 15.5%, ‘무상보육 교육비 확대’ 15.1% 등으로 나타남.



<그림 4-18> 확대필요 육아정책

○ 남성과 여성 모두 ‘육아 휴직 장려 및 급여 확대’가 중요하다고 답함 (남성 응답률 22.2%, 여성 응답률 27.8%)

- 남성은 ‘가구의 소득 증대’가 21.0%로 2순위로 나타난 데 반해 여성은 ‘자녀의 교육비 부담 완화’가 19.5%로 2순위를 차지함

○ 20~34세는 모두 ‘육아 휴직 장려 및 급여 확대’가 중요하다고 답했고, 35~39만이 21.9%의 비율로 ‘자녀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가장 필요한 육아 대책이라 응답함

○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육아 휴직 장려 및 급여 확대’가 중요하다고 답함

- 장안구 거주자의 경우 ‘육아 휴직 장려 및 급여 확대’ 와 ‘자녀의 교육비 부담 완화’가 동일한 21.4%의 비율로 나타남

○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육아 휴직 장려 및 급여 확대’가 중요하다고 답함

- 미취업자은 ‘가구의 소득 증대’가 17.4%로 2순위로 나타난 데 반해 취업자는 ‘자녀의 교육비 부담 완화’가 19.6%로 2순위를 차지함

○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응답자가 23.1%로 ‘무상보육교육비 확대’가 중요하다고 답했고, 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 이상 응답자는 각각 28.6%, 24.8%로 ‘육아 휴직 장려 및 급여 확대’가 중요하다고 답함

<표 4-25> 응답자 특성별 확대필요 육아정책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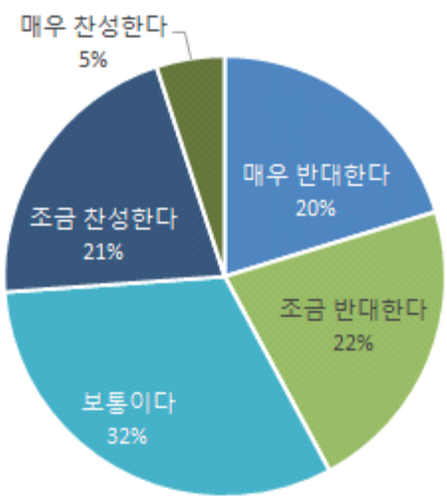
	사례수 (명)	육아 휴직 장려 및 급여 확대	자녀의 교육비 부담 완화	가구의 소득 증대	무상보육교육비 확대	방과후 서비스 확대	여성의 경력단절 부담 완화	가구의 주거 부담 완화	아동수당 신설	기타	계
전체	**(800)**	**24.9**	**18.0**	**15.5**	**15.1**	**8.8**	**7.4**	**7.1**	**3.1**	**0.1**	**100.0**
성별											
남성	(415)	22.2	16.6	21.0	17.3	8.0	3.1	8.2	3.6		100.0
여성	(385)	27.8	19.5	9.6	12.7	9.6	11.9	6.0	2.6	0.3	100.0
연령대											
20-24세	(219)	24.2	14.6	19.6	13.7	5.5	10.0	9.1	3.2		100.0
25-29세	(186)	31.2	20.4	15.6	10.8	7.0	5.4	7.0	2.2	0.5	100.0
30-34세	(185)	28.1	15.1	15.1	17.3	9.2	5.9	6.5	2.7		100.0
35-39세	(210)	17.1	21.9	11.4	18.6	13.3	7.6	5.7	4.3		100.0
거주 지역											
장안구	(182)	21.4	21.4	12.6	14.8	11.0	6.6	8.2	3.8		100.0
권선구	(245)	25.3	14.7	19.6	13.9	7.3	9.0	6.9	2.9	0.4	100.0
팔달구	(126)	29.4	17.5	18.3	15.1	4.0	6.3	6.3	3.2		100.0
영통구	(247)	24.7	19.0	12.1	16.6	10.9	6.9	6.9	2.8		100.0
취업상태											
취업	(449)	25.4	19.6	14.0	16.0	10.0	4.9	6.7	3.3		100.0
미취업	(351)	24.2	16.0	17.4	14.0	7.1	10.5	7.7	2.8	0.3	100.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20.1	17.2	18.9	23.1	4.7	2.4	9.5	4.1		100.0
대학교 재학	(231)	28.6	11.7	19.0	13.0	5.2	10.4	9.5	2.6		100.0
대학교 졸업 이상	(400)	24.8	22.0	12.0	13.0	12.5	7.8	4.8	3.0	0.3	100.0

다. 비취업 청년 비용 지급에 대한 의견

○ 비취업 청년 비용 지급에 대한 평균은 2.7로 보통에 미치지 못함

- 부정 응답률이 42.1%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단위 :%)



<그림 4-19> 비취업 청년 비용 지급에 대한 의견

○ 남성의 평균은 2.6, 여성의 평균은 2.7로 남녀 모두 보통 이하의 값을 보임 (남성 부정 응답률 42.4%, 여성 부정 응답률 41.8%)

○ 연령별로 보았을 때 20~24세에서는 평균 3.0으로 보통의 값을 보였고, 나머지 연령에서는 보통 이하의 평균을 보였는데 특히 35~39세에서는 2.3이라는 낮은 평균을 보임

- 부정 응답률은 30~34세가 44.9%로 가장 높았음

○ 거주 지역별로 전 지역에서 2.6~2.8의 평균으로 모두 보통 이하의 평균을 보임

○ 취업 여부에 따라 취업자 2.5, 미취업자 2.9의 평균을 보여 모두 보통 이하의 값을 보임 (취업자 부정 응답률 47.0%, 미취업자 부정 응답률 35.9%)

○ 대학교 재학생의 평균은 3.0으로 보통인데 반해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응답자나 대학교 졸업 이상 응답자는 각각 2.7, 2.5의 평균으로 보통에 미치지 못함

<표 4-26> 응답자 특성별 비취업 청년 비용 지급에 대한 의견

(단위 : %, 점)

	사례수 (명)	매우 반대한다	조금 반대한다	①+②	보통이다	조금 찬성한다	매우 찬성한다	④+⑤	계	평균
전체	**(800)**	**20.3**	**21.9**	**42.1**	**31.8**	**21.1**	**5.0**	**26.1**	**100.0**	**2.7**
성별										
남성	(415)	22.9	19.5	42.4	33.5	19.0	5.1	24.1	100.0	2.6
여성	(385)	17.4	24.4	41.8	29.9	23.4	4.9	28.3	100.0	2.7
연령대										
20-24세	(219)	9.6	21.5	31.1	37.0	24.7	7.3	32.0	100.0	3.0
25-29세	(186)	16.7	18.3	34.9	36.0	23.7	5.4	29.0	100.0	2.8
30-34세	(185)	23.2	21.6	44.9	30.3	21.1	3.8	24.9	100.0	2.6
35-39세	(210)	31.9	25.7	57.6	23.8	15.2	3.3	18.6	100.0	2.3
거주 지역										
장안구	(182)	24.7	22.0	46.7	31.9	15.4	6.0	21.4	100.0	2.6
권선구	(245)	18.0	19.6	37.6	29.0	30.2	3.3	33.5	100.0	2.8
팔달구	(126)	26.2	18.3	44.4	32.5	18.3	4.8	23.0	100.0	2.6
영통구	(247)	16.2	25.9	42.1	34.0	17.8	6.1	23.9	100.0	2.7
취업상태										
취업	(449)	25.2	21.8	47.0	29.8	19.8	3.3	23.2	100.0	2.5
미취업	(351)	14.0	21.9	35.9	34.2	22.8	7.1	29.9	100.0	2.9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22.5	18.3	40.8	31.4	23.7	4.1	27.8	100.0	2.7
대학교 재학	(231)	9.5	20.8	30.3	37.2	24.7	7.8	32.5	100.0	3.0
대학교 졸업 이상	(400)	25.5	24.0	49.5	28.8	18.0	3.8	21.8	100.0	2.5

(4) 수원시 청년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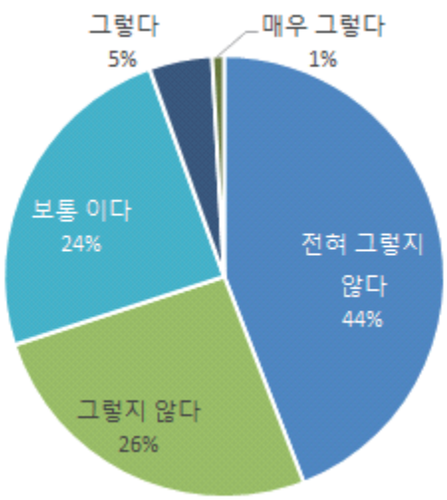
가. 수원시 청년정책에 대한 인식

■ 수원시 추진 청년정책 인지도

○ ‘수원시에서 추진하는 청년정책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느냐’ 는 질문에 대한 평균은 1.9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부정 응답률은 70.0%에 달함

(단위 :%)



<그림 4-20> 수원시 추진 청년정책 인지도

○ 남녀의 평균 모두 1.9로 부정적인 응답을 함

- 부정 응답률은 은 남성이 70.1%로 여성의 69.9%로 나타남

○ 연령에 관계없이 전 연령에서 1.9~2.0의 낮은 평균을 보임

○ 거주 지역별로 전 지역에서 1.9~2.0의 평균으로 모두 부정적인 응답을 함

○ 취업 여부에 따라 취업자 2.0, 미취업자 1.8의 평균을 보여 모두 부정적인 응답을 함

- 67.9%인 취업 응답자에 비해 미취업 응답자가 72.6%로 더 높은 부정 응답률을 보임

○ 학력에 관계없이 모두 1.9의 평균을 보여 수원시 추진 정책을 잘 인지하고 있지 못한다고 응답함

<표 4-27> 응답자 특성별 수원시 추진 청년정책 인지도

(단위 :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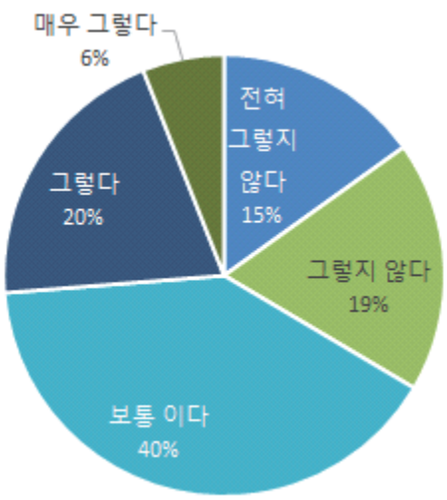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	①+②	보통 이다	→	매우 그렇다	④+⑤	계	평균
전체	**(800)**	**44.1**	**25.9**	**70.0**	**24.5**	**4.6**	**0.9**	**5.5**	**100.0**	**1.9**
성별										
남성	(415)	44.6	25.5	70.1	25.1	4.1	0.7	4.8	100.0	1.9
여성	(385)	43.6	26.2	69.9	23.9	5.2	1.0	6.2	100.0	1.9
연령대										
20-24세	(219)	45.2	25.6	70.8	21.9	5.9	1.4	7.3	100.0	1.9
25-29세	(186)	45.7	22.0	67.7	23.7	7.5	1.1	8.6	100.0	2.0
30-34세	(185)	42.7	29.7	72.4	24.9	2.2	0.5	2.7	100.0	1.9
35-39세	(210)	42.9	26.2	69.0	27.6	2.9	0.5	3.3	100.0	1.9
거주 지역										
장안구	(182)	44.5	15.9	60.4	31.9	6.0	1.6	7.7	100.0	2.0
권선구	(245)	45.7	27.3	73.1	22.4	4.1	0.4	4.5	100.0	1.9
팔달구	(126)	41.3	31.0	72.2	22.2	4.8	0.8	5.6	100.0	1.9
영통구	(247)	43.7	29.1	72.9	22.3	4.0	0.8	4.9	100.0	1.9
취업상태										
취업	(449)	39.9	28.1	67.9	26.7	4.5	0.9	5.3	100.0	2.0
미취업	(351)	49.6	23.1	72.6	21.7	4.8	0.9	5.7	100.0	1.8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42.0	27.2	69.2	26.6	3.0	1.2	4.1	100.0	1.9
대학교 재학	(231)	45.5	24.2	69.7	22.9	6.5	0.9	7.4	100.0	1.9
대학교 졸업 이상	(400)	44.3	26.3	70.5	24.5	4.3	0.8	5.0	100.0	1.9

■ 수원시 추진 청년정책 참여 희망도

○ ‘수원시에서 추진하는 청년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 는 질문에 대한 평균은 2.8로 보통에 약간 미치지 못함

- ‘보통이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40.3%로 가장 높음

(단위 :%)



<그림 4-21> 수원시 추진 청년정책 참여 희망도

○ 남성의 평균은 2.8, 여성의 평균은 2.9로 모두 보통에 약간 미치지 못함

○ 20대의 경우 3.0으로 보통의 평균을 보였고 30대는 2.6~2.7의 평균으로 보통에 약간 미치지 못함

○ 장안구 거주자의 평균은 3.0으로 보통이었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2.7~2.9의 평균을 가짐으로써 보통에 약간 미치지 못함

- 권선구와 영통구에서는 부정 응답률이 각각 37.1%, 41.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평균 2.8~2.9로 보통에 약간 미치지 못함

○ 학력에 관계없이 평균 2.8~2.9로 보통에 약간 미치지 못함

<표 4-28> 응답자 특성별 수원시 추진 청년정책 참여 희망도

(단위 :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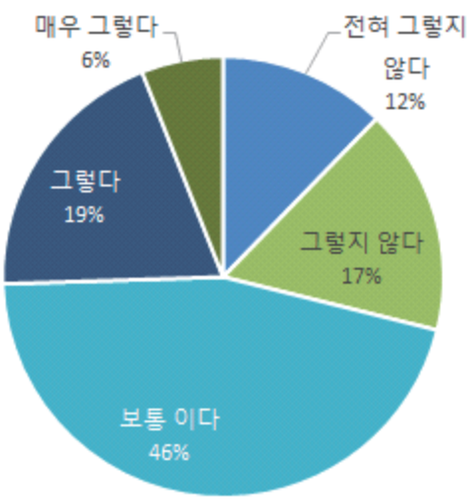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	①+②	보통 이다	→	매우 그렇다	④+⑤	계	평균
전체	**(800)**	**15.1**	**18.4**	**33.5**	**40.3**	**20.3**	**6.0**	**26.3**	**100.0**	**2.8**
성별										
남성	(415)	15.4	20.0	35.4	41.9	17.8	4.8	22.7	100.0	2.8
여성	(385)	14.8	16.6	31.4	38.4	22.9	7.3	30.1	100.0	2.9
연령대										
20-24세	(219)	11.4	18.7	30.1	37.4	24.7	7.8	32.4	100.0	3.0
25-29세	(186)	12.9	13.4	26.3	40.9	22.6	10.2	32.8	100.0	3.0
30-34세	(185)	20.0	18.4	38.4	39.5	18.4	3.8	22.2	100.0	2.7
35-39세	(210)	16.7	22.4	39.0	43.3	15.2	2.4	17.6	100.0	2.6
거주 지역										
장안구	(182)	12.6	8.2	20.9	52.7	20.3	6.0	26.4	100.0	3.0
권선구	(245)	12.2	24.9	37.1	35.5	21.6	5.7	27.3	100.0	2.8
팔달구	(126)	15.1	14.3	29.4	42.9	19.8	7.9	27.8	100.0	2.9
영통구	(247)	19.8	21.5	41.3	34.4	19.0	5.3	24.3	100.0	2.7
취업상태										
취업	(449)	15.4	18.7	34.1	40.3	20.3	5.3	25.6	100.0	2.8
미취업	(351)	14.8	17.9	32.8	40.2	20.2	6.8	27.1	100.0	2.9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15.4	20.1	35.5	37.9	21.9	4.7	26.6	100.0	2.8
대학교 재학	(231)	10.8	20.8	31.6	39.0	22.5	6.9	29.4	100.0	2.9
대학교 졸업 이상	(400)	17.5	16.3	33.8	42.0	18.3	6.0	24.3	100.0	2.8

■ 수원시 청년정책 실효성

○ ‘수원시 청년정책은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들이다’ 라는 질문에 대한 평균은 2.9로 보통에 약간 미치지 못함

-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5.6%로 가장 높음

(단위 :%)



<그림 4-22> 수원시 청년정책 실효성

○ 남성의 평균은 2.8, 여성의 평균은 3.1로 남성은 보통 이하, 여성은 보통 이상의 평균을 보임

○ 25~34세의 경우에는 3.0으로 보통의 평균을 보였고 20~24세, 35~39세는 평균이 각각 2.9, 2.8로 보통에 약간 미치지 못함

○ 장안구와 권선구 거주자는 평균 3.0으로 보통이었고, 팔달구와 영통구 거주자의 평균은 각각 2.8, 2.9로 보통에 약간 미치지 못함

- 장안구는 반수가 넘는 53.3%가 ‘보통이다’라고 답함

○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평균 2.9로 보통에 약간 미치지 못함

○ 학력에 관계없이 평균 2.9로 보통에 약간 미치지 못함

<표 4-29> 응답자 특성별 수원시 청년정책 실효성

(단위 : %, 점)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	①+②	보통 이다	→	매우 그렇다	④+⑤	계	평균
전체	**(800)**	**12.3**	**16.6**	**28.9**	**45.6**	**19.5**	**6.0**	**25.5**	**100.0**	**2.9**
성별										
남성	(415)	14.9	20.2	35.2	43.6	16.6	4.6	21.2	100.0	2.8
여성	(385)	9.4	12.7	22.1	47.8	22.6	7.5	30.1	100.0	3.1
연령대										
20-24세	(219)	14.2	15.5	29.7	43.4	21.5	5.5	26.9	100.0	2.9
25-29세	(186)	9.7	15.6	25.3	45.2	21.0	8.6	29.6	100.0	3.0
30-34세	(185)	11.9	14.1	25.9	47.0	20.0	7.0	27.0	100.0	3.0
35-39세	(210)	12.9	21.0	33.8	47.1	15.7	3.3	19.0	100.0	2.8
거주 지역										
장안구	(182)	11.5	8.8	20.3	53.3	22.0	4.4	26.4	100.0	3.0
권선구	(245)	10.2	15.5	25.7	46.9	21.2	6.1	27.3	100.0	3.0
팔달구	(126)	16.7	12.7	29.4	42.9	17.5	10.3	27.8	100.0	2.9
영통구	(247)	12.6	25.5	38.1	40.1	17.0	4.9	21.9	100.0	2.8
취업상태										
취업	(449)	12.2	16.9	29.2	43.0	21.8	6.0	27.8	100.0	2.9
미취업	(351)	12.3	16.2	28.5	49.0	16.5	6.0	22.5	100.0	2.9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11.8	18.3	30.2	46.7	17.8	5.3	23.1	100.0	2.9
대학교 재학	(231)	13.0	18.2	31.2	45.5	16.9	6.5	23.4	100.0	2.9
대학교 졸업 이상	(400)	12.0	15.0	27.0	45.3	21.8	6.0	27.8	100.0	2.9

나. 수원시 청년정책 경험

■ 청년 정책 참여 여부

○ 청년 정책 참여 여부에 대해 응답자의 95.4%가 '없다' 라고 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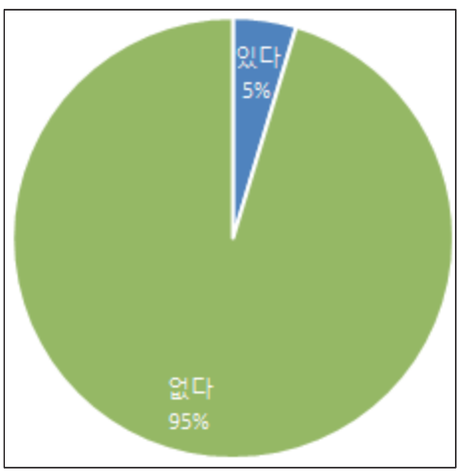
○ 남성이 참여한 경험이 3.9%로 여성 참여율 5.5%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대에 따른 참여율은 25~29세가 8.1%로 가장 높았고, 35~39세가 2.4%로 가장 낮음

○ 장안구 거주자가 7.7%로 참여율이 가장 높았고, 팔달구 거주자가 2.4%로 가장 낮음

○ 취업자에 비해 미취업자의 참여율이 더 낮게 나타남

○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응답자의 참여율이 1.8%로 가장 낮았고 대학교 재학생의 참여율이 6.1%로 가장 높음



<그림 4-23> 청년 정책 참여 여부

<표 4-30> 응답자 특성별 청년 정책 참여 여부

(단위 : %)

	사례수 (명)	있다	없다	계
전체	**(800)**	**4.6**	**95.4**	**100.0**
성별				
남성	(415)	3.9	96.1	100.0
여성	(385)	5.5	94.5	100.0
연령대				
20-24세	(219)	4.6	95.4	100.0
25-29세	(186)	8.1	91.9	100.0
30-34세	(185)	3.8	96.2	100.0
35-39세	(210)	2.4	97.6	100.0
거주 지역				
장안구	(182)	7.7	92.3	100.0
권선구	(245)	4.5	95.5	100.0
팔달구	(126)	2.4	97.6	100.0
영통구	(247)	3.6	96.4	100.0
취업상태				
취업	(449)	4.9	95.1	100.0
미취업	(351)	4.3	95.7	100.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1.8	98.2	100.0
대학교 재학	(231)	6.1	93.9	100.0
대학교 졸업 이상	(400)	5.0	95.0	100.0

■ 수원시 운영 공간 인지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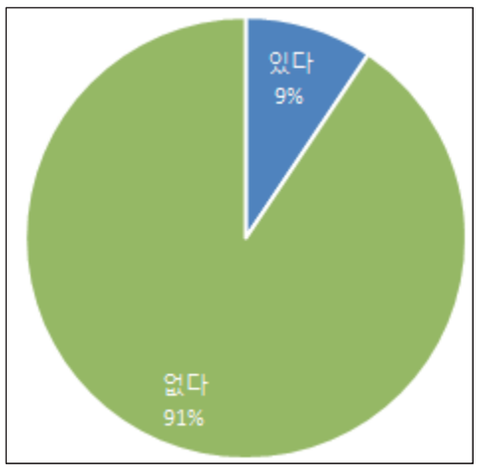
○ 수원시 운영 공간 인지여부에 대해 응답자의 90.6%가 '없다' 라고 답함

○ 남성의 인지도는 7.7%로 여성의 인지도인 11.2%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대에 따른 인지도는 25~29세가 12.9%로 가장 높았고, 20~24세가 6.8%로 가장 낮음

○ 팔달구 거주자가 14.3%로 인지도가 가장 높았고, 권선구 거주자가 6.1%로 가장 낮음

○ 취업자의 인지도는 10.5%로 미취업자의 인지도인 8.0%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남



<그림 4-24> 수원시 운영 공간 인지여부

○ 대학교 재학생의 인지도가 7.8%로 가장 낮았고 대학교 졸업 이상 응답자의 인지도가 10.8%로 가장 높음

<표 4-31> 응답자 특성별 수원시 운영 공간 인지여부

(단위 : %)

	사례수 (명)	있다	없다	계
전체	**(800)**	**9.4**	**90.6**	**100.0**
성별				
남성	(415)	7.7	92.3	100.0
여성	(385)	11.2	88.8	100.0
연령대				
20-24세	(219)	6.8	93.2	100.0
25-29세	(186)	12.9	87.1	100.0
30-34세	(185)	10.8	89.2	100.0
35-39세	(210)	7.6	92.4	100.0
거주 지역				
장안구	(182)	13.2	86.8	100.0
권선구	(245)	6.1	93.9	100.0
팔달구	(126)	14.3	85.7	100.0
영통구	(247)	7.3	92.7	100.0
취업상태				
취업	(449)	10.5	89.5	100.0
미취업	(351)	8.0	92.0	100.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8.3	91.7	100.0
대학교 재학	(231)	7.8	92.2	100.0
대학교 졸업 이상	(400)	10.8	89.3	100.0

■ 수원시 운영 공간 이용 경험 여부

○ 수원시 운영 공간 이용 경험 여부에 대해 응답자의 70.7%가 '없다' 라고 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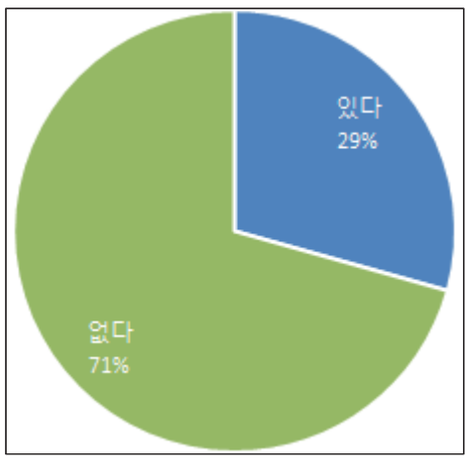
○ 남성의 이용 경험은 31.3%로 여성의 27.9%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대에 따른 이용 경험은 25~29세가 37.5%로 가장 높았고, 35~39세가 81.3%로 가장 낮음

○ 장안구 거주자가 37.5%로 이용 경험이 가장 많았고, 권선구 거주자가 20.0%로 가장 적음

○ 취업자의 이용률이 27.7%로 미취업자의 이용률인 32.1%에 비해 낮게 나타남

○ 대학교 재학생의 이용 경험이 44.4%로 가장 높았고 대학교 졸업 이상 응답자의 이용 경험이 23.3%로 가장 낮음



<그림 4-25> 수원시 운영 공간 이용 경험 여부

<표 4-32> 응답자 특성별 수원시 운영 공간 이용 경험 여부

(단위 : %)

	사례수 (명)	있다	없다	계
전체	**(75)**	**29.3**	**70.7**	**100.0**
성별				
남성	(32)	31.3	68.8	100.0
여성	(43)	27.9	72.1	100.0
연령대				
20-24세	(15)	26.7	73.3	100.0
25-29세	(24)	37.5	62.5	100.0
30-34세	(20)	30.0	70.0	100.0
35-39세	(16)	18.8	81.3	100.0
거주 지역				
장안구	(24)	37.5	62.5	100.0
권선구	(15)	20.0	80.0	100.0
팔달구	(18)	27.8	72.2	100.0
영통구	(18)	27.8	72.2	100.0
취업상태				
취업	(47)	27.7	72.3	100.0
미취업	(28)	32.1	67.9	100.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4)	28.6	71.4	100.0
대학교 재학	(18)	44.4	55.6	100.0
대학교 졸업 이상	(43)	23.3	76.7	100.0

2) 사회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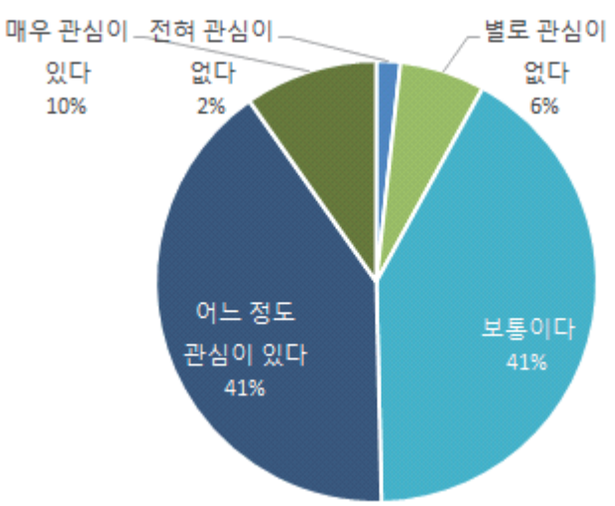
(1) 사회문제 관심도

가. 사회 문제 관심 정도

○ 사회 문제 관심 정도에 대한 평균은 3.5로 보통을 넘음

- 긍정 응답률이 50.4%로 가장 높음

(단위 : %)



<그림 4-26> 사회 문제 관심 정도

○ 남녀 모두 평균 3.5로 보통을 넘음

- 긍정적 응답 비율은 남성이 52.5%, 여성이 48.1%로 나타남

○ 연령별에 관계없이 모두 보통 이상의 평균을 보였는데 특히 30대의 평균은 3.6으로 전체의 평균보다 높게 나타남

- 35~39세의 응답 비율이 56.2%로 가장 높고, 20~24세의 비율은 40.6%로 가장 낮음

○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모두 보통 이상의 평균을 보였고, 특히 권선구 거주자의 평균이 3.7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장안구 거주자는 '보통이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52.2%로 가장 높았고, 권선구 거주자가 긍정 응답률이 58.0%로 가장 높음

○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보통 이상의 평균을 보임

- 취업자는 긍정적인 응답이 54.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미취업자는 '보통이다' 가 47.0%로 가장 높음

○ 학력에 관계없이 모두 보통 이상의 평균을 보였으며 특히 대학교 졸업 이상 응답자의 평균이 3.7로 가장 높았음

-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응답자와 대학교 재학생은 '보통이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학교 졸업 이상 응답자의 경우에는 긍정적인 응답이 58.3%로 가장 높음

<표 4-33> 응답자 특성별 사회 문제 관심 정도

(단위 :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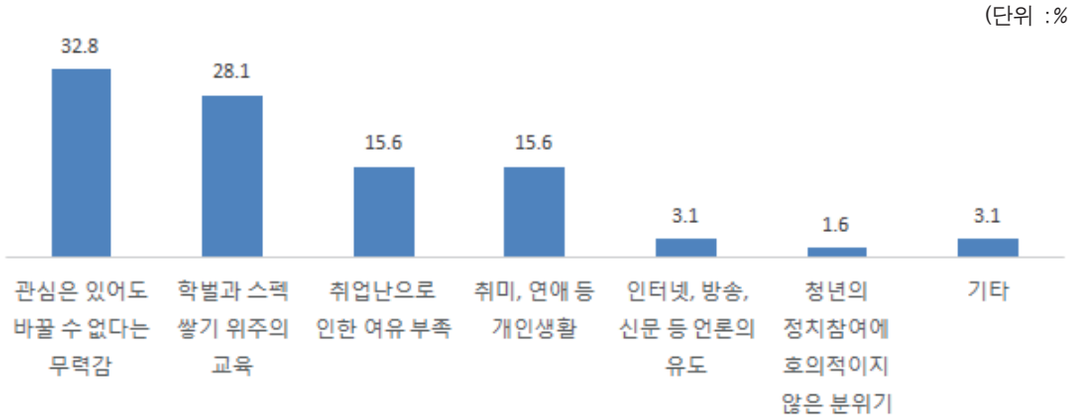
	사례수 (명)	전혀 관심이 없다	별로 관심이 없다	①+②	보통이다	어느 정도 관심이 있다	매우 관심이 있다	④+⑤	계	평균
전체	**(800)**	**1.8**	**6.3**	**8.0**	**41.6**	**40.6**	**9.8**	**50.4**	**100.0**	**3.5**
성별										
남성	(415)	1.7	5.1	6.7	40.7	43.1	9.4	52.5	100.0	3.5
여성	(385)	1.8	7.5	9.4	42.6	37.9	10.1	48.1	100.0	3.5
연령대										
20-24세	(219)	2.3	10.5	12.8	46.6	35.2	5.5	40.6	100.0	3.3
25-29세	(186)	1.1	8.1	9.1	39.8	42.5	8.6	51.1	100.0	3.5
30-34세	(185)	1.1	2.2	3.2	42.2	42.2	12.4	54.6	100.0	3.6
35-39세	(210)	2.4	3.8	6.2	37.6	43.3	12.9	56.2	100.0	3.6
거주 지역										
장안구	(182)	4.4	7.7	12.1	52.2	28.0	7.7	35.7	100.0	3.3
권선구	(245)		3.7	3.7	38.4	46.9	11.0	58.0	100.0	3.7
팔달구	(126)	4.0	8.7	12.7	36.5	41.3	9.5	50.8	100.0	3.4
영통구	(247)	0.4	6.5	6.9	39.7	43.3	10.1	53.4	100.0	3.6
취업상태										
취업	(449)	2.2	5.6	7.8	37.4	44.1	10.7	54.8	100.0	3.6
미취업	(351)	1.1	7.1	8.3	47.0	36.2	8.5	44.7	100.0	3.4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4.1	8.9	13.0	44.4	34.9	7.7	42.6	100.0	3.3
대학교 재학	(231)	0.9	9.5	10.4	47.2	35.9	6.5	42.4	100.0	3.4
대학교 졸업 이상	(400)	1.3	3.3	4.5	37.3	45.8	12.5	58.3	100.0	3.7

나. 사회 문제에 관심 없는 이유

○ 사회 문제에 관심이 없는 이유로는 ‘관심은 있어도 바꿀 수 없다는 무력감’이 32.8%로 가장 높았음

- 이어서 ‘학벌과 스펙 쌓기 위주의 교육’이 28.1%, 그리고 ‘취업난으로 인한 여유 부족’과 ‘취미, 연애 등 개인생활’이 각각 15.6%임

(단위 : %)



<그림 4-27> 사회 문제에 관심 없는 이유

○ 남성의 경우 ‘학벌과 스펙 쌓기 위주의 교육’과 ‘관심은 있어도 바꿀 수 없다는 무력감’ 두 가지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고, 여성은 ‘관심은 있어도 바꿀 수 없다는 무력감’이 36.1%로 가장 높게 나타남

○ 20대, 그리고 35~39세는 ‘학벌과 스펙 쌓기 위주의 교육’를 가장 큰 이유로 생각했고, 30대는 ‘관심은 있어도 바꿀 수 없다는 무력감’을 가장 많이 응답함

○ 모든 구에서 ‘관심은 있어도 바꿀 수 없다는 무력감’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 중 권선구 거주자들은 44.4%가 이 항목을 선택함

- 팔달구 거주자들은 ‘학벌과 스펙 쌓기 위주의 교육’도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라고 응답함

○ 취업자는 ‘관심은 있어도 바꿀 수 없다는 무력감’이 37.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미취업자는 ‘학벌과 스펙 쌓기 위주의 교육’이 34.5%로 가장 높음

○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응답자와 대학교 재학생은 ‘학벌과 스펙 쌓기 위주의 교육’이 이유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학교 졸업 이상 응답자의 경우에는 ‘관심은 있어도 바꿀 수 없다는 무력감’이 55.6%로 가장 높음

<표 4-34> 사회 문제에 관심 없는 이유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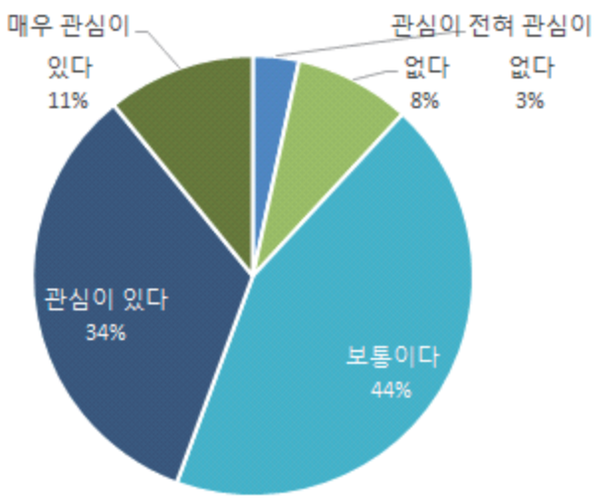
	사례수 (명)	학벌과 스펙 쌓기 위주의 교육	취미, 연애 등 개인생활	인터넷, 방송, 신문 등 언론의 유도	청년의 정치참여에 호의적이지 않은 분위기	관심은 있어도 바꿀 수 없다는 무력감	취업난으로 인한 여유 부족	기타	계
전체	**(64)**	**28.1**	**15.6**	**3.1**	**1.6**	**32.8**	**15.6**	**3.1**	**100.0**
성별									
남성	(28)	28.6	14.3	7.1	3.6	28.6	14.3	3.6	100.0
여성	(36)	27.8	16.7			36.1	16.7	2.8	100.0
연령대									
20-24세	(28)	28.6	25.0			25.0	21.4		100.0
25-29세	(17)	41.2	5.9		5.9	35.3	5.9	5.9	100.0
30-34세	(6)					83.3	16.7		100.0
35-39세	(13)	23.1	15.4	15.4		23.1	15.4	7.7	100.0
거주 지역									
장안구	(22)	27.3	13.6		4.5	31.8	18.2	4.5	100.0
권선구	(9)	33.3		11.1		44.4		11.1	100.0
팔달구	(16)	31.3	18.8			31.3	18.8		100.0
영통구	(17)	23.5	23.5	5.9		29.4	17.6		100.0
취업상태									
취업	(35)	22.9	17.1	5.7		37.1	17.1		100.0
미취업	(29)	34.5	13.8		3.4	27.6	13.8	6.9	100.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22)	31.8	18.2	4.5	4.5	27.3	13.6		100.0
대학교 재학	(24)	29.2	20.8	4.2		20.8	20.8	4.2	100.0
대학교 졸업 이상	(18)	22.2	5.6			55.6	11.1	5.6	100.0

■ 직장 및 사회에서 성차별적인 분위기 문제 관심 정도

○ ‘직장 및 사회에서 성차별적인 분위기’ 문제에 대한 관심 정도에 대한 평균은 3.4로 보통을 넘음

- 긍정 응답률이 44.4%로 가장 높음

(단위 : %)



<그림 4-28> 직장 및 사회에서 성차별적인 분위기 문제 관심 정도

○ 남성의 평균은 3.2, 여성의 평균은 3.6으로 모두 보통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 여성의 경우 긍정 응답률이 56.1%로 나타남

○ 연령별에 관계없이 모두 3.4의 평균을 보여 보통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 20~24세, 30~34세에서는 긍정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남

○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모두 3.4의 평균을 보여 보통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거주자 모두 긍정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 중 팔달구 거주자가 51.6%로 가장 높음

○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3.4의 평균을 보여 보통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 학력에 관계없이 3.3~3.5의 평균을 가짐으로써 모두 보통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표 4-35> 응답자 특성별 직장 및 사회에서 성차별적인 분위기 문제 관심 정도

(단위 :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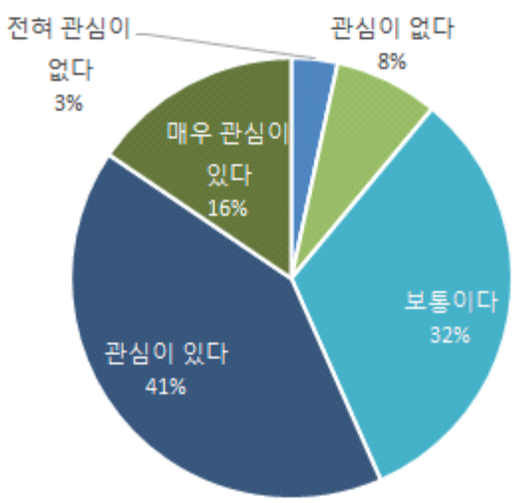
	사례수 (명)	전혀 관심이 없다	←	①+②	보통이다	→	매우 관심이 있다	④+⑤	계	평균
전체	**(800)**	**3.4**	**8.5**	**11.9**	**43.8**	**33.5**	**10.9**	**44.4**	**100.0**	**3.4**
성별										
남성	(415)	4.3	12.5	16.9	49.6	26.5	7.0	33.5	100.0	3.2
여성	(385)	2.3	4.2	6.5	37.4	41.0	15.1	56.1	100.0	3.6
연령대										
20-24세	(219)	2.3	12.8	15.1	40.2	30.6	14.2	44.7	100.0	3.4
25-29세	(186)	4.3	7.0	11.3	45.2	33.9	9.7	43.5	100.0	3.4
30-34세	(185)	3.8	7.0	10.8	43.2	34.6	11.4	45.9	100.0	3.4
35-39세	(210)	3.3	6.7	10.0	46.7	35.2	8.1	43.3	100.0	3.4
거주 지역										
장안구	(182)	6.0	6.0	12.1	43.4	33.0	11.5	44.5	100.0	3.4
권선구	(245)	2.0	10.6	12.7	42.4	34.3	10.6	44.9	100.0	3.4
팔달구	(126)	5.6	7.1	12.7	35.7	40.5	11.1	51.6	100.0	3.4
영통구	(247)	1.6	8.9	10.5	49.4	29.6	10.5	40.1	100.0	3.4
취업상태										
취업	(449)	3.6	7.1	10.7	44.3	34.3	10.7	45.0	100.0	3.4
미취업	(351)	3.1	10.3	13.4	43.0	32.5	11.1	43.6	100.0	3.4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4.7	11.8	16.6	45.0	30.2	8.3	38.5	100.0	3.3
대학교 재학	(231)	2.2	11.7	13.9	42.9	31.6	11.7	43.3	100.0	3.4
대학교 졸업 이상	(400)	3.5	5.3	8.8	43.8	36.0	11.5	47.5	100.0	3.5

■ 계층 간 불평등 문제 관심 정도

○ '계층 간 불평등' 문제에 대한 관심 정도에 대한 평균은 3.6으로 보통을 넘음

- 긍정 응답률이 56.6%로 가장 높음

(단위 : %)



<그림 4-29> 계층 간 불평등 문제 관심 정도

○ 남성의 평균은 3.5, 여성의 평균은 3.7로 모두 보통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남성 긍정 응답률 52.8%, 여성 긍정 응답률 60.8%)

○ 연령별에 관계없이 3.4~3.7의 평균을 보여 보통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 30~34세의 긍정 응답률이 64.9%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모두 3.5~3.6의 평균을 보여 보통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 권선구 거주자의 긍정 응답률이 59.6%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3.5~3.6의 평균을 보여 보통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취업자 57.9%, 미취업자 55.0%)

○ 학력에 관계없이 모두 보통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대학교 졸업 이상 응답자의 평균이 3.7로 가장 높았음

- 대학교 졸업 이상 응답자의 긍정 응답률이 62.8%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4-36> 응답자 특성별 계층 간 불평등 문제 관심 정도

(단위 :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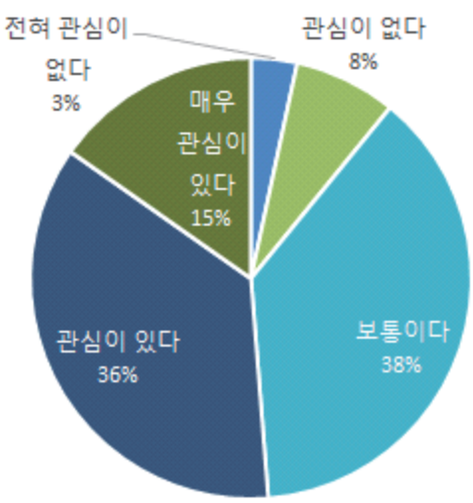
	사례수 (명)	전혀 관심이 없다	←	①+②	보통이다	→	매우 관심이 있다	④+⑤	계	평균
전체	**(800)**	**3.4**	**7.6**	**11.0**	**32.4**	**41.1**	**15.5**	**56.6**	**100.0**	**3.6**
성별										
남성	(415)	4.6	9.9	14.5	32.8	38.1	14.7	52.8	100.0	3.5
여성	(385)	2.1	5.2	7.3	31.9	44.4	16.4	60.8	100.0	3.7
연령대										
20-24세	(219)	4.1	11.4	15.5	37.0	34.2	13.2	47.5	100.0	3.4
25-29세	(186)	4.3	5.4	9.7	32.3	42.5	15.6	58.1	100.0	3.6
30-34세	(185)	3.2	4.9	8.1	27.0	48.1	16.8	64.9	100.0	3.7
35-39세	(210)	1.9	8.1	10.0	32.4	41.0	16.7	57.6	100.0	3.6
거주 지역										
장안구	(182)	6.0	4.9	11.0	37.4	33.5	18.1	51.6	100.0	3.5
권선구	(245)	2.4	8.2	10.6	29.8	45.7	13.9	59.6	100.0	3.6
팔달구	(126)	6.3	7.1	13.5	29.4	41.3	15.9	57.1	100.0	3.5
영통구	(247)	0.8	9.3	10.1	32.8	42.1	15.0	57.1	100.0	3.6
취업상태										
취업	(449)	2.7	7.8	10.5	31.6	40.8	17.1	57.9	100.0	3.6
미취업	(351)	4.3	7.4	11.7	33.3	41.6	13.4	55.0	100.0	3.5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5.9	9.5	15.4	33.1	42.0	9.5	51.5	100.0	3.4
대학교 재학	(231)	3.5	10.4	13.9	36.4	37.7	12.1	49.8	100.0	3.4
대학교 졸업 이상	(400)	2.3	5.3	7.5	29.8	42.8	20.0	62.8	100.0	3.7

■ 미세먼지, 생태계파괴 등 환경문제 관심 정도

○ ‘미세먼지, 생태계파괴 등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 정도에 대한 평균은 3.5로 보통을 넘음

- 긍정 응답률이 51.3%로 가장 높음

(단위 :%)



<그림 4-30> 미세먼지, 생태계파괴 등 환경문제 관심 정도

○ 남성의 평균은 3.4, 여성의 평균은 3.7로 모두 보통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남성 긍정 응답률 45.8%, 여성 긍정 응답률 57.1%)

○ 20대는 3.3~3.4의 평균을 보였고, 30대는 3.6~3.8의 평균을 보임으로써 모두 보통 이상이고 특히 30대가 약간 높은 평균을 가짐을 알 수 있음

- 35~39세가 61.9%로 긍정 응답률이 가장 높음

○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모두 3.4~3.6의 평균을 보여 보통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 영통구 거주자가 52.2%로 긍정 응답률이 가장 높음

○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3.4~3.6의 평균을 보여 보통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취업자 54.3%, 미취업자 47.3%)

○ 학력에 관계없이 모두 보통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대학교 졸업 이상 응답자의 평균이 3.7로 가장 높았음

- 대학교 졸업 이상 응답자의 긍정 응답률이 60.3%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4-37> 응답자 특성별 미세먼지, 생태계파괴 등 환경문제 관심 정도

(단위 :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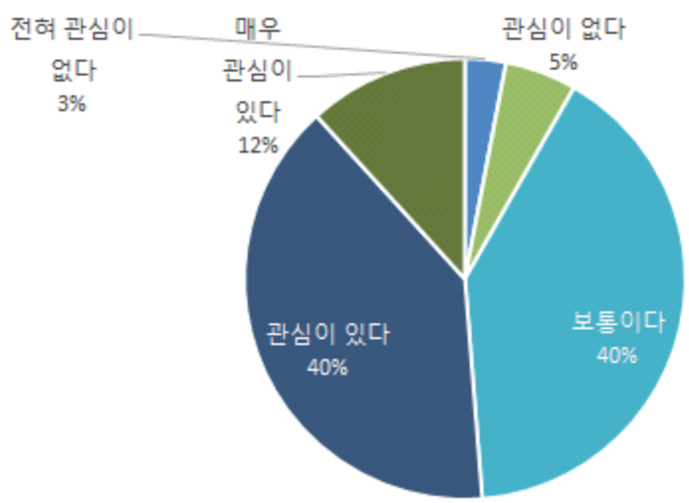
	사례수 (명)	전혀 관심이 없다	←	①+②	보통이다	→	매우 관심이 있다	④+⑤	계	평균
전체	**(800)**	**3.4**	**7.5**	**10.9**	**37.9**	**36.0**	**15.3**	**51.3**	**100.0**	**3.5**
성별										
남성	(415)	5.1	9.6	14.7	39.5	32.0	13.7	45.8	100.0	3.4
여성	(385)	1.6	5.2	6.8	36.1	40.3	16.9	57.1	100.0	3.7
연령대										
20-24세	(219)	3.2	12.3	15.5	42.9	32.9	8.7	41.6	100.0	3.3
25-29세	(186)	4.8	8.6	13.4	39.8	37.1	9.7	46.8	100.0	3.4
30-34세	(185)	3.8	4.9	8.6	36.2	34.6	20.5	55.1	100.0	3.6
35-39세	(210)	1.9	3.8	5.7	32.4	39.5	22.4	61.9	100.0	3.8
거주 지역										
장안구	(182)	6.0	7.7	13.7	34.6	31.3	20.3	51.6	100.0	3.5
권선구	(245)	1.2	6.9	8.2	40.4	38.4	13.1	51.4	100.0	3.6
팔달구	(126)	7.9	12.7	20.6	31.0	31.0	17.5	48.4	100.0	3.4
영통구	(247)	1.2	5.3	6.5	41.3	39.7	12.6	52.2	100.0	3.6
취업상태										
취업	(449)	3.1	5.3	8.5	37.2	37.9	16.5	54.3	100.0	3.6
미취업	(351)	3.7	10.3	14.0	38.7	33.6	13.7	47.3	100.0	3.4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5.9	9.5	15.4	38.5	35.5	10.7	46.2	100.0	3.4
대학교 재학	(231)	3.5	13.4	16.9	43.7	30.7	8.7	39.4	100.0	3.3
대학교 졸업 이상	(400)	2.3	3.3	5.5	34.3	39.3	21.0	60.3	100.0	3.7

■ 일자리, 연금 등을 둘러싼 세대 갈등 문제 관심 정도

○ ‘일자리, 연금 등을 둘러싼 세대 갈등’ 문제에 대한 관심 정도에 대한 평균은 3.5로 보통을 넘음

- 긍정 응답률이 51.3%로 가장 높음

(단위 : %)



<그림 4-31> 일자리, 연금 등을 둘러싼 세대 갈등 문제 관심 정도

○ 남성의 평균은 3.5, 여성의 평균은 3.6으로 모두 보통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남성 긍정 응답률 48.4%, 여성 긍정 응답률 54.3%)

○ 20대는 3.4의 평균을 보였고, 30대는 3.6~3.7의 평균을 보임으로써 모두 보통 이상이고 특히 30대가 약간 높은 평균을 가짐을 알 수 있음

- 이 중 30~34세가 57.8%로 긍정 응답률이 가장 높음

○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모두 3.5~3.6의 평균을 보여 보통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 특히 팔달구 거주자의 긍정 응답률이 57.9%로 가장 높음

○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3.4~3.6의 평균을 보여 보통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 취업자는 긍정 응답률이 56.8%, 미취업자는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8.4%로 가장 높음

○ 학력에 관계없이 모두 보통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대학교 졸업 이상 응답자의 평균이 3.6으로 가장 높았음

- 긍정 응답률은 대학교 졸업 이상 응답자에서 56.3%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4-38> 응답자 특성별 일자리, 연금 등을 둘러싼 세대 갈등 문제 관심 정도

(단위 : %, 점)

	사례수 (명)	전혀 관심이 없다	←	①+②	보통이다	→	매우 관심이 있다	④+⑤	계	평균
전체	**(800)**	**3.0**	**5.3**	**8.3**	**40.5**	**39.5**	**11.8**	**51.3**	**100.0**	**3.5**
성별										
남성	(415)	4.1	5.5	9.6	41.9	37.1	11.3	48.4	100.0	3.5
여성	(385)	1.8	4.9	6.8	39.0	42.1	12.2	54.3	100.0	3.6
연령대										
20-24세	(219)	4.1	8.2	12.3	43.8	34.7	9.1	43.8	100.0	3.4
25-29세	(186)	4.3	4.8	9.1	44.6	39.2	7.0	46.2	100.0	3.4
30-34세	(185)	2.7	3.8	6.5	35.7	42.2	15.7	57.8	100.0	3.6
35-39세	(210)	1.0	3.8	4.8	37.6	42.4	15.2	57.6	100.0	3.7
거주 지역										
장안구	(182)	6.0	4.9	11.0	39.6	36.3	13.2	49.5	100.0	3.5
권선구	(245)	0.4	5.3	5.7	42.4	40.4	11.4	51.8	100.0	3.6
팔달구	(126)	7.1	6.3	13.5	28.6	45.2	12.7	57.9	100.0	3.5
영통구	(247)	1.2	4.9	6.1	45.3	38.1	10.5	48.6	100.0	3.5
취업상태										
취업	(449)	2.7	4.9	7.6	35.9	43.2	13.4	56.6	100.0	3.6
미취업	(351)	3.4	5.7	9.1	46.4	34.8	9.7	44.4	100.0	3.4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5.3	7.1	12.4	38.5	39.6	9.5	49.1	100.0	3.4
대학교 재학	(231)	2.6	6.9	9.5	46.3	35.1	9.1	44.2	100.0	3.4
대학교 졸업 이상	(400)	2.3	3.5	5.8	38.0	42.0	14.3	56.3	100.0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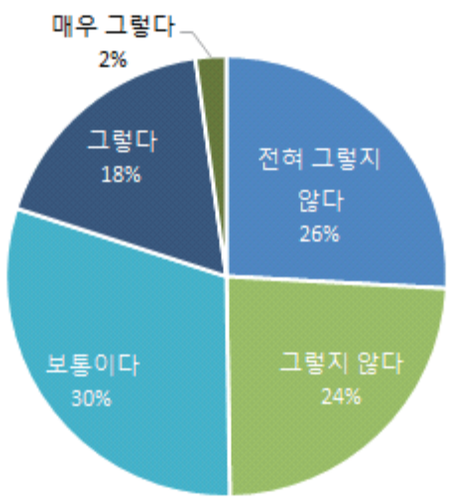
다. 성인지

■ 가족의 생계에 대한 남성의 책임

○ ‘가족의 생계는 주로 남성이 책임져야한다’에 대한 동의 정도에 대한 평균은 2.5로 보통에 미치지 못함

- 부정 응답률이 49.8%로 가장 높음

(단위 : %)



<그림 4-32> ‘가족의 생계는 주로 남성이 책임져야한다’ 동의 정도

○ 남성의 평균은 2.6, 여성의 평균은 2.3으로 모두 보통에 미치지 못함 (남성 부정 응답률 43.6%, 여성 부정 응답률 56.4%)

○ 연령에 관계없이 모두 보통에 미치지 못하는 평균을 보이는데, 특히 35~39세가 2.8의 비교적 높은 평균을 보임

- 20~24세의 부정 응답률이 62.1%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모두 보통에 미치지 못하는 평균을 보이는데, 특히 영통구 거주자가 2.9의 비교적 높은 평균을 보임

○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취업자 평균 2.6, 미취업자 평균 2.2로 모두 보통에 미치지 못함 (취업자 부정 응답률 42.8%, 미취업자 부정 응답률 58.7%)

○ 학력에 관계없이 모두 보통에 미치지 못하는 평균을 보임

- 대학교 재학생의 부정 응답률이 58.4%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4-39> 응답자 특성별 '가족의 생계는 주로 남성이 책임져야한다' 동의 정도

(단위 :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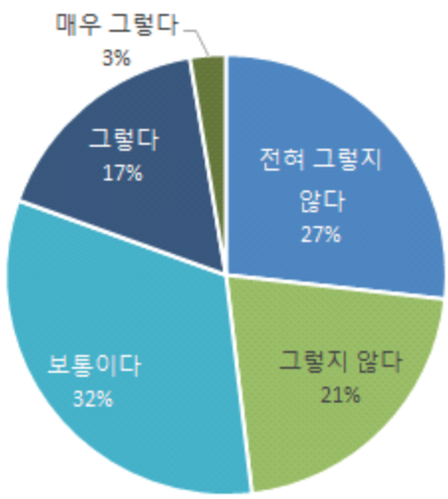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	①+②	보통 이다	->	매우 그렇다	④+⑤	계	평균
전체	**(800)**	**25.9**	**23.9**	**49.8**	**30.3**	**17.8**	**2.3**	**20.0**	**100.0**	**2.5**
성별										
남성	(415)	20.7	22.9	43.6	32.5	20.7	3.1	23.9	100.0	2.6
여성	(385)	31.4	24.9	56.4	27.8	14.5	1.3	15.8	100.0	2.3
연령대										
20-24세	(219)	37.0	25.1	62.1	24.7	11.9	1.4	13.2	100.0	2.2
25-29세	(186)	29.0	24.7	53.8	30.6	14.5	1.1	15.6	100.0	2.3
30-34세	(185)	20.5	24.9	45.4	29.2	22.7	2.7	25.4	100.0	2.6
35-39세	(210)	16.2	21.0	37.1	36.7	22.4	3.8	26.2	100.0	2.8
거주 지역										
장안구	(182)	28.6	28.0	56.6	33.0	8.2	2.2	10.4	100.0	2.3
권선구	(245)	28.6	26.9	55.5	28.2	14.7	1.6	16.3	100.0	2.3
팔달구	(126)	34.9	23.0	57.9	30.2	7.9	4.0	11.9	100.0	2.2
영통구	(247)	16.6	18.2	34.8	30.4	32.8	2.0	34.8	100.0	2.9
취업상태										
취업	(449)	19.4	23.4	42.8	33.9	20.0	3.3	23.4	100.0	2.6
미취업	(351)	34.2	24.5	58.7	25.6	14.8	0.9	15.7	100.0	2.2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28.4	18.9	47.3	26.6	23.1	3.0	26.0	100.0	2.5
대학교 재학	(231)	32.9	25.5	58.4	26.0	14.3	1.3	15.6	100.0	2.3
대학교 졸업 이상	(400)	20.8	25.0	45.8	34.3	17.5	2.5	20.0	100.0	2.6

■ 여성에게 자신의 직장 / 어린 자녀 우선 순위

○ ‘여성은 자신의 직장 생활보다는 어린 자녀를 돌보는 것을 더 우선시해야 한다’ 에 대한 동의 정도에 대한 평균은 2.5로 보통에 미치지 못함

- 부정 응답률이 48.1%로 가장 높음

(단위 : %)



<그림 4-33> ‘여성은 자신의 직장 생활보다는 어린 자녀를 돌보는 것을 더 우선시해야 한다’ 동의 정도

○ 남성의 평균은 2.5, 여성의 평균은 2.4로 모두 보통에 미치지 못함 (남성 부정 응답률 47.0%, 여성 부정 응답률 49.4%)

○ 연령에 관계없이 모두 보통에 미치지 못하는 평균을 보이는데, 특히 35~39세가 2.8의 비교적 높은 평균을 보임

- 35~39세에서는 ‘보통이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40.0%로 가장 높음

○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모두 보통에 미치지 못하는 평균을 보이는데, 특히 영통구 거주자가 2.7의 비교적 높은 평균을 보임

- 팔달구 거주자가 57.1%로 가장 높은 부정 응답률을 보임

○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취업자 평균 2.6, 미취업자 평균 2.3으로 모두 보통에 미치지 못함 (취업자 부정 응답률 43.9%, 미취업자 부정 응답률 53.6%)

○ 학력에 관계없이 모두 보통에 미치지 못하는 평균을 보임

- 대학교 재학생의 부정 응답률이 60.2%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4-40> 응답자 특성별 '여성은 자신의 직장 생활보다는 어린 자녀를 돌보는 것을 더 우선시해야 한다' 동의 정도

(단위 :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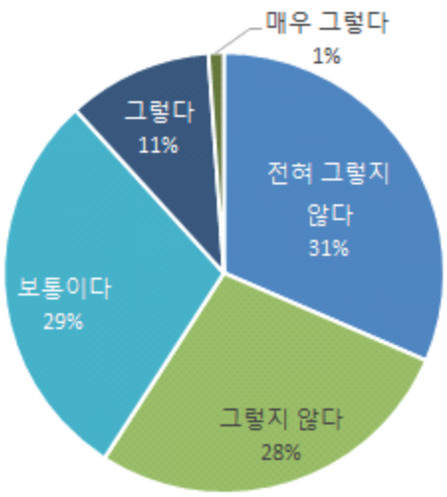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	①+②	보통 이다	->	매우 그렇다	④+⑤	계	평균
전체	**(800)**	**26.8**	**21.4**	**48.1**	**32.4**	**16.9**	**2.6**	**19.5**	**100.0**	**2.5**
성별										
남성	(415)	22.2	24.8	47.0	34.9	15.7	2.4	18.1	100.0	2.5
여성	(385)	31.7	17.7	49.4	29.6	18.2	2.9	21.0	100.0	2.4
연령대										
20-24세	(219)	37.0	29.2	66.2	23.7	9.6	0.5	10.0	100.0	2.1
25-29세	(186)	29.0	19.9	48.9	32.3	16.7	2.2	18.8	100.0	2.4
30-34세	(185)	23.2	17.3	40.5	34.1	23.2	2.2	25.4	100.0	2.6
35-39세	(210)	17.1	18.1	35.2	40.0	19.0	5.7	24.8	100.0	2.8
거주 지역										
장안구	(182)	30.8	21.4	52.2	34.1	10.4	3.3	13.7	100.0	2.3
권선구	(245)	27.3	23.3	50.6	27.8	19.6	2.0	21.6	100.0	2.5
팔달구	(126)	35.7	21.4	57.1	29.4	11.1	2.4	13.5	100.0	2.2
영통구	(247)	18.6	19.4	38.1	37.2	21.9	2.8	24.7	100.0	2.7
취업상태										
취업	(449)	22.9	20.9	43.9	34.3	18.5	3.3	21.8	100.0	2.6
미취업	(351)	31.6	21.9	53.6	29.9	14.8	1.7	16.5	100.0	2.3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25.4	14.2	39.6	32.5	24.9	3.0	27.8	100.0	2.7
대학교 재학	(231)	34.6	25.5	60.2	29.0	10.4	0.4	10.8	100.0	2.2
대학교 졸업 이상	(400)	22.8	22.0	44.8	34.3	17.3	3.8	21.0	100.0	2.6

■ 남녀(이성) 관계 데이트에서 남성의 주도권

○ ‘남녀(이성) 관계에서 데이트는 남성이 주도해야 한다’ 에 대한 동의 정도에 대한 평균은 2.2로 ‘그렇지 않다’ 는 부정적인 대답에 가까운 값을 나타냄

- 부정 응답률이 59.1%로 가장 높음

(단위 : %)



<그림 4-34> ‘남녀(이성) 관계에서 데이트 는 남성이 주도해야 한다’ 동의 정도

○ 남성의 평균은 2.3, 여성의 평균은 2.1로 모두 부정적인 응답을 함 (남성 부정 응답률 55.9%, 여성 부정 응답률 62.6%)

○ 연령에 관계없이 모두 부정적인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20~24세의 경우 평균이 2.0으로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가장 많았음

- 20~24세에서는 부정 응답률이 67.6%로 가장 높음

○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모두 부정적인 응답을 했는데, 특히 팔달구 거주자는 평균 1.9로 가장 부정적인 응답을 함

- 팔달구 거주자가 69.8%로 가장 높은 부정 응답률 수치를 보임

○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취업자 평균 2.3, 미취업자 평균 2.1로 모두 동의하지 않는 응답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취업자 부정 응답률 55.9%, 미취업자 부정 응답률 63.2%)

○ 학력에 관계없이 모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대학교 재학생의 부정 응답률이 62.8%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4-41> 응답자 특성별 '남녀(이성) 관계에서 데이트 는 남성이 주도해야 한다' 동의 정도

(단위 :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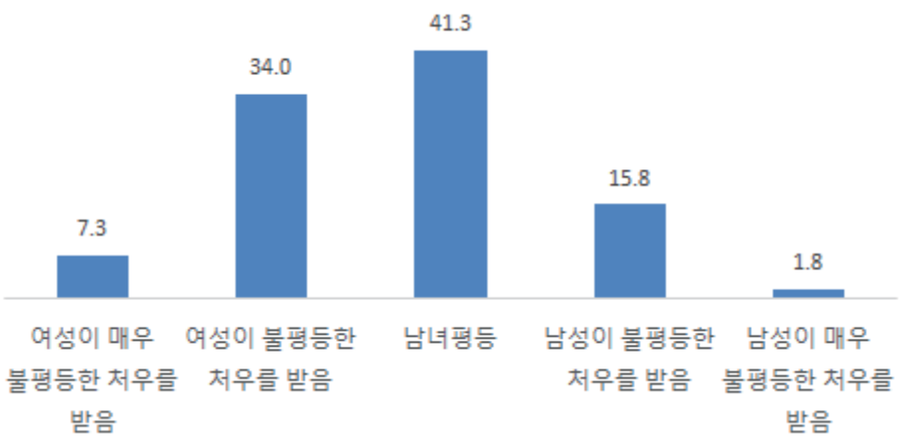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	①+②	보통 이다	->	매우 그렇다	④+⑤	계	평균
전체	**(800)**	**31.5**	**27.6**	**59.1**	**29.1**	**10.6**	**1.1**	**11.8**	**100.0**	**2.2**
성별										
남성	(415)	27.7	28.2	55.9	29.4	13.5	1.2	14.7	100.0	2.3
여성	(385)	35.6	27.0	62.6	28.8	7.5	1.0	8.6	100.0	2.1
연령대										
20-24세	(219)	42.5	25.1	67.6	25.6	6.4	0.5	6.8	100.0	2.0
25-29세	(186)	33.3	29.6	62.9	25.8	11.3		11.3	100.0	2.2
30-34세	(185)	27.0	25.4	52.4	32.4	12.4	2.7	15.1	100.0	2.4
35-39세	(210)	22.4	30.5	52.9	32.9	12.9	1.4	14.3	100.0	2.4
거주 지역										
장안구	(182)	36.3	26.4	62.6	30.8	5.5	1.1	6.6	100.0	2.1
권선구	(245)	31.8	34.7	66.5	26.5	5.7	1.2	6.9	100.0	2.1
팔달구	(126)	43.7	26.2	69.8	23.8	4.8	1.6	6.3	100.0	1.9
영통구	(247)	21.5	22.3	43.7	33.2	22.3	0.8	23.1	100.0	2.6
취업상태										
취업	(449)	27.2	28.7	55.9	30.1	12.2	1.8	14.0	100.0	2.3
미취업	(351)	37.0	26.2	63.2	27.9	8.5	0.3	8.8	100.0	2.1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30.2	26.6	56.8	30.2	10.7	2.4	13.0	100.0	2.3
대학교 재학	(231)	37.2	25.5	62.8	26.8	9.5	0.9	10.4	100.0	2.1
대학교 졸업 이상	(400)	28.8	29.3	58.0	30.0	11.3	0.8	12.0	100.0	2.3

라. 남녀 평등 정도

■ 전반적인 성 평등 수준

○ 전반적인 성 평등 수준에 대한 질문에 ‘여성이 불평등한 처우를 받는다’ 고 응답한 비율과 ‘남녀가 평등하다’ 고 답한 비율이 모두 41.3%로 가장 높게 나타남. ‘남성이 불평등한 처우를 받음’ 이라고 답한 비율은 17.5%임

(단위 : %)



<그림 4-35> 전반적인 성 평등 수준

○ 남성의 반수가 넘는 52.3%는 ‘남녀가 평등하다’ 고 응답한 반면 여성의 57.9%는 ‘여성이 불평등한 처우를 받음’ 이라고 답함

○ 20대는 ‘남녀가 평등하다’ 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데 반해 30대에서는 ‘여성이 불평등한 처우를 받음’ 이라고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함

○ 장안구, 팔달구에서는 ‘여성이 불평등한 처우를 받음’ 고 답한 비율이 각각 46.2%, 50.0%로 가장 높았고, 권선구, 영통구에서는 ‘남녀가 평등하다’ 고 각각 44.9%, 44.5%의 비율로 응답함

○ 취업자들은 ‘남녀가 평등하다’ 고 응답한 비율이 40.8%로 가장 높았고, 미취업자의 43.9%가 ‘여성이 불평등한 처우를 받는다’ 고 응답하였음

○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응답자와 대학교 재학생들은 ‘남녀가 평등하다’ 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대학교 졸업 이상 응답자에서는 ‘여성이 불평등한 처우를 받는다’ 고 답한 비율이 47.3%로 가장 높음

<표 4-42> 응답자 특성별 전반적인 성 평등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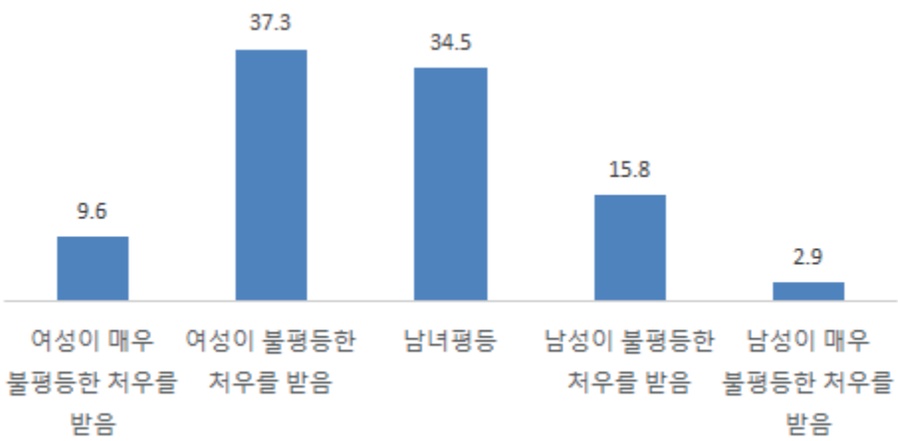
(단위 : %, 점)

	사례수 (명)	매우 불평등	←	①+②	남녀평등	→	매우 불평등	④+⑤	계	평균
전체	**(800)**	**7.3**	**34.0**	**41.3**	**41.3**	**15.8**	**1.8**	**17.5**	**100.0**	**2.7**
성별										
남성	(415)	1.9	23.9	25.8	52.3	20.0	1.9	21.9	100.0	3.0
여성	(385)	13.0	44.9	57.9	29.4	11.2	1.6	12.7	100.0	2.4
연령대										
20-24세	(219)	7.8	32.0	39.7	46.1	12.8	1.4	14.2	100.0	2.7
25-29세	(186)	7.0	27.4	34.4	44.6	19.4	1.6	21.0	100.0	2.8
30-34세	(185)	7.0	39.5	46.5	35.1	15.1	3.2	18.4	100.0	2.7
35-39세	(210)	7.1	37.1	44.3	38.6	16.2	1.0	17.1	100.0	2.7
거주 지역										
장안구	(182)	8.2	37.9	46.2	36.3	15.4	2.2	17.6	100.0	2.7
권선구	(245)	5.7	31.8	37.6	44.9	15.1	2.4	17.6	100.0	2.8
팔달구	(126)	11.1	38.9	50.0	34.9	12.7	2.4	15.1	100.0	2.6
영통구	(247)	6.1	30.8	36.8	44.5	18.2	0.4	18.6	100.0	2.8
취업상태										
취업	(449)	6.2	33.0	39.2	40.8	18.0	2.0	20.0	100.0	2.8
미취업	(351)	8.5	35.3	43.9	41.9	12.8	1.4	14.2	100.0	2.6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5.3	27.2	32.5	45.0	21.3	1.2	22.5	100.0	2.9
대학교 재학	(231)	6.9	30.3	37.2	49.4	12.6	0.9	13.4	100.0	2.7
대학교 졸업 이상	(400)	8.3	39.0	47.3	35.0	15.3	2.5	17.8	100.0	2.6

■ 대중매체 상에서의 차별, 편견, 비하

○ 대중매체 상에서의 차별, 편견, 비하에 대한 질문에 ‘여성이 불평등한 처우를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46.9%로 가장 높음. ‘남녀가 평등하다’고 답한 비율은 34.5%, ‘남성이 불평등한 처우를 받음’이라고 답한 비율은 18.6%임

(단위 : %)



<그림 4-36> 대중매체 상에서의 차별, 편견, 비하

○ 남성의 44.1%는 ‘남녀가 평등하다’고 응답한 반면 여성의 63.9%는 ‘여성이 불평등한 처우를 받음’이라고 답함

○ 연령대에 관계없이 ‘여성이 불평등한 처우를 받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 응답 비율은 30~34세가 51.9%로 가장 높음

○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여성이 불평등한 처우를 받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 응답 비율은 팔달구 거주자가 51.6%로 가장 높음

○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여성이 불평등한 처우를 받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 응답 비율은 미취업자가 49.6%로 가장 높음

○ 학력에 관계없이 ‘여성이 불평등한 처우를 받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 응답 비율은 대학교 졸업자 이상이 52.3%로 가장 높음

<표 4-43> 응답자 특성별 대중매체 상에서의 차별, 편견, 비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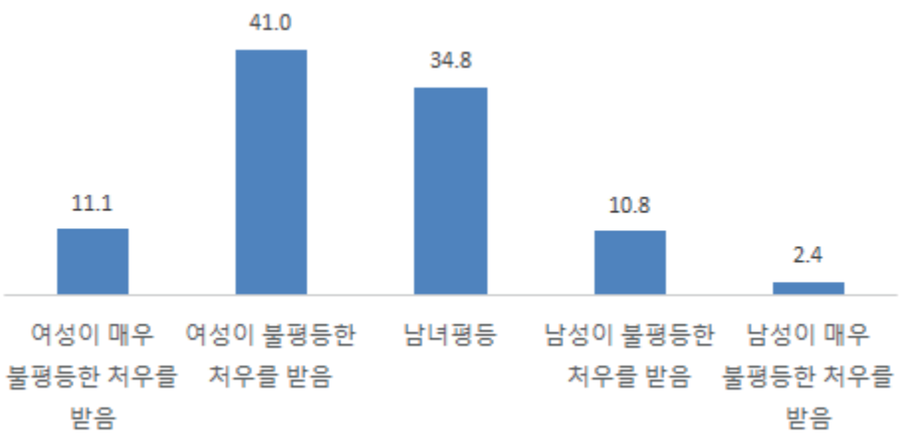
(단위 : %, 점)

	사례수 (명)	매우 불평등	←	①+②	남녀평등	→	매우 불평등	④+⑤	계	평균
전체	**(800)**	**9.6**	**37.3**	**46.9**	**34.5**	**15.8**	**2.9**	**18.6**	**100.0**	**2.7**
성별										
남성	(415)	3.6	27.5	31.1	44.1	21.0	3.9	24.8	100.0	2.9
여성	(385)	16.1	47.8	63.9	24.2	10.1	1.8	11.9	100.0	2.3
연령대										
20-24세	(219)	11.9	31.1	42.9	40.6	13.2	3.2	16.4	100.0	2.6
25-29세	(186)	11.3	32.8	44.1	30.6	22.0	3.2	25.3	100.0	2.7
30-34세	(185)	8.6	43.2	51.9	30.3	14.1	3.8	17.8	100.0	2.6
35-39세	(210)	6.7	42.4	49.0	35.2	14.3	1.4	15.7	100.0	2.6
거주 지역										
장안구	(182)	9.9	39.6	49.5	30.2	17.0	3.3	20.3	100.0	2.6
권선구	(245)	8.6	35.5	44.1	39.2	13.5	3.3	16.7	100.0	2.7
팔달구	(126)	15.1	36.5	51.6	33.3	11.1	4.0	15.1	100.0	2.5
영통구	(247)	7.7	37.7	45.3	33.6	19.4	1.6	21.1	100.0	2.7
취업상태										
취업	(449)	7.1	37.6	44.8	34.1	18.0	3.1	21.2	100.0	2.7
미취업	(351)	12.8	36.8	49.6	35.0	12.8	2.6	15.4	100.0	2.6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5.9	32.5	38.5	37.9	22.5	1.2	23.7	100.0	2.8
대학교 재학	(231)	11.3	32.5	43.7	42.4	11.3	2.6	13.9	100.0	2.6
대학교 졸업 이상	(400)	10.3	42.0	52.3	28.5	15.5	3.8	19.3	100.0	2.6

■ 업무의 양과 질 및 승진

○ 업무의 양과 질 및 승진에 대한 질문에 ‘여성이 불평등한 처우를 받는다’ 고 응답한 비율은 응답자의 반수가 넘는 52.1%로 가장 높게 나타남. ‘남녀가 평등하다’ 고 답한 비율은 34.8%, ‘남성이 불평등한 처우를 받음’ 이라고 답한 비율은 13.1%임

(단위 : %)



<그림 4-37> 업무의 양과 질 및 승진

○ 남성의 46.3%는 ‘남녀가 평등하다’ 고 응답한 반면 여성의 65.2%는 ‘여성이 불평등한 처우를 받음’ 이라고 답함

○ 연령대에 관계없이 ‘여성이 불평등한 처우를 받음’ 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 응답 비율은 30~34세가 57.8%로 가장 높음

○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여성이 불평등한 처우를 받음’ 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 응답 비율은 장안구 거주자가 59.9%로 가장 높음

○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여성이 불평등한 처우를 받음’ 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 응답 비율은 미취업자가 54.7%로 가장 높음

○ 학력에 관계없이 ‘여성이 불평등한 처우를 받음’ 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 응답 비율은 대학교 졸업자 이상이 56.5%로 가장 높음

<표 4-44> 업무의 양과 질 및 승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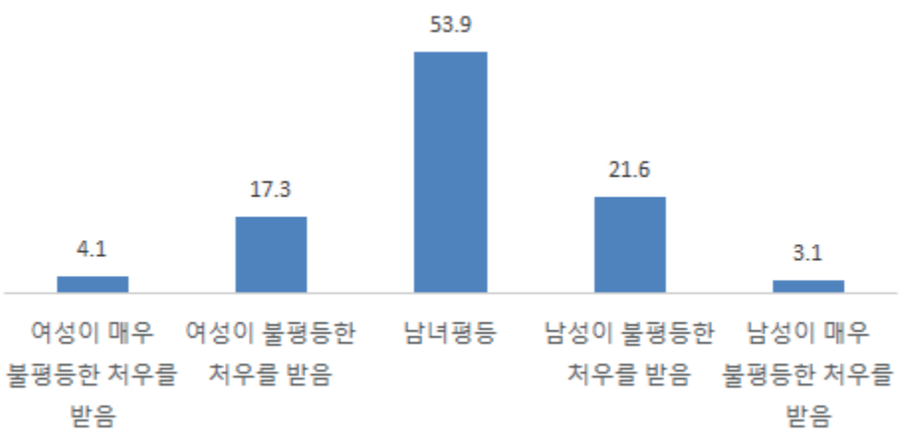
(단위 : %, 점)

	사례수 (명)	매우 불평등	←	①+②	남녀평등	→	매우 불평등	④+⑤	계	평균
전체	**(800)**	**11.1**	**41.0**	**52.1**	**34.8**	**10.8**	**2.4**	**13.1**	**100.0**	**2.5**
성별										
남성	(415)	5.1	34.9	40.0	46.3	10.6	3.1	13.7	100.0	2.7
여성	(385)	17.7	47.5	65.2	22.3	10.9	1.6	12.5	100.0	2.3
연령대										
20-24세	(219)	12.8	38.8	51.6	39.7	7.8	0.9	8.7	100.0	2.5
25-29세	(186)	9.7	38.7	48.4	36.6	10.8	4.3	15.1	100.0	2.6
30-34세	(185)	13.0	44.9	57.8	25.4	13.0	3.8	16.8	100.0	2.5
35-39세	(210)	9.0	41.9	51.0	36.2	11.9	1.0	12.9	100.0	2.5
거주 지역										
장안구	(182)	14.8	45.1	59.9	29.7	8.2	2.2	10.4	100.0	2.4
권선구	(245)	9.4	39.6	49.0	35.5	13.1	2.4	15.5	100.0	2.6
팔달구	(126)	13.5	42.9	56.3	31.0	9.5	3.2	12.7	100.0	2.5
영통구	(247)	8.9	38.5	47.4	39.7	10.9	2.0	13.0	100.0	2.6
취업상태										
취업	(449)	11.1	39.0	50.1	35.0	12.9	2.0	14.9	100.0	2.6
미취업	(351)	11.1	43.6	54.7	34.5	8.0	2.8	10.8	100.0	2.5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7.7	35.5	43.2	42.0	11.2	3.6	14.8	100.0	2.7
대학교 재학	(231)	13.0	38.1	51.1	39.8	7.8	1.3	9.1	100.0	2.5
대학교 졸업 이상	(400)	11.5	45.0	56.5	28.8	12.3	2.5	14.8	100.0	2.5

■ 공공 서비스 수혜 수준

○ 공공 서비스 수혜 수준에 대한 질문에 ‘남녀가 평등하다’ 고 응답한 비율은 응답자의 반수가 넘는 53.9%로 가장 높게 나타남. ‘여성이 불평등한 처우를 받는다’ 고 답한 비율은 21.4%, ‘남성이 불평등한 처우를 받음’ 이라고 답한 비율은 24.8%임

(단위 : %)



<그림 4-38> 공공 서비스 수혜 수준

○ 성별에 관계없이 남녀 모두 ‘남녀가 평등하다’ 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 남성이 57.3%로 여성의 50.1%보다 높게 나타남

○ 연령대에 관계없이 ‘남녀가 평등하다’ 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 응답 비율은 20~24세가 61.2%로 가장 높음

○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남녀가 평등하다’ 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 응답 비율은 영통구 거주자가 60.7%로 가장 높음

○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남녀가 평등하다’ 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 응답 비율은 취업자가 54.3%로 가장 높음

○ 학력에 관계없이 ‘남녀가 평등하다’ 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 응답 비율은 대학교 재학생이 58.0%로 가장 높음

<표 4-45> 응답자 특성별 공공 서비스 수혜 수준

(단위 : %, 점)

	사례수 (명)	매우 불평등	←	①+②	남녀평등	→	매우 불평등	④+⑤	계	평균
전체	**(800)**	**4.1**	**17.3**	**21.4**	**53.9**	**21.6**	**3.1**	**24.8**	**100.0**	**3.0**
성별										
남성	(415)	1.7	9.6	11.3	57.3	26.7	4.6	31.3	100.0	3.2
여성	(385)	6.8	25.5	32.2	50.1	16.1	1.6	17.7	100.0	2.8
연령대										
20-24세	(219)	5.9	13.7	19.6	61.2	17.4	1.8	19.2	100.0	3.0
25-29세	(186)	3.2	16.1	19.4	53.8	23.1	3.8	26.9	100.0	3.1
30-34세	(185)	3.8	17.3	21.1	49.2	26.5	3.2	29.7	100.0	3.1
35-39세	(210)	3.3	21.9	25.2	50.5	20.5	3.8	24.3	100.0	3.0
거주 지역										
장안구	(182)	7.1	21.4	28.6	46.7	21.4	3.3	24.7	100.0	2.9
권선구	(245)	2.9	21.2	24.1	51.4	22.0	2.4	24.5	100.0	3.0
팔달구	(126)	4.8	19.0	23.8	55.6	14.3	6.3	20.6	100.0	3.0
영통구	(247)	2.8	9.3	12.1	60.7	25.1	2.0	27.1	100.0	3.1
취업상태										
취업	(449)	4.0	15.1	19.2	54.3	23.2	3.3	26.5	100.0	3.1
미취업	(351)	4.3	19.9	24.2	53.3	19.7	2.8	22.5	100.0	3.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3.0	20.7	23.7	53.8	19.5	3.0	22.5	100.0	3.0
대학교 재학	(231)	4.3	13.4	17.7	58.0	21.6	2.6	24.2	100.0	3.0
대학교 졸업 이상	(400)	4.5	18.0	22.5	51.5	22.5	3.5	26.0	100.0	3.0

(2) 우리나라의 정치 및 경제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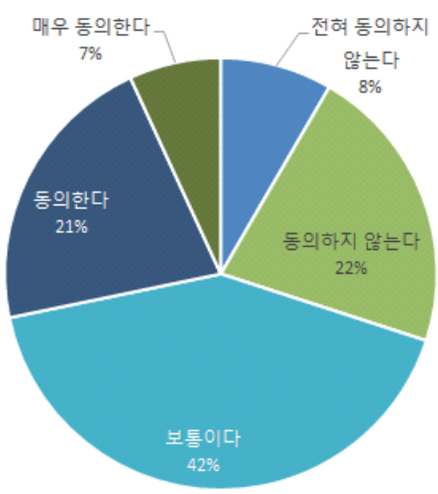
가. 정치 관심 정도

■ ‘나는 정부가 하는 일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다’ 동의 정도

○ ‘나는 정부가 하는 일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다’에 대한 동의 정도에 대한 평균은 3.0으로 보통인 것으로 나타남

-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1.8%로 가장 높음

(단위 : %)



<그림 4-39> ‘나는 정부가 하는 일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다’ 동의 정도

○ 남녀 모두 평균 3.0으로 보통인 것으로 나타남 (남성 41.4%, 여성 42.1%)

○ 연령대별로 보았을 때, 20~24세의 경우 평균 2.8로 보통에 약간 미치지 못하였고, 30~34세의 평균은 3.0으로 보통, 나머지 연령대의 평균은 모두 3.1로 보통을 약간 넘는 것으로 나타남

- 20~24세에서는 부정 응답률이 41.1%로 가장 높음

○ 거주 지역에 따라서는 장안구와 팔달구 거주자는 평균 2.9로 보통에 약간 미치지 못하였고, 권선구와 영통구 거주자는 평균 3.0으로 보통인 것으로 나타남

○ 취업자 평균은 3.0으로 보통이고, 미취업자 평균은 2.9로 보통에 약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응답자의 평균은 3.1로 보통을 약간 넘고, 대학교 대학생은 평균 2.7로 평균에 미치지 못하며, 대학교 졸업 이상 응답자는 평균 3.0로 보통으로 나타남

<표 4-46> 응답자 특성별 '나는 정부가 하는 일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다' 동의 정도

(단위 :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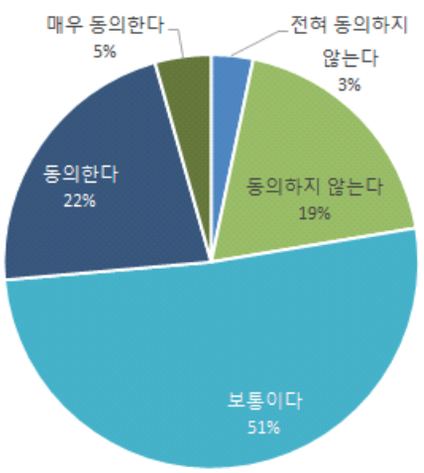
	사례수 (명)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①+②	보통이다	→	매우 동의한다	④+⑤	계	평균
전체	**(800)**	**8.4**	**21.6**	**30.0**	**41.8**	**21.4**	**6.9**	**28.3**	**100.0**	**3.0**
성별										
남성	(415)	9.4	21.2	30.6	41.4	19.0	8.9	28.0	100.0	3.0
여성	(385)	7.3	22.1	29.4	42.1	23.9	4.7	28.6	100.0	3.0
연령대										
20-24세	(219)	12.3	28.8	41.1	35.2	18.7	5.0	23.7	100.0	2.8
25-29세	(186)	7.0	17.7	24.7	44.1	24.2	7.0	31.2	100.0	3.1
30-34세	(185)	8.6	20.0	28.6	43.2	21.6	6.5	28.1	100.0	3.0
35-39세	(210)	5.2	19.0	24.3	45.2	21.4	9.0	30.5	100.0	3.1
거주 지역										
장안구	(182)	6.6	26.4	33.0	45.1	15.4	6.6	22.0	100.0	2.9
권선구	(245)	11.8	18.0	29.8	37.6	23.7	9.0	32.7	100.0	3.0
팔달구	(126)	12.7	22.2	34.9	38.1	18.3	8.7	27.0	100.0	2.9
영통구	(247)	4.0	21.5	25.5	45.3	25.1	4.0	29.1	100.0	3.0
취업상태										
취업	(449)	7.6	18.3	25.8	44.8	21.4	8.0	29.4	100.0	3.0
미취업	(351)	9.4	25.9	35.3	37.9	21.4	5.4	26.8	100.0	2.9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8.3	14.2	22.5	44.4	25.4	7.7	33.1	100.0	3.1
대학교 재학	(231)	11.7	28.6	40.3	39.0	16.5	4.3	20.8	100.0	2.7
대학교 졸업 이상	(400)	6.5	20.8	27.3	42.3	22.5	8.0	30.5	100.0	3.0

■ ‘나는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정치 현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동의 정도

○ ‘나는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정치 현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에 대한 동의 정도에 대한 평균은 3.1로 보통을 약간 넘는 것으로 나타남

-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51.3%로 가장 높음

(단위 : %)



<그림 4-40> ‘나는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정치 현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동의 정도

○ 남성의 평균은 3.1로 보통을 약간 넘고 여성의 평균은 3.0으로 보통인 것으로 나타남 (남성 47.4%, 여성 55.1%)

○ 연령대별로 보았을 때, 20~24세의 경우 평균 2.9로 보통에 약간 미치지 못하였고, 25~29세의 평균은 3.0으로 보통, 30대의 평균은 3.1~3.2로 보통을 약간 넘는 것으로 나타남

○ 거주 지역에 따라서는 영통구 거주자만이 평균 3.2로 보통을 넘었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모두 평균 3.0으로 보통인 것으로 나타남

○ 취업자 평균은 3.1로 보통을 약간 넘고, 미취업자 평균은 2.9로 보통에 약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응답자와 대학교 대학생은 평균 2.9로 보통에 약간 미치지 못하며, 대학교 졸업 이상 응답자는 평균 3.2로 보통을 약간 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47> '나는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정치 현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동의 정도

(단위 :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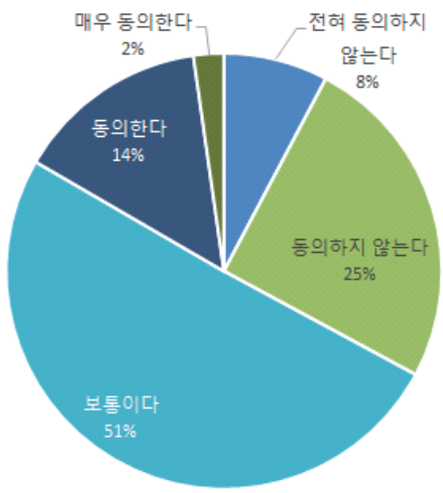
	사례수 (명)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①+②	보통이다	→	매우 동의한다	④+⑤	계	평균
전체	**(800)**	**3.3**	**19.1**	**22.4**	**51.3**	**22.0**	**4.4**	**26.4**	**100.0**	**3.1**
성별										
남성	(415)	3.6	18.3	21.9	47.7	24.8	5.5	30.4	100.0	3.1
여성	(385)	2.9	20.0	22.9	55.1	19.0	3.1	22.1	100.0	3.0
연령대										
20-24세	(219)	4.6	26.9	31.5	47.0	18.3	3.2	21.5	100.0	2.9
25-29세	(186)	2.7	18.3	21.0	55.9	19.9	3.2	23.1	100.0	3.0
30-34세	(185)	3.2	17.3	20.5	47.0	28.6	3.8	32.4	100.0	3.1
35-39세	(210)	2.4	13.3	15.7	55.2	21.9	7.1	29.0	100.0	3.2
거주 지역										
장안구	(182)	2.7	16.5	19.2	58.8	17.0	4.9	22.0	100.0	3.0
권선구	(245)	3.7	23.7	27.3	47.8	22.0	2.9	24.9	100.0	3.0
팔달구	(126)	6.3	17.5	23.8	53.2	19.8	3.2	23.0	100.0	3.0
영통구	(247)	1.6	17.4	19.0	48.2	26.7	6.1	32.8	100.0	3.2
취업상태										
취업	(449)	3.3	15.1	18.5	51.4	24.3	5.8	30.1	100.0	3.1
미취업	(351)	3.1	24.2	27.4	51.0	19.1	2.6	21.7	100.0	2.9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5.3	23.1	28.4	52.1	18.9	0.6	19.5	100.0	2.9
대학교 재학	(231)	4.8	25.1	29.9	45.0	21.2	3.9	25.1	100.0	2.9
대학교 졸업 이상	(400)	1.5	14.0	15.5	54.5	23.8	6.3	30.0	100.0	3.2

■ ‘나는 수원시정 운영에 대해 관심이 많다’ 동의 정도

○ ‘나는 수원시정 운영에 대해 관심이 많다’에 대한 동의 정도에 대한 평균은 2.8로 보통에 약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50.5%로 가장 높음

(단위 : %)



<그림 4-41> ‘나는 수원시정 운영에 대해 관심이 많다’ 동의 정도

○ 남녀 모두 평균 2.8로 보통에 약간 미치지 못함 (남성 47.0%, 여성 54.3%)

○ 연령대별로 보았을 때, 연령이 낮아질수록 평균도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는데, 20~24세의 평균은 2.5로 보통보다 낮았고, 35~39세의 평균은 3.0으로 보통인 것으로 나타남

○ 거주 지역에 따라서는 팔달구 거주자만이 평균이 2.5였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모두 평균 2.8로 보통에 약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취업자 평균은 2.9, 미취업자 평균은 2.6으로 모두 보통에 미치지 못함

○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응답자와 대학교 대학생은 보통에 약간 미치지 못하며, 대학교 졸업 이상 응답자는 평균 3.0으로 보통인 것으로 나타남

<표 4-48> 응답자 특성별 ‘나는 수원시정 운영에 대해 관심이 많다’ 동의 정도

(단위 :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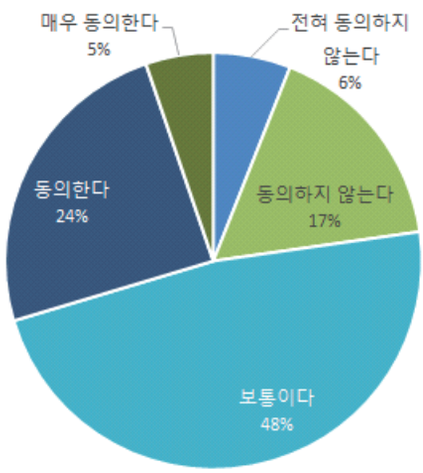
	사례수 (명)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①+②	보통이다	→	매우 동의한다	④+⑤	계	평균
전체	**(800)**	**7.8**	**25.1**	**32.9**	**50.5**	**14.4**	**2.3**	**16.6**	**100.0**	**2.8**
성별										
남성	(415)	9.9	23.4	33.3	47.0	16.1	3.6	19.8	100.0	2.8
여성	(385)	5.5	27.0	32.5	54.3	12.5	0.8	13.2	100.0	2.8
연령대										
20-24세	(219)	14.6	29.7	44.3	44.3	11.0	0.5	11.4	100.0	2.5
25-29세	(186)	5.9	33.9	39.8	45.2	12.9	2.2	15.1	100.0	2.7
30-34세	(185)	5.4	20.5	25.9	54.1	17.8	2.2	20.0	100.0	2.9
35-39세	(210)	4.3	16.7	21.0	58.6	16.2	4.3	20.5	100.0	3.0
거주 지역										
장안구	(182)	3.3	30.2	33.5	50.5	13.7	2.2	15.9	100.0	2.8
권선구	(245)	9.0	22.0	31.0	49.4	16.7	2.9	19.6	100.0	2.8
팔달구	(126)	17.5	22.2	39.7	50.8	7.1	2.4	9.5	100.0	2.5
영통구	(247)	4.9	25.9	30.8	51.4	16.2	1.6	17.8	100.0	2.8
취업상태										
취업	(449)	5.3	20.0	25.4	52.6	18.7	3.3	22.0	100.0	2.9
미취업	(351)	10.8	31.6	42.5	47.9	8.8	0.9	9.7	100.0	2.6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10.1	24.9	34.9	46.2	17.2	1.8	18.9	100.0	2.8
대학교 재학	(231)	13.4	31.6	45.0	46.8	7.4	0.9	8.2	100.0	2.5
대학교 졸업 이상	(400)	3.5	21.5	25.0	54.5	17.3	3.3	20.5	100.0	3.0

■ ‘나는 수원시에 불만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항의할 것이다’ 동의 정도

○ ‘나는 수원시에 불만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항의할 것이다’에 대한 동의 정도에 대한 평균은 3.1로 보통을 약간 넘는 것으로 나타남

-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7.6%로 가장 높음

(단위 : %)



<그림 4-42> ‘나는 수원시에 불만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항의할 것이다’ 동의 정도

○ 남성의 평균은 3.1로 보통을 약간 넘었고 여성의 평균은 3.0으로 보통인 것으로 나타남(남성 45.8%, 여성 49.6%)

○ 연령대별로 보았을 때, 연령이 낮아질수록 평균도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는데, 20~24세의 평균은 2.8로 보통보다 낮았고, 25세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평균 3.1~3.2로 보통 이상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남

○ 거주 지역에 따라서는 팔달구 거주자만이 평균 2.8로 보통에 미치지 못했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모두 평균 3.1로 보통을 약간 넘는 것으로 나타남

- 팔달구 거주자의 경우 부정 응답률과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37.3%로 같음

○ 취업자 평균은 3.2로 보통을 넘었고, 미취업자 평균은 2.9로 보통에 약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응답자와 대학교 대학생은 보통에 약간 미치지 못하며, 대학교 졸업 이상 응답자는 평균 3.3으로 보통을 넘음

<표 4-49> 응답자 특성별 '나는 수원시에 불만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항의할 것이다' 동의 정도

(단위 : %, 점)

	사례수 (명)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①+②	보통이다	→	매우 동의한다	④+⑤	계	평균
전체	**(800)**	**6.0**	**16.8**	**22.8**	**47.6**	**24.4**	**5.3**	**29.6**	**100.0**	**3.1**
성별										
남성	(415)	7.7	14.7	22.4	45.8	24.8	7.0	31.8	100.0	3.1
여성	(385)	4.2	19.0	23.1	49.6	23.9	3.4	27.3	100.0	3.0
연령대										
20-24세	(219)	13.2	20.1	33.3	44.3	17.8	4.6	22.4	100.0	2.8
25-29세	(186)	3.2	18.3	21.5	46.2	29.0	3.2	32.3	100.0	3.1
30-34세	(185)	3.8	15.7	19.5	49.7	23.8	7.0	30.8	100.0	3.1
35-39세	(210)	2.9	12.9	15.7	50.5	27.6	6.2	33.8	100.0	3.2
거주 지역										
장안구	(182)	4.4	14.3	18.7	52.7	23.1	5.5	28.6	100.0	3.1
권선구	(245)	7.8	11.4	19.2	49.0	25.3	6.5	31.8	100.0	3.1
팔달구	(126)	12.7	24.6	37.3	37.3	20.6	4.8	25.4	100.0	2.8
영통구	(247)	2.0	19.8	21.9	47.8	26.3	4.0	30.4	100.0	3.1
취업상태										
취업	(449)	4.7	12.5	17.1	48.1	28.7	6.0	34.7	100.0	3.2
미취업	(351)	7.7	22.2	29.9	47.0	18.8	4.3	23.1	100.0	2.9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7.7	17.8	25.4	55.0	15.4	4.1	19.5	100.0	2.9
대학교 재학	(231)	11.3	20.8	32.0	45.9	18.6	3.5	22.1	100.0	2.8
대학교 졸업 이상	(400)	2.3	14.0	16.3	45.5	31.5	6.8	38.3	100.0	3.3

(3) 정치 참여

가. 활동 경험 유무

■ 정치·사회 문제에 대해 주변 사람과 이야기하기

○ '정치·사회 문제에 대해 주변 사람과 이야기하기' 경험 유무에 대하여 응답자의 67.0%가 '있다' 라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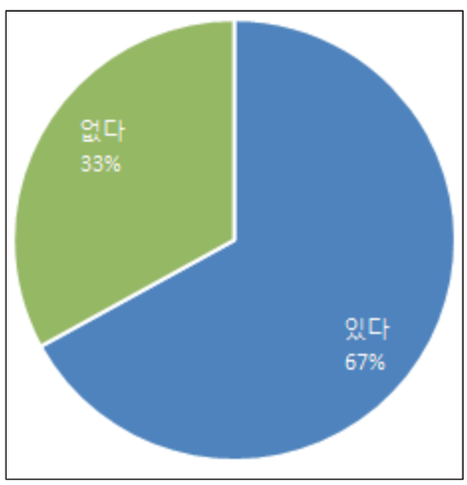
○ 성별에 따라서 여성 경험자가 69.4%로 남성의 64.8%보다 높은 수치를 보임

○ 25~29세가 71.0%로 가장 높은 참여 경험을 갖고 있었음. 반면, 20~24세가 59.8%로 가장 낮은 참여 경험을 보임

○ 권선구 거주자가 73.9%로 가장 참여 경험이 많았고, 팔달구 거주자가 61.1%로 가장 낮음

○ 취업자의 참여 경험이 68.6%로 미취업자의 65.0%보다 높았음

○ 대학교 졸업 이상 응답자가 75.5%로 가장 참여 경험이 많았고,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응답자가 52.7%로 가장 낮은 참여 경험을 갖고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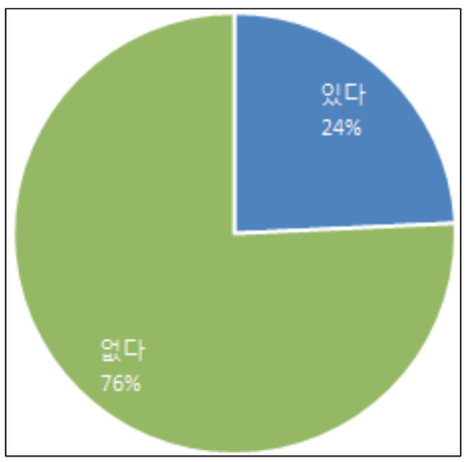
<그림 4-43> 정치·사회 문제에 대해 주변 사람과 이야기하기 경험 유무

<표 4-50> 응답자 특성별 정치·사회 문제에 대해 주변 사람과 이야기하기 경험 유무

(단위 : %)

	사례수 (명)	있다	없다	계
전체	**(800)**	**67.0**	**33.0**	**100.0**
성별				
남성	(415)	64.8	35.2	100.0
여성	(385)	69.4	30.6	100.0
연령대				
20-24세	(219)	59.8	40.2	100.0
25-29세	(186)	71.0	29.0	100.0
30-34세	(185)	69.2	30.8	100.0
35-39세	(210)	69.0	31.0	100.0
거주 지역				
장안구	(182)	66.5	33.5	100.0
권선구	(245)	73.9	26.1	100.0
팔달구	(126)	61.1	38.9	100.0
영통구	(247)	63.6	36.4	100.0
취업상태				
취업	(449)	68.6	31.4	100.0
미취업	(351)	65.0	35.0	100.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52.7	47.3	100.0
대학교 재학	(231)	62.8	37.2	100.0
대학교 졸업 이상	(400)	75.5	24.5	100.0

■ 블로그 / SNS / 온라인 게시판 등에 의견 올리기



<그림 4-44> 블로그 / SNS / 온라인 게시판 등에 의견 올리기 경험 유무

○ '블로그 / SNS / 온라인 게시판 등에 의견 올리기' 경험 유무에 대하여 응답자의 75.8%가 '없다'라고 응답함

○ 남성 경험자가 27.0%로 여성의 21.3%보다 높게 나타남

○ 25~29세가 27.4%로 가장 높은 참여 경험을 갖고 있었음. 반면, 20~24세가 21.5%로 가장 낮은 참여 경험을 보임

○ 팔달구 거주자가 29.4%로 가장 참여 경험이 많았고, 장안구 거주자가 20.9%로 가장 낮음

○ 취업자의 참여 경험은 24.1%, 미취업자의 참여 경험은 24.5%로 미취업자의 경험이 더 많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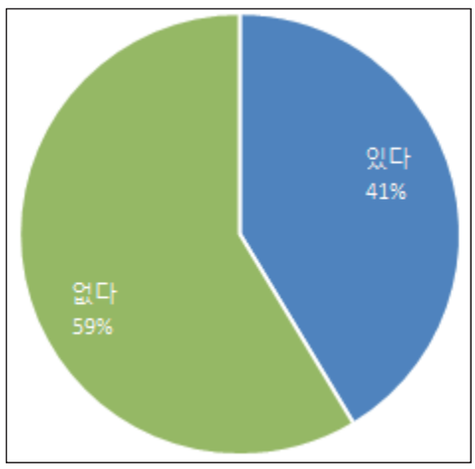
○ 대학교 졸업 이상 응답자가 27.0%로 가장 참여 경험이 많았고,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응답자가 19.5%로 가장 낮은 참여 경험을 갖고 있었음

<표 4-51> 응답자 특성별 블로그 / SNS / 온라인 게시판 등에 의견 올리기 경험 유무

(단위 : %)

	사례수 (명)	있다	없다	계
전체	**(800)**	**24.3**	**75.8**	**100.0**
성별				
남성	(415)	27.0	73.0	100.0
여성	(385)	21.3	78.7	100.0
연령대				
20-24세	(219)	21.5	78.5	100.0
25-29세	(186)	27.4	72.6	100.0
30-34세	(185)	22.7	77.3	100.0
35-39세	(210)	25.7	74.3	100.0
거주 지역				
장안구	(182)	20.9	79.1	100.0
권선구	(245)	27.3	72.7	100.0
팔달구	(126)	29.4	70.6	100.0
영통구	(247)	21.1	78.9	100.0
취업상태				
취업	(449)	24.1	75.9	100.0
미취업	(351)	24.5	75.5	100.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19.5	80.5	100.0
대학교 재학	(231)	22.9	77.1	100.0
대학교 졸업 이상	(400)	27.0	73.0	100.0

■ 서명운동 참여하기(온라인 서명 포함)



<그림 4-45> 서명운동 참여하기(온라인 서명 포함) 경험 유무

○ ‘서명운동 참여하기(온라인 서명 포함)’ 경험 유무에 대하여 응답자의 58.6%가 ‘있다’ 라고 응답함

○ 여성 경험자가 46.2%로 남성의 36.9%보다 높게 나타남

○ 25~29세가 43.0%로 가장 높은 참여 경험을 갖고 있었음. 반면, 30~34세가 40.0%로 가장 낮은 참여 경험을 보임

○ 팔달구 거주자가 50.0%로 가장 참여 경험이 많았고, 영통구 거주자가 31.2%로 가장 낮음

○ 취업자의 참여 경험은 40.1%, 미취업자의 참여 경험은 43.0%로 미취업자의 경험이 더 많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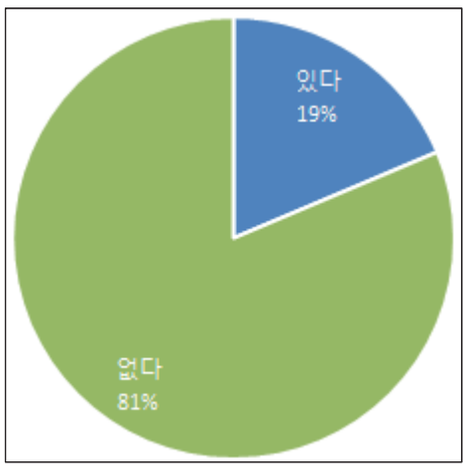
○ 대학교 졸업 이상 응답자가 47.8%로 가장 참여 경험이 많았고,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응답자가 27.2%로 가장 낮은 참여 경험을 갖고 있었음

<표 4-52> 응답자 특성별 서명운동 참여하기(온라인 서명 포함) 경험 유무

(단위 : %)

	사례수 (명)	있다	없다	계
전체	**(800)**	**41.4**	**58.6**	**100.0**
성별				
남성	(415)	36.9	63.1	100.0
여성	(385)	46.2	53.8	100.0
연령대				
20-24세	(219)	42.0	58.0	100.0
25-29세	(186)	43.0	57.0	100.0
30-34세	(185)	40.0	60.0	100.0
35-39세	(210)	40.5	59.5	100.0
거주 지역				
장안구	(182)	42.3	57.7	100.0
권선구	(245)	46.5	53.5	100.0
팔달구	(126)	50.0	50.0	100.0
영통구	(247)	31.2	68.8	100.0
취업상태				
취업	(449)	40.1	59.9	100.0
미취업	(351)	43.0	57.0	100.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27.2	72.8	100.0
대학교 재학	(231)	40.7	59.3	100.0
대학교 졸업 이상	(400)	47.8	52.3	100.0

■ 시위, 집회 등에 참여하기



<그림 4-46> 시위, 집회 등에 참여하기 경험 유무

○ ‘시위, 집회 등에 참여하기’ 경험 유무에 대하여 응답자의 81.4%가 ‘없다’라고 응답함

○ 여성 경험자가 19.0%로 남성의 18.3%보다 높은 수치를 보임

○ 25~29세가 20.4%로 가장 높은 참여 경험을 갖고 있었고, 20~24세의 참여율은 17.4%로 가장 낮음

○ 권선구 거주자가 21.6%로 가장 참여 경험이 많았고, 장안구와 영통구 거주자가 17.0%로 가장 낮음

○ 취업자의 참여 경험은 18.9%, 미취업자의 참여 경험은 18.2%로 취업자의 경험이 더 많았음

○ 대학교 졸업 이상 응답자가 20.3%로 가장 참여 경험이 많았고,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응답자가 13.6%로 가장 낮은 참여 경험을 갖고 있었음

<표 4-53> 응답자 특성별 시위, 집회 등에 참여하기 경험 유무

(단위 : %)

	사례수 (명)	있다	없다	계
전체	**(800)**	**18.6**	**81.4**	**100.0**
성별				
남성	(415)	18.3	81.7	100.0
여성	(385)	19.0	81.0	100.0
연령대				
20-24세	(219)	17.4	82.6	100.0
25-29세	(186)	20.4	79.6	100.0
30-34세	(185)	19.5	80.5	100.0
35-39세	(210)	17.6	82.4	100.0
거주 지역				
장안구	(182)	17.0	83.0	100.0
권선구	(245)	21.6	78.4	100.0
팔달구	(126)	18.3	81.7	100.0
영통구	(247)	17.0	83.0	100.0
취업상태				
취업	(449)	18.9	81.1	100.0
미취업	(351)	18.2	81.8	100.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13.6	86.4	100.0
대학교 재학	(231)	19.5	80.5	100.0
대학교 졸업 이상	(400)	20.3	79.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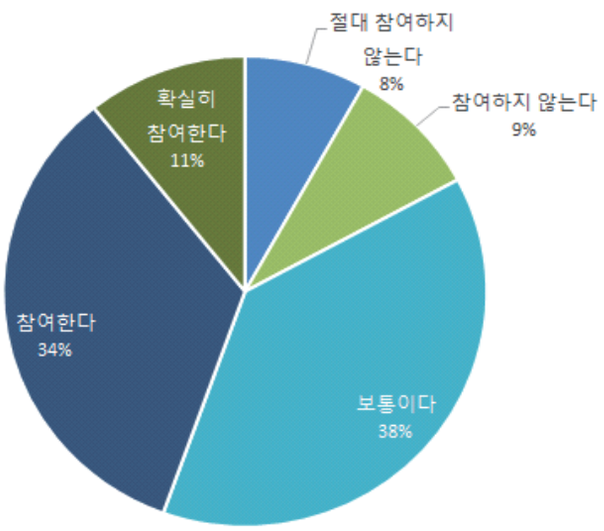
나. 활동 참여 의향

■ 정치·사회 문제에 대해 주변 사람과 이야기하기 참여 의향

○ ‘정치·사회 문제에 대해 주변 사람과 이야기하기’에 대한 참여 의향에 대한 평균은 3.3으로 보통을 넘음

- 긍정 응답률이 44.5%로 가장 높음

(단위 : %)



<그림 4-47> 정치·사회 문제에 대해 주변 사람과 이야기하기 참여 의향

○ 남성의 평균은 3.3, 여성의 평균은 3.4로 보통을 넘음 (남성 43.1%, 여성 46.0%)

○ 연령에 관계없이 모두 보통 이상의 평균을 가짐

○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모두 보통 이상의 평균을 가짐

- 장안구, 권선구, 영통구 거주자는 긍정적으로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은 데 반해, 팔달구 거주자의 경우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7.6%로 가장 높음

○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보통 이상의 평균을 가짐

○ 학력에 관계없이 모두 보통 이상의 평균을 가짐

○ 대학교 재학생과 대학교 졸업 이상 응답자는 모두 긍정적으로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은 데 반해,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응답자는 43.2%로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표 4-54> 응답자 특성별 정치·사회 문제에 대해 주변 사람과 이야기하기 참여 의향

(단위 :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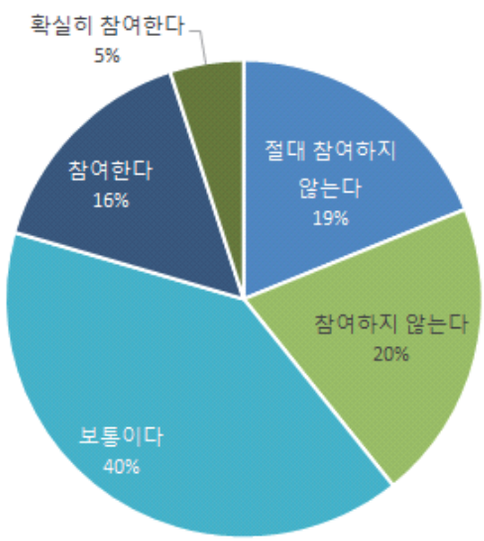
	사례수 (명)	절대 참여하지 않는다	←	①+②	보통이다	→	확실히 참여한다	④+⑤	계	평균
전체	**(800)**	**8.1**	**9.0**	**17.1**	**38.4**	**33.8**	**10.8**	**44.5**	**100.0**	**3.3**
성별										
남성	(415)	9.4	9.2	18.6	38.3	33.0	10.1	43.1	100.0	3.3
여성	(385)	6.8	8.8	15.6	38.4	34.5	11.4	46.0	100.0	3.4
연령대										
20-24세	(219)	10.0	11.0	21.0	37.9	27.4	13.7	41.1	100.0	3.2
25-29세	(186)	5.4	8.1	13.4	40.3	35.5	10.8	46.2	100.0	3.4
30-34세	(185)	10.8	8.6	19.5	37.3	32.4	10.8	43.2	100.0	3.2
35-39세	(210)	6.2	8.1	14.3	38.1	40.0	7.6	47.6	100.0	3.3
거주 지역										
장안구	(182)	8.2	11.0	19.2	39.6	30.8	10.4	41.2	100.0	3.2
권선구	(245)	7.3	5.7	13.1	34.3	40.8	11.8	52.7	100.0	3.4
팔달구	(126)	11.1	8.7	19.8	47.6	25.4	7.1	32.5	100.0	3.1
영통구	(247)	7.3	10.9	18.2	36.8	33.2	11.7	44.9	100.0	3.3
취업상태										
취업	(449)	7.8	8.0	15.8	37.0	36.5	10.7	47.2	100.0	3.3
미취업	(351)	8.5	10.3	18.8	40.2	30.2	10.8	41.0	100.0	3.2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13.6	7.1	20.7	43.2	27.8	8.3	36.1	100.0	3.1
대학교 재학	(231)	8.2	10.8	19.0	38.5	29.9	12.6	42.4	100.0	3.3
대학교 졸업 이상	(400)	5.8	8.8	14.5	36.3	38.5	10.8	49.3	100.0	3.4

■ 블로그 / SNS / 온라인 게시판 등에 의견 올리기 참여 의향

○ ‘블로그 / SNS / 온라인 게시판 등에 의견 올리기’에 대한 참여 의향에 대한 평균은 2.7로 보통에 미치지 못함

-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0.3%로 가장 높음

(단위 : %)



<그림 4-48> 블로그 / SNS / 온라인 게시판 등에 의견 올리기 참여 의향

○ 남녀 평균 모두 2.7로 보통에 미치지 못함

- 여성은 부정 응답률이 41.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연령에 관계없이 모두 보통에 미치지 못함

- 20~24세, 20~34세는 부정적으로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25~29세, 35~39세는 ‘보통이다’라고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함

○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모두 보통에 미치지 못함

- 장안구, 영통구 거주자는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권선구, 팔달구 거주자는 부정 응답률이 가장 높았음

○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보통에 미치지 못함

- 취업자의 41.6%가 ‘보통이다’라고 응답했으며, 미취업자는 43.9%가 부정적으로 응답함

○ 학력에 관계없이 모두 보통에 미치지 못함

-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응답자와 대학교 재학생은 부정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대학교 졸업 이상 응답자는 40.3%가 ‘보통이다’라고 응답함

<표 4-55> 응답자 특성별 블로그 / SNS / 온라인 게시판 등에 의견 올리기 참여 의향

(단위 :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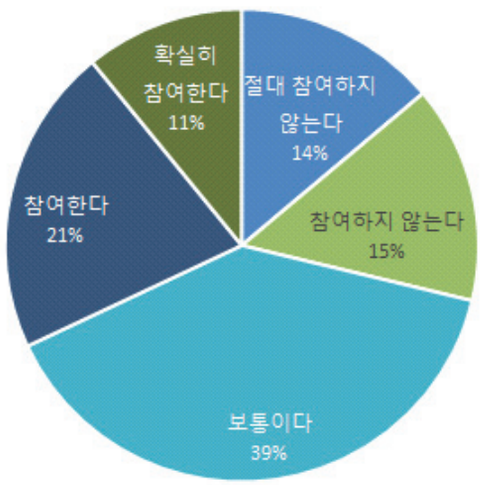
	사례수 (명)	절대 참여하지 않는다	←	①+②	보통이다	→	확실히 참여한다	④+⑤	계	평균
전체	**(800)**	**18.9**	**20.4**	**39.3**	**40.3**	**15.5**	**5.0**	**20.5**	**100.0**	**2.7**
성별										
남성	(415)	18.3	19.3	37.6	41.4	17.1	3.9	21.0	100.0	2.7
여성	(385)	19.5	21.6	41.0	39.0	13.8	6.2	20.0	100.0	2.7
연령대										
20-24세	(219)	22.4	21.5	43.8	41.1	9.6	5.5	15.1	100.0	2.5
25-29세	(186)	15.1	18.8	33.9	42.5	18.3	5.4	23.7	100.0	2.8
30-34세	(185)	21.6	19.5	41.1	38.4	16.2	4.3	20.5	100.0	2.6
35-39세	(210)	16.2	21.4	37.6	39.0	18.6	4.8	23.3	100.0	2.7
거주 지역										
장안구	(182)	23.1	18.7	41.8	42.9	10.4	4.9	15.4	100.0	2.6
권선구	(245)	18.8	20.0	38.8	38.0	18.4	4.9	23.3	100.0	2.7
팔달구	(126)	24.6	24.6	49.2	31.0	16.7	3.2	19.8	100.0	2.5
영통구	(247)	13.0	19.8	32.8	45.3	15.8	6.1	21.9	100.0	2.8
취업상태										
취업	(449)	19.6	16.0	35.6	41.6	17.4	5.3	22.7	100.0	2.7
미취업	(351)	17.9	25.9	43.9	38.5	13.1	4.6	17.7	100.0	2.6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24.3	18.9	43.2	38.5	14.2	4.1	18.3	100.0	2.6
대학교 재학	(231)	20.8	22.1	42.9	41.6	10.8	4.8	15.6	100.0	2.6
대학교 졸업 이상	(400)	15.5	20.0	35.5	40.3	18.8	5.5	24.3	100.0	2.8

■ 서명운동 참여하기(온라인 서명 포함) 참여 의향

○ ‘서명운동 참여하기(온라인 서명 포함)’에 대한 참여 의향에 대한 평균은 3.0으로 보통인 것으로 나타남

-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39.3%로 가장 높음

(단위 : %)



<그림 4-49> 서명운동 참여하기(온라인 서명 포함) 참여 의향

○ 남성의 평균은 2.9로 보통에 약간 미치지 못하고 여성의 평균은 3.1로 보통을 약간 넘음

- 여성은 긍정 응답률이 36.9%로 가장 높게 나타남

○ 20~24세와 35~39세의 경우에는 평균 2.9로 보통에 약간 미치지 못하였고, 30~34세는 평균 3.0으로 보통이었으며, 25~29세는 평균 3.2로 보통을 넘는 수치를 보임

○ 거주 지역 별로 보았을 때, 장안구는 평균 2.8로 보통에 약간 미치지 못했고 팔달구와 영통구가 평균 3.0으로 보통이었으며 권선구는 평균 3.1로 보통을 약간 넘는 수치임

- 장안구 거주자는 부정적으로 응답한 경우가 35.2%로 가장 많음

○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평균 3.0으로 보통인 것으로 나타남

○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응답자와 대학교 재학생은 평균이 보통에 약간 미치지 못하였고 대학교 졸업 이상 응답자는 평균 3.1로 보통을 약간 넘음

<표 4-56> 응답자 특성별 서명운동 참여하기(온라인 서명 포함) 참여 의향

(단위 :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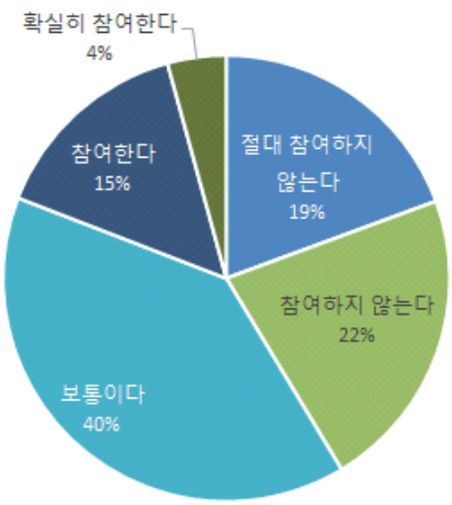
	사례수 (명)	절대 참여하지 않는다	←	①+②	보통이다	→	확실히 참여한다	④+⑤	계	평균
전체	**(800)**	**13.9**	**14.9**	**28.8**	**39.3**	**21.1**	**10.9**	**32.0**	**100.0**	**3.0**
성별										
남성	(415)	14.0	15.7	29.6	42.9	18.8	8.7	27.5	100.0	2.9
여성	(385)	13.8	14.0	27.8	35.3	23.6	13.2	36.9	100.0	3.1
연령대										
20-24세	(219)	16.4	16.9	33.3	37.4	17.4	11.9	29.2	100.0	2.9
25-29세	(186)	8.1	13.4	21.5	44.1	22.0	12.4	34.4	100.0	3.2
30-34세	(185)	15.7	13.0	28.6	37.3	22.7	11.4	34.1	100.0	3.0
35-39세	(210)	14.8	15.7	30.5	38.6	22.9	8.1	31.0	100.0	2.9
거주 지역										
장안구	(182)	19.8	15.4	35.2	33.5	23.1	8.2	31.3	100.0	2.8
권선구	(245)	13.9	9.8	23.7	41.2	22.0	13.1	35.1	100.0	3.1
팔달구	(126)	12.7	15.9	28.6	42.1	20.6	8.7	29.4	100.0	3.0
영통구	(247)	10.1	19.0	29.1	40.1	19.0	11.7	30.8	100.0	3.0
취업상태										
취업	(449)	15.8	12.7	28.5	37.2	23.2	11.1	34.3	100.0	3.0
미취업	(351)	11.4	17.7	29.1	41.9	18.5	10.5	29.1	100.0	3.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19.5	17.2	36.7	37.9	13.6	11.8	25.4	100.0	2.8
대학교 재학	(231)	14.7	16.9	31.6	40.7	17.3	10.4	27.7	100.0	2.9
대학교 졸업 이상	(400)	11.0	12.8	23.8	39.0	26.5	10.8	37.3	100.0	3.1

■ 시위, 집회 등에 참여하기

○ ‘시위, 집회 등에 참여하기’에 대한 참여 의향에 대한 평균은 2.6으로 보통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부정 응답률이 41.4%로 가장 높음

(단위 : %)



<그림 4-50> 시위, 집회 등에 참여하기 참여 의향

○ 남녀 모두 평균이 보통에 미치지 못함 (남성 부정 응답률 42.2%, 여성 부정 응답률 40.5%)

○ 연령에 관계없이 모두 평균이 보통에 미치지 못함

- 25~29세는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41.4%로 가장 많음

○ 겨주 지역에 관계없이 모두 평균이 보통에 미치지 못함

- 영통구 거주자는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6.6%로 가장 높음

○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평균이 보통에 미치지 못함

- 취업자의 경우에는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41.3%로 가장 많았고, 미취업자은 부정적으로 답한 비율이 41.8%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학력에 관계없이 모두 평균이 보통에 미치지 못함

- 대학교 졸업 이상 응답자는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표 4-57> 응답자 특성별 시위, 집회 등에 참여하기 참여 의향

(단위 : %, 점)

	사례수 (명)	절대 참여하지 않는다	←	①+②	보통이다	→	확실히 참여한다	④+⑤	계	평균
전체	**(800)**	**19.4**	**22.0**	**41.4**	**39.5**	**14.9**	**4.3**	**19.1**	**100.0**	**2.6**
성별										
남성	(415)	18.6	23.6	42.2	40.0	14.9	2.9	17.8	100.0	2.6
여성	(385)	20.3	20.3	40.5	39.0	14.8	5.7	20.5	100.0	2.7
연령대										
20-24세	(219)	21.5	22.4	43.8	39.7	11.4	5.0	16.4	100.0	2.6
25-29세	(186)	14.5	21.0	35.5	41.4	19.4	3.8	23.1	100.0	2.8
30-34세	(185)	21.6	22.2	43.8	36.8	14.6	4.9	19.5	100.0	2.6
35-39세	(210)	19.5	22.4	41.9	40.0	14.8	3.3	18.1	100.0	2.6
거주 지역										
장안구	(182)	25.8	20.9	46.7	35.2	13.7	4.4	18.1	100.0	2.5
권선구	(245)	19.2	20.8	40.0	35.1	20.4	4.5	24.9	100.0	2.7
팔달구	(126)	22.2	24.6	46.8	40.5	8.7	4.0	12.7	100.0	2.5
영통구	(247)	13.4	22.7	36.0	46.6	13.4	4.0	17.4	100.0	2.7
취업상태										
취업	(449)	21.2	18.0	39.2	39.9	16.3	4.7	20.9	100.0	2.7
미취업	(351)	17.1	27.1	44.2	39.0	13.1	3.7	16.8	100.0	2.6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25.4	20.1	45.6	37.3	12.4	4.7	17.2	100.0	2.5
대학교 재학	(231)	18.6	25.1	43.7	40.7	13.0	2.6	15.6	100.0	2.6
대학교 졸업 이상	(400)	17.3	21.0	38.3	39.8	17.0	5.0	22.0	100.0	2.7

(4) 정치 성향

가. 지지 정당

■ 지지정당 보유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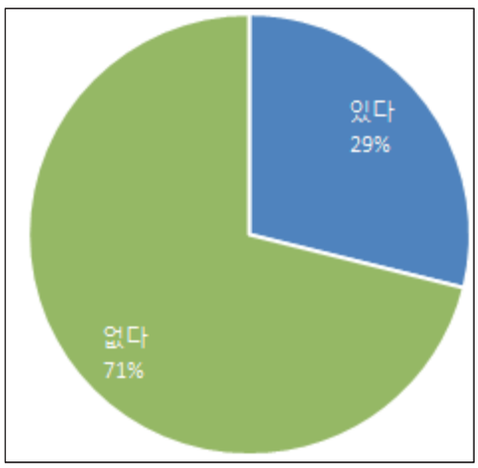
○ 지지 보유 정당을 갖고 있는 응답자는 28.9%인 것으로 나타남

○ 남성의 31.3%, 여성의 26.2%가 지지 정당을 갖고 있음

○ 25~29세가 35.7%의 가장 높은 비율로 지지 정당을 갖고 있는 반면, 20~24세가 19.2%로 가장 낮은 비율로 지지 정당을 보유함

○ 권선구 거주자의 41.2%가 지지 정당을 갖고 있었고, 영통구 거주자는 19.0%만이 지지 정당을 보유함

○ 취업자의 지지 정당 보유율은 33.0%, 미취업자의 지지 정당 보유율은 23.6%로 미취업자가 더 낮음



<그림 4-51> 지지정당 보유 여부

○ 대학교 졸업 이상 응답자가 35.5%로 지지 정당을 갖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응답자가 21.3%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임

<표 4-58> 응답자 특성별 지지정당 보유 여부

(단위 : %)

	사례수 (명)	있다	없다	계
전체	**(800)**	**28.9**	**71.1**	**100.0**
성별				
남성	(415)	31.3	68.7	100.0
여성	(385)	26.2	73.8	100.0
연령대				
20-24세	(219)	19.2	80.8	100.0
25-29세	(186)	31.2	68.8	100.0
30-34세	(185)	35.7	64.3	100.0
35-39세	(210)	31.0	69.0	100.0
거주 지역				
장안구	(182)	25.3	74.7	100.0
권선구	(245)	41.2	58.8	100.0
팔달구	(126)	29.4	70.6	100.0
영통구	(247)	19.0	81.0	100.0
취업상태				
취업	(449)	33.0	67.0	100.0
미취업	(351)	23.6	76.4	100.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21.3	78.7	100.0
대학교 재학	(231)	22.9	77.1	100.0
대학교 졸업 이상	(400)	35.5	64.5	100.0

(5) 세대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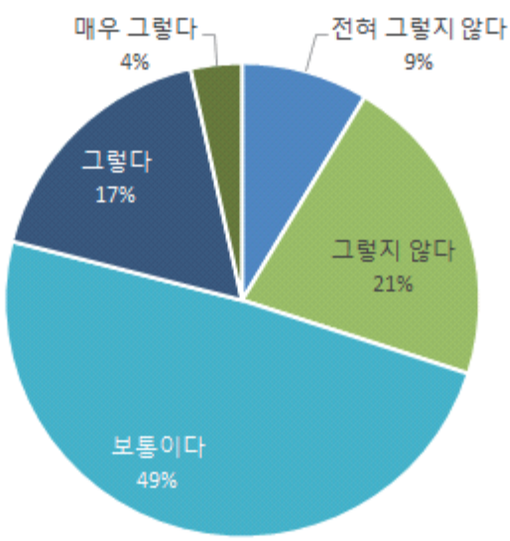
가. 기성 세대(40, 50대)에 대한 인식

■ 기성세대(4·50대)는 ‘노력에 비해 더 큰 혜택을 누린다’

○ 기성세대(4·50대)는 ’ 노력에 비해 더 큰 혜택을 누린다’ 에 대한 동의 여부에 대한 평균은 2.9로 보통에 약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보통이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49.0%로 가장 높음

(단위 :%)



<그림 4-52> 기성세대(4·50대)는 ‘노력에 비해 더 큰 혜택을 누린다’ 동의 여부

○ 남녀 모두 평균이 보통에 약간 미치지 못함

- 성별에 관계없이 ‘보통이다’ 라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음 (남성 50.4%, 여성 47.5%)

○ 모두 보통 이하의 평균을 갖는 것으로 나타남

○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평균은 모두 보통에 약간 미치지 못함

○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평균은 모두 보통에 약간 미치지 못함

○ 학력에 관계없이 평균은 모두 보통에 약간 미치지 못함

<표 4-59> 기성세대(4·50대)는 '노력에 비해 더 큰 혜택을 누린다' 동의 여부

(단위 :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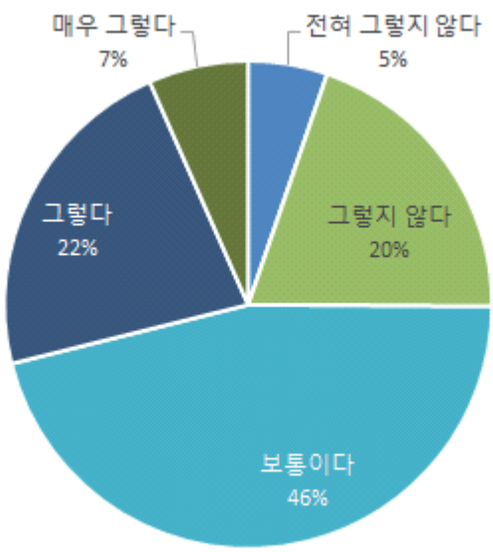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	①+②	보통이다	→	매우 그렇다	④+⑤	계	평균
전체	**(800)**	**8.6**	**21.4**	**30.0**	**49.0**	**17.5**	**3.5**	**21.0**	**100.0**	**2.9**
성별										
남성	(415)	11.3	17.8	29.2	50.4	15.9	4.6	20.5	100.0	2.8
여성	(385)	5.7	25.2	30.9	47.5	19.2	2.3	21.6	100.0	2.9
연령대										
20-24세	(219)	8.7	26.0	34.7	47.9	14.6	2.7	17.4	100.0	2.8
25-29세	(186)	9.7	18.8	28.5	49.5	18.3	3.8	22.0	100.0	2.9
30-34세	(185)	9.2	15.1	24.3	49.2	22.2	4.3	26.5	100.0	3.0
35-39세	(210)	7.1	24.3	31.4	49.5	15.7	3.3	19.0	100.0	2.8
거주 지역										
장안구	(182)	6.6	19.8	26.4	54.4	15.9	3.3	19.2	100.0	2.9
권선구	(245)	7.8	26.5	34.3	42.9	18.4	4.5	22.9	100.0	2.9
팔달구	(126)	19.0	20.6	39.7	39.7	15.9	4.8	20.6	100.0	2.7
영통구	(247)	5.7	17.8	23.5	55.9	18.6	2.0	20.6	100.0	2.9
취업상태										
취업	(449)	8.5	19.2	27.6	47.2	20.9	4.2	25.2	100.0	2.9
미취업	(351)	8.8	24.2	33.0	51.3	13.1	2.6	15.7	100.0	2.8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10.1	16.0	26.0	56.8	14.2	3.0	17.2	100.0	2.8
대학교 재학	(231)	10.0	23.8	33.8	49.8	14.7	1.7	16.5	100.0	2.7
대학교 졸업 이상	(400)	7.3	22.3	29.5	45.3	20.5	4.8	25.3	100.0	2.9

■ 기성세대(4·50대)는 다른 세대에 대한 배려가 없다

○ ‘기성세대(4·50대) 다른 세대에 대한 배려가 없다’에 대한 동의 여부에 대한 평균은 3.1로 보통을 약간 넘는 것으로 나타남

-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6.0%로 가장 높음

(단위 :%)



<그림 4-53> 기성세대(4·50대)는 ‘ 다른 세대에 대한 배려가 없다’ 동의 정도

○ 남성의 평균은 3.0으로 보통, 여성의 평균은 3.1로 보통보다 약간 높게 나타남

○ 모두 보통 이상의 평균을 갖는 것으로 나타남

○ 거주 지역별로 보았을 때 권선구 거주자는 평균 2.9로 보통에 약간 미치지 못했고, 팔달구 거주자의 평균은 3.0으로 보통, 장안구와 영통구 거주자의 평균은 보통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 취업 여부에 따라 취업자 평균 3.1, 미취업자 평균 3.0으로 나타남

○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응답자는 평균 3.0으로 보통, 대학교 재학생은 평균 2.9로 보통에 약간 미치지 못하고, 대학교 졸업 이상 응답자는 평균 3.2로 보통을 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60> 기성세대(4·50대)는 ‘ 다른 세대에 대한 배려가 없다’ 동의 정도

(단위 : %, 점)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	①+②	보통이다	→	매우 그렇다	④+⑤	계	평균
전체	**(800)**	**5.3**	**19.9**	**25.1**	**46.0**	**22.3**	**6.6**	**28.9**	**100.0**	**3.1**
성별										
남성	(415)	6.5	20.0	26.5	46.0	20.5	7.0	27.5	100.0	3.0
여성	(385)	3.9	19.7	23.6	46.0	24.2	6.2	30.4	100.0	3.1
연령대										
20-24세	(219)	5.9	21.5	27.4	45.7	19.6	7.3	26.9	100.0	3.0
25-29세	(186)	7.0	17.7	24.7	43.0	24.7	7.5	32.3	100.0	3.1
30-34세	(185)	6.5	18.4	24.9	40.5	27.6	7.0	34.6	100.0	3.1
35-39세	(210)	1.9	21.4	23.3	53.8	18.1	4.8	22.9	100.0	3.0
거주 지역										
장안구	(182)	2.2	15.4	17.6	46.2	27.5	8.8	36.3	100.0	3.3
권선구	(245)	6.9	23.7	30.6	43.7	20.0	5.7	25.7	100.0	2.9
팔달구	(126)	11.9	19.8	31.7	35.7	24.6	7.9	32.5	100.0	3.0
영통구	(247)	2.4	19.4	21.9	53.4	19.4	5.3	24.7	100.0	3.1
취업상태										
취업	(449)	5.3	16.9	22.3	47.9	22.9	6.9	29.8	100.0	3.1
미취업	(351)	5.1	23.6	28.8	43.6	21.4	6.3	27.6	100.0	3.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8.3	17.8	26.0	49.1	20.1	4.7	24.9	100.0	3.0
대학교 재학	(231)	6.5	23.4	29.9	45.0	21.2	3.9	25.1	100.0	2.9
대학교 졸업 이상	(400)	3.3	18.8	22.0	45.3	23.8	9.0	32.8	100.0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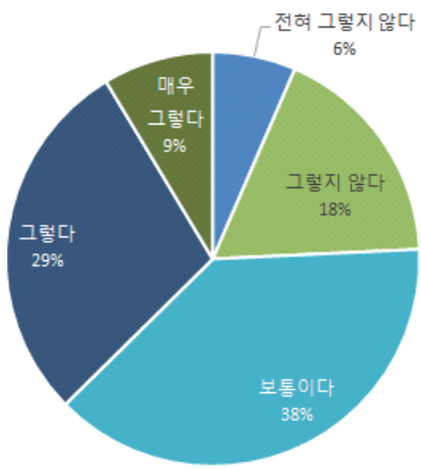
나. 노인(70세 이상)에 대한 인식

■ 노인(70세 이상)은 ‘다른 세대보다 정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는다’ 동의 여부

○ 노인(70세 이상)은 ‘다른 세대보다 정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는다’에 대한 동의 여부에 대한 평균은 3.2로 보통을 약간 넘는 것으로 나타남

-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6.0%로 가장 높음

(단위 :%)



<그림 4-54> 노인(70세 이상)은 ‘다른 세대보다 정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는다’ 동의 여부

○ 남녀 모두 평균이 보통을 약간 넘는 것으로 나타남

- 남성의 경우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38.1%로 가장 높았고, 여성은 긍정 응답률이 39.2%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모두 보통 이상의 평균을 갖는 것으로 나타남

- 20대는 ‘보통이다’라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으며, 30대에서는 긍정적으로 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 모두 보통 이상의 평균을 갖는 것으로 나타남

- 장안구와 권선구 거주자가 ‘보통이다’라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으며, 팔달구와 영통구 거주자 중에서는 긍정적으로 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평균이 보통을 약간 넘는 것으로 나타남

- 미취업자의 경우 ‘보통이다’라고 답한 응답자가 37.6%로 가장 많았으며, 취업자의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답한 응답자가 40.2%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응답자의 평균은 보통에 미치지 못했고, 대학교 재학생과 대학교 졸업 이상 응답자의 평균은 보통이 넘는 것으로 나타남

○ 대학교 졸업 이상 응답자는 긍정 응답률이 43.3%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4-61> 응답자 특성별 노인(70세 이상)은 '다른 세대보다 정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는다' 동의 정도

(단위 :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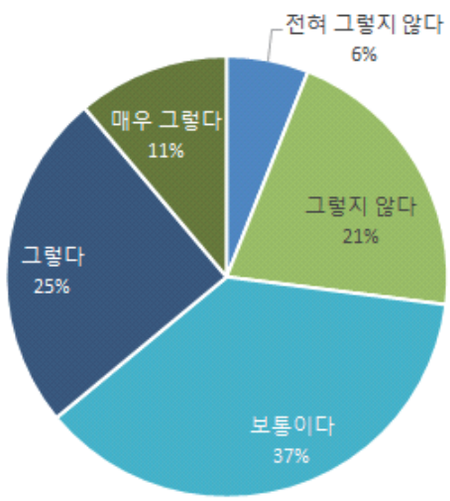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	①+②	보통이다	→	매우 그렇다	④+⑤	계	평균
전체	**(800)**	**6.5**	**17.8**	**24.3**	**38.4**	**28.8**	**8.6**	**37.4**	**100.0**	**3.2**
성별										
남성	(415)	7.7	18.6	26.3	38.1	26.5	9.2	35.7	100.0	3.1
여성	(385)	5.2	16.9	22.1	38.7	31.2	8.1	39.2	100.0	3.2
연령대										
20-24세	(219)	6.4	21.5	27.9	41.1	25.1	5.9	31.1	100.0	3.0
25-29세	(186)	7.5	21.0	28.5	37.1	26.9	7.5	34.4	100.0	3.1
30-34세	(185)	8.1	13.0	21.1	35.7	30.3	13.0	43.2	100.0	3.3
35-39세	(210)	4.3	15.2	19.5	39.0	32.9	8.6	41.4	100.0	3.3
거주 지역										
장안구	(182)	9.9	18.7	28.6	42.3	20.3	8.8	29.1	100.0	3.0
권선구	(245)	5.3	19.2	24.5	42.9	25.3	7.3	32.7	100.0	3.1
팔달구	(126)	10.3	23.8	34.1	29.4	25.4	11.1	36.5	100.0	3.0
영통구	(247)	3.2	12.6	15.8	35.6	40.1	8.5	48.6	100.0	3.4
취업상태										
취업	(449)	6.5	16.7	23.2	36.7	31.4	8.7	40.1	100.0	3.2
미취업	(351)	6.6	19.1	25.6	40.5	25.4	8.5	33.9	100.0	3.1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10.7	17.2	27.8	43.2	24.9	4.1	29.0	100.0	2.9
대학교 재학	(231)	6.1	20.3	26.4	40.3	26.4	6.9	33.3	100.0	3.1
대학교 졸업 이상	(400)	5.0	16.5	21.5	35.3	31.8	11.5	43.3	100.0	3.3

■ 노인(70세 이상)의 정치적 영향력이 너무 크다

○ 노인(70세 이상)의 '정치적 영향력이 너무 크다' 에 대한 동의 여부에 대한 평균은 3.1로 보통을 약간 넘는 것으로 나타남

- '보통이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37.0%로 가장 높음

(단위 :%)



<그림 4-55> 노인(70세 이상)의 '정치적 영향력이 너무 크다' 동의 정도

○ 남녀 모두 평균이 보통을 약간 넘는 것으로 나타남

- 남성의 경우 '보통이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39.8%로 가장 높았고, 여성의 경우는 긍정 응답률이 40.5%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연령에 관계없이 모두 평균이 보통을 약간 넘는 것으로 나타남

- 20대와 35~39세는 '보통이다' 라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으며, 30~34세에서는 긍정적으로 답한 비율이 38.9%로 가장 높음

○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모두 평균이 보통을 약간 넘는 것으로 나타남

- 영통구 거주자의 경우 '보통이다' 라고 답한 비율이 44.5%로 가장 높게 나타남. 나머지 구 거주자들은 긍정적으로 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평균이 보통을 약간 넘는 것으로 나타남

- 취업자의 경우 '보통이다' 라고 답한 응답자가 38.5%로 가장 많았으며, 미취업자의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답한 응답자가 35.9%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응답자는 평균 2.9로 보통에 미치지 못했고, 대학교 재학생과 대학교 졸업 이상 응답자는 모두 평균이 보통을 약간 넘는 것으로 나타남

-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응답자와 대학교 재학생은 '보통이다' 라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으며, 대학교 졸업 이상 응답자가 41.0%로 긍정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4-62> 응답자 특성별 노인(70세 이상)의 '정치적 영향력이 너무 크다' 동의 정도

(단위 : %, 점)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	①+②	보통이다	→	매우 그렇다	④+⑤	계	평균
전체	**(800)**	**6.0**	**21.0**	**27.0**	**37.0**	**24.9**	**11.1**	**36.0**	**100.0**	**3.1**
성별										
남성	(415)	7.0	21.4	28.4	39.8	21.7	10.1	31.8	100.0	3.1
여성	(385)	4.9	20.5	25.5	34.0	28.3	12.2	40.5	100.0	3.2
연령대										
20-24세	(219)	5.5	24.2	29.7	37.0	23.7	9.6	33.3	100.0	3.1
25-29세	(186)	6.5	17.7	24.2	39.8	27.4	8.6	36.0	100.0	3.1
30-34세	(185)	7.6	21.6	29.2	31.9	24.9	14.1	38.9	100.0	3.2
35-39세	(210)	4.8	20.0	24.8	39.0	23.8	12.4	36.2	100.0	3.2
거주 지역										
장안구	(182)	4.9	19.8	24.7	35.7	25.3	14.3	39.6	100.0	3.2
권선구	(245)	7.3	22.4	29.8	35.1	22.0	13.1	35.1	100.0	3.1
팔달구	(126)	11.1	20.6	31.7	27.8	28.6	11.9	40.5	100.0	3.1
영통구	(247)	2.8	20.6	23.5	44.5	25.5	6.5	32.0	100.0	3.1
취업상태										
취업	(449)	6.7	18.7	25.4	38.5	24.1	12.0	36.1	100.0	3.2
미취업	(351)	5.1	23.9	29.1	35.0	25.9	10.0	35.9	100.0	3.1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11.8	20.1	32.0	38.5	21.9	7.7	29.6	100.0	2.9
대학교 재학	(231)	3.9	22.5	26.4	41.6	22.9	9.1	32.0	100.0	3.1
대학교 졸업 이상	(400)	4.8	20.5	25.3	33.8	27.3	13.8	41.0	100.0	3.2

3) 지역정체성

(1) 수원시 거주 이유

○ 수원시 거주 이유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부모님과 함께 살기 때문’로 30.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어서 ‘태어나면서 살아와서’ 22.1%, ‘배우자/본인의 직장이 수원시에 있어서’ 21.3% 등의 순으로 나타남

(단위 :%)

<그림 4-56> 수원시 거주 이유

○ 성별에 관계없이 ‘부모님과 함께 살기 때문’을 가장 큰 수원시 거주 사유로 꼽음. 남성의 경우가 26.7%, 여성은 33.5%로 여성이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함

○ 20대는 ‘부모님과 함께 살기 때문’을 가장 큰 이유로 답했고, 30대에서는 ‘배우자/본인의 직장이 수원시에 있어서’가 수원에 거주하는 가장 큰 이유인 것으로 나타남

○ 권선구의 경우 25.3%가 ‘태어나면서 살아와서’를 가장 큰 이유로 들었고, 다른 구 거주자들은 모두 수원시 거주의 가장 큰 사유를 ‘부모님과 함께 살기 때문’이라고 답함

○ 취업자의 26.5%는 ‘배우자/본인의 직장이 수원시에 있어서’를 가장 큰 이유로 들었고, 미취업자의 경우에는 ‘부모님과 함께 살기 때문’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39.9%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응답자, 대학교 재학생은 '부모님과 함께 살기 때문' 이라고 답한 비율이 가장 많았으며, 대학교 졸업 이상 응답자가 28.3%로 '배우자/본인의 직장이 수원시에 있어서' 라고 가장 높은 수치로 대답함

<표 4-63> 응답자 특성별 수원시 거주 이유

(단위 : %)

	사례수 (명)	배우자/본인의 직장이 수원시에 있어서	배우자/본인의 직장까지 교통이 편리해서	가족/친?인척과 가까이 살기 위해서(자녀 양육 등의 이유로)	태어나면서 살아와서	교육 때문에 (자녀의 교육, 본인의 교육)	부모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편의시설(병원, 은행, 할인마트 등)	투자가치가 있어서	경제적 여건상 가장 적합한 곳이라서	계
전체	**(800)**	**21.3**	**9.9**	**4.8**	**22.1**	**6.4**	**30.0**	**0.6**	**0.3**	**4.8**	**100.0**
성별											
남성	(415)	22.4	9.6	4.6	22.7	7.5	26.7	0.5	0.2	5.8	100.0
여성	(385)	20.0	10.1	4.9	21.6	5.2	33.5	0.8	0.3	3.6	100.0
연령대											
20-24세	(219)	3.2	1.4	2.3	29.2	13.2	49.8			0.9	100.0
25-29세	(186)	10.2	6.5	6.5	21.5	7.0	41.9	1.6	0.5	4.3	100.0
30-34세	(185)	25.4	15.1	4.9	23.2	1.6	22.2	0.5		7.0	100.0
35-39세	(210)	46.2	17.1	5.7	14.3	2.9	5.7	0.5	0.5	7.1	100.0
거주 지역											
장안구	(182)	20.3	7.1	6.0	26.9	4.9	30.2	1.1		3.3	100.0
권선구	(245)	24.1	11.4	3.7	25.3	3.7	23.7	0.4	0.8	6.9	100.0
팔달구	(126)	15.9	2.4	4.0	28.6	4.0	37.3	0.8		7.1	100.0
영통구	(247)	21.9	14.2	5.3	12.1	11.3	32.4	0.4		2.4	100.0
취업상태											
취업	(449)	26.5	12.2	6.2	21.8	3.1	22.3	0.4	0.2	7.1	100.0
미취업	(351)	14.5	6.8	2.8	22.5	10.5	39.9	0.9	0.3	1.7	100.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24.9	14.8	4.1	20.1	2.4	26.6	1.2		5.9	100.0
대학교 재학	(231)	6.5	1.3	2.6	25.1	14.7	48.9	0.4		0.4	100.0
대학교 졸업 이상	(400)	28.3	12.8	6.3	21.3	3.3	20.5	0.5	0.5	6.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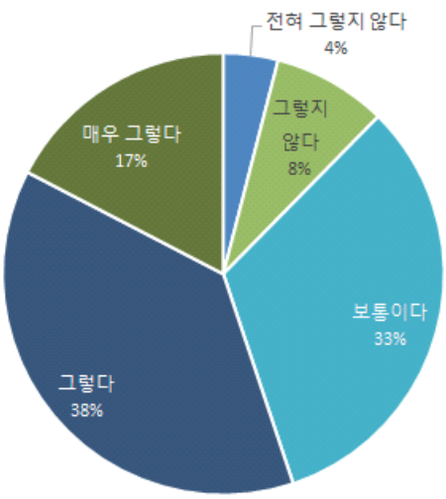
(2) 타지역 이주 및 지인 추천 의향

가. 수원시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의향

○ ‘외적환경 변화가 없는 한 10년 후에도 수원시에 계속 거주하겠다’ 는 의견에 대한 평균은 3.6으로 보통을 넘는 것으로 나타남

- 긍정 응답률이 55.1%로 가장 높음

(단위 :%)



<그림 4-57> 수원시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의향

○ 남녀 모두 평균이 보통을 넘는 것으로 나타남 (남성 긍정 응답률 52.0%, 여성 긍정 응답률 58.4%)

○ 연령에 관계없이 모두 평균이 보통을 넘는 것으로 나타남

○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모두 평균이 보통을 넘는 것으로 나타남

- 영통구 거주자의 응답 비율이 64.8%로 가장 높음

○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평균이 보통을 넘는 것으로 나타남 (취업자 긍정 응답률 60.6%, 미취업자 긍정 응답률 48.1%)

○ 학력에 관계없이 모두 평균이 보통을 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대학교 졸업 이상 응답자의 긍정 응답률이 63.5%로 가장 높음

<표 4-64> 응답자 특성별 수원시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의향

(단위 :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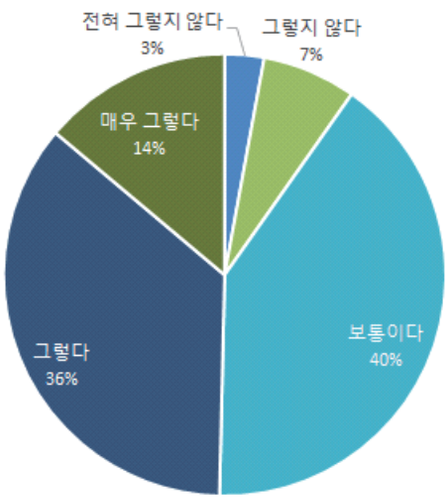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	①+②	보통이다	→	매우 그렇다	④+⑤	계	평균
전체	**(800)**	**4.0**	**8.4**	**12.4**	**32.5**	**37.8**	**17.4**	**55.1**	**100.0**	**3.6**
성별										
남성	(415)	5.8	8.7	14.5	33.5	36.4	15.7	52.0	100.0	3.5
여성	(385)	2.1	8.1	10.1	31.4	39.2	19.2	58.4	100.0	3.7
연령대										
20-24세	(219)	6.8	12.3	19.2	32.9	34.2	13.7	47.9	100.0	3.4
25-29세	(186)	1.1	7.0	8.1	37.6	34.9	19.4	54.3	100.0	3.6
30-34세	(185)	2.7	7.0	9.7	34.6	36.8	18.9	55.7	100.0	3.6
35-39세	(210)	4.8	6.7	11.4	25.7	44.8	18.1	62.9	100.0	3.6
거주 지역										
장안구	(182)	5.5	8.8	14.3	39.6	29.7	16.5	46.2	100.0	3.4
권선구	(245)	4.1	9.4	13.5	29.8	39.6	17.1	56.7	100.0	3.6
팔달구	(126)	6.3	11.9	18.3	35.7	30.2	15.9	46.0	100.0	3.4
영통구	(247)	1.6	5.3	6.9	28.3	45.7	19.0	64.8	100.0	3.8
취업상태										
취업	(449)	3.1	5.3	8.5	31.0	42.5	18.0	60.6	100.0	3.7
미취업	(351)	5.1	12.3	17.4	34.5	31.6	16.5	48.1	100.0	3.4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3.0	6.5	9.5	39.1	37.3	14.2	51.5	100.0	3.5
대학교 재학	(231)	6.9	13.0	19.9	36.8	29.0	14.3	43.3	100.0	3.3
대학교 졸업 이상	(400)	2.8	6.5	9.3	27.3	43.0	20.5	63.5	100.0	3.7

나. 수원시 거주 추천 의향

○ ‘지인들에게 수원시에 사는 것을 추천할 의향이 있다’ 는 의견에 대한 평균은 3.5로 보통을 넘는 것으로 나타남

- 긍정 응답률이 49.6%로 가장 높음

(단위 :%)



<그림 4-58> 수원시 거주 추천 의향

○ 남녀 모두 평균이 보통을 넘는 것으로 나타남 (남성 긍정 응답률 48.2%, 여성 긍정 응답률 51.2%)

○ 연령에 관계없이 모두 평균이 보통을 넘는 것으로 나타남

○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모두 평균이 보통을 넘는 것으로 나타남

- 영통구 거주자의 응답 비율이 54.7%로 가장 높았고, 팔달구 거주자들은 ‘보통이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47.6%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평균이 보통을 넘는 것으로 나타남 (취업자 긍정 응답률 51.7%, 미취업자 긍정 응답률 47.0%)

○ 학력에 관계없이 모두 평균이 보통을 넘는 것으로 나타남

- 대학교 재학생, 대학교 졸업 이상 응답자는 긍정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응답자에서는 ‘보통이다’ 라는 응답이 45.6%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4-65> 응답자 특성별 수원시 거주 추천 의향

(단위 :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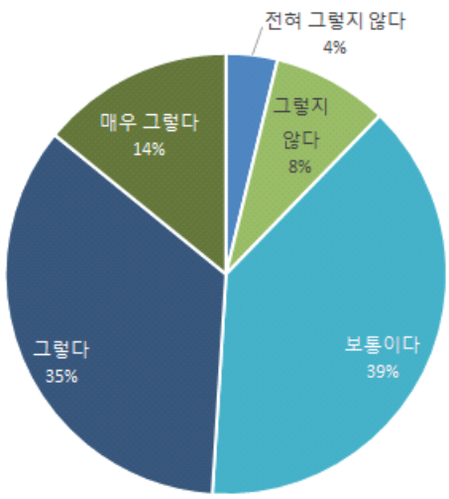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	①+②	보통이다	→	매우 그렇다	④+⑤	계	평균
전체	**(800)**	**2.9**	**6.9**	**9.8**	**40.6**	**35.8**	**13.9**	**49.6**	**100.0**	**3.5**
성별										
남성	(415)	4.8	8.2	13.0	38.8	34.7	13.5	48.2	100.0	3.4
여성	(385)	0.8	5.5	6.2	42.6	36.9	14.3	51.2	100.0	3.6
연령대										
20-24세	(219)	6.4	9.6	16.0	39.3	31.5	13.2	44.7	100.0	3.4
25-29세	(186)	0.5	5.4	5.9	40.9	38.7	14.5	53.2	100.0	3.6
30-34세	(185)	1.6	7.0	8.6	40.0	34.1	17.3	51.4	100.0	3.6
35-39세	(210)	2.4	5.2	7.6	42.4	39.0	11.0	50.0	100.0	3.5
거주 지역										
장안구	(182)	1.6	7.7	9.3	41.2	37.9	11.5	49.5	100.0	3.5
권선구	(245)	4.1	6.5	10.6	38.4	33.1	18.0	51.0	100.0	3.5
팔달구	(126)	5.6	9.5	15.1	47.6	28.6	8.7	37.3	100.0	3.3
영통구	(247)	1.2	5.3	6.5	38.9	40.5	14.2	54.7	100.0	3.6
취업상태										
취업	(449)	1.6	5.6	7.1	41.2	36.7	14.9	51.7	100.0	3.6
미취업	(351)	4.6	8.5	13.1	39.9	34.5	12.5	47.0	100.0	3.4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1.8	9.5	11.2	45.6	33.7	9.5	43.2	100.0	3.4
대학교 재학	(231)	5.2	6.5	11.7	43.7	30.3	14.3	44.6	100.0	3.4
대학교 졸업 이상	(400)	2.0	6.0	8.0	36.8	39.8	15.5	55.3	100.0	3.6

다. 수원시 재거주 의향

○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다시 수원으로 이사 올 의향이 있다’ 는 의견에 대한 평균은 3.5로 보통을 넘는 것으로 나타남

- 긍정 응답률이 49.0%로 가장 높음

(단위 :%)



<그림 4-59> 수원시 재거주 의향

○ 남녀 모두 평균이 보통을 넘는 것으로 나타남 (남성 긍정 응답률 45.1%, 여성 긍정 응답률 53.2%)

○ 연령에 관계없이 모두 평균이 보통을 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25~29세의 긍정 응답률은 반수가 넘는 55.9%로 나타남

○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모두 평균이 보통을 넘는 것으로 나타남

○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평균이 보통을 넘는 것으로 나타남 (취업자 긍정 응답률 51.9%, 미취업자 긍정 응답률 45.3%)

○ 학력에 관계없이 모두 평균이 보통을 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66> 응답자 특성별 수원시 재거주 의향

(단위 :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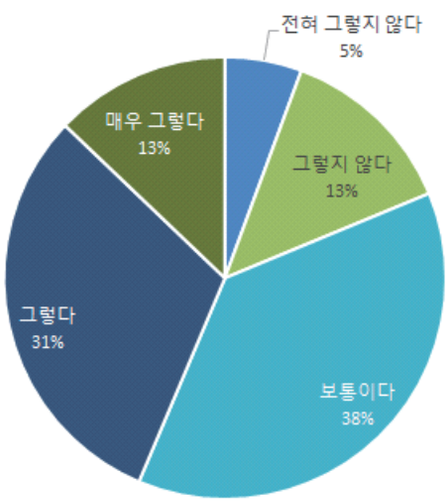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	①+②	보통이다	→	매우 그렇다	④+⑤	계	평균
전체	**(800)**	**3.8**	**8.5**	**12.3**	**38.8**	**34.9**	**14.1**	**49.0**	**100.0**	**3.5**
성별										
남성	(415)	5.5	8.7	14.2	40.7	30.8	14.2	45.1	100.0	3.4
여성	(385)	1.8	8.3	10.1	36.6	39.2	14.0	53.2	100.0	3.6
연령대										
20-24세	(219)	7.8	11.4	19.2	33.8	33.8	13.2	47.0	100.0	3.3
25-29세	(186)	1.1	5.9	7.0	37.1	39.2	16.7	55.9	100.0	3.6
30-34세	(185)	2.2	8.1	10.3	40.5	32.4	16.8	49.2	100.0	3.5
35-39세	(210)	3.3	8.1	11.4	43.8	34.3	10.5	44.8	100.0	3.4
거주 지역										
장안구	(182)	1.6	7.7	9.3	45.1	31.3	14.3	45.6	100.0	3.5
권선구	(245)	4.9	9.0	13.9	35.9	35.9	14.3	50.2	100.0	3.5
팔달구	(126)	7.1	13.5	20.6	37.3	30.2	11.9	42.1	100.0	3.3
영통구	(247)	2.4	6.1	8.5	37.7	38.9	15.0	53.8	100.0	3.6
취업상태										
취업	(449)	2.7	6.0	8.7	39.4	37.6	14.3	51.9	100.0	3.5
미취업	(351)	5.1	11.7	16.8	37.9	31.3	14.0	45.3	100.0	3.4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3.0	9.5	12.4	37.3	37.3	13.0	50.3	100.0	3.5
대학교 재학	(231)	6.1	10.4	16.5	40.3	30.3	13.0	43.3	100.0	3.3
대학교 졸업 이상	(400)	2.8	7.0	9.8	38.5	36.5	15.3	51.8	100.0	3.5

(3) 지역 소속감

○ ‘나는 수원시에 강한 소속감을 가지고 있다’ 는 의견에 대한 평균은 3.5로 보통을 넘는 것으로 나타남

- 긍정 응답률이 43.6%로 가장 높음

(단위 :%)



<그림 4-60> 지역 소속감

○ 남녀 모두 평균이 보통을 넘는 것으로 나타남 (남성 긍정 응답률 39.0%, 여성 긍정 응답률 48.6%)

○ 연령에 관계없이 모두 평균이 보통을 넘는 것으로 나타남

○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모두 평균이 보통을 넘는 것으로 나타남

- 권선구, 영통구 거주자는 긍정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장안구, 팔달구 거주자는 ‘보통이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평균이 보통을 넘는 것으로 나타남 (취업자 긍정 응답률 46.1%, 미취업자 긍정 응답률 40.5%)

○ 학력에 관계없이 모두 평균이 보통을 넘는 것으로 나타남

- 대학교 재학생과 대학교 졸업 이상 응답자는 긍정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응답자는 46.2%의 비율로 ‘보통이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표 4-67> 응답자 특서별 지역 소속감

(단위 :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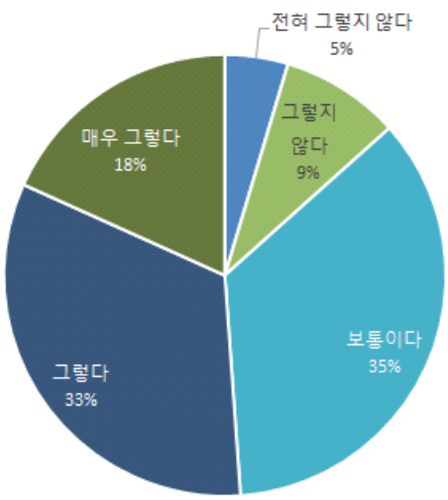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	①+②	보통이다	→	매우 그렇다	④+⑤	계	평균
전체	**(800)**	**5.6**	**13.1**	**18.8**	**37.6**	**30.8**	**12.9**	**43.6**	**100.0**	**3.3**
성별										
남성	(415)	8.4	13.7	22.2	38.8	28.2	10.8	39.0	100.0	3.2
여성	(385)	2.6	12.5	15.1	36.4	33.5	15.1	48.6	100.0	3.5
연령대										
20-24세	(219)	9.1	14.2	23.3	34.2	32.9	9.6	42.5	100.0	3.2
25-29세	(186)	2.7	12.9	15.6	35.5	31.7	17.2	48.9	100.0	3.5
30-34세	(185)	5.9	10.8	16.8	41.1	26.5	15.7	42.2	100.0	3.4
35-39세	(210)	4.3	14.3	18.6	40.0	31.4	10.0	41.4	100.0	3.3
거주 지역										
장안구	(182)	4.9	17.0	22.0	42.3	23.1	12.6	35.7	100.0	3.2
권선구	(245)	8.2	11.4	19.6	31.0	33.5	15.9	49.4	100.0	3.4
팔달구	(126)	6.3	14.3	20.6	42.9	28.6	7.9	36.5	100.0	3.2
영통구	(247)	3.2	11.3	14.6	38.1	34.8	12.6	47.4	100.0	3.4
취업상태										
취업	(449)	4.9	10.2	15.1	38.8	32.1	14.0	46.1	100.0	3.4
미취업	(351)	6.6	16.8	23.4	36.2	29.1	11.4	40.5	100.0	3.2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5.3	8.9	14.2	46.2	30.2	9.5	39.6	100.0	3.3
대학교 재학	(231)	7.4	18.6	26.0	33.8	29.4	10.8	40.3	100.0	3.2
대학교 졸업 이상	(400)	4.8	11.8	16.5	36.3	31.8	15.5	47.3	100.0	3.4

(4) 수원시에 대한 느낌

○ ‘나는 수원시가 고향같이 편안하게 느껴진다’ 는 의견에 대한 평균은 3.5로 보통을 넘는 것으로 나타남

- 긍정 응답률이 반수가 넘는 51.1%로 가장 높음

(단위 :%)



<그림 4-61> 수원시에 대한 느낌

○ 남녀 모두 평균이 보통을 넘는 것으로 나타남 (남성 긍정 응답률 45.8%, 여성 긍정 응답률 56.9%)

○ 연령에 관계없이 모두 평균이 보통을 넘는 것으로 나타남

- 20대의 긍정 응답률은 50%가 넘는데 반해 35~39세의 긍정 응답률은 44.3%로 나타남

○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모두 평균이 보통을 넘는 것으로 나타남

- 권선구 거주자의 응답 비율이 유일하게 50%를 넘어 57.6%로 나타남

○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평균이 보통을 넘는 것으로 나타남 (취업자 긍정 응답률 52.3%, 미취업자 긍정 응답률 49.6%)

○ 학력에 관계없이 모두 평균이 보통을 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68> 응답자 특성별 수원시에 대한 느낌

(단위 : %, 점)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	①+②	보통이다	→	매우 그렇다	④+⑤	계	평균
전체	**(800)**	**4.6**	**8.8**	**13.4**	**35.5**	**32.9**	**18.3**	**51.1**	**100.0**	**3.5**
성별										
남성	(415)	7.7	10.1	17.8	36.4	29.6	16.1	45.8	100.0	3.4
여성	(385)	1.3	7.3	8.6	34.5	36.4	20.5	56.9	100.0	3.7
연령대										
20-24세	(219)	8.2	7.8	16.0	31.1	33.8	19.2	53.0	100.0	3.5
25-29세	(186)	2.2	8.1	10.2	30.6	41.4	17.7	59.1	100.0	3.6
30-34세	(185)	3.2	7.6	10.8	40.5	27.6	21.1	48.6	100.0	3.6
35-39세	(210)	4.3	11.4	15.7	40.0	29.0	15.2	44.3	100.0	3.4
거주 지역										
장안구	(182)	3.3	11.5	14.8	37.9	28.6	18.7	47.3	100.0	3.5
권선구	(245)	6.9	6.1	13.1	29.4	36.7	20.8	57.6	100.0	3.6
팔달구	(126)	4.8	8.7	13.5	39.7	32.5	14.3	46.8	100.0	3.4
영통구	(247)	3.2	9.3	12.6	37.7	32.4	17.4	49.8	100.0	3.5
취업상태										
취업	(449)	3.3	7.6	10.9	36.7	33.0	19.4	52.3	100.0	3.6
미취업	(351)	6.3	10.3	16.5	33.9	32.8	16.8	49.6	100.0	3.4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5.9	3.6	9.5	39.1	39.1	12.4	51.5	100.0	3.5
대학교 재학	(231)	6.9	10.8	17.7	33.3	30.3	18.6	48.9	100.0	3.4
대학교 졸업 이상	(400)	2.8	9.8	12.5	35.3	31.8	20.5	52.3	100.0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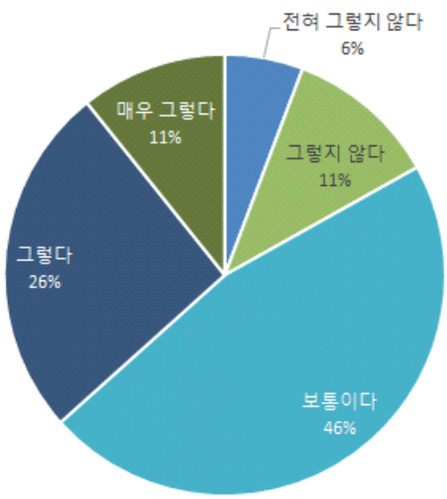
(5) 수원시민 자부심

■ 나는 수원시민이라는 데 자부심을 느낀다

○ ‘나는 수원시민이라는 데 자부심을 느낀다’ 는 의견에 대한 평균은 3.2로 보통을 약간 넘는 것으로 나타남

- ‘보통이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46.5%로 가장 높음

(단위 :%)



<그림 4-62> 수원시민 자부심

○ 남녀 모두 평균이 보통을 약간 넘는 것으로 나타남

- 성별에 관계없이 ‘보통이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남성 43.9%, 여성 49.4%)

○ 연령에 관계없이 모두 평균이 보통을 약간 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5~29세의 평균이 3.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전연령에서 ‘보통이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모두 평균이 보통을 약간 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영통구 거주자의 평균이 3.4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전 지역 거주자 모두 ‘보통이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평균이 보통을 약간 넘는 것으로 나타남

- ‘보통이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취업자 46.5%, 미취업자 46.4%)

○ 학력에 관계없이 모두 평균이 보통을 약간 넘는 것으로 나타남

- 모든 학력에서 ‘보통이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표 4-69> 응답자 특성별 수원시민 자부심

(단위 :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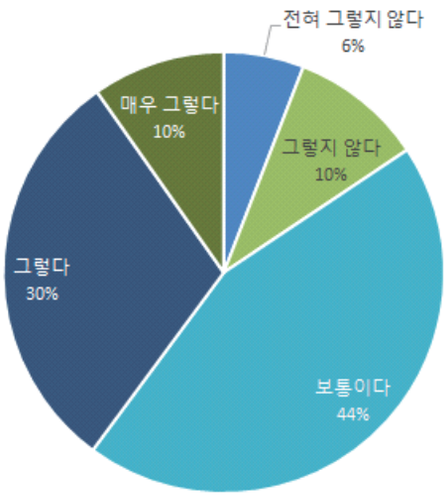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	①+②	보통이다	→	매우 그렇다	④+⑤	계	평균
전체	**(800)**	**5.8**	**11.1**	**16.9**	**46.5**	**25.9**	**10.8**	**36.6**	**100.0**	**3.2**
성별										
남성	(415)	8.9	12.5	21.4	43.9	23.4	11.3	34.7	100.0	3.2
여성	(385)	2.3	9.6	11.9	49.4	28.6	10.1	38.7	100.0	3.3
연령대										
20-24세	(219)	10.5	12.8	23.3	40.6	27.9	8.2	36.1	100.0	3.1
25-29세	(186)	2.2	9.7	11.8	47.3	26.3	14.5	40.9	100.0	3.4
30-34세	(185)	3.8	9.7	13.5	47.6	26.5	12.4	38.9	100.0	3.3
35-39세	(210)	5.7	11.9	17.6	51.0	22.9	8.6	31.4	100.0	3.2
거주 지역										
장안구	(182)	6.0	14.8	20.9	49.5	19.2	10.4	29.7	100.0	3.1
권선구	(245)	7.3	10.2	17.6	46.5	24.1	11.8	35.9	100.0	3.2
팔달구	(126)	8.7	10.3	19.0	44.4	27.0	9.5	36.5	100.0	3.2
영통구	(247)	2.4	9.7	12.1	45.3	32.0	10.5	42.5	100.0	3.4
취업상태										
취업	(449)	4.9	10.0	14.9	46.5	27.2	11.4	38.5	100.0	3.3
미취업	(351)	6.8	12.5	19.4	46.4	24.2	10.0	34.2	100.0	3.2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8.9	5.3	14.2	55.0	23.7	7.1	30.8	100.0	3.1
대학교 재학	(231)	7.8	15.6	23.4	40.7	26.0	10.0	35.9	100.0	3.1
대학교 졸업 이상	(400)	3.3	11.0	14.3	46.3	26.8	12.8	39.5	100.0	3.3

(6) 수원시 이미지

○ ‘나는 수원이 갖고 있는 지역 이미지에 만족한다’ 는 의견에 대한 평균은 3.3으로 보통을 넘는 것으로 나타남

- ‘보통이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44.5%로 가장 높음

(단위 :%)



<그림 4-63> 수원시 이미지 만족 여부

○ 남녀 모두 평균이 보통을 넘는 것으로 나타남

- 성별에 관계없이 ‘보통이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남성 42.7%, 여성 46.5%)

○ 연령에 관계없이 모두 평균이 보통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5~29세의 평균이 3.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대에서는 긍정적인 응답이 가장 많으며, 30대에서는 ‘보통이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모두 평균이 보통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영통구 거주자의 평균이 3.4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영통구 거주자들은 긍정 응답률이 42.5%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평균이 보통을 넘는 것으로 나타남

- ‘보통이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취업자 45.0%, 미취업자 43.9%)

○ 학력에 관계없이 모두 평균이 보통을 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70> 응답자 특성별 수원시 이미지 만족 여부

(단위 :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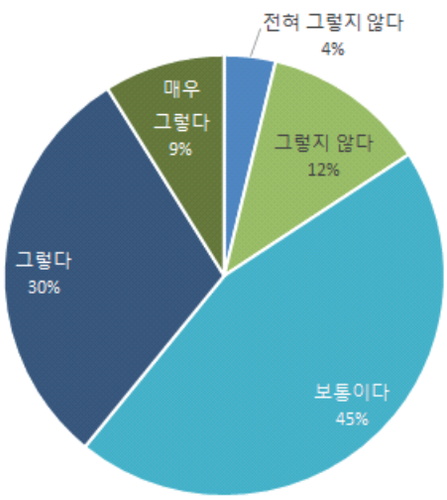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	①+②	보통이다	→	매우 그렇다	④+⑤	계	평균
전체	**(800)**	**5.9**	**9.8**	**15.6**	**44.5**	**30.1**	**9.8**	**39.9**	**100.0**	**3.3**
성별										
남성	(415)	8.0	9.2	17.1	42.7	29.6	10.6	40.2	100.0	3.3
여성	(385)	3.6	10.4	14.0	46.5	30.6	8.8	39.5	100.0	3.3
연령대										
20-24세	(219)	9.1	14.2	23.3	37.4	30.1	9.1	39.3	100.0	3.2
25-29세	(186)	3.8	7.5	11.3	44.1	31.7	12.9	44.6	100.0	3.4
30-34세	(185)	4.9	6.5	11.4	48.6	29.2	10.8	40.0	100.0	3.3
35-39세	(210)	5.2	10.0	15.2	48.6	29.5	6.7	36.2	100.0	3.2
거주 지역										
장안구	(182)	8.2	11.0	19.2	46.2	25.8	8.8	34.6	100.0	3.2
권선구	(245)	6.5	9.8	16.3	43.7	29.0	11.0	40.0	100.0	3.3
팔달구	(126)	7.9	11.9	19.8	43.7	26.2	10.3	36.5	100.0	3.2
영통구	(247)	2.4	7.7	10.1	44.5	36.4	8.9	45.3	100.0	3.4
취업상태										
취업	(449)	5.3	7.3	12.7	45.0	32.7	9.6	42.3	100.0	3.3
미취업	(351)	6.6	12.8	19.4	43.9	26.8	10.0	36.8	100.0	3.2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5.9	4.7	10.7	50.9	31.4	7.1	38.5	100.0	3.3
대학교 재학	(231)	6.1	14.7	20.8	42.0	28.1	9.1	37.2	100.0	3.2
대학교 졸업 이상	(400)	5.8	9.0	14.8	43.3	30.8	11.3	42.0	100.0	3.3

(7) 수원시 생활 환경 만족도

○ ‘수원시의 생활수준은 타도시(서울 제외)에 비해 높은 편이다’ 는 의견에 대한 평균은 3.3으로 보통을 넘는 것으로 나타남

- ‘보통이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45.1%로 가장 높음

(단위 :%)



<그림 4-64> 수원시 생활 환경 만족도

○ 남녀 모두 평균이 보통을 넘는 것으로 나타남

- 성별에 관계없이 ‘보통이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남성 43.1%, 여성 47.3%)

○ 연령에 관계없이 모두 평균이 보통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5~29세의 평균이 3.5로 가장 높고 35~39세의 평균이 3.1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20대에서는 긍정적인 응답이 가장 많으며, 30대에서는 ‘보통이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모두 평균이 보통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영통구 거주자의 평균이 3.4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전 지역 거주자 모두 ‘보통이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평균이 보통을 넘는 것으로 나타남

- ‘보통이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취업자 46.1%, 미취업자 43.9%)

○ 학력에 관계없이 모두 평균이 보통을 넘는 것으로 나타남

-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응답자와 대학교 졸업 이상 응답자의 경우에는 '보통이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데 반해 대학교 재학생의 긍정 응답률은 44.2%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4-71> 응답자 특성별 수원시 생활 환경 만족도

(단위 : %, 점)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	①+②	보통이다	→	매우 그렇다	④+⑤	계	평균
전체	**(800)**	**3.8**	**12.0**	**15.8**	**45.1**	**30.3**	**8.9**	**39.1**	**100.0**	**3.3**
성별										
남성	(415)	5.3	12.5	17.8	43.1	29.6	9.4	39.0	100.0	3.3
여성	(385)	2.1	11.4	13.5	47.3	30.9	8.3	39.2	100.0	3.3
연령대										
20-24세	(219)	4.6	16.4	21.0	34.7	32.9	11.4	44.3	100.0	3.3
25-29세	(186)	2.2	7.5	9.7	45.2	33.3	11.8	45.2	100.0	3.5
30-34세	(185)	2.7	10.3	13.0	48.6	30.8	7.6	38.4	100.0	3.3
35-39세	(210)	5.2	12.9	18.1	52.9	24.3	4.8	29.0	100.0	3.1
거주 지역										
장안구	(182)	4.9	12.6	17.6	43.4	28.0	11.0	39.0	100.0	3.3
권선구	(245)	4.9	12.2	17.1	42.4	30.6	9.8	40.4	100.0	3.3
팔달구	(126)	4.8	14.3	19.0	46.8	27.8	6.3	34.1	100.0	3.2
영통구	(247)	1.2	10.1	11.3	48.2	32.8	7.7	40.5	100.0	3.4
취업상태										
취업	(449)	4.0	10.2	14.3	46.1	31.6	8.0	39.6	100.0	3.3
미취업	(351)	3.4	14.2	17.7	43.9	28.5	10.0	38.5	100.0	3.3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4.1	12.4	16.6	52.7	23.7	7.1	30.8	100.0	3.2
대학교 재학	(231)	3.5	14.3	17.7	38.1	32.9	11.3	44.2	100.0	3.3
대학교 졸업 이상	(400)	3.8	10.5	14.3	46.0	31.5	8.3	39.8	100.0	3.3

4) 자아 정체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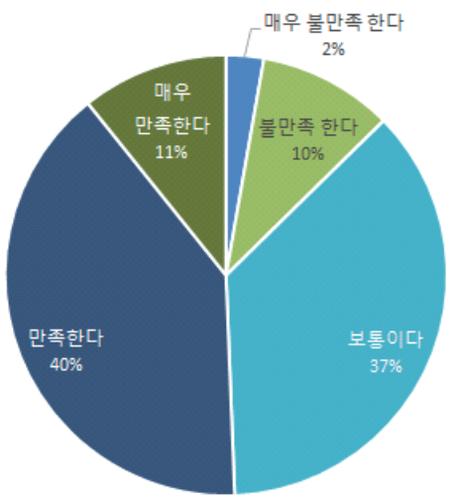
(1) 삶의 만족

가. 자신의 건강상태 만족도

○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만족도의 평균은 3.5로 보통을 넘는 것으로 나타남

- 긍정 응답률이 반수가 넘는 50.6%로 가장 높음

(단위 :%)



<그림 4-65> 자신의 건강상태 만족도

○ 남녀 모두 평균이 보통을 넘는 것으로 나타남

- 성별에 관계없이 긍정적으로 응답한 경우가 반수가 넘음 (남성 50.8%, 여성 50.4%)

○ 연령에 관계없이 모두 평균이 보통을 넘는 것으로 나타남

- 20~24세를 제외하고는 모든 연령에서 긍정 응답률이 50%를 넘음

○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모두 평균이 보통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영통구 거주자의 평균이 3.8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장안구 거주자와 팔달구 거주자는 '보통이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권선구와 팔달구 거주자 중에는 긍정 응답률이 가장 높았는데, 특히 영통구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70.9%가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평균이 보통을 넘는 것으로 나타남 (취업자 긍정 응답률 51.2%, 미취업자 긍정 응답률 49.9%)

○ 학력에 관계없이 모두 평균이 보통을 넘음 (긍정 응답률도 모두 50% 이상)

<표 4-72> 응답자 특성별 자신의 건강 상태 만족도

(단위 :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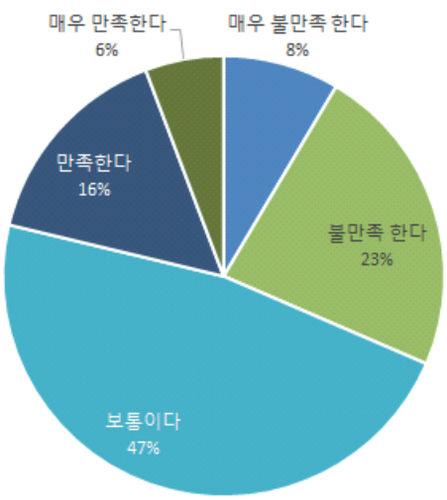
	사례수 (명)	매우 불만족 한다	←	①+②	보통이다	→	매우 만족한다	④+⑤	계	평균
전체	**(800)**	**2.8**	**9.9**	**12.6**	**36.8**	**39.9**	**10.8**	**50.6**	**100.0**	**3.5**
성별										
남성	(415)	3.4	9.6	13.0	36.1	39.5	11.3	50.8	100.0	3.5
여성	(385)	2.1	10.1	12.2	37.4	40.3	10.1	50.4	100.0	3.5
연령대										
20-24세	(219)	3.2	8.2	11.4	39.3	40.2	9.1	49.3	100.0	3.4
25-29세	(186)	2.7	12.4	15.1	34.9	35.5	14.5	50.0	100.0	3.5
30-34세	(185)	3.2	9.2	12.4	35.1	41.1	11.4	52.4	100.0	3.5
35-39세	(210)	1.9	10.0	11.9	37.1	42.4	8.6	51.0	100.0	3.5
거주 지역										
장안구	(182)	1.1	12.6	13.7	54.9	24.2	7.1	31.3	100.0	3.2
권선구	(245)	2.4	11.8	14.3	33.1	44.1	8.6	52.7	100.0	3.4
팔달구	(126)	6.3	11.1	17.5	47.6	26.2	8.7	34.9	100.0	3.2
영통구	(247)	2.4	5.3	7.7	21.5	54.3	16.6	70.9	100.0	3.8
취업상태										
취업	(449)	3.1	10.0	13.1	35.6	40.5	10.7	51.2	100.0	3.5
미취업	(351)	2.3	9.7	12.0	38.2	39.0	10.8	49.9	100.0	3.5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4.7	8.3	13.0	35.5	36.7	14.8	51.5	100.0	3.5
대학교 재학	(231)	1.3	9.1	10.4	39.4	39.8	10.4	50.2	100.0	3.5
대학교 졸업 이상	(400)	2.8	11.0	13.8	35.8	41.3	9.3	50.5	100.0	3.4

나. 자신의 재정상태 만족도

○ 자신의 재정상태에 대한 만족도의 평균은 2.9로 보통에 약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보통이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47.3%로 가장 높음

(단위 :%)



<그림 4-66> 자신의 재정상태 만족도

○ 남녀 모두 평균이 보통에 약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성별에 관계없이 '보통이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남성 45.8%, 여성 48.8%)

○ 연령에 관계없이 모두 평균이 보통에 약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전 연령에서 '보통이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 영통구 거주자만이 평균 3.0으로 보통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지역 거주자들의 평균은 모두 보통에 약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보통이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보통에 약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보통이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취업자 45.9%, 미취업자 49.0%)

○ 학력에 관계없이 모두 평균이 보통에 약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전 학력에서 '보통이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표 4-73> 응답자 특성별 자신의 재정상태 만족도

(단위 :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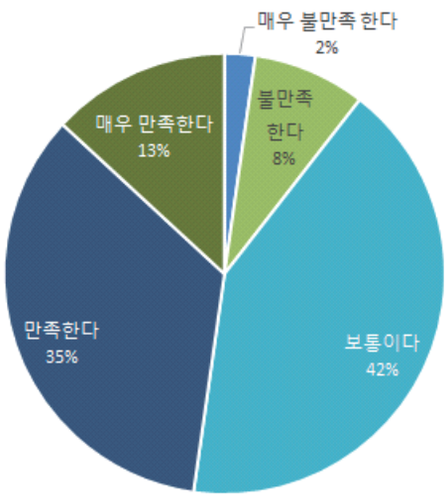
	사례수 (명)	매우 불만족 한다	←	①+②	보통이다	→	매우 만족한다	④+⑤	계	평균
전체	**(800)**	**8.5**	**23.0**	**31.5**	**47.3**	**15.5**	**5.8**	**21.3**	**100.0**	**2.9**
성별										
남성	(415)	8.9	24.1	33.0	45.8	14.9	6.3	21.2	100.0	2.9
여성	(385)	8.1	21.8	29.9	48.8	16.1	5.2	21.3	100.0	2.9
연령대										
20-24세	(219)	6.4	22.8	29.2	49.8	14.2	6.8	21.0	100.0	2.9
25-29세	(186)	10.2	28.0	38.2	39.8	16.7	5.4	22.0	100.0	2.8
30-34세	(185)	10.8	21.6	32.4	45.4	15.1	7.0	22.2	100.0	2.9
35-39세	(210)	7.1	20.0	27.1	52.9	16.2	3.8	20.0	100.0	2.9
거주 지역										
장안구	(182)	9.9	24.7	34.6	46.2	14.8	4.4	19.2	100.0	2.8
권선구	(245)	9.0	22.0	31.0	47.8	16.3	4.9	21.2	100.0	2.9
팔달구	(126)	10.3	20.6	31.0	52.4	9.5	7.1	16.7	100.0	2.8
영통구	(247)	6.1	23.9	30.0	44.9	18.2	6.9	25.1	100.0	3.0
취업상태										
취업	(449)	8.9	20.5	29.4	45.9	18.3	6.5	24.7	100.0	2.9
미취업	(351)	8.0	26.2	34.2	49.0	12.0	4.8	16.8	100.0	2.8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8.9	21.3	30.2	43.8	19.5	6.5	26.0	100.0	2.9
대학교 재학	(231)	7.4	24.2	31.6	47.2	14.7	6.5	21.2	100.0	2.9
대학교 졸업 이상	(400)	9.0	23.0	32.0	48.8	14.3	5.0	19.3	100.0	2.8

다. 가정생활 만족도

○ 자신의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도의 평균은 3.5로 보통을 넘는 것으로 나타남

- 긍정 응답률이 47.8%로 가장 높음

(단위 : %)



<그림 4-67> 가정생활 만족도

○ 남녀 모두 평균이 보통을 넘는 것으로 나타남 (남성 긍정 응답률 47.5%, 여성 긍정 응답률 48.1%)

○ 연령에 관계없이 모두 평균이 보통을 넘는 것으로 나타남

- 전 연령에서 긍정 응답률이 가장 높음

○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모두 평균이 보통을 넘는 것으로 나타남

-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에서는 긍정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장안구에서는 '보통이다' 응답한 비율이 45.6%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평균이 보통을 넘는 것으로 나타남 (취업자 긍정 응답률 45.9%, 미취업자 긍정 응답률 50.1%)

○ 학력에 관계없이 모두 평균이 보통을 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대학교 재학생의 긍정 응답률은 반수가 넘는 50.6%로 가장 높음

<표 4-74> 응답자 특성별 가정생활 만족도

(단위 :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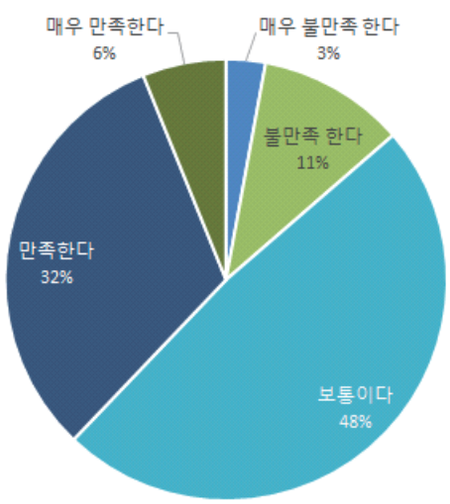
	사례수 (명)	매우 불만족 한다	←	①+②	보통이다	→	매우 만족한다	④+⑤	계	평균
전체	**(800)**	**2.3**	**8.3**	**10.5**	**41.8**	**34.6**	**13.1**	**47.8**	**100.0**	**3.5**
성별										
남성	(415)	1.9	8.4	10.4	42.2	33.3	14.2	47.5	100.0	3.5
여성	(385)	2.6	8.1	10.6	41.3	36.1	11.9	48.1	100.0	3.5
연령대										
20-24세	(219)	2.7	7.3	10.0	40.2	33.3	16.4	49.8	100.0	3.5
25-29세	(186)	2.2	11.3	13.4	43.0	31.7	11.8	43.5	100.0	3.4
30-34세	(185)	3.2	7.0	10.3	40.0	37.8	11.9	49.7	100.0	3.5
35-39세	(210)	1.0	7.6	8.6	43.8	35.7	11.9	47.6	100.0	3.5
거주 지역										
장안구	(182)	1.6	11.5	13.2	45.6	28.0	13.2	41.2	100.0	3.4
권선구	(245)	2.0	6.5	8.6	44.9	35.9	10.6	46.5	100.0	3.5
팔달구	(126)	5.6	10.3	15.9	39.7	27.0	17.5	44.4	100.0	3.4
영통구	(247)	1.2	6.5	7.7	36.8	42.1	13.4	55.5	100.0	3.6
취업상태										
취업	(449)	2.2	9.1	11.4	42.8	35.6	10.2	45.9	100.0	3.4
미취업	(351)	2.3	7.1	9.4	40.5	33.3	16.8	50.1	100.0	3.6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4.1	11.2	15.4	42.0	30.2	12.4	42.6	100.0	3.4
대학교 재학	(231)	1.3	6.9	8.2	41.1	33.8	16.9	50.6	100.0	3.6
대학교 졸업 이상	(400)	2.0	7.8	9.8	42.0	37.0	11.3	48.3	100.0	3.5

라. 사회생활 만족도

○ 자신의 사회생활에 대한 만족도의 평균은 3.3으로 보통을 넘는 것으로 나타남

- ‘보통이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48.5%로 가장 높음

(단위 :%)



<그림 4-68> 사회생활 만족도

○ 남녀 모두 평균이 보통을 넘는 것으로 나타남

- 성별에 관계없이 ‘보통이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남성 50.6%, 여성 46.2%)

○ 연령에 관계없이 모두 평균이 보통을 넘는 것으로 나타남

- 전 연령에서 ‘보통이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평균 3.0으로 보통인 팔달구 거주자를 제외하고는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모두 평균이 보통을 넘는 것으로 나타남

-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거주자는 ‘보통이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영통구 거주자는 긍정 응답률이 49.4%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평균이 보통을 넘는 것으로 나타남

-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보통이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취업자 46.1%, 미취업자 49.3%)

○ 학력에 관계없이 모두 평균이 보통을 넘는 것으로 나타남

- 학력에 관계없이 ‘보통이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데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응답자와 대학교 재학생의 경우 ‘보통이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50%를 넘음

<표 4-75> 응답자 특성별 사회생활 만족도

(단위 : %, 점)

	사례수 (명)	매우 불만족 한다	←	①+②	보통이다	→	매우 만족한다	④+⑤	계	평균
전체	**(800)**	**2.9**	**10.8**	**13.6**	**48.5**	**31.8**	**6.1**	**37.9**	**100.0**	**3.3**
성별										
남성	(415)	2.7	8.9	11.6	50.6	31.1	6.7	37.8	100.0	3.3
여성	(385)	3.1	12.7	15.8	46.2	32.5	5.5	37.9	100.0	3.2
연령대										
20-24세	(219)	2.3	8.7	11.0	52.1	30.6	6.4	37.0	100.0	3.3
25-29세	(186)	3.8	12.9	16.7	46.2	31.2	5.9	37.1	100.0	3.2
30-34세	(185)	3.2	10.8	14.1	47.6	31.9	6.5	38.4	100.0	3.3
35-39세	(210)	2.4	11.0	13.3	47.6	33.3	5.7	39.0	100.0	3.3
거주 지역										
장안구	(182)	2.2	15.9	18.1	47.8	25.8	8.2	34.1	100.0	3.2
권선구	(245)	2.9	7.8	10.6	52.7	32.7	4.1	36.7	100.0	3.3
팔달구	(126)	5.6	18.3	23.8	53.2	16.7	6.3	23.0	100.0	3.0
영통구	(247)	2.0	6.1	8.1	42.5	42.9	6.5	49.4	100.0	3.5
취업상태										
취업	(449)	2.0	10.7	12.7	47.9	33.9	5.6	39.4	100.0	3.3
미취업	(351)	4.0	10.8	14.8	49.3	29.1	6.8	35.9	100.0	3.2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3.6	9.5	13.0	50.9	29.0	7.1	36.1	100.0	3.3
대학교 재학	(231)	1.7	9.5	11.3	51.9	30.7	6.1	36.8	100.0	3.3
대학교 졸업 이상	(400)	3.3	12.0	15.3	45.5	33.5	5.8	39.3	100.0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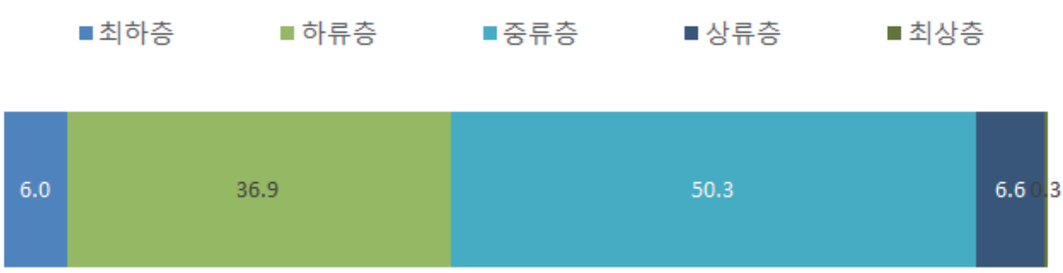
(2) 계층구분

가. 본인의 계층구분

○ 본인의 계층에 대한 평균은 2.6으로 중류층에 미치지 못함

- 응답자의 50.3%가 본인의 계층에 대해 ‘중류층’이라고 응답하였고, ‘최하층 / 하류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42.9%, ‘상류층/최상층’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6.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단위 :%)



<그림 4-69> 본인의 계층구분

○ 남녀 모두 평균 2.6으로 중류층에 미치지 못함

- 성별에 관계없이 ‘중류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남성 48.2%, 여성 52.5%)

○ 연령에 관계없이 모두 평균이 중류층에 미치지 못함

- 30~34세에서는 자신이 ‘최하층 / 하류층’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47.6%로 가장 많았음

○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모두 평균이 중류층에 미치지 못함

- 장안구에서는 ‘중류층’이라고 답한 경우와 ‘최하층 / 하류층’이라고 답한 경우가 45.6%로 동일하게 나타났고 권선구에서는 자신은 ‘최하층 / 하류층’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49.4%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평균이 중류층에 미치지 못함

- 취업자는 자신은 ‘최하층 / 하류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고, 미취업자는 58.7%가 자신의 계층을 ‘중류층’이라고 응답함

○ 학력에 관계없이 모두 평균이 중류층에 미치지 못함

-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응답자의 경우에는 자신의 계층을 ‘최하층 / 하류층’이라고 답한 경우가 53.8%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함

<표 4-76> 응답자 특성별 본인의 계층구분

(단위 : %, 점)

	사례수 (명)	최하층	←	①+②	중류층	→	최상층	④+⑤	계	평균
전체	**(800)**	**6.0**	**36.9**	**42.9**	**50.3**	**6.6**	**0.3**	**6.9**	**100.0**	**2.6**
성별										
남성	(415)	5.3	39.0	44.3	48.2	7.2	0.2	7.5	100.0	2.6
여성	(385)	6.8	34.5	41.3	52.5	6.0	0.3	6.2	100.0	2.6
연령대										
20-24세	(219)	5.5	27.9	33.3	60.3	5.9	0.5	6.4	100.0	2.7
25-29세	(186)	7.0	39.2	46.2	46.2	7.5		7.5	100.0	2.5
30-34세	(185)	7.6	40.0	47.6	45.9	5.9	0.5	6.5	100.0	2.5
35-39세	(210)	4.3	41.4	45.7	47.1	7.1		7.1	100.0	2.6
거주 지역										
장안구	(182)	3.8	41.8	45.6	45.6	8.8		8.8	100.0	2.6
권선구	(245)	6.1	43.3	49.4	45.7	4.5	0.4	4.9	100.0	2.5
팔달구	(126)	11.9	32.5	44.4	46.0	8.7	0.8	9.5	100.0	2.5
영통구	(247)	4.5	29.1	33.6	60.3	6.1		6.1	100.0	2.7
취업상태										
취업	(449)	5.6	43.0	48.6	43.7	7.6	0.2	7.8	100.0	2.5
미취업	(351)	6.6	29.1	35.6	58.7	5.4	0.3	5.7	100.0	2.6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12.4	41.4	53.8	43.2	3.0		3.0	100.0	2.4
대학교 재학	(231)	3.9	27.7	31.6	61.9	6.1	0.4	6.5	100.0	2.7
대학교 졸업 이상	(400)	4.5	40.3	44.8	46.5	8.5	0.3	8.8	100.0	2.6

나. 본인의 부모님 계층구분

○ 본인의 부모님의 계층에 대한 평균은 2.8로 중류층에 약간 미치지 못함

- 응답자의 57.1%가 본인의 부모님의 계층에 대해 ‘중류층’이라고 응답하였고 ‘최하층 / 하류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30.5%, ‘상류층/최상층’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12.4% 순인 것으로 나타남

(단위 :%)

<그림 4-70> 본인의 부모님의 계층구분

○ 남녀 모두 평균 2.8로 중류층에 약간 미치지 못함

- 성별에 관계없이 ‘중류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남성 55.4%, 여성 59.0%)

○ 연령에 관계없이 모두 평균이 중류층에 약간 미치지 못함

- 전 연령에서 ‘중류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모두 평균이 중류층에 약간 미치지 못함

- 전 지역에서 ‘중류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평균이 중류층에 미치지 못함

- ‘중류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취업자 53.5%, 미취업자 61.8%)

○ 학력에 관계없이 모두 평균이 중류층에 미치지 못함

- 전 학력에서 ‘중류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표 4-77> 응답자 특성별 본인의 부모님 계층구분

(단위 : %, 점)

	사례수 (명)	최하층	←	①+②	중류층	→	최상층	④+⑤	계	평균
전체	**(800)**	**4.3**	**26.3**	**30.5**	**57.1**	**11.5**	**0.9**	**12.4**	**100.0**	**2.8**
성별										
남성	(415)	5.3	25.8	31.1	55.4	12.8	0.7	13.5	100.0	2.8
여성	(385)	3.1	26.8	29.9	59.0	10.1	1.0	11.2	100.0	2.8
연령대										
20-24세	(219)	2.7	20.1	22.8	62.1	14.2	0.9	15.1	100.0	2.9
25-29세	(186)	3.8	23.7	27.4	58.6	12.9	1.1	14.0	100.0	2.8
30-34세	(185)	3.8	27.6	31.4	55.7	11.4	1.6	13.0	100.0	2.8
35-39세	(210)	6.7	33.8	40.5	51.9	7.6		7.6	100.0	2.6
거주 지역										
장안구	(182)	3.8	34.1	37.9	48.4	12.6	1.1	13.7	100.0	2.7
권선구	(245)	4.9	32.7	37.6	52.7	9.0	0.8	9.8	100.0	2.7
팔달구	(126)	4.8	23.0	27.8	54.0	16.7	1.6	18.3	100.0	2.9
영통구	(247)	3.6	15.8	19.4	69.6	10.5	0.4	10.9	100.0	2.9
취업상태										
취업	(449)	4.9	29.4	34.3	53.5	11.6	0.7	12.2	100.0	2.7
미취업	(351)	3.4	22.2	25.6	61.8	11.4	1.1	12.5	100.0	2.8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6.5	30.2	36.7	56.2	5.9	1.2	7.1	100.0	2.7
대학교 재학	(231)	0.9	19.5	20.3	64.1	13.9	1.7	15.6	100.0	3.0
대학교 졸업 이상	(400)	5.3	28.5	33.8	53.5	12.5	0.3	12.8	100.0	2.7

다. 배우자의 부모님

○ 배우자의 부모님의 계층에 대한 평균은 2.7로 중류층에 미치지 못함

- 기혼자 응답자만 보았을 때 배우자의 부모님이 '중류층'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17.5%로 가장 높았고, '최하층 / 하류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11.8%, '상류층/최상층'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3.4% 순인 것으로 나타남 (응답자의 67.4%가 '해당없음')

(단위 :%)

<그림 4-71> 배우자 부모님의 계층구분

○ 남녀 모두 평균 2.6~2.7로 중류층에 미치지 못함

- 성별에 관계없이 '중류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남성 14.7%, 여성 20.5%)

○ 20~24세의 경우 평균 3.0으로 보통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연령에서는 모두 평균이 중류층에 미치지 못함

- 전 연령에서 '중류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단, 20대의 경우에는 해당 없는 경우가 90%가 넘음)

○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모두 평균이 중류층에 미치지 못함

- 장안구, 팔달구, 영통구의 기혼 거주자는 배우자의 부모님이 '중류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권선구 거주자는 '최하층 / 하류층'이라고 답한 비율이 17.6%로 가장 높음

○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평균이 중류층에 미치지 못함

- '중류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취업자 20.0%, 미취업자 14.2%)

○ 학력에 관계없이 모두 평균이 중류층에 미치지 못함

- 전 학력에서 '중류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대학교 재학생의 95.7%는 해당 없음)

<표 4-78> 응답자 특성별 배우자 부모님의 계층구분

(단위 :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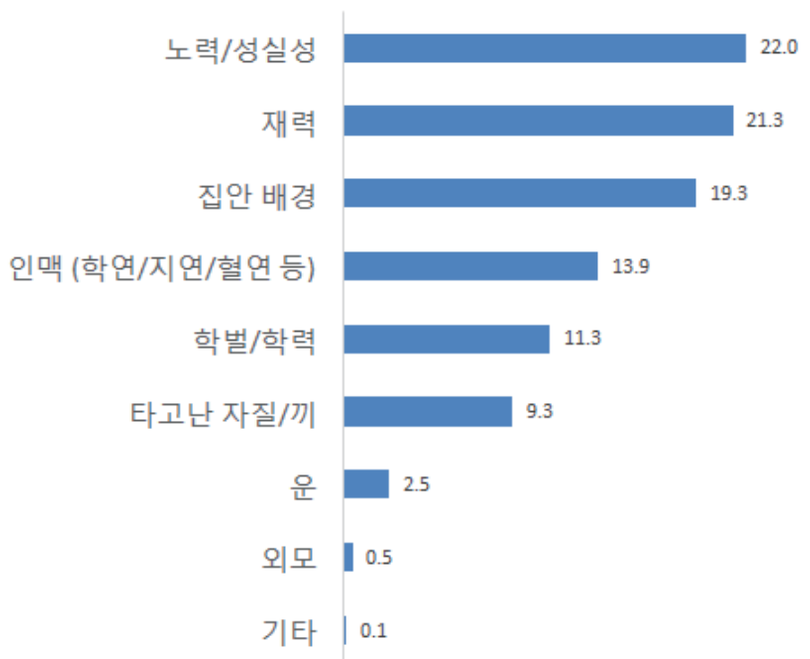
	사례수 (명)	최하층	←	①+②	중류층	→	최상층	④+⑤	해당없음	계	평균
전체	**(800)**	**2.1**	**9.6**	**11.8**	**17.5**	**2.9**	**0.5**	**3.4**	**67.4**	**100.0**	**2.7**
성별											
남성	(415)	1.9	9.9	11.8	14.7	2.2	0.5	2.7	70.8	100.0	2.6
여성	(385)	2.3	9.4	11.7	20.5	3.6	0.5	4.2	63.6	100.0	2.7
연령대											
20-24세	(219)				0.5				99.5	100.0	3.0
25-29세	(186)	0.5	2.7	3.2	3.8				93.0	100.0	2.5
30-34세	(185)	3.2	13.5	16.8	24.3	5.4	1.6	7.0	51.9	100.0	2.8
35-39세	(210)	4.8	22.4	27.1	41.4	6.2	0.5	6.7	24.8	100.0	2.7
거주 지역											
장안구	(182)	1.6	11.0	12.6	14.8	2.2		2.2	70.3	100.0	2.6
권선구	(245)	1.2	16.3	17.6	16.7	1.6	0.4	2.0	63.7	100.0	2.6
팔달구	(126)	4.8	3.2	7.9	11.1	4.0	1.6	5.6	75.4	100.0	2.8
영통구	(247)	2.0	5.3	7.3	23.5	4.0	0.4	4.5	64.8	100.0	2.9
취업상태											
취업	(449)	2.9	12.0	14.9	20.0	3.1	0.4	3.6	61.5	100.0	2.6
미취업	(351)	1.1	6.6	7.7	14.2	2.6	0.6	3.1	74.9	100.0	2.8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2.4	10.7	13.0	14.2	1.2	1.8	3.0	69.8	100.0	2.6
대학교 재학	(231)	1.3	1.3	2.6	0.9	0.9		0.9	95.7	100.0	2.3
대학교 졸업 이상	(400)	2.5	14.0	16.5	28.5	4.8	0.3	5.0	50.0	100.0	2.7

(3) 행복 및 성공한 삶

가. 성공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조건

○ 성공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는 ‘노력 / 성실성’이 22.0%로 가장 높았고, ‘재력’이 21.3%, ‘집안 배경’이 19.3%, ‘인맥(학연/지연/혈연 등)’이 13.9%, ‘학벌 / 학력’이 11.3%, ‘타고난 자질 / 끼’가 9.3%, ‘운’이 2.5%, ‘외모’가 0.5% 순으로 나타남

(단위 : %)



<그림 4-72> 성공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조건

○ 남성의 경우 ‘노력 / 성실성‘을 응답자의 25.3%가 가장 큰 이유로 꼽았고, 여성은 ‘재력’이 22.9%로 가장 높게 나타남

○ 20~24세, 그리고 30~34세는 ‘노력 /성실성’을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생각했고, 25~29세는 21.5%가 ‘집안 배경’을, 35~39세는 27.6%가 ‘재력’을 가장 많이 응답함

○ 장안구와 권선구에서는 ‘재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팔달구 거주자들은 19.0%가 ‘집안 배경’을, 영통구 거주자들은 25.5%가 ‘노력 / 성실성’이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고 응답함

○ 취업자는 ‘재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이 25.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미취업자는 ‘노력 / 성실성’이 24.8%로 가장 높음

○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응답자와 대학교 재학생은 ‘노력 / 성실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제일 높게 나타남. 대학교 졸업 이상 응답자의 경우에는 ‘재력’이 24.0%로 가장 높게 응답됨

<표 4-79> 응답자 특성별 성공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조건

(단위 : %)

	사례수 (명)	타고난 자질 / 끼	학벌 / 학력	집안 배경	재력	노력 / 성실성	인맥 (학연 / 지연 / 혈연 등)	외모	운	기타	계
전체	**(800)**	**9.3**	**11.3**	**19.3**	**21.3**	**22.0**	**13.9**	**0.5**	**2.5**	**0.1**	**100.0**
성별											
남성	(415)	10.1	10.4	17.6	19.8	25.3	12.5	0.7	3.4	0.2	100.0
여성	(385)	8.3	12.2	21.0	22.9	18.4	15.3	0.3	1.6		100.0
연령대											
20-24세	(219)	11.9	13.2	16.4	16.9	23.3	14.6	0.9	2.3	0.5	100.0
25-29세	(186)	8.1	11.8	21.5	19.9	18.8	15.6	0.5	3.8		100.0
30-34세	(185)	8.1	13.5	20.5	20.5	23.2	11.9	0.5	1.6		100.0
35-39세	(210)	8.6	6.7	19.0	27.6	22.4	13.3		2.4		100.0
거주 지역											
장안구	(182)	6.6	9.3	19.2	25.3	18.7	18.1	1.1	1.1	0.5	100.0
권선구	(245)	5.3	11.4	24.5	24.5	24.1	7.3	0.4	2.4		100.0
팔달구	(126)	15.1	16.7	19.0	10.3	15.9	19.0	0.8	3.2		100.0
영통구	(247)	12.1	9.7	14.2	20.6	25.5	14.6		3.2		100.0
취업상태											
취업	(449)	9.4	10.2	19.4	24.1	19.8	13.6	0.4	2.9	0.2	100.0
미취업	(351)	9.1	12.5	19.1	17.7	24.8	14.2	0.6	2.0		100.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5.3	11.8	16.6	19.5	26.6	16.0	1.2	3.0		100.0
대학교 재학	(231)	10.4	12.6	18.6	17.7	23.4	14.3	0.4	2.2	0.4	100.0
대학교 졸업 이상	(400)	10.3	10.3	20.8	24.0	19.3	12.8	0.3	2.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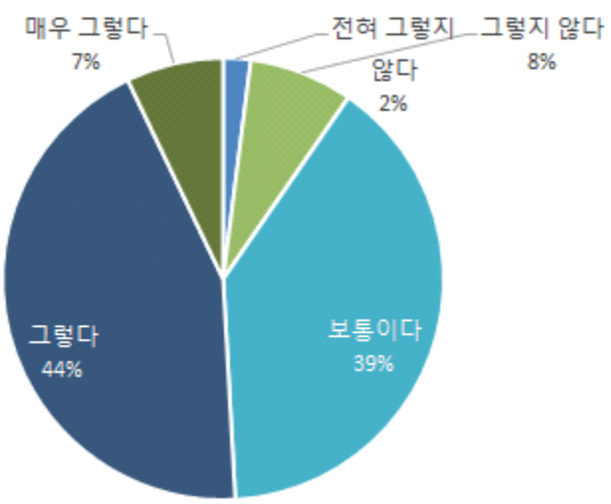
나. 의견

■ 본인의 장점

○ ‘나는 장점이 많은 사람이라 생각한다’에 대한 동의 여부에 대한 평균은 3.5로 보통을 넘는 것으로 나타남

- 긍정 응답률이 50.9%로 가장 높음

(단위 :%)



<그림 4-73> 본인의 장점

○ 남녀 모두 평균이 보통을 넘는 것으로 나타남 (남성 긍정 응답률 50.6%, 여성 긍정 응답률 51.2%)

○ 연령에 관계없이 모두 평균이 보통을 넘는 것으로 나타남

- 35~39세를 제외하고 모두 긍정 응답률이 5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남

○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모두 평균이 보통을 넘는 것으로 나타남

-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거주자는 긍정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남. 장안구 거주자의 경우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51.1%로 가장 높음

○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평균이 보통을 넘는 것으로 나타남 (취업자 긍정 응답률 51.2%, 미취업자 긍정 응답률 50.4%)

○ 학력에 관계없이 모두 평균이 보통을 넘는 것으로 나타남

-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응답자를 제외하고 모두 긍정 응답률이 5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80> 응답자 특성별 본인의 장점

(단위 :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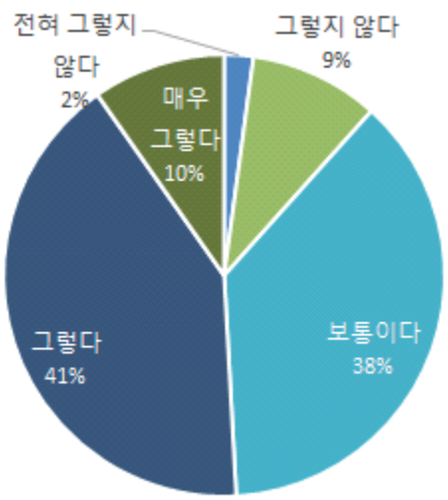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	①+②	보통이다	→	매우 그렇다	④+⑤	계	평균
전체	**(800)**	**2.0**	**7.6**	**9.6**	**39.5**	**43.8**	**7.1**	**50.9**	**100.0**	**3.5**
성별										
남성	(415)	1.7	7.7	9.4	40.0	43.1	7.5	50.6	100.0	3.5
여성	(385)	2.3	7.5	9.9	39.0	44.4	6.8	51.2	100.0	3.5
연령대										
20-24세	(219)	1.4	7.3	8.7	40.6	42.9	7.8	50.7	100.0	3.5
25-29세	(186)	3.8	10.8	14.5	33.9	43.0	8.6	51.6	100.0	3.4
30-34세	(185)	2.7	6.5	9.2	38.9	46.5	5.4	51.9	100.0	3.5
35-39세	(210)	0.5	6.2	6.7	43.8	42.9	6.7	49.5	100.0	3.5
거주 지역										
장안구	(182)	2.2	10.4	12.6	51.1	26.9	9.3	36.3	100.0	3.3
권선구	(245)	1.2	5.3	6.5	44.9	41.2	7.3	48.6	100.0	3.5
팔달구	(126)	1.6	10.3	11.9	41.3	38.1	8.7	46.8	100.0	3.4
영통구	(247)	2.8	6.5	9.3	24.7	61.5	4.5	66.0	100.0	3.6
취업상태										
취업	(449)	1.8	6.9	8.7	40.1	44.8	6.5	51.2	100.0	3.5
미취업	(351)	2.3	8.5	10.8	38.7	42.5	8.0	50.4	100.0	3.5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2.4	10.7	13.0	42.6	37.9	6.5	44.4	100.0	3.4
대학교 재학	(231)	1.3	6.5	7.8	38.1	44.6	9.5	54.1	100.0	3.5
대학교 졸업 이상	(400)	2.3	7.0	9.3	39.0	45.8	6.0	51.8	100.0	3.5

■ 본인의 성공 가능성

○ ‘나는 성공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에 대한 동의 여부에 대한 평균은 3.5로 보통을 넘는 것으로 나타남

- 긍정 응답률이 50.9%로 가장 높음

(단위 :%)



<그림 4-74> 본인의 성공 가능성

○ 남녀 모두 평균이 보통을 넘는 것으로 나타남 (남성 긍정 응답률 54.5%, 여성 긍정 응답률 47.0%)

○ 연령에 관계없이 모두 평균이 보통을 넘는 것으로 나타남

- 35~39세를 제외하고 모두 긍정 응답률이 5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남

○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모두 평균이 보통을 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권선구과 영통구 거주자의 긍정 응답률은 50%가 넘음

○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평균이 보통을 넘는 것으로 나타남 (취업자 긍정 응답률 52.6%, 미취업자 긍정 응답률 48.7%)

○ 학력에 관계없이 모두 평균이 보통을 넘는 것으로 나타남

-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응답자를 제외하고 모두 긍정 응답률이 5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81> 응답자 특성별 본인의 성공 가능성

(단위 :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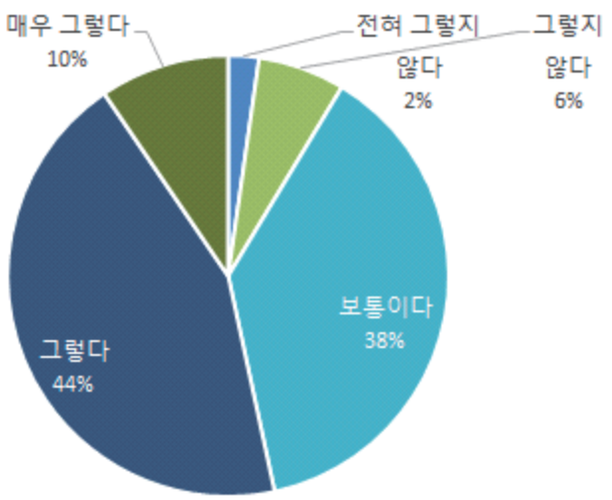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	①+②	보통이다	→	매우 그렇다	④+⑤	계	평균
전체	**(800)**	**2.1**	**9.5**	**11.6**	**37.5**	**41.1**	**9.8**	**50.9**	**100.0**	**3.5**
성별										
남성	(415)	1.7	9.6	11.3	34.2	44.8	9.6	54.5	100.0	3.5
여성	(385)	2.6	9.4	11.9	41.0	37.1	9.9	47.0	100.0	3.4
연령대										
20-24세	(219)	1.4	9.6	11.0	35.6	39.3	14.2	53.4	100.0	3.6
25-29세	(186)	4.3	8.6	12.9	36.6	41.4	9.1	50.5	100.0	3.4
30-34세	(185)	2.2	8.1	10.3	38.4	42.2	9.2	51.4	100.0	3.5
35-39세	(210)	1.0	11.4	12.4	39.5	41.9	6.2	48.1	100.0	3.4
거주 지역										
장안구	(182)	2.2	11.5	13.7	42.9	29.7	13.7	43.4	100.0	3.4
권선구	(245)	1.2	6.9	8.2	40.0	41.2	10.6	51.8	100.0	3.5
팔달구	(126)	2.4	15.9	18.3	37.3	31.7	12.7	44.4	100.0	3.4
영통구	(247)	2.8	7.3	10.1	31.2	54.3	4.5	58.7	100.0	3.5
취업상태										
취업	(449)	1.8	8.7	10.5	37.0	43.9	8.7	52.6	100.0	3.5
미취업	(351)	2.6	10.5	13.1	38.2	37.6	11.1	48.7	100.0	3.4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2.4	11.2	13.6	39.6	34.9	11.8	46.7	100.0	3.4
대학교 재학	(231)	1.3	7.8	9.1	36.8	42.9	11.3	54.1	100.0	3.5
대학교 졸업 이상	(400)	2.5	9.8	12.3	37.0	42.8	8.0	50.8	100.0	3.4

■ 본인에 대한 긍정적 평가

○ ‘나는 나 자신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에 대한 동의 여부에 대한 평균은 3.5로 보통을 넘는 것으로 나타남

- 긍정 응답률이 53.4%로 가장 높음

(단위 :%)



<그림 4-75> 본인에 대한 긍정적 평가

○ 남녀 모두 평균이 보통을 넘는 것으로 나타남 (남성 긍정 응답률 50.1%, 여성 긍정 응답률 56.9%)

○ 연령에 관계없이 모두 평균이 보통을 넘는 것으로 나타남

○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모두 평균이 보통을 넘는 것으로 나타남

- 팔달구 거주자를 제외하고 모두 긍정 응답률이 5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남

○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평균이 보통을 넘는 것으로 나타남 (취업자 긍정 응답률 53.7%, 미취업자 긍정 응답률 53.0%)

○ 학력에 관계없이 모두 평균이 보통을 넘는 것으로 나타남

-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응답자를 제외하고 모두 긍정 응답률이 5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82> 응답자 특성별 본인에 대한 긍정적 평가

(단위 :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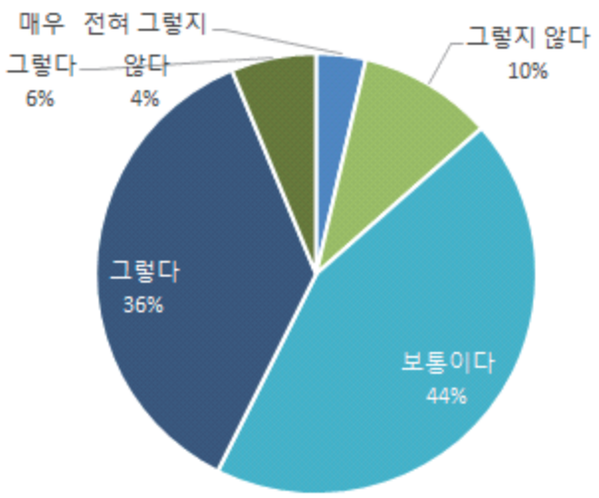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	①+②	보통이다	→	매우 그렇다	④+⑤	계	평균
전체	**(800)**	**2.3**	**6.4**	**8.6**	**38.0**	**43.9**	**9.5**	**53.4**	**100.0**	**3.5**
성별										
남성	(415)	1.4	6.3	7.7	42.2	42.4	7.7	50.1	100.0	3.5
여성	(385)	3.1	6.5	9.6	33.5	45.5	11.4	56.9	100.0	3.6
연령대										
20-24세	(219)	1.8	7.3	9.1	37.4	42.5	11.0	53.4	100.0	3.5
25-29세	(186)	3.2	8.6	11.8	34.9	41.4	11.8	53.2	100.0	3.5
30-34세	(185)	2.7	4.3	7.0	36.8	48.6	7.6	56.2	100.0	3.5
35-39세	(210)	1.4	5.2	6.7	42.4	43.3	7.6	51.0	100.0	3.5
거주 지역										
장안구	(182)	3.3	11.0	14.3	35.7	36.8	13.2	50.0	100.0	3.5
권선구	(245)	0.8	3.7	4.5	37.6	47.8	10.2	58.0	100.0	3.6
팔달구	(126)	2.4	8.7	11.1	44.4	34.1	10.3	44.4	100.0	3.4
영통구	(247)	2.8	4.5	7.3	36.8	50.2	5.7	55.9	100.0	3.5
취업상태										
취업	(449)	1.8	6.0	7.8	38.5	44.8	8.9	53.7	100.0	3.5
미취업	(351)	2.8	6.8	9.7	37.3	42.7	10.3	53.0	100.0	3.5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3.0	5.9	8.9	42.0	36.1	13.0	49.1	100.0	3.5
대학교 재학	(231)	1.7	6.5	8.2	38.1	44.2	9.5	53.7	100.0	3.5
대학교 졸업 이상	(400)	2.3	6.5	8.8	36.3	47.0	8.0	55.0	100.0	3.5

■ 본인의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 ‘나의 삶에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다’에 대한 동의 여부에 대한 평균은 3.3으로 보통을 넘는 것으로 나타남

-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3.9%로 가장 높음

(단위 :%)



<그림 4-76> 본인의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 남녀 모두 평균이 보통을 넘는 것으로 나타남

- 남성의 47.0%는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반면 여성은 46.0%가 긍정적으로 답하여 여성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더 높음을 알 수 있음

○ 연령에 관계없이 모두 평균이 보통을 넘는 것으로 나타남

- 20대, 그리고 35~39세에서는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30~34세는 긍정 응답률이 47.6%로 가장 높음

○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모두 평균이 보통을 넘는 것으로 나타남

- 장안구, 팔달구 거주자 중 ‘보통이다’라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권선구와 영통구 거주자는 긍정적으로 답한 경우가 가장 많아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더 높음을 알 수 있음

○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평균이 보통을 넘는 것으로 나타남

- 취업자의 긍정 응답률은 45.2%로 나타고, 미취업자는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4.4%로 가장 높음

○ 학력에 관계없이 모두 평균이 보통을 넘는 것으로 나타남

-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응답자와 대학교 재학생은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대학교 졸업 이상 응답자는 긍정 응답률이 45.0%로 가장 높음

<표 4-83> 응답자 특성별 본인의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단위 : %, 점)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	①+②	보통이다	→	매우 그렇다	④+⑤	계	평균
전체	**(800)**	**3.6**	**9.9**	**13.5**	**43.9**	**36.4**	**6.3**	**42.6**	**100.0**	**3.3**
성별										
남성	(415)	3.1	10.4	13.5	47.0	34.0	5.5	39.5	100.0	3.3
여성	(385)	4.2	9.4	13.5	40.5	39.0	7.0	46.0	100.0	3.4
연령대										
20-24세	(219)	5.0	10.0	15.1	43.8	34.2	6.8	41.1	100.0	3.3
25-29세	(186)	4.3	12.9	17.2	41.9	33.3	7.5	40.9	100.0	3.3
30-34세	(185)	2.7	9.2	11.9	40.5	40.0	7.6	47.6	100.0	3.4
35-39세	(210)	2.4	7.6	10.0	48.6	38.1	3.3	41.4	100.0	3.3
거주 지역										
장안구	(182)	4.9	12.6	17.6	49.5	24.2	8.8	33.0	100.0	3.2
권선구	(245)	2.4	9.4	11.8	42.0	38.8	7.3	46.1	100.0	3.4
팔달구	(126)	5.6	11.9	17.5	43.7	32.5	6.3	38.9	100.0	3.2
영통구	(247)	2.8	7.3	10.1	41.7	44.9	3.2	48.2	100.0	3.4
취업상태										
취업	(449)	2.2	9.1	11.4	43.4	39.0	6.2	45.2	100.0	3.4
미취업	(351)	5.4	10.8	16.2	44.4	33.0	6.3	39.3	100.0	3.2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3.6	7.7	11.2	48.5	32.0	8.3	40.2	100.0	3.3
대학교 재학	(231)	4.3	12.1	16.5	43.3	33.8	6.5	40.3	100.0	3.3
대학교 졸업 이상	(400)	3.3	9.5	12.8	42.3	39.8	5.3	45.0	100.0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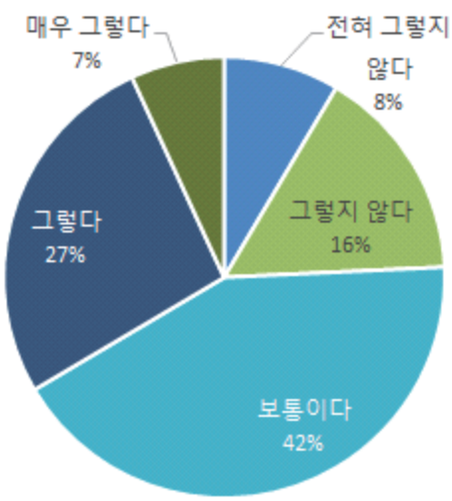
(4) 성인기 이행

가. 본인이 성인이라는 느낌

○ ‘내가 성인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에 대한 평균은 3.1로 보통을 약간 넘는 것으로 나타남

-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2.3%로 가장 높음

(단위 :%)



<그림 4-77> 본인이 성인이라는 느낌

○ 남녀 모두 평균이 보통을 약간 넘는 것으로 나타남

- 성별에 관계없이 남녀 모두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남성 42.4%, 여성 42.1%)

○ 20대의 평균은 보통을 넘고 30대의 평균은 보통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24세, 30대에서는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25~29세는 긍정적으로 답한 비율이 41.9%로 가장 높음

○ 장안구 거주자는 평균 2.9로 보통에 약간 미치지 못하였고, 영통구는 평균 3.0으로 보통, 그 외 지역 거주자는 모두 평균이 보통을 약간 넘는 것으로 나타남

-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거주자들은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영통구 거주자들은 긍정적으로 응답한 경우가 36.0%로 가장 많았음

○ 취업자는 평균 3.0으로 보통, 미취업자는 평균 3.1로 보통을 약간 넘는 것으로 나타남

-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보통이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취업자 42.5%, 미취업자 41.9%)

○ 대학교 졸업 이상 응답자의 경우는 평균 3.0으로 보통이고, 나머지는 모두 평균이 보통을 약간 넘는 것으로 나타남

- 전 학력에서 '보통이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표 4-84> 응답자 특성별 본인이 성인이라는 느낌

(단위 : %, 점)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	①+②	보통이다	→	매우 그렇다	④+⑤	계	평균
전체	**(800)**	**8.5**	**15.8**	**24.3**	**42.3**	**26.6**	**6.9**	**33.5**	**100.0**	**3.1**
성별										
남성	(415)	8.7	16.4	25.1	42.4	25.5	7.0	32.5	100.0	3.1
여성	(385)	8.3	15.1	23.4	42.1	27.8	6.8	34.5	100.0	3.1
연령대										
20-24세	(219)	3.7	14.6	18.3	41.6	31.1	9.1	40.2	100.0	3.3
25-29세	(186)	6.5	12.9	19.4	38.7	35.5	6.5	41.9	100.0	3.2
30-34세	(185)	11.9	16.8	28.6	45.4	18.4	7.6	25.9	100.0	2.9
35-39세	(210)	12.4	18.6	31.0	43.3	21.4	4.3	25.7	100.0	2.9
거주 지역										
장안구	(182)	9.3	18.1	27.5	47.8	19.8	4.9	24.7	100.0	2.9
권선구	(245)	5.3	13.5	18.8	44.1	27.8	9.4	37.1	100.0	3.2
팔달구	(126)	6.3	15.9	22.2	43.7	23.8	10.3	34.1	100.0	3.2
영통구	(247)	12.1	16.2	28.3	35.6	32.0	4.0	36.0	100.0	3.0
취업상태										
취업	(449)	8.9	17.4	26.3	42.5	24.3	6.9	31.2	100.0	3.0
미취업	(351)	8.0	13.7	21.7	41.9	29.6	6.8	36.5	100.0	3.1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8.3	11.8	20.1	45.6	24.9	9.5	34.3	100.0	3.2
대학교 재학	(231)	4.8	13.9	18.6	43.7	30.7	6.9	37.7	100.0	3.2
대학교 졸업 이상	(400)	10.8	18.5	29.3	40.0	25.0	5.8	30.8	100.0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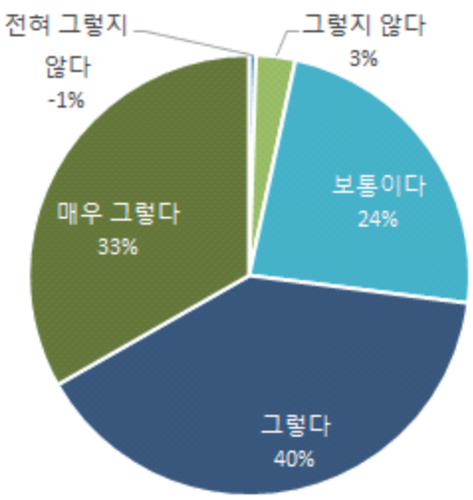
나. 성인 자격에 대한 인식

■ 생활비 / 용돈 마련 능력에 따른 성인 판별

○ 성인은 '자신의 생활비나 용돈을 스스로 벌어야 한다' 에 대한 동의 여부에 대한 평균은 4.0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 긍정 응답률이 73.0%로 가장 높음

(단위 :%)



<그림 4-78> 생활비 / 용돈 마련 능력에 따른 성인 판별

○ 남녀 모두 평균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 성별에 관계없이 남녀 모두 긍정 응답률이 가장 높음 (남성 68.4%, 여성 77.9%)

○ 20~24세의 평균은 3.8,나머지 연령대의 평균은 모두 4.1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 연령대에 관계없이 긍정 응답률이 가장 높음

○ 장안구 거주자는 평균 3.9, 그 외 지역 거주자는 모두 평균이 4.0~4.1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긍정 응답률이 가장 높음

○ 취업자는 평균 4.1, 미취업자는 평균 3.9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긍정 응답률이 가장 높음 (취업자 78.0%, 미취업자 66.7%)

○ 대학교 재학생의 경우는 평균 3.8, 나머지는 모두 4.0 이상의 평균을 가짐으로써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 학력에 관계없이 긍정 응답률이 가장 높음

<표 4-85> 응답자 특성별 생활비 / 용돈 마련 능력에 따른 성인 판별

(단위 :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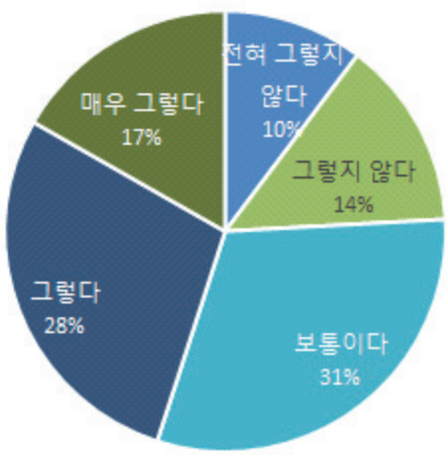
	사례수 (명)	전혀 필요없다	←	①+②	보통이다	→	매우 필요하다	④+⑤	계	평균
전체	**(800)**	**0.5**	**2.9**	**3.4**	**23.6**	**39.8**	**33.3**	**73.0**	**100.0**	**4.0**
성별										
남성	(415)	0.7	2.9	3.6	28.0	35.7	32.8	68.4	100.0	4.0
여성	(385)	0.3	2.9	3.1	19.0	44.2	33.8	77.9	100.0	4.1
연령대										
20-24세	(219)	0.5	6.4	6.8	27.9	39.3	26.0	65.3	100.0	3.8
25-29세	(186)	0.5	1.6	2.2	22.0	40.3	35.5	75.8	100.0	4.1
30-34세	(185)	0.5	1.1	1.6	21.6	40.0	36.8	76.8	100.0	4.1
35-39세	(210)	0.5	1.9	2.4	22.4	39.5	35.7	75.2	100.0	4.1
거주 지역										
장안구	(182)	0.5	3.8	4.4	27.5	38.5	29.7	68.1	100.0	3.9
권선구	(245)		2.9	2.9	26.5	37.1	33.5	70.6	100.0	4.0
팔달구	(126)	0.8	3.2	4.0	28.6	29.4	38.1	67.5	100.0	4.0
영통구	(247)	0.8	2.0	2.8	15.4	48.6	33.2	81.8	100.0	4.1
취업상태										
취업	(449)	0.2	1.1	1.3	20.7	41.4	36.5	78.0	100.0	4.1
미취업	(351)	0.9	5.1	6.0	27.4	37.6	29.1	66.7	100.0	3.9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1.8	1.8	26.6	40.2	31.4	71.6	100.0	4.0
대학교 재학	(231)	0.9	6.9	7.8	26.8	38.1	27.3	65.4	100.0	3.8
대학교 졸업 이상	(400)	0.5	1.0	1.5	20.5	40.5	37.5	78.0	100.0	4.1

■ 결혼 / 가정 보유 여부에 따른 성인 판별

○ 성인은 '결혼하여 가정을 꾸려야 한다'에 대한 동의 여부에 대한 평균은 3.3으로 보통을 넘는 것으로 나타남

- 긍정 응답률이 45.0%로 가장 높음

(단위 : %)



<그림 4-79> 결혼 / 가정 보유 여부에 따른 성인 판별

○ 남녀 모두 평균이 보통을 넘는 것으로 나타남

- 성별에 관계없이 남녀 모두 긍정 응답률이 가장 높은데 남성이 52.8%로 여성의 36.6%보다 1.5배 정도 높게 나타남

○ 20~24세의 평균은 2.9로 보통에 약간 미치지 못하였고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보통 이상의 평균을 가짐

- 연령대에 관계없이 긍정 응답률이 가장 높았는데 특히 35~39세의 긍정 응답률이 52.4%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팔달구 거주자의 평균은 3.0으로 보통으로 나타났고, 그 외 지역 거주자는 모두 보통 이상의 평균을 가짐

-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긍정 응답률이 가장 높음

○ 취업자는 평균 3.4로 보통이 넘고, 미취업자는 평균 3.0으로 보통인 것으로 나타남

-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긍정 응답률이 가장 높음 (취업자 50.3%, 미취업자 38.2%)

○ 학력에 관계없이 모두 평균이 보통을 넘는 것으로 나타남

- 학력에 관계없이 긍정 응답률이 가장 높음

<표 4-86> 결혼 / 가정 보유 여부에 따른 성인 판별

(단위 :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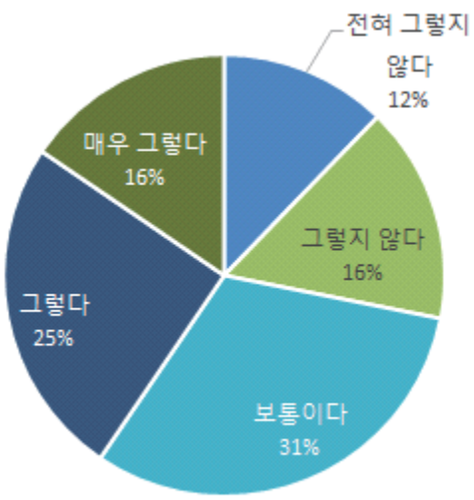
	사례수 (명)	전혀 필요없다	←	①+②	보통이다	→	매우 필요하다	④+⑤	계	평균
전체	**(800)**	**10.3**	**13.9**	**24.1**	**30.9**	**28.3**	**16.8**	**45.0**	**100.0**	**3.3**
성별										
남성	(415)	5.5	11.1	16.6	30.6	30.8	21.9	52.8	100.0	3.5
여성	(385)	15.3	16.9	32.2	31.2	25.5	11.2	36.6	100.0	3.0
연령대										
20-24세	(219)	14.6	18.7	33.3	31.1	28.8	6.8	35.6	100.0	2.9
25-29세	(186)	10.8	16.1	26.9	27.4	26.9	18.8	45.7	100.0	3.3
30-34세	(185)	7.0	11.4	18.4	34.6	24.9	22.2	47.0	100.0	3.4
35-39세	(210)	8.1	9.0	17.1	30.5	31.9	20.5	52.4	100.0	3.5
거주 지역										
장안구	(182)	9.9	18.1	28.0	34.1	28.0	9.9	37.9	100.0	3.1
권선구	(245)	9.8	12.7	22.4	35.5	21.6	20.4	42.0	100.0	3.3
팔달구	(126)	19.0	15.9	34.9	31.0	15.9	18.3	34.1	100.0	3.0
영통구	(247)	6.5	10.9	17.4	23.9	41.3	17.4	58.7	100.0	3.5
취업상태										
취업	(449)	8.2	10.7	18.9	30.7	28.5	21.8	50.3	100.0	3.4
미취업	(351)	12.8	17.9	30.8	31.1	27.9	10.3	38.2	100.0	3.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11.8	12.4	24.3	29.0	29.0	17.8	46.7	100.0	3.3
대학교 재학	(231)	12.1	16.9	29.0	31.2	30.3	9.5	39.8	100.0	3.1
대학교 졸업 이상	(400)	8.5	12.8	21.3	31.5	26.8	20.5	47.3	100.0	3.4

■ 자녀 유무에 따른 성인 판별

○ 성인은 '자녀를 낳아 부모가 되어야 한다'에 대한 동의 여부에 대한 평균은 3.2로 보통을 약간 넘는 것으로 나타남

- 긍정 응답률이 40.5%로 가장 높음

(단위 :%)



<그림 4-80> 자녀 유무에 따른 성인 판별

○ 남자의 평균은 3.4로 보통을 넘었으나 여성의 평균은 2.9로 보통에 약간 미치지 못함

- 성별에 관계없이 남녀 모두 긍정 응답률이 가장 높음 (남성 44.3%, 여성 36.4%)

○ 20~24세의 평균은 2.8로 보통에 약간 미치지 못하였고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보통 이상의 평균을 가짐

- 20~24세는 부정 응답률이 37.4%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 외 연령대에서는 모두 긍정 응답률이 가장 높음

○ 장안구와 팔달구 거주자의 평균은 2.9로 보통에 약간 미치지 못하였고, 권선구와 영통구 거주자의 평균은 모두 보통을 넘는 것으로 나타남

- 팔달구 거주자들은 부정적으로 응답한 경우가 40.5%로 가장 많았고, 장안구 거주자들은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권선구와 영통구 거주자들은 긍정 응답률이 각각 39.2%, 51.4%로 가장 높음.

○ 취업자는 평균 3.3로 보통이 넘고, 미취업자는 평균 2.9로 보통에 약간 미치지 못함

- 취업자의 경우에는 긍정 응답률이 51.7%로 가장 높고 미취업자들은 부정적으로 응답한 경우 35.6%로 가장 비율이 높아 극명한 차이를 보임

○ 대학교 재학생은 평균 2.9로 보통에 약간 미치지 못했고,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응답자와 대학교 졸업 이상 응답자는 모두 보통 이상의 평균을 가짐

-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응답자와 대학교 졸업 이상 응답자는 긍정 응답률이 가장 높은 반면 대학교 재학생은 부정 응답률이 34.6%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4-87> 응답자 특성별 자녀 유무에 따른 성인 판별

(단위 :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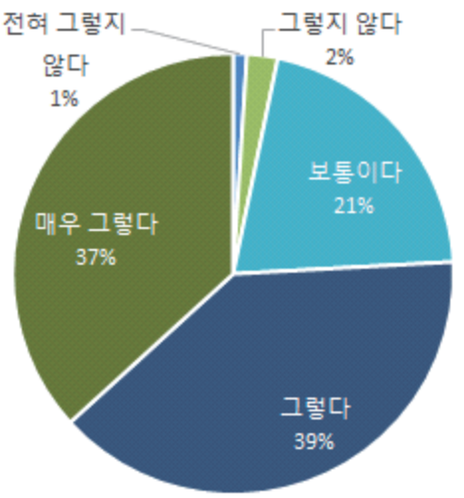
	사례수 (명)	전혀 필요없다	←	①+②	보통이다	→	매우 필요하다	④+⑤	계	평균
전체	**(800)**	**12.3**	**15.9**	**28.1**	**31.4**	**25.0**	**15.5**	**40.5**	**100.0**	**3.2**
성별										
남성	(415)	7.0	14.0	21.0	34.7	24.8	19.5	44.3	100.0	3.4
여성	(385)	17.9	17.9	35.8	27.8	25.2	11.2	36.4	100.0	2.9
연령대										
20-24세	(219)	16.9	20.5	37.4	31.1	25.1	6.4	31.5	100.0	2.8
25-29세	(186)	14.0	19.4	33.3	26.3	22.6	17.7	40.3	100.0	3.1
30-34세	(185)	8.6	13.0	21.6	32.4	23.2	22.7	45.9	100.0	3.4
35-39세	(210)	9.0	10.5	19.5	35.2	28.6	16.7	45.2	100.0	3.3
거주 지역										
장안구	(182)	13.2	20.9	34.1	34.6	22.0	9.3	31.3	100.0	2.9
권선구	(245)	9.8	14.7	24.5	36.3	22.0	17.1	39.2	100.0	3.2
팔달구	(126)	21.4	19.0	40.5	24.6	19.0	15.9	34.9	100.0	2.9
영통구	(247)	9.3	11.7	21.1	27.5	33.2	18.2	51.4	100.0	3.4
취업상태										
취업	(449)	10.0	12.2	22.3	31.2	26.7	19.8	46.5	100.0	3.3
미취업	(351)	15.1	20.5	35.6	31.6	22.8	10.0	32.8	100.0	2.9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13.6	12.4	26.0	29.0	30.2	14.8	45.0	100.0	3.2
대학교 재학	(231)	15.2	19.5	34.6	33.8	22.5	9.1	31.6	100.0	2.9
대학교 졸업 이상	(400)	10.0	15.3	25.3	31.0	24.3	19.5	43.8	100.0	3.3

■ 자기문제 해결 능력에 따른 성인 판별

○ 성인은 ‘자기문제를 스스로 결정 및 판단해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에 대한 동의 여부에 대한 평균은 4.1로 긍정적으로 나타남

- 긍정 응답률이 75.9%로 가장 높음

(단위 :%)



<그림 4-81> 자기문제 해결 능력에 따른 성인 판별

○ 남녀 평균 모두 4.0 이상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남

- 성별에 관계없이 남녀 모두 긍정 응답률이 가장 높음 (남성 73.0%, 여성 79.0%)

○ 연령에 관계없이 모두 평균 4.0 이상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남

- 전 연령에서 긍정 응답률이 가장 높음

○ 거주 지역별에 관계없이 모두 평균 4.0 이상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남

- 전 지역에서 긍정 응답률이 가장 높음

○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평균 4.0 이상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남

- 긍정 응답률이 가장 높음 (취업자 78.0%, 미취업자 73.2%)

○ 대학교 재학생은 평균 3.9로 나타났고,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응답자와 대학교 졸업 이상 응답자는 모두 4.0 이상의 평균을 가짐

- 전 학력에서 긍정 응답률이 가장 높음

<표 4-88> 응답자 특성별 자기문제 해결 능력에 따른 성인 판별

(단위 :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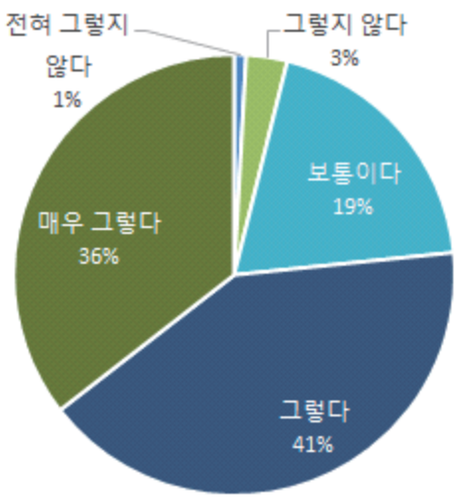
	사례수 (명)	전혀 필요없다	←	①+②	보통이다	→	매우 필요하다	④+⑤	계	평균
전체	**(800)**	**1.0**	**2.3**	**3.3**	**20.9**	**39.1**	**36.8**	**75.9**	**100.0**	**4.1**
성별										
남성	(415)	0.7	3.4	4.1	22.9	37.1	35.9	73.0	100.0	4.0
여성	(385)	1.3	1.0	2.3	18.7	41.3	37.7	79.0	100.0	4.1
연령대										
20-24세	(219)	0.5	3.7	4.1	24.7	41.1	30.1	71.2	100.0	4.0
25-29세	(186)	0.5	3.8	4.3	22.0	31.7	41.9	73.7	100.0	4.1
30-34세	(185)	1.1	1.1	2.2	16.2	44.3	37.3	81.6	100.0	4.2
35-39세	(210)	1.9	0.5	2.4	20.0	39.0	38.6	77.6	100.0	4.1
거주 지역										
장안구	(182)	1.1	3.8	4.9	19.8	42.3	33.0	75.3	100.0	4.0
권선구	(245)	0.8	1.6	2.4	21.2	38.8	37.6	76.3	100.0	4.1
팔달구	(126)	1.6	1.6	3.2	20.6	29.4	46.8	76.2	100.0	4.2
영통구	(247)	0.8	2.0	2.8	21.5	42.1	33.6	75.7	100.0	4.1
취업상태										
취업	(449)	0.9	1.3	2.2	19.8	41.4	36.5	78.0	100.0	4.1
미취업	(351)	1.1	3.4	4.6	22.2	36.2	37.0	73.2	100.0	4.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2.4	0.6	3.0	23.7	43.2	30.2	73.4	100.0	4.0
대학교 재학	(231)	1.3	4.8	6.1	26.0	37.2	30.7	68.0	100.0	3.9
대학교 졸업 이상	(400)	0.3	1.5	1.8	16.8	38.5	43.0	81.5	100.0	4.2

■ 자기 감정 조절 능력에 따른 성인 판별

○ 성인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에 대한 동의 여부에 대한 평균은 4.1로 긍정적으로 나타남

- 긍정 응답률이 76.6%로 가장 높음

(단위 :%)



<그림 4-82> 자기문제 해결 능력에 따른 성인 판별

○ 남녀 평균 모두 4.0 이상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남

- 성별에 관계없이 남녀 모두 긍정 응답률이 가장 높음 (남성 73.3%, 여성 80.3%)

○ 20~24세의 평균은 3.9로 나타났고 다른 연령대는 모두 4.0 이상의 평균을 가짐

- 전 연령에서 긍정 응답률이 가장 높음

○ 거주 지역별에 관계없이 모두 평균 4.0 이상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남

- 전 지역에서 긍정 응답률이 가장 높음

○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평균 4.0 이상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남

- 긍정 응답률이 가장 높음 (취업자 77.7%, 미취업자 75.2%)

○ 대학교 재학생은 평균 3.9로 나타났고,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응답자와 대학교 졸업 이상 응답자는 모두 4.0 이상의 평균을 가짐

- 전 학력에서 긍정 응답률이 가장 높음

<표 4-89> 응답자 특성별 자기문제 해결 능력에 따른 성인 판별

(단위 :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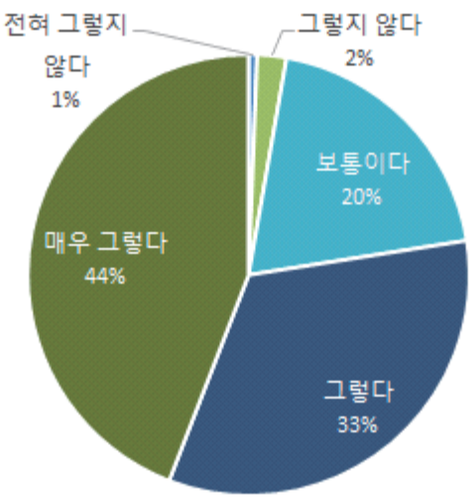
	사례수 (명)	전혀 필요없다	←	①+②	보통이다	→	매우 필요하다	④+⑤	계	평균
전체	**(800)**	**0.9**	**3.0**	**3.9**	**19.5**	**41.1**	**35.5**	**76.6**	**100.0**	**4.1**
성별										
남성	(415)	0.5	4.1	4.6	22.2	37.1	36.1	73.3	100.0	4.0
여성	(385)	1.3	1.8	3.1	16.6	45.5	34.8	80.3	100.0	4.1
연령대										
20-24세	(219)	0.5	5.9	6.4	23.7	40.6	29.2	69.9	100.0	3.9
25-29세	(186)	0.5	1.1	1.6	19.4	38.2	40.9	79.0	100.0	4.2
30-34세	(185)	0.5	3.2	3.8	15.7	47.6	33.0	80.5	100.0	4.1
35-39세	(210)	1.9	1.4	3.3	18.6	38.6	39.5	78.1	100.0	4.1
거주 지역										
장안구	(182)	1.1	5.5	6.6	15.9	39.6	37.9	77.5	100.0	4.1
권선구	(245)	0.4	1.6	2.0	20.4	42.0	35.5	77.6	100.0	4.1
팔달구	(126)	2.4	1.6	4.0	23.8	31.7	40.5	72.2	100.0	4.1
영통구	(247)	0.4	3.2	3.6	19.0	46.2	31.2	77.3	100.0	4.0
취업상태										
취업	(449)	1.1	2.0	3.1	19.2	40.8	37.0	77.7	100.0	4.1
미취업	(351)	0.6	4.3	4.8	19.9	41.6	33.6	75.2	100.0	4.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3.0	1.8	4.7	21.9	42.0	31.4	73.4	100.0	4.0
대학교 재학	(231)	0.4	5.6	6.1	24.2	38.5	31.2	69.7	100.0	3.9
대학교 졸업 이상	(400)	0.3	2.0	2.3	15.8	42.3	39.8	82.0	100.0	4.2

■ 본인의 행동에 대한 책임에 따른 성인 판별

○ 성인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에 대한 동의 여부에 대한 평균은 4.2로 긍정적으로 나타남

- 긍정 응답률이 77.5%로 가장 높음

(단위 : %)



<그림 4-83> 본인의 행동에 대한 책임에 따른 성인 판별

○ 남녀 평균 모두 4.0 이상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남

- 성별에 관계없이 남녀 모두 긍정 응답률이 가장 높음 (남성 72.5%, 여성 82.9%)

○ 연령대에 관계없이 모두 평균 4.0 이상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남

- 전 연령에서 긍정 응답률이 가장 높음

○ 거주 지역별에 관계없이 모두 평균 4.0 이상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남

- 전 지역에서 긍정 응답률이 가장 높음

○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평균 4.0 이상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남

- 긍정 응답률이 가장 높음 (취업자 77.3%, 미취업자 77.6%)

○ 학력에 관계없이 긍정 응답률이 가장 높음

- 전 학력에서 긍정 응답률이 가장 높음

<표 4-90> 응답자 특성별 본인의 행동에 대한 책임에 따른 성인 판별

(단위 :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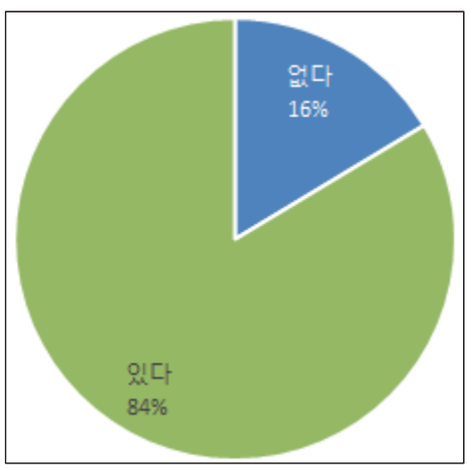
	사례수 (명)	전혀 필요없다	←	①+②	보통이다	→	매우 필요하다	④+⑤	계	평균
전체	**(800)**	**0.6**	**2.1**	**2.8**	**19.8**	**33.4**	**44.1**	**77.5**	**100.0**	**4.2**
성별										
남성	(415)	0.5	2.9	3.4	24.1	28.7	43.9	72.5	100.0	4.1
여성	(385)	0.8	1.3	2.1	15.1	38.4	44.4	82.9	100.0	4.2
연령대										
20-24세	(219)	0.5	4.1	4.6	21.5	38.4	35.6	74.0	100.0	4.0
25-29세	(186)	0.5	1.6	2.2	17.2	30.1	50.5	80.6	100.0	4.3
30-34세	(185)	0.5	2.2	2.7	17.8	33.0	46.5	79.5	100.0	4.2
35-39세	(210)	1.0	0.5	1.4	21.9	31.4	45.2	76.7	100.0	4.2
거주 지역										
장안구	(182)	1.1	3.3	4.4	15.9	32.4	47.3	79.7	100.0	4.2
권선구	(245)		0.8	0.8	22.0	29.0	48.2	77.1	100.0	4.2
팔달구	(126)	1.6	2.4	4.0	19.0	26.2	50.8	77.0	100.0	4.2
영통구	(247)	0.4	2.4	2.8	20.6	42.1	34.4	76.5	100.0	4.1
취업상태										
취업	(449)	0.7	0.9	1.6	21.2	32.3	45.0	77.3	100.0	4.2
미취업	(351)	0.6	3.7	4.3	17.9	34.8	43.0	77.8	100.0	4.2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1.8	2.4	4.1	23.7	34.3	37.9	72.2	100.0	4.0
대학교 재학	(231)	0.4	4.3	4.8	22.1	35.1	38.1	73.2	100.0	4.1
대학교 졸업 이상	(400)	0.3	0.8	1.0	16.8	32.0	50.3	82.3	100.0	4.3

2. 즐거움

1) 관계

(1) 친구 및 지인

가. 친밀한 지인 유무



<그림 4-84> 진정한 친구 보유 여부

- 진정한 친구를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의 83.6%를 차지함
- 긍정 응답률이 남성 84.3%, 여성 82.9%로 남성이 약간 높음
- 20~24세의 긍정 응답률이 90.9%로 가장 높고, 35~39세의 긍정응답률은 76.7%로 가장 낮음
- 영통구 거주자의 긍정 응답률이 87.0%로 가장 높고, 팔달구 거주자는 77.8%로 가장 낮음
- 미취업자의 긍정 응답률이 85.8%, 취업자가 82.0%로 미취업자가 더 높은 수치를 보임
- 대학교 재학생의 긍정 응답률이 90.0%로 가장 높고,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응답자의 응답률이 78.7%로 가장 낮음

<표 4-91> 응답자 특성별 진정한 친구 보유 여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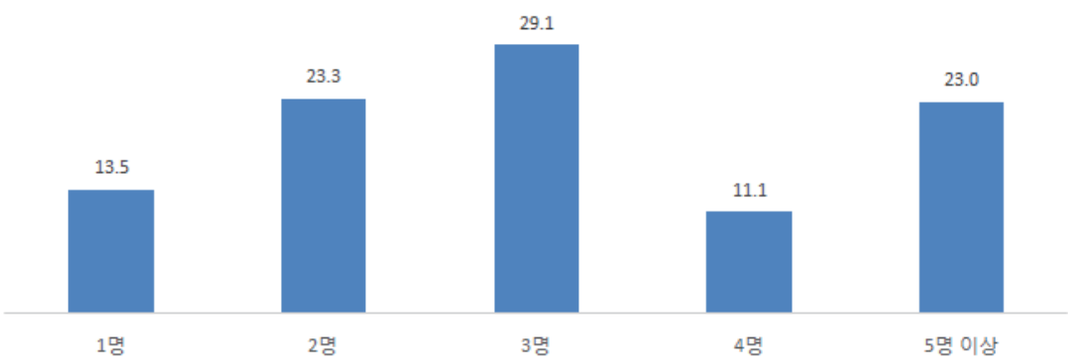
	사례수 (명)	없다	있다	계
전체	**(800)**	**16.4**	**83.6**	**100.0**
성별				
남성	(415)	15.7	84.3	100.0
여성	(385)	17.1	82.9	100.0
연령대				
20-24세	(219)	9.1	90.9	100.0
25-29세	(186)	15.6	84.4	100.0
30-34세	(185)	17.8	82.2	100.0
35-39세	(210)	23.3	76.7	100.0
거주 지역				
장안구	(182)	19.8	80.2	100.0
권선구	(245)	14.3	85.7	100.0
팔달구	(126)	22.2	77.8	100.0
영통구	(247)	13.0	87.0	100.0
취업상태				
취업	(449)	18.0	82.0	100.0
미취업	(351)	14.2	85.8	100.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21.3	78.7	100.0
대학교 재학	(231)	10.0	90.0	100.0
대학교 졸업 이상	(400)	18.0	82.0	100.0

■ 진정한 친구 보유 수

○ 보유하고 있는 진정한 친구의 수에 대해 묻는 질문에 응답자들의 29.1%가 ‘3명’이라고 답함

- 이어서 ‘2명’이 23.3%, ‘5명 이상’이 23.0%, ‘1명’이 13.5%, ‘4명’이 11.1% 순으로 나타남

(단위 : %)



<그림 4-85> 진정한 친구 보유 수

○ 남성의 경우 ‘5명 이상’이 28.6%로 가장 많이 응답되었고, 여성은 ‘3명’이라고 답한 비율이 32.9%로 가장 높음

○ 20대, 그리고 35~39세는 ‘3명’이라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30~34세는 30.3%가 ‘2명’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함

○ 장안구와 영통구 거주자는 ‘3명’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권선구 거주자들은 27.1%가 ‘2명’을, 팔달구 거주자들은 28.6%가 ‘5명 이상’이라고 응답함

○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3명’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취업자는 28.5%, 미취업자는 29.9%로 가장 높음

○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응답자와 대학교 졸업 이상 응답자는 ‘3명’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제일 높게 나타남. 대학교 재학생의 경우에는 ‘5명 이상’이 31.3%로 가장 높게 응답됨

<표 4-92> 응답자 특성별 진정한 친구 보유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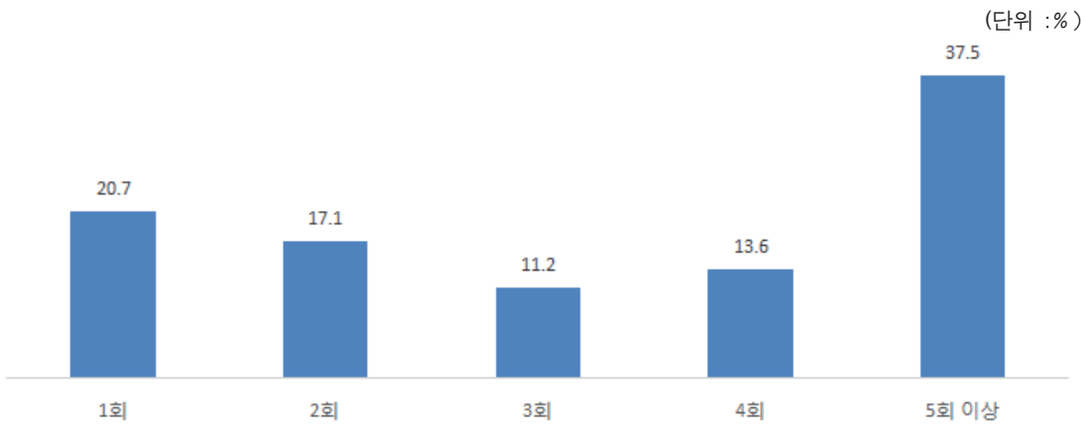
(단위 : %, 명)

	사례수 (명)	1명	2명	3명	4명	5명 이상	계	평균
전체	**(669)**	**13.5**	**23.3**	**29.1**	**11.1**	**23.0**	**100.0**	**3.4**
성별								
남성	(350)	11.1	22.9	25.7	11.7	28.6	100.0	3.6
여성	(319)	16.0	23.8	32.9	10.3	16.9	100.0	3.2
연령대								
20-24세	(199)	10.1	15.6	28.6	17.6	28.1	100.0	3.9
25-29세	(157)	8.3	21.0	29.9	11.5	29.3	100.0	3.8
30-34세	(152)	12.5	30.3	28.3	8.6	20.4	100.0	3.1
35-39세	(161)	23.6	28.6	29.8	5.0	13.0	100.0	2.7
거주 지역								
장안구	(146)	12.3	20.5	28.8	15.1	23.3	100.0	3.8
권선구	(210)	14.3	27.1	25.7	11.9	21.0	100.0	3.2
팔달구	(98)	20.4	17.3	23.5	10.2	28.6	100.0	3.7
영통구	(215)	10.2	24.2	35.3	7.9	22.3	100.0	3.3
취업상태								
취업	(368)	14.7	27.7	28.5	9.8	19.3	100.0	3.1
미취업	(301)	12.0	17.9	29.9	12.6	27.6	100.0	3.8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33)	16.5	23.3	30.8	12.8	16.5	100.0	3.5
대학교 재학	(208)	9.6	17.8	26.9	14.4	31.3	100.0	3.8
대학교 졸업 이상	(328)	14.6	26.8	29.9	8.2	20.4	100.0	3.1

나. 지인과의 교류 횟수

○ 친구 및 지인 만남 횟수에 대해 묻는 질문에 응답자들의 37.5%가 ‘5회 이상’ 이라고 답함

- 이어서 ‘1회’ 가 20.7%, ‘2회’ 가 17.1%, ‘4회’ 가 13.6%, ‘3회’ 가 11.2% 순으로 나타남



<그림 4-86> 친구 및 지인 만남 횟수

○ 성별에 관계없이 ‘5명 이상’ 이라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남성이 38.7%, 여성이 36.1%의 비율로 응답함

○ 20대에서는 ‘5회 이상’ 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30대에서는 ‘1회’ 라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20대의 평균 만남 횟수는 7.3회, 30대의 평균 만남 횟수는 3.9회로 30대가 되면서 친구 및 지인과의 만남 횟수가 줄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5회 이상’ 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음. 특히 영통구 거주자가 44.0%로 가장 높았으며, 권선구 거주자는 26.5%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임

○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5회 이상’ 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취업자는 30.5%, 미취업자는 46.4%로 미취업자가 더 높은 수치를 보임

○ 학력에 관계없이 ‘5회 이상’ 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남. 특히 대학교 재학생의 경우 반수가 넘는 54.8%가 5회 이상 친구 및 지인을 만난다고 응답함

<표 4-93> 응답자 특성별 친구 및 지인 만남 횟수

(단위 : %,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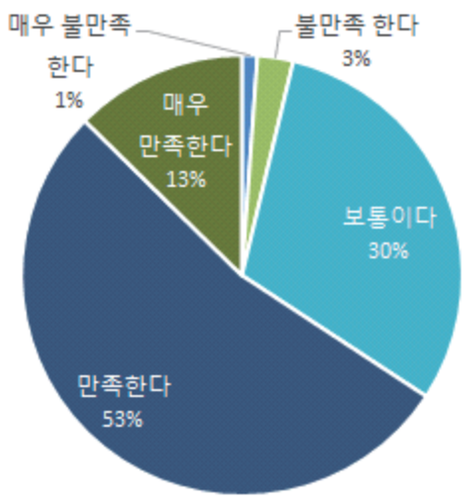
	사례수 (명)	1회	2회	3회	4회	5회 이상	계	평균
전체	**(774)**	**20.7**	**17.1**	**11.2**	**13.6**	**37.5**	**100.0**	**5.7**
성별								
남성	(403)	19.1	17.4	11.9	12.9	38.7	100.0	6.1
여성	(371)	22.4	16.7	10.5	14.3	36.1	100.0	5.3
연령대								
20-24세	(217)	7.8	12.4	9.2	13.4	57.1	100.0	8.9
25-29세	(181)	14.9	16.6	13.8	13.3	41.4	100.0	5.7
30-34세	(177)	29.9	25.4	8.5	13.0	23.2	100.0	3.7
35-39세	(199)	31.7	15.1	13.6	14.6	25.1	100.0	4.1
거주 지역								
장안구	(178)	18.0	21.3	9.0	7.9	43.8	100.0	6.3
권선구	(234)	24.8	17.1	14.5	17.1	26.5	100.0	4.5
팔달구	(119)	20.2	22.7	10.1	10.9	36.1	100.0	5.8
영통구	(243)	18.9	11.1	10.3	15.6	44.0	100.0	6.5
취업상태								
취업	(436)	25.2	19.5	11.5	13.3	30.5	100.0	4.5
미취업	(338)	14.8	13.9	10.9	13.9	46.4	100.0	7.2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2)	23.5	16.0	14.2	8.0	38.3	100.0	5.9
대학교 재학	(230)	11.7	11.7	7.8	13.9	54.8	100.0	8.4
대학교 졸업 이상	(382)	24.9	20.7	12.0	15.7	26.7	100.0	4.0

다. 친구 및 지인 관계에 대한 만족도

○ 친구 및 지인 관계에 대한 만족도의 평균은 3.7로 보통을 넘는 것으로 나타남

- 긍정 응답률이 65.8%로 가장 높음

(단위 : %)



<그림 4-87> 친구 및 지인 관계에 대한 만족도

○ 남녀 모두 평균이 보통을 넘는 것으로 나타남 (남성 긍정 응답률 63.6%, 여성 긍정 응답률 68.1%)

○ 연령에 관계없이 모두 평균이 보통을 넘는 것으로 나타남

- 전 연령대에서 긍정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남

○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모두 평균이 보통을 넘는 것으로 나타남

- 전 지역에서 긍정적으로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특히 영통구 거주자가 72.5%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임

○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평균이 보통을 넘는 것으로 나타남 (취업자 긍정 응답률 66.4%, 미취업자 긍정 응답률 65.0%)

○ 학력에 관계없이 모두 평균이 보통을 넘는 것으로 나타남

- 전 학력에서 긍정적으로 응답한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남

<표 4-94> 응답자 특성별 친구 및 지인 관계에 대한 만족도

(단위 : %, 점)

	사례수 (명)	매우 불만족 한다	불만족 한다	①+②	보통이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④+⑤	계	평균
전체	**(800)**	**1.1**	**2.6**	**3.8**	**30.5**	**53.1**	**12.6**	**65.8**	**100.0**	**3.7**
성별										
남성	(415)	0.7	2.9	3.6	32.8	51.1	12.5	63.6	100.0	3.7
여성	(385)	1.6	2.3	3.9	28.1	55.3	12.7	68.1	100.0	3.8
연령대										
20-24세	(219)	0.9	1.8	2.7	28.8	55.3	13.2	68.5	100.0	3.8
25-29세	(186)	1.6	2.7	4.3	29.0	46.8	19.9	66.7	100.0	3.8
30-34세	(185)	2.2	4.9	7.0	33.5	48.6	10.8	59.5	100.0	3.6
35-39세	(210)		1.4	1.4	31.0	60.5	7.1	67.6	100.0	3.7
거주 지역										
장안구	(182)	0.5	2.7	3.3	31.3	45.6	19.8	65.4	100.0	3.8
권선구	(245)	0.8	3.7	4.5	33.9	51.8	9.8	61.6	100.0	3.7
팔달구	(126)	1.6	4.8	6.3	32.5	41.3	19.8	61.1	100.0	3.7
영통구	(247)	1.6	0.4	2.0	25.5	66.0	6.5	72.5	100.0	3.8
취업상태										
취업	(449)	0.9	2.9	3.8	29.8	55.2	11.1	66.4	100.0	3.7
미취업	(351)	1.4	2.3	3.7	31.3	50.4	14.5	65.0	100.0	3.7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3.6	1.8	5.3	29.6	52.7	12.4	65.1	100.0	3.7
대학교 재학	(231)		2.2	2.2	31.2	51.1	15.6	66.7	100.0	3.8
대학교 졸업 이상	(400)	0.8	3.3	4.0	30.5	54.5	11.0	65.5	100.0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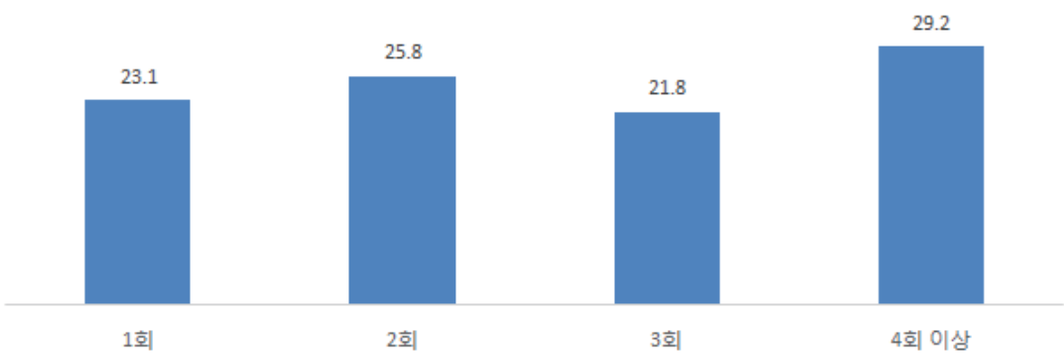
(2) 이성 교제 및 결혼

가. 연애 경험 횟수

○ 연애 경험 횟수에 대해 묻는 질문에 응답자들의 29.2%가 ‘4회 이상’ 이라고 답함

- 이어서 ‘2회’ 가 25.8%, ‘1회’ 가 23.1%, ‘3회’ 가 21.8% 순으로 나타남

(단위 : %)



<그림 4-88> 연애 경험 횟수

○ 성별에 관계없이 ‘4회 이상’ 이라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남성이 30.1%, 여성이 28.3%로 남성의 응답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 20~24세에서는 ‘2 회’ 라고 답한 응답자가, 25~39세에서는 ‘4회 이상’ 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특히 25~29세에서의 응답 비율이 31.8%로 가장 높음

○ 장안구와 팔달구에서는 ‘4회 이상’ 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권선구와 영통구에서는 ‘2회’ 라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음

○ 취업자는 32.2%가 ‘4회 이상’ 이라고 응답하였고, 미취업자는 28.0%가 ‘2회’ 라고 답한 것이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이었음

○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응답자와 대학교 졸업 이상 응답자에서는 ‘4회 이상’ 이라고 답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고, 대학교 재학생의 경우에는 28.3%가 ‘1회’ 라고 답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표 4-95> 응답자 특성별 연애 경험 횟수

(단위 : %)

	사례수 (명)	1회	2회	3회	4회 이상	계
전체	**(743)**	**23.1**	**25.8**	**21.8**	**29.2**	**100.0**
성별						
남성	(386)	23.3	24.6	22.0	30.1	100.0
여성	(357)	23.0	27.2	21.6	28.3	100.0
연령대						
20-24세	(186)	28.5	30.1	17.2	24.2	100.0
25-29세	(173)	23.1	23.1	22.0	31.8	100.0
30-34세	(178)	21.3	23.6	24.7	30.3	100.0
35-39세	(206)	19.9	26.2	23.3	30.6	100.0
거주 지역						
장안구	(169)	15.4	19.5	26.0	39.1	100.0
권선구	(227)	27.3	28.2	18.1	26.4	100.0
팔달구	(115)	24.3	19.1	22.6	33.9	100.0
영통구	(232)	24.1	31.5	22.0	22.4	100.0
취업상태						
취업	(425)	19.8	24.2	23.8	32.2	100.0
미취업	(318)	27.7	28.0	19.2	25.2	100.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55)	25.2	27.7	18.7	28.4	100.0
대학교 재학	(205)	28.3	27.8	18.5	25.4	100.0
대학교 졸업 이상	(383)	19.6	24.0	24.8	31.6	100.0

나. 혼전 동거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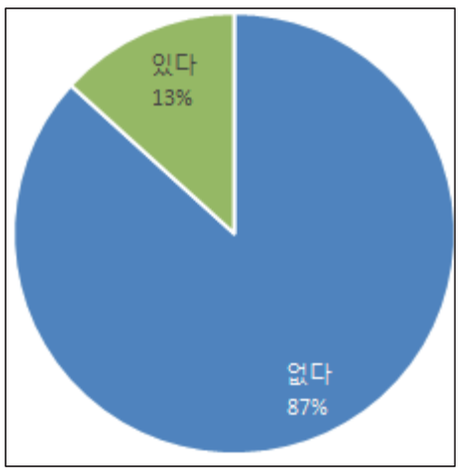
○ 혼전 동거 경험에 대해 묻는 질문에 응답자들의 86.8%가 ‘없다’고 답함

○ 부정 응답률이 남성은 84.6%, 여성은 89.1%로 여성의 혼전 동거 경험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남

○ 20~24세에서는 ‘없다’고 답한 응답자가 93.6%로 가장 높았고, 35~39세에서 81.9%로 가장 낮음

○ 팔달구 거주자의 누정 응답률이 92.1%로 가장 높았고, 권선구 거주자가 84.1%로 가장 낮음

○ 취업자의 82.0%, 미취업자의 92.9%가 ‘없다’고 답해 미취업자가 혼전 동거 경험이 더 적었음



<그림 4-89> 혼전 동거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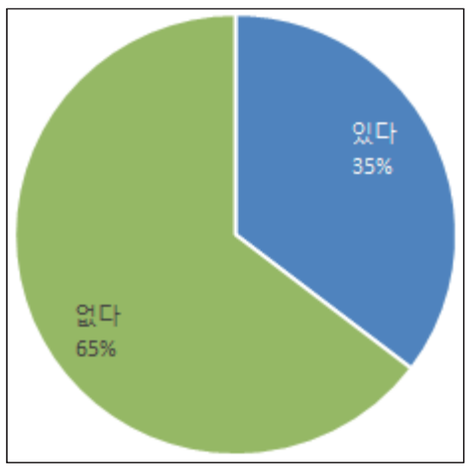
○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응답자와 대학교 졸업 이상 응답자에서는 부정 응답률이 84.0%로 같았고, 대학교 재학생의 경우에는 93.5%가 ‘없다’고 답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표 4-96> 응답자 특성별 혼전 동거 경험

(단위 : %)

	사례수 (명)	없다	있다	계
전체	**(800)**	**86.8**	**13.3**	**100.0**
성별				
남성	(415)	84.6	15.4	100.0
여성	(385)	89.1	10.9	100.0
연령대				
20-24세	(219)	93.6	6.4	100.0
25-29세	(186)	87.6	12.4	100.0
30-34세	(185)	83.2	16.8	100.0
35-39세	(210)	81.9	18.1	100.0
거주 지역				
장안구	(182)	87.4	12.6	100.0
권선구	(245)	84.1	15.9	100.0
팔달구	(126)	92.1	7.9	100.0
영통구	(247)	86.2	13.8	100.0
취업상태				
취업	(449)	82.0	18.0	100.0
미취업	(351)	92.9	7.1	100.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84.0	16.0	100.0
대학교 재학	(231)	93.5	6.5	100.0
대학교 졸업 이상	(400)	84.0	16.0	100.0

다. 연애 망설임



<그림 4-90> 불안정 때문에 연애를 망설인 경험 여부

- 불안정 때문에 연애를 망설인 경험 여부에 대해 묻는 질문에 응답자들의 35.4%는 '있다' 고 답함
- 부정 응답률이 남성은 64.1%, 여성은 65.2%로 남성이 연애를 망설인 경험이 더 많았음
- 20~24세에서는 '없다' 고 답한 응답자가 72.1%로 가장 높았고, 25~29세에서 57.0%로 가장 낮음
- 영통구 거주자의 부정 응답률이 74.5%로 가장 높았고, 장안구 거주자가 55.5%로 가장 낮음
- 취업자의 63.7%, 미취업자는 65.8%가 '없다' 고 답해 미취업자가 연애에 대해 망설인 경험이 더 적었음
- 대학교 졸업 이상 응답자의 부정 응답률이 63.3%로 가장 낮았고, 대학교 재학생의 경우에는 67.1%가 '없다' 고 답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표 4-97> 응답자 특성별 불안정 때문에 연애를 망설인 경험 여부

(단위 : %)

	사례수 (명)	예	아니오	계
전체	**(800)**	**35.4**	**64.6**	**100.0**
성별				
남성	(415)	35.9	64.1	100.0
여성	(385)	34.8	65.2	100.0
연령대				
20-24세	(219)	27.9	72.1	100.0
25-29세	(186)	43.0	57.0	100.0
30-34세	(185)	37.3	62.7	100.0
35-39세	(210)	34.8	65.2	100.0
거주 지역				
장안구	(182)	44.5	55.5	100.0
권선구	(245)	38.4	61.6	100.0
팔달구	(126)	35.7	64.3	100.0
영통구	(247)	25.5	74.5	100.0
취업상태				
취업	(449)	36.3	63.7	100.0
미취업	(351)	34.2	65.8	100.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35.5	64.5	100.0
대학교 재학	(231)	32.9	67.1	100.0
대학교 졸업 이상	(400)	36.8	63.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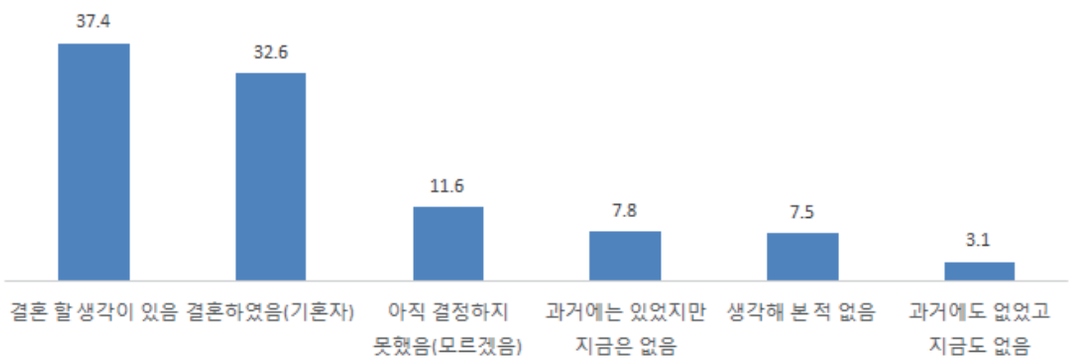
라. 결혼 의향 및 시기

■ 결혼 의향

○ 결혼 의향에 대해 묻는 질문에 응답자들의 37.4%가 ‘결혼할 생각이 있음’ 이라고 답함

- 이어서 ‘결혼하였음(기혼자)’ 가 32.6%, ‘아직 결정하지 못했음(모르겠음)’ 이 11.6%, ‘과거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음’ 이 7.8%, ‘생각해 본 적 없음’ 이 7.5%,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음’ 이 3.1% 순인 것으로 나타남

(단위 : %)



<그림 4-91> 결혼 의향

○ 성별에 따라서 남성의 경우 ‘결혼할 생각이 있음’ 이 가장 높은 44.6%를 차지했고, 여성은 ‘결혼하였음(기혼자)’ 라고 응답한 비율이 36.4%로 가장 높음

- 여성 미혼자 중에는 ‘결혼할 생각이 있음’ 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29.6%로 나타남

○ 20대에서는 ‘결혼할 생각이 있음’ 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20~24세 57.5%, 25~29세56.5%로 가장 높았고, 30대에서는 ‘결혼하였음(기혼자)’ 라 응답한 경우가 30~34세 48.1%, 35~39세 75.2%로 가장 높음

- 30대 미혼자의 경우에는 ‘결혼할 생각이 있음’ 이라고 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음

○ 권선구 거주자만이 ‘결혼하였음(기혼자)’ 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많았고, 나머지 구 거주자는 모두 ‘결혼할 생각이 있음’ 이라고 답한 응답자 비율이 가장 높음

- 권선구 거주자의 경우에도 미혼인 경우에는 ‘결혼할 생각이 있음’ 이라고 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음

○ 취업자는 38.5%가 ‘결혼하였음(기혼자)’ 라고 응답하였고, 미혼자 중에서는 34.5%가 ‘결혼할 생각이 있음’ 이라고 답함

- 미취업자는 41.0%가 ‘결혼할 생각이 있음’ 이라고 답해 취업자가 결혼한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응답자와 대학교 재학생은 ‘결혼할 의향이 있음’ 이라고 답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고, 대학교 졸업 이상 응답자의 경우에는 50.0%가 ‘결혼하였음(기혼자)’ 라고 답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 대학교 졸업 이상 미혼자의 경우에는 27.3%가 ‘결혼할 생각이 있음’ 이라고 답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임

<표 4-98> 응답자 특성별 결혼 의향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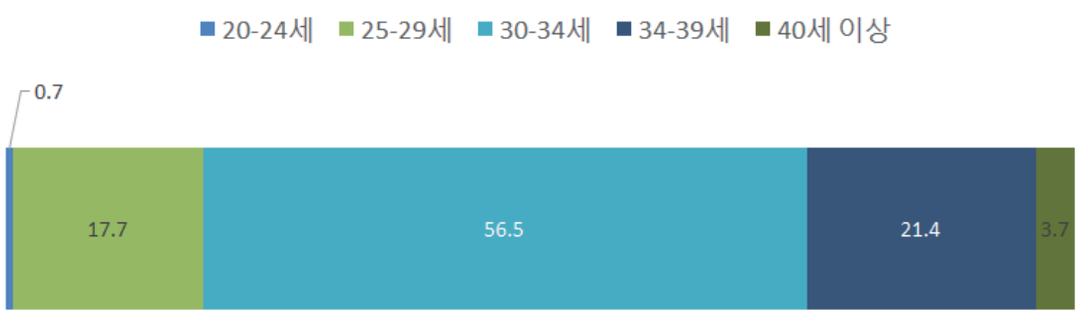
	사례수 (명)	결혼 할 생각이 있음	과거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음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음	생각해 본 적 없음	아직 결정하지 못했음(모르겠음)	결혼하였음(기혼자)	계
전체	**(800)**	**37.4**	**7.8**	**3.1**	**7.5**	**11.6**	**32.6**	**100.0**
성별								
남성	(415)	44.6	5.8	3.1	6.7	10.6	29.2	100.0
여성	(385)	29.6	9.9	3.1	8.3	12.7	36.4	100.0
연령대								
20-24세	(219)	57.5	10.5	3.2	13.2	15.1	0.5	100.0
25-29세	(186)	56.5	9.1	4.8	8.6	14.0	7.0	100.0
30-34세	(185)	28.1	3.8	2.7	5.4	11.9	48.1	100.0
35-39세	(210)	7.6	7.1	1.9	2.4	5.7	75.2	100.0
거주 지역								
장안구	(182)	36.8	9.3	4.4	7.1	12.6	29.7	100.0
권선구	(245)	33.9	6.9	1.6	8.2	13.1	36.3	100.0
팔달구	(126)	41.3	10.3	4.8	7.1	11.9	24.6	100.0
영통구	(247)	39.3	6.1	2.8	7.3	9.3	35.2	100.0
취업상태								
취업	(449)	34.5	7.6	2.7	6.0	10.7	38.5	100.0
미취업	(351)	41.0	8.0	3.7	9.4	12.8	25.1	100.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32.5	11.8	3.6	11.8	10.1	30.2	100.0
대학교 재학	(231)	58.4	10.4	3.0	10.0	13.9	4.3	100.0
대학교 졸업 이상	(400)	27.3	4.5	3.0	4.3	11.0	50.0	100.0

■ 생각하고 있는 결혼 연령

○ 생각하고 있는 결혼 연령에 대해 묻는 질문에 응답자들의 평균이 32.0세인 것으로 나타남

- ‘30~34세’가 반수 이상인 56.5%로 나타남

(단위 : %)



<그림 4-92> 생각하고 있는 결혼 연령

○ 남성의 평균은 32.6세, 여성의 평균은 31.2세로 1.5세 정도의 차이를 보임

- 성별에 관계없이 남녀 모두 ‘30~34세’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남성 63.2%, 여성 45.6%)

○ 연령이 높아질수록 생각하고 있는 결혼의 연령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특히 25~29세의 경우 응답률이 76.2%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장안구 거주자가 생각하는 결혼 연령이 31.0세로 가장 낮았고, 팔달구 거주자가 생각하는 결혼 연령이 32.8세로 가장 높았음

- 전 지역에서 ‘30~34세’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 취업자가 생각하는 결혼 연령은 32.6세, 미취업자가 생각하는 결혼 연령은 31.4세로 나타남

-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30~34세’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 대학교 재학생이 생각하는 결혼 연령의 평균이 31.0세로 가장 낮았고, 대학교 졸업 이상 응답자가 생각하는 결혼 연령의 평균은 33.2세로 가장 높아 2세가 넘는 차이를 보임

- 학력에 관계없이 모두 ‘30~34세’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표 4-99> 응답자 특성별 생각하고 있는 결혼 연령

(단위 : %,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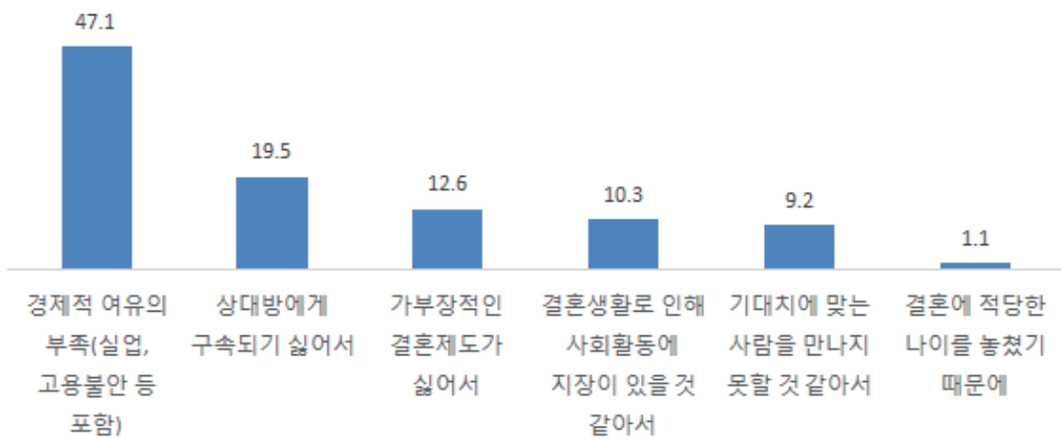
	사례수 (명)	20-24세	25-29세	30-34세	34-39세	40세 이상	계	평균
전체	**(299)**	**0.7**	**17.7**	**56.5**	**21.4**	**3.7**	**100.0**	**32.0**
성별								
남성	(185)	0.5	8.6	63.2	24.9	2.7	100.0	32.6
여성	(114)	0.9	32.5	45.6	15.8	5.3	100.0	31.2
연령대								
20-24세	(126)	1.6	30.2	57.1	8.7	2.4	100.0	30.6
25-29세	(105)		14.3	76.2	9.5		100.0	31.4
30-34세	(52)			32.7	63.5	3.8	100.0	34.8
35-39세	(16)				62.5	37.5	100.0	39.3
거주 지역								
장안구	(67)	3.0	29.9	49.3	14.9	3.0	100.0	31.0
권선구	(83)		13.3	60.2	21.7	4.8	100.0	32.3
팔달구	(52)		11.5	61.5	25.0	1.9	100.0	32.8
영통구	(97)		16.5	55.7	23.7	4.1	100.0	32.1
취업상태								
취업	(155)	0.6	16.8	47.7	30.3	4.5	100.0	32.6
미취업	(144)	0.7	18.8	66.0	11.8	2.8	100.0	31.4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55)	1.8	16.4	50.9	25.5	5.5	100.0	32.3
대학교 재학	(135)	0.7	25.9	60.0	11.1	2.2	100.0	31.0
대학교 졸업 이상	(109)		8.3	55.0	32.1	4.6	100.0	33.2

마. 비혼 이유

○ 비혼 이유에 대해 묻는 질문에 응답자들의 47.1%가 ‘경제적 여유의 부족(실업, 고용불안 등 포함)’을 이유로 들음

- 이어서 ‘상대방에게 구속되지 싫어서’가 19.5%, ‘가부장적인 결혼제도가 싫어서’가 12.6%, ‘결혼생활로 인해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가 10.3%, ‘기대치에 맞는 사람을 만나지 못할 것 같아서’가 9.2%, ‘결혼에 적당한 나이를 놓쳤기 때문에’가 1.1% 순인 것으로 나타남

(단위 : %)



<그림 4-93> 비혼 이유

○ 성별에 관계없이 남녀 모두 ‘경제적 여유의 부족(실업, 고용불안 등 포함)’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 남성이 54.1%, 여성이 42.0%로 남성의 응답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대에 관계없이 ‘경제적 여유의 부족(실업, 고용불안 등 포함)’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 35~39세에서 73.7%로 가장 높았고, 20~24세에서 26.7%로 가장 낮음

○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경제적 여유의 부족(실업, 고용불안 등 포함)’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 특히 팔달구 거주자가 52.6%로 가장 높았고, 장안구 거주자가 36.0%로 가장 낮음

○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경제적 여유의 부족(실업, 고용불안 등 포함)’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 취업자는 56.5%, 미취업자는 36.6%로 취업자의 응답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 학력에 관계없이 ‘경제적 여유의 부족(실업, 고용불안 등 포함)’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 특히 대학교 재학생이 25.8%로 가장 낮았고,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응답자가 69.2%로 가장 높았고, 대학교 재학생의 경우에는 ‘상대방에서 구속되기 싫어서’라고 답한 응답 비율도 역시 25.8%로, 결혼을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꼽힘

<표 4-100> 응답자 특성별 비혼 이유

(단위 : %)

	사례수 (명)	경제적 여유의 부족(실업, 고용불안 등 포함)	결혼생활로 인해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결혼에 적당한 나이를 놓쳤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구속되기 싫어서	기대치에 맞는 사람을 만나지 못할 것 같아서	가부장적인 결혼제도가 싫어서	계
전체	**(87)**	**47.1**	**10.3**	**1.1**	**19.5**	**9.2**	**12.6**	**100.0**
성별								
남성	(37)	54.1	5.4	2.7	21.6	8.1	8.1	100.0
여성	(50)	42.0	14.0		18.0	10.0	16.0	100.0
연령대								
20-24세	(30)	26.7	20.0		23.3	16.7	13.3	100.0
25-29세	(26)	46.2	7.7		26.9	7.7	11.5	100.0
30-34세	(12)	58.3	8.3		16.7	8.3	8.3	100.0
35-39세	(19)	73.7		5.3	5.3		15.8	100.0
거주 지역								
장안구	(25)	36.0	16.0		32.0	12.0	4.0	100.0
권선구	(21)	52.4	9.5		19.0	9.5	9.5	100.0
팔달구	(19)	52.6	10.5		15.8	10.5	10.5	100.0
영통구	(22)	50.0	4.5	4.5	9.1	4.5	27.3	100.0
취업상태								
취업	(46)	56.5	8.7	2.2	15.2	10.9	6.5	100.0
미취업	(41)	36.6	12.2		24.4	7.3	19.5	100.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26)	69.2	7.7	3.8	11.5		7.7	100.0
대학교 재학	(31)	25.8	12.9		25.8	16.1	19.4	100.0
대학교 졸업 이상	(30)	50.0	10.0		20.0	10.0	10.0	100.0

(3) 부모님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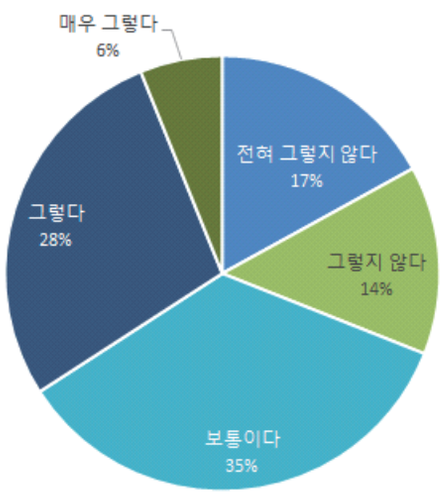
가. 부모님의 생활 영향력

■ 직업 및 학과 선택에서의 부모님의 영향

○ ‘나의 직업 및 학과 선택에 부모님의 영향이 컸다’에 대한 동의 여부 평균은 2.9로 보통에 약간 미치지 못함

-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34.9%로 가장 높음

(단위 :%)



<그림 4-94> 직업 및 학과 선택에서의 부모님의 영향

○ 남성의 경우 평균 2.8로 보통에 약간 미치지 못했고, 여성의 경우 평균 3.0으로 보통으로 나타남

- 성별에 따라서 남성은 40.2%가 ‘보통이다’라고 응답하였고, 여성은 41.0%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여성이 남성에 비해 직업과 학과 선택에 있어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에 관계없이 모두 평균 2.9로 보통에 약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대의 경우에는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30대는 긍정 응답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권선구 거주자는 평균 3.0으로 보통으로 나타났고, 영통구 거주자 평균은 3.1로 보통을 약간 넘어섰으며 나머지 지역 거주자들의 평균은 모두 2.9로 보통에 약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장안구와 팔달구 거주자는 부정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권선구와 영통구 거주자는 긍정 응답률이 가장 높아 극명한 차이를 보임

○ 취업 여부에 따라 취업자는 평균 2.9로 보통에 약간 미치지 못하고, 미취업자는 평균 3.0으로 보통으로 나타남

- 취업자의 경우에는 35.0%가 '보통이다' 라고 응답했으며 미취업자의 36.8%는 긍정적으로 응답함

○ 학력에 따라 대학교 재학생은 평균 3.0으로 보통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학력 응답자는 모두 2.9로 보통에 약간 미치지 못함

-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응답자와 대학교 재학생은 '보통이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대학교 졸업 이상 응답자는 부정 응답률이 35.0%로 가장 높음

<표 4-101> 응답자 특성별 직업 및 학과 선택에서의 부모님의 영향

(단위 :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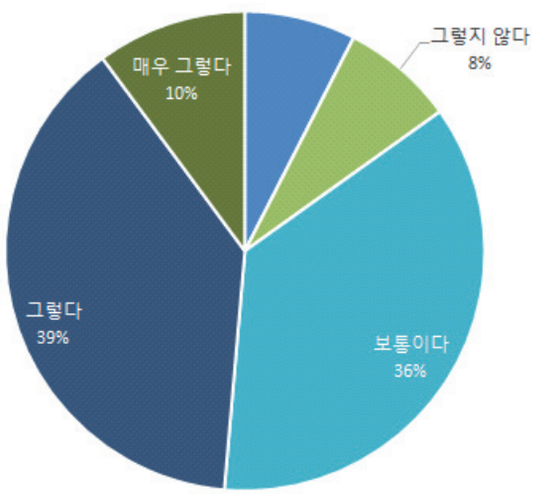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	①+②	보통이다	→	매우 그렇다	④+⑤	계	평균
전체	**(800)**	**17.0**	**14.0**	**31.0**	**34.9**	**28.0**	**6.1**	**34.1**	**100.0**	**2.9**
성별										
남성	(415)	18.3	13.7	32.0	40.2	23.6	4.1	27.7	100.0	2.8
여성	(385)	15.6	14.3	29.9	29.1	32.7	8.3	41.0	100.0	3.0
연령대										
20-24세	(219)	16.4	12.3	28.8	37.9	27.9	5.5	33.3	100.0	2.9
25-29세	(186)	16.7	12.4	29.0	41.4	25.3	4.3	29.6	100.0	2.9
30-34세	(185)	19.5	16.2	35.7	25.4	30.8	8.1	38.9	100.0	2.9
35-39세	(210)	15.7	15.2	31.0	34.3	28.1	6.7	34.8	100.0	2.9
거주 지역										
장안구	(182)	24.2	15.9	40.1	34.6	18.7	6.6	25.3	100.0	2.7
권선구	(245)	17.1	11.4	28.6	31.8	33.1	6.5	39.6	100.0	3.0
팔달구	(126)	19.8	19.0	38.9	36.5	18.3	6.3	24.6	100.0	2.7
영통구	(247)	10.1	12.6	22.7	37.2	34.8	5.3	40.1	100.0	3.1
취업상태										
취업	(449)	18.0	14.9	33.0	35.0	27.6	4.5	32.1	100.0	2.9
미취업	(351)	15.7	12.8	28.5	34.8	28.5	8.3	36.8	100.0	3.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21.9	5.9	27.8	39.1	26.0	7.1	33.1	100.0	2.9
대학교 재학	(231)	13.4	13.0	26.4	39.8	27.3	6.5	33.8	100.0	3.0
대학교 졸업 이상	(400)	17.0	18.0	35.0	30.3	29.3	5.5	34.8	100.0	2.9

■ 현재 나의 삶에 대한 부모님의 영향

○ ‘현재 나의 삶은 부모님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았다’ 에 대한 동의 여부 평균은 3.4로 보통을 넘는 것으로 나타남

- 극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48.6%로 가장 높음

(단위 : %)



<그림 4-95> 현재 나의 삶에 대한 부모님의 영향

○ 남녀 모두 평균이 보통을 넘는 것으로 나타남

- 성별에 관계없이 남녀 모두 긍정 응답률이 가장 높음 (남성 43.1%, 여성 54.5%)

○ 연령에 관계없이 모두 평균이 보통을 넘는 것으로 나타남

- 전 연령대에서 긍정 응답률이 가장 높음

○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모두 평균이 보통을 넘는 것으로 나타남

- 전 지역에서 긍정 응답률이 가장 높음

○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평균이 보통을 넘는 것으로 나타남

-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긍정 응답률이 가장 높음 (취업자 47.7%, 미취업자 49.9%)

○ 학력에 관계없이 모두 평균이 보통을 넘는 것으로 나타남

- 전 학력에서 긍정 응답률이 가장 높음

<표 4-102> 응답자 특성별 현재 나의 삶에 대한 부모님의 영향

(단위 : %, 점)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	①+②	보통이다	→	매우 그렇다	④+⑤	계	평균
전체	**(800)**	**7.5**	**7.6**	**15.1**	**36.3**	**38.5**	**10.1**	**48.6**	**100.0**	**3.4**
성별										
남성	(415)	8.9	8.4	17.3	39.5	33.5	9.6	43.1	100.0	3.3
여성	(385)	6.0	6.8	12.7	32.7	43.9	10.6	54.5	100.0	3.5
연령대										
20-24세	(219)	5.9	5.0	11.0	35.2	42.0	11.9	53.9	100.0	3.5
25-29세	(186)	6.5	7.0	13.4	40.9	36.0	9.7	45.7	100.0	3.4
30-34세	(185)	9.7	9.2	18.9	30.3	38.4	12.4	50.8	100.0	3.3
35-39세	(210)	8.1	9.5	17.6	38.6	37.1	6.7	43.8	100.0	3.2
거주 지역										
장안구	(182)	13.2	9.9	23.1	32.4	30.2	14.3	44.5	100.0	3.2
권선구	(245)	6.1	8.2	14.3	35.1	41.2	9.4	50.6	100.0	3.4
팔달구	(126)	10.3	7.1	17.5	38.1	31.7	12.7	44.4	100.0	3.3
영통구	(247)	3.2	5.7	8.9	39.3	45.3	6.5	51.8	100.0	3.5
취업상태										
취업	(449)	9.1	8.0	17.1	35.2	40.1	7.6	47.7	100.0	3.3
미취업	(351)	5.4	7.1	12.5	37.6	36.5	13.4	49.9	100.0	3.5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13.0	4.7	17.8	33.7	36.1	12.4	48.5	100.0	3.3
대학교 재학	(231)	6.1	6.1	12.1	41.1	36.4	10.4	46.8	100.0	3.4
대학교 졸업 이상	(400)	6.0	9.8	15.8	34.5	40.8	9.0	49.8	100.0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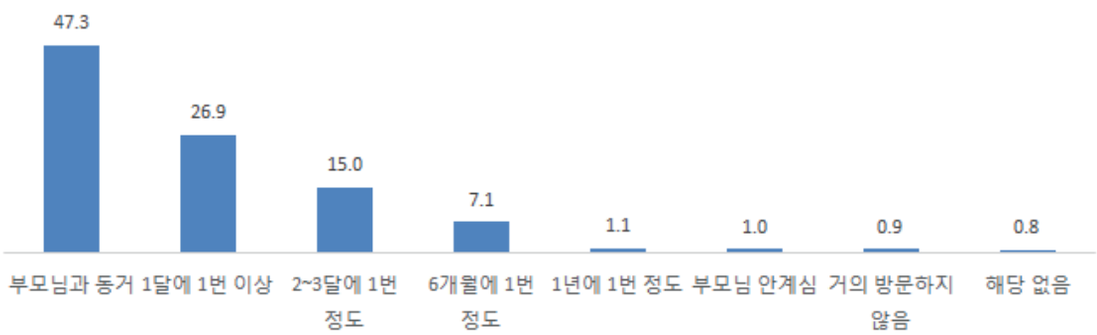
나. 부모님댁 방문 빈도

■ 본인 부모님

○ 본인의 부모님댁 방문 빈도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들의 47.3%가 ‘부모님과 동거’ 중이라고 응답함

- 이어서 ‘1달에 1번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6.9%, ‘2~3달에 1번 정도’가 15.0%, ‘6개월에 1번 정도’가 7.1% 등의 순으로 나타남

(단위 : %)



<그림 4-96> 본인 부모님댁 방문 빈도

○ 성별에 관계없이 남녀 모두 ‘부모님과 종거’ 중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는 경우 남녀 모두 ‘1달에 1번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20~34세의 경우에는 ‘부모님과 동거’ 중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이 수치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30~34세에서는 ‘1달에 1번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부모님과 동거’한다는 응답과 같은 비율인 36.2%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35~39세의경우에는 ‘1달에 1번 이상’ 방문한다는 응답이 39.0%로 가장 높았고, ‘부모님과 동거’한다는 9.5%에 불과했음.

○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부모님과 동거’ 중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 응답자 중 팔달구 거주자가 54.8%로 가장 많았고, 권선구 거주자가 42.0%로 가장 적었는데, 권선구 거주자는 ‘1달에 1번 이상’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35.1%를 차지해 각 구 거주자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부모님과 동거’ 중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취업자 응답률 38.1%, 미취업자 응답률 59.0%)

○ 학력에 관계없이 ‘부모님과 동거’ 중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 응답한 비율은 대학교 졸업 이상 응답자가 33.8%로 가장 낮았고, 대학교 재학생이 73.6%로 가장 높음

<표 4-103> 응답자 특성별 본인 부모님댁 방문 빈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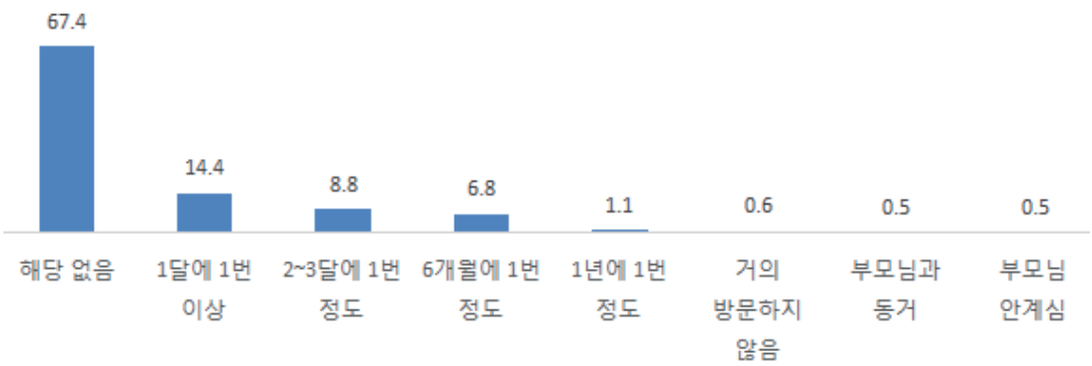
	사례수 (명)	1달에 1번 이상	2~3달에 1번 정도	6개월에 1번 정도	1년에 1번 정도	거의 방문하지 않음	부모님과 동거	부모님 안계심	해당 없음	계
전체	**(800)**	**26.9**	**15.0**	**7.1**	**1.1**	**0.9**	**47.3**	**1.0**	**0.8**	**100.0**
성별										
남성	(415)	25.8	15.4	7.2	1.2	1.0	47.5	0.7	1.2	100.0
여성	(385)	28.1	14.5	7.0	1.0	0.8	47.0	1.3	0.3	100.0
연령대										
20-24세	(219)	14.2	5.5	1.4	0.5		76.7	0.5	1.4	100.0
25-29세	(186)	18.8	5.9	4.8	1.6	1.1	66.1	0.5	1.1	100.0
30-34세	(185)	36.2	17.3	7.6	0.5	0.5	36.2	1.1	0.5	100.0
35-39세	(210)	39.0	31.0	14.8	1.9	1.9	9.5	1.9		100.0
거주 지역										
장안구	(182)	24.2	14.3	7.7	1.6	1.6	50.0	0.5		100.0
권선구	(245)	35.1	15.9	4.1	0.4	1.2	42.0		1.2	100.0
팔달구	(126)	21.4	11.1	4.8	1.6	0.8	54.8	4.0	1.6	100.0
영통구	(247)	23.5	16.6	10.9	1.2		46.6	0.8	0.4	100.0
취업상태										
취업	(449)	30.1	19.2	7.3	1.3	1.3	38.1	1.6	1.1	100.0
미취업	(351)	22.8	9.7	6.8	0.9	0.3	59.0	0.3	0.3	100.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29.6	13.6	6.5	1.2	2.4	43.2	2.4	1.2	100.0
대학교 재학	(231)	17.3	4.3	3.5	0.9	0.4	73.6			100.0
대학교 졸업 이상	(400)	31.3	21.8	9.5	1.3	0.5	33.8	1.0	1.0	100.0

■ 배우자 부모님

○ 배우자 부모님댁 방문 빈도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들의 67.4%가 ‘해당 없음’ 이라고 응답함

- 기혼자 중에서는 14.4%가 ‘1달에 1번 이상’ 이라고 응답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고, ‘2~3달에 1번 정도’ 라고 응답한 비율이 8.8%, ‘6개월에 1번 정도’ 가 6.8% 등의 순으로 나타남

(단위 : %)



<그림 4-97> 배우자 부모님댁 방문 빈도

○ 성별에 관계없이 기혼 남녀 모두 ‘1달에 1번 이상’ 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여성 응답률 17.4%, 남성 응답률 11.6%)

○ 연령대에 관계없이 기혼자 모두 ‘1달에 1번 이상’ 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특히 35~39세의경우에는 ‘1달에 1번 이상’ 방문한다는 응답이 28.1%로 가장 높음

○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1달에 1번 이상’ 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 응답자 중 권선구 거주자가 17.6%로 가장 많았고, 영통구 거주자가 11.7%로 가장 적었는데, 영통구 거주자는 ‘2~3달에 1번 정도’ 라고 응답한 비율도 11.7%로 같게 나타남

○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기혼자 모두 ‘1달에 1번 이상’ 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취업자 응답률 16.7%, 미취업자 응답률 11.4%)

○ 학력에 관계없이 기혼자 모두 ‘1달에 1번 이상’ 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 응답한 비율은 대학교 졸업 이상 응답자가 20.3%로 가장 높았고, 대학교 재학생은 2.2%로 가장 낮음

<표 4-104> 응답자 특성별 배우자 부모님댁 방문 빈도

(단위 : %)

	사례수 (명)	1달에 1번 이상	2~3달에 1번 정도	6개월에 1번 정도	1년에 1번 정도	거의 방문하지 않음	부모님과 동거	부모님 안계심	해당 없음	계
전체	**(800)**	**14.4**	**8.8**	**6.8**	**1.1**	**0.6**	**0.5**	**0.5**	**67.4**	**100.0**
성별										
남성	(415)	11.6	7.7	7.5	1.4	0.2	0.2	0.5	70.8	100.0
여성	(385)	17.4	9.9	6.0	0.8	1.0	0.8	0.5	63.6	100.0
연령대										
20-24세	(219)	0.5							99.5	100.0
25-29세	(186)	3.2	2.2		0.5	0.5	0.5		93.0	100.0
30-34세	(185)	26.5	10.8	6.5	2.2	1.1	0.5	0.5	51.9	100.0
35-39세	(210)	28.1	21.9	20.0	1.9	1.0	1.0	1.4	24.8	100.0
거주 지역										
장안구	(182)	14.8	7.1	5.5	0.5	1.1		0.5	70.3	100.0
권선구	(245)	17.6	8.6	5.7	2.0	0.8	0.8	0.8	63.7	100.0
팔달구	(126)	12.7	5.6	3.2	1.6	0.8	0.8		75.4	100.0
영통구	(247)	11.7	11.7	10.5	0.4		0.4	0.4	64.8	100.0
취업상태										
취업	(449)	16.7	11.6	6.7	1.6	0.7	0.4	0.9	61.5	100.0
미취업	(351)	11.4	5.1	6.8	0.6	0.6	0.6		74.9	100.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17.2	5.9	3.0	0.6	2.4	0.6	0.6	69.8	100.0
대학교 재학	(231)	2.2	1.3	0.9					95.7	100.0
대학교 졸업 이상	(400)	20.3	14.3	11.8	2.0	0.3	0.8	0.8	50.0	100.0

■ 부모님 동거 사유

○ ‘분가하지 않고 함께 살고 있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들의 42.4%가 ‘내가 아직 미혼이라서’라고 응답함

- 이어서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39.3%, ‘부모님과 함께 사는 집이 더 편리해서’가 8.6%등의 순으로 나타남

(단위 : %)

<그림 4-98> 부모님 동거 사유

○ 성별에 따라서 남성의 경우 ‘내가 아직 미혼이라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43.9%로 가장 높고, 여성은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해서’라는 응답이 41.3%로 가장 많았음

○ 20~25세만이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많았고, 나머지 연령대는 모두 ‘내가 아직 미혼이라서’ 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30~34세의 경우가 55.9%로 가장 높았고, 35~39세의 경우는 27.3%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임

○ 장안구와 팔달구 거주자는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권선구와 영통구 거주자는 ‘내가 아직 미혼이라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취업자의 53.2%는 ‘내가 아직 미혼이라서’라고 답하였고, 미취업자의 52.6%는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해서’라고 응답함

○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응답자와 대학교 졸업 이상 응답자의 경우에는 ‘내가 아직 미혼이라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대학교 재학생은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해서’ 분가하지 않고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고 응답함

<표 4-105> 응답자 특성별 부모님 동거 사유

(단위 : %)

	사례수 (명)	내가 아직 미혼이라서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해서	가사나 자녀양육에 부모의 도움이 필요해서	따로 살 집을 마련할 수 없어서	부모님이 사실 곳이 마땅치 않아서	부모님을 돌봐드려야 해서	부모님이 함께 사는 것을 원하셔서	부모님과 함께 사는 집이더 편리해서	기타	계
전체	**(382)**	**42.4**	**39.3**	**1.0**	**2.6**	**0.3**	**1.3**	**4.2**	**8.6**	**0.3**	**100.0**
성별											
남성	(198)	43.9	37.4		3.0	0.5	1.5	4.0	9.1	0.5	100.0
여성	(184)	40.8	41.3	2.2	2.2		1.1	4.3	8.2		100.0
연령대											
20-24세	(168)	36.3	48.8		3.0		0.6	4.2	7.1		100.0
25-29세	(124)	46.0	42.7	0.8	2.4		0.8	3.2	4.0		100.0
30-34세	(68)	55.9	14.7		2.9		2.9	5.9	16.2	1.5	100.0
35-39세	(22)	27.3	22.7	13.6		4.5	4.5	4.5	22.7		100.0
거주 지역											
장안구	(91)	34.1	44.0		4.4	1.1		6.6	8.8	1.1	100.0
권선구	(105)	44.8	39.0	1.9	1.9		1.0	4.8	6.7		100.0
팔달구	(70)	38.6	44.3	1.4	2.9		2.9	2.9	7.1		100.0
영통구	(116)	49.1	32.8	0.9	1.7		1.7	2.6	11.2		100.0
취업상태											
취업	(173)	53.2	23.1	1.7	2.3	0.6	1.7	2.9	13.9	0.6	100.0
미취업	(209)	33.5	52.6	0.5	2.9		1.0	5.3	4.3		100.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74)	50.0	31.1	1.4	4.1		1.4	4.1	8.1		100.0
대학교 재학	(170)	36.5	51.8		2.4		0.6	3.5	5.3		100.0
대학교 졸업 이상	(138)	45.7	28.3	2.2	2.2	0.7	2.2	5.1	13.0	0.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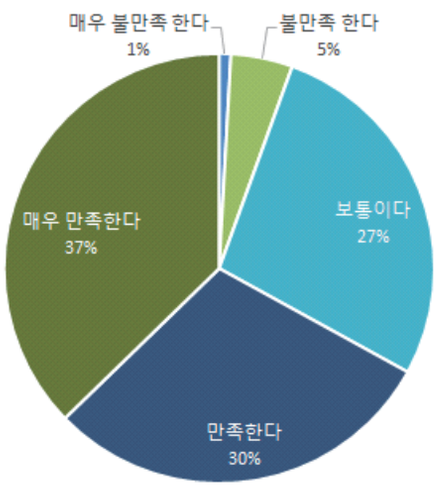
다. 부모님과의 관계

■ 본인의 부모님과의 관계 만족도

○ 본인의 부모님과의 관계 만족도에 대한 만족도의 평균은 4.0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 긍정 응답률이 66.8%로 가장 높음

(단위 : %)



<그림 4-99> 본인의 부모님과의 관계 만족도

○ 남성 평균 3.9, 여성 평균 4.0으로 남녀 모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남성 긍정 응답률 64.3%, 여성 긍정 응답률 69.4%)

○ 연령에 관계없이 모두 평균이 3.9~4.1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 연령대에 관계없이 긍정 응답률이 가장 높은데 특히 20~24세의 긍정 응답률이 72.1%로 가장 높음

○ 거주 지역별로 보았을 때 영통구 거주자가 평균 4.1고 가장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지역 거주자 평균도 3.8~3.9로 보통은 넘는 것으로 나타남

-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긍정 응답률이 가장 높았는데 영통구 거주자가 74.9%로 가장 높음

○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평균 4.0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취업자 긍정 응답률 65.9%, 미취업자 긍정 응답률 67.8%)

○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응답자의 경우 평균 3.9로 긍정에 약간 미치지 못하였고 나머지 학력에서는 모두 4.0 이상의 평균을 가짐

- 학력에 관계없이 긍정 응답률이 가장 높고, 특히 대학교 재학생이 71.4%로 가장 높음

<표 4-106> 본인의 부모님과의 관계 만족도

(단위 :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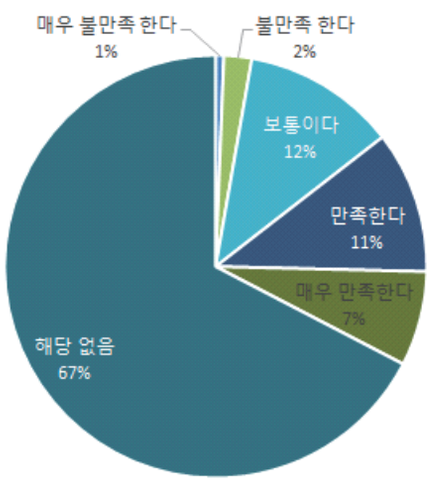
	사례수 (명)	매우 불만족한다	←	①+②	보통이다	→	매우 만족한다	④+⑤	해당 없음	계	평균
전체	**(800)**	**0.9**	**4.6**	**5.5**	**27.4**	**29.6**	**37.1**	**66.8**	**0.4**	**100.0**	**4.0**
성별											
남성	(415)	1.0	4.8	5.8	29.9	28.2	36.1	64.3		100.0	3.9
여성	(385)	0.8	4.4	5.2	24.7	31.2	38.2	69.4	0.8	100.0	4.0
연령대											
20-24세	(219)	0.5	5.5	5.9	21.5	30.1	42.0	72.1	0.5	100.0	4.1
25-29세	(186)	1.6	5.4	7.0	28.5	26.9	37.6	64.5		100.0	3.9
30-34세	(185)	1.1	4.3	5.4	25.9	30.8	37.3	68.1	0.5	100.0	4.0
35-39세	(210)	0.5	3.3	3.8	33.8	30.5	31.4	61.9	0.5	100.0	3.9
거주 지역											
장안구	(182)	1.1	6.6	7.7	31.9	19.8	40.7	60.4		100.0	3.9
권선구	(245)		4.9	4.9	27.8	35.1	32.2	67.3		100.0	3.9
팔달구	(126)	2.4	4.8	7.1	32.5	27.8	31.0	58.7	1.6	100.0	3.8
영통구	(247)	0.8	2.8	3.6	21.1	32.4	42.5	74.9	0.4	100.0	4.1
취업상태											
취업	(449)	1.1	4.5	5.6	28.1	28.5	37.4	65.9	0.4	100.0	4.0
미취업	(351)	0.6	4.8	5.4	26.5	31.1	36.8	67.8	0.3	100.0	4.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1.8	3.6	5.3	31.4	28.4	33.7	62.1	1.2	100.0	3.9
대학교 재학	(231)	0.4	4.3	4.8	23.8	32.0	39.4	71.4		100.0	4.1
대학교 졸업 이상	(400)	0.8	5.3	6.0	27.8	28.8	37.3	66.0	0.3	100.0	4.0

■ 배우자 부모님과의 관계 만족도

○ 배우자 부모님과의 관계 만족도에 대한 만족도의 평균은 3.7로 보통은 넘는 것으로 나타남

- 긍정 응답률이 18.1%로 가장 높음 (해당없음 67.4%)

(단위 : %)



<그림 4-100> 배우자 부모님과의 관계 만족도

○ 남성 평균 3.8, 여성 평균 3.6으로 남녀 평균 모두 보통을 넘는 것으로 나타남 (남성 긍정 응답률 17.1%, 여성 긍정 응답률 19.2%)

○ 연령별로 보았을 때 20~24세의 평균은 3.0으로 보통인 것으로 나타났고, 25~29세의 평균은 4.1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30대는 모두 평균 3.7로 보통을 넘는 것으로 나타남

- 20~24세를 제외하고는 긍정 응답률이 가장 높은데 20~24세의 경우에는 '해당 없음' 비율이 99.5%를 차지해 기혼자 비율이 매우 낮음

○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모두 평균이 보통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 권선구와 영통구 거주 기혼 응답자는 긍정 응답률이 가장 높고, 장안구와 팔달구거주 기혼 응답자 중에는 '보통이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평균이 보통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취업자 긍정 응답률 22.3%, 미취업자 긍정 응답률 12.8%)

○ 학력에 관계없이 모두 평균이 보통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응답자와 대학교 졸업 이상 기혼 응답자의 경우 긍정 응답률이 가장 높고, 대학교 재학생의 경우 '해당없음' 이 95.7%를 차지해 기혼자 비율이 매우 낮음

<표 4-107> 응답자 특성별 배우자 부모님과의 관계 만족도

(단위 :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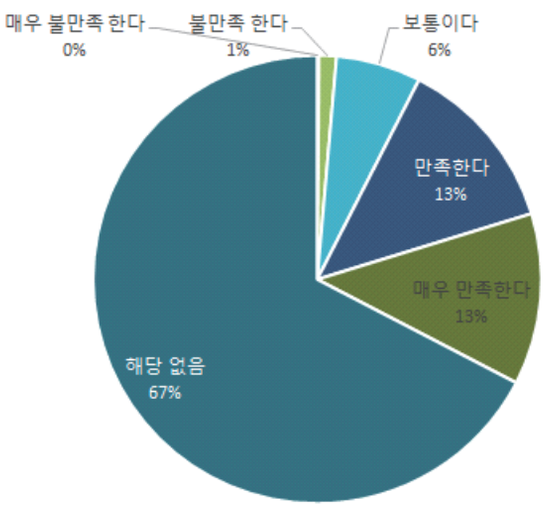
	사례수 (명)	매우 불만족 한다	←	①+②	보통이 다	→	매우 만족한 다	④+⑤	해당 없음	계	평균
전체	**(800)**	**0.6**	**2.1**	**2.8**	**11.8**	**10.9**	**7.3**	**18.1**	**67.4**	**100.0**	**3.7**
성별											
남성	(415)	0.5	0.7	1.2	10.8	9.2	8.0	17.1	70.8	100.0	3.8
여성	(385)	0.8	3.6	4.4	12.7	12.7	6.5	19.2	63.6	100.0	3.6
연령대											
20-24세	(219)				0.5				99.5	100.0	3.0
25-29세	(186)				2.2	2.2	2.7	4.8	93.0	100.0	4.1
30-34세	(185)	2.2	2.7	4.9	15.1	17.8	10.3	28.1	51.9	100.0	3.7
35-39세	(210)	0.5	5.7	6.2	29.0	23.8	16.2	40.0	24.8	100.0	3.7
거주 지역											
장안구	(182)	1.1	1.6	2.7	14.8	4.9	7.1	12.1	70.3	100.0	3.5
권선구	(245)	0.8	3.3	4.1	10.6	14.7	6.9	21.6	63.7	100.0	3.7
팔달구	(126)				12.7	7.9	4.0	11.9	75.4	100.0	3.6
영통구	(247)	0.4	2.4	2.8	10.1	13.0	9.3	22.3	64.8	100.0	3.8
취업상태											
취업	(449)	0.4	2.0	2.4	13.8	12.0	10.2	22.3	61.5	100.0	3.8
미취업	(351)	0.9	2.3	3.1	9.1	9.4	3.4	12.8	74.9	100.0	3.5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0.6	1.8	2.4	11.2	10.7	5.9	16.6	69.8	100.0	3.6
대학교 재학	(231)	0.4		0.4	2.2	1.7		1.7	95.7	100.0	3.2
대학교 졸업 이상	(400)	0.8	3.5	4.3	17.5	16.3	12.0	28.3	50.0	100.0	3.7

■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

○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에 대한 만족도의 평균은 4.1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 긍정 응답률이 25.1%로 가장 높음 (해당없음 67.4%)

(단위 : %)



<그림 4-101>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

○ 남성 평균 4.2, 여성 평균 4.0으로 남녀 평균 모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남성 긍정 응답률 24.1%, 여성 긍정 응답률 26.2%)

○ 연령에 관계없이 모두 평균 4.0~4.2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 전 연령대에서 모두 긍정 응답률이 가장 높은데 20~24세의 경우에는 '해당 없음' 비율이 99.5%를 차지해 기혼자 비율이 매우 낮음

○ 거주 지역별로 보았을 때 장안구 거주자는 평균 3.9로 긍정에 약간 미치지 못하고 나머지 지역 거주자는 모두 평균 4.0 이상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기혼 응답자 모두 긍정 응답률이 가장 높음

○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평균 4.1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취업자 긍정 응답률 29.8%, 미취업자 긍정 응답률 19.1%)

○ 대학교 재학생의 평균은 3.4로 보통은 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응답자와 대학교 졸업 이상 응답자는 평균 4.0 이상으로 긍정정인 것으로 나타남

-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응답자와 대학교 졸업 이상 기혼 응답자의 경우 긍정 응답률이 가장 높고, 대학교 재학생의 경우 긍정 응답률과 '보통이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2.2%로 같게 나타남 (대학교 재학생의 경우 '해당없음' 이 95.7%)

<표 4-108> 응답자 특성별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

(단위 :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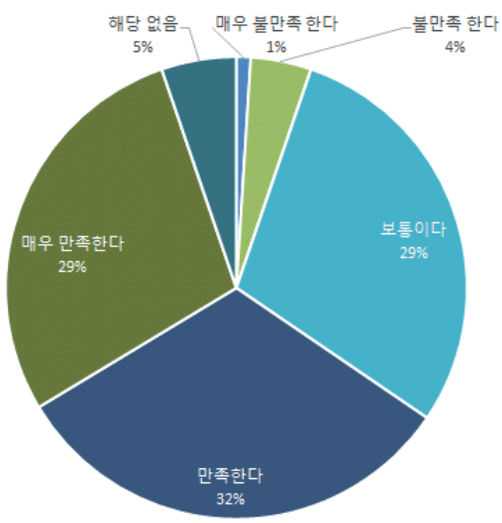
	사례수 (명)	매우 불만족 한다	←	①+②	보통이다	→	매우 만족한다	④+⑤	해당 없음	계	평균
전체	**(800)**	**0.1**	**1.3**	**1.4**	**6.1**	**12.8**	**12.4**	**25.1**	**67.4**	**100.0**	**4.1**
성별											
남성	(415)		1.2	1.2	3.9	12.3	11.8	24.1	70.8	100.0	4.2
여성	(385)	0.3	1.3	1.6	8.6	13.2	13.0	26.2	63.6	100.0	4.0
연령대											
20-24세	(219)					0.5		0.5	99.5	100.0	4.0
25-29세	(186)		1.1	1.1		2.7	3.2	5.9	93.0	100.0	4.2
30-34세	(185)		2.2	2.2	7.6	19.5	18.9	38.4	51.9	100.0	4.1
35-39세	(210)	0.5	1.9	2.4	16.7	28.6	27.6	56.2	24.8	100.0	4.1
거주 지역											
장안구	(182)	0.5	1.6	2.2	7.7	9.9	9.9	19.8	70.3	100.0	3.9
권선구	(245)		0.8	0.8	5.3	15.1	15.1	30.2	63.7	100.0	4.2
팔달구	(126)		0.8	0.8	6.3	9.5	7.9	17.5	75.4	100.0	4.0
영통구	(247)		1.6	1.6	5.7	14.2	13.8	27.9	64.8	100.0	4.1
취업상태											
취업	(449)	0.2	1.8	2.0	6.7	15.1	14.7	29.8	61.5	100.0	4.1
미취업	(351)		0.6	0.6	5.4	9.7	9.4	19.1	74.9	100.0	4.1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0.6	1.2	1.8	7.1	10.7	10.7	21.3	69.8	100.0	4.0
대학교 재학	(231)		0.4	0.4	1.7	2.2		2.2	95.7	100.0	3.4
대학교 졸업 이상	(400)		1.8	1.8	8.3	19.8	20.3	40.0	50.0	100.0	4.2

■ 형제·자매와의 관계 만족도

○ 형제·자매와의 관계 만족도에 대한 만족도의 평균은 3.9로 긍정적임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남

- 긍정 응답률이 60.3%로 가장 높음 (해당없음 5.3%)

(단위 : %)



<그림 4-102> 형제·자매와의 관계 만족도

○ 남성 평균 3.8, 여성 평균 3.9로 남녀 평균 모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남성 긍정 응답률 57.1%, 여성 긍정 응답률 63.6%)

○ 연령별로 보았을 때 25~39세는 평균 3.8~3.9로 긍정에 약간 미치지 못하고 20~24세는 평균 4.0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 전 연령대에서 모두 긍정 응답률이 가장 높음

○ 거주 지역별로 보았을 때 영통구 거주자는 평균 4.0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났고, 그 외 지역 거주자는 평균 3.8~3.9로 긍정에 약간 미치지 못함

- 전 지역에서 모두 긍정 응답률이 가장 높음

○ 취업 여부에 따라 취업자 평균 3.8, 미취업자 평균 3.9로 긍정에 약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취업자 긍정 응답률 63.0%, 미취업자 긍정 응답률 58.1%)

○ 대학교 재학생의 평균은 4.0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응답자와 대학교 졸업 이상 응답자는 평균이 긍정에 약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학력에 관계없이 긍정 응답률이 가장 높음

<표 4-109> 응답자 특성별 형제·자매와의 관계 만족도

(단위 : %, 점)

	사례수 (명)	매우 불만족 한다	←	①+②	보통이 다	→	매우 만족한 다	④+⑤	해당 없음	계	평균
전체	**(800)**	**1.0**	**4.3**	**5.3**	**29.3**	**31.9**	**28.4**	**60.3**	**5.3**	**100.0**	**3.9**
성별											
남성	(415)	1.4	4.1	5.5	30.8	30.8	26.3	57.1	6.5	100.0	3.8
여성	(385)	0.5	4.4	4.9	27.5	33.0	30.6	63.6	3.9	100.0	3.9
연령대											
20-24세	(219)	0.5	4.1	4.6	24.7	34.2	31.1	65.3	5.5	100.0	4.0
25-29세	(186)	1.6	5.9	7.5	27.4	28.5	29.0	57.5	7.5	100.0	3.8
30-34세	(185)	1.6	3.8	5.4	28.6	31.4	28.6	60.0	5.9	100.0	3.9
35-39세	(210)	0.5	3.3	3.8	36.2	32.9	24.8	57.6	2.4	100.0	3.8
거주 지역											
장안구	(182)		6.0	6.0	30.8	20.9	36.8	57.7	5.5	100.0	3.9
권선구	(245)	1.2	3.7	4.9	31.4	40.4	19.6	60.0	3.7	100.0	3.8
팔달구	(126)	2.4	4.0	6.3	29.4	28.6	26.2	54.8	9.5	100.0	3.8
영통구	(247)	0.8	3.6	4.5	25.9	33.2	32.0	65.2	4.5	100.0	4.0
취업상태											
취업	(449)	1.3	3.8	5.1	31.6	30.7	27.4	58.1	5.1	100.0	3.8
미취업	(351)	0.6	4.8	5.4	26.2	33.3	29.6	63.0	5.4	100.0	3.9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3.0	3.6	6.5	31.4	34.9	22.5	57.4	4.7	100.0	3.7
대학교 재학	(231)		3.5	3.5	27.7	32.0	32.5	64.5	4.3	100.0	4.0
대학교 졸업 이상	(400)	0.8	5.0	5.8	29.3	30.5	28.5	59.0	6.0	100.0	3.9

2) 여가문화

(1) 여가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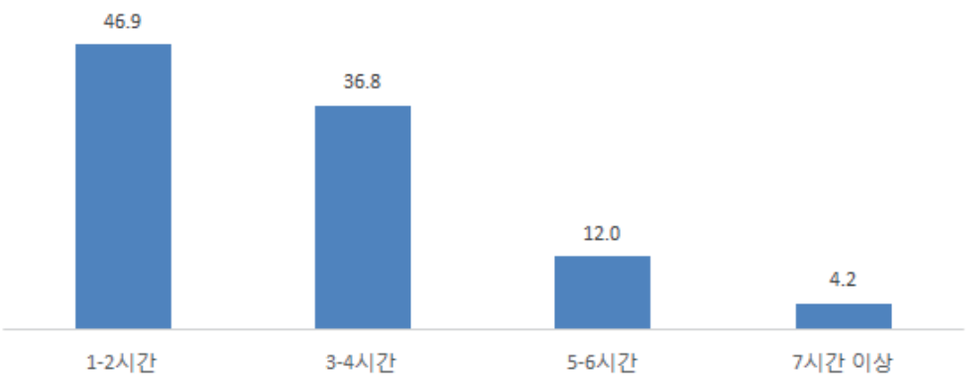
가. 하루 평균 여가 시간

■ 평일 하루 평균 여가 시간

○ 평일 하루 평균 여가 시간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들의 46.9%가 '1~2시간'이라고 응답함

- 이어서 '3~4시간'이 36.8%, '5~6시간'이 12.0%, '7시간 이상'이 4.2% 순으로 나타남

(단위 : %)



<그림 4-103> 평일 하루 평균 여가 시간

○ 성별에 관계없이 남녀 모두 '1~2시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 여성의 응답 비율은 45.2%, 남성은 48.5%로 남성의 응답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24세의 경우 '3~4시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5.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1~2시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 응답 비율은 35~39세가 57.9%로 가장 높았고, 25~29세가 44.8%로 가장 낮음.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여가 시간이 짧아지는 경향을 보임

○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1~2시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 응답 비율은 영통구 거주자가 54.1%로 가장 높았고, 장안구 거주자가 39.2%로 가장 낮게 나타남. 장안구 거주자는 '3~4시간'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39.2%인 것으로 나타남

○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1~2시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 미취업자가 41.0%, 취업자가 51.6%로 미취업자의 평균 여가 시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응답자와 대학교 졸업 이상 응답자는 '1~2시간' 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대학교 재학생의 경우에는 '3~4시간' 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4.3%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4-110> 응답자 특성별 평일 하루 평균 여가 시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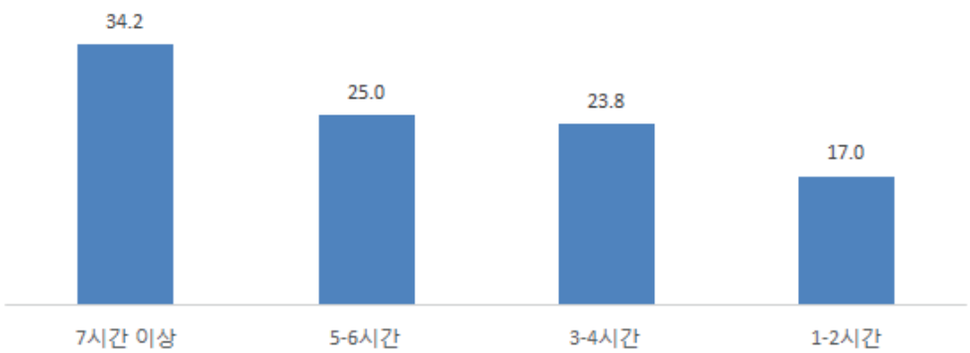
	사례수 (명)	1-2시간	3-4시간	5-6시간	7시간 이상	계
전체	**(782)**	**46.9**	**36.8**	**12.0**	**4.2**	**100.0**
성별						
남성	(406)	48.5	36.5	11.6	3.4	100.0
여성	(376)	45.2	37.2	12.5	5.1	100.0
연령대						
20-24세	(216)	32.4	45.4	14.8	7.4	100.0
25-29세	(183)	44.8	39.3	12.0	3.8	100.0
30-34세	(181)	54.1	32.0	11.0	2.8	100.0
35-39세	(202)	57.9	29.7	9.9	2.5	100.0
거주 지역						
장안구	(171)	39.2	39.2	17.0	4.7	100.0
권선구	(244)	45.5	40.6	11.1	2.9	100.0
팔달구	(121)	46.3	37.2	10.7	5.8	100.0
영통구	(246)	54.1	31.3	10.2	4.5	100.0
취업상태						
취업	(436)	51.6	35.3	11.2	1.8	100.0
미취업	(346)	41.0	38.7	13.0	7.2	100.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4)	53.0	36.0	10.4	0.6	100.0
대학교 재학	(228)	35.5	44.3	13.2	7.0	100.0
대학교 졸업 이상	(390)	51.0	32.8	12.1	4.1	100.0

■ 휴일 하루 평균 여가 시간

○ 휴일 하루 평균 여가 시간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들의 34.2%가 ‘7시간 이상’ 이라고 응답함

- 이어서 ‘5~6시간’ 이 25.0%, ‘3~4시간’ 이 23.8%, ‘1~2시간’ 이 17.0% 순으로 나타남

(단위 : %)



<그림 4-104> 휴일 하루 평균 여가 시간

○ 성별에 관계없이 남녀 모두 ‘7시간 이상’ 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 여성의 응답 비율은 31.0%, 남성은 37.1%로 남성의 응답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대에 관계없이 ‘7시간 이상’ 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 응답 비율은 25~29세가 41.9%로 가장 높았고, 35~39세가 27.5%로 가장 낮음

○ 권선구 거주자는 ‘5~6시간’ 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나머지 지역 거주자는 ‘7시간 이상’ 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 응답 비율은 장안구 거주자가 45.4%로 가장 높았고, 팔달구 거주자가 34.7%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7시간 이상’ 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 미취업자의 32.6%, 취업자의 35.5%가 휴일에 7시간 이상 여가 시간을 갖는 것으로 나타남

○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응답자는 ‘3~4시간’ 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0.7%로 가장 높고, 대학교 재학생과 대학교 졸업 이상 응답자의 경우에는 ‘7시간 이상’ 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38.3%, 34.4%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4-111> 응답자 특성별 휴일 하루 평균 여가 시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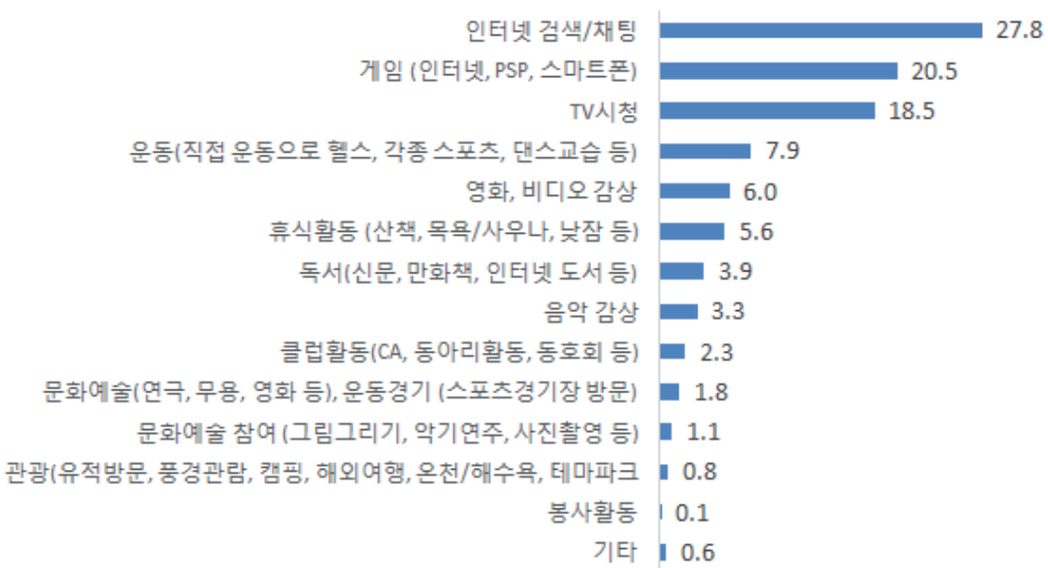
	사례수 (명)	1-2시간	3-4시간	5-6시간	7시간 이상	계
전체	**(789)**	**17.0**	**23.8**	**25.0**	**34.2**	**100.0**
성별						
남성	(412)	14.1	25.0	23.8	37.1	100.0
여성	(377)	20.2	22.5	26.3	31.0	100.0
연령대						
20-24세	(217)	6.0	28.1	28.1	37.8	100.0
25-29세	(186)	16.7	18.3	23.1	41.9	100.0
30-34세	(182)	19.2	23.1	28.0	29.7	100.0
35-39세	(204)	27.0	25.0	20.6	27.5	100.0
거주 지역						
장안구	(174)	14.4	21.8	18.4	45.4	100.0
권선구	(244)	11.5	29.1	34.8	24.6	100.0
팔달구	(124)	18.5	26.6	20.2	34.7	100.0
영통구	(247)	23.5	18.6	22.3	35.6	100.0
취업상태						
취업	(445)	16.6	22.9	24.9	35.5	100.0
미취업	(344)	17.4	25.0	25.0	32.6	100.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6)	15.7	30.7	25.3	28.3	100.0
대학교 재학	(230)	10.4	27.4	23.9	38.3	100.0
대학교 졸업 이상	(393)	21.4	18.8	25.4	34.4	100.0

나. 주요 여가 활동

■ 평일 주요 여가 활동

○ 평일 주요 여가 활동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들의 27.8%가 ‘인터넷 검색 / 채팅’ 이라고 응답함
- 이어서 ‘게임(인터넷, PSP, 스마트폰)’ 이 20.5%, ‘TV시청’ 이 18.5% 순으로 나타남

(단위 : %)



<그림 4-105> 평일 주요 여가 활동

○ 성별에 따라서 남자는 ‘게임(인터넷, PSP, 스마트폰)’ 을 주로 한다는 응답이 30.6%로 가장 높았고, 여성은 ‘인터넷 검색 / 채팅’ 을 한다는 응답이 29.4%로 가장 높음

○ 20~34세는 모두 ‘인터넷 검색 / 채팅’ 를 주로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35~39세는 ‘TV시청’ 을 주로 한다는 응답이 30.5%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장안구, 권선구, 영통구 거주자는 ‘인터넷 검색 / 채팅’ 을 주로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팔달구 거주자는 ‘게임(인터넷, PSP, 스마트폰)’ 을 주로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인터넷 검색 / 채팅’ 을 주로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응답자는 ‘게임(인터넷, PSP, 스마트폰)’ 을 주로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27.8%로 가장 높았고, 대학교 재학생과 대학교 졸업 이상 응답자의 경우에는 ‘인터넷 검색 / 채팅’ 을 주로 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29.9%, 27.8%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4-112> 응답자 특성별 평일 주요 여가 활동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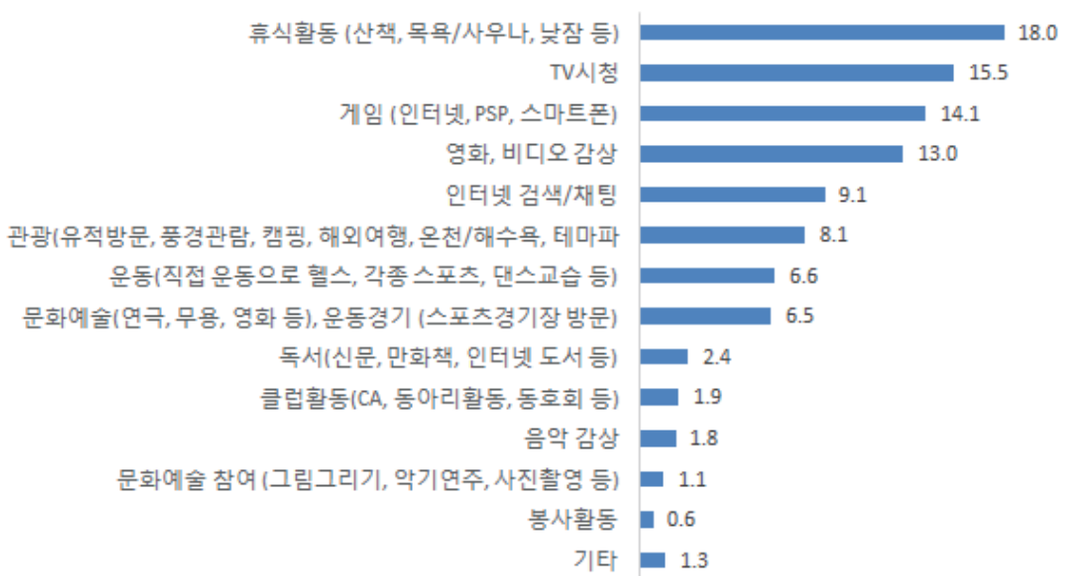
	사례수 (명)	클럽 활동	인터넷 검색/채팅	게임 (인터넷, PSP, 스마트폰)	TV시청	독서 (만화책, 인터넷 도서 등)	영화, 비디오 감상	음악 감상	문화 예술 참여	운동 (직접 운동)	문화 예술, 운동 경기 관람	봉사 활동	관광 (유적 방문, 풍경 관람, 해외 여행 등)	휴식 활동 (산책, 낮잠 등)	기타	계
전체	**(800)**	**2.3**	**27.8**	**20.5**	**18.5**	**3.9**	**6.0**	**3.3**	**1.1**	**7.9**	**1.8**	**0.1**	**0.8**	**5.6**	**0.6**	**100.0**
성별																
남성	(415)	2.4	26.3	30.6	15.2	3.4	6.3	1.9	1.2	7.7	1.4		0.5	2.9	0.2	100.0
여성	(385)	2.1	29.4	9.6	22.1	4.4	5.7	4.7	1.0	8.1	2.1	0.3	1.0	8.6	1.0	100.0
연령대																
20-24세	(219)	0.9	31.1	24.7	10.0	3.2	6.4	6.8	0.5	4.1	3.2		0.9	5.9	2.3	100.0
25-29세	(186)	3.8	29.6	18.8	13.4	7.5	7.0	1.6	1.1	9.7	1.1	0.5		5.9		100.0
30-34세	(185)	2.7	27.0	23.2	20.0	2.2	4.3	2.7	2.2	8.1	0.5		0.5	6.5		100.0
35-39세	(210)	1.9	23.3	15.2	30.5	2.9	6.2	1.4	1.0	10.0	1.9		1.4	4.3		100.0
거주 지역																
장안구	(182)	2.2	19.8	15.9	18.7	7.1	6.6	2.7	2.2	12.1	1.6			9.3	1.6	100.0
권선구	(245)	2.0	26.1	22.0	21.2	1.6	4.9	2.9	0.4	9.4	1.2	0.4	1.2	6.1	0.4	100.0
팔달구	(126)	3.2	22.2	24.6	15.9	6.3	7.9	4.0	1.6	8.7	3.2			2.4		100.0
영통구	(247)	2.0	38.1	20.2	17.0	2.4	5.7	3.6	0.8	2.8	1.6		1.2	4.0	0.4	100.0
취업상태																
취업	(449)	2.7	25.8	22.3	21.6	3.8	5.8	2.4	0.7	7.1	1.3	0.2	0.7	5.3	0.2	100.0
미취업	(351)	1.7	30.2	18.2	14.5	4.0	6.3	4.3	1.7	8.8	2.3		0.9	6.0	1.1	100.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3.6	24.9	27.8	20.7	1.8	6.5	3.6	0.6	5.3	0.6		0.6	4.1		100.0
대학교 재학	(231)	2.2	29.9	24.2	10.8	3.0	6.9	5.2	1.3	4.8	3.0		0.9	6.1	1.7	100.0
대학교 졸업 이상	(400)	1.8	27.8	15.3	22.0	5.3	5.3	2.0	1.3	10.8	1.5	0.3	0.8	6.0	0.3	100.0

■ 휴일

○ 휴일 주요 여가 활동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들의 18.0%가 ‘휴식활동 (산책, 목욕 / 사우나, 낮잠 등)’ 이라고 응답함

- 이어서 ‘TV시청’ 이 15.5%, ‘게임(인터넷, PSP, 스마트폰)’ 이 14.1%, ‘영화, 비디오 감상’ 이 13.0% 순으로 나타남

(단위 : %)



<그림 4-106> 휴일 주요 여가 활동

○ 성별에 따라서 남자는 ‘게임(인터넷, PSP, 스마트폰)’ 을 주로 한다는 응답이 20.7%로 가장 높았고, 여성은 ‘휴식활동 (산책, 목욕 / 사우나, 낮잠 등)’ 을 한다는 응답이 21.8%로 가장 높음

○ 20~24세는 ‘게임(인터넷, PSP, 스마트폰)’ 을 주로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25~34세는 ‘휴식활동 (산책, 목욕 / 사우나, 낮잠 등)’ 을, 35~39세는 ‘TV시청’ 을 주로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장안구, 권선구 거주자는 ‘휴식활동 (산책, 목욕 / 사우나, 낮잠 등)’ 을 주로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팔달구 거주자는 ‘게임(인터넷, PSP, 스마트폰)’ 을 주로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영통구 거주자는 ‘TV시청’ 을 주로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 취업자는 ‘휴식활동 (산책, 목욕 / 사우나, 낮잠 등)’, 미취업자는 ‘TV시청’을 주로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응답자는 ‘TV시청’을 주로 한다는 응답이 17.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학교 재학생의 경우는 ‘게임(인터넷, PSP, 스마트폰)’을 주로 한다는 응답이 19.5%로 가장 높았으며, 대학교 졸업 이상 응답자의 경우에는 ‘휴식활동 (산책, 목욕 / 사우나, 낮잠 등)’을 주로 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0.8%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4-113> 응답자 특성별 휴일 주요 여가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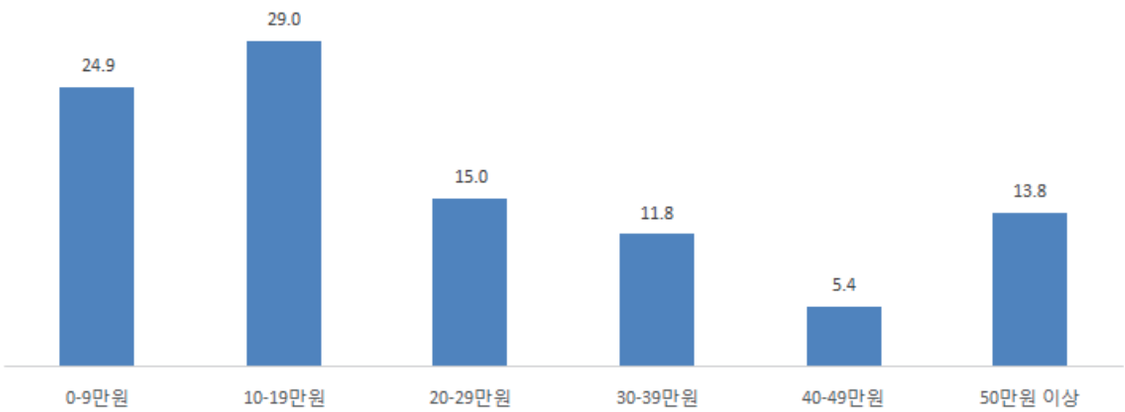
(단위 : %)

	사례수 (명)	클럽활동	인터넷 검색/ 채팅	게임 (인터넷, PSP, 스마트폰)	TV시청	독서 (만화책, 인터넷 도서 등)	영화, 비디오 감상	음악 감상	문화예술 참여	운동 (직접 운동)	문화예술, 운동경기 관람	봉사활동	관광 (유적 방문, 풍경관람, 해외여행 등)	휴식활동 (산책, 낮잠 등)	기타	계
전체	**(800)**	**1.9**	**9.1**	**14.1**	**15.5**	**2.4**	**13.0**	**1.8**	**1.1**	**6.6**	**6.5**	**0.6**	**8.1**	**18.0**	**1.3**	**100.0**
성별																
남성	(415)	2.2	8.7	20.7	11.6	2.2	13.7	1.9	1.4	9.6	5.3	0.5	6.0	14.5	1.7	100.0
여성	(385)	1.6	9.6	7.0	19.7	2.6	12.2	1.6	0.8	3.4	7.8	0.8	10.4	21.8	0.8	100.0
연령대																
20-24세	(219)	1.4	10.5	20.1	13.2	2.7	12.8	3.2	2.3	6.8	8.2	1.4	1.8	14.2	1.4	100.0
25-29세	(186)	1.1	10.8	16.1	7.0	4.3	17.2	1.1	1.6	5.9	8.6	0.5	7.0	18.3	0.5	100.0
30-34세	(185)	1.6	9.7	12.4	17.8	1.6	13.5	2.2	0.5	7.0	4.9	0.5	8.6	18.4	1.1	100.0
35-39세	(210)	3.3	5.7	7.6	23.3	1.0	9.0	0.5		6.7	4.3		15.2	21.4	1.9	100.0
거주 지역																
장안구	(182)	2.7	10.4	9.3	13.2	1.6	12.6	1.6	1.1	7.7	8.2	1.1	8.2	19.8	2.2	100.0
권선구	(245)	2.0	5.3	15.5	15.1	2.4	13.5	0.8	1.6	8.2	4.5		11.8	18.4	0.8	100.0
팔달구	(126)	3.2	11.9	17.5	8.7	3.2	15.9	1.6	0.8	4.0	10.3	0.8	8.7	11.1	2.4	100.0
영통구	(247)	0.4	10.5	14.6	21.1	2.4	11.3	2.8	0.8	5.7	5.3	0.8	4.0	19.8	0.4	100.0
취업상태																
취업	(449)	2.4	9.4	14.0	15.1	1.8	13.4	1.1	0.2	6.2	5.3	0.4	9.1	19.8	1.6	100.0
미취업	(351)	1.1	8.8	14.2	16.0	3.1	12.5	2.6	2.3	7.1	8.0	0.9	6.8	15.7	0.9	100.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4.1	8.3	16.6	17.8	1.8	16.6	0.6	0.6	4.1	5.9	1.2	6.5	13.0	3.0	100.0
대학교 재학	(231)	0.9	11.3	19.5	13.0	3.0	10.4	3.5	3.0	6.9	7.8	0.9	2.6	16.9	0.4	100.0
대학교 졸업 이상	(400)	1.5	8.3	10.0	16.0	2.3	13.0	1.3	0.3	7.5	6.0	0.3	12.0	20.8	1.0	100.0

다. 한 달 평균 여가 비용

○ 한 달 평균 여가 비용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들의 29.0%가 ‘10~19만원’이라고 응답함
- 이어서 ‘0~9만원’이 24.9%, ‘20~29만원’이 15.0%, ‘30~39만원’이 11.8%, ‘50만원 이상’이 13.8%, ‘40~49만원’ 5.4%를 각각 차지함

(단위 : %)



<그림 4-107> 한 달 평균 여가 비용

○ 성별에 따라서 남자는 ‘10~19만원’을 지출한다는 응답이 30.0%로 가장 높았고, 여성은 ‘0~9만원’을 지출한다는 응답이 28.9%로 가장 높음

○ 20~24세는 ‘0~9만원’을 지출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외 연령대는 ‘10~19만원’을 지출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장안구, 권선구, 영통구 거주자는 ‘10~19만원’을 지출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팔달구 거주자는 ‘0~9만원’을 지출한다는 응답이 30.0%로 가장 높았으며, 장안구 거주자는 ‘0~9만원’과 ‘10~19만원’의 응답 비율이 25.7%로 동일하게 나타남

○ 취업자들은 ‘10~19만원’을 지출한다는 응답이 28.8%로 가장 높았고, 미취업자들은 ‘0~9만원’을 지출한다는 응답이 35.6%로 가장 높음

○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응답자는 ‘10~19만원’을 지출한다는 응답이 26.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학교 재학생과 대학교 졸업 이상 응답자의 경우는 ‘10~19만원’을 지출한다는 응답이 각각 30.2%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4-114> 응답자 특성별 한 달 평균 여가 비용

(단위 : %, 만원)

	사례수 (명)	0-9만원	10-19만원	20-29만원	30-39만원	40-49만원	50만원 이상	계	평균
전체	**(778)**	**24.9**	**29.0**	**15.0**	**11.8**	**5.4**	**13.8**	**100.0**	**23.1**
성별									
남성	(404)	21.3	30.0	14.1	13.4	6.9	14.4	100.0	24.7
여성	(374)	28.9	28.1	16.0	10.2	3.7	13.1	100.0	21.3
연령대									
20-24세	(213)	28.6	27.7	16.0	10.8	6.6	10.3	100.0	20.9
25-29세	(182)	23.1	27.5	11.0	16.5	3.8	18.1	100.0	25.9
30-34세	(180)	25.0	34.4	17.8	10.0	4.4	8.3	100.0	19.6
35-39세	(203)	22.7	27.1	15.3	10.3	6.4	18.2	100.0	26.0
거주 지역									
장안구	(171)	25.7	25.7	13.5	12.9	5.8	16.4	100.0	26.2
권선구	(241)	20.7	29.5	16.2	12.9	5.0	15.8	100.0	24.2
팔달구	(120)	30.0	26.7	13.3	13.3	5.0	11.7	100.0	21.1
영통구	(246)	26.0	32.1	15.9	9.3	5.7	11.0	100.0	20.8
취업상태									
취업	(438)	16.7	28.8	16.7	13.9	7.5	16.4	100.0	26.3
미취업	(340)	35.6	29.4	12.9	9.1	2.6	10.3	100.0	18.9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2)	26.5	24.7	22.2	9.9	5.6	11.1	100.0	21.1
대학교 재학	(225)	28.9	30.2	15.1	11.6	4.4	9.8	100.0	20.6
대학교 졸업 이상	(391)	22.0	30.2	12.0	12.8	5.9	17.1	100.0	2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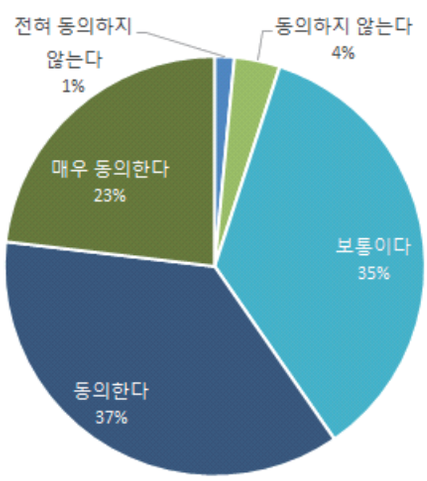
라. 여가 활동 인식

■ 여가활동 중요도

○ ‘여가활동은 나의 삶에서 다른 활동에 비해 중요한 부분이다’에 대한 동의 여부 평균은 3.8로 보통을 넘는 것으로 나타남

- 긍정 응답률이 59.6%로 가장 높음

(단위 :%)



<그림 4-108> 여가활동 중요도

○ 남녀 평균 모두 3.7~3.8로 보통을 넘는 것으로 나타남

- 성별에 관계없이 남녀 모두 긍정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남 (남성 54.5%, 여성 65.2%)

○ 연령에 관계없이 모두 평균 3.7~3.9로 보통을 넘는 것으로 나타남

- 전 연령대에서 긍정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남

○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모두 평균 3.7~3.8로 보통을 넘는 것으로 나타남

- 전 지역에서 긍정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평균 3.7~3.8로 보통을 넘는 것으로 나타남

- 취업자의 경우에는 35.0%가 ‘보통이다’라고 응답했으며 미취업자의 36.8%는 긍정적으로 응답함

○ 학력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응답자는 평균 3.6, 나머지 응답자는 평균 3.8로 약간의 차이를 보였지만 모두 보통을 넘는 것으로 나타남

- 학력에 관계없이 긍정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4-115> 응답자 특성별 여가활동 중요도

(단위 :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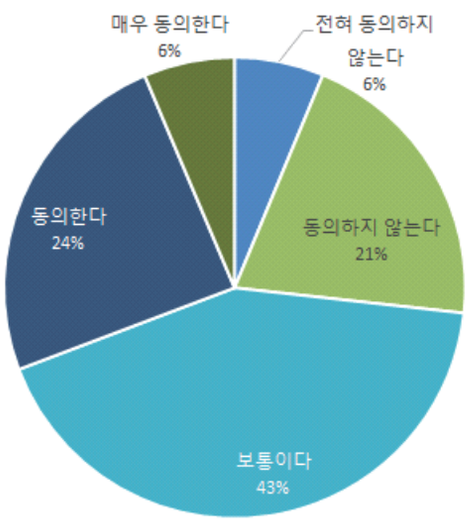
	사례수 (명)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①+②	보통이다	→	매우 동의한다	④+⑤	계	평균
전체	**(800)**	**1.5**	**3.5**	**5.0**	**35.4**	**36.5**	**23.1**	**59.6**	**100.0**	**3.8**
성별										
남성	(415)	1.7	3.1	4.8	40.7	30.4	24.1	54.5	100.0	3.7
여성	(385)	1.3	3.9	5.2	29.6	43.1	22.1	65.2	100.0	3.8
연령대										
20-24세	(219)	0.5	5.5	5.9	37.0	32.0	25.1	57.1	100.0	3.8
25-29세	(186)	1.1	3.2	4.3	29.0	38.2	28.5	66.7	100.0	3.9
30-34세	(185)	3.2	3.8	7.0	34.1	40.5	18.4	58.9	100.0	3.7
35-39세	(210)	1.4	1.4	2.9	40.5	36.2	20.5	56.7	100.0	3.7
거주 지역										
장안구	(182)	1.6	3.8	5.5	31.9	33.5	29.1	62.6	100.0	3.8
권선구	(245)	0.8	4.9	5.7	35.1	37.6	21.6	59.2	100.0	3.7
팔달구	(126)	4.8	4.0	8.7	31.0	33.3	27.0	60.3	100.0	3.7
영통구	(247)	0.4	1.6	2.0	40.5	39.3	18.2	57.5	100.0	3.7
취업상태										
취업	(449)	1.8	2.2	4.0	33.4	40.8	21.8	62.6	100.0	3.8
미취업	(351)	1.1	5.1	6.3	37.9	31.1	24.8	55.8	100.0	3.7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3.0	4.1	7.1	39.1	34.9	18.9	53.8	100.0	3.6
대학교 재학	(231)	0.9	5.2	6.1	35.9	33.3	24.7	58.0	100.0	3.8
대학교 졸업 이상	(400)	1.3	2.3	3.5	33.5	39.0	24.0	63.0	100.0	3.8

■ 여가활동 충족도

○ ‘나는 현재 여가활동을 충분히 하고 있다’에 대한 동의 여부 평균은 3.0으로 보통인 것으로 나타남

-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2.5%로 가장 높음

(단위 : %)



<그림 4-109> 여가활동 충족도

○ 남성 평균 3.1, 여성 평균 3.0로 보통인 것으로 나타남

- 성별에 관계없이 남녀 모두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남성 31.6%, 여성 29.9%)

○ 연령별로 보았을 때 20대의 평균은 3.1로 보통을 약간 넘고 30~34세의 평균은 3.0으로 보통, 그리고 35~39세의 평균은 2.9로 평균에 약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거주 지역별로 보았을 때 장안구 거주자는 평균 3.0으로 보통, 권선구와 영통구 거주자는 평균 3.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팔달구 거주자의 평균은 2.9로 가장 낮았음

○ 취업자 평균 3.1, 미취업자 평균 3.0으로 보통인 것으로 나타남

-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취업자 45.2%, 미취업자 39.0%)

○ 학력에 관계없이 모두 3.0~3.1의 평균으로 보통인 것으로 나타남

<표 4-116> 응답자 특성별 여가활동 충족도

(단위 :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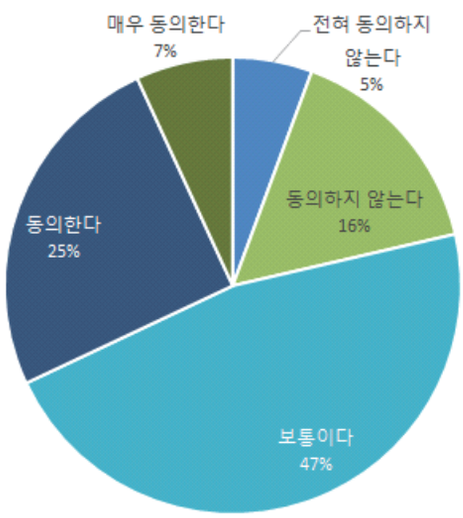
	사례수 (명)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①+②	보통이다	→	매우 동의한다	④+⑤	계	평균
전체	**(800)**	**6.3**	**20.5**	**26.8**	**42.5**	**24.4**	**6.4**	**30.8**	**100.0**	**3.0**
성별										
남성	(415)	4.8	19.3	24.1	44.3	25.3	6.3	31.6	100.0	3.1
여성	(385)	7.8	21.8	29.6	40.5	23.4	6.5	29.9	100.0	3.0
연령대										
20-24세	(219)	6.4	16.9	23.3	42.9	25.6	8.2	33.8	100.0	3.1
25-29세	(186)	4.8	20.4	25.3	41.4	23.7	9.7	33.3	100.0	3.1
30-34세	(185)	9.2	18.9	28.1	42.7	24.9	4.3	29.2	100.0	3.0
35-39세	(210)	4.8	25.7	30.5	42.9	23.3	3.3	26.7	100.0	2.9
거주 지역										
장안구	(182)	8.8	20.3	29.1	38.5	24.7	7.7	32.4	100.0	3.0
권선구	(245)	3.7	20.4	24.1	47.8	20.8	7.3	28.2	100.0	3.1
팔달구	(126)	13.5	19.0	32.5	40.5	19.0	7.9	27.0	100.0	2.9
영통구	(247)	3.2	21.5	24.7	41.3	30.4	3.6	34.0	100.0	3.1
취업상태										
취업	(449)	4.5	17.4	21.8	45.2	28.5	4.5	33.0	100.0	3.1
미취업	(351)	8.5	24.5	33.0	39.0	19.1	8.8	27.9	100.0	3.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7.7	23.1	30.8	40.2	23.1	5.9	29.0	100.0	3.0
대학교 재학	(231)	6.1	16.9	22.9	44.6	24.2	8.2	32.5	100.0	3.1
대학교 졸업 이상	(400)	5.8	21.5	27.3	42.3	25.0	5.5	30.5	100.0	3.0

■ 여가활동 만족도

○ ‘나는 현재 여가활동에 만족하고 있다’에 대한 동의 여부 평균은 3.1로 보통인 것으로 나타남

-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6.6%로 가장 높음

(단위 : %)



<그림 4-110> 여가활동 만족도

○ 남녀 모두 평균 3.1로 보통을 약간 넘는 것으로 나타남

- 성별에 관계없이 남녀 모두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남성 46.4%, 여성 44.7%)

○ 연령별로 보았을 때 20대의 평균은 3.2로 보통을 약간 넘고 30대의 평균은 3.0으로 20대의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거주 지역별로 보았을 때 영통구 거주자의 평균은 3.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나머지 지역 거주자들의 평균은 모두 3.1로 보통을 약간 넘는 것으로 나타남

○ 취업자 평균 3.2, 미취업자 평균 3.0으로 취업자의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취업자 49.0%, 미취업자 43.6%)

○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응답자의 평균이 3.0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대학교 졸업 이상 응답자의 평균은 3.1, 대학교 재학생의 평균은 3.2로 가장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표 4-117> 응답자 특성별 여가활동 만족도

(단위 : %, 점)

	사례수 (명)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①+②	보통이다	→	매우 동의한다	④+⑤	계	평균
전체	**(800)**	**5.6**	**15.8**	**21.4**	**46.6**	**25.1**	**6.9**	**32.0**	**100.0**	**3.1**
성별										
남성	(415)	5.5	13.7	19.3	48.4	25.8	6.5	32.3	100.0	3.1
여성	(385)	5.7	17.9	23.6	44.7	24.4	7.3	31.7	100.0	3.1
연령대										
20-24세	(219)	3.7	14.6	18.3	47.9	25.6	8.2	33.8	100.0	3.2
25-29세	(186)	5.9	16.1	22.0	42.5	25.3	10.2	35.5	100.0	3.2
30-34세	(185)	8.1	15.1	23.2	45.4	26.5	4.9	31.4	100.0	3.0
35-39세	(210)	5.2	17.1	22.4	50.0	23.3	4.3	27.6	100.0	3.0
거주 지역										
장안구	(182)	8.8	15.9	24.7	42.9	23.1	9.3	32.4	100.0	3.1
권선구	(245)	4.1	17.6	21.6	53.1	19.6	5.7	25.3	100.0	3.1
팔달구	(126)	11.1	12.7	23.8	43.7	23.8	8.7	32.5	100.0	3.1
영통구	(247)	2.0	15.4	17.4	44.5	32.8	5.3	38.1	100.0	3.2
취업상태										
취업	(449)	4.2	12.0	16.3	49.0	28.7	6.0	34.7	100.0	3.2
미취업	(351)	7.4	20.5	27.9	43.6	20.5	8.0	28.5	100.0	3.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10.1	14.8	24.9	45.6	22.5	7.1	29.6	100.0	3.0
대학교 재학	(231)	3.9	12.1	16.0	51.9	23.8	8.2	32.0	100.0	3.2
대학교 졸업 이상	(400)	4.8	18.3	23.0	44.0	27.0	6.0	33.0	100.0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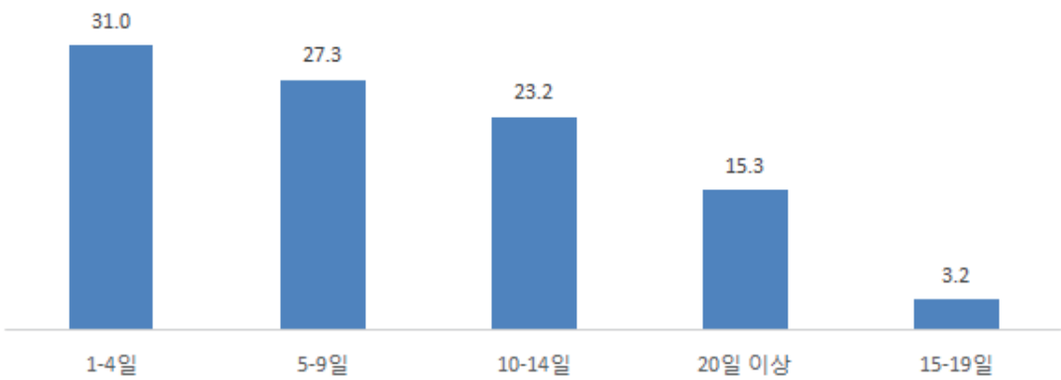
마. 여행 일수

■ 국내 외박 일수

○ ‘지난 1년 집을 떠난 주무신 날(국내)’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들의 31.0%가 ‘1~4일’이라고 응답함

- 이어서 ‘5~9일’이 27.3%, ‘10~14일’이 23.2%, ‘20일 이상’이 15.3%, ‘15~19일’이 3.2%로 나타남

(단위 : %)



<그림 4-111> 국내 외박 일수

○ 성별에 관계없이 남녀 모두 ‘1~4일’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남성 응답률 30.7%, 여성 응답률 31.4%)

○ 35~39세는 ‘5~9일’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9.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1~4일’이라고 가장 많은 수의 응답자가 답함

○ 장안구와 영통구 거주자는 ‘1~4일’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권선구 거주자는 32.2%가 ‘5~9일’이라고 응답했으며, 팔달구에서는 ‘10~14’ 일이라는 응답이 30.5%로 가장 높음

○ 취업자는 30.1%가 ‘5~9일’이라고 응답했으며 미취업자는 39.7%가 ‘1~4일’이라고 응답함

○ 고등학교 이하와 대학교 재학생은 ‘1~4일’이라고 가장 많은 수의 응답자가 답했으며, 대학교 졸업 이상 응답자는 30.8%가 ‘5~9일’이라고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함

<표 4-118> 응답자 특성별 국내 외박 일수

(단위 : %,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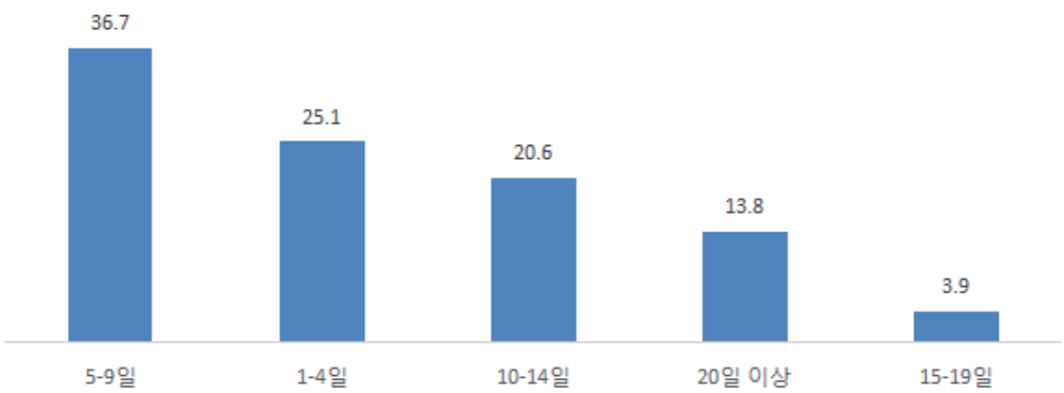
	사례수 (명)	1-4일	5-9일	10-14일	15-19일	20일 이상	계	평균
전체	**(616)**	**31.0**	**27.3**	**23.2**	**3.2**	**15.3**	**100.0**	**9.6**
성별								
남성	(313)	30.7	27.8	21.4	4.2	16.0	100.0	10.1
여성	(303)	31.4	26.7	25.1	2.3	14.5	100.0	9.0
연령대								
20-24세	(160)	36.3	21.9	21.3	3.8	16.9	100.0	9.9
25-29세	(139)	30.2	28.8	26.6	2.9	11.5	100.0	9.0
30-34세	(143)	28.7	28.7	25.2	3.5	14.0	100.0	9.1
35-39세	(174)	28.7	29.9	20.7	2.9	17.8	100.0	10.1
거주 지역								
장안구	(132)	29.5	22.7	24.2	3.8	19.7	100.0	10.4
권선구	(205)	27.3	32.2	24.4	3.4	12.7	100.0	9.4
팔달구	(82)	28.0	18.3	30.5	2.4	20.7	100.0	10.3
영통구	(197)	37.1	28.9	18.3	3.0	12.7	100.0	8.9
취업상태								
취업	(359)	24.8	30.1	26.2	3.1	15.9	100.0	10.3
미취업	(257)	39.7	23.3	19.1	3.5	14.4	100.0	8.5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15)	34.8	25.2	20.0	1.7	18.3	100.0	10.9
대학교 재학	(167)	38.9	21.6	22.8	3.6	13.2	100.0	8.5
대학교 졸업 이상	(334)	25.7	30.8	24.6	3.6	15.3	100.0	9.6

■ 해외 외박 일수

○ ‘지난 1년 집을 떠난 주무신 날(해외)’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들의 36.7%가 ‘5~9일’이라고 응답함

- 이어서 ‘1~4일’이 25.1%, ‘10~14일’이 20.6%, ‘20일 이상’이 13.8%, ‘15~19일’이 3.9%로 나타남

(단위 : %)



<그림 4-112> 해외 외박 일수

○ 성별에 관계없이 남녀 모두 ‘5~9일’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남성의 응답 비율은 42.7%, 여성의 응답 비율은 31.1%로 남성의 응답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 연령대에 관계없이 ‘5~9일’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35~39세의 응답 비율이 50.6%로 가장 높고 20~24세의 응답 비율이 27.1%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5~9일’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응답 비율은 권선구 거주자가 44.4%로 가장 높고, 팔달구 거주자가 29.3%로 가장 낮음

○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5~9일’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취업자의 경우 42.1%가 ‘5~9일’이라고 응답했으며 미취업자는 ‘1~4일’와 ‘5~9일’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7.2%로 같게 나타남

○ 고등학교 이하와 대학교 졸업 이상 응답자는 ‘5~9일’이라고 가장 많은 수의 응답자가 답했으며, 대학교 재학생은 28.9%가 ‘20일 이상’이라고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함

<표 4-119> 응답자 특성별 해외 외박 일수

(단위 : %, 일)

	사례수 (명)	1-4일	5-9일	10-14일	15-19일	20일 이상	계	평균
전체	**(311)**	**25.1**	**36.7**	**20.6**	**3.9**	**13.8**	**100.0**	**11.7**
성별								
남성	(150)	21.3	42.7	19.3	2.7	14.0	100.0	13.1
여성	(161)	28.6	31.1	21.7	5.0	13.7	100.0	10.4
연령대								
20-24세	(70)	27.1	27.1	17.1	1.4	27.1	100.0	16.1
25-29세	(89)	28.1	30.3	28.1	5.6	7.9	100.0	11.1
30-34세	(69)	21.7	37.7	21.7	5.8	13.0	100.0	10.9
35-39세	(83)	22.9	50.6	14.5	2.4	9.6	100.0	9.4
거주 지역								
장안구	(75)	26.7	30.7	26.7	4.0	12.0	100.0	13.0
권선구	(108)	22.2	44.4	18.5	2.8	12.0	100.0	10.6
팔달구	(41)	26.8	29.3	19.5	4.9	19.5	100.0	15.3
영통구	(87)	26.4	35.6	18.4	4.6	14.9	100.0	10.4
취업상태								
취업	(197)	23.9	42.1	20.3	4.1	9.6	100.0	9.7
미취업	(114)	27.2	27.2	21.1	3.5	21.1	100.0	15.1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55)	29.1	41.8	16.4	3.6	9.1	100.0	9.4
대학교 재학	(76)	26.3	25.0	18.4	1.3	28.9	100.0	18.1
대학교 졸업 이상	(180)	23.3	40.0	22.8	5.0	8.9	100.0	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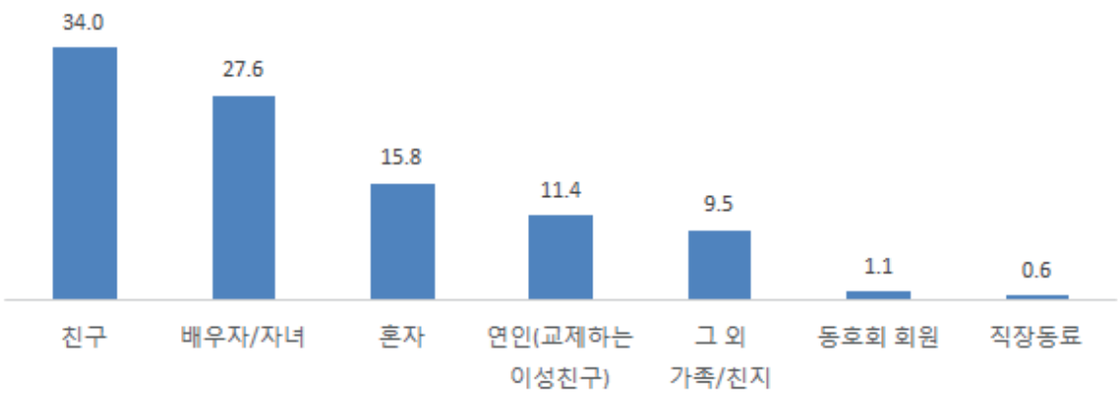
바. 여가 생활 동반자

■ 여가활동 동반객 형태

○ ‘여가활동 동반객 형태’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들의 34.0%가 ‘친구’라고 응답함

- 이어서 ‘배우자 / 자녀’가 27.6%, ‘혼자’가 15.8%, ‘연인 (교제하는 이성 친구)’이 11.4%, ‘그 외 가족 / 친지’가 9.5%, ‘동호회 회원;’이 1.1%, 그리고 ‘직장 동료’가 0.6% 순으로 나타남

(단위 : %)



<그림 4-113> 여가활동 동반객 형태

○ 성별에 따라서 남성의 경우 ‘친구’라고 응답한 비율이 39.8%로 가장 높고, 여성의 경우에는 ‘배우자 / 자녀’가 31.7%를 차지함

○ 20대의 경우 ‘친구’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30대는 ‘배우자 / 자녀’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음

○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친구’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응답 비율은 영통구 거주자가 38.5%로 가장 높고, 장안구 거주자가 28.6%로 가장 낮음

○ 취업자는 ‘배우자 / 자녀’라고 응답한 비율이 32.5%로 가장 높았고, 미취업자는 ‘친구’라고 답한 비율이 39.6%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고등학교 이하와 대학교 재학생은 ‘친구’라고 가장 많은 수의 응답자가 답했으며, 대학교 졸업 이상 응답자는 42.0%가 ‘배우자 / 자녀’라고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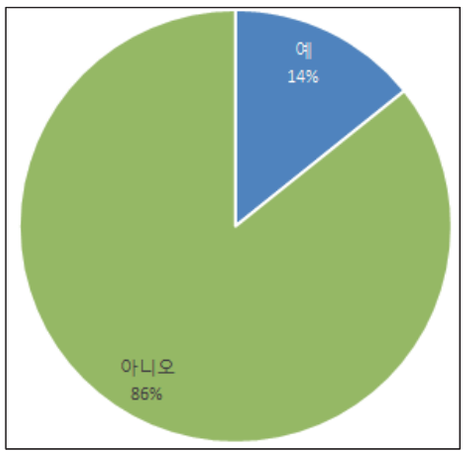
<표 4-120> 응답자 특성별 여가활동 동반객 형태

(단위 : %)

	사례수 (명)	혼자	그 외 가족/친지	연인(교제하는 이성친구)	동호회 회원	배우자/자녀	친구	직장동료	계
전체	**(800)**	**15.8**	**9.5**	**11.4**	**1.1**	**27.6**	**34.0**	**0.6**	**100.0**
성별									
남성	(415)	17.6	5.1	10.4	2.2	23.9	39.8	1.2	100.0
여성	(385)	13.8	14.3	12.5		31.7	27.8		100.0
연령대									
20-24세	(219)	16.0	11.0	13.2	0.5	0.9	58.4		100.0
25-29세	(186)	20.4	10.2	21.0	2.2	6.5	39.8		100.0
30-34세	(185)	15.1	8.1	8.1	0.5	39.5	27.0	1.6	100.0
35-39세	(210)	11.9	8.6	3.8	1.4	63.8	9.5	1.0	100.0
거주 지역									
장안구	(182)	15.9	8.8	18.1	1.6	26.4	28.6	0.5	100.0
권선구	(245)	14.3	7.8	9.8	1.2	30.6	35.1	1.2	100.0
팔달구	(126)	24.6	12.7	11.9	0.8	19.0	31.0		100.0
영통구	(247)	12.6	10.1	7.7	0.8	30.0	38.5	0.4	100.0
취업상태									
취업	(449)	14.7	8.5	12.5	1.1	32.5	29.6	1.1	100.0
미취업	(351)	17.1	10.8	10.0	1.1	21.4	39.6		100.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18.9	5.3	11.8	0.6	26.6	36.1	0.6	100.0
대학교 재학	(231)	16.0	11.7	11.7	1.3	3.5	55.8		100.0
대학교 졸업 이상	(400)	14.3	10.0	11.0	1.3	42.0	20.5	1.0	100.0

사. 동아리 활동

■ 여가 활동 동호회 가입 여부



<그림 4-114> 여가 활동 동호회 가입 여부

○ ‘여가 활동 동호회 가입 여부’에 대한 질문에 14.3%의 응답자가 ‘예’라고 응답하고 85.8%의 응답자가 ‘아니오’라고 응답함

○ 성별에 따라서 ‘예’라고 답한 경우는 남성이 19.0%, 여성이 9.1%로 남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예’라고 답한 경우는 35~39세가 17.6%로 가장 높고, 20~24세가 11.0%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예’라고 답한 경우는 팔달구 거주자가 16.7%로 가장 높고, 영통구 거주자가 12.6%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예’라고 답한 경우는 취업자가 16.3%, 미취업자가 11.7%로 취업자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예’라고 답한 경우가 대학교 졸업 이상 응답자는 14.8%로 가장 높았고, 고등학교 이하 응답자는 13.0%로 가장 낮음

<표 4-121> 응답자 특성별 여가 활동 동호회 가입 여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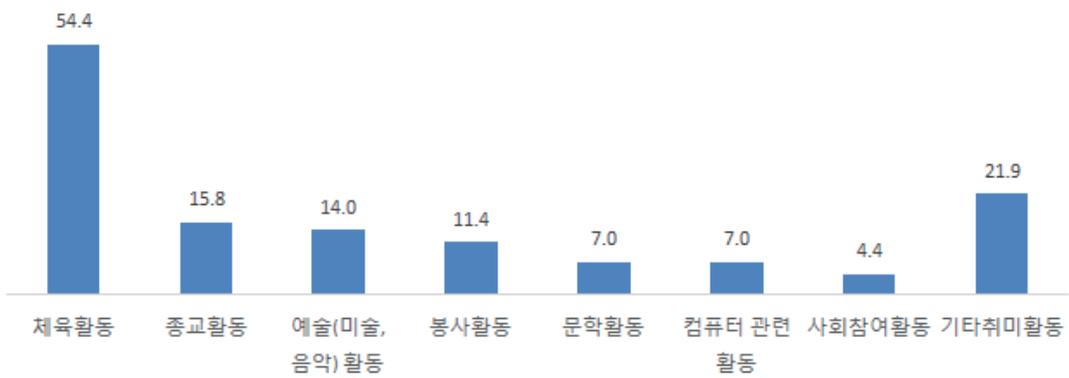
	사례수 (명)	예	아니오	계
전체	**(800)**	**14.3**	**85.8**	**100.0**
성별				
남성	(415)	19.0	81.0	100.0
여성	(385)	9.1	90.9	100.0
연령대				
20-24세	(219)	11.0	89.0	100.0
25-29세	(186)	13.4	86.6	100.0
30-34세	(185)	15.1	84.9	100.0
35-39세	(210)	17.6	82.4	100.0
거주 지역				
장안구	(182)	14.3	85.7	100.0
권선구	(245)	14.7	85.3	100.0
팔달구	(126)	16.7	83.3	100.0
영통구	(247)	12.6	87.4	100.0
취업상태				
취업	(449)	16.3	83.7	100.0
미취업	(351)	11.7	88.3	100.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13.0	87.0	100.0
대학교 재학	(231)	14.3	85.7	100.0
대학교 졸업 이상	(400)	14.8	85.3	100.0

■ 동아리 종류

○ ‘동아리 활동’에 대한 질문에 반수가 넘는 54.4%의 응답자가 ‘체육활동’이라고 응답함

- 이어서 ‘종교활동’ 15.8%, ‘예술(미술, 음악) 활동’ 14.0%, ‘봉사활동’ 11.4%, ‘문학활동’과 ‘컴퓨터 관련 활동’ 7.0%, ‘사회참여활동’ 4.4% 등의 순으로 나타남

(단위 : %)



<그림 4-115> 동아리 종류

○ 성별에 관계없이 남녀 모두 ‘체육활동’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음 (남성 응답률 62.0%, 여성 응답률 37.1%)

○ 연령대에 관계없이 ‘체육활동’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음

- 응답 비율은 30~34세가 64.3%로 가장 높았으며, 20~24세는 45.8%로 가장 낮음

○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체육활동’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음

- 영통구 거주자가 64.5%로 가장 높았고, 장안구 거주자가 42.3%로 가장 낮음

○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체육활동’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음

- 취업자는 57.5%, 미취업자는 48.8%가 체육활동을 한다고 응답함

○ 학력에 관계없이 ‘체육활동’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음

- 대학교 졸업 이상 응답자가 66.1%로 가장 높았고,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응답자는 40.9%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임

<표 4-122> 응답자 특성별 동아리 종류

(단위 : %)

	사례수 (명)	체육활동	문학활동	예술(미술, 음악) 활동	컴퓨터 관련 활동	종교활동	봉사활동	사회참여활동	기타취미활동	계
전체	**(114)**	**54.4**	**7.0**	**14.0**	**7.0**	**15.8**	**11.4**	**4.4**	**21.9**	**100.0**
성별										
남성	(79)	62.0	8.9	11.4	10.1	12.7	11.4	2.5	16.5	100.0
여성	(35)	37.1	2.9	20.0		22.9	11.4	8.6	34.3	100.0
연령대										
20-24세	(24)	45.8	4.2	12.5	4.2	12.5	29.2	4.2	16.7	100.0
25-29세	(25)	48.0	4.0	16.0	12.0	24.0	8.0	4.0	16.0	100.0
30-34세	(28)	64.3	14.3	14.3	10.7	17.9	7.1	7.1	17.9	100.0
35-39세	(37)	56.8	5.4	13.5	2.7	10.8	5.4	2.7	32.4	100.0
거주 지역										
장안구	(26)	42.3		15.4	7.7	15.4	15.4	7.7	26.9	100.0
권선구	(36)	58.3	2.8	16.7	5.6	13.9	8.3		25.0	100.0
팔달구	(21)	47.6	14.3	4.8	4.8	9.5	9.5	4.8	14.3	100.0
영통구	(31)	64.5	12.9	16.1	9.7	22.6	12.9	6.5	19.4	100.0
취업상태										
취업	(73)	57.5	6.8	13.7	9.6	15.1	8.2	4.1	27.4	100.0
미취업	(41)	48.8	7.3	14.6	2.4	17.1	17.1	4.9	12.2	100.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22)	40.9	13.6	9.1	9.1	13.6	9.1	4.5	31.8	100.0
대학교 재학	(33)	42.4	9.1	15.2	12.1	18.2	24.2	6.1	18.2	100.0
대학교 졸업 이상	(59)	66.1	3.4	15.3	3.4	15.3	5.1	3.4	20.3	100.0

(2) 문화예술 관람 경험

가. 문화예술 관람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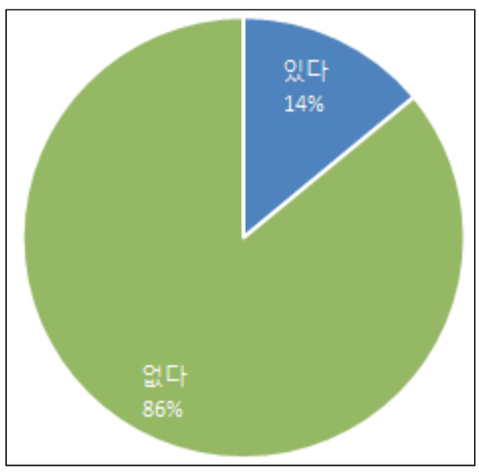
■ 문학행사 관람 여부

○ '문학행사 (시화전, 도서전시회, 작가와의 대화) 관람 여부' 에 대한 질문에 14.0%의 응답자가 '있다' 라고 응답함

○ 남성의 긍정 응답률 14.2%, 여성 13.8%로 남성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30~34세의 긍정 응답률이 15.1%로 가장 높고, 25~29세가 13.4%로 가장 낮음

○ 권선구 거주자와 팔달구 거주자의 긍정 응답률이 15.9%로 가장 높고, 장안구 거주자가 12.1%로 가장 낮게 나타남



<그림 4-116> 문학행사 관람 여부

○ 취업자의 긍정 응답률 14.3%, 미취업자 13.7%로 취업자의 비율이 더 높음

○ 대학교 재학생의 긍정 응답률이 15.6%로 가장 높았고, 고등학교 이하 응답자는 8.9%로 가장 낮음

<표 4-123> 응답자 특성별 문학행사 관람 여부

(단위 : %)

	사례수 (명)	있다	없다	계
전체	**(800)**	**14.0**	**86.0**	**100.0**
성별				
남성	(415)	14.2	85.8	100.0
여성	(385)	13.8	86.2	100.0
연령대				
20-24세	(219)	13.7	86.3	100.0
25-29세	(186)	13.4	86.6	100.0
30-34세	(185)	15.1	84.9	100.0
35-39세	(210)	13.8	86.2	100.0
거주 지역				
장안구	(182)	12.1	87.9	100.0
권선구	(245)	15.9	84.1	100.0
팔달구	(126)	15.9	84.1	100.0
영통구	(247)	12.6	87.4	100.0
취업상태				
취업	(449)	14.3	85.7	100.0
미취업	(351)	13.7	86.3	100.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8.9	91.1	100.0
대학교 재학	(231)	15.6	84.4	100.0
대학교 졸업 이상	(400)	15.3	84.8	100.0

■ 미술전시회 관람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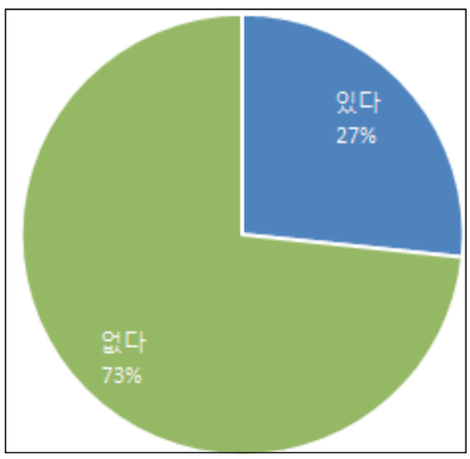
○ ‘미술전시회 관람 여부’에 대한 질문에 26.6%의 응답자가 ‘있다’라고 응답함

○ 남성의 긍정 응답률은 21.7%, 여성은 31.9%로 여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5~29세의 긍정 응답률이 30.1%로 가장 높고, 35~39세가 22.9%로 가장 낮게 나타남

○ 팔달구 거주자의 긍정 응답률이 31.0%로 가장 높고, 권선구 거주자가 23.7%로 가장 낮음

○ 취업자의 긍정 응답률이 26.7%, 미취업자가 26.5%로 취업자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4-117> 미술전시회 관람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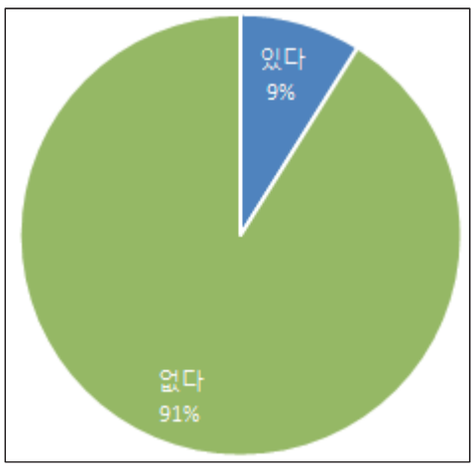
○ 대학교 재학생과 대학교 졸업 이상 응답자의 긍정 응답률이 각각 30.3%로 가장 높았고, 고등학교 이하 응답자는 13.0%로 가장 낮음

<표 4-124> 응답자 특성별 미술전시회 관람여부

(단위 : %)

	사례수 (명)	있다	없다	계
전체	**(800)**	**26.6**	**73.4**	**100.0**
성별				
남성	(415)	21.7	78.3	100.0
여성	(385)	31.9	68.1	100.0
연령대				
20-24세	(219)	29.7	70.3	100.0
25-29세	(186)	30.1	69.9	100.0
30-34세	(185)	23.8	76.2	100.0
35-39세	(210)	22.9	77.1	100.0
거주 지역				
장안구	(182)	30.8	69.2	100.0
권선구	(245)	23.7	76.3	100.0
팔달구	(126)	31.0	69.0	100.0
영통구	(247)	24.3	75.7	100.0
취업상태				
취업	(449)	26.7	73.3	100.0
미취업	(351)	26.5	73.5	100.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13.0	87.0	100.0
대학교 재학	(231)	30.3	69.7	100.0
대학교 졸업 이상	(400)	30.3	69.8	100.0

■ 서양음악 관람여부



<그림 4-118> 서양음악 관람여부

○ ‘서양음악 관람 여부’에 대한 질문에 8.9%의 응답자가 ‘있다’라고 응답함

○ 남성의 긍정 응답률이 7.5%, 여성이 10.4%로 여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5~29세의긍정 응답률이 10.2%로 가장 높고, 35~39세가 6.7%로 가장 낮게 나타남

○ 팔달구 거주자의 긍정 응답률이 9.5%로 가장 높고, 권선구 거주자가 8.6%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취업자의 긍정 응답률이 8.5%, 미취업자가 9.4%로 미취업자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대학교 재학생의 긍정 응답률이 10.4%로 가장 높았고, 고등학교 이하 응답자는 5.9%로 가장 낮음

<표 4-125> 응답자 특성별 서양음악 관람여부

(단위 : %)

	사례수 (명)	있다	없다	계
전체	**(800)**	**8.9**	**91.1**	**100.0**
성별				
남성	(415)	7.5	92.5	100.0
여성	(385)	10.4	89.6	100.0
연령대				
20-24세	(219)	9.6	90.4	100.0
25-29세	(186)	10.2	89.8	100.0
30-34세	(185)	9.2	90.8	100.0
35-39세	(210)	6.7	93.3	100.0
거주 지역				
장안구	(182)	8.8	91.2	100.0
권선구	(245)	8.6	91.4	100.0
팔달구	(126)	9.5	90.5	100.0
영통구	(247)	8.9	91.1	100.0
취업상태				
취업	(449)	8.5	91.5	100.0
미취업	(351)	9.4	90.6	100.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5.9	94.1	100.0
대학교 재학	(231)	10.4	89.6	100.0
대학교 졸업 이상	(400)	9.3	90.8	100.0

■ 전통예술 관람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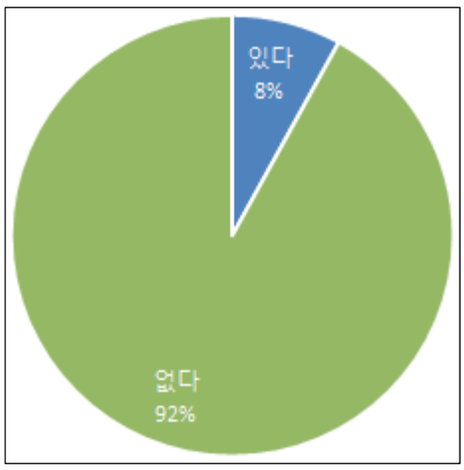
○ ‘전통예술(국악, 풍물, 민속극) 관람 여부’에 대한 질문에 8.0%의 응답자가 ‘있다’라고 응답함

○ 남성의 긍정 응답률이 7.5%, 여성이 8.6%로 여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35~39세의 긍정 응답률이 9.5%로 가장 높고, 30~34세가 5.9%로 가장 낮게 나타남

○ 팔달구 거주자의 긍정 응답률이 12.7%로 가장 높고, 영통구 거주자가 5.7%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취업자의 긍정 응답률이 8.5%, 미취업자가 7.4%로 취업자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4-119> 전통예술 관람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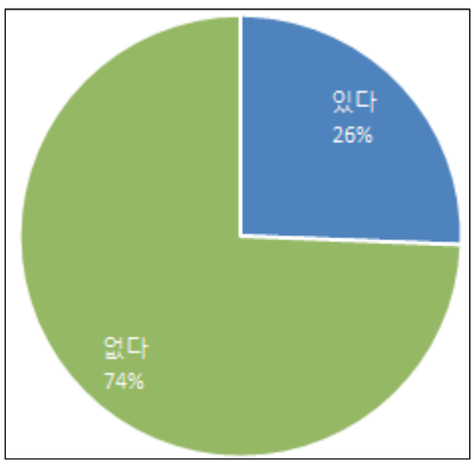
○ 대학교 재학생의 긍정 응답률이 10.0%로 가장 높았고, 고등학교 이하 응답자는 5.3%로 가장 낮음

<표 4-126> 응답자 특성별 전통예술 관람여부

(단위 : %)

	사례수 (명)	있다	없다	계
전체	**(800)**	**8.0**	**92.0**	**100.0**
성별				
남성	(415)	7.5	92.5	100.0
여성	(385)	8.6	91.4	100.0
연령대				
20-24세	(219)	7.8	92.2	100.0
25-29세	(186)	8.6	91.4	100.0
30-34세	(185)	5.9	94.1	100.0
35-39세	(210)	9.5	90.5	100.0
거주 지역				
장안구	(182)	8.2	91.8	100.0
권선구	(245)	7.8	92.2	100.0
팔달구	(126)	12.7	87.3	100.0
영통구	(247)	5.7	94.3	100.0
취업상태				
취업	(449)	8.5	91.5	100.0
미취업	(351)	7.4	92.6	100.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5.3	94.7	100.0
대학교 재학	(231)	10.0	90.0	100.0
대학교 졸업 이상	(400)	8.0	92.0	100.0

■ 연극 관람여부



<그림 4-120> 연극 관람여부

○ ‘연극 관람 여부’에 대한 질문에 25.6%의 응답자가 ‘있다’라고 응답함

○ 남성의 긍정 응답률이 20.5%, 여성이 31.2%로 여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5~29세의 긍정 응답률이 32.3%로 가장 높고, 30~34세가 22.2%로 가장 낮게 나타남

○ 팔달구 거주자의 긍정 응답률이 27.8%로 가장 높고, 영통구 거주자가 24.3%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취업자의 긍정 응답률이 26.3%, 미취업자가 24.8%로 취업자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대학교 졸업 이상 응답자의 긍정 응답률이 28.3%로 가장 높았고, 고등학교 이하 응답자는 17.2%로 가장 낮음

<표 4-127> 응답자 특성별 연극 관람여부

(단위 : %)

	사례수 (명)	있다	없다	계
전체	**(800)**	**25.6**	**74.4**	**100.0**
성별				
남성	(415)	20.5	79.5	100.0
여성	(385)	31.2	68.8	100.0
연령대				
20-24세	(219)	26.0	74.0	100.0
25-29세	(186)	32.3	67.7	100.0
30-34세	(185)	22.2	77.8	100.0
35-39세	(210)	22.4	77.6	100.0
거주 지역				
장안구	(182)	27.5	72.5	100.0
권선구	(245)	24.5	75.5	100.0
팔달구	(126)	27.8	72.2	100.0
영통구	(247)	24.3	75.7	100.0
취업상태				
취업	(449)	26.3	73.7	100.0
미취업	(351)	24.8	75.2	100.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17.2	82.8	100.0
대학교 재학	(231)	27.3	72.7	100.0
대학교 졸업 이상	(400)	28.3	71.8	100.0

■ 뮤지컬 관람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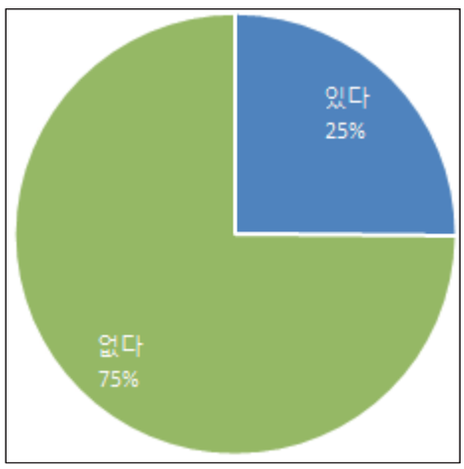
○ ‘뮤지컬 관람여부’에 대한 질문에 25.1%의 응답자가 ‘있다’라고 응답함

○ 남성의 긍정 응답률이 19.8%, 여성이 30.9%로 여성이 1.5배 이상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30~34세의 긍정 응답률이 29.2%로 가장 높고, 20~24세가 78.5%로 가장 낮게 나타남

○ 팔달구 거주자의 긍정 응답률이 28.6%로 가장 높고, 권선구 거주자가 22.4%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취업자의 긍정 응답률이 29.0%, 미취업자가 20.2%로 취업자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4-121> 뮤지컬 관람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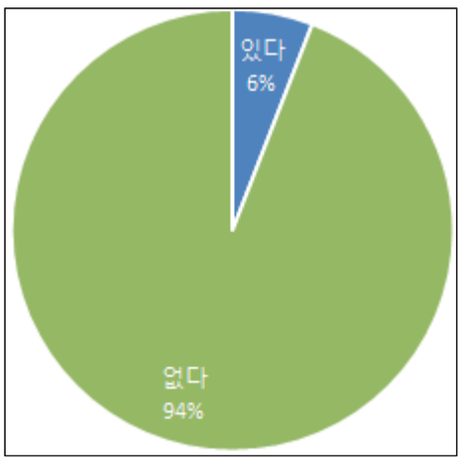
○ 대학교 졸업 이상 응답자의 긍정 응답률이 32.0%로 가장 높았고, 고등학교 이하 응답자는 11.2%로 가장 낮음

<표 4-128> 응답자 특성별 뮤지컬 관람 여부

(단위 : %)

	사례수 (명)	있다	없다	계
전체	**(800)**	**25.1**	**74.9**	**100.0**
성별				
남성	(415)	19.8	80.2	100.0
여성	(385)	30.9	69.1	100.0
연령대				
20-24세	(219)	21.5	78.5	100.0
25-29세	(186)	22.6	77.4	100.0
30-34세	(185)	29.2	70.8	100.0
35-39세	(210)	27.6	72.4	100.0
거주 지역				
장안구	(182)	25.8	74.2	100.0
권선구	(245)	22.4	77.6	100.0
팔달구	(126)	28.6	71.4	100.0
영통구	(247)	25.5	74.5	100.0
취업상태				
취업	(449)	29.0	71.0	100.0
미취업	(351)	20.2	79.8	100.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11.2	88.8	100.0
대학교 재학	(231)	23.4	76.6	100.0
대학교 졸업 이상	(400)	32.0	68.0	100.0

■ 무용 관람여부



<그림 4-122> 무용 관람 여부

○ ‘무용(서양무용, 한국무용, 현대무용) 관람 여부’에 대한 질문에 5.9%의 응답자가 ‘있다’라고 응답함

○ 남성 긍정 응답률이 5.8%, 여성이 6.0%로 여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5~29세의 긍정 응답률이 9.7%로 가장 높고, 30~34세가 4.3%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장안구 거주자의 긍정 응답률이 8.8%로 가장 높고, 권선구 거주자가 4.1%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취업자의 긍정 응답률이 5.6%, 미취업자가 6.3%로 미취업자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대학교 재학생의 긍정 응답률이 6.5%로 가장 높았고, 고등학교 이하 응답자는 4.7%로 가장 낮음

<표 4-129> 응답자 특성별 무용 관람 여부

(단위 : %)

	사례수 (명)	있다	없다	계
전체	**(800)**	**5.9**	**94.1**	**100.0**
성별				
남성	(415)	5.8	94.2	100.0
여성	(385)	6.0	94.0	100.0
연령대				
20-24세	(219)	4.6	95.4	100.0
25-29세	(186)	9.7	90.3	100.0
30-34세	(185)	4.3	95.7	100.0
35-39세	(210)	5.2	94.8	100.0
거주 지역				
장안구	(182)	8.8	91.2	100.0
권선구	(245)	4.1	95.9	100.0
팔달구	(126)	7.9	92.1	100.0
영통구	(247)	4.5	95.5	100.0
취업상태				
취업	(449)	5.6	94.4	100.0
미취업	(351)	6.3	93.7	100.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4.7	95.3	100.0
대학교 재학	(231)	6.5	93.5	100.0
대학교 졸업 이상	(400)	6.0	94.0	100.0

■ 영화 관람여부

○ ‘영화 관람 여부’에 대한 질문에 89.4%의 응답자가 ‘있다’라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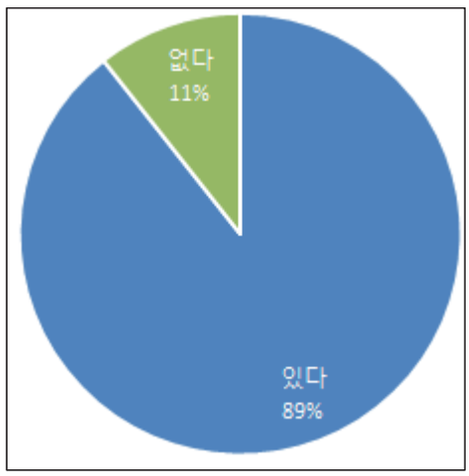
○ 남성의 긍정 응답률이 87.5%, 여성이 91.4%로 여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24세의 긍정 응답률이 92.7%로 가장 높고, 30대는 87.6%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있다’라고 답한 경우는 영통구 거주자가 91.9%로 가장 높고, 장안구 거주자가 85.2%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있다’라고 답한 경우는 취업자가 89.1%, 미취업자가 89.7%로 미취업자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있다’라고 답한 경우가 대학교 재학생이 91.3%로 가장 높았고, 대학교 졸업 이상 응답자는 88.5%로 가장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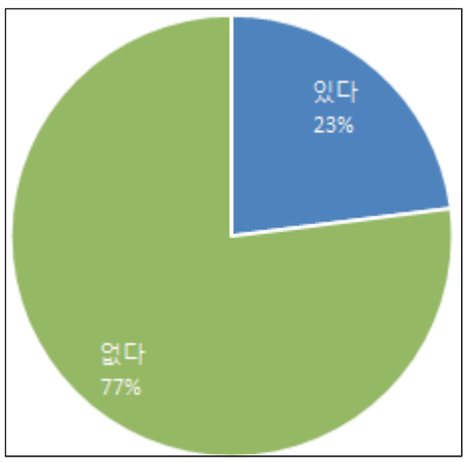
<그림 4-123> 영화 관람 여부

<표 4-130> 응답자 특성별 영화 관람 여부

(단위 : %)

	사례수 (명)	있다	없다	계
전체	**(800)**	**89.4**	**10.6**	**100.0**
성별				
남성	(415)	87.5	12.5	100.0
여성	(385)	91.4	8.6	100.0
연령대				
20-24세	(219)	92.7	7.3	100.0
25-29세	(186)	89.2	10.8	100.0
30-34세	(185)	87.6	12.4	100.0
35-39세	(210)	87.6	12.4	100.0
거주 지역				
장안구	(182)	85.2	14.8	100.0
권선구	(245)	90.2	9.8	100.0
팔달구	(126)	88.9	11.1	100.0
영통구	(247)	91.9	8.1	100.0
취업상태				
취업	(449)	89.1	10.9	100.0
미취업	(351)	89.7	10.3	100.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88.8	11.2	100.0
대학교 재학	(231)	91.3	8.7	100.0
대학교 졸업 이상	(400)	88.5	11.5	100.0

■ 대중음악, 연예 관람 여부



<그림 4-124> 대중음악, 연예 관람 여부

○ ‘대중음악(가요콘서트), 연예(방송 프로그램 등) 관람 여부’에 대한 질문에 23.0%의 응답자가 ‘있다’라고 응답함

○ 남성의 긍정 응답률이 22.2%, 여성이 23.9%로 여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30~34세의 긍정 응답률이 25.9%로 가장 높고, 35~39세가 16.7%로 가장 낮게 나타남

○ 팔달구 거주자의 긍정 응답률이 29.4%로 가장 높고, 영통구 거주자가 20.6%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취업자의 긍정 응답률이 23.6%, 미취업자가 22.2%로 취업자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대학교 졸업 이상 응답자의 긍정 응답률이 25.0%로 가장 높았고, 고등학교 이하 응답자는 16.0%로 가장 낮음

<표 4-131> 응답자 특성별 대중음악, 연예 관람 여부

(단위 : %)

	사례수 (명)	있다	없다	계
전체	**(800)**	**23.0**	**77.0**	**100.0**
성별				
남성	(415)	22.2	77.8	100.0
여성	(385)	23.9	76.1	100.0
연령대				
20-24세	(219)	27.9	72.1	100.0
25-29세	(186)	21.5	78.5	100.0
30-34세	(185)	25.9	74.1	100.0
35-39세	(210)	16.7	83.3	100.0
거주 지역				
장안구	(182)	24.7	75.3	100.0
권선구	(245)	20.8	79.2	100.0
팔달구	(126)	29.4	70.6	100.0
영통구	(247)	20.6	79.4	100.0
취업상태				
취업	(449)	23.6	76.4	100.0
미취업	(351)	22.2	77.8	100.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16.0	84.0	100.0
대학교 재학	(231)	24.7	75.3	100.0
대학교 졸업 이상	(400)	25.0	75.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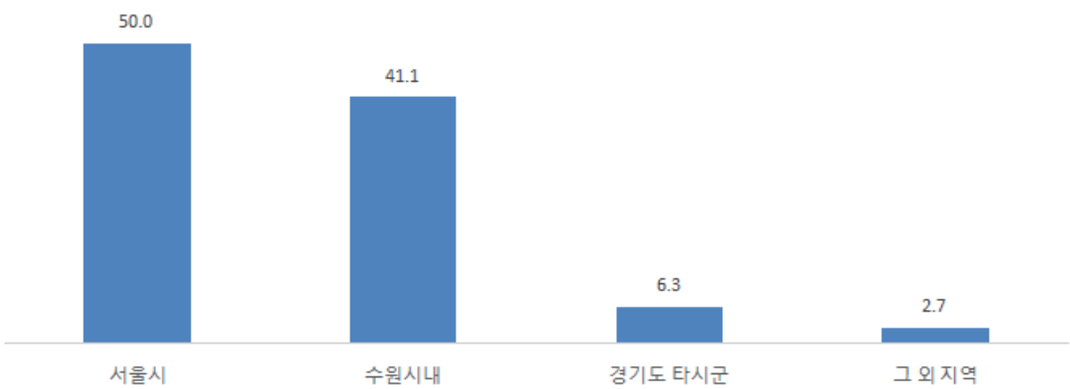
나. 관람 지역

■ 문학행사 관람 지역

○ ‘문학행사 (시화전, 도서전시회, 작가와의 대화) 관람 지역’에 대한 질문에 50.0%의 응답자가 ‘서울시’라고 응답함

- 이어서 ‘수원시 내’ 41.1%, ‘경기도 타시군’ 6.3%, ‘그 외 지역’ 2.7%인 것으로 나타남

(단위 : %)



<그림 4-125> 문학행사 관람지역

○ 성별에 관계없이 남녀 모두 ‘서울시’라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음 (남성 응답률 50.8%, 여성 응답률 49.1%)

○ 35~39세의 경우에는 ‘수원시 내’라고 응답한 비율이 48.3%로 가장 높았으며,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서울시’라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음

○ 권선구와 영통구 거주자는 ‘수원시 내’에서 문학행사를 관람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장안구와 팔달구 거주자는 ‘서울시’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응답자의 50.0%가 ‘서울시’라고 응답함

○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응답자는 ‘수원시 내’라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대학교 재학생과 대학교 졸업 이상 응답자는 각각 58.3%, 50.8%가 ‘서울시’라고 응답함

<표 4-132> 응답자 특성별 문학행사 관람지역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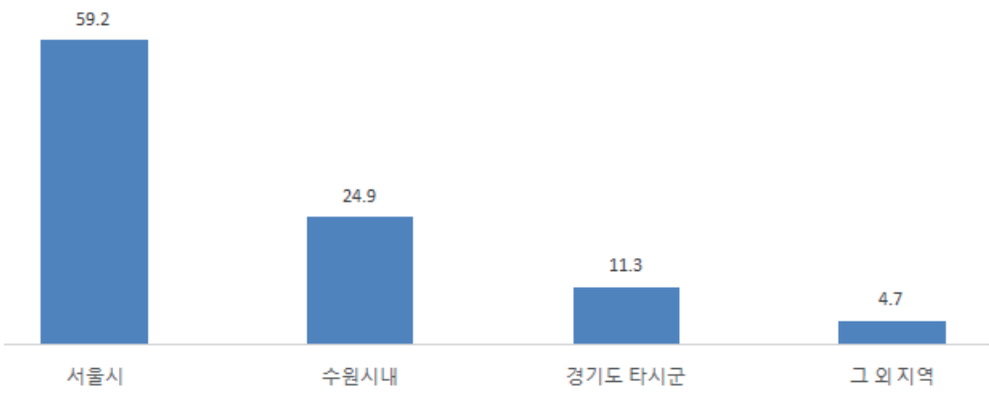
	사례수 (명)	수원시내	경기도 타시군	서울시	그 외 지역	계
전체	**(112)**	**41.1**	**6.3**	**50.0**	**2.7**	**100.0**
성별						
남성	(59)	40.7	5.1	50.8	3.4	100.0
여성	(53)	41.5	7.5	49.1	1.9	100.0
연령대						
20-24세	(30)	36.7	3.3	60.0		100.0
25-29세	(25)	36.0	8.0	48.0	8.0	100.0
30-34세	(28)	42.9	3.6	53.6		100.0
35-39세	(29)	48.3	10.3	37.9	3.4	100.0
거주 지역						
장안구	(22)	18.2	22.7	59.1		100.0
권선구	(39)	46.2	2.6	43.6	7.7	100.0
팔달구	(20)	40.0		60.0		100.0
영통구	(31)	51.6	3.2	45.2		100.0
취업상태						
취업	(64)	39.1	9.4	50.0	1.6	100.0
미취업	(48)	43.8	2.1	50.0	4.2	100.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5)	60.0	13.3	26.7		100.0
대학교 재학	(36)	33.3	2.8	58.3	5.6	100.0
대학교 졸업 이상	(61)	41.0	6.6	50.8	1.6	100.0

■ 미술전시회 관람 지역

○ ‘미술전시회 (사진서예·건축·디자인 포함) 관람 지역’에 대한 질문에 59.2%의 응답자가 ‘서울시’라고 응답함

- 이어서 ‘수원시 내’ 24.9%, ‘경기도 타시군’ 11.3%, ‘그 외 지역’ 4.7%인 것으로 나타남

(단위 : %)



<그림 4-126> 미술전시회 관람 지역

○ 성별에 관계없이 남녀 모두 ‘서울시’라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음 (남성 응답률 52.2%, 여성 응답률 64.2%)

○ 연령에 관계없이 ‘서울시’라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음

- 특히 30~34세가 65.9%로 가장 높고, 35~39세가 41.7%로 가장 낮음

○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서울시’라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음

- 팔달구 거주자가 66.7%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고, 영통구 거주자가 55.0%로 가장 낮음

○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서울시’라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음 (취업자 응답률 60.0%, 미취업자 응답률 58.1%)

○ 학력에 관계없이 ‘서울시’라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음

-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응답자가 40.9%로 가장 낮고, 대학교 재학생이 61.4%로 가장 높음

<표 4-133> 응답자 특성별 미술전시회 관람 지역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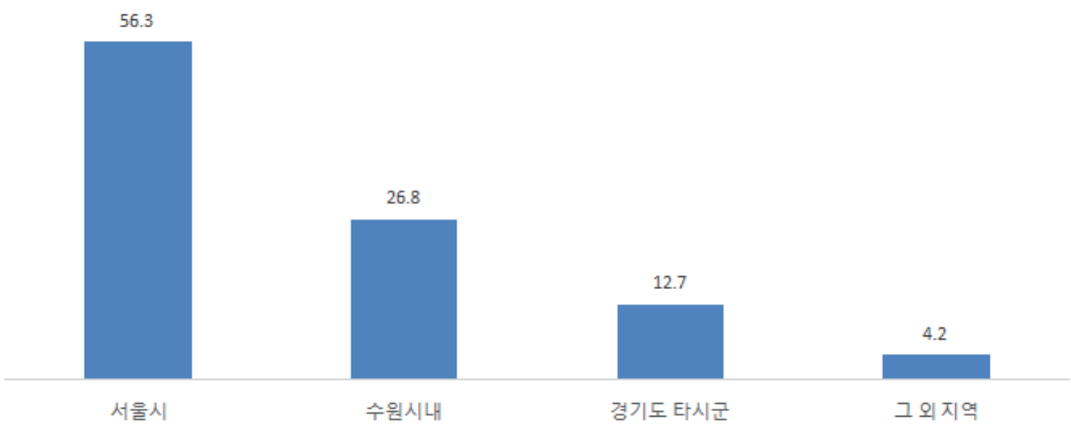
	사례수 (명)	수원시내	경기도 타시군	서울시	그 외 지역	계
전체	**(213)**	**24.9**	**11.3**	**59.2**	**4.7**	**100.0**
성별						
남성	(90)	24.4	17.8	52.2	5.6	100.0
여성	(123)	25.2	6.5	64.2	4.1	100.0
연령대						
20-24세	(65)	26.2	6.2	64.6	3.1	100.0
25-29세	(56)	21.4	8.9	62.5	7.1	100.0
30-34세	(44)	20.5	13.6	65.9		100.0
35-39세	(48)	31.3	18.8	41.7	8.3	100.0
거주 지역						
장안구	(56)	25.0	10.7	58.9	5.4	100.0
권선구	(58)	27.6	8.6	58.6	5.2	100.0
팔달구	(39)	17.9	12.8	66.7	2.6	100.0
영통구	(60)	26.7	13.3	55.0	5.0	100.0
취업상태						
취업	(120)	21.7	13.3	60.0	5.0	100.0
미취업	(93)	29.0	8.6	58.1	4.3	100.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22)	36.4	22.7	40.9		100.0
대학교 재학	(70)	22.9	10.0	61.4	5.7	100.0
대학교 졸업 이상	(121)	24.0	9.9	61.2	5.0	100.0

■ 서양음악 관람 지역

○ ‘서양음악(클래식, 서양악기 관련) 관람 지역’에 대한 질문에 56.3%의 응답자가 ‘서울시’라고 응답함

- 이어서 ‘수원시 내’ 26.8%, ‘경기도 타시군’ 12.7%, ‘그 외 지역’ 4.2%인 것으로 나타남

(단위 : %)



<그림 4-127> 서양음악 관람 지역

○ 성별에 관계없이 남녀 모두 ‘서울시’라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음 (남성 응답률 58.1%, 여성 응답률 55.0%)

○ 연령에 관계없이 ‘서울시’라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음

- 특히 30~34세가 64.7%로 가장 높고, 35~39세는 ‘수원시 내’와 ‘서울시’라는 응답이 42.9%로 같게 나타남

○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서울시’라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음

- 장안구 거주자가 62.5%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고, 팔달구 거주자는 ‘수원시 내’와 ‘서울시’라는 응답이 41.7%로 같게 나타남

○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서울시’라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음 (취업자 응답률 57.9%, 미취업자 응답률 54.5%)

○ 학력에 관계없이 ‘서울시’라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음

-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응답자가 60.0%로 가장 높고, 대학교 졸업 이상 응답자가 54.1%로 가장 낮음

<표 4-134> 응답자 특성별 서양음악 관람 지역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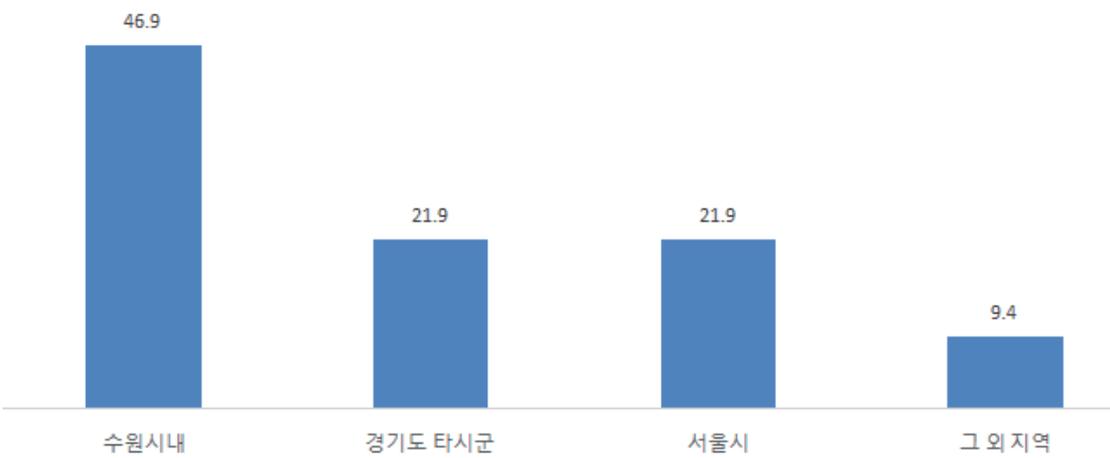
	사례수 (명)	수원시내	경기도 타시군	서울시	그 외 지역	계
전체	**(71)**	**26.8**	**12.7**	**56.3**	**4.2**	**100.0**
성별						
남성	(31)	25.8	9.7	58.1	6.5	100.0
여성	(40)	27.5	15.0	55.0	2.5	100.0
연령대						
20-24세	(21)	14.3	19.0	61.9	4.8	100.0
25-29세	(19)	42.1	5.3	52.6		100.0
30-34세	(17)	11.8	11.8	64.7	11.8	100.0
35-39세	(14)	42.9	14.3	42.9		100.0
거주 지역						
장안구	(16)	37.5		62.5		100.0
권선구	(21)	23.8	14.3	57.1	4.8	100.0
팔달구	(12)	41.7	8.3	41.7	8.3	100.0
영통구	(22)	13.6	22.7	59.1	4.5	100.0
취업상태						
취업	(38)	23.7	15.8	57.9	2.6	100.0
미취업	(33)	30.3	9.1	54.5	6.1	100.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0)	20.0	10.0	60.0	10.0	100.0
대학교 재학	(24)	20.8	16.7	58.3	4.2	100.0
대학교 졸업 이상	(37)	32.4	10.8	54.1	2.7	100.0

■ 전통예술 관람 지역

○ ‘전통예술(국악, 풍물, 민속극) 관람 지역’에 대한 질문에 46.9%의 응답자가 ‘수원시 내’라고 응답함

- 이어서 ‘서울시’와 ‘경기도 타시군’은 동일하게 21.9%, ‘그 외 지역’ 9.4%인 것으로 나타남

(단위 : %)



<그림 4-128> 전통예술 관람 지역

○ 성별에 관계없이 남녀 모두 ‘수원시 내’라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음 (남성 응답률 41.9%, 여성 응답률 51.5%)

○ 20~24세는 ‘경기도 타 시군’라고 답한 응답자가 41.2%로 가장 높았고, 25~29세와 35~39세에서는 각각 50.0%, 65.0%가 ‘수원시 내’라고 답해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으며, 30~34세에서는 ‘수원시 내’라는 응답과 ‘서울시’라는 응답이 모두 45.5%로 같게 나타남

○ 팔달구 거주자는 ‘경기도 타 시군’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43.8%로 가장 많은 반면 나머지 지역 거주자들은 모두 ‘수원시 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수원시 내’라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음 (취업자 응답률 50.0%, 미취업자 응답률 42.3%)

○ 학력에 관계없이 ‘수원시 내’라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음

-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응답자가 55.6%로 가장 높고, 대학교 재학생이 34.8%로 가장 낮음

<표 4-135> 응답자 특성별 전통예술 관람 지역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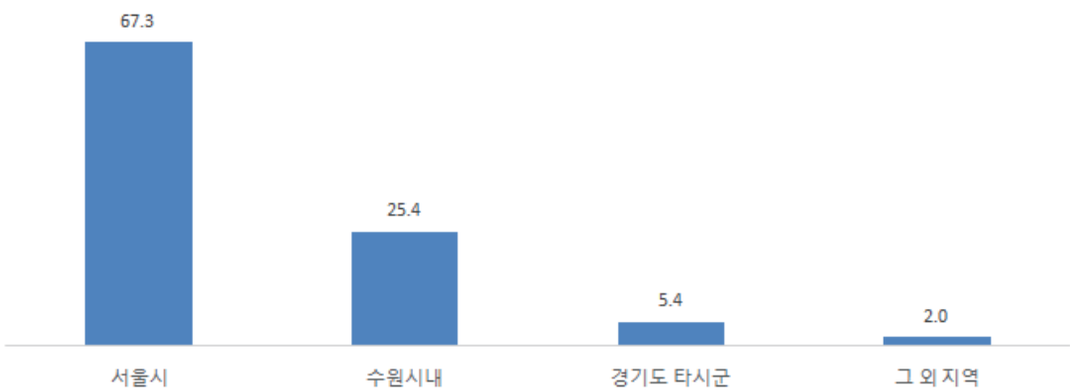
	사례수 (명)	수원시내	경기도 타시군	서울시	그 외 지역	계
전체	**(64)**	**46.9**	**21.9**	**21.9**	**9.4**	**100.0**
성별						
남성	(31)	41.9	22.6	22.6	12.9	100.0
여성	(33)	51.5	21.2	21.2	6.1	100.0
연령대						
20-24세	(17)	23.5	41.2	35.3		100.0
25-29세	(16)	50.0	18.8	18.8	12.5	100.0
30-34세	(11)	45.5		45.5	9.1	100.0
35-39세	(20)	65.0	20.0		15.0	100.0
거주 지역						
장안구	(15)	60.0	6.7	26.7	6.7	100.0
권선구	(19)	52.6	10.5	21.1	15.8	100.0
팔달구	(16)	37.5	43.8	18.8		100.0
영통구	(14)	35.7	28.6	21.4	14.3	100.0
취업상태						
취업	(38)	50.0	15.8	18.4	15.8	100.0
미취업	(26)	42.3	30.8	26.9		100.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9)	55.6	11.1	22.2	11.1	100.0
대학교 재학	(23)	34.8	30.4	26.1	8.7	100.0
대학교 졸업 이상	(32)	53.1	18.8	18.8	9.4	100.0

■ 연극 관람 지역

○ ‘연극 관람 지역’에 대한 질문에 67.3%의 응답자가 ‘서울시’라고 응답함

- 이어서 ‘수원시 내’가 25.4%, ‘경기도 타시군’이 5.4%, ‘그 외 지역’ 2.0%인 것으로 나타남

(단위 : %)



<그림 4-129> 연극 관람 지역

○ 성별에 관계없이 남녀 모두 ‘서울시’라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음 (남성 응답률 63.5%, 여성 응답률 70.0%)

○ 연령대로 보았을 때, 35~39세는 ‘수원시 내’라고 답한 응답자가 61.7%로 가장 높았고,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서울시’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 특히 25~29세에서 76.7%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임

○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서울시’라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음

- 장안구가 70.0%로 가장 높고 영통구가 65.0%로 가장 낮음

○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서울시’라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음 (취업자 응답률 66.1%, 미취업자 응답률 69.0%)

○ 학력에 관계없이 ‘서울시’라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음

- 대학교 졸업 이상 응답자가 61.1%로 가장 낮고, 대학교 재학생이 81.0%로 가장 높음

<표 4-136> 응답자 특성별 연극 관람 지역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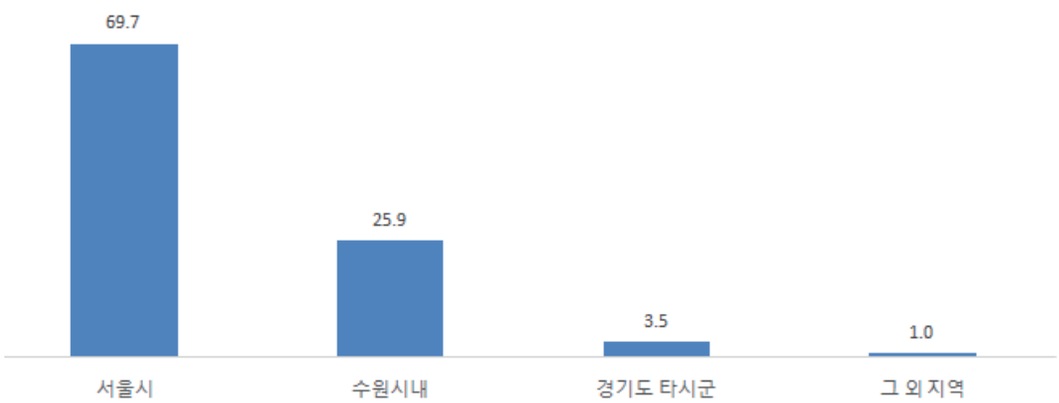
	사례수 (명)	수원시내	경기도 타시군	서울시	그 외 지역	계
전체	**(205)**	**25.4**	**5.4**	**67.3**	**2.0**	**100.0**
성별						
남성	(85)	23.5	9.4	63.5	3.5	100.0
여성	(120)	26.7	2.5	70.0	0.8	100.0
연령대						
20-24세	(57)	5.3	8.8	86.0		100.0
25-29세	(60)	16.7	1.7	76.7	5.0	100.0
30-34세	(41)	24.4	4.9	68.3	2.4	100.0
35-39세	(47)	61.7	6.4	31.9		100.0
거주 지역						
장안구	(50)	22.0	6.0	70.0	2.0	100.0
권선구	(60)	21.7	8.3	68.3	1.7	100.0
팔달구	(35)	25.7	5.7	65.7	2.9	100.0
영통구	(60)	31.7	1.7	65.0	1.7	100.0
취업상태						
취업	(118)	27.1	4.2	66.1	2.5	100.0
미취업	(87)	23.0	6.9	69.0	1.1	100.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29)	31.0	3.4	62.1	3.4	100.0
대학교 재학	(63)	11.1	7.9	81.0		100.0
대학교 졸업 이상	(113)	31.9	4.4	61.1	2.7	100.0

■ 뮤지컬 관람 지역

○ ‘뮤지컬 관람 지역’에 대한 질문에 69.7%의 응답자가 ‘서울시’라고 응답함

- 이어서 ‘수원시 내’가 25.9%, ‘경기도 타시군’이 3.5%, ‘그 외 지역’ 1.0%인 것으로 나타남

(단위 : %)



<그림 4-130> 뮤지컬 관람 지역

○ 성별에 관계없이 남녀 모두 ‘서울시’라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음 (나성 응답률 68.3%, 여성 응답률 70.6%)

○ 연령대에 관계없이 ‘서울시’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 특히 20~24세에서 78.7%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고, 35~39세에서는 55.2%로 가장 낮음

○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서울시’라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음

- 팔달구가 77.8%로 가장 높고 영통구가 65.1%로 가장 낮음

○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서울시’라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음 (취업자 응답률 70.0%, 미취업자 응답률 69.0%)

○ 학력에 관계없이 ‘서울시’라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음

-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응답자가 57.9%로 가장 낮고, 대학교 재학생이 74.1%로 가장 높음

<표 4-137> 응답자 특성별 뮤지컬 관람 지역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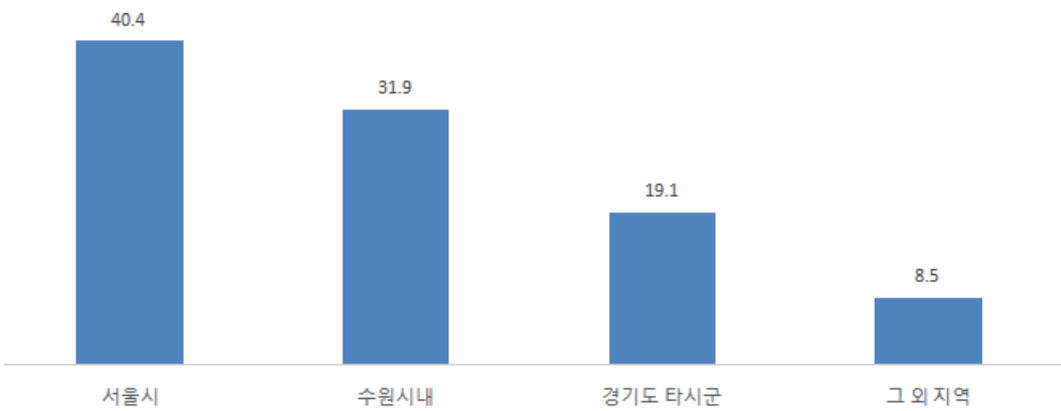
	사례수 (명)	수원시내	경기도 타시군	서울시	그 외 지역	계
전체	**(201)**	**25.9**	**3.5**	**69.7**	**1.0**	**100.0**
성별						
남성	(82)	29.3	1.2	68.3	1.2	100.0
여성	(119)	23.5	5.0	70.6	0.8	100.0
연령대						
20-24세	(47)	14.9	4.3	78.7	2.1	100.0
25-29세	(42)	21.4	4.8	73.8		100.0
30-34세	(54)	20.4	3.7	74.1	1.9	100.0
35-39세	(58)	43.1	1.7	55.2		100.0
거주 지역						
장안구	(47)	23.4	4.3	72.3		100.0
권선구	(55)	27.3	5.5	67.3		100.0
팔달구	(36)	16.7	5.6	77.8		100.0
영통구	(63)	31.7		65.1	3.2	100.0
취업상태						
취업	(130)	28.5	0.8	70.0	0.8	100.0
미취업	(71)	21.1	8.5	69.0	1.4	100.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9)	42.1		57.9		100.0
대학교 재학	(54)	20.4	3.7	74.1	1.9	100.0
대학교 졸업 이상	(128)	25.8	3.9	69.5	0.8	100.0

■ 무용 관람 지역

○ ‘무용(서양무용, 한국무용, 현대무용) 관람 지역’에 대한 질문에 40.4%의 응답자가 ‘서울시’라고 응답함

- 이어서 ‘수원시 내’가 31.9%, ‘경기도 타시군’이 19.1%, ‘그 외 지역’ 8.5%인 것으로 나타남

(단위 : %)



<그림 4-131> 무용 관람 지역

○ 성별에 관계없이 남녀 모두 ‘서울시’라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음 (남성 응답률 33.3%, 여성 응답률 47.8%)

○ 연령대로 보았을 때, 35~39세는 ‘수원시 내’라고 답한 응답자가 72.7%로 가장 높았고,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서울시’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 특히 30~34세에서 75.0%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임

○ 거주 지역으로 보았을 때, 장안구 거주자는 ‘수원시 내’라고 답한 응답자가 43.8%로 가장 높았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서울시’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 특히 권선구와 팔달구 거주자는 반수인 50.0%가 서울시에서 무용 관람을 했다고 응답함

○ 취업자는 ‘수원시 내’라고 응답한 비율이 40.0%로 가장 높았고, 미취업자는 ‘서울시’라고 응답한 비율이 45.5%로 가장 높았음

○ 학력에 관계없이 ‘서울시’라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음

- 대학교 졸업 이상 응답자에 한해서 ‘수원시 내’라고 응답한 비율과 ‘서울시’라고 응답한 비율이 41.7%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남

<표 4-138> 응답자 특성별 무용 관람 지역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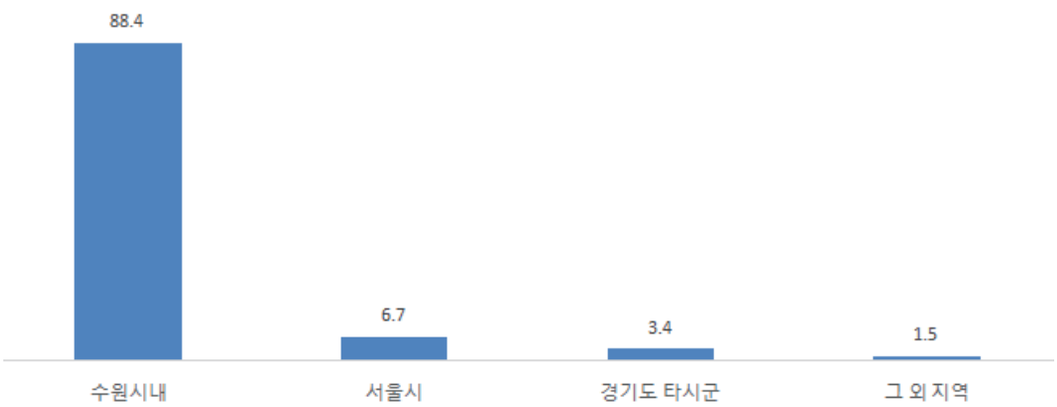
	사례수 (명)	수원시내	경기도 타시군	서울시	그 외 지역	계
전체	**(47)**	**31.9**	**19.1**	**40.4**	**8.5**	**100.0**
성별						
남성	(24)	29.2	29.2	33.3	8.3	100.0
여성	(23)	34.8	8.7	47.8	8.7	100.0
연령대						
20-24세	(10)	10.0	10.0	60.0	20.0	100.0
25-29세	(18)	27.8	27.8	33.3	11.1	100.0
30-34세	(8)	12.5	12.5	75.0		100.0
35-39세	(11)	72.7	18.2	9.1		100.0
거주 지역						
장안구	(16)	43.8	31.3	25.0		100.0
권선구	(10)	20.0		50.0	30.0	100.0
팔달구	(10)	20.0	30.0	50.0		100.0
영통구	(11)	36.4	9.1	45.5	9.1	100.0
취업상태						
취업	(25)	40.0	24.0	36.0		100.0
미취업	(22)	22.7	13.6	45.5	18.2	100.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8)	25.0	37.5	37.5		100.0
대학교 재학	(15)	20.0	20.0	40.0	20.0	100.0
대학교 졸업 이상	(24)	41.7	12.5	41.7	4.2	100.0

■ 영화 관람 지역

○ ‘영화 관람 지역’에 대한 질문에 88.4%의 응답자가 ‘수원시 내’라고 응답함

- 이어서 ‘서울시’ 6.7%, ‘경기도 타시군’ 3.4%, ‘그 외 지역’ 1.5%인 것으로 나타남

(단위 : %)



<그림 4-132> 영화 관람 지역

○ 성별에 관계없이 남녀 모두 ‘수원시 내’라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음 (남성 응답률 88.8%, 여성 응답률 90.1%)

○ 연령대에 관계없이 ‘수원시 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 특히 30~34세에서 92.0%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고, 25~29세에서는 83.7%로 가장 낮음

○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수원시 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 특히 권선구 거주자가 90.0%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고, 팔달구 거주자가 86.6%로 가장 낮음

○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수원시 내’라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음 (취업자 응답률 88.3%, 미취업자 응답률 88.6%)

○ 학력에 관계없이 ‘수원시 내’라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음

-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응답자가 92.7%로 가장 높고, 대학교 재학생이 85.8%로 가장 낮음

<표 4-139> 응답자 특성별 영화 관람 지역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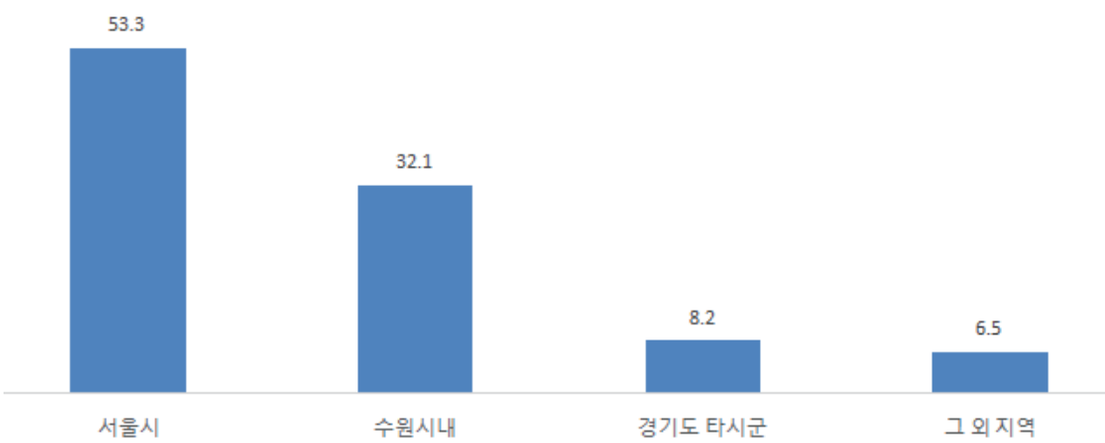
	사례수 (명)	수원시내	경기도 타시군	서울시	그 외 지역	계
전체	**(715)**	**88.4**	**3.4**	**6.7**	**1.5**	**100.0**
성별						
남성	(363)	86.8	4.1	6.9	2.2	100.0
여성	(352)	90.1	2.6	6.5	0.9	100.0
연령대						
20-24세	(203)	90.6	1.5	6.4	1.5	100.0
25-29세	(166)	83.7	4.2	10.2	1.8	100.0
30-34세	(162)	92.0	2.5	4.9	0.6	100.0
35-39세	(184)	87.0	5.4	5.4	2.2	100.0
거주 지역						
장안구	(155)	88.4	3.9	5.2	2.6	100.0
권선구	(221)	90.0	5.4	3.2	1.4	100.0
팔달구	(112)	86.6	1.8	9.8	1.8	100.0
영통구	(227)	87.7	1.8	9.7	0.9	100.0
취업상태						
취업	(400)	88.3	4.0	6.3	1.5	100.0
미취업	(315)	88.6	2.5	7.3	1.6	100.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50)	92.7	2.7	3.3	1.3	100.0
대학교 재학	(211)	85.8	3.3	9.5	1.4	100.0
대학교 졸업 이상	(354)	88.1	3.7	6.5	1.7	100.0

■ 대중음악, 연예 관람 지역

○ ‘대중음악(가요콘서트), 연예(방송 프로그램 등) 관람 지역’에 대한 질문에 53.3%의 응답자가 ‘서울시’라고 응답함

- 이어서 ‘수원시 내’가 32.1%, ‘경기도 타시군’이 8.2%, ‘그 외 지역’ 6.5%인 것으로 나타남

(단위 : %)



<그림 4-133> 대중음악, 연예 관람 지역

○ 성별에 관계없이 남녀 모두 ‘서울시’라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음 (남성 응답률 51.1%, 여성 응답률 55.4%)

○ 연령대에 관계없이 ‘서울시’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 특히 20~24세에서 60.7%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고, 25~29세에서는 42.5%로 가장 낮음

○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서울시’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 팔달구 거주자의 경우에는 ‘수원시 내’라는 응답과 ‘서울시’라는 응답이 모두 43.2%로 같게 나타남

○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서울시’라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음 (취업자 응답률 55.7%, 미취업자 응답률 50.0%)

○ 학력에 관계없이 ‘서울시’라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음

-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응답자가 37.0%로 가장 낮고, 대학교 재학생이 57.9%로 가장 높음

<표 4-140> 응답자 특성별 대중음악, 연예 관람 지역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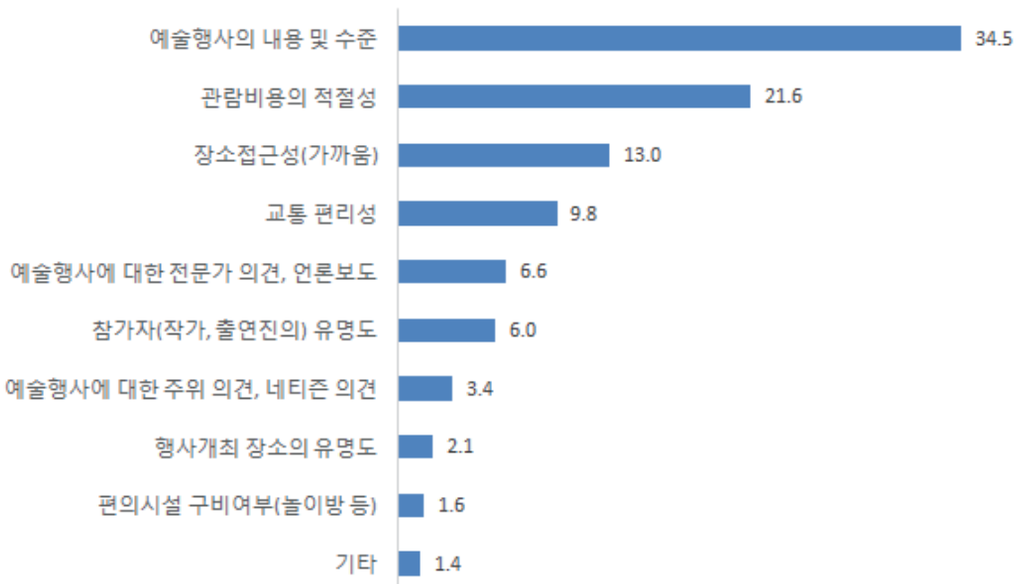
	사례수 (명)	수원시내	경기도 타시군	서울시	그 외 지역	계
전체	**(184)**	**32.1**	**8.2**	**53.3**	**6.5**	**100.0**
성별						
남성	(92)	31.5	9.8	51.1	7.6	100.0
여성	(92)	32.6	6.5	55.4	5.4	100.0
연령대						
20-24세	(61)	29.5	4.9	60.7	4.9	100.0
25-29세	(40)	37.5	12.5	42.5	7.5	100.0
30-34세	(48)	29.2	8.3	54.2	8.3	100.0
35-39세	(35)	34.3	8.6	51.4	5.7	100.0
거주 지역						
장안구	(45)	37.8	11.1	46.7	4.4	100.0
권선구	(51)	27.5	5.9	62.7	3.9	100.0
팔달구	(37)	43.2	8.1	43.2	5.4	100.0
영통구	(51)	23.5	7.8	56.9	11.8	100.0
취업상태						
취업	(106)	28.3	7.5	55.7	8.5	100.0
미취업	(78)	37.2	9.0	50.0	3.8	100.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27)	48.1	3.7	37.0	11.1	100.0
대학교 재학	(57)	31.6	8.8	57.9	1.8	100.0
대학교 졸업 이상	(100)	28.0	9.0	55.0	8.0	100.0

다. 예술행사 관람 기준

○ ‘예술행사 관람 기준’에 대하여 응답자들의 34.5%가 ‘예술행사의 내용 및 수준’이라고 응답함

- 이어서 ‘관람비용의 적절성’이 21.6%, ‘장소접근성 (가까움)’이 13.0%, ‘교통 편리성’이 9.8% 순으로 나타남

(단위 : %)



<그림 4-134> 예술행사 관람 기준

○ 성별에 관계없이 남녀 모두 ‘예술행사의 내용 및 수준’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남성 응답률 30.4%, 여성 응답률 39.0%)

○ 연령대에 관계없이 ‘예술행사의 내용 및 수준’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25~29세의 응답 비율이 39.8%로 가장 높고 35~39세의 응답 비율이 29.0%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예술행사의 내용 및 수준’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응답 비율은 장안구 거주자가 40.7%로 가장 높고, 영통구 거주자가 28.3%로 가장 낮음

○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예술행사의 내용 및 수준’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취업자 응답률 33.6%, 미취업자 응답률 35.6%)

○ 대학교 재학생과 대학교 졸업 이상 응답자는 ‘예술행사의 내용 및 수준’이라고 가장 많은 수의 응답자가 답했으며,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응답자는 30.2%가 ‘관람비용의 적절성’이라고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함

<표 4-141> 응답자 특성별 예술행사 관람 기준

(단위 : %)

	사례수 (명)	예술행사의 내용 및 수준	참가자(작가, 출연진의) 유명도	교통 편리성	예술행사에 대한 전문가 의견, 언론 보도	장소 접근성(가까움)	관람 비용의 적절성	행사 개최 장소의 유명도	편의시설 구비 여부 (놀이방 등)	예술행사에 대한 주위 의견, 네티즌 의견	기타	계
전체	**(800)**	**34.5**	**6.0**	**9.8**	**6.6**	**13.0**	**21.6**	**2.1**	**1.6**	**3.4**	**1.4**	**100.0**
성별												
남성	(415)	30.4	7.2	10.4	6.7	13.7	22.4	2.2	1.7	3.6	1.7	100.0
여성	(385)	39.0	4.7	9.1	6.5	12.2	20.8	2.1	1.6	3.1	1.0	100.0
연령대												
20-24세	(219)	36.5	9.1	6.4	5.5	11.4	22.4	2.3	0.9	4.1	1.4	100.0
25-29세	(186)	39.8	5.9	10.8	7.0	11.3	19.9	1.1	0.5	3.2	0.5	100.0
30-34세	(185)	33.0	3.8	11.4	8.1	12.4	18.9	2.7	2.7	4.9	2.2	100.0
35-39세	(210)	29.0	4.8	11.0	6.2	16.7	24.8	2.4	2.4	1.4	1.4	100.0
거주 지역												
장안구	(182)	40.7	7.1	8.2	3.3	12.6	17.0	1.6	1.6	3.8	3.8	100.0
권선구	(245)	34.3	6.9	9.8	1.6	14.3	24.9	1.2	2.4	3.7	0.8	100.0
팔달구	(126)	38.1	4.8	7.9	1.6	10.3	27.0	3.2	0.8	5.6	0.8	100.0
영통구	(247)	28.3	4.9	11.7	16.6	13.4	19.0	2.8	1.2	1.6	0.4	100.0
취업상태												
취업	(449)	33.6	5.6	12.9	5.3	12.9	21.2	2.2	1.8	3.1	1.3	100.0
미취업	(351)	35.6	6.6	5.7	8.3	13.1	22.2	2.0	1.4	3.7	1.4	100.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26.0	4.7	10.1	4.7	16.0	30.2	2.4	3.0	2.4	0.6	100.0
대학교 재학	(231)	32.9	8.2	7.8	8.2	10.0	22.5	2.2	0.4	5.6	2.2	100.0
대학교 졸업 이상	(400)	39.0	5.3	10.8	6.5	13.5	17.5	2.0	1.8	2.5	1.3	100.0

3) 미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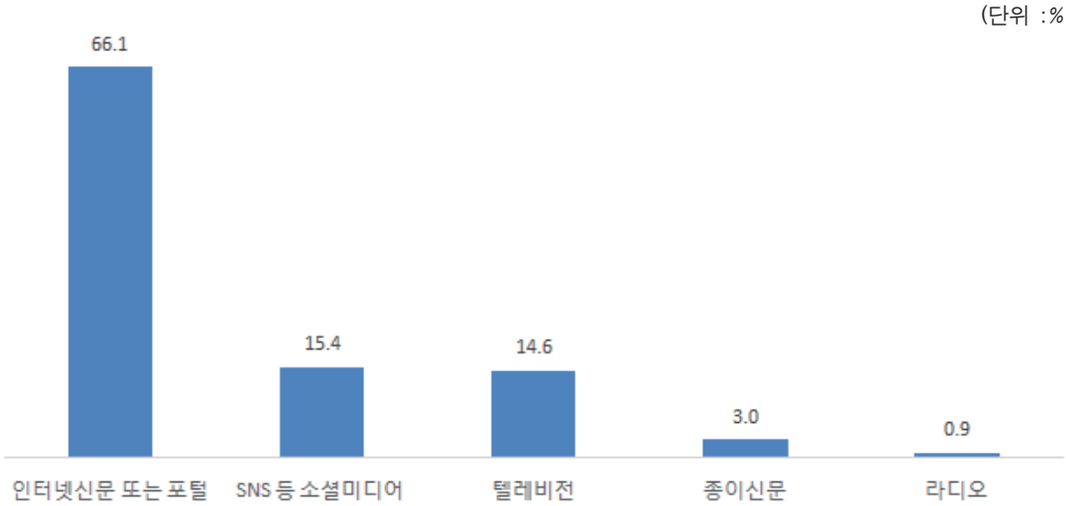
(1) 미디어활용

가. 가장 자주 접한 뉴스 매체

○ ‘가장 자주 접한 뉴스 매체’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반수가 넘는 응답자의 66.1%가 ‘인터넷신문 또는 포털’이라고 응답함

- 이어서 ‘SNS 등 소셜미디어’가 15.4%, ‘테레비전’이 14.6%, ‘종이신문’이 3.0%, ‘라디오’가 0.9%로 나타남

(단위 : %)



<그림 4-135> 가장 자주 접한 뉴스 매체

○ 성별에 관계없이 남녀 모두 ‘인터넷신문 또는 포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남성 응답률 71.8%, 여성 응답률 60.0%)

○ 연령대에 관계없이 ‘인터넷신문 또는 포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30~34세의 응답 비율이 71.9%로 가장 높고 20~24세의 응답 비율이 59.8%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인터넷신문 또는 포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응답 비율은 장안구 거주자가 68.7%로 가장 높고, 팔달구 거주자가 58.7%로 가장 낮음

○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인터넷신문 또는 포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취업자 응답률 66.8%, 미취업자 응답률 65.2%)

○ 학력에 관계없이 ‘인터넷신문 또는 포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응답 비율은 대학교 졸업 이상 응답자가 69.5%로 가장 높고,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응답자가 60.9%로 가장 낮음

<표 4-142> 응답자 특성별 가장 자주 접한 뉴스 매체

(단위 : %)

	사례수 (명)	종이신문	인터넷신문 또는 포털	텔레비전	라디오	SNS 등 소셜 미디어	계
전체	**(800)**	**3.0**	**66.1**	**14.6**	**0.9**	**15.4**	**100.0**
성별							
남성	(415)	2.9	71.8	11.3	0.2	13.7	100.0
여성	(385)	3.1	60.0	18.2	1.6	17.1	100.0
연령대							
20-24세	(219)	0.5	59.8	12.3	0.5	26.9	100.0
25-29세	(186)	5.9	62.9	12.4		18.8	100.0
30-34세	(185)	2.7	71.9	16.2	1.6	7.6	100.0
35-39세	(210)	3.3	70.5	17.6	1.4	7.1	100.0
거주 지역							
장안구	(182)	1.1	68.7	10.4	1.1	18.7	100.0
권선구	(245)	3.3	66.5	18.4	0.4	11.4	100.0
팔달구	(126)	0.8	58.7	17.5	3.2	19.8	100.0
영통구	(247)	5.3	67.6	12.6		14.6	100.0
취업상태							
취업	(449)	3.3	66.8	14.3	1.1	14.5	100.0
미취업	(351)	2.6	65.2	15.1	0.6	16.5	100.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2.4	60.9	20.7	1.8	14.2	100.0
대학교 재학	(231)	1.3	64.1	10.4	0.4	23.8	100.0
대학교 졸업 이상	(400)	4.3	69.5	14.5	0.8	11.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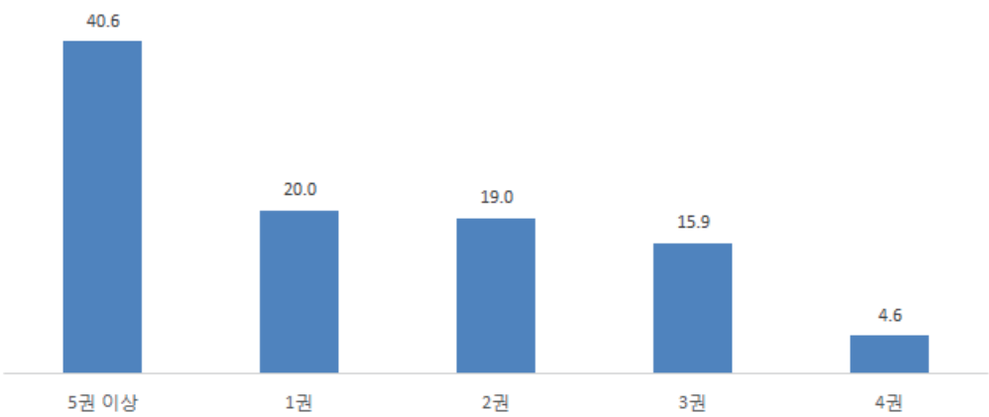
나. 독서 수준

■ 지난 1년 간 독서량

○ ‘지난 1년 간 독서량’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들의 40.6%가 ‘5권 이상’이라고 응답함

- 이어서 ‘1권’이 20.0%, ‘2권’이 19.0%, ‘3권’이 15.9%, ‘4권’가 4.6%로 나타남

(단위 : %)



<그림 4-136> 지난 1년 간 독서량

○ 성별에 관계없이 남녀 모두 ‘5권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남성 응답률 41.7%, 여성 응답률 39.5%)

○ 연령대에 관계없이 ‘5권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20~24세의 응답 비율이 48.1%로 가장 높고 35~39세의 응답 비율이 34.4%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5권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응답 비율은 팔달구 거주자가 53.7%로 가장 높고, 권선구 거주자가 45.9%로 가장 낮음

○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5권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취업자 응답률 39.3%, 미취업자 응답률 42.0%)

○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응답자는 ‘1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학교 재학생 및 대학교 졸업 이상 응답자는 ‘5권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표 4-143> 응답자 특성별 지난 1년 간 독서량

(단위 : %, 권)

	사례수 (명)	1권	2권	3권	4권	5권 이상	계	평균
전체	**(611)**	**20.0**	**19.0**	**15.9**	**4.6**	**40.6**	**100.0**	**6.1**
성별								
남성	(312)	19.6	19.9	13.8	5.1	41.7	100.0	5.7
여성	(299)	20.4	18.1	18.1	4.0	39.5	100.0	6.5
연령대								
20-24세	(183)	19.7	14.2	11.5	6.6	48.1	100.0	6.8
25-29세	(139)	19.4	21.6	12.2	5.0	41.7	100.0	6.0
30-34세	(135)	16.3	23.0	21.5	3.0	36.3	100.0	6.0
35-39세	(154)	24.0	18.8	19.5	3.2	34.4	100.0	5.4
거주 지역								
장안구	(134)	23.9	17.9	15.7	4.5	38.1	100.0	5.7
권선구	(185)	13.0	21.6	15.7	3.8	45.9	100.0	6.2
팔달구	(95)	22.1	7.4	8.4	8.4	53.7	100.0	9.4
영통구	(197)	22.8	22.8	19.8	3.6	31.0	100.0	4.7
취업상태								
취업	(328)	21.6	19.5	15.2	4.3	39.3	100.0	6.1
미취업	(283)	18.0	18.4	16.6	4.9	42.0	100.0	6.1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02)	35.3	17.6	14.7	5.9	26.5	100.0	4.7
대학교 재학	(191)	16.2	19.4	11.0	7.3	46.1	100.0	6.5
대학교 졸업 이상	(318)	17.3	19.2	19.2	2.5	41.8	100.0	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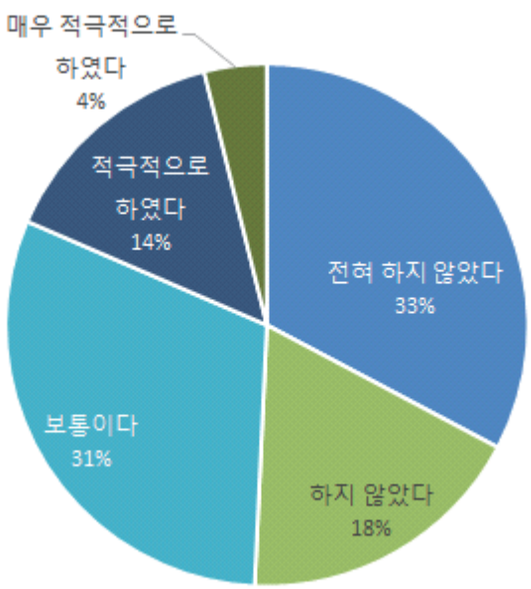
다. 온라인 활동

■ 최근 3개월간의 인터넷 동호회/카페/클럽 활동

○ ‘최근 3개월간의 인터넷 동호회/카페/클럽 활동’에 대한 평균은 2.4로 보통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부정 응답률이 50.8%로 가장 높음

(단위 : %)



<그림 4-137> 최근 3개월간의 인터넷 동호회/카페/클럽 활동

○ 남성 평균 2.3, 여성 평균 2.5로 여성의 활동이 더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남성 긍정 응답률 15.9%, 여성 긍정 응답률 21.3%)

○ 연령별로 보았을 때 20~24세의 평균이 2.3으로 가장 낮았고, 나머지 연령대의 평균은 모두 2.4로 전반적으로 활동이 저조함을 알 수 있음

○ 거주 지역별로 보았을 때 장안구 거주자의 평균이 2.3으로 가장 낮고 권선구 거주자의 평균이 2.5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취업자 평균 2.5, 미취업자 평균 2.3으로 취업자의 활동이 더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취업자 긍정 응답률 20.0%, 미취업자 긍정 응답률 16.5%)

○ 대학교 재학생의 평균이 2.3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대학교 졸업 이상 응답자의 평균이 2.5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4-144> 응답자 특성별 최근 3개월간의 인터넷 동호회/카페/클럽 활동

(단위 :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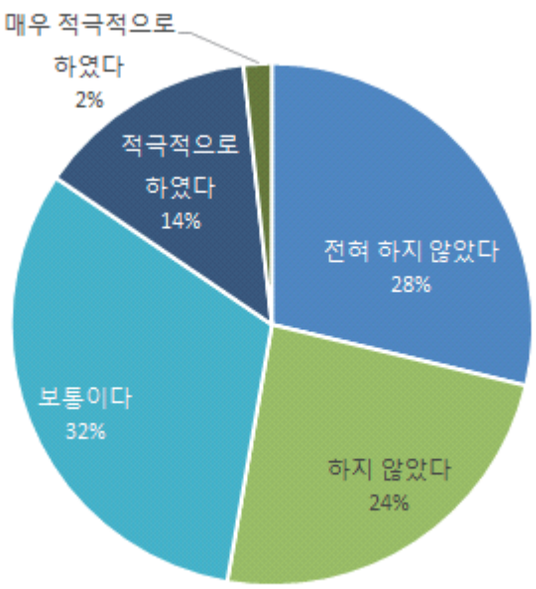
	사례수 (명)	전혀 하지 않았다	←	①+②	보통이다	→	매우 적극적으로 하였다	④+⑤	계	평균
전체	**(800)**	**32.8**	**18.0**	**50.8**	**30.8**	**14.6**	**3.9**	**18.5**	**100.0**	**2.4**
성별										
남성	(415)	33.3	19.8	53.0	31.1	12.5	3.4	15.9	100.0	2.3
여성	(385)	32.2	16.1	48.3	30.4	16.9	4.4	21.3	100.0	2.5
연령대										
20-24세	(219)	34.7	19.2	53.9	26.9	16.0	3.2	19.2	100.0	2.3
25-29세	(186)	32.8	14.5	47.3	33.9	12.9	5.9	18.8	100.0	2.4
30-34세	(185)	34.1	17.3	51.4	28.6	16.8	3.2	20.0	100.0	2.4
35-39세	(210)	29.5	20.5	50.0	33.8	12.9	3.3	16.2	100.0	2.4
거주 지역										
장안구	(182)	40.7	13.7	54.4	29.1	12.1	4.4	16.5	100.0	2.3
권선구	(245)	29.4	16.3	45.7	31.8	18.4	4.1	22.4	100.0	2.5
팔달구	(126)	33.3	14.3	47.6	37.3	11.9	3.2	15.1	100.0	2.4
영통구	(247)	30.0	24.7	54.7	27.5	14.2	3.6	17.8	100.0	2.4
취업상태										
취업	(449)	29.0	17.1	46.1	33.9	15.6	4.5	20.0	100.0	2.5
미취업	(351)	37.6	19.1	56.7	26.8	13.4	3.1	16.5	100.0	2.3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35.5	15.4	50.9	31.4	13.0	4.7	17.8	100.0	2.4
대학교 재학	(231)	34.6	21.2	55.8	28.6	12.1	3.5	15.6	100.0	2.3
대학교 졸업 이상	(400)	30.5	17.3	47.8	31.8	16.8	3.8	20.5	100.0	2.5

■ 최근 3개월간의 인터넷 뉴스/토론 게시판 이용

○ '최근 3개월간의 인터넷 뉴스/토론 게시판 이용' 에 대한 평균은 2.4로 보통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부정 응답률이 52.8%로 가장 높음

(단위 : %)



<그림 4-138> 최근 3개월간의 인터넷 뉴스/토론 게시판 이용

○ 남성 평균 2.4, 여성 평균 2.3으로 남성의 활동이 더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남성 부정 응답률 51.8%, 여성 부정 응답률 53.8%)

○ 연령별로 보았을 때 25~29세와 35~39세의 평균은 2.3, 20~24세와 30~34세의 평균은 2.4로 약간 높게 나타났으나 전반적으로 활동이 저조함을 알 수 있음

○ 거주 지역별로 보았을 때 장안구와 권선구 거주자의 평균이 2.3으로 가장 낮고 팔달구와 영통구 거주자의 평균이 2.4로 약간 높게 나타남

○ 취업자 평균 2.4, 미취업자 평균 2.3으로 취업자의 활동이 약간 더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취업자 긍정 응답률 17.1%, 미취업자 긍정 응답률 13.4%)

○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응답자의 평균이 2.2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나머지의 평균은 2.4로 약간 높게 나타남

<표 4-145> 응답자 특성별 최근 3개월간의 인터넷 뉴스/토론 게시판 이용

(단위 :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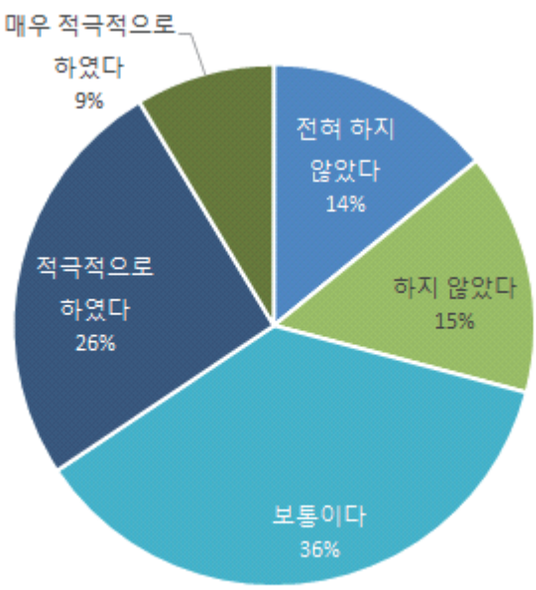
	사례수 (명)	전혀 하지 않았다	←	①+②	보통이다	→	매우 적극적으로 하였다	④+⑤	계	평균
전체	**(800)**	**28.8**	**24.0**	**52.8**	**31.8**	**13.8**	**1.8**	**15.5**	**100.0**	**2.4**
성별										
남성	(415)	27.5	24.3	51.8	33.0	13.3	1.9	15.2	100.0	2.4
여성	(385)	30.1	23.6	53.8	30.4	14.3	1.6	15.8	100.0	2.3
연령대										
20-24세	(219)	24.7	28.3	53.0	31.5	14.6	0.9	15.5	100.0	2.4
25-29세	(186)	32.8	20.4	53.2	28.0	17.7	1.1	18.8	100.0	2.3
30-34세	(185)	25.9	24.9	50.8	34.1	13.5	1.6	15.1	100.0	2.4
35-39세	(210)	31.9	21.9	53.8	33.3	9.5	3.3	12.9	100.0	2.3
거주 지역										
장안구	(182)	34.6	18.1	52.7	31.9	12.6	2.7	15.4	100.0	2.3
권선구	(245)	29.4	24.9	54.3	32.2	12.2	1.2	13.5	100.0	2.3
팔달구	(126)	27.8	24.6	52.4	31.7	11.9	4.0	15.9	100.0	2.4
영통구	(247)	24.3	27.1	51.4	31.2	17.0	0.4	17.4	100.0	2.4
취업상태										
취업	(449)	27.2	24.1	51.2	31.6	15.4	1.8	17.1	100.0	2.4
미취업	(351)	30.8	23.9	54.7	31.9	11.7	1.7	13.4	100.0	2.3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32.0	23.7	55.6	34.3	8.9	1.2	10.1	100.0	2.2
대학교 재학	(231)	25.5	27.3	52.8	30.7	14.3	2.2	16.5	100.0	2.4
대학교 졸업 이상	(400)	29.3	22.3	51.5	31.3	15.5	1.8	17.3	100.0	2.4

■ 최근 3개월간의 인터넷 지식 서비스 이용

○ ‘최근 3개월간의 인터넷 지식 서비스 이용’에 대한 평균은 3.0으로 보통인 것으로 나타남

-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36.5%로 가장 높음

(단위 : %)



<그림 4-139> 최근 3개월간의 인터넷 지식 서비스 이용

○ 남성 평균 2.9, 여성 평균 3.1로 여성의 활동이 더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남성 긍정 응답률 7.7%, 여성 긍정 응답률 9.6%)

○ 연령별로 보았을 때 25~29세의 평균이 2.9로 가장 낮고 30~34세의 평균이 3.1로 가장 높게 나타남

- 30~34세는 긍정적으로고 응답한 경우가 38.9%로 가장 높게 나타남.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모두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거주 지역별로 보았을 때 팔달구 거주자의 평균이 2.9로 가장 낮고 영통구 거주자의 평균이 3.1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장안구와 팔달구 거주자는 긍정적으로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권선구와 영통구 거주자는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평균이 3.0으로 나타남 (취업자 36.7%, 미취업자 36.2%)

○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응답자의 평균이 2.9로 유일하게 보통에 약간 미치지 못함

-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응답자와 대학교 재학생은 '보통이다' 라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대학교 졸업 이상 응답자들은 긍정적으로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음

<표 4-146> 응답자 특성별 최근 3개월간의 인터넷 지식 서비스 이용

(단위 :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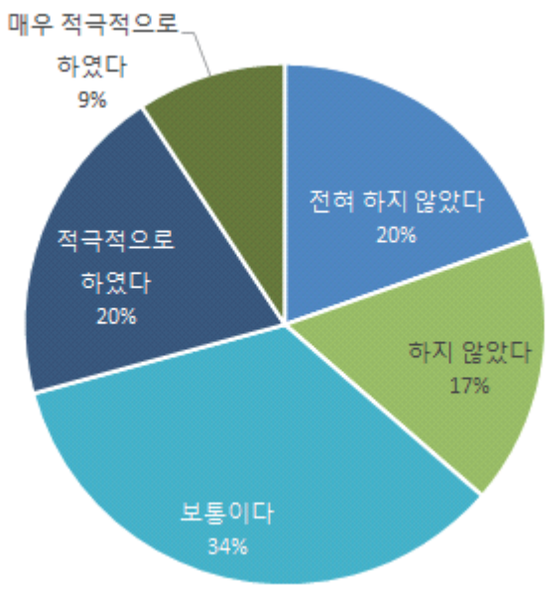
	사례수 (명)	전혀 하지 않았다	←	①+②	보통이다	→	매우 적극적으로 하였다	④+⑤	계	평균
전체	**(800)**	**14.1**	**15.0**	**29.1**	**36.5**	**25.8**	**8.6**	**34.4**	**100.0**	**3.0**
성별										
남성	(415)	14.7	16.6	31.3	36.4	24.6	7.7	32.3	100.0	2.9
여성	(385)	13.5	13.2	26.8	36.6	27.0	9.6	36.6	100.0	3.1
연령대										
20-24세	(219)	10.5	16.9	27.4	37.9	26.9	7.8	34.7	100.0	3.0
25-29세	(186)	19.4	14.5	33.9	34.9	21.5	9.7	31.2	100.0	2.9
30-34세	(185)	14.6	14.6	29.2	31.9	28.6	10.3	38.9	100.0	3.1
35-39세	(210)	12.9	13.8	26.7	40.5	25.7	7.1	32.9	100.0	3.0
거주 지역										
장안구	(182)	18.1	10.4	28.6	35.2	28.0	8.2	36.3	100.0	3.0
권선구	(245)	15.1	13.1	28.2	38.0	24.9	9.0	33.9	100.0	3.0
팔달구	(126)	17.5	15.9	33.3	32.5	27.0	7.1	34.1	100.0	2.9
영통구	(247)	8.5	19.8	28.3	38.1	24.3	9.3	33.6	100.0	3.1
취업상태										
취업	(449)	12.2	16.0	28.3	36.7	26.5	8.5	35.0	100.0	3.0
미취업	(351)	16.5	13.7	30.2	36.2	24.8	8.8	33.6	100.0	3.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16.6	12.4	29.0	40.2	24.3	6.5	30.8	100.0	2.9
대학교 재학	(231)	14.3	16.9	31.2	35.9	23.4	9.5	32.9	100.0	3.0
대학교 졸업 이상	(400)	13.0	15.0	28.0	35.3	27.8	9.0	36.8	100.0	3.0

■ 최근 3개월간의 SNS 활동

○ ‘최근 3개월간의 SNS(Social Network Service)활동’에 대한 평균은 2.8로 보통에 약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부정 응답률이 36.4%로 가장 높음

(단위 : %)



<그림 4-140> 최근 3개월간의 SNS 활동

○ 남성 평균 2.7, 여성 평균 3.0으로 여성의 활동이 더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 성별에 따라서 남성의 경우 부정 응답률이 39.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여성의 경우에는 긍정 응답률이 34.3%로 나타나 남녀 간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 연령별로 보았을 때 35~29세의 평균이 2.6으로 가장 낮고 20~24세의 평균이 3.1로 가장 높게 나타남

- 20~24세는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37.4%로 가장 높게 나타남.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모두 부정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남

○ 거주 지역별로 보았을 때 장안구 거주자의 평균이 2.6으로 가장 낮고 나머지 지역 거주자의 평균은 모두 2.9로 나타남

- 권선구 거주자는 긍정 응답률이 34.7%로 가장 높았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모두 부정적으로 응답한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평균이 2.8로 나타남 (취업자 부정 응답률 37.2%, 미취업자 부정 응답률 35.3%)

○ 대학교 졸업 이상 응답자의 평균이 2.7로 가장 낮고 대학교 재학생의 평균은 3,0으로 보통인 것으로 나타남

-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응답자와 대학교 재학생은 '보통이다' 라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대학교 졸업 이상 응답자들은 부정 응답률이 40.3%로 가장 높았음

<표 4-147> 응답자 특성별 최근 3개월간의 SNS 활동

(단위 : %, 점)

	사례수 (명)	전혀 하지 않았다	←	①+②	보통이다	→	매우 적극적으로 하였다	④+⑤	계	평균
전체	**(800)**	**19.6**	**16.8**	**36.4**	**34.4**	**20.0**	**9.3**	**29.3**	**100.0**	**2.8**
성별										
남성	(415)	20.5	19.3	39.8	35.7	18.3	6.3	24.6	100.0	2.7
여성	(385)	18.7	14.0	32.7	33.0	21.8	12.5	34.3	100.0	3.0
연령대										
20-24세	(219)	11.4	15.1	26.5	37.4	21.9	14.2	36.1	100.0	3.1
25-29세	(186)	23.1	15.1	38.2	27.4	24.2	10.2	34.4	100.0	2.8
30-34세	(185)	23.8	17.3	41.1	32.4	17.8	8.6	26.5	100.0	2.7
35-39세	(210)	21.4	19.5	41.0	39.0	16.2	3.8	20.0	100.0	2.6
거주 지역										
장안구	(182)	23.6	17.6	41.2	39.6	12.6	6.6	19.2	100.0	2.6
권선구	(245)	18.4	14.3	32.7	32.7	26.1	8.6	34.7	100.0	2.9
팔달구	(126)	24.6	13.5	38.1	28.6	17.5	15.9	33.3	100.0	2.9
영통구	(247)	15.4	20.2	35.6	35.2	20.6	8.5	29.1	100.0	2.9
취업상태										
취업	(449)	18.3	18.9	37.2	34.3	20.0	8.5	28.5	100.0	2.8
미취업	(351)	21.4	14.0	35.3	34.5	19.9	10.3	30.2	100.0	2.8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20.1	12.4	32.5	36.1	18.9	12.4	31.4	100.0	2.9
대학교 재학	(231)	15.6	16.9	32.5	34.6	20.8	12.1	32.9	100.0	3.0
대학교 졸업 이상	(400)	21.8	18.5	40.3	33.5	20.0	6.3	26.3	100.0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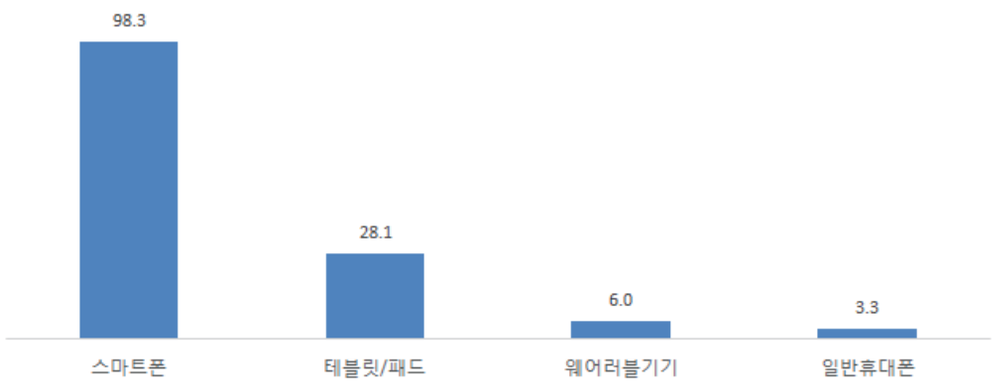
라. 휴대폰 현황

■ 사용 중인 IT기기

○ '사용 중인 IT기기'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의 98.3%가 '스마트폰'을 사용 중이라고 응답함

- 이어서 '태블릿 / 패드'가 28.1%, '웨어러블 기기'가 6.0%, '일반휴대폰'은 3.3%가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남

(단위 : %)



<그림 4-141> 사용 중인 IT기기

○ 성별에 따라서 모든 IT기기에 있어 남성의 사용 비율이 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웨어러블 기기의 경우에는 남성의 8.2%, 여성의 3.6%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남성이 여성의 2배가 넘는 수치를 보임

○ 일반 휴대폰과 웨어러블 기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연령은 25~29세, 태블릿 / 패드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30~34세인 것으로 나타났고, 스마트폰의 경우 20~24세에서 99.5%가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임

○ 장안구 거주자가 일반휴대폰, 스마트폰, 태블릿 / 패드 모두 가장 사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웨어러블 기기 보유 비율은 권선구 거주자가 6.9%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일반휴대폰과 스마트폰은 미취업자가, 태블릿 / 패드와 웨어러블 기기는 취업자가 사용하고 있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 일반휴대폰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응답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데 반해 스마트폰, 태블릿 / 패드, 웨어러블 기기는 모두 대학교 졸업 이상 응답자가 가장 높은 비율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4-148> 응답자 특성별 사용 중인 IT기기

(단위 : %)

	사례수 (명)	일반휴대폰	스마트폰	테블릿/패드	웨어러블기기	계
전체	**(800)**	**3.3**	**98.3**	**28.1**	**6.0**	**100.0**
성별						
남성	(415)	3.9	98.6	28.2	8.2	100.0
여성	(385)	2.6	97.9	28.1	3.6	100.0
연령대						
20-24세	(219)	2.3	99.5	20.1	3.7	100.0
25-29세	(186)	5.4	97.3	29.6	8.1	100.0
30-34세	(185)	3.2	97.3	37.3	6.5	100.0
35-39세	(210)	2.4	98.6	27.1	6.2	100.0
거주 지역						
장안구	(182)	4.9	98.9	33.0	6.0	100.0
권선구	(245)	2.9	98.8	29.4	6.9	100.0
팔달구	(126)	6.3	95.2	29.4	5.6	100.0
영통구	(247)	0.8	98.8	22.7	5.3	100.0
취업상태						
취업	(449)	3.1	98.2	28.5	6.7	100.0
미취업	(351)	3.4	98.3	27.6	5.1	100.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4.1	96.4	16.0	3.0	100.0
대학교 재학	(231)	3.9	98.7	28.6	4.3	100.0
대학교 졸업 이상	(400)	2.5	98.8	33.0	8.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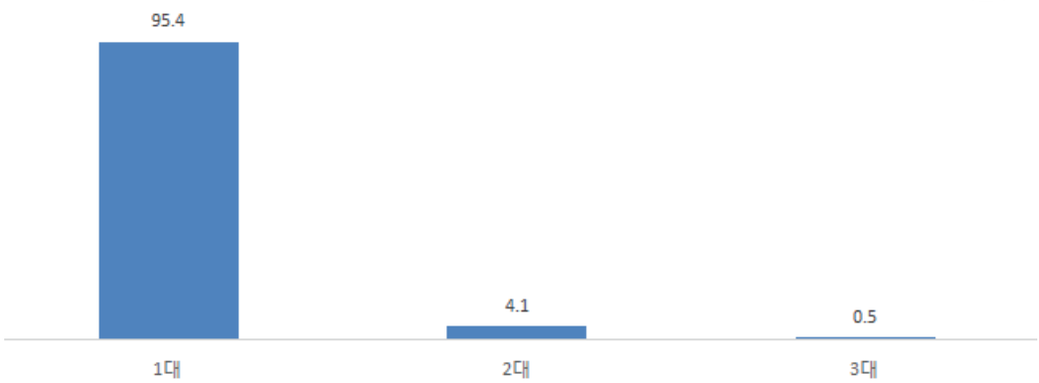
■ 일반휴대폰 대수

○ 일반 휴대폰을 2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없었음

■ 스마트폰 대수

○ 사용 중인 '스마트폰 대수'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2대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전체의 4.1%, 3대 이상은 0.5%인 것으로 나타남

(단위 : %)



<그림 4-142> 스마트폰 대수

○ 성별에 따라서 2대를 사용하는 경우는 남성이 5.6%, 여성이 2.4%로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임

- 3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남녀 모두 0.5%로 동일함

○ 2대를 사용하는 경우는 35~39세가 6.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3대 사용 비율 역시 35~39세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 장안구 거주자가 2대, 3대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취업자의 경우가 2대, 3대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 2대, 3대를 사용하는 비율은 대학교 졸업 이상 응답자가 가장 많았음

<표 4-149> 응답자 특성별 스마트폰 대수

(단위 : %)

	사례수 (명)	1대	2대	3대	계
전체	**(786)**	**95.4**	**4.1**	**0.5**	**100.0**
성별					
남성	(409)	93.9	5.6	0.5	100.0
여성	(377)	97.1	2.4	0.5	100.0
연령대					
20-24세	(218)	98.2	1.8		100.0
25-29세	(181)	95.6	4.4		100.0
30-34세	(180)	96.1	3.3	0.6	100.0
35-39세	(207)	91.8	6.8	1.4	100.0
거주 지역					
장안구	(180)	89.4	8.3	2.2	100.0
권선구	(242)	96.3	3.7		100.0
팔달구	(120)	98.3	1.7		100.0
영통구	(244)	97.5	2.5		100.0
취업상태					
취업	(441)	93.9	5.4	0.7	100.0
미취업	(345)	97.4	2.3	0.3	100.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3)	95.7	4.3		100.0
대학교 재학	(228)	97.8	1.8	0.4	100.0
대학교 졸업 이상	(395)	93.9	5.3	0.8	100.0

■ 태블릿 / 패드 대수

○ 태블릿 및 패드는 최대 2대를 사용하고 있었음

○ 성별에 따라서 2대를 보유하고 있는 비율은 남성이 5.1%, 여성이 2.8%로 남성의 비율이 더 높음

○ 35~39세가 2대를 보유하고 있는 비율이 7.0%로 가장 높음

○ 장안구 거주자가 2대 사용 비율이 8.3%로 가장 높음

○ 취업 상태에 따라서 취업자의 2대 보유율이 4.7%로 미취업자의 3.1%보다 높음

○ 2대 이상 보유율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응답자가 11.1%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4-150> 응답자 특성별 태블릿 / 패드 대수

(단위 : %)

	사례수 (명)	1대	2대	계
전체	**(225)**	**96.0**	**4.0**	**100.0**
성별				
남성	(117)	94.9	5.1	100.0
여성	(108)	97.2	2.8	100.0
연령대				
20-24세	(44)	97.7	2.3	100.0
25-29세	(55)	96.4	3.6	100.0
30-34세	(69)	97.1	2.9	100.0
35-39세	(57)	93.0	7.0	100.0
거주 지역				
장안구	(60)	91.7	8.3	100.0
권선구	(72)	100.0		100.0
팔달구	(37)	94.6	5.4	100.0
영통구	(56)	96.4	3.6	100.0
취업상태				
취업	(128)	95.3	4.7	100.0
미취업	(97)	96.9	3.1	100.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27)	88.9	11.1	100.0
대학교 재학	(66)	95.5	4.5	100.0
대학교 졸업 이상	(132)	97.7	2.3	100.0

■ 웨어러블 기기 대수

○ 웨어러블 기기는 최대 2대를 사용하고 있었음

○ 성별에 따라서 2대를 보유하고 있는 비율은 남성이 8.8%, 여성이 7.1%로 남성의 비율이 더 높음

○ 30~34세가 2대를 보유하고 있는 비율이 16.7%로 가장 높음

○ 권선구 거주자가 2대 사용 비율이 11.8%로 가장 높음

○ 취업 상태에 따라서 취업자의 2대 보유율이 10.0%로 미취업자의 5.6%보다 높음

○ 2대 이상 보유율은 대학교 졸업 이상 응답자가 12.1%로 가장 높게 나타남.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응답자와 대학교 재학생 중 2대 이상의 웨어러블 기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없었음

<표 4-151> 응답자 특성별 웨어러블 기기 대수

(단위 : %)

	사례수 (명)	1대	2대	계
전체	**(48)**	**91.7**	**8.3**	**100.0**
성별				
남성	(34)	91.2	8.8	100.0
여성	(14)	92.9	7.1	100.0
연령대				
20-24세	(8)	100.0		100.0
25-29세	(15)	93.3	6.7	100.0
30-34세	(12)	83.3	16.7	100.0
35-39세	(13)	92.3	7.7	100.0
거주 지역				
장안구	(11)	90.9	9.1	100.0
권선구	(17)	88.2	11.8	100.0
팔달구	(7)	100.0		100.0
영통구	(13)	92.3	7.7	100.0
취업상태				
취업	(30)	90.0	10.0	100.0
미취업	(18)	94.4	5.6	100.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5)	100.0		100.0
대학교 재학	(10)	100.0		100.0
대학교 졸업 이상	(33)	87.9	12.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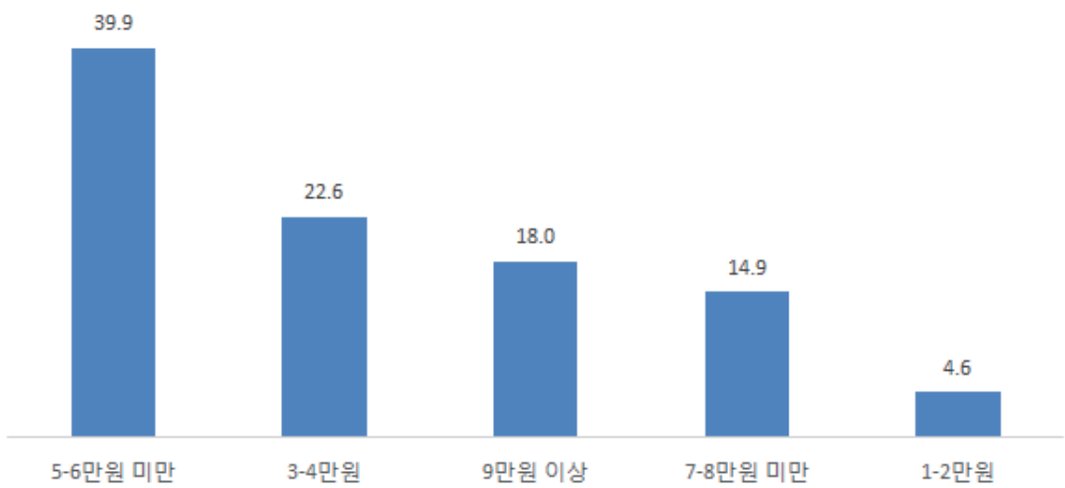
마. 통신 요금

■ 월평균 통신 요금

○ ‘월평균 통신 요금’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의 39.9%가 ‘5~6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함

- 이어서 ‘3~4만원’이 22.6%, ‘9만원 이상’이 18.0%, ‘7~8만원 미만’이 14.9%, ‘1~2만원’이 4.6%로 나타남

(단위 : %)



<그림 4-143> 월평균 통신 요금

○ 성별에 관계없이 남녀 모두 ‘5~6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남성 응답률 41.4%, 여성 응답률 38.2%)

○ 연령대에 관계없이 ‘5~6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30~34세의 응답 비율이 44.3%로 가장 높고 20~24세의 응답 비율이 37.0%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5~6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응답 비율은 영통구 거주자가 43.3%로 가장 높고, 장안구 거주자가 30.8%로 가장 낮음

○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5~6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취업자 응답률 39.6%, 미취업자 응답률 40.2%)

○ 학력에 관계없이 ‘5~6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응답 비율은 대학교 졸업 이상 응답자가 41.8%로 가장 높고, 대학교 재학생이 35.5%로 가장 낮음

<표 4-152> 응답자 특성별 월평균 통신 요금

(단위 : %.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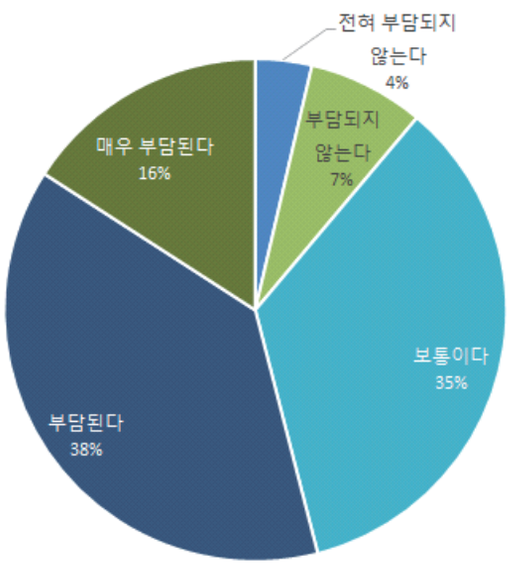
	사례수 (명)	1-2만원	3-4만원	5-6만원 미만	7-8만원 미만	9만원 이상	계	평균
전체	**(800)**	**4.6**	**22.6**	**39.9**	**14.9**	**18.0**	**100.0**	**6.1**
성별								
남성	(415)	4.6	18.6	41.4	15.4	20.0	100.0	6.3
여성	(385)	4.7	27.0	38.2	14.3	15.8	100.0	5.9
연령대								
20-24세	(219)	3.7	25.6	37.0	12.8	21.0	100.0	6.2
25-29세	(186)	3.8	19.4	37.1	17.2	22.6	100.0	6.5
30-34세	(185)	8.1	19.5	44.3	14.1	14.1	100.0	5.9
35-39세	(210)	3.3	25.2	41.4	15.7	14.3	100.0	6.0
거주 지역								
장안구	(182)	3.3	20.3	30.8	20.3	25.3	100.0	6.7
권선구	(245)	4.9	20.8	42.4	12.7	19.2	100.0	6.2
팔달구	(126)	7.9	23.8	41.3	11.9	15.1	100.0	5.8
영통구	(247)	3.6	25.5	43.3	14.6	13.0	100.0	5.8
취업상태								
취업	(449)	3.8	19.2	39.6	17.8	19.6	100.0	6.4
미취업	(351)	5.7	27.1	40.2	11.1	16.0	100.0	5.8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3.6	14.8	41.4	15.4	24.9	100.0	6.6
대학교 재학	(231)	4.8	26.0	35.5	13.9	19.9	100.0	6.2
대학교 졸업 이상	(400)	5.0	24.0	41.8	15.3	14.0	100.0	5.9

■ 통신요금 부담 정도

○ ‘통신요금 부담 정도’에 대한 평균은 3.6으로 보통 이상으로 부담되는 것으로 나타남

- 부담된다는 응답률이 54.0%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단위 : %)



<그림 4-144> 통신요금 부담 정도

○ 남성 평균 3.5, 여성 평균 3.6으로 모두 통신비에 부담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남성 응답률 53.3%, 여성 응답률 54.8%)

○ 연령별로 보았을 때 25~29세의 평균이 3.7로 가장 높아 가장 많이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거주 지역별로 보았을 때 권선구 거주자의 평균이 3.7로 가장 높게 나타나 가장 많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취업자의 평균은 3.6, 미취업자의 평균은 3.5로 모두 보통 이상의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취업자 응답률 56.6%, 미취업자 응답률 50.7%)

○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응답자의 평균이 3.7로 가장 높아 가장 많이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4-153> 응답자 특성별 통신요금 부담 정도

(단위 :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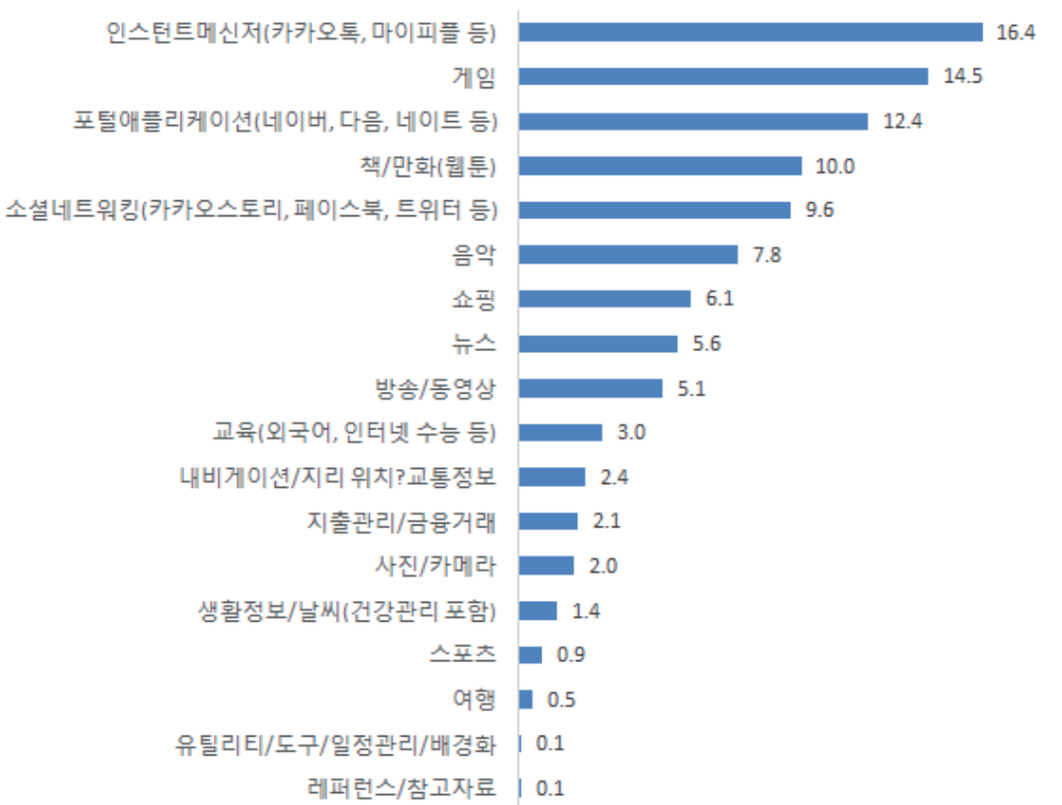
	사례수 (명)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부담되지 않는다	①+②	보통이다	부담된다	매우 부담된다	④+⑤	계	평균
전체	**(800)**	**3.6**	**7.5**	**11.1**	**34.9**	**38.1**	**15.9**	**54.0**	**100.0**	**3.6**
성별										
남성	(415)	2.9	8.0	10.8	35.9	38.1	15.2	53.3	100.0	3.5
여성	(385)	4.4	7.0	11.4	33.8	38.2	16.6	54.8	100.0	3.6
연령대										
20-24세	(219)	5.5	5.0	10.5	41.1	33.3	15.1	48.4	100.0	3.5
25-29세	(186)	1.6	5.9	7.5	35.5	36.6	20.4	57.0	100.0	3.7
30-34세	(185)	4.9	9.7	14.6	28.1	41.1	16.2	57.3	100.0	3.5
35-39세	(210)	2.4	9.5	11.9	33.8	41.9	12.4	54.3	100.0	3.5
거주 지역										
장안구	(182)	4.4	7.7	12.1	33.0	39.0	15.9	54.9	100.0	3.5
권선구	(245)	2.4	4.5	6.9	31.4	40.0	21.6	61.6	100.0	3.7
팔달구	(126)	7.1	9.5	16.7	35.7	30.2	17.5	47.6	100.0	3.4
영통구	(247)	2.4	9.3	11.7	39.3	39.7	9.3	49.0	100.0	3.4
취업상태										
취업	(449)	2.9	8.2	11.1	32.3	41.6	14.9	56.6	100.0	3.6
미취업	(351)	4.6	6.6	11.1	38.2	33.6	17.1	50.7	100.0	3.5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0.6	7.1	7.7	33.1	37.9	21.3	59.2	100.0	3.7
대학교 재학	(231)	5.6	4.8	10.4	40.7	34.2	14.7	48.9	100.0	3.5
대학교 졸업 이상	(400)	3.8	9.3	13.0	32.3	40.5	14.3	54.8	100.0	3.5

바. 최빈 사용 애플리케이션

○ ‘최빈 사용 애플리케이션’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의 16.4%가 ‘인스턴트메신저 (카카오톡, 마이피플 등)’이라고 응답함

- 이어서 ‘게임’ 14.5%, ‘포털 애플리케이션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12.4%, ‘책 / 만화 (웹툰)’ 10.0%, ‘소셜 네트워킹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 등)’ 9.6% 등의 순으로 나타남

(단위 : %)



<그림 4-145> 최빈 사용 애플리케이션

○ 남성의 경우 ‘게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2.7%로 가장 높았고, 여성의 경우에는 ‘인스턴트메신저 (카카오톡, 마이피플 등)’라고 응답한 비율이 21.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20~24세는 ‘책 / 만화 (웹툰)’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6.9%로 가장 높았고, 25~34세에서는 ‘인스턴트메신저 (카카오톡, 마이피플 등)’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15.1%,

19.5%로 가장 높게 나타남. 35~39세는 ‘포털애플리케이션(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이라고 16.2%의 응답자가 답함

- 취업자는 15.6%가 ‘게임’이라고 답했고 미취업자는 19.1%가 ‘인스턴트메신저 (카카오톡, 마이피플 등)’라고 응답함
-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응답자는 17.2%가 ‘게임’이라고 응답했고, 대학교 재학생은 ‘책 / 만화 (웹툰)’이라는 응답이 18.2%, 그리고 대학교 졸업 이상 응답자는 ‘인스턴트메신저 (카카오톡, 마이피플 등)’라고 응답한 비율이 17.8%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4-154> 응답자 특성별 최빈 사용 애플리케이션

(단위 : %)

	사례수 (명)	책/만화(웹툰)	교육(외국어, 인터넷 수능 등)	게임	지출관리/금융거래	쇼핑	생활정보/날씨(건강관리 포함)	음악	방송/동영상	사진/카메라	내비게이션/지리 위치?교통정보	뉴스	소셜네트워킹(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 등)	인스턴트메신저(카카오톡 마이피플 등)	스포츠	여행	유틸리티/도구/일정관리/배경화	레퍼런스/참고자료	포털애플리케이션(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계
전체	**(800)**	**10.0**	**3.0**	**14.5**	**2.1**	**6.1**	**1.4**	**7.8**	**5.1**	**2.0**	**2.4**	**5.6**	**9.6**	**16.4**	**0.9**	**0.5**	**0.1**	**0.1**	**12.4**	**100.0**
성별																				
남성	(415)	11.8	2.9	22.7	2.7	2.7	1.2	6.7	4.8	1.0	3.6	6.5	7.5	11.8	1.7				12.5	100.0
여성	(385)	8.1	3.1	5.7	1.6	9.9	1.6	8.8	5.5	3.1	1.0	4.7	11.9	21.3		1.0	0.3	0.3	12.2	100.0
연령대																				
20-24세	(219)	16.9	2.3	13.7	0.5	5.9	0.9	10.5	4.6	2.3	0.9	1.4	12.3	16.4	0.5			0.5	10.5	100.0
25-29세	(186)	9.1	4.3	14.0	3.2	3.8	1.1	10.2	6.5	2.2	2.2	4.8	11.3	15.1	0.5	1.1	0.5		10.2	100.0
30-34세	(185)	8.1	2.2	16.2	3.8	4.9	1.6	5.4	5.4	1.6	2.7	6.5	8.1	19.5	1.6				12.4	100.0
35-39세	(210)	5.2	3.3	14.3	1.4	9.5	1.9	4.8	4.3	1.9	3.8	10.0	6.7	14.8	1.0	1.0			16.2	100.0
거주 지역																				
장안구	(182)	9.9	1.1	10.4	0.5	6.6	1.1	12.1	4.4	1.1	4.4	4.9	9.9	19.8	2.2				11.5	100.0
권선구	(245)	13.5	2.4	15.5	2.9	6.9	1.2	6.5	2.9	2.9	2.9	8.6	5.7	12.7	0.8	0.8		0.4	13.5	100.0
팔달구	(126)	8.7	9.5	18.3	3.2	9.5	1.6	4.0	4.0	1.6		2.4	10.3	15.9	0.8	1.6			8.7	100.0
영통구	(247)	7.3	1.6	14.6	2.0	3.2	1.6	7.7	8.5	2.0	1.6	4.9	13.0	17.8			0.4		13.8	100.0
취업상태																				
취업	(449)	9.4	1.8	15.6	3.1	5.1	1.6	8.5	6.2	1.6	3.6	6.0	8.5	14.3	1.3	0.7	0.2		12.7	100.0
미취업	(351)	10.8	4.6	13.1	0.9	7.4	1.1	6.8	3.7	2.6	0.9	5.1	11.1	19.1	0.3	0.3		0.3	12.0	100.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8.3	1.8	17.8	1.8	2.4	0.6	7.7	7.7	1.8	4.7	6.5	8.3	16.0	1.8	0.6	0.6		11.8	100.0
대학교 재학	(231)	18.2	3.0	14.7	1.3	6.5	0.9	7.4	3.9	3.0	0.9	2.2	12.6	14.3				0.4	10.8	100.0
대학교 졸업 이상	(400)	6.0	3.5	13.0	2.8	7.5	2.0	8.0	4.8	1.5	2.3	7.3	8.5	17.8	1.0	0.8			13.5	100.0

3. 발돋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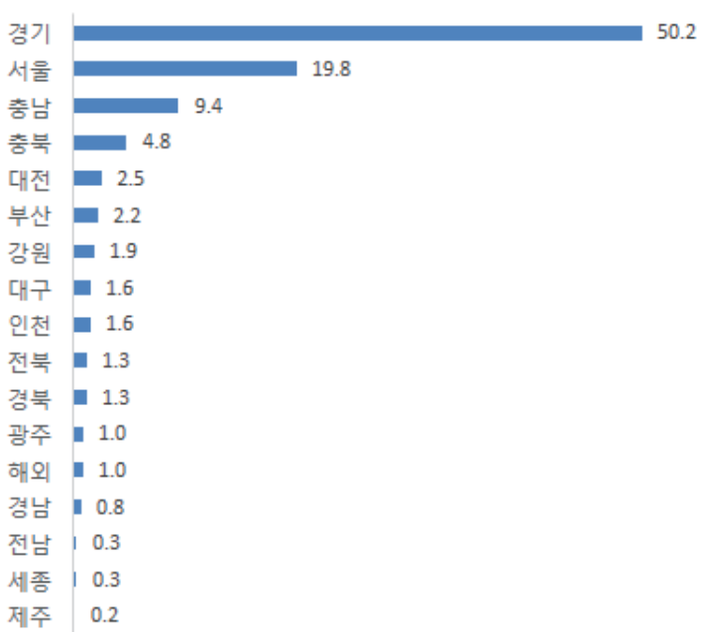
1) 교육

(1) 대학 경험

가. 대학 소재지

○ 출신 대학 소재지는 경기도가 50.2%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서울 19.8%, 충남 9.4% 등의 순으로 나타남

(단위 : %)



<그림 4-146> 대학 소재지

○ 남성은 경기도 소재 대학을 나온 비율이 55.3%로 여성의 44.7%보다 높았고, 여성은 서울로 진학한 경우가 21.5%로 남성의 18.2%보다 높게 나타남

○ 20대는 30대에 비해 경기도 소재 대학에 진학한 경우가 많았고, 반면 30대의 경우 20대에 비해 서울로 진학한 비율이 높았음

○ 장안구 지역 거주자가 경기도 소재 대학 출신인 경우가 55.6%로 가장 많았고, 권선구 거주자는 서울로 진학한 비율이 22.1%로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남

○ 경기도 소재 대학에 진학한 경우는 미취업자가 취업자가 비해 높았으나 서울 소재 대학 진학률은 취업자가 미취업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4-155> 응답자 특성별 대학 소재지

(단위 : %)

	사례수 (명)	경기	서울	충남	충북	대전	부산	강원	대구	인천	전북	경북	광주	해외	경남	전남	세종	제주	계
전체	**(631)**	**50.2**	**19.8**	**9.4**	**4.8**	**2.5**	**2.2**	**1.9**	**1.6**	**1.6**	**1.3**	**1.3**	**1.0**	**1.0**	**0.8**	**0.3**	**0.3**	**0.2**	**100.0**
성별																			
남성	(329)	55.3	18.2	7.6	5.5	2.7	1.8	2.1	0.6	1.5	0.6	1.2	1.2	0.6	0.3	0.3	0.3		100.0
여성	(302)	44.7	21.5	11.3	4.0	2.3	2.6	1.7	2.6	1.7	2.0	1.3	0.7	1.3	1.3	0.3	0.3	0.3	100.0
연령대																			
20-24세	(177)	70.1	11.3	8.5	4.5	1.1				2.8				0.6			1.1		100.0
25-29세	(146)	50.0	19.2	10.3	8.9	3.4	0.7	1.4		0.7	1.4	0.7	1.4	0.7	0.7			0.7	100.0
30-34세	(147)	42.2	25.9	8.2	4.1	2.0	2.0	5.4	2.7	0.7	1.4	2.0	1.4		1.4	0.7			100.0
35-39세	(161)	36.0	24.2	10.6	1.9	3.7	6.2	1.2	3.7	1.9	2.5	2.5	1.2	2.5	1.2	0.6			100.0
거주지역																			
장안구	(144)	55.6	16.7	10.4	4.9	1.4		3.5	2.1	0.7		1.4	0.7	0.7	2.1				100.0
권선구	(190)	47.4	22.1	10.5	4.2	2.6	1.6	2.6	1.1	1.6	1.6	1.1	1.1	1.6	0.5	0.5			100.0
팔달구	(102)	47.1	18.6	10.8	6.9	2.9	3.9		1.0	2.0		1.0	1.0	2.0	1.0		1.0	1.0	100.0
영통구	(195)	50.8	20.5	6.7	4.1	3.1	3.6	1.0	2.1	2.1	2.6	1.5	1.0			0.5	0.5		100.0
취업상태																			
취업	(329)	44.4	24.0	8.5	4.0	3.3	3.6	2.4	1.5	1.8	1.2	2.1	0.9	1.2	0.6	0.3			100.0
미취업	(302)	56.6	15.2	10.3	5.6	1.7	0.7	1.3	1.7	1.3	1.3	0.3	1.0	0.7	1.0	0.3	0.7	0.3	100.0
학력																			
대학교 재학	(231)	64.9	13.9	9.1	5.2	1.3		0.9		2.2		0.4	0.4	0.9			0.9		100.0
대학교 졸업 이상	(400)	41.8	23.3	9.5	4.5	3.3	3.5	2.5	2.5	1.3	2.0	1.8	1.3	1.0	1.3	0.5		0.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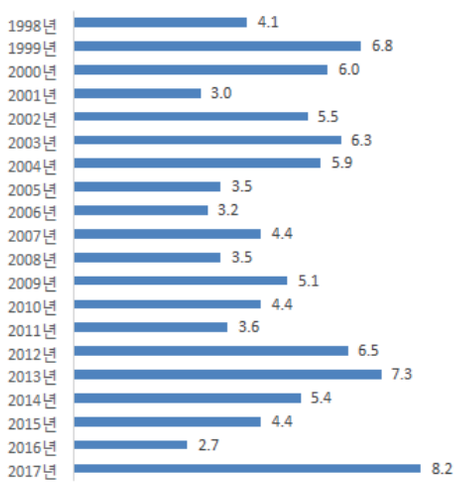
나. 대학 입학(편입) 시기 및 졸업 시기

■ 대학 입학(편입) 시기

○ 응답자 중 2017년에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 비율이 가장 높은 8.2%로 나타남

○ 남성은 2013년 입학한 응답자가 10.0%로 가장 높았고 여성은 2017년 입학한 응답자의 비율이 8.3%로 가장 높았음

(단위 : %)



<그림 4-147> 대학 입학(년)

<표 4-156> 응답자 특성별 대학 입학(년)

(단위 : %)

	사례수 (명)	2017 년	2013 년	1999 년	2012 년	2003 년	2000 년	2004 년	2002 년	2014 년	2009 년	2007 년	2010 년	2015 년	1998 년	2011 년	2005 년	2008 년	2006 년	2001 년	2016 년	계
전체	**(631)**	**8.2**	**7.3**	**6.8**	**6.5**	**6.3**	**6.0**	**5.9**	**5.5**	**5.4**	**5.1**	**4.4**	**4.4**	**4.4**	**4.1**	**3.6**	**3.5**	**3.5**	**3.2**	**3.0**	**2.7**	**100.0**
성별																						
남성	(329)	8.2	10.0	6.7	6.7	5.8	6.1	7.0	5.2	4.6	4.9	4.0	3.6	3.6	4.0	3.6	2.7	4.3	3.6	3.6	1.8	100.0
여성	(302)	8.3	4.3	7.0	6.3	7.0	6.0	4.6	6.0	6.3	5.3	5.0	5.3	5.3	4.3	3.6	4.3	2.6	2.6	2.3	3.6	100.0
연령대																						
20-24세	(177)	29.4	26.0							19.2				15.8							9.6	100.0
25-29세	(146)				28.1						21.9		19.2			15.8		15.1				100.0
30-34세	(147)					27.2		25.2				19.0					15.0		13.6			100.0
35-39세	(161)			26.7			23.6		21.7						16.1					11.8		100.0
거주지역																						
장안구	(144)	5.6	12.5	4.9	6.3	3.5	4.9	7.6	6.9	5.6	4.2	5.6	4.2	4.9	4.2	3.5	1.4	3.5	4.2	3.5	3.5	100.0
권선구	(190)	5.8	5.3	6.8	4.7	7.4	8.9	6.3	4.2	5.8	5.3	3.2	3.2	4.7	4.2	4.7	5.3	3.7	3.2	4.2	3.2	100.0
팔달구	(102)	7.8	7.8	2.9	3.9	4.9	5.9	3.9	5.9	7.8	8.8	6.9	4.9	4.9	3.9	3.9	3.9	5.9	2.0	2.9	1.0	100.0
영통구	(195)	12.8	5.1	10.3	9.7	8.2	4.1	5.1	5.6	3.6	3.6	3.6	5.6	3.6	4.1	2.6	3.1	2.1	3.1	1.5	2.6	100.0
취업상태																						
취업	(329)	2.1	4.0	8.8	4.6	7.0	7.6	9.1	7.6	2.1	6.4	6.4	5.8	2.1	5.8	3.3	4.9	3.3	4.6	3.6	0.9	100.0
미취업	(302)	14.9	10.9	4.6	8.6	5.6	4.3	2.3	3.3	8.9	3.6	2.3	3.0	7.0	2.3	4.0	2.0	3.6	1.7	2.3	4.6	100.0
학력																						
대학교 재학	(231)	22.5	16.9	0.9	9.5	1.3	0.9	1.7		14.3	2.2	0.9	3.0	12.1		4.3		0.9	0.9	0.4	7.4	100.0
대학교 졸업 이상	(400)		1.8	10.3	4.8	9.3	9.0	8.3	8.8	0.3	6.8	6.5	5.3		6.5	3.3	5.5	5.0	4.5	4.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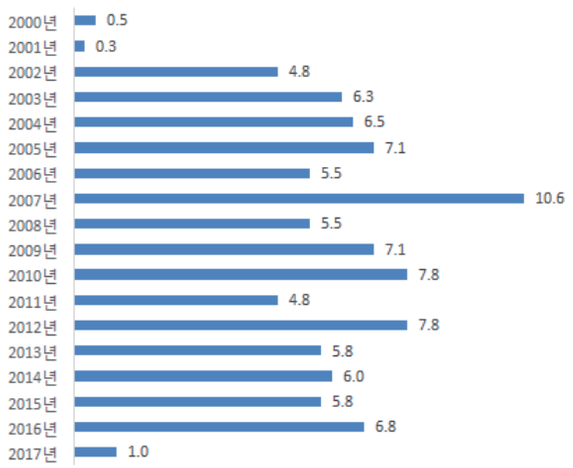
■ 대학 졸업 시기

○ 응답자 중 2007년에 대학을 졸업한 경우가 10.6%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남성은 2007년 졸업한 응답자가 13.0%로 가장 높았고 여성은 2016년 졸업한 응답자의 비율이 8.8%로 가장 높았음

○ 2004년 졸업 자 중에서 미취업자의 비율이 9.8%로 타 년도에 비해 가장 높고, 이어서 2005년 9.0%, 2007년 8.2% 등의 순으로 나타남

(단위 : %)



<그림 4-148> 대학 졸업(년)

<표 4-157> 응답자 특성별 대학 졸업(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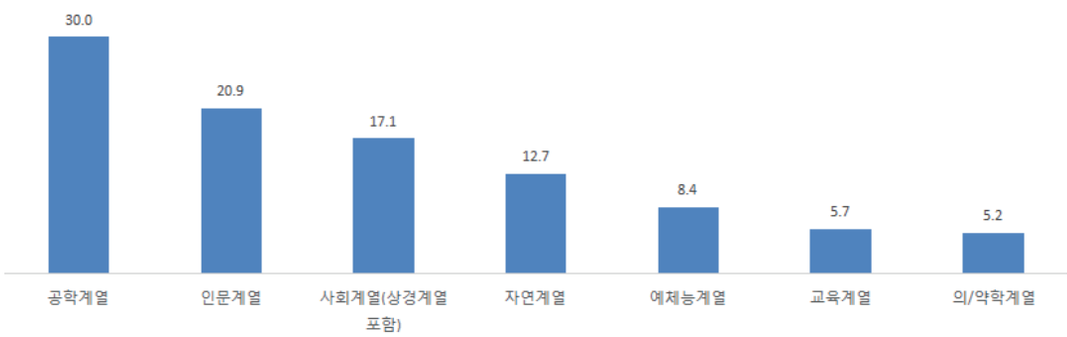
(단위 : %)

	사례수(명)	2007년	2010년	2012년	2005년	2009년	2016년	2004년	2003년	2014년	2013년	2015년	2006년	2008년	2002년	2011년	2017년	2000년	2001년	계
전체	**(397)**	**10.6**	**7.8**	**7.8**	**7.1**	**7.1**	**6.8**	**6.5**	**6.3**	**6.0**	**5.8**	**5.8**	**5.5**	**5.5**	**4.8**	**4.8**	**1.0**	**0.5**	**0.3**	**100.0**
성별																				
남성	(193)	13.0	8.3	7.8	7.3	8.8	4.7	5.7	4.1	5.2	7.8	5.2	6.2	6.7	2.1	5.7	1.0	0.5		100.0
여성	(204)	8.3	7.4	7.8	6.9	5.4	8.8	7.4	8.3	6.9	3.9	6.4	4.9	4.4	7.4	3.9	1.0	0.5	0.5	100.0
연령대																				
20-24세	(8)						25.0					37.5					37.5			100.0
25-29세	(97)		2.1	13.4			25.8			18.6	18.6	18.6				2.1	1.0			100.0
30-34세	(136)	14.7	18.4	13.2	1.5	16.9				4.4	3.7	1.5	3.7	10.3		11.8				100.0
35-39세	(156)	14.1	2.6		16.7	3.2		16.7	16.0				10.9	5.1	12.2	0.6		1.3	0.6	100.0
거주지역																				
장안구	(85)	5.9	7.1	10.6	8.2	5.9	5.9	9.4	5.9	4.7	5.9	8.2	4.7	4.7	3.5	4.7	1.2	2.4	1.2	100.0
권선구	(129)	15.5	7.0	10.9	9.3	7.8	8.5	3.9	7.0	1.6	4.7	3.9	5.4	7.0	3.9	3.1	0.8			100.0
팔달구	(64)	9.4	7.8	3.1	7.8	6.3	4.7	1.6	1.6	15.6	12.5	7.8	6.3	4.7	6.3	3.1	1.6			100.0
영통구	(119)	9.2	9.2	5.0	3.4	7.6	6.7	10.1	8.4	6.7	3.4	5.0	5.9	5.0	5.9	7.6	0.8			100.0
취업상태																				
취업	(275)	11.6	8.7	8.0	6.2	8.0	6.5	5.1	5.8	5.8	5.5	6.2	5.5	6.2	4.0	5.5	1.1	0.4		100.0
미취업	(122)	8.2	5.7	7.4	9.0	4.9	7.4	9.8	7.4	6.6	6.6	4.9	5.7	4.1	6.6	3.3	0.8	0.8	0.8	100.0
학력																				
대학교 졸업 이상	(397)	10.6	7.8	7.8	7.1	7.1	6.8	6.5	6.3	6.0	5.8	5.8	5.5	5.5	4.8	4.8	1.0	0.5	0.3	100.0

다. 전공

○ 공학 계열 전공자가 30.0%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이어서 인문계열 20.9%, 사회계열 17.1%, 자연계열 12.7% 등의 순으로 나타남

(단위 : %)



<그림 4-149> 전공

○ 남성은 공학계열을 전공한 비율이 42.6%로 가장 높았고, 여성은 인문계열 전공자가 26.8%로 가장 높았는데, 2순위는 남녀 모두 사회계열인 것으로 나타남

○ 25~29세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학 계열을 전공한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25~29세는 인문계열 전공자 비율이 23.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모두 공학계열 전공자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팔달구는 다른 지역과 달리 2순위가 사회계열인 것으로 나타남

○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공학 계열 전공자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미취업자의 경우 인문계열 전공자가 24.2%로 공학 전공 미취업자보다는 2% 낮고, 인문 전공 취업자에 비해서는 6% 가량 높게 나타남

<표 4-158> 응답자 특성별 전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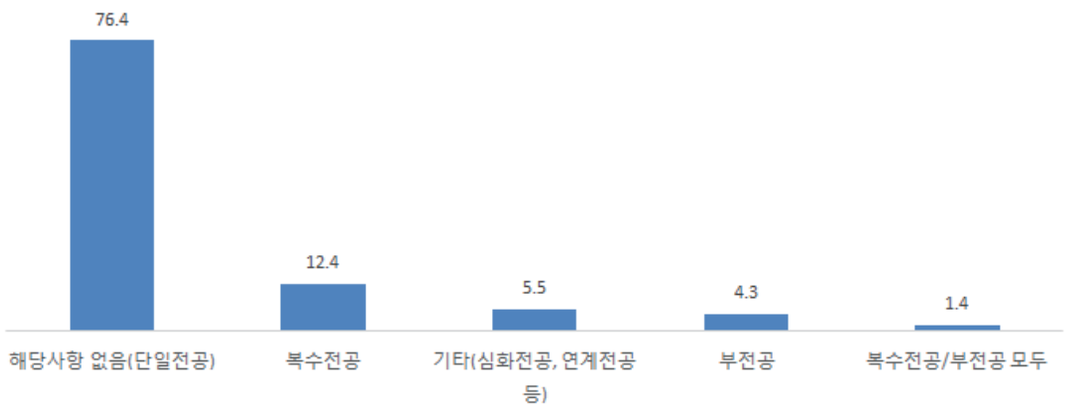
(단위 : %)

	사례수 (명)	공학계열	인문계열	사회계열 (상경계열 포함)	자연계열	예체능계열	교육계열	의/약학계열	계
전체	**(631)**	**30.0**	**20.9**	**17.1**	**12.7**	**8.4**	**5.7**	**5.2**	**100.0**
성별									
남성	(329)	42.6	15.5	17.3	11.9	8.2	1.5	3.0	100.0
여성	(302)	16.2	26.8	16.9	13.6	8.6	10.3	7.6	100.0
연령대									
20-24세	(177)	31.1	20.3	18.1	16.4	8.5	1.1	4.5	100.0
25-29세	(146)	22.6	23.3	19.9	8.2	14.4	5.5	6.2	100.0
30-34세	(147)	26.5	21.8	15.6	15.0	6.8	8.2	6.1	100.0
35-39세	(161)	38.5	18.6	14.9	10.6	4.3	8.7	4.3	100.0
거주지역									
장안구	(144)	29.2	22.9	13.9	10.4	6.9	6.3	10.4	100.0
권선구	(190)	34.7	17.9	16.3	11.1	7.9	7.9	4.2	100.0
팔달구	(102)	28.4	19.6	24.5	11.8	7.8	3.9	3.9	100.0
영통구	(195)	26.7	23.1	16.4	16.4	10.3	4.1	3.1	100.0
취업상태									
취업	(329)	33.1	17.9	17.9	10.3	9.7	5.8	5.2	100.0
미취업	(302)	26.5	24.2	16.2	15.2	7.0	5.6	5.3	100.0
학력									
대학교 재학	(231)	29.0	21.6	19.0	14.3	9.5	1.7	4.8	100.0
대학교 졸업 이상	(400)	30.5	20.5	16.0	11.8	7.8	8.0	5.5	100.0

라. 복수 전공 및 부전공

○ 복수 전공 또는 부전공 없이 단일전공을 이수한 경우가 76.4%로 가장 높았고, 복수 전공이 12.4%로 차순임

(단위 : %)



<그림 4-150> 복수/부전공 이수여부

○ 여성이 복수전공을 이수한 경우는 16.2%로 남성의 2배 정도 되고, 복수전공/부전공 모두 이수한 경우는 2.3%로 남성의 4배 정도로 나타남

○ 20~24세의 경우 복수전공을 하는 비율은 타 연령대와 비슷한 편이지만 부전공을 하는 경우는 1.7%에 불과해 큰 차이를 보임

○ 취업자의 경우 미취업자와 복수전공을 한 비율은 크게 차이가 없으나 부전공을 이수한 경우는 6.4%로 미취업자의 2.0%의 3배가 넘는 수치를 보임

○ 대학교 재학생은 대학교 졸업 이상 응답자와 비교했을 때 복수전공 이수 비율은 유사하나 부전공 이수 비율은 대학교 재학생이 2.6%, 대학교 졸업 이상 응답자가 5.3%로 차이를 보이고 있음

<표 4-159> 응답자 특성별 복수/부전공 이수여부

(단위 : %)

	사례수 (명)	해당사항 없음(단일전공)	복수전공	기타(심화전공, 연계전공 등)	부전공	복수전공/부전공 모두	계
전체	**(631)**	**76.4**	**12.4**	**5.5**	**4.3**	**1.4**	**100.0**
성별							
남성	(329)	82.7	8.8	4.0	4.0	0.6	100.0
여성	(302)	69.5	16.2	7.3	4.6	2.3	100.0
연령대							
20-24세	(177)	81.9	11.3	5.1	1.7		100.0
25-29세	(146)	70.5	11.6	7.5	7.5	2.7	100.0
30-34세	(147)	69.4	17.7	6.8	4.8	1.4	100.0
35-39세	(161)	82.0	9.3	3.1	3.7	1.9	100.0
거주지역							
장안구	(144)	75.7	11.1	6.9	5.6	0.7	100.0
권선구	(190)	77.9	10.5	3.7	5.3	2.6	100.0
팔달구	(102)	73.5	12.7	7.8	3.9	2.0	100.0
영통구	(195)	76.9	14.9	5.1	2.6	0.5	100.0
취업상태							
취업	(329)	74.5	12.5	5.5	6.4	1.2	100.0
미취업	(302)	78.5	12.3	5.6	2.0	1.7	100.0
학력							
대학교 재학	(231)	79.7	12.1	5.6	2.6		100.0
대학교 졸업 이상	(400)	74.5	12.5	5.5	5.3	2.3	100.0

마. 향후 대학원 진학 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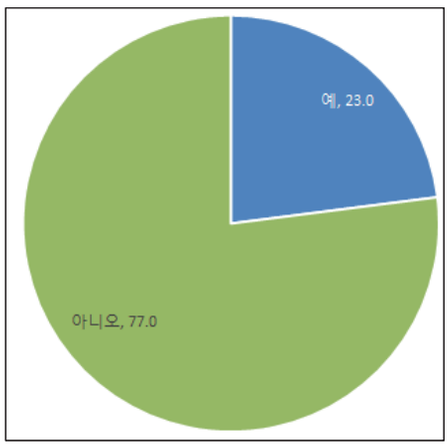
○ 대학원 진학 의사에 대해 묻는 질문에 응답자들의 23.0%가 ‘예’라고 답함

○ 성별에 따라서 긍정 응답률은 남성 22.5%, 여성 23.5%로 여성의 경우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5~29세에서 긍정 응답률이 28.8%로 가장 높았고, 20~24세에서 15.8%로 가장 낮음

○ 권선구 거주자가 긍정 응답률이 27.9%로 가장 높았고, 영통구 거주자가 17.9%로 가장 낮음

○ 취업자의 24.0%, 미취업자의 21.9%가 ‘예’라고 답해 취업자가 더 높은 긍정률을 보임



<그림 4-151> 대학원 진학 의사

○ 대학교 재학생의 긍정응답률은 15.6%, 대학교 졸업 이상 응답자의 긍정 응답률은 27.3%로 차이를 보임

<표 4-160> 응답자 특성별 대학원 진학 의사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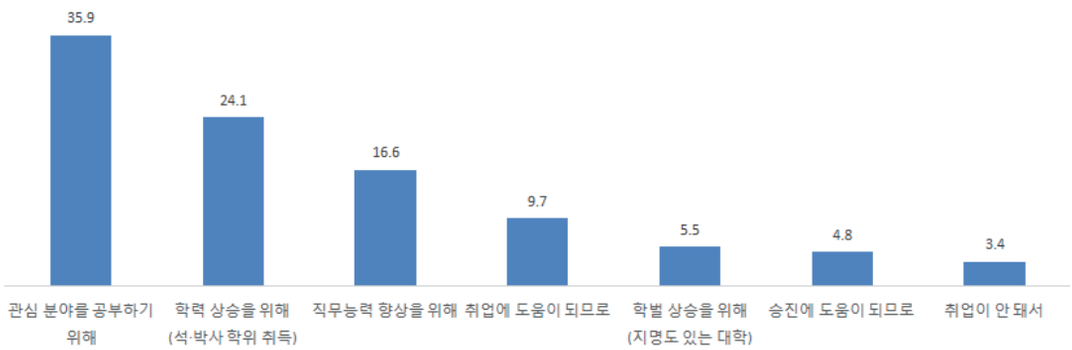
	사례수 (명)	예	아니오	계
전체	**(631)**	**23.0**	**77.0**	**100.0**
성별				
남성	(329)	22.5	77.5	100.0
여성	(302)	23.5	76.5	100.0
연령대				
20-24세	(177)	15.8	84.2	100.0
25-29세	(146)	28.8	71.2	100.0
30-34세	(147)	23.8	76.2	100.0
35-39세	(161)	24.8	75.2	100.0
거주지역				
장안구	(144)	22.2	77.8	100.0
권선구	(190)	27.9	72.1	100.0
팔달구	(102)	24.5	75.5	100.0
영통구	(195)	17.9	82.1	100.0
취업상태				
취업	(329)	24.0	76.0	100.0
미취업	(302)	21.9	78.1	100.0
학력				
대학교 재학	(231)	15.6	84.4	100.0
대학교 졸업 이상	(400)	27.3	72.8	100.0

바. 대학원 진학 이유

○ 대학원 진학 이유에 대해 ‘관심 분야를 공부하기 위해’라는 응답이 35.9%로 가장 높았음

- 이어서 ‘학력 상승을 위해’ 24.1%,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16.6% 등의 순으로 나타남

(단위 : %)



<그림 4-152> 대학원 진학 이유

○ 성별에 관계없이 남녀 모두 관심 분야를 공부하기 위하여 대학원에 진학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는데, 여성이 40.8%, 남성이 31.1%로 여성의 응답률이 더 높았음

○ 연령에 관계없이 관심 분야를 공부하기 위하여 대학원에 진학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는데, 30~34세의 응답률이 40.0%로 가장 높았음

○ 팔달구 거주자만이 학력 상승을 위해 대학원에 진학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관심 분야를 공부하기 위해 대학원에 진하했다는 대답이 가장 많이 나왔는데, 특히 영통구 거주자의 경우 51.4%라는 높은 응답률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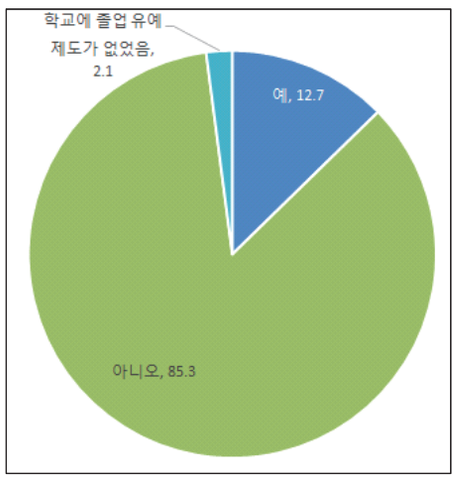
<표 4-161> 응답자 특성별 대학원 진학 이유

(단위 : %)

	사례수 (명)	관심 분야를 공부하기 위해	학력 상승을 위해 (석·박사 학위 취득)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취업에 도움이 되므로	학벌 상승을 위해 (지명도 있는 대학)	승진에 도움이 되므로	취업이 안 돼서	계
전체	**(145)**	**35.9**	**24.1**	**16.6**	**9.7**	**5.5**	**4.8**	**3.4**	**100.0**
성별									
남성	(74)	31.1	23.0	20.3	8.1	6.8	6.8	4.1	100.0
여성	(71)	40.8	25.4	12.7	11.3	4.2	2.8	2.8	100.0
연령대									
20-24세	(28)	39.3	32.1	3.6	17.9		3.6	3.6	100.0
25-29세	(42)	35.7	21.4	19.0	9.5	7.1	2.4	4.8	100.0
30-34세	(35)	40.0	22.9	17.1	8.6	2.9	5.7	2.9	100.0
35-39세	(40)	30.0	22.5	22.5	5.0	10.0	7.5	2.5	100.0
거주지역									
장안구	(32)	37.5	25.0	12.5	12.5	9.4	3.1		100.0
권선구	(53)	34.0	20.8	30.2	5.7	3.8	1.9	3.8	100.0
팔달구	(25)	16.0	32.0	16.0	8.0	12.0	12.0	4.0	100.0
영통구	(35)	51.4	22.9		14.3		5.7	5.7	100.0
취업상태									
취업	(79)	35.4	25.3	17.7	7.6	7.6	5.1	1.3	100.0
미취업	(66)	36.4	22.7	15.2	12.1	3.0	4.5	6.1	100.0
학력									
대학교 재학	(36)	38.9	25.0	11.1	11.1	2.8	5.6	5.6	100.0
대학교 졸업 이상	(109)	34.9	23.9	18.3	9.2	6.4	4.6	2.8	100.0

사. 졸업 유예 경험

- 졸업 유예 경험에 대해 묻는 질문에 응답자들의 12.7%가 ‘예’라고 답함
- 성별에 따라서 긍정 응답률은 남성 13.4%, 여성 11.9%로 남성의 경우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5~29세에서 긍정 응답률이 20.5%로 가장 높았고, 20~24세에서 7.9%로 가장 낮음
- 팔달구 거주자가 긍정 응답률이 17.6%로 가장 높았고, 영통구 거주자가 6.2%로 가장 낮음
- 취업자의 12.2%, 미취업자의 13.2%가 ‘예’라고 답해 미취업자가 더 높은 긍정률을 보임
- 대학교 재학생의 긍정응답률은 12.6%, 대학교 졸업 이상 응답자의 긍정 응답률은 12.8%로 나타남



<그림 4-153> 졸업 늦춘 경험 여부

<표 4-162> 응답자 특성별 졸업 늦춘 경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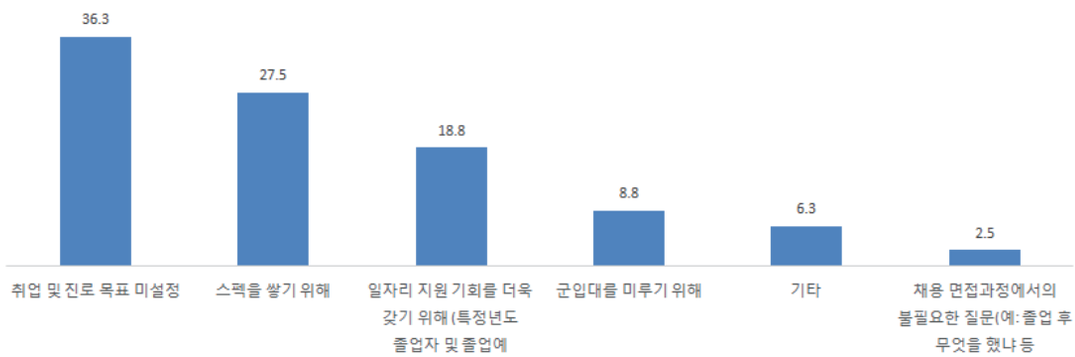
(단위 : %)

	사례수 (명)	예	아니오	학교에 졸업 유예 제도가 없었음	계
전체	**(631)**	**12.7**	**85.3**	**2.1**	**100.0**
성별					
남성	(329)	13.4	84.5	2.1	100.0
여성	(302)	11.9	86.1	2.0	100.0
연령대					
20-24세	(177)	7.9	91.5	0.6	100.0
25-29세	(146)	20.5	77.4	2.1	100.0
30-34세	(147)	12.2	87.1	0.7	100.0
35-39세	(161)	11.2	83.9	5.0	100.0
거주지역					
장안구	(144)	11.8	86.8	1.4	100.0
권선구	(190)	17.4	82.1	0.5	100.0
팔달구	(102)	17.6	80.4	2.0	100.0
영통구	(195)	6.2	89.7	4.1	100.0
취업상태					
취업	(329)	12.2	85.7	2.1	100.0
미취업	(302)	13.2	84.8	2.0	100.0
학력					
대학교 재학	(231)	12.6	86.1	1.3	100.0
대학교 졸업 이상	(400)	12.8	84.8	2.5	100.0

아. 졸업 유예 이유

○ 졸업 유예 이유에 대해 ‘취업 및 진로 목표 미설정’이라는 응답이 36.3%로 가장 높았음
- 이어서 ‘스펙을 쌓기 위해’ 27.5%, ‘일자리 지원 기회를 더욱 갖기 위해’ 18.8% 등의 순으로 나타남

(단위 : %)



<그림 4-154> 졸업 유예 이유

○ 성별에 관계없이 남녀 모두 취업 및 목표 미설정으로 졸업을 유예했다고 응바한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여성은 44.4%인데 반해 남성은 29.5%로 나타났고, 대신 남성의 경우 군입대를 미루기 위해 졸업을 유예했다는 응답이 15.9%로 나타남

○ 연령에 관계없이 취업 및 목표 미설정으로 졸업을 유예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는데, 30~34세의 응답률이 44.4%로 가장 높았음

○ 장안구 거주자는 스펙을 쌓기 위해 졸업을 유예했다는 응답이 52.9%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취업 및 목표 미설정으로 졸업을 유예했다는 대답이 가장 많이 나왔는데, 특히 영통구 거주자의 경우 58.3%라는 높은 응답률을 보임

<표 4-163> 응답자 특성별 졸업 유예 이유

(단위 : %)

	사례수 (명)	취업 및 진로 목표 미설정	스펙을 쌓기 위해	일자리 지원 기회를 더욱 갖기 위해 (특정년도 졸업자 및 졸업예	군입대를 미루기 위해	기타	채용 면접과정에서의 불필요한 질문 (예: 졸업 후 무엇을 했나 등	계
전체	**(80)**	**36.3**	**27.5**	**18.8**	**8.8**	**6.3**	**2.5**	**100.0**
성별								
남성	(44)	29.5	27.3	18.2	15.9	6.8	2.3	100.0
여성	(36)	44.4	27.8	19.4		5.6	2.8	100.0
연령대								
20-24세	(14)	28.6	21.4	21.4	21.4		7.1	100.0
25-29세	(30)	36.7	26.7	20.0	6.7	6.7	3.3	100.0
30-34세	(18)	33.3	27.8	22.2	5.6	11.1		100.0
35-39세	(18)	44.4	33.3	11.1	5.6	5.6		100.0
거주지역								
장안구	(17)	17.6	52.9	11.8		11.8	5.9	100.0
권선구	(33)	39.4	18.2	18.2	18.2	3.0	3.0	100.0
팔달구	(18)	33.3	27.8	22.2	5.6	11.1		100.0
영통구	(12)	58.3	16.7	25.0				100.0
취업상태								
취업	(40)	37.5	22.5	20.0	10.0	7.5	2.5	100.0
미취업	(40)	35.0	32.5	17.5	7.5	5.0	2.5	100.0
학력								
대학교 재학	(29)	37.9	27.6	17.2	10.3	3.4	3.4	100.0
대학교 졸업 이상	(51)	35.3	27.5	19.6	7.8	7.8	2.0	100.0

자. 휴학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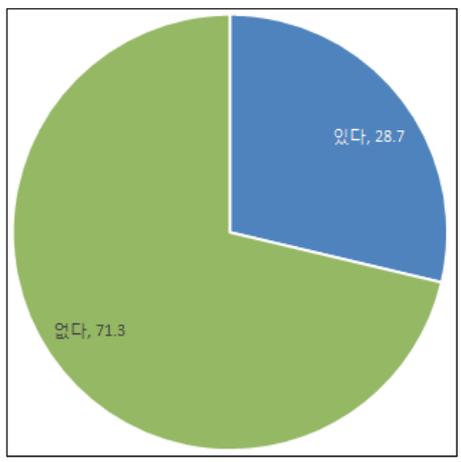
○ 휴학 경험에 대해 묻는 질문에 응답자들의 28.7%가 '있다' 고 답함

○ 성별에 따라서 긍정 응답률은 남성 35.0%, 여성 21.9%로 남성의 경우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30~34세에서 긍정 응답률이 36.7%로 가장 높았고, 35~39세에서 18.6%로 가장 낮음

○ 장안구 거주자가 긍정 응답률이 38.2%로 가장 높았고, 영통구 거주자가 21.5%로 가장 낮음

○ 취업자의 26.7%, 미취업자의 30.8%가 '있다' 고 답해 미취업자가 더 높은 긍정률을 보임



<그림 4-155> 휴학 경험 여부

○ 대학교 재학생의 긍정응답률은 41.6%, 대학교 졸업 이상 응답자의 긍정 응답률은 21.3%로 현재 대학에 다니는 청년들의 휴학률이 높음을 알 수 있음

<표 4-164> 응답자 특성별 휴학 경험 여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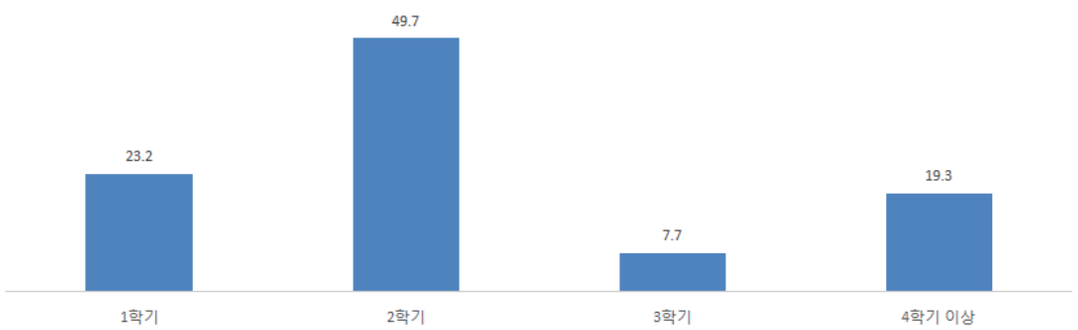
	사례수 (명)	있다	없다	계
전체	**(631)**	**28.7**	**71.3**	**100.0**
성별				
남성	(329)	35.0	65.0	100.0
여성	(302)	21.9	78.1	100.0
연령대				
20-24세	(177)	32.8	67.2	100.0
25-29세	(146)	26.7	73.3	100.0
30-34세	(147)	36.7	63.3	100.0
35-39세	(161)	18.6	81.4	100.0
거주지역				
장안구	(144)	38.2	61.8	100.0
권선구	(190)	24.2	75.8	100.0
팔달구	(102)	37.3	62.7	100.0
영통구	(195)	21.5	78.5	100.0
취업상태				
취업	(329)	26.7	73.3	100.0
미취업	(302)	30.8	69.2	100.0
학력				
대학교 재학	(231)	41.6	58.4	100.0
대학교 졸업 이상	(400)	21.3	78.8	100.0

■ 휴학 학기

○ 휴학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2학기 동안 휴학한 경우가 49.7%로 반수에 가까운 높은 응답률을 보임

- 이어서 1학기 23.2%, 4학기 이상 19.3%, 3학기 7.7% 순으로 나타남

(단위 : %)



<그림 4-156> 휴학 학기

○ 성별에 관계없이 남녀 모두 두 학기 동안 휴학을 한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특히 여성의 경우 반수가 넘는 59.1%가 2학기 동안 휴학한 경험이 있었음

○ 연령에 관계없이 두 학기 동안 휴학을 한 경우가 가장 많았음

○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두 학기 동안 휴학을 한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특히 장안구 거주자의 경우 60.0%라는 높은 응답률을 보임

<표 4-165> 응답자 특성별 휴학 학기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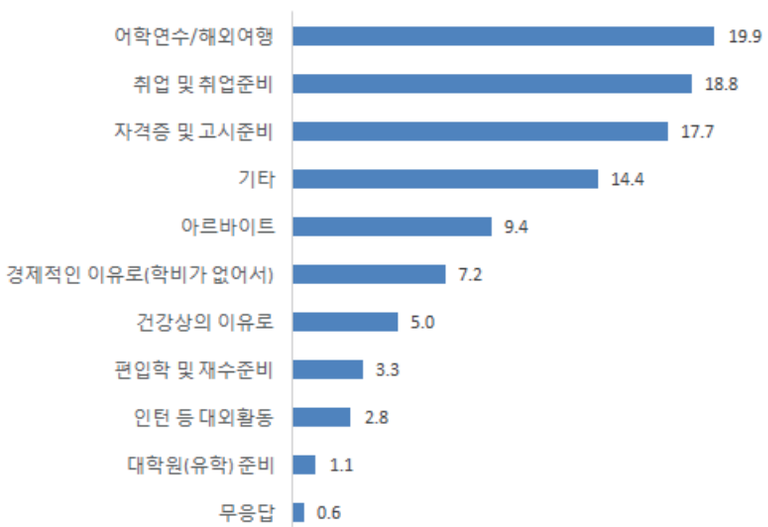
	사례수 (명)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이상	계
전체	**(181)**	**23.2**	**49.7**	**7.7**	**19.3**	**100.0**
성별						
남성	(115)	23.5	44.3	9.6	22.6	100.0
여성	(66)	22.7	59.1	4.5	13.6	100.0
연령대						
20-24세	(58)	24.1	50.0	5.2	20.7	100.0
25-29세	(39)	15.4	51.3	10.3	23.1	100.0
30-34세	(54)	20.4	53.7	7.4	18.5	100.0
35-39세	(30)	36.7	40.0	10.0	13.3	100.0
거주지역						
장안구	(55)	10.9	60.0	10.9	18.2	100.0
권선구	(46)	39.1	41.3	2.2	17.4	100.0
팔달구	(38)	15.8	39.5	15.8	28.9	100.0
영통구	(42)	28.6	54.8	2.4	14.3	100.0
취업상태						
취업	(88)	22.7	45.5	8.0	23.9	100.0
미취업	(93)	23.7	53.8	7.5	15.1	100.0
학력						
대학교 재학	(96)	24.0	46.9	9.4	19.8	100.0
대학교 졸업 이상	(85)	22.4	52.9	5.9	18.8	100.0

차. 휴학 이유

○ 휴학의 이유로는 ‘어학연수/해외여행’이 19.9%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임

- 이어서 ‘취업 및 취업준비’ 18.8%, ‘자격증 및 고시준비’ 17.7% 등의 순으로 나타남

(단위 : %)



<그림 4-157> 휴학 이유

○ 남성의 경우에는 ‘어학연수/해외여행’ 때문에 휴학을 한 경우가 23.5%로 가장 많았고 여성의 경우는 ‘취업 및 취업준비’ 24.2%, ‘자격증 및 고시준비’ 22.7%의 순으로 나타남

○ 20~24세와 30~34세는 ‘자격증 및 고시준비’로 인해 휴학한 경우가 각각 22.4%와 18.5%로 가장 많았고 25~29세는 ‘취업 및 취업준비’로 인한 휴학이 25.6%, 35~39세는 ‘어학연수/해외여행’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23.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장안구와 영통구 거주자는 ‘어학연수/해외여행’으로 인해 휴학했던 경험이 각각 27.3%와 26.2%로 가장 높았고 권선구 거주자는 ‘자격증 및 고시준비’로 인하여, 팔달구 거주자는 ‘취업 및 취업준비’로 인하여 휴학을 했던 것으로 나타남

○ 취업자는 ‘어학연수/해외여행’으로 인해 휴학한 경우가 20.5%로 가장 높은데 반해 미취업자는 ‘추업 및 취업준비’로 인하여 휴학을 경우가 21.5%로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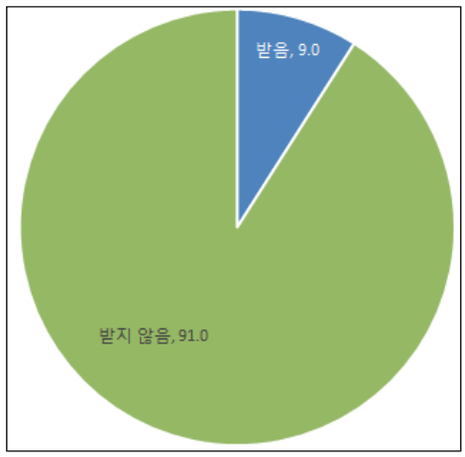
<표 4-166> 응답자 특성별 휴학 이유

(단위 : %)

	사례수 (명)	어학연수/해외여행	취업 및 취업준비	자격증 및 고시준비	기타	아르바이트	경제적인 이유로 (학비가 없어서)	건강상의 이유로	편입학 및 재수준비	인턴 등 대외활동	대학원 (유학) 준비	무응답	계
전체	**(181)**	**19.9**	**18.8**	**17.7**	**14.4**	**9.4**	**7.2**	**5.0**	**3.3**	**2.8**	**1.1**	**0.6**	**100.0**
성별													
남성	(115)	23.5	15.7	14.8	14.8	8.7	9.6	6.1	3.5	2.6	0.9		100.0
여성	(66)	13.6	24.2	22.7	13.6	10.6	3.0	3.0	3.0	3.0	1.5	1.5	100.0
연령대													
20-24세	(58)	19.0	17.2	22.4	17.2	13.8	3.4	3.4	1.7	1.7			100.0
25-29세	(39)	23.1	25.6	15.4	17.9	2.6	10.3	2.6		2.6			100.0
30-34세	(54)	16.7	16.7	18.5	9.3	11.1	7.4	7.4	5.6	3.7	3.7		100.0
35-39세	(30)	23.3	16.7	10.0	13.3	6.7	10.0	6.7	6.7	3.3		3.3	100.0
거주지역													
장안구	(55)	27.3	9.1	14.5	16.4	10.9	7.3	10.9		3.6			100.0
권선구	(46)	15.2	17.4	23.9	10.9	6.5	10.9	4.3	4.3		4.3	2.2	100.0
팔달구	(38)	7.9	28.9	21.1	21.1	5.3	2.6	2.6	7.9	2.6			100.0
영통구	(42)	26.2	23.8	11.9	9.5	14.3	7.1		2.4	4.8			100.0
취업상태													
취업	(88)	20.5	15.9	17.0	10.2	11.4	10.2	3.4	4.5	3.4	2.3	1.1	100.0
미취업	(93)	19.4	21.5	18.3	18.3	7.5	4.3	6.5	2.2	2.2			100.0
학력													
대학교 재학	(96)	20.8	20.8	19.8	16.7	8.3	7.3	3.1	1.0	2.1			100.0
대학교 졸업 이상	(85)	18.8	16.5	15.3	11.8	10.6	7.1	7.1	5.9	3.5	2.4	1.2	100.0

카. 대학 시절 사교육 경험

- 응답자들의 9.0%가 대학시절 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함
- 성별에 따라서 긍정 응답률은 남성 7.9%, 여성 10.3%로 여성의 경우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30대는 모두 10% 이하인 데 반해 20대는 모두 1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연령대가 낮을수록 대학시절 사교육을 많이 하는 경향을 보임
- 권선구 거주자의 긍정 응답률이 11.1%로 유일하게 1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 취업자의 7.3%, 미취업자의 10.3%가 '받음'이라고 답해 미취업자가 더 높은 긍정률을 보임



<그림 4-158> 전공 공부(복수전공, 이중전공, 부전공 포함)를 위한 사교육 여부

- 대학교 재학생의 긍정응답률은 13.4%, 대학교 졸업 이상 응답자의 긍정 응답률은 6.5%로 2배 이상 차이가 남

<표 4-167> 응답자 특성별 전공 공부(복수전공, 이중전공, 부전공 포함)를 위한 사교육 여부

(단위 : %)

	사례수 (명)	받음	받지 않음	계
전체	**(631)**	**9.0**	**91.0**	**100.0**
성별				
남성	(329)	7.9	92.1	100.0
여성	(302)	10.3	89.7	100.0
연령대				
20-24세	(177)	14.7	85.3	100.0
25-29세	(146)	11.0	89.0	100.0
30-34세	(147)	6.1	93.9	100.0
35-39세	(161)	3.7	96.3	100.0
거주지역				
장안구	(144)	9.7	90.3	100.0
권선구	(190)	11.1	88.9	100.0
팔달구	(102)	8.8	91.2	100.0
영통구	(195)	6.7	93.3	100.0
취업상태				
취업	(329)	7.3	92.7	100.0
미취업	(302)	10.9	89.1	100.0
학력				
대학교 재학	(231)	13.4	86.6	100.0
대학교 졸업 이상	(400)	6.5	93.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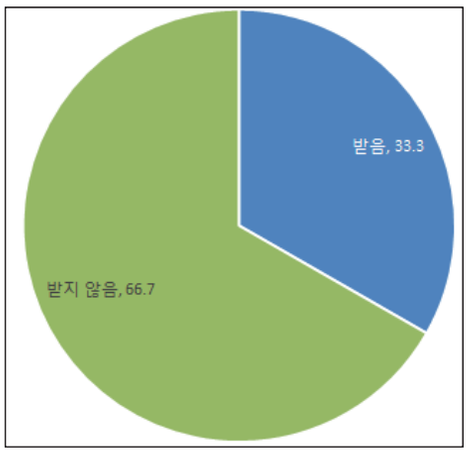
■ 영어 사교육

○ 응답자들의 1/3인 33.3%가 대학시절 영어 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함

○ 성별에 따라서 긍정 응답률은 남성 30.4%, 여성 36.4%로 여성이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대의 긍정 응답률이 30대보다 높아 연령대가 낮을수록 대학시절 영어 사교육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팔달구 거주자의 긍정 응답률이 42.2%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4-159> 영어 사교육 여부

○ 취업자의 32.5%, 미취업자의 34.1%가 '받음'이라고 답해 미취업자가 더 높은 긍정률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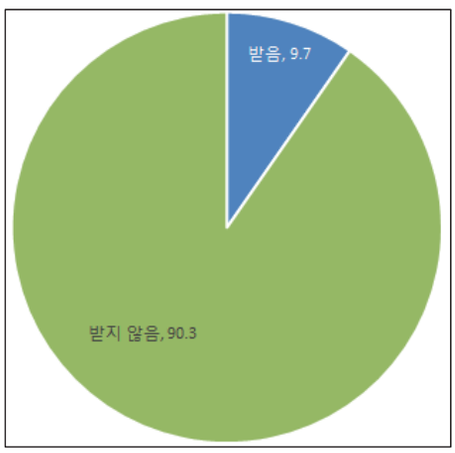
○ 대학교 재학생의 긍정응답률은 36.4%, 대학교 졸업 이상 응답자의 긍정 응답률은 31.5%로 나타남

<표 4-168> 응답자 특성별 영어 사교육 여부

(단위 : %)

	사례수 (명)	받음	받지 않음	계
전체	**(631)**	**33.3**	**66.7**	**100.0**
성별				
남성	(329)	30.4	69.6	100.0
여성	(302)	36.4	63.6	100.0
연령대				
20-24세	(177)	36.2	63.8	100.0
25-29세	(146)	37.0	63.0	100.0
30-34세	(147)	33.3	66.7	100.0
35-39세	(161)	26.7	73.3	100.0
거주지역				
장안구	(144)	27.8	72.2	100.0
권선구	(190)	37.4	62.6	100.0
팔달구	(102)	42.2	57.8	100.0
영통구	(195)	28.7	71.3	100.0
취업상태				
취업	(329)	32.5	67.5	100.0
미취업	(302)	34.1	65.9	100.0
학력				
대학교 재학	(231)	36.4	63.6	100.0
대학교 졸업 이상	(400)	31.5	68.5	100.0

■ 제2외국어(영어 제외) 사교육



<그림 4-160> 제2외국어(영어 제외) 사교육 여부

○ 응답자들의 9.7%가 대학시절 영어를 제외한 제2외국어 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함

○ 성별에 따라서 긍정 응답률은 남성 7.9%, 여성 11.6%로 여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대의 긍정 응답률이 30대보다 높아 연령대가 낮을수록 대학시절 제2외국어 사교육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장안구와 팔달구 거주자의 긍정 응답률이 10% 이상으로 나타남

○ 취업자의 7.0%, 미취업자의 12.6%가 '받음'이라고 답해 미취업자가 더 높은 긍정률을 보임

○ 대학교 재학생의 긍정응답률은 15.2%, 대학교 졸업 이상 응답자의 긍정 응답률은 6.5%로 차이를 보임

<표 4-169> 응답자 특성별 제2외국어(영어 제외) 사교육 여부

(단위 : %)

	사례수 (명)	받음	받지 않음	계
전체	**(631)**	**9.7**	**90.3**	**100.0**
성별				
남성	(329)	7.9	92.1	100.0
여성	(302)	11.6	88.4	100.0
연령대				
20-24세	(177)	14.1	85.9	100.0
25-29세	(146)	10.3	89.7	100.0
30-34세	(147)	8.2	91.8	100.0
35-39세	(161)	5.6	94.4	100.0
거주지역				
장안구	(144)	10.4	89.6	100.0
권선구	(190)	8.9	91.1	100.0
팔달구	(102)	10.8	89.2	100.0
영통구	(195)	9.2	90.8	100.0
취업상태				
취업	(329)	7.0	93.0	100.0
미취업	(302)	12.6	87.4	100.0
학력				
대학교 재학	(231)	15.2	84.8	100.0
대학교 졸업 이상	(400)	6.5	93.5	100.0

■ 여타 취업 준비를 위한 사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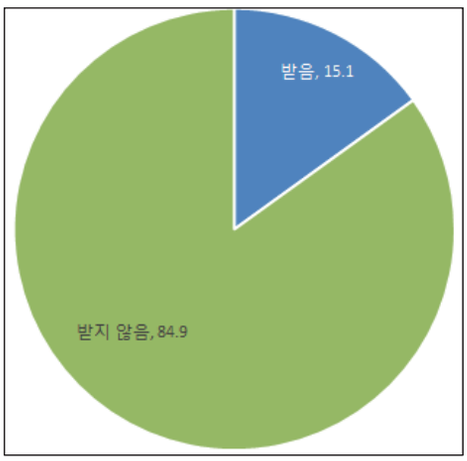
○ 응답자들의 15.1%가 대학시절 취업 준비를 위한 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함

○ 성별에 따라서 긍정 응답률은 남성 12.8%, 여성 17.5%로 여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대의 긍정 응답률이 30대보다 높아 연령대가 낮을수록 취업 준비를 위한 사교육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취업자의 14.3%, 미취업자의 15.9%가 '받음'이라고 답해 미취업자가 더 높은 긍정률을 보임

○ 대학교 재학생의 긍정응답률은 17.3%, 대학교 졸업 이상 응답자의 긍정 응답률은 13.8%로 나타남



<그림 4-161> 여타 취업 준비를 위한 사교육 여부

<표 4-170> 응답자 특성별 여타 취업 준비를 위한 사교육 여부

(단위 : %)

	사례수 (명)	받음	받지 않음	계
전체	**(631)**	**15.1**	**84.9**	**100.0**
성별				
남성	(329)	12.8	87.2	100.0
여성	(302)	17.5	82.5	100.0
연령대				
20-24세	(177)	16.4	83.6	100.0
25-29세	(146)	18.5	81.5	100.0
30-34세	(147)	13.6	86.4	100.0
35-39세	(161)	11.8	88.2	100.0
거주지역				
장안구	(144)	14.6	85.4	100.0
권선구	(190)	16.3	83.7	100.0
팔달구	(102)	16.7	83.3	100.0
영통구	(195)	13.3	86.7	100.0
취업상태				
취업	(329)	14.3	85.7	100.0
미취업	(302)	15.9	84.1	100.0
학력				
대학교 재학	(231)	17.3	82.7	100.0
대학교 졸업 이상	(400)	13.8	86.3	100.0

(2) 교육에 대한 가치관

(3) 학교 생활 (대학 재학생 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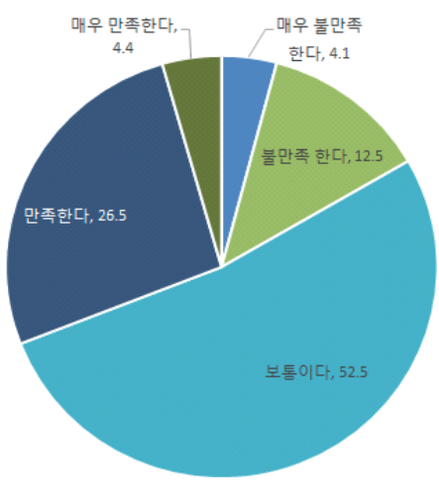
가. 학교 생활 만족도

■ 전반적인 만족도

○ 학교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평균 3.1로 보통인 것으로 나타남

-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52.5%로 가장 높았고,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30.9%로 나타남

(단위 : %)



<그림 4-162> 대학 전반적 만족도

○ 남녀 모두 평균이 보통을 약간 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성이 평균 3.2로 남성의 3.1보다 약간 높음

○ 20~24세의 평균이 3.2로 가장 높았고 나머지 연령대의 평균은 모두 3.1로 나타남

○ 영통구 거주자의 평균이 3.4로 가장 높았고 팔달구 거주자의 평균이 2.9로 가장 낮았음

- 영통구 거주자의 경우에는 긍정 응답률이 48.7%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취업자의 평균이 3.2로 미취업자의 3.1에 비해 약간 더 높게 나타남

○ 대학교 재학생의 만족도 평균은 3.2로 대학교 졸업 이상 응답자의 3.1보다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4-171> 응답자 특성별 대학 전반적 만족도

(단위 :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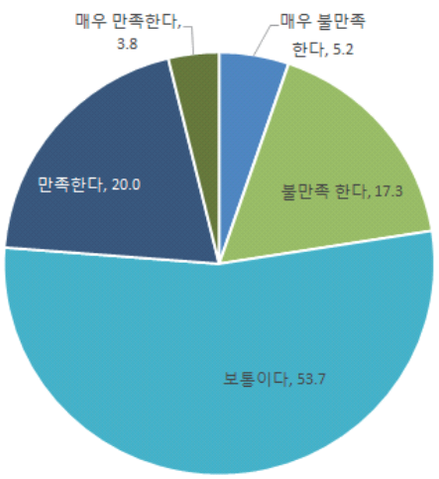
	사례수 (명)	매우 불만족 한다	←	①+②	보통이다	→	매우 만족한다	④+⑤	계	평균
전체	**(631)**	**4.1**	**12.5**	**16.6**	**52.5**	**26.5**	**4.4**	**30.9**	**100.0**	**3.1**
성별										
남성	(329)	4.6	13.4	17.9	52.6	24.9	4.6	29.5	100.0	3.1
여성	(302)	3.6	11.6	15.2	52.3	28.1	4.3	32.5	100.0	3.2
연령대										
20-24세	(177)	1.1	15.3	16.4	49.2	30.5	4.0	34.5	100.0	3.2
25-29세	(146)	4.1	11.0	15.1	54.8	26.7	3.4	30.1	100.0	3.1
30-34세	(147)	5.4	17.0	22.4	46.3	24.5	6.8	31.3	100.0	3.1
35-39세	(161)	6.2	6.8	13.0	59.6	23.6	3.7	27.3	100.0	3.1
거주지역										
장안구	(144)	6.3	16.0	22.2	56.9	16.0	4.9	20.8	100.0	3.0
권선구	(190)	3.7	11.1	14.7	60.5	22.1	2.6	24.7	100.0	3.1
팔달구	(102)	5.9	18.6	24.5	52.9	22.5		22.5	100.0	2.9
영통구	(195)	2.1	8.2	10.3	41.0	40.5	8.2	48.7	100.0	3.4
취업상태										
취업	(329)	4.3	12.2	16.4	51.7	26.7	5.2	31.9	100.0	3.2
미취업	(302)	4.0	12.9	16.9	53.3	26.2	3.6	29.8	100.0	3.1
학력										
대학교 재학	(231)	2.2	14.3	16.5	53.2	26.8	3.5	30.3	100.0	3.2
대학교 졸업 이상	(400)	5.3	11.5	16.8	52.0	26.3	5.0	31.3	100.0	3.1

■ 특별활동(동아리 및 소학회) 만족도

○ 특별활동(동아리 및 소학회)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3.0으로 보통인 것으로 나타남

-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53.7%로 가장 높았고,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23.8%로 나타남

(단위 : %)



<그림 4-163> 대학 특별활동(동아리 및 소학회) 만족도

○ 남녀 모두 평균 3.0으로 보통인 것으로 나타남

○ 25~29세의 평균이 3.1로 가장 높았고 나머지 연령대의 평균은 모두 3.0으로 나타남

○ 영통구 거주자의 평균이 3.2로 가장 높았고 장안구 거주자의 평균이 2.8로 가장 낮았음

○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평균 3.0으로 나타남

○ 학력에 관계없이 모두 평균 3.0으로 나타남

<표 4-172> 응답자 특성별 대학 특별활동(동아리 및 소학회) 만족도

(단위 :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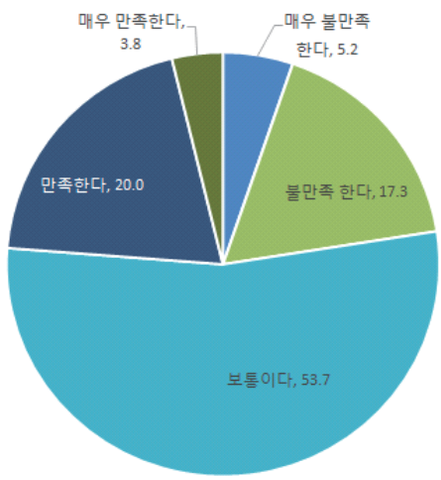
	사례수 (명)	매우 불만족 한다	←	①+②	보통이다	→	매우 만족한다	④+⑤	계	평균
전체	**(631)**	**5.2**	**17.3**	**22.5**	**53.7**	**20.0**	**3.8**	**23.8**	**100.0**	**3.0**
성별										
남성	(329)	5.5	16.1	21.6	52.3	21.6	4.6	26.1	100.0	3.0
여성	(302)	5.0	18.5	23.5	55.3	18.2	3.0	21.2	100.0	3.0
연령대										
20-24세	(177)	5.1	15.3	20.3	60.5	15.8	3.4	19.2	100.0	3.0
25-29세	(146)	6.2	13.7	19.9	50.0	26.0	4.1	30.1	100.0	3.1
30-34세	(147)	6.1	20.4	26.5	46.3	23.1	4.1	27.2	100.0	3.0
35-39세	(161)	3.7	19.9	23.6	56.5	16.1	3.7	19.9	100.0	3.0
거주지역										
장안구	(144)	9.7	20.1	29.9	52.1	14.6	3.5	18.1	100.0	2.8
권선구	(190)	3.2	17.9	21.1	61.1	15.8	2.1	17.9	100.0	3.0
팔달구	(102)	4.9	18.6	23.5	58.8	11.8	5.9	17.6	100.0	3.0
영통구	(195)	4.1	13.8	17.9	45.1	32.3	4.6	36.9	100.0	3.2
취업상태										
취업	(329)	6.4	18.5	24.9	50.2	20.4	4.6	24.9	100.0	3.0
미취업	(302)	4.0	15.9	19.9	57.6	19.5	3.0	22.5	100.0	3.0
학력										
대학교 재학	(231)	5.2	13.9	19.0	59.7	17.7	3.5	21.2	100.0	3.0
대학교 졸업 이상	(400)	5.3	19.3	24.5	50.3	21.3	4.0	25.3	100.0	3.0

■ 취업가능성 만족도

○ 취업가능성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3.0으로 보통인 것으로 나타남

-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52.3%로 가장 높았고,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25.8%로 나타남

(단위 : %)



<그림 4-164> 대학 취업가능성 만족도

○ 남녀 모두 평균 3.0으로 보통인 것으로 나타남

○ 35~39세의 평균이 3.1로 가장 높았고 나머지 연령대의 평균은 모두 3.0으로 나타남

○ 영통구 거주자의 평균이 3.2로 가장 높았고 팔달구 거주자의 평균이 2.9로 가장 낮았음

○ 취업자의 평균은 3.1, 미취업자의 평균은 3.0으로 나타남

○ 학력에 관계없이 모두 평균 3.0으로 나타남

<표 4-173> 응답자 특성별 대학 취업가능성 만족도

(단위 :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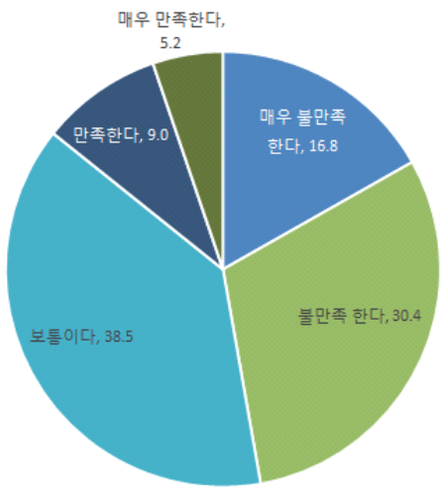
	사례수 (명)	매우 불만족 한다	←	①+②	보통이다	→	매우 만족한다	④+⑤	계	평균
전체	**(631)**	**6.2**	**15.7**	**21.9**	**52.3**	**21.6**	**4.3**	**25.8**	**100.0**	**3.0**
성별										
남성	(329)	7.6	13.7	21.3	52.3	20.7	5.8	26.4	100.0	3.0
여성	(302)	4.6	17.9	22.5	52.3	22.5	2.6	25.2	100.0	3.0
연령대										
20-24세	(177)	3.4	18.6	22.0	55.4	19.2	3.4	22.6	100.0	3.0
25-29세	(146)	6.8	15.8	22.6	52.7	20.5	4.1	24.7	100.0	3.0
30-34세	(147)	8.2	17.0	25.2	45.6	25.2	4.1	29.3	100.0	3.0
35-39세	(161)	6.8	11.2	18.0	54.7	21.7	5.6	27.3	100.0	3.1
거주지역										
장안구	(144)	7.6	20.8	28.5	44.4	20.1	6.9	27.1	100.0	3.0
권선구	(190)	5.3	16.8	22.1	53.7	21.6	2.6	24.2	100.0	3.0
팔달구	(102)	9.8	13.7	23.5	60.8	12.7	2.9	15.7	100.0	2.9
영통구	(195)	4.1	11.8	15.9	52.3	27.2	4.6	31.8	100.0	3.2
취업상태										
취업	(329)	7.6	13.7	21.3	48.9	24.6	5.2	29.8	100.0	3.1
미취업	(302)	4.6	17.9	22.5	56.0	18.2	3.3	21.5	100.0	3.0
학력										
대학교 재학	(231)	3.0	19.5	22.5	55.8	17.7	3.9	21.6	100.0	3.0
대학교 졸업 이상	(400)	8.0	13.5	21.5	50.3	23.8	4.5	28.3	100.0	3.0

■ 등록금 만족도

○ 등록금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2.6으로 보통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부정 응답률이 47.2%로 가장 높았음

(단위 : %)



<그림 4-165> 대학 등록금 만족도

○ 남성의 평균은 2.5, 여성의 평균은 2.6으로 모두 보통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에 관계없이 모두 평균 2.5~2.6으로 학비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영통구 거주자의 평균이 2.8로 가장 높았고 장안구 거주자의 평균이 2.4로 가장 낮았음

○ 취업자의 평균은 2.5, 미취업자의 평균은 2.6으로 나타남

○ 대학교 재학생의 평균은 2.5, 대학교 졸업 이상 응답자의 평균은 2.6으로 나타남

<표 4-174> 응답자 특성별 대학 등록금 만족도

(단위 :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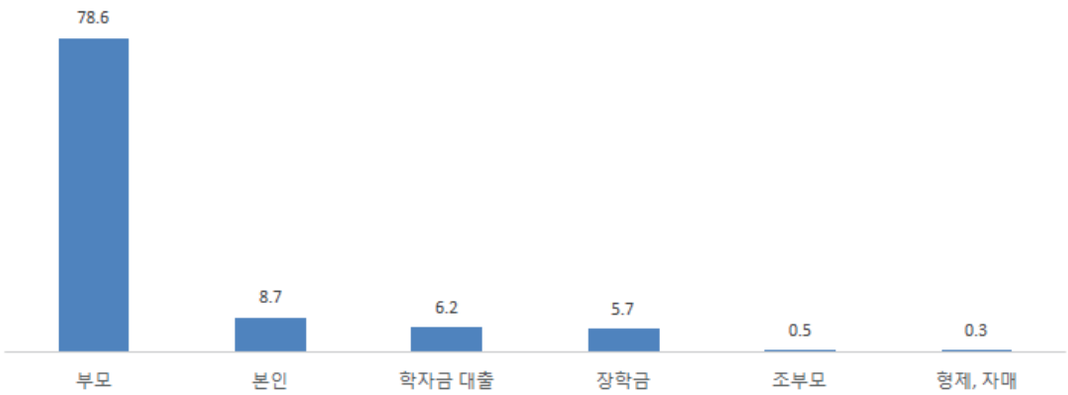
	사례수 (명)	매우 불만족 한다	←	①+②	보통이다	→	매우 만족한다	④+⑤	계	평균
전체	**(631)**	**16.8**	**30.4**	**47.2**	**38.5**	**9.0**	**5.2**	**14.3**	**100.0**	**2.6**
성별										
남성	(329)	18.2	30.1	48.3	37.1	9.7	4.9	14.6	100.0	2.5
여성	(302)	15.2	30.8	46.0	40.1	8.3	5.6	13.9	100.0	2.6
연령대										
20-24세	(177)	14.1	33.9	48.0	39.0	7.3	5.6	13.0	100.0	2.6
25-29세	(146)	18.5	28.1	46.6	39.7	9.6	4.1	13.7	100.0	2.5
30-34세	(147)	19.0	29.9	49.0	36.7	6.8	7.5	14.3	100.0	2.5
35-39세	(161)	16.1	29.2	45.3	38.5	12.4	3.7	16.1	100.0	2.6
거주지역										
장안구	(144)	23.6	28.5	52.1	37.5	4.2	6.3	10.4	100.0	2.4
권선구	(190)	16.3	36.8	53.2	36.8	4.7	5.3	10.0	100.0	2.5
팔달구	(102)	19.6	28.4	48.0	37.3	7.8	6.9	14.7	100.0	2.5
영통구	(195)	10.8	26.7	37.4	41.5	17.4	3.6	21.0	100.0	2.8
취업상태										
취업	(329)	21.0	28.9	49.8	33.1	11.2	5.8	17.0	100.0	2.5
미취업	(302)	12.3	32.1	44.4	44.4	6.6	4.6	11.3	100.0	2.6
학력										
대학교 재학	(231)	14.7	32.5	47.2	41.6	6.5	4.8	11.3	100.0	2.5
대학교 졸업 이상	(400)	18.0	29.3	47.3	36.8	10.5	5.5	16.0	100.0	2.6

나. 학비 부담 주체

○ 학비 주 부담자에 대한 질문에 ‘부모’라고 응답한 경우가 78.6%로 매우 높게 나타남

- 이어서 ‘본인’ 8.7%, ‘학자금 대출’ 6.2%, ‘장학금’ 5.7% 등의 순으로 나타남

(단위 : %)



<그림 4-166> 학비 주 부담자

○ 남성의 80.9%, 여성의 76.2%가 부모님이 학비를 주로 부담한다고 응답했으며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는 남성이 높게 나타난 데 반해(남성 9.1%, 여성 8.3%) 여성은 학자금 대출을 하는 경우(여성 7.9%, 남성 4.6%)와 장학금은 받는 경우(여성 7.0%, 남성 4.6%)가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연령에 관계없이 부모님이 학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특히 20~24세의 경우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는 2.8%에 불과에 10% 이상의 응답률을 보인 30대보다 매우 낮게 나타남

○ 부모님이 학비를 부담해주시는 경우는 영통구 거주자가 85.6%로 가장 높았고, 권선구 거주자는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11.1%로 가장 높았으며, 장안구 거주자는 다른 지역에 비해 학자금 대출을 하는 경우가 8.3%로 높게 나타남

○ 취업자는 본인이 학비를 부담한 경우가 13.1%로 미취업자의 4.0%의 3배가 넘는 비율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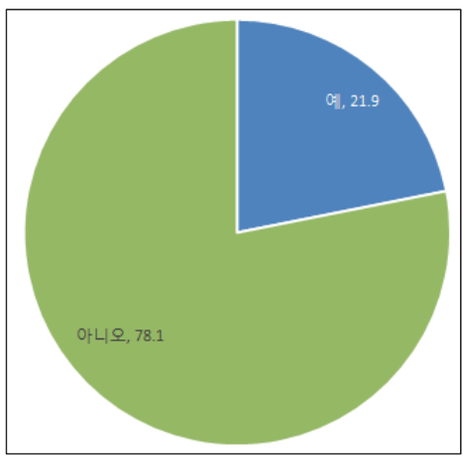
○ 대학교 졸업 이상 응답자의 경우 본인이 학비를 부담한 경우가 11.0%로 현재 대학에 대학중인 학생의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175> 응답자 특성별 학비 주 부담자

(단위 : %)

	사례수 (명)	부모	본인	학자금 대출	장학금	조부모	형제, 자매	계
전체	**(631)**	**78.6**	**8.7**	**6.2**	**5.7**	**0.5**	**0.3**	**100.0**
성별								
남성	(329)	80.9	9.1	4.6	4.6	0.6	0.3	100.0
여성	(302)	76.2	8.3	7.9	7.0	0.3	0.3	100.0
연령대								
20-24세	(177)	85.9	2.8	6.2	4.5	0.6		100.0
25-29세	(146)	70.5	9.6	7.5	9.6	1.4	1.4	100.0
30-34세	(147)	76.2	10.9	8.2	4.8			100.0
35-39세	(161)	80.1	12.4	3.1	4.3			100.0
거주지역								
장안구	(144)	73.6	9.7	8.3	6.9	0.7	0.7	100.0
권선구	(190)	75.8	11.1	5.8	6.8	0.5		100.0
팔달구	(102)	77.5	7.8	5.9	6.9	1.0	1.0	100.0
영통구	(195)	85.6	6.2	5.1	3.1			100.0
취업상태								
취업	(329)	74.5	13.1	6.4	5.2	0.6	0.3	100.0
미취업	(302)	83.1	4.0	6.0	6.3	0.3	0.3	100.0
학력								
대학교 재학	(231)	81.8	4.8	6.5	6.1	0.4	0.4	100.0
대학교 졸업 이상	(400)	76.8	11.0	6.0	5.5	0.5	0.3	100.0

■ 학자금 대출 경험 여부



<그림 4-167> 학자금 대출 경험 여부

○ 응답자들의 21.9%가 학자금 대출 경험이 있다고 답함

○ 성별에 따라서 긍정 응답률은 남성 22.2%, 여성 21.5%로 남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5~29세의 경우가 27.4%로 가장 높았고 35~39세의 경우가 15.5%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장안구 거주자가 학자금 대출 경험이 27.8%로 가장 많았고 영통구 거주자는 16.9%로 가장 낮았음

○ 취업자의 26.1%, 미취업자의 17.2%가 '예'라고 답해 취업자가 더 높은 긍정률을 보임

○ 대학교 재학생의 긍정응답률은 19.9%, 대학교 졸업 이상 응답자의 긍정 응답률은 23.0%로 더 높게 나타남

<표 4-176> 응답자 특성별 학자금 대출 경험 여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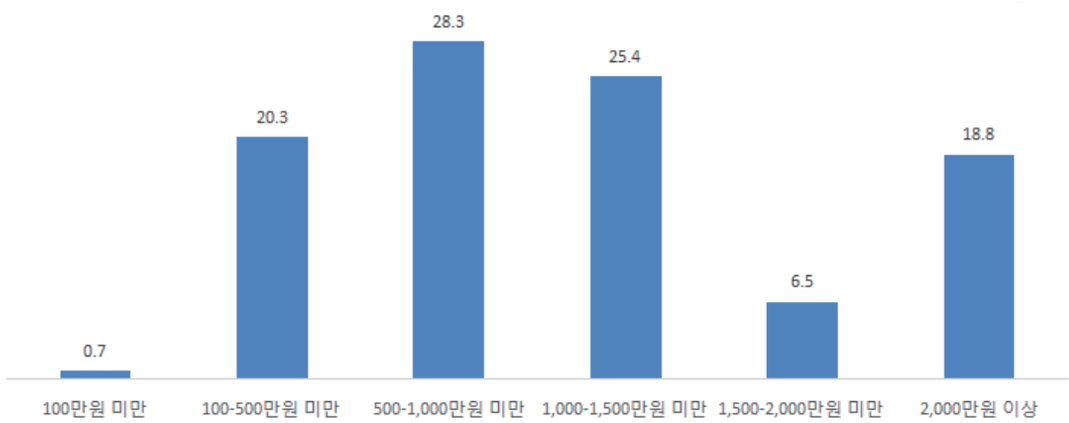
	사례수 (명)	예	아니오	계
전체	**(631)**	**21.9**	**78.1**	**100.0**
성별				
남성	(329)	22.2	77.8	100.0
여성	(302)	21.5	78.5	100.0
연령대				
20-24세	(177)	19.8	80.2	100.0
25-29세	(146)	27.4	72.6	100.0
30-34세	(147)	25.9	74.1	100.0
35-39세	(161)	15.5	84.5	100.0
거주지역				
장안구	(144)	27.8	72.2	100.0
권선구	(190)	23.2	76.8	100.0
팔달구	(102)	20.6	79.4	100.0
영통구	(195)	16.9	83.1	100.0
취업상태				
취업	(329)	26.1	73.9	100.0
미취업	(302)	17.2	82.8	100.0
학력				
대학교 재학	(231)	19.9	80.1	100.0
대학교 졸업 이상	(400)	23.0	77.0	100.0

■ 학자금 대출 금액

○ 수원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평균 금액은 1,042.6만원으로 나타남

- '500~1,00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28.3%로 가장 높고, 이어서 '1,000~1,500만원 미만' 25.4%, '100~500만원 미만' 20.3%, '2,000만원 이상' 18.8% 등의 순으로 나타남

(단위 : %)



<그림 4-168> 학자금 대출 금액

○ 남성의 학자금 대출 평균 금액은 990.1만원, 여성은 1,101.4만원으로 여성이 더 많은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남성의 경우 500~1,000만원 미만의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가 35.6%로 가장 높았고 여성은 그보다 많은 1,000~1,500만원 미만을 대출받은 경우가 26.2%로 가장 높았음

○ 35~39세의 평균 학자금 대출이 800.8만원으로 가장 낮았고 30~34세의 평균이 1,328.9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팔달구의 평균이 1,307.3만원으로 가장 높고 장안구의 평균이 876.7만원으로 가장 낮았음

○ 취업자의 평균 대출 금액은 1,064.8만원, 미취업자의 평균은 1,005.8만원으로 취업자의 평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대학교 졸업 이상 응답자의 평균은 1,080.4만원으로 대학교 재학생의 평균 966.9만원보다 높게 나타남

<표 4-177> 응답자 특성별 학자금 대출 금액

(단위 : %,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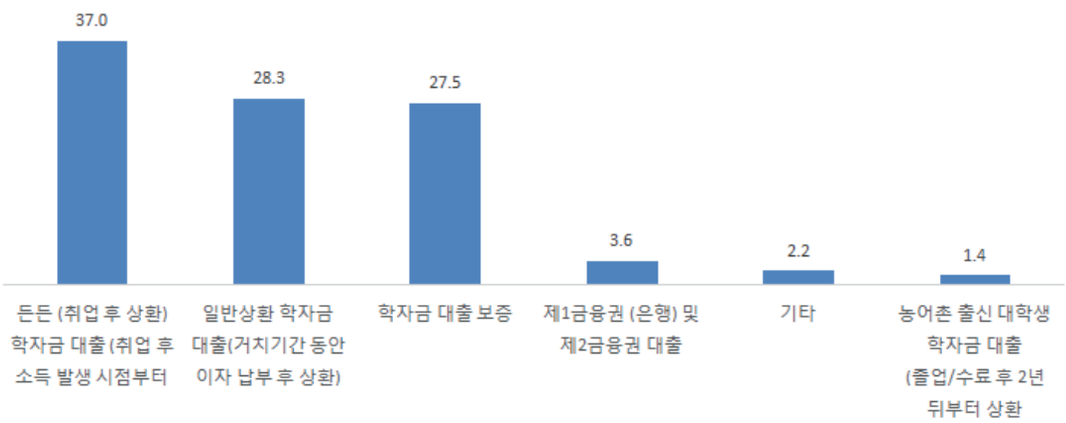
	사례수(명)	100만원 미만	100-500 만원 미만	500-1,000 만원 미만	1,000-1,500만원 미만	1,500-2,000만원 미만	2,000만원 이상	계	평균
전체	**(138)**	**0.7**	**20.3**	**28.3**	**25.4**	**6.5**	**18.8**	**100.0**	**1042.6**
성별									
남성	(73)		16.4	35.6	24.7	5.5	17.8	100.0	990.1
여성	(65)	1.5	24.6	20.0	26.2	7.7	20.0	100.0	1101.4
연령대									
20-24세	(35)	2.9	20.0	37.1	22.9	2.9	14.3	100.0	894.8
25-29세	(40)		25.0	22.5	25.0	7.5	20.0	100.0	1050.8
30-34세	(38)		15.8	18.4	26.3	10.5	28.9	100.0	1328.9
35-39세	(25)		20.0	40.0	28.0	4.0	8.0	100.0	800.8
거주지역									
장안구	(40)	2.5	25.0	37.5	20.0	2.5	12.5	100.0	876.7
권선구	(44)		25.0	29.5	29.5		15.9	100.0	950.0
팔달구	(21)		14.3	14.3	19.0	19.0	33.3	100.0	1307.3
영통구	(33)		12.1	24.2	30.3	12.1	21.2	100.0	1198.5
취업상태									
취업	(86)		19.8	27.9	27.9	7.0	17.4	100.0	1064.8
미취업	(52)	1.9	21.2	28.8	21.2	5.8	21.2	100.0	1005.8
학력									
대학교 재학	(46)	2.2	17.4	32.6	28.3	2.2	17.4	100.0	966.9
대학교 졸업 이상	(92)		21.7	26.1	23.9	8.7	19.6	100.0	1080.4

■ 학자금 대출 유형

○ 수원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유형은 ‘든든 학자금 대출’이 37.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이어서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28.3%, ‘학자금 대출 보증’ 27.5% 등의 순으로 나타남

(단위 : %)



<그림 4-169> 학자금 대출 유형

○ 성별에 관계없이 남녀 모두 ‘든든 학자금 대출’을 이용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20대는 ‘든든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가 50%가 넘었고 30~34세는 ‘학자금 대출 보증’을 받은 경우가 36.8%, 35~39세는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가 44.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대학교 졸업 이상 응답자는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가 39.1%로 가장 높고 대학교 재학생은 ‘든든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가 52.2%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4-178> 응답자 특성별 학자금 대출 유형

(단위 : %)

	사례 수 (명)	든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취업 후 소득 발생 시점부터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거치기간 동안 이자 납부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보증	제1금융권 (은행) 및 제2금융권 대출	기타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대출 (졸업/수료 후 2년 뒤부터 상환	계
전체	**(138)**	**37.0**	**28.3**	**27.5**	**3.6**	**2.2**	**1.4**	**100.0**
성별								
남성	(73)	30.1	26.0	34.2	5.5	2.7	1.4	100.0
여성	(65)	44.6	30.8	20.0	1.5	1.5	1.5	100.0
연령대								
20-24세	(35)	51.4	14.3	28.6		5.7		100.0
25-29세	(40)	50.0	30.0	15.0	2.5	2.5		100.0
30-34세	(38)	28.9	28.9	36.8	2.6		2.6	100.0
35-39세	(25)	8.0	44.0	32.0	12.0		4.0	100.0
거주지역								
장안구	(40)	45.0	27.5	20.0	5.0		2.5	100.0
권선구	(44)	34.1	31.8	29.5	2.3	2.3		100.0
팔달구	(21)	33.3	19.0	28.6	4.8	9.5	4.8	100.0
영통구	(33)	33.3	30.3	33.3	3.0			100.0
취업상태								
취업	(86)	33.7	32.6	26.7	3.5	1.2	2.3	100.0
미취업	(52)	42.3	21.2	28.8	3.8	3.8		100.0
학력								
대학교 재학	(46)	52.2	6.5	34.8	2.2	4.3		100.0
대학교 졸업 이상	(92)	29.3	39.1	23.9	4.3	1.1	2.2	100.0

■ 대출 원금/이자 연체 경험 여부

○ 응답자들의 21.0%가 대출 원금/이자 연체 경험이 있다고 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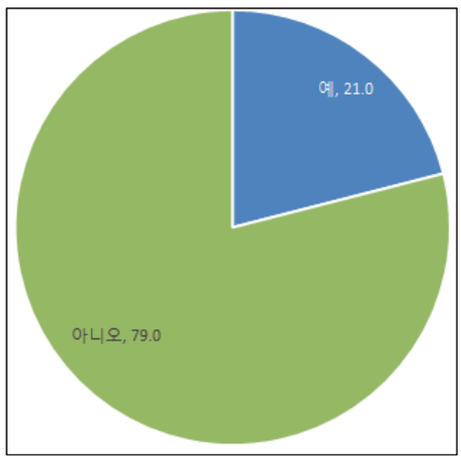
○ 성별에 따라서 긍정 응답률은 남성 15.1%, 여성 27.7%로 여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30~34세의 경우가 31.6%로 가장 높았고 20~24세의 경우가 14.3%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권선구 거주자의 긍정 응답률이 25.0%로 가장 높았고 영통구 거주자가 15.2%로 가장 낮았음

○ 취업자의 25.6%, 미취업자의 13.5%가 '예'라고 답해 취업자가 더 높은 긍정률을 보임

○ 대학교 재학생의 긍정응답률은 19.6%, 대학교 졸업 이상 응답자의 긍정 응답률은 21.7%로 더 높게 나타남



<그림 4-170> 대출 원금/이자 연체 경험 여부

<표 4-179> 응답자 특성별 대출 원금/이자 연체 경험 여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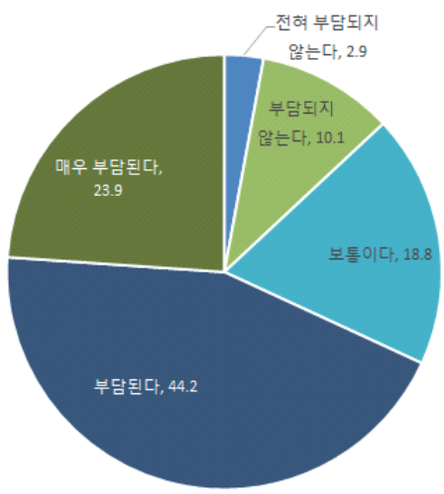
	사례수 (명)	예	아니오	계
전체	**(138)**	**21.0**	**79.0**	**100.0**
성별				
남성	(73)	15.1	84.9	100.0
여성	(65)	27.7	72.3	100.0
연령대				
20-24세	(35)	14.3	85.7	100.0
25-29세	(40)	17.5	82.5	100.0
30-34세	(38)	31.6	68.4	100.0
35-39세	(25)	20.0	80.0	100.0
거주지역				
장안구	(40)	22.5	77.5	100.0
권선구	(44)	25.0	75.0	100.0
팔달구	(21)	19.0	81.0	100.0
영통구	(33)	15.2	84.8	100.0
취업상태				
취업	(86)	25.6	74.4	100.0
미취업	(52)	13.5	86.5	100.0
학력				
대학교 재학	(46)	19.6	80.4	100.0
대학교 졸업 이상	(92)	21.7	78.3	100.0

■ 대출 원금/이자 부담 정도

○ 대출 원금/이자 부담 정도는 평균 3.8로 높게 나타남

- 부정 응답률이 68.1%로 가장 높았음

(단위 : %)



<그림 4-171> 대출 원금/이자 부담 정도

○ 남성의 평균은 3.7, 여성의 평균은 3.9로 모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보았을 때 20대는 평균 3.9로 평균 3.6~3.7인 30대에 비해 더 크게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취업자의 평균은 3.7, 미취업자의 평균은 3.9로 미취업자가 더 크게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대학교 재학생의 평균은 3.9, 대학교 졸업 이상 응답자의 평균은 3.7로 대학생의 부담이 더 크게 나타남

<표 4-180> 응답자 특성별 대출 원금/이자 부담 정도

(단위 : %, 점)

	사례수 (명)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부담되지 않는다	①+②	보통이다	부담된다	매우 부담된다	④+⑤	계	평균
전체	**(138)**	**2.9**	**10.1**	**13.0**	**18.8**	**44.2**	**23.9**	**68.1**	**100.0**	**3.8**
성별										
남성	(73)	4.1	11.0	15.1	21.9	41.1	21.9	63.0	100.0	3.7
여성	(65)	1.5	9.2	10.8	15.4	47.7	26.2	73.8	100.0	3.9
연령대										
20-24세	(35)	2.9	11.4	14.3	17.1	34.3	34.3	68.6	100.0	3.9
25-29세	(40)	2.5	5.0	7.5	15.0	60.0	17.5	77.5	100.0	3.9
30-34세	(38)	5.3	18.4	23.7	15.8	31.6	28.9	60.5	100.0	3.6
35-39세	(25)		4.0	4.0	32.0	52.0	12.0	64.0	100.0	3.7
거주지역										
장안구	(40)		10.0	10.0	25.0	45.0	20.0	65.0	100.0	3.8
권선구	(44)		9.1	9.1	22.7	47.7	20.5	68.2	100.0	3.8
팔달구	(21)	9.5	9.5	19.0	4.8	52.4	23.8	76.2	100.0	3.7
영통구	(33)	6.1	12.1	18.2	15.2	33.3	33.3	66.7	100.0	3.8
취업상태										
취업	(86)	3.5	12.8	16.3	18.6	43.0	22.1	65.1	100.0	3.7
미취업	(52)	1.9	5.8	7.7	19.2	46.2	26.9	73.1	100.0	3.9
학력										
대학교 재학	(46)	2.2	8.7	10.9	19.6	39.1	30.4	69.6	100.0	3.9
대학교 졸업 이상	(92)	3.3	10.9	14.1	18.5	46.7	20.7	67.4	100.0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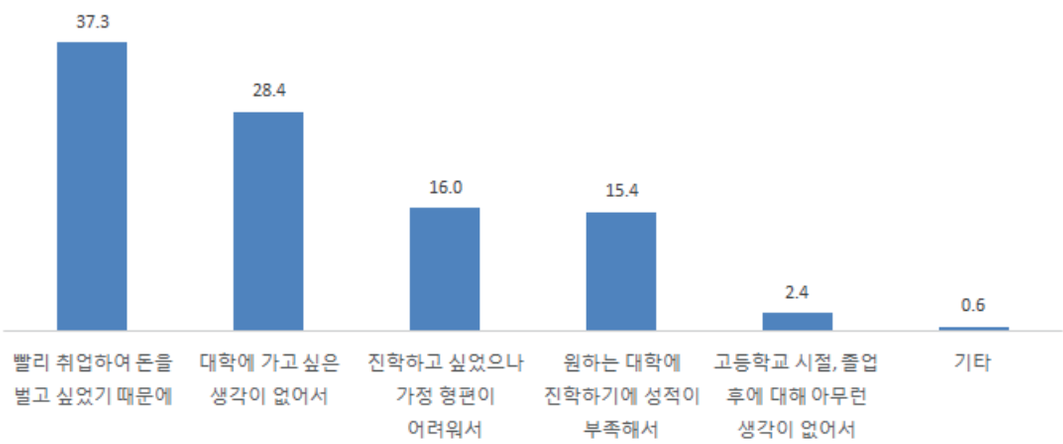
(4) 대학 진학 (대학비 진학자 문항)

가. 대학 비진학 이유

○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이유로는 ‘빨리 취업하여 돈을 벌고 싶었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응답률 37.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이어서 ‘대학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28.4%, ‘진학하고 싶었으나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16.0%,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에는 성적이 부족해서’ 15.4% 등의 순으로 나타남

(단위 : %)



<그림 4-172> 대학에 가지 않은 이유

○ 남성은 ‘빨리 취업하여 돈을 벌고 싶었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응답률 41.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여성의 경우에는 ‘대학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라고 응답한 경우가 33.7%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에 관계없이 ‘빨리 취업하여 돈을 벌고 싶었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빨리 취업하여 돈을 벌고 싶었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취업자의 경우는 ‘빨리 취업하여 돈을 벌고 싶었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응답률 43.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미취업자의 경우에는 ‘대학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라고 응답한 경우가 36.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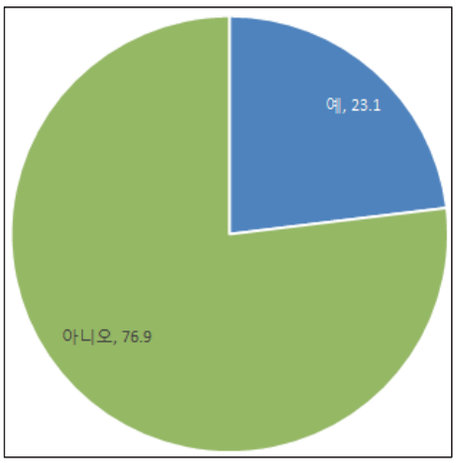
<표 4-181> 응답자 특성별 대학에 가지 않은 이유

(단위 : %)

	사례수 (명)	빨리 취업하여 돈을 벌고 싶었기 때문에	대학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진학하고 싶었으나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에 성적이 부족해서	고등학교 시절, 졸업 후에 대해 아무런 생각이 없어서	기타	계
전체	**(169)**	**37.3**	**28.4**	**16.0**	**15.4**	**2.4**	**0.6**	**100.0**
성별								
남성	(86)	41.9	23.3	12.8	17.4	4.7		100.0
여성	(83)	32.5	33.7	19.3	13.3		1.2	100.0
연령대								
20-24세	(42)	33.3	26.2	19.0	16.7	4.8		100.0
25-29세	(40)	32.5	17.5	22.5	22.5	2.5	2.5	100.0
30-34세	(38)	44.7	36.8	7.9	7.9	2.6		100.0
35-39세	(49)	38.8	32.7	14.3	14.3			100.0
거주지역								
장안구	(38)	36.8	26.3	18.4	18.4			100.0
권선구	(55)	29.1	25.5	21.8	21.8		1.8	100.0
팔달구	(24)	45.8	20.8	12.5	16.7	4.2		100.0
영통구	(52)	42.3	36.5	9.6	5.8	5.8		100.0
취업상태								
취업	(120)	43.3	29.2	13.3	13.3	0.8		100.0
미취업	(49)	22.4	26.5	22.4	20.4	6.1	2.0	100.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37.3	28.4	16.0	15.4	2.4	0.6	100.0

나. 향후 대학 진학 의향

- 응답자들의 23.1%가 향후 대학 진학 의향이 있다고 답함
- 성별에 따라서 긍정 응답률은 남성 29.1%, 여성 16.9%로 남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대가 20대에 비해 높은 경향을 보였는데, 20~24세의 경우가 57.1%로 눈에 띄게 높았고 30~34세의 경우가 2.6%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장안구 거주자의 긍정 응답률이 28.9%로 가장 높았고 영통구 거주자가 15.4%로 가장 낮았음
- 취업자의 13.3%, 미취업자의 46.9%가 '예'라고 답해 미취업자가 3배 이상 높은 긍정률을 보임



<그림 4-173> 추후 대학 진학 의사

<표 4-182> 응답자 특성별 추후 대학 진학 의사

(단위 : %)

	사례수 (명)	예	아니오	계
전체	**(169)**	**23.1**	**76.9**	**100.0**
성별				
남성	(86)	29.1	70.9	100.0
여성	(83)	16.9	83.1	100.0
연령대				
20-24세	(42)	57.1	42.9	100.0
25-29세	(40)	27.5	72.5	100.0
30-34세	(38)	2.6	97.4	100.0
35-39세	(49)	6.1	93.9	100.0
거주지역				
장안구	(38)	28.9	71.1	100.0
권선구	(55)	29.1	70.9	100.0
팔달구	(24)	16.7	83.3	100.0
영통구	(52)	15.4	84.6	100.0
취업상태				
취업	(120)	13.3	86.7	100.0
미취업	(49)	46.9	53.1	100.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23.1	76.9	100.0

2) 취업 (공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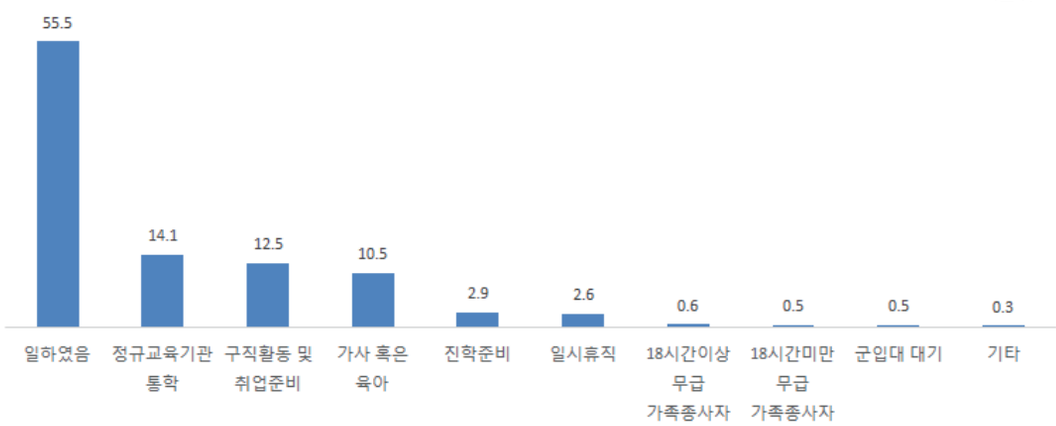
(1) 경제 활동 상태

가. 지난 1주간 활동

○ 지난 1주간의 활동에 대해 묻는 질문에 ‘일하였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5.5%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이어서 ‘정규교육기관 통학’ 14.1%, ‘구직활동 및 취업준비’ 12.5%, ‘가사 혹은 육아’ 10.5% 등의 순으로 나타남

(단위 : %)



<그림 4-174> 지난 1주간 주로 경험한 활동

○ 성별에 관계없이 남녀 모두 일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2순위에서는 남성은 ‘정규교육기관 통학’을 했다고 18.6%가 응답한 반면 여성은 ‘가사 혹은 육아’를 했다는 경우가 19.5%로 높게 나타남

○ 20~24세는 ‘정규교육기관 통학’을 했다는 응답이 41.6%로 가장 높았고,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일하였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는데 특히 30대는 70%가 넘는 응답자가 일하였다고 답함

○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일하였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는데, 팔달구의 경우 2순위가 ‘구직활동 및 취업준비’로 나타남

○ 미취업자의 경우 ‘정규교육기관 통학’을 한 경우가 32.2%로 가장 높았고 ‘구직활동 및 취업준비’ 28.5%, ‘가사 혹은 육아’가 23.9%의 순으로 나타남

○ 대학교 재학생 중에 ‘정규기관 통학’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4.6%뿐이었고 23.4%는 일하였다고 응답했으며 22.1%는 ‘구직활동 및 취업준비’를 했다고 응답함

<표 4-183> 응답자 특성별 지난 1주간 주로 경험한 활동

(단위 : %)

	사례수(명)	일하였음	정규교육기관 통학	구직활동 및 취업준비	가사 혹은 육아	진학준비	일시휴직	18시간이상 무급 가족종사자	18시간미만 무급 가족종사자	군입대 대기	기타	계
전체	**(800)**	**55.5**	**14.1**	**12.5**	**10.5**	**2.9**	**2.6**	**0.6**	**0.5**	**0.5**	**0.3**	**100.0**
성별												
남성	(415)	61.4	18.6	9.4	2.2	2.7	3.6	0.5	0.7	1.0		100.0
여성	(385)	49.1	9.4	15.8	19.5	3.1	1.6	0.8	0.3		0.5	100.0
연령대												
20-24세	(219)	24.7	41.6	22.4	1.8	6.4	0.9	0.5	0.5	1.4		100.0
25-29세	(186)	56.5	11.8	18.3	3.2	4.3	3.2	1.1	0.5	0.5	0.5	100.0
30-34세	(185)	73.5		7.0	13.5		4.3	0.5	0.5		0.5	100.0
35-39세	(210)	71.0		1.9	23.3	0.5	2.4	0.5	0.5			100.0
거주지역												
장안구	(182)	56.0	10.4	11.0	11.5	3.3	3.3	1.6	1.1	1.1	0.5	100.0
권선구	(245)	59.2	12.7	10.2	11.8	2.9	2.0	0.4	0.4		0.4	100.0
팔달구	(126)	46.8	9.5	29.4	5.6	4.0	2.4	0.8	0.8	0.8		100.0
영통구	(247)	55.9	20.6	7.3	10.9	2.0	2.8			0.4		100.0
취업상태												
취업	(449)	98.9						1.1				100.0
미취업	(351)		32.2	28.5	23.9	6.6	6.0		1.1	1.1	0.6	100.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69.2	4.1	5.9	8.3	5.3	3.6	1.8	0.6	1.2		100.0
대학교 재학	(231)	23.4	44.6	22.1	2.2	4.8	1.3		0.4	0.9	0.4	100.0
대학교 졸업 이상	(400)	68.3	0.8	9.8	16.3	0.8	3.0	0.5	0.5		0.3	100.0

3) 취업 (대상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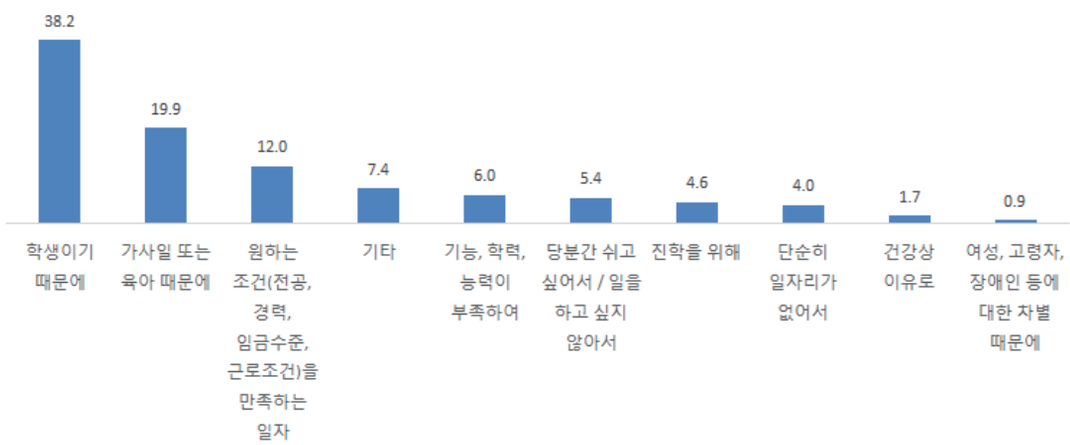
(1) 미취업자 문항

가. 일을 하지 않는 이유

○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인 이유에 대하여 38.2%는 본인이 학생이기 때문이라고 응답함

- 이어서 '가사일 또는 육아 때문에'라는 응답이 19.9%, '원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일자리가 없어서' 12.0% 등의 순으로 나타남

(단위 : %)



<그림 4-175> 일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주된 이유

○ 남성은 학생이기 때문에 일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55.1%인데 반해, 여성은 가사일 또는 육아 때문에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36.3%로 1순위인 것으로 나타남

○ 20~24세는 학생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67.1%를 차지한 반면 30대는 모두 가사일 또는 육아 때문에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학생이기 때문에 일하지 않는 상태라고 응답했는데 특히 영통구 거주자의 응답률이 52.3%로 나타남

○ 대학교 재학생을 제외하고는 가사일 또는 육아 때문에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4-184> 응답자 특성별 일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주된 이유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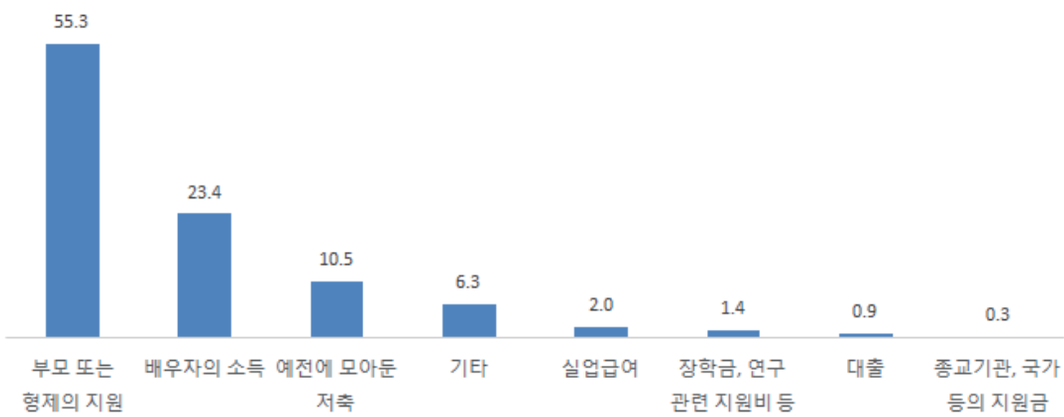
	사례수 (명)	학생이기 때문에	가사일 또는 육아 때문에	원하는 조건(전공, 경력, 임금 수준, 근로조건)을 만족하는 일자	기타	기능, 학력, 능력이 부족하여	당분간 쉬고 싶어서 /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	진학을 위해	단순히 일자리가 없어서	건강상 이유로	여성, 고령자,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 때문에	계
전체	**(351)**	**38.2**	**19.9**	**12.0**	**7.4**	**6.0**	**5.4**	**4.6**	**4.0**	**1.7**	**0.9**	**100.0**
성별												
남성	(158)	55.1		12.7	7.0	4.4	6.3	6.3	5.7	1.9	0.6	100.0
여성	(193)	24.4	36.3	11.4	7.8	7.3	4.7	3.1	2.6	1.6	1.0	100.0
연령대												
20-24세	(164)	67.1		7.9	4.9	7.3	3.0	6.1	3.0	0.6		100.0
25-29세	(79)	29.1	5.1	17.7	16.5	7.6	10.1	3.8	5.1	3.8	1.3	100.0
30-34세	(48)		52.1	18.8	6.3		8.3	6.3	4.2		4.2	100.0
35-39세	(60)	1.7	68.3	10.0	3.3	5.0	3.3		5.0	3.3		100.0
거주지역												
장안구	(77)	35.1	22.1	11.7	3.9	3.9	9.1	6.5	3.9	2.6	1.3	100.0
권선구	(99)	31.3	21.2	13.1	13.1	5.1	6.1	5.1	3.0	2.0		100.0
팔달구	(66)	28.8	9.1	19.7	9.1	12.1	9.1	4.5	4.5	1.5	1.5	100.0
영통구	(109)	52.3	23.9	6.4	3.7	4.6		2.8	4.6	0.9	0.9	100.0
취업상태												
미취업	(351)	38.2	19.9	12.0	7.4	6.0	5.4	4.6	4.0	1.7	0.9	100.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49)	18.4	20.4	8.2	6.1	10.2	8.2	16.3	10.2	2.0		100.0
대학교 재학	(177)	68.4		9.6	6.2	6.2	3.4	3.4	1.7		1.1	100.0
대학교 졸업 이상	(125)	3.2	48.0	16.8	9.6	4.0	7.2	1.6	4.8	4.0	0.8	100.0

나. 경제적 문제해결 방법

○ 미취업자들이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부모 또는 형제의 지원’이 55.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이어서 ‘배우자의 소득’ 23.4%, ‘예전에 모아둔 저축’ 10.5% 등의 순으로 나타남

(단위 : %)



<그림 4-176> 경제적 문제 해결

○ 부모 또는 형제의 지원에 의해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남성은 72.8%에 달하는데 반해 여성은 40.9%에 그치고, 여성은 ‘배우자의 소득’으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39.9%로 2순위로 나타남

○ 20대는 부모 또는 형제의 지원으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30대는 배우자의 소득으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 대학교 재학생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응답자도 배우자보다는 부모 또는 형제의 지원으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한다는 응답이 49.0%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4-185> 응답자 특성별 경제적 문제 해결

(단위 : %)

	사례수 (명)	부모 또는 형제의 지원	배우자의 소득	예전에 모아둔 저축	기타	실업급여	장학금, 연구 관련 지원비 등	대출	종교기관, 국가 등의 지원금	계
전체	**(351)**	**55.3**	**23.4**	**10.5**	**6.3**	**2.0**	**1.4**	**0.9**	**0.3**	**100.0**
성별										
남성	(158)	72.8	3.2	9.5	9.5	1.9	0.6	1.9	0.6	100.0
여성	(193)	40.9	39.9	11.4	3.6	2.1	2.1			100.0
연령대										
20-24세	(164)	81.1		6.1	9.8	1.8	1.2			100.0
25-29세	(79)	57.0	7.6	22.8	6.3	2.5	2.5		1.3	100.0
30-34세	(48)	20.8	58.3	10.4		4.2	2.1	4.2		100.0
35-39세	(60)	10.0	80.0	6.7	1.7			1.7		100.0
거주지역										
장안구	(77)	50.6	24.7	6.5	9.1	3.9	3.9	1.3		100.0
권선구	(99)	51.5	27.3	13.1	4.0	1.0	1.0	1.0	1.0	100.0
팔달구	(66)	60.6	15.2	12.1	7.6	4.5				100.0
영통구	(109)	58.7	23.9	10.1	5.5		0.9	0.9		100.0
취업상태										
미취업	(351)	55.3	23.4	10.5	6.3	2.0	1.4	0.9	0.3	100.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49)	49.0	26.5	10.2	4.1	8.2		2.0		100.0
대학교 재학	(177)	81.4	1.1	5.6	10.2		1.1	0.6		100.0
대학교 졸업 이상	(125)	20.8	53.6	17.6	1.6	2.4	2.4	0.8	0.8	100.0

(2) 취업자 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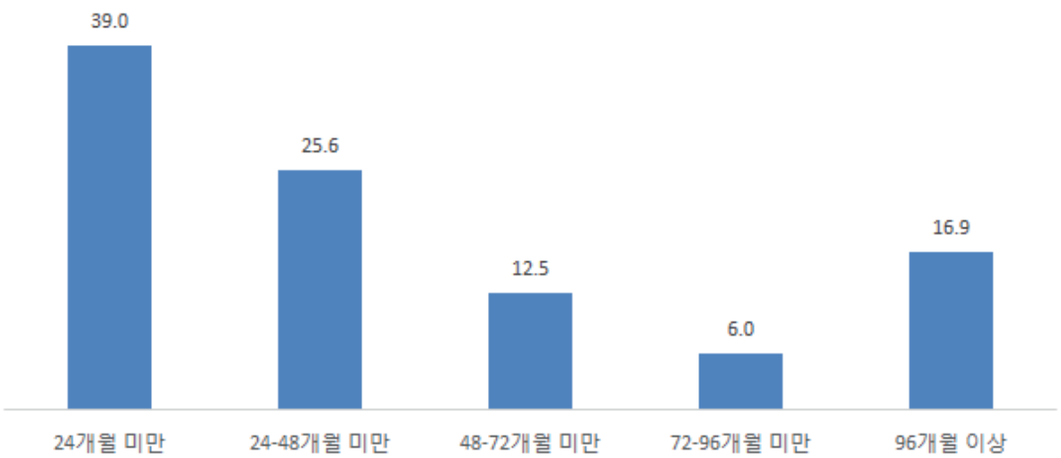
가. 현직장 특성

■ 현직장 근무기간

○ 현재 직장에 근무한 기간은 24개월 미만이 39.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이어서 ‘24~48개월 미만’ 25.6%, ‘48~72개월 미만’ 12.5% 등의 순으로 나타남

(단위 : %)



<그림 4-177> 현 직장 근무기간(개월 단위)

○ 성별에 관계없이 모두 현 직장에 근무한지 24개월 미만인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여성이 44.3%로 남성의 35.0%보다 높게 나타남

- 48개원 이상 근무한 경우는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음

○ 35~39세는 9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가 40.0%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 연령은 모두 48개월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20대의 경우에는 24개월 미만인 경우가 가장 많았음

○ 학력에 관계없이 근무 기간이 24개월 미만인 경우가 가장 많았음

<표 4-186> 응답자 특성별 현 직장 근무기간(개월 단위)

(단위 : %, 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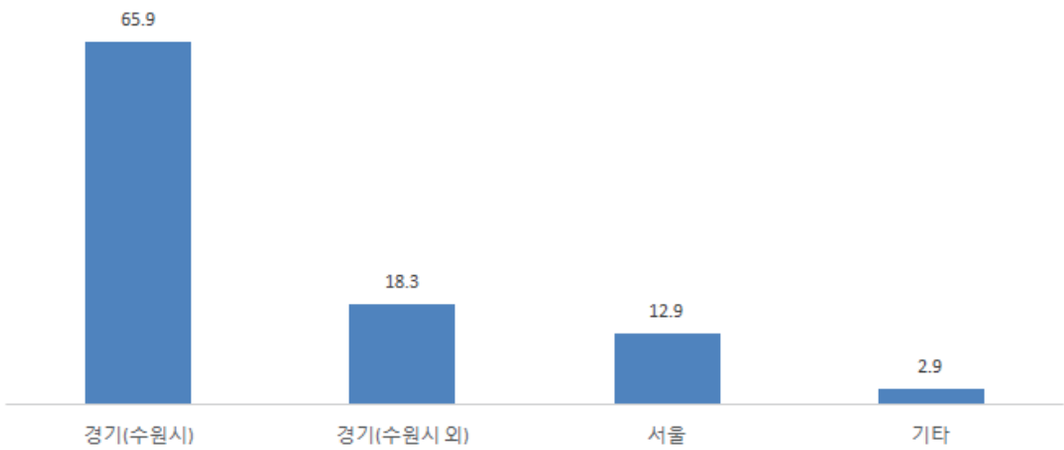
	사례수 (명)	24개월 미만	24-48개월 미만	48-72개월 미만	72-96개월 미만	96개월 이상	계	평균
전체	**(449)**	**39.0**	**25.6**	**12.5**	**6.0**	**16.9**	**100.0**	**45.5**
성별								
남성	(257)	35.0	25.3	14.0	7.0	18.7	100.0	49.0
여성	(192)	44.3	26.0	10.4	4.7	14.6	100.0	40.8
연령대								
20-24세	(55)	83.6	16.4				100.0	11.8
25-29세	(107)	58.9	32.7	5.6	1.9	0.9	100.0	22.0
30-34세	(137)	26.3	29.2	24.8	8.8	10.9	100.0	45.7
35-39세	(150)	20.0	20.7	10.7	8.7	40.0	100.0	74.4
거주지역								
장안구	(105)	53.3	21.9	6.7	5.7	12.4	100.0	35.4
권선구	(146)	39.0	21.9	13.0	8.9	17.1	100.0	47.7
팔달구	(60)	35.0	31.7	13.3	6.7	13.3	100.0	43.1
영통구	(138)	29.7	29.7	15.9	2.9	21.7	100.0	51.8
취업상태								
취업	(449)	39.0	25.6	12.5	6.0	16.9	100.0	45.5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20)	39.2	35.0	10.8	6.7	8.3	100.0	36.9
대학교 재학	(54)	83.3	9.3	5.6	1.9		100.0	14.0
대학교 졸업 이상	(275)	30.2	24.7	14.5	6.5	24.0	100.0	55.4

■ 현직장 위치

○ 수원시에 있는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가 65.9%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이어서 ‘경기(수원 외)’ 18.3%, ‘서울’ 12.9%, 기타 2.9%의 순으로 나타남

(단위 : %)



<그림 4-178> 직장 위치(시/도)

○ 성별에 관계없이 모두 수원에 있는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여성이 70.3%로 남성의 62.6%보다 높게 나타남

○ 연령, 거주지역, 학력에 관계없이 모두 수원에 있는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았음

<표 4-187> 응답자 특성별 직장 위치(시/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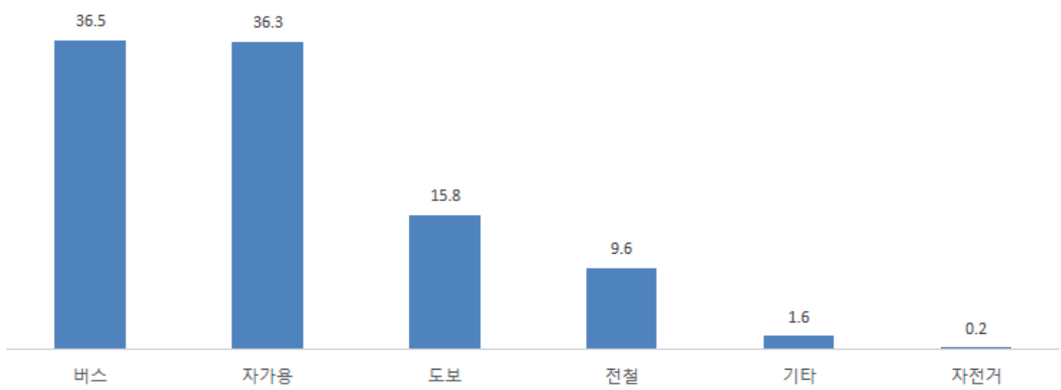
	사례수 (명)	경기(수원시)	경기(수원시 외)	서울	기타	계
전체	**(449)**	**65.9**	**18.3**	**12.9**	**2.9**	**100.0**
성별						
남성	(257)	62.6	21.0	12.1	4.3	100.0
여성	(192)	70.3	14.6	14.1	1.0	100.0
연령대						
20-24세	(55)	81.8	7.3	9.1	1.8	100.0
25-29세	(107)	69.2	13.1	15.9	1.9	100.0
30-34세	(137)	60.6	23.4	12.4	3.6	100.0
35-39세	(150)	62.7	21.3	12.7	3.3	100.0
거주지역						
장안구	(105)	76.2	11.4	8.6	3.8	100.0
권선구	(146)	65.8	17.8	13.0	3.4	100.0
팔달구	(60)	50.0	23.3	25.0	1.7	100.0
영통구	(138)	65.2	21.7	10.9	2.2	100.0
취업상태						
취업	(449)	65.9	18.3	12.9	2.9	100.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20)	85.0	7.5	6.7	0.8	100.0
대학교 재학	(54)	83.3	7.4	1.9	7.4	100.0
대학교 졸업 이상	(275)	54.2	25.1	17.8	2.9	100.0

■ 현직장 출퇴근 교통수단

○ 출퇴근 시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36.5%로 가장 높고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가 36.3%로 차순으로 나타남

- 이어서 ‘도보’ 15.8%, ‘전철’ 9.6% 등의 순으로 나타남

(단위 : %)



<그림 4-179> 출퇴근 시 이용 교통수단

○ 남성은 자가용은 이용하는 경우가 42.0%로 가장 많았고, 여성은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46.4%로 가장 많았음

○ 30대는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20대는 버스 이용률이 가장 높았음

○ 대학교 재학생을 제외하고는 자가용을 이용해 출퇴근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음

<표 4-188> 응답자 특성별 출퇴근 시 이용 교통수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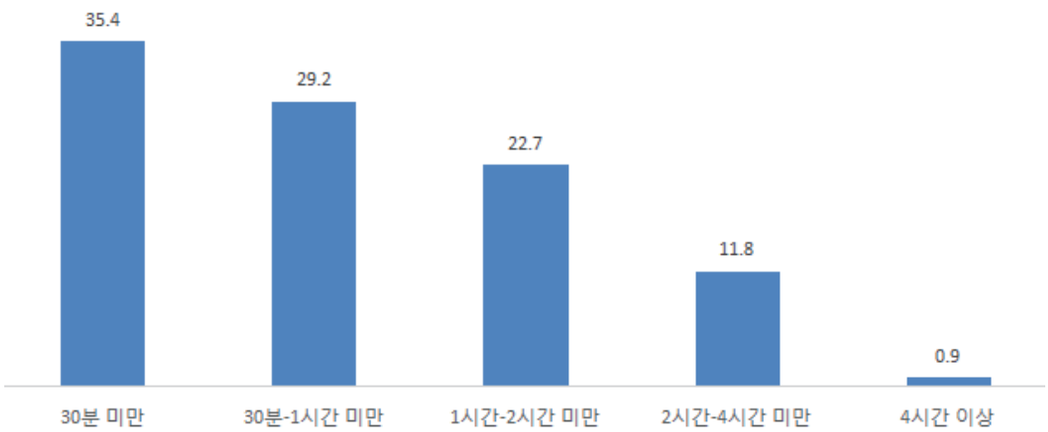
	사례수 (명)	버스	자가용	도보	전철	기타	자전거	계
전체	**(449)**	**36.5**	**36.3**	**15.8**	**9.6**	**1.6**	**0.2**	**100.0**
성별								
남성	(257)	29.2	42.0	16.7	9.3	2.3	0.4	100.0
여성	(192)	46.4	28.6	14.6	9.9	0.5		100.0
연령대								
20-24세	(55)	50.9	12.7	29.1	7.3			100.0
25-29세	(107)	43.9	22.4	19.6	12.1	1.9		100.0
30-34세	(137)	37.2	37.2	11.7	11.7	1.5	0.7	100.0
35-39세	(150)	25.3	54.0	12.0	6.7	2.0		100.0
거주지역								
장안구	(105)	35.2	27.6	29.5	4.8	2.9		100.0
권선구	(146)	36.3	45.9	6.2	10.3	1.4		100.0
팔달구	(60)	28.3	38.3	16.7	16.7			100.0
영통구	(138)	41.3	31.9	15.2	9.4	1.4	0.7	100.0
취업상태								
취업	(449)	36.5	36.3	15.8	9.6	1.6	0.2	100.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20)	37.5	40.8	15.0	4.2	2.5		100.0
대학교 재학	(54)	48.1	18.5	29.6	3.7			100.0
대학교 졸업 이상	(275)	33.8	37.8	13.5	13.1	1.5	0.4	100.0

■ 현직장 출퇴근 시간

○ 출퇴근시 소요되는 시간은 30분 미만이 35.4%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이어서 30분~1시간 미만 29.2%, 1시간~2시간 미만 22.7%, 2시간~4시간 미만 11.8%, 4시간 이상 0.9%의 순으로 나타남

(단위 : %)



<그림 4-180> 출퇴근 시간

○ 성별에 관계없이 남녀 모두 30분 이내의 출퇴근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30~34세는 30분 이내의 출퇴근 시간을 갖는 다른 연령대와 달리 30분~1시간 이내의 출퇴근 시간을 갖는 경우가 31.4%로 가장 높았음

<표 4-189> 응답자 특성별 출퇴근 시간

(단위 : %,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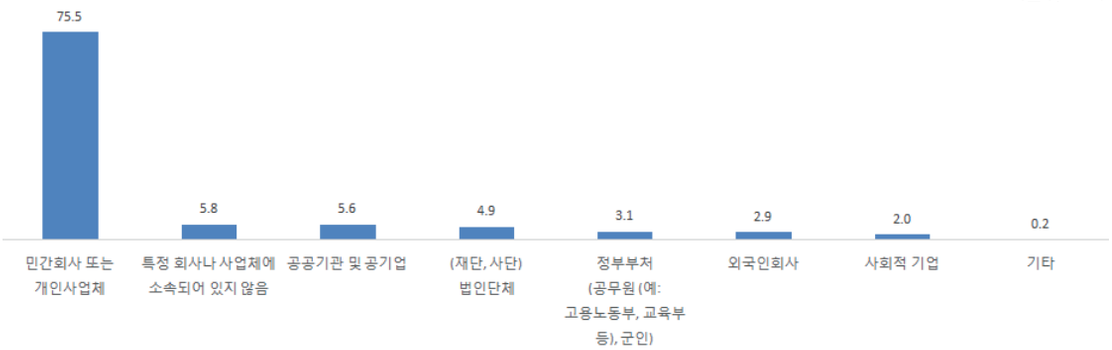
	사례수 (명)	30분 미만	30분-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미만	2시간-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계	평균
전체	**(449)**	**35.4**	**29.2**	**22.7**	**11.8**	**0.9**	**100.0**	**51.5**
성별								
남성	(257)	36.6	28.8	21.8	12.1	0.8	100.0	51.0
여성	(192)	33.9	29.7	24.0	11.5	1.0	100.0	52.2
연령대								
20-24세	(55)	41.8	23.6	23.6	9.1	1.8	100.0	47.8
25-29세	(107)	36.4	32.7	22.4	8.4		100.0	45.9
30-34세	(137)	29.9	31.4	21.9	14.6	2.2	100.0	58.4
35-39세	(150)	37.3	26.7	23.3	12.7		100.0	50.5
거주지역								
장안구	(105)	41.9	28.6	21.9	7.6		100.0	43.3
권선구	(146)	34.2	23.3	27.4	13.7	1.4	100.0	55.9
팔달구	(60)	20.0	26.7	33.3	18.3	1.7	100.0	67.9
영통구	(138)	38.4	37.0	13.8	10.1	0.7	100.0	45.9
취업상태								
취업	(449)	35.4	29.2	22.7	11.8	0.9	100.0	51.5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20)	50.8	26.7	14.2	7.5	0.8	100.0	39.0
대학교 재학	(54)	48.1	25.9	18.5	7.4		100.0	38.8
대학교 졸업 이상	(275)	26.2	30.9	27.3	14.5	1.1	100.0	59.4

■ 현직장 유형

○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의 유형은 ‘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인 경우가 75.5%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이어서 ‘특정회사나 사업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음’ 5.8%, ‘공공기관 및 공기업’ 5.6%등의 순으로 나타남

(단위 : %)



<그림 4-181> 직장 형태

○ 성별에 관계없이 남녀 모두 ‘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았음 (남성 79.8%, 여성 69.8%)

○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응답자의 경우 특정회사나 사업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프리랜서들이 11.7%로 나머지 학력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대학교 졸업 이상 응답자는 정부부처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4.7%로 다른 학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4-190> 응답자 특성별 직장 형태

(단위 : %)

	사례수 (명)	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	특정회사나 사업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음	공공기관 및 공기업	(재단, 사단)법인단체	정부부처(공무원(예: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 군인)	외국인 회사	사회적 기업	기타	계
전체	**(449)**	**75.5**	**5.8**	**5.6**	**4.9**	**3.1**	**2.9**	**2.0**	**0.2**	**100.0**
성별										
남성	(257)	79.8	4.7	5.1	3.5	1.2	4.7	1.2		100.0
여성	(192)	69.8	7.3	6.3	6.8	5.7	0.5	3.1	0.5	100.0
연령대										
20-24세	(55)	80.0	5.5	5.5	3.6		3.6	1.8		100.0
25-29세	(107)	73.8	3.7	3.7	7.5	1.9	2.8	6.5		100.0
30-34세	(137)	75.9	5.8	5.8	5.1	2.9	3.6	0.7		100.0
35-39세	(150)	74.7	7.3	6.7	3.3	5.3	2.0		0.7	100.0
거주지역										
장안구	(105)	79.0	1.9	6.7	4.8	1.9	2.9	2.9		100.0
권선구	(146)	72.6	8.9	4.8	3.4	5.5	3.4	1.4		100.0
팔달구	(60)	55.0	10.0	10.0	10.0	1.7	6.7	5.0	1.7	100.0
영통구	(138)	84.8	3.6	3.6	4.3	2.2	0.7	0.7		100.0
취업상태										
취업	(449)	75.5	5.8	5.6	4.9	3.1	2.9	2.0	0.2	100.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20)	78.3	11.7		4.2	0.8	2.5	1.7	0.8	100.0
대학교 재학	(54)	79.6		11.1	1.9		5.6	1.9		100.0
대학교 졸업 이상	(275)	73.5	4.4	6.9	5.8	4.7	2.5	2.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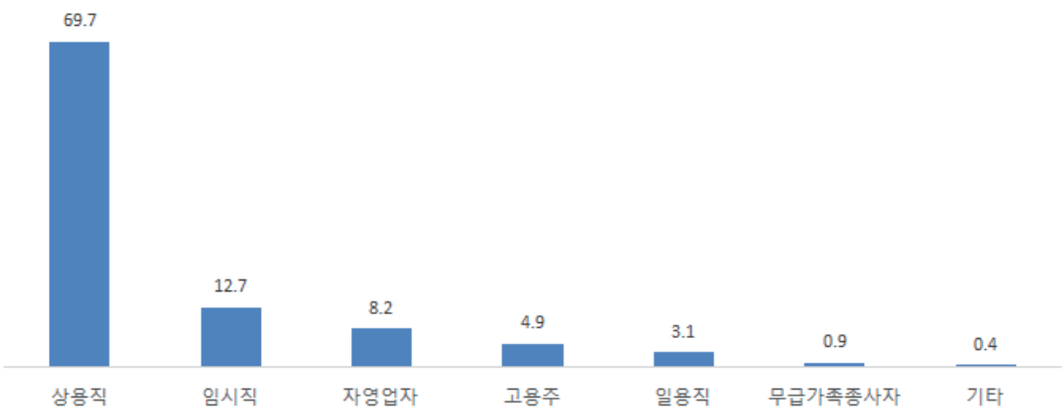
나. 직업특성 및 만족도

■ 종사상 지위

○ 종사상의 지위는 상용직이 69.7%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이어서 임시직 12.7%, 자영업자 8.2% 등의 순으로 나타남

(단위 : %)



<그림 4-182> 종사상 지위

○ 성별에 관계없이 남녀 모두 상용직의 비율이 가장 높았음 (남성 68.5%, 여성 71.4%)

○ 20~24세의 경우 임시직이 36.4%, 35~39세의 경우에는 자영엽이 12.7%, 고용주가 8.0%로 나타났는데, 각각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수치임

○ 임시직 비율은 장안구 거주자가 18.1%, 자영업자는 권선구 거주자가 10.3%, 고용주는 팔달구 거주자가 6.7%, 일용직은 장안구 거주자가 4.8%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남

○ 대학교 재학생의 경우 임시직인 경우가 44.4%라는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자영업자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응답자가 12.5%라는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표 4-191> 응답자 특성별 종사상 지위

(단위 : %)

	사례수 (명)	상용직	임시직	자영업자	고용주	일용직	무급가족 종사자	기타	계
전체	**(449)**	**69.7**	**12.7**	**8.2**	**4.9**	**3.1**	**0.9**	**0.4**	**100.0**
성별									
남성	(257)	68.5	12.5	9.3	5.4	3.1	0.4	0.8	100.0
여성	(192)	71.4	13.0	6.8	4.2	3.1	1.6		100.0
연령대									
20-24세	(55)	52.7	36.4	1.8		5.5	3.6		100.0
25-29세	(107)	68.2	18.7	3.7	3.7	2.8	0.9	1.9	100.0
30-34세	(137)	74.5	8.8	9.5	4.4	2.2	0.7		100.0
35-39세	(150)	72.7	3.3	12.7	8.0	3.3			100.0
거주지역									
장안구	(105)	58.1	18.1	9.5	5.7	4.8	2.9	1.0	100.0
권선구	(146)	69.9	14.4	10.3	2.7	2.1	0.7		100.0
팔달구	(60)	76.7	8.3	5.0	6.7	3.3			100.0
영통구	(138)	75.4	8.7	6.5	5.8	2.9		0.7	100.0
취업상태									
취업	(449)	69.7	12.7	8.2	4.9	3.1	0.9	0.4	100.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20)	60.8	13.3	12.5	8.3	3.3	1.7		100.0
대학교 재학	(54)	40.7	44.4	1.9	1.9	5.6	1.9	3.7	100.0
대학교 졸업 이상	(275)	79.3	6.2	7.6	4.0	2.5	0.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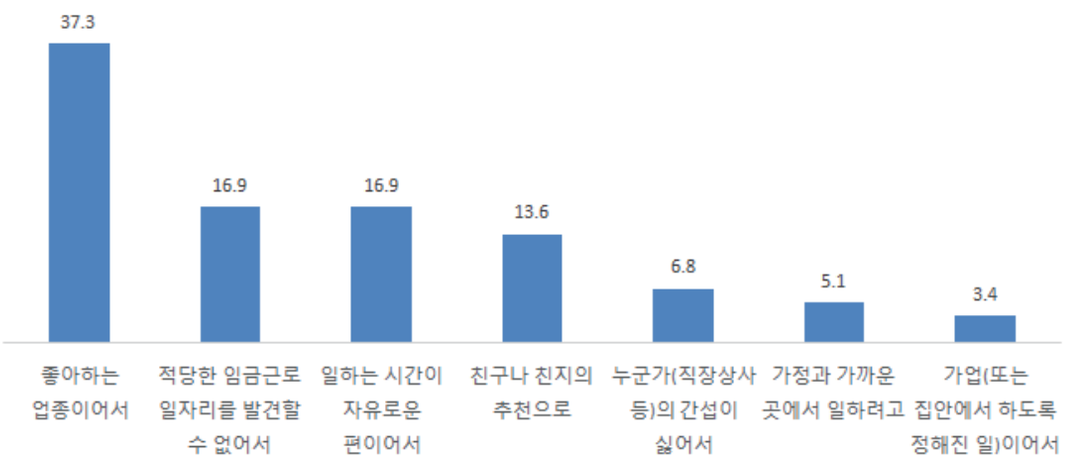
(3) 고용주 및 자영업자 문항

가. 사업(창업) 동기

○ 사업(창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로는 ‘좋아하는 업종이어서’라는 응답이 37.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이어서 ‘적당한 임금근로 일자리를 발견할 수 없어서’ 16.9%, ‘일하는 시간이 자유로운 편이어서’ 16.9%, ‘친구나 친지의 추천으로’ 13.6% 등의 순으로 나타남

(단위 : %)



<그림 4-183> 사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

○ 성별에 관계없이 남녀 모두 ‘좋아하는 업종이어서’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특히 여성의 경우 응답률이 52.4%로 높게 나타남

○ 30~34세는 창업 동기로 ‘좋아하는 업종이어서’와 ‘일하는 시간이 자유로운 편이어서’라는 응답이 26.3%로 공동으로 1순위로 나타났고 35~39세는 ‘좋아하는 업종이어서’ 사업을 시작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 20대는 자영업을 하는 경우가 9명뿐인 것으로 나타남

○ 다른 지역 거주자들과 달리 영통구 거주자들은 ‘적당한 임금근로 일자리를 발견할 수 없어서’ 사업을 시작했다고 응답한 경우가 41.2%로 가장 많았음

<표 4-192> 응답자 특성별 사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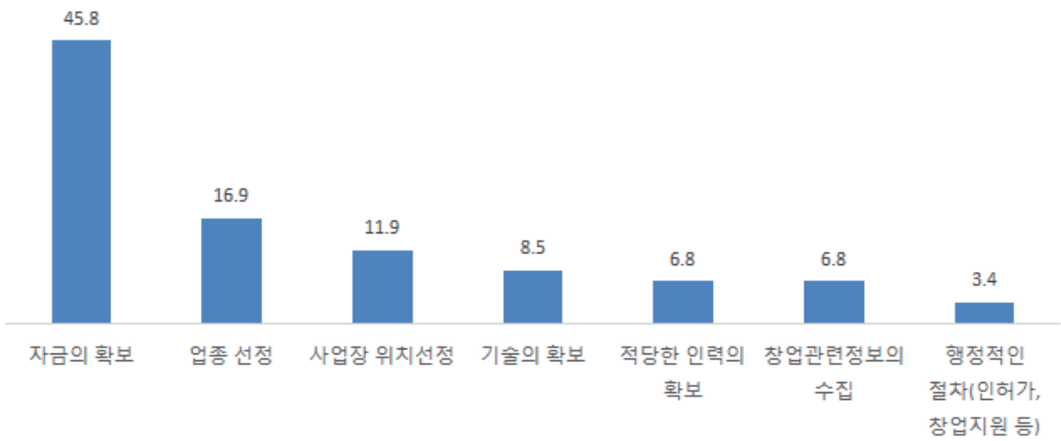
	사례수(명)	좋아하는 업종이어서	적당한 임금근로 일자리를 발견할 수 없어서	일하는 시간이 자유로운 편이어서	친구나 친지의 추천으로	누군가(직장상사 등)의 간섭이 싫어서	가정과 가까운 곳에서 일하려고	가업(또는 집안에서 하도록 정해진 일)이어서	계
전체	**(59)**	**37.3**	**16.9**	**16.9**	**13.6**	**6.8**	**5.1**	**3.4**	**100.0**
성별									
남성	(38)	28.9	21.1	15.8	18.4	7.9	5.3	2.6	100.0
여성	(21)	52.4	9.5	19.0	4.8	4.8	4.8	4.8	100.0
연령대									
20-24세	(1)	100.0							100.0
25-29세	(8)	50.0		12.5		25.0		12.5	100.0
30-34세	(19)	26.3	10.5	26.3	21.1		10.5	5.3	100.0
35-39세	(31)	38.7	25.8	12.9	12.9	6.5	3.2		100.0
거주지역									
장안구	(16)	43.8		12.5	12.5	12.5	6.3	12.5	100.0
권선구	(19)	36.8	5.3	21.1	26.3	5.3	5.3		100.0
팔달구	(7)	28.6	28.6	14.3	14.3	14.3			100.0
영통구	(17)	35.3	41.2	17.6			5.9		100.0
취업상태									
취업	(59)	37.3	16.9	16.9	13.6	6.8	5.1	3.4	100.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25)	28.0	28.0	20.0	16.0	4.0	4.0		100.0
대학교 재학	(2)			50.0		50.0			100.0
대학교 졸업 이상	(32)	46.9	9.4	12.5	12.5	6.3	6.3	6.3	100.0

나. 창업과정의 어려움

○ 창업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자금의 확보’인 것으로 나타남 (응답률 45.8%)

- 이어서 ‘업종 선정’ 16.9%, ‘사업장 위치선정’ 11.9% 등의 순으로 나타남

(단위 : %)



<그림 4-184> 응답자 특성별 창업과정에서 어려웠던 점

○ 성별에 관계없이 남녀 모두 ‘자금의 확보’가 가장 어려웠다고 응답함 (남성 47.4%, 여성 42.9%)

- 남성이 업종 선정과 사업장 위치선정에 어려움을 겪은 것과는 달리 여성은 기술의 확보와 정보수집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에 관계없이 대부분 자금의 확보가 가장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남

- 20~24세의 경우 표본이 하나뿐이라 유의미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대학교 졸업 이상 응답자들은 자금의 확보와 업종 선정을 가장 어려웠던 점이라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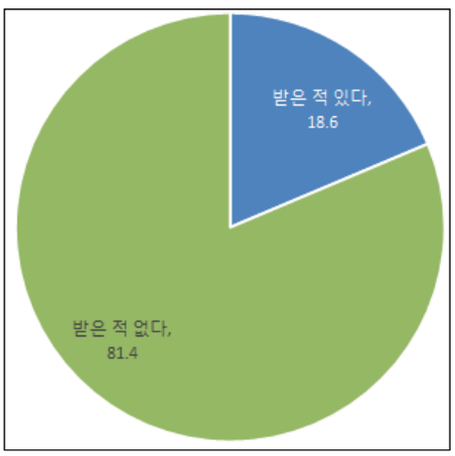
<표 4-193> 응답자 특성별 창업과정에서 어려웠던 점

(단위 : %)

	사례수(명)	자금의 확보	업종 선정	사업장 위치선정	기술의 확보	적당한 인력의 확보	창업관련 정보의 수집	행정적인 절차(인허가, 창업지원 등)	계
전체	**(59)**	**45.8**	**16.9**	**11.9**	**8.5**	**6.8**	**6.8**	**3.4**	**100.0**
성별									
남성	(38)	47.4	23.7	15.8	2.6	7.9	2.6		100.0
여성	(21)	42.9	4.8	4.8	19.0	4.8	14.3	9.5	100.0
연령대									
20-24세	(1)			100.0					100.0
25-29세	(8)	50.0	12.5			12.5	12.5	12.5	100.0
30-34세	(19)	36.8	15.8	10.5	10.5	10.5	10.5	5.3	100.0
35-39세	(31)	51.6	19.4	12.9	9.7	3.2	3.2		100.0
거주지역									
장안구	(16)	50.0	12.5	12.5	6.3	12.5		6.3	100.0
권선구	(19)	52.6	26.3	5.3		5.3	10.5		100.0
팔달구	(7)	14.3	14.3		57.1	14.3			100.0
영통구	(17)	47.1	11.8	23.5			11.8	5.9	100.0
취업상태									
취업	(59)	45.8	16.9	11.9	8.5	6.8	6.8	3.4	100.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25)	68.0	8.0	12.0	12.0				100.0
대학교 재학	(2)	100.0							100.0
대학교 졸업 이상	(32)	25.0	25.0	12.5	6.3	12.5	12.5	6.3	100.0

다. 창업훈련 유무

- 응답자들의 18.6%가 창업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함
- 성별에 따라서 긍정 응답률은 남성 10.5%, 여성 33.3%로 여성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남
- 30~34세의 긍정 응답률이 31.6%로 가장 높음
- 팔달구 거주자의 긍정 응답률이 28.6%로 가장 높았고 영통구 거주자가 11.8%로 가장 낮았음
-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응답자의 긍정 응답률이 32.0%로 대학교 졸업 이상 응답자의 9.4%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남



<그림 4-185> 창업훈련 경험여부

<표 4-194> 응답자 특성별 창업훈련 경험여부

(단위 : %)

	사례수 (명)	받은 적 있다	받은 적 없다	계
전체	**(59)**	**18.6**	**81.4**	**100.0**
성별				
남성	(38)	10.5	89.5	100.0
여성	(21)	33.3	66.7	100.0
연령대				
20-24세	(1)		100.0	100.0
25-29세	(8)	12.5	87.5	100.0
30-34세	(19)	31.6	68.4	100.0
35-39세	(31)	12.9	87.1	100.0
거주지역				
장안구	(16)	18.8	81.3	100.0
권선구	(19)	21.1	78.9	100.0
팔달구	(7)	28.6	71.4	100.0
영통구	(17)	11.8	88.2	100.0
취업상태				
취업	(59)	18.6	81.4	100.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25)	32.0	68.0	100.0
대학교 재학	(2)		100.0	100.0
대학교 졸업 이상	(32)	9.4	90.6	100.0

■ 고용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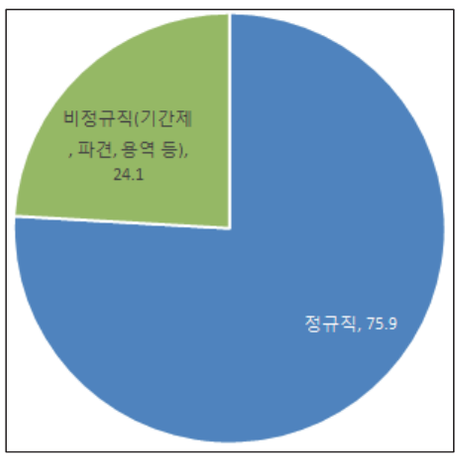
○ 응답자들의 75.9%가 정규직, 24.1%가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남

○ 성별에 따라서 남성 정규직이 80.7%, 여성 정규직은 69.6%로 남성의 정규직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 연령이 높아질수록 정규직 비율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영통구 거주자의 정규직 비율이 83.5%로 가장 높았고 장안구 거주자가 66.3%로 가장 낮았음

○ 대학교 재학생의 정규직 비율은 39.2%,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응답자의 정규직 비율은 71.0%, 그리고 대학교 졸업 이상 응답자는 85.5%가 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남



<그림 4-186> 고용형태

<표 4-195> 응답자 특성별 고용형태

(단위 : %)

	사례수 (명)	정규직	비정규직(기간제, 파견, 용역 등)	계
전체	**(386)**	**75.9**	**24.1**	**100.0**
성별				
남성	(218)	80.7	19.3	100.0
여성	(168)	69.6	30.4	100.0
연령대				
20-24세	(52)	55.8	44.2	100.0
25-29세	(98)	64.3	35.7	100.0
30-34세	(117)	84.6	15.4	100.0
35-39세	(119)	85.7	14.3	100.0
거주지역				
장안구	(86)	66.3	33.7	100.0
권선구	(126)	73.8	26.2	100.0
팔달구	(53)	79.2	20.8	100.0
영통구	(121)	83.5	16.5	100.0
취업상태				
취업	(386)	75.9	24.1	100.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93)	71.0	29.0	100.0
대학교 재학	(51)	39.2	60.8	100.0
대학교 졸업 이상	(242)	85.5	14.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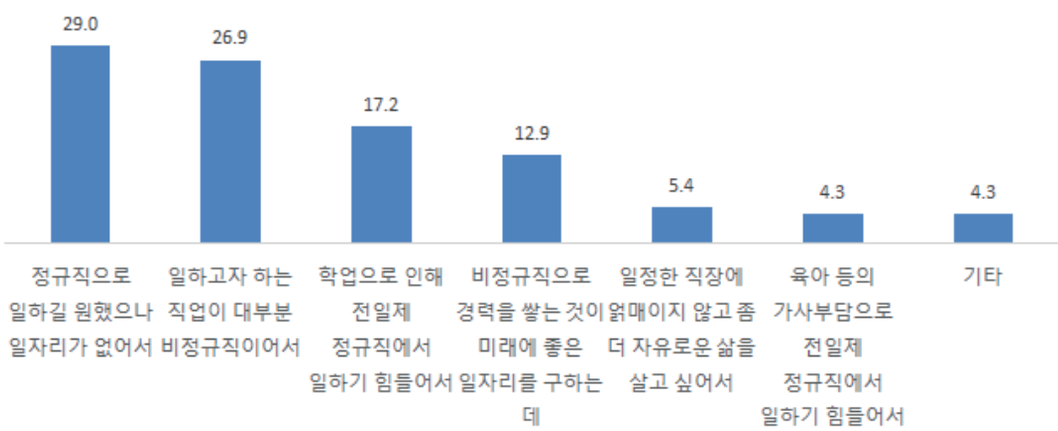
라. 비정규직 문항

■ 비정규직 근무 이유

○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규직으로 일하길 원했으나 일자리가 없어서’인 것으로 나타남 (응답률 29.0%)

- 이어서 ‘일하고자 하는 직업이 대부분 비정규직이어서’ 26.9%, ‘학업으로 인해 전일제 정규직에서 일하기 힘들어서’ 17.2%, ‘비정규직으로 경력을 쌓는 것이 미래에 좋은 일자리를 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12.9% 등의 순으로 나타남

(단위 : %)



<그림 4-187>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이유

○ 남성의 경우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일하고자 하는 직업이 대부분 비정규직이어서’로 나타났고(응답률 28.6%), 여성의 경우는 ‘정규직으로 일하길 원했으나 일자리가 없어서’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응답률 33.3%)

○ 20~24세는 ‘학업으로 인해 전일제 정규직에서 일하기 힘들어서’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경우가 47.8%로 나타났고, 25~29세는 ‘정규직으로 일하길 원했으나 일자리가 없어서’ 비정규직에서 일하고 있으며, 30대는 ‘일하고자 하는 직업이 대부분 비정규직이어서’ 비정규직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30~34세의 경우 ‘일하고자 하는 직업이 대부분 비정규직이어서’와 ‘정규직으로 일하길 원했으나 일자리가 없어서’라는 응답이 38.9%로 같게 나타남

○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응답자들과 대학교 졸업 이상 응답자들은 ‘일하고자 하는 직업이 대부분 비정규직이어서’ 비정규직으로 종사 중이라는 경우가 37.0~37.1%로 가장 많았

고, 대학교 재학생은 ‘학업으로 인해 전일제 정규직에서 일하기 힘들어서’가 35.5%로 가장 높았음

<표 4-196> 응답자 특성별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이유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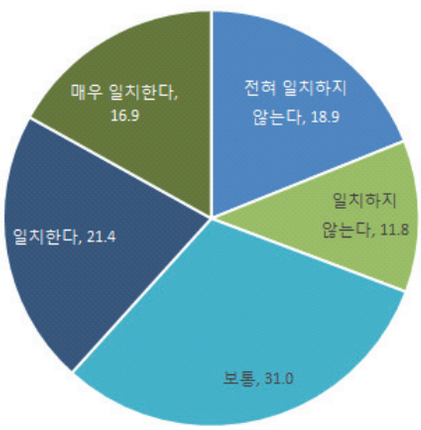
	사례수 (명)	정규직으로 일하길 원했으나 일자리가 없어서	일하고자 하는 직업이 대부분 비정규직이어서	학업으로 인해 전일제 정규직에서 일하기 힘들어서	비정규직으로 경력을 쌓는 것이 미래에 좋은 일자리를 구하는데	일정한 직장에 얽매이지 않고 좀 더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어서	육아 등의 가사부담으로 전일제 정규직에서 일하기 힘들어서	기타	계
전체	**(93)**	**29.0**	**26.9**	**17.2**	**12.9**	**5.4**	**4.3**	**4.3**	**100.0**
성별									
남성	(42)	23.8	28.6	23.8	9.5	9.5		4.8	100.0
여성	(51)	33.3	25.5	11.8	15.7	2.0	7.8	3.9	100.0
연령대									
20-24세	(23)	13.0	4.3	47.8	17.4	17.4			100.0
25-29세	(35)	37.1	34.3	14.3	11.4		2.9		100.0
30-34세	(18)	38.9	38.9		11.1		5.6	5.6	100.0
35-39세	(17)	23.5	29.4		11.8	5.9	11.8	17.6	100.0
거주지역									
장안구	(29)	17.2	13.8	31.0	17.2	6.9	6.9	6.9	100.0
권선구	(33)	39.4	30.3	6.1	15.2	3.0		6.1	100.0
팔달구	(11)	9.1	36.4	18.2	18.2		18.2		100.0
영통구	(20)	40.0	35.0	15.0		10.0			100.0
취업상태									
취업	(93)	29.0	26.9	17.2	12.9	5.4	4.3	4.3	100.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27)	25.9	37.0	7.4	22.2	3.7		3.7	100.0
대학교 재학	(31)	25.8	6.5	35.5	12.9	9.7	6.5	3.2	100.0
대학교 졸업 이상	(35)	34.3	37.1	8.6	5.7	2.9	5.7	5.7	100.0

■ 전공 일치도

○ 전공 분야와의 일치도는 평균 3.1로 보통인 것으로 나타남

- 긍정 응답률이 38.3%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단위 : %)



<그림 4-188> 전공분야와 일치 정도

○ 남성의 평균은 3.1, 여성의 평균은 3.0으로 모두 보통인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보았을 때 20~24세의 평균이 2.5로 가장 낮고 30~34세의 평균이 3.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장안구의 평균이 2.7로 가장 낮았고 팔달구의 평균이 3.4로 가장 높았음

○ 대학교 졸업 이상 응답자의 평균은 3.3으로 보통을 넘었고 나머지 학력의 평균은 모두 보통에 미치지 못함

<표 4-197> 응답자 특성별 전공분야와 일치 정도

(단위 :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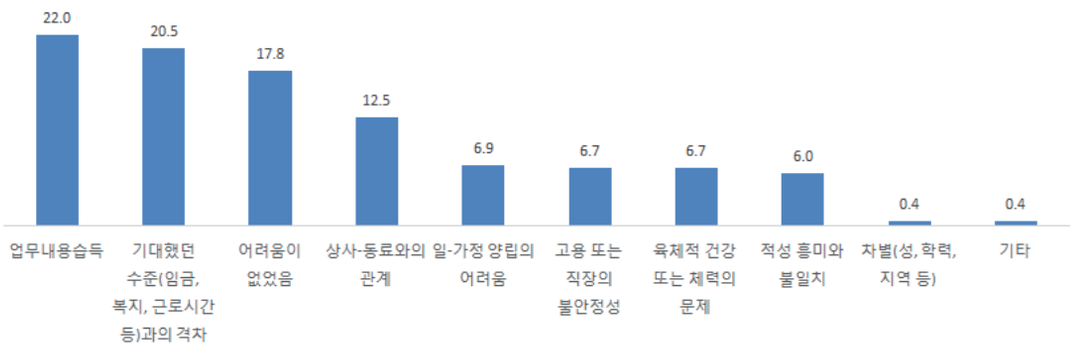
	사례수 (명)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	①+②	보통	->	매우 일치한다	④+⑤	계	평균
전체	**(449)**	**18.9**	**11.8**	**30.7**	**31.0**	**21.4**	**16.9**	**38.3**	**100.0**	**3.1**
성별										
남성	(257)	18.3	12.1	30.4	27.6	24.9	17.1	42.0	100.0	3.1
여성	(192)	19.8	11.5	31.3	35.4	16.7	16.7	33.3	100.0	3.0
연령대										
20-24세	(55)	29.1	20.0	49.1	30.9	12.7	7.3	20.0	100.0	2.5
25-29세	(107)	16.8	10.3	27.1	35.5	20.6	16.8	37.4	100.0	3.1
30-34세	(137)	17.5	11.7	29.2	25.5	26.3	19.0	45.3	100.0	3.2
35-39세	(150)	18.0	10.0	28.0	32.7	20.7	18.7	39.3	100.0	3.1
거주지역										
장안구	(105)	36.2	8.6	44.8	21.9	13.3	20.0	33.3	100.0	2.7
권선구	(146)	11.0	17.8	28.8	37.7	20.5	13.0	33.6	100.0	3.1
팔달구	(60)	18.3	3.3	21.7	33.3	15.0	30.0	45.0	100.0	3.4
영통구	(138)	14.5	11.6	26.1	29.7	31.2	13.0	44.2	100.0	3.2
취업상태										
취업	(449)	18.9	11.8	30.7	31.0	21.4	16.9	38.3	100.0	3.1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20)	20.0	15.8	35.8	42.5	13.3	8.3	21.7	100.0	2.7
대학교 재학	(54)	25.9	22.2	48.1	38.9	7.4	5.6	13.0	100.0	2.4
대학교 졸업 이상	(275)	17.1	8.0	25.1	24.4	27.6	22.9	50.5	100.0	3.3

■ 일자리 적응 어려움

○ 일자리에 적응하는 데 가장 어려웠던 점은 ‘업무내용 습득’ 인 것으로 나타남 (응답률 22.0%)

- 이어서 ‘기대했던 수준과의 격차’ 20.5%, ‘어려움이 없었음’ 17.8%, ‘상사·동료와의 관계’ 12.5% 등의 순으로 나타남

(단위 : %)



<그림 4-189> 적응하는데 어려웠던 점

○ 성별에 관계없이 남녀 모두 업무내용을 습득하는 데에 가장 어려움을 겼었다고 응답함 (남성 응답률 23.3%, 여성 응답률 20.3%)

-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과 ‘육체적 건강 또는 체력의 문제’ 의 경우 남성은 3%대인 데 반해 여성은 각각 10.9%로 나타남

○ 20~24세와 30~34세는 ‘업무내용 습득’ 이 가장 어려웠다고 응답했고, 25~29세와 35~39세는 ‘기대했던 수준과의 격차’ 가 가장 어려웠다고 답함

○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응답자들과 대학교 재학생들은 ‘업무내용 습득’ 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대학교 졸업 이상 응답자들은 ‘기대했던 수준과의 격차’ 가 가장 어려웠다고 답함

<표 4-198> 응답자 특성별 적응하는데 어려웠던 점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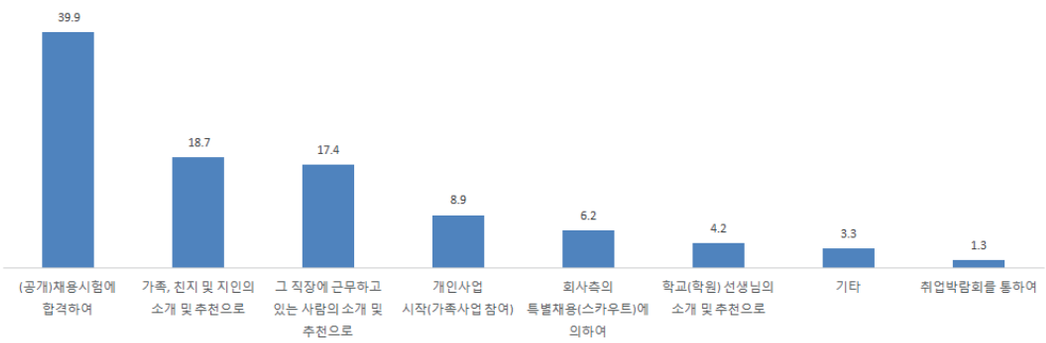
	사례수 (명)	업무내용 습득	기대했던 수준(임금, 복지, 근로시간 등)과의 격차	어려움이 없었음	상사-동료와의 관계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고용 또는 직장의 불안정성	육체적 건강 또는 체력의 문제	적성 흥미와 불일치	차별(성, 학력, 지역 등)	기타	계
전체	**(449)**	**22.0**	**20.5**	**17.8**	**12.5**	**6.9**	**6.7**	**6.7**	**6.0**	**0.4**	**0.4**	**100.0**
성별												
남성	(257)	23.3	21.0	18.3	15.2	3.9	7.0	3.5	6.6	0.8	0.4	100.0
여성	(192)	20.3	19.8	17.2	8.9	10.9	6.3	10.9	5.2		0.5	100.0
연령대												
20-24세	(55)	32.7	10.9	29.1	9.1		1.8	7.3	5.5		3.6	100.0
25-29세	(107)	16.8	20.6	19.6	11.2	4.7	9.3	9.3	7.5	0.9		100.0
30-34세	(137)	21.2	20.4	13.9	15.3	6.6	10.2	5.1	6.6	0.7		100.0
35-39세	(150)	22.7	24.0	16.0	12.0	11.3	3.3	6.0	4.7			100.0
거주지역												
장안구	(105)	21.0	16.2	21.9	9.5	5.7	6.7	10.5	6.7		1.9	100.0
권선구	(146)	22.6	23.3	11.0	13.7	8.2	8.2	4.8	6.8	1.4		100.0
팔달구	(60)	18.3	21.7	16.7	18.3	8.3	3.3	8.3	5.0			100.0
영통구	(138)	23.9	20.3	22.5	10.9	5.8	6.5	5.1	5.1			100.0
취업상태												
취업	(449)	22.0	20.5	17.8	12.5	6.9	6.7	6.7	6.0	0.4	0.4	100.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20)	25.8	19.2	15.8	11.7	7.5	6.7	6.7	5.0	0.8	0.8	100.0
대학교 재학	(54)	27.8	11.1	27.8	9.3	5.6	5.6	3.7	7.4		1.9	100.0
대학교 졸업 이상	(275)	19.3	22.9	16.7	13.5	6.9	6.9	7.3	6.2	0.4		100.0

■ 현직장 취업 경로

○ 현직장에는 ‘(공개)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취업하게 된 경우가 39.9%로 가장 많았음

- 이어서 ‘가족, 친지 및 지인의 소개 및 추천으로’ 18.7%, ‘그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의 소개 및 추천으로’ 17.4%, ‘개인사업 시작(가족사업 참여)’ 8.9%, ‘회사측의 특별채용(스카우트)에 의하여’ 6.2% 등의 순으로 나타남

(단위 : %)



<그림 4-190> 현 직장에 들어가게 된 경로

○ 성별에 관계없이 남녀 모두 채용시험을 통해 현직장에 입사한 것으로 나타남 (남성 응답률 40.9%, 여성 응답률 38.5%)

- ‘학교(학원) 선생님의 소개 및 추천으로’ 입사한 경우는 여성이 7.3%, 남성이 1.9%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남

○ 20~24세는 ‘그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의 소개 및 추천으로’ 입사하게 된 경우가 29.1%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 연령에서는 채용시험을 통해 입사할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응답자들은 ‘가족, 친지 및 지인의 소개 및 추천으로’ 또는 ‘그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의 소개 및 추천으로’ 입사하게 된 경우가 각각 31.7%로 가장 많았고, 대학교 재학생은 직장 근무자의 추천이 27.8%, 대학교 졸업 이상 응답자는 채용시험을 통한 입사가 55.6%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4-199> 응답자 특성별 현 직장에 들어가게 된 경로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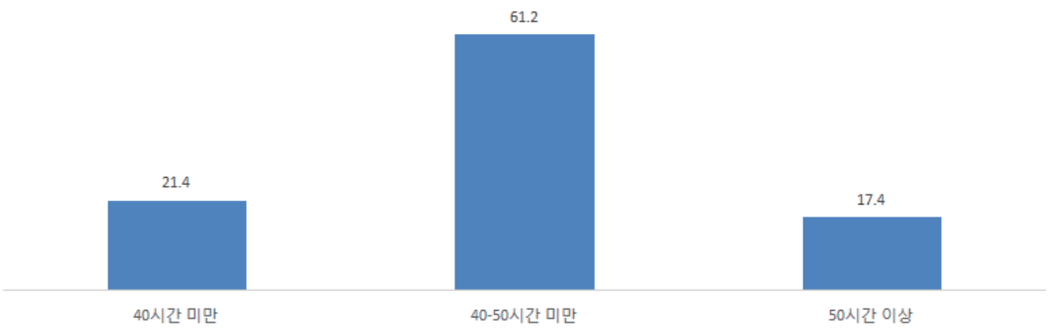
	사례수(명)	(공개)채용시험에 합격하여	가족, 친지 및 지인의 소개 및 추천으로	그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의 소개 및 추천으로	개인사업 시작(가족사업 참여)	회사측의 특별채용(스카우트)에 의하여	학교(학원) 선생님의 소개 및 추천으로	기타	취업박람회를 통하여	계
전체	**(449)**	**39.9**	**18.7**	**17.4**	**8.9**	**6.2**	**4.2**	**3.3**	**1.3**	**100.0**
성별										
남성	(257)	40.9	19.5	17.9	8.9	6.2	1.9	3.1	1.6	100.0
여성	(192)	38.5	17.7	16.7	8.9	6.3	7.3	3.6	1.0	100.0
연령대										
20-24세	(55)	16.4	27.3	29.1	1.8	5.5	9.1	3.6	7.3	100.0
25-29세	(107)	41.1	15.9	15.9	8.4	6.5	7.5	3.7	0.9	100.0
30-34세	(137)	41.6	16.8	18.2	9.5	8.0	1.5	4.4		100.0
35-39세	(150)	46.0	19.3	13.3	11.3	4.7	2.7	2.0	0.7	100.0
거주지역										
장안구	(105)	29.5	20.0	12.4	13.3	8.6	3.8	8.6	3.8	100.0
권선구	(146)	34.2	21.2	25.3	6.2	4.8	4.8	3.4		100.0
팔달구	(60)	55.0	11.7	13.3	3.3	8.3	5.0	1.7	1.7	100.0
영통구	(138)	47.1	18.1	14.5	10.9	5.1	3.6		0.7	100.0
취업상태										
취업	(449)	39.9	18.7	17.4	8.9	6.2	4.2	3.3	1.3	100.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20)	10.8	31.7	31.7	13.3	7.5	2.5	1.7	0.8	100.0
대학교 재학	(54)	24.1	16.7	27.8	1.9	3.7	11.1	5.6	9.3	100.0
대학교 졸업 이상	(275)	55.6	13.5	9.1	8.4	6.2	3.6	3.6		100.0

■ 현직장 주당 평균 근로시간

○ 현직장에서 1주일 동안의 근로시간은 40~50시간 미만인 경우가 61.2%로 가장 높았음

- 이어서 40시간 미만인 21.4%, 50시간 이상이 17.4%로 나타남

(단위 : %)



<그림 4-191> 주당 정규 근로시간(시간)

○ 성별에 관계없이 남녀 모두 주당 40~50시간 동안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남 (남성 응답률 59.5%, 여성 응답률 63.5%)

- 40시간 미만 근무 비율은 여성이, 5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는 남성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에 관계없이 모두 40~50시간 미만 근무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40시간 미만 근무하는 경우는 20~24세가 40.0%로 가장 높았고, 5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는 30~34세가 19.7%, 25~29세가 19.6% 순으로 높았음

○ 40~50시간 미만 근로자의 비율이 가장 높다는 것은 전 지역 거주자가 모두 동일했으나 50시간 이상 근로자의 경우 팔달구 거주자가 8.3%로 다른 구 거주자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로 나타났음

○ 학력에 관계없이 40~50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음

- 50시간 이상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응답자가 28.3%, 40시간 미만은 대학교 재학생의 비율은 37.0%로 다른 학력 응답자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4-200> 응답자 특성별 주당 정규 근로시간(시간)

(단위 : %,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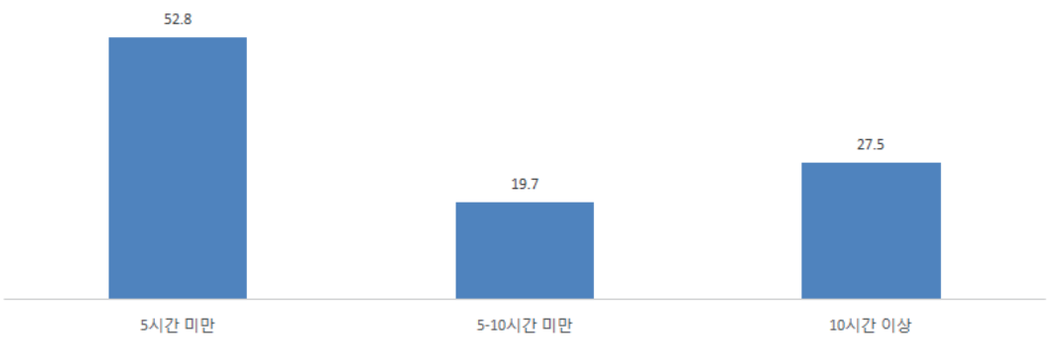
	사례수 (명)	40시간 미만	40-50시간 미만	50시간 이상	계	평균
전체	**(449)**	**21.4**	**61.2**	**17.4**	**100.0**	**38.4**
성별						
남성	(257)	18.7	59.5	21.8	100.0	40.1
여성	(192)	25.0	63.5	11.5	100.0	36.2
연령대						
20-24세	(55)	40.0	47.3	12.7	100.0	33.8
25-29세	(107)	26.2	54.2	19.6	100.0	37.0
30-34세	(137)	10.2	70.1	19.7	100.0	41.8
35-39세	(150)	21.3	63.3	15.3	100.0	38.1
거주지역						
장안구	(105)	21.9	52.4	25.7	100.0	40.5
권선구	(146)	22.6	55.5	21.9	100.0	38.3
팔달구	(60)	28.3	63.3	8.3	100.0	34.8
영통구	(138)	16.7	73.2	10.1	100.0	38.5
취업상태						
취업	(449)	21.4	61.2	17.4	100.0	38.4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20)	14.2	57.5	28.3	100.0	43.0
대학교 재학	(54)	37.0	48.1	14.8	100.0	34.2
대학교 졸업 이상	(275)	21.5	65.5	13.1	100.0	37.3

■ 주당 평균 초과 근로시간

○ 주당 평균 초과 근로시간은 5시간 미만인 경우가 52.8%로 가장 높았음

- 이어서 10시간 이상 27.5%, 5~10시간 미만 19.7%의 순으로 나타남

(단위 : %)



<그림 4-192> 주당 평균 초과 근로시간(시간)

○ 성별에 관계없이 남녀 모두 주당 5시간 미만의 추가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남 (남성 응답률 50.0%, 여성 응답률 57.6%)

- 5~10시간 미만 근무 비율은 여성이, 1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는 남성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에 관계없이 모두 5시간 미만의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20대에 비해 30대의 초과근무 시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35~39세의 경우 1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는 비율이 34.9%로 나타남

○ 5시간 미만 초과근로자의 비율이 가장 높다는 것은 전 지역 거주자가 모두 동일했으나 10시간 이상 초과근로자의 경우 팔달구 거주자가 16.7%로 다른 구 거주자에 비해 낮게 나타남

○ 학력에 관계없이 5시간 미만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음

-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응답자의 경우 5~10시간 미만으로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는 9.1%로 다른 학력 응답자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임

<표 4-201> 응답자 특성별 주당 평균 초과 근로시간(시간)

(단위 : %,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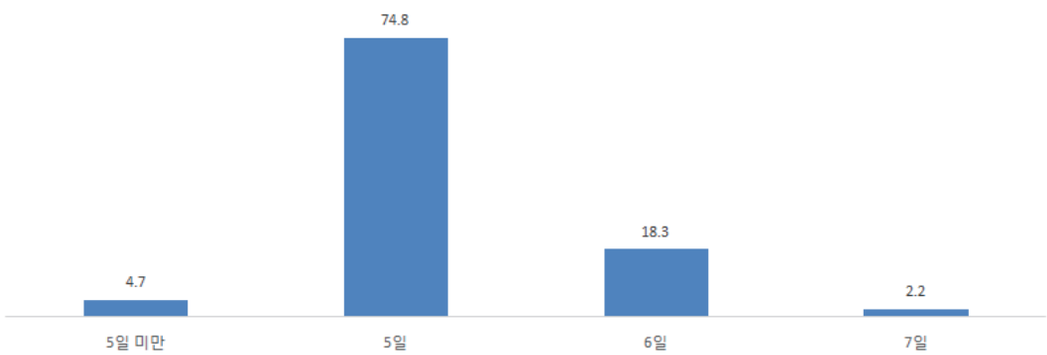
	사례수 (명)	5시간 미만	5-10시간 미만	10시간 이상	계	평균
전체	**(178)**	**52.8**	**19.7**	**27.5**	**100.0**	**7.2**
성별						
남성	(112)	50.0	17.0	33.0	100.0	7.6
여성	(66)	57.6	24.2	18.2	100.0	6.6
연령대						
20-24세	(19)	57.9	21.1	21.1	100.0	8.8
25-29세	(45)	66.7	17.8	15.6	100.0	4.1
30-34세	(51)	37.3	31.4	31.4	100.0	8.5
35-39세	(63)	54.0	11.1	34.9	100.0	7.9
거주지역						
장안구	(43)	48.8	23.3	27.9	100.0	8.2
권선구	(65)	49.2	21.5	29.2	100.0	8.5
팔달구	(24)	62.5	20.8	16.7	100.0	4.8
영통구	(46)	56.5	13.0	30.4	100.0	5.8
취업상태						
취업	(178)	52.8	19.7	27.5	100.0	7.2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33)	57.6	9.1	33.3	100.0	6.3
대학교 재학	(21)	47.6	28.6	23.8	100.0	11.0
대학교 졸업 이상	(124)	52.4	21.0	26.6	100.0	6.8

■ 주당 평균 근로일수

○ 주당 평균 근로일수는 5일인 경우가 74.8%로 가장 높았음

- 이어서 6일 18.3%, 5일 미만 4.7%, 7일 2.2%의 순으로 나타남

(단위 : %)



<그림 4-193> 주당 정규 근로일수(일)

○ 성별에 관계없이 남녀 모두 주당 5일간 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남 (남성 응답률 72.4%, 여성 응답률 78.1%)

- 여성의 경우 7일 내내 근무하는 경우는 0.5%로 극히 드물었고 남성은 3.5%의 수치를 보임

○ 연령에 관계없이 모두 5일 동안 근무를 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5일 미만 근로자는 20~24세가 16.4%라는 비율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학력에 관계없이 주당 5일간 근무를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대학교 졸업 이상 응답자의 비율은 82.5%로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응답자의 응답률 59.2%와 차이를 보임

-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응답자의 경우 1/3인 33.3%가 주당 6일간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202> 응답자 특성별 주당 정규 근로일수(일)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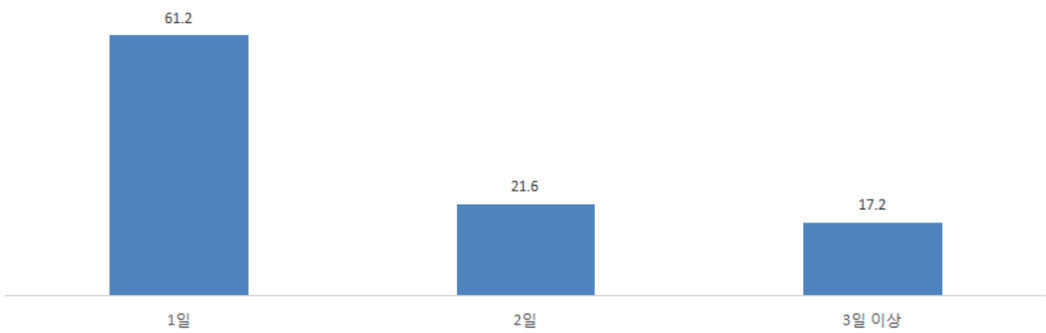
	사례수 (명)	5일 미만	5일	6일	7일	계
전체	**(449)**	**4.7**	**74.8**	**18.3**	**2.2**	**100.0**
성별						
남성	(257)	4.3	72.4	19.8	3.5	100.0
여성	(192)	5.2	78.1	16.1	0.5	100.0
연령대						
20-24세	(55)	16.4	70.9	12.7		100.0
25-29세	(107)	4.7	72.0	19.6	3.7	100.0
30-34세	(137)	1.5	75.2	20.4	2.9	100.0
35-39세	(150)	3.3	78.0	17.3	1.3	100.0
거주지역						
장안구	(105)	7.6	74.3	14.3	3.8	100.0
권선구	(146)	4.1	74.0	21.2	0.7	100.0
팔달구	(60)	5.0	78.3	13.3	3.3	100.0
영통구	(138)	2.9	74.6	20.3	2.2	100.0
취업상태						
취업	(449)	4.7	74.8	18.3	2.2	100.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20)	6.7	59.2	33.3	0.8	100.0
대학교 재학	(54)	14.8	70.4	11.1	3.7	100.0
대학교 졸업 이상	(275)	1.8	82.5	13.1	2.5	100.0

■ 주당 평균 초과 근로일수

○ 주당 평균 초과 근로일수는 1일인 경우가 61.2%로 가장 높았음

- 이어서 2일 21.6%, 3일 이상 17.2%의 순으로 나타남

(단위 : %)



<그림 4-194> 주당 평균 초과 근로일수(일)

○ 성별에 관계없이 남녀 모두 주당 1일간 초과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남 (남성 응답률 58.6%, 여성 응답률 65.2%)

○ 연령에 관계없이 모두 1일의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3일 이상의 초과 근무를 하는 경우는 20대가 30대보다 높은 비율을 보임

○ 학력에 관계없이 주당 1일의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음

- 3일 이상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는 대학교 재학생이 231%로 다른 학력 응답자게 비해 높게 나타남

<표 4-203> 응답자 특성별 주당 평균 초과 근로일수(일)

(단위 : %)

	사례수 (명)	1일	2일	3일 이상	계
전체	**(116)**	**61.2**	**21.6**	**17.2**	**100.0**
성별					
남성	(70)	58.6	24.3	17.1	100.0
여성	(46)	65.2	17.4	17.4	100.0
연령대					
20-24세	(10)	60.0	20.0	20.0	100.0
25-29세	(36)	61.1	16.7	22.2	100.0
30-34세	(33)	60.6	21.2	18.2	100.0
35-39세	(37)	62.2	27.0	10.8	100.0
거주지역					
장안구	(25)	40.0	44.0	16.0	100.0
권선구	(47)	72.3	14.9	12.8	100.0
팔달구	(18)	72.2	11.1	16.7	100.0
영통구	(26)	53.8	19.2	26.9	100.0
취업상태					
취업	(116)	61.2	21.6	17.2	100.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25)	64.0	24.0	12.0	100.0
대학교 재학	(13)	61.5	15.4	23.1	100.0
대학교 졸업 이상	(78)	60.3	21.8	17.9	100.0

■ 노조 가입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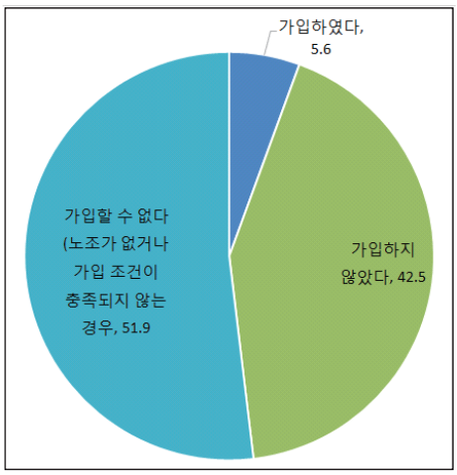
○ 응답자들의 5.6%가 노조에 가입했다고 답하였고, 51.9%는 가입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응답함

○ 성별에 따라서 긍정 응답률은 남성 6.2%, 여성 4.7%로 남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35~39세의 긍정 응답률이 8.7%로 가장 높고, 20~24세의 긍정 응답률은 1.8%로 나타남

○ 권선구 거주자의 긍정 응답률이 4.1%로 가장 낮았고 특히 '가입할 수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64.4%를 차지함

○ 대학교 졸업 이상 응답자의 긍정 응답률은 7.3%로 다른 학력 응답자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남



<그림 4-195> 노동조합 가입여부

<표 4-204> 응답자 특성별 노동조합 가입여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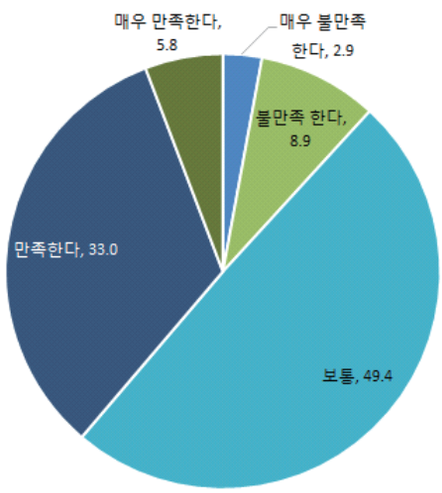
	사례수 (명)	가입하였다	가입하지 않았다	가입할 수 없다 (노조가 없거나 가입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계
전체	**(449)**	**5.6**	**42.5**	**51.9**	**100.0**
성별					
남성	(257)	6.2	40.5	53.3	100.0
여성	(192)	4.7	45.3	50.0	100.0
연령대					
20-24세	(55)	1.8	49.1	49.1	100.0
25-29세	(107)	5.6	39.3	55.1	100.0
30-34세	(137)	3.6	43.8	52.6	100.0
35-39세	(150)	8.7	41.3	50.0	100.0
거주지역					
장안구	(105)	6.7	47.6	45.7	100.0
권선구	(146)	4.1	31.5	64.4	100.0
팔달구	(60)	5.0	55.0	40.0	100.0
영통구	(138)	6.5	44.9	48.6	100.0
취업상태					
취업	(449)	5.6	42.5	51.9	100.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20)	3.3	42.5	54.2	100.0
대학교 재학	(54)	1.9	53.7	44.4	100.0
대학교 졸업 이상	(275)	7.3	40.4	52.4	100.0

■ 직장 만족도

○ 현직장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의 평균은 3.3으로 보통을 약간 넘는 것으로 나타남

- '보통이다' 라고 응답한 경우가 49.4%로 가장 높았음

(단위 : %)



<그림 4-196> 현직장 전반적 만족정도

○ 성별에 관계없이 남녀 모두 평균 3.3으로 나타남

- 긍정 응답률은 남성이 37.4%, 여성이 40.6%로 여성이 더 높았고 반면 부정 응답률은 남성이 13.2%, 여성이 9.9%로 남성이 더 높은 수치를 보임

○ 20~24세의 평균이 3.4로 가장 높았고 25~29세의 평균이 3.2로 가장 낮았음

○ 영통구 거주자의 평균이 3.5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남

○ 대학교 재학생의 평균은 3.2로 다른 학력 응답자의 평균인 3.3에 비해 약간 낮게 나타남

<표 4-205> 응답자 특성별 현직장 전반적 만족정도

(단위 :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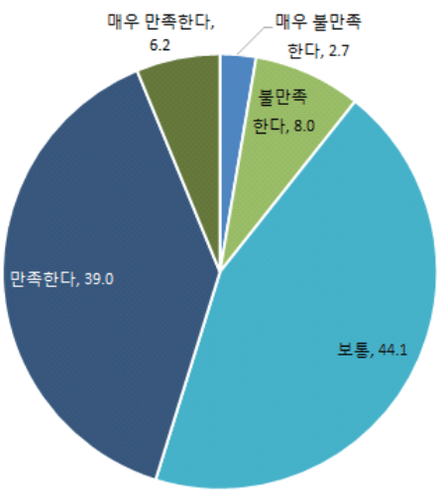
	사례수 (명)	매우 불만족 한다	←	①+②	보통이다	→	매우 만족한다	④+⑤	계	평균
전체	**(449)**	**2.9**	**8.9**	**11.8**	**49.4**	**33.0**	**5.8**	**38.8**	**100.0**	**3.3**
성별										
남성	(257)	3.9	9.3	13.2	49.4	31.1	6.2	37.4	100.0	3.3
여성	(192)	1.6	8.3	9.9	49.5	35.4	5.2	40.6	100.0	3.3
연령대										
20-24세	(55)	1.8	3.6	5.5	54.5	30.9	9.1	40.0	100.0	3.4
25-29세	(107)	4.7	5.6	10.3	61.7	25.2	2.8	28.0	100.0	3.2
30-34세	(137)	2.2	9.5	11.7	47.4	35.8	5.1	40.9	100.0	3.3
35-39세	(150)	2.7	12.7	15.3	40.7	36.7	7.3	44.0	100.0	3.3
거주지역										
장안구	(105)	2.9	10.5	13.3	53.3	27.6	5.7	33.3	100.0	3.2
권선구	(146)	2.7	8.2	11.0	59.6	27.4	2.1	29.5	100.0	3.2
팔달구	(60)	1.7	16.7	18.3	48.3	23.3	10.0	33.3	100.0	3.2
영통구	(138)	3.6	5.1	8.7	36.2	47.1	8.0	55.1	100.0	3.5
취업상태										
취업	(449)	2.9	8.9	11.8	49.4	33.0	5.8	38.8	100.0	3.3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20)	2.5	8.3	10.8	55.0	29.2	5.0	34.2	100.0	3.3
대학교 재학	(54)	5.6	7.4	13.0	57.4	22.2	7.4	29.6	100.0	3.2
대학교 졸업 이상	(275)	2.5	9.5	12.0	45.5	36.7	5.8	42.5	100.0	3.3

■ 업무 내용 만족도

○ 업무 내용에 대한 만족도 평균은 3.4로 보통을 넘는 것으로 나타남

- 긍정 응답률이 45.2%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단위 : %)



<그림 4-197> 현직장 업무 내용 만족도

○ 성별에 관계없이 남녀 모두 평균 3.4로 나타남 (남성 긍정률 451%, 여성 긍정률 45.3%)

○ 20대의 평균은 3.3, 30대의 평균은 3.4로 30대의 평균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남

○ 영통구 거주자의 평균이 3.5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남

○ 대학교 재학생의 평균은 3.1로 다른 학력 응답자의 평균인 3.4~3.5에 비해 약간 낮게 나타남

<표 4-206> 응답자 특성별 현직장 업무 내용 만족도

(단위 :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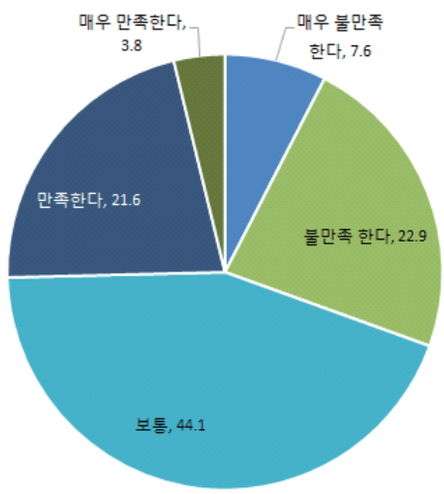
	사례수 (명)	매우 불만족 한다	←	①+②	보통이다	→	매우 만족한다	④+⑤	계	평균
전체	**(449)**	**2.7**	**8.0**	**10.7**	**44.1**	**39.0**	**6.2**	**45.2**	**100.0**	**3.4**
성별										
남성	(257)	3.1	7.4	10.5	44.4	38.1	7.0	45.1	100.0	3.4
여성	(192)	2.1	8.9	10.9	43.8	40.1	5.2	45.3	100.0	3.4
연령대										
20-24세	(55)	1.8	7.3	9.1	49.1	38.2	3.6	41.8	100.0	3.3
25-29세	(107)	6.5	3.7	10.3	45.8	39.3	4.7	43.9	100.0	3.3
30-34세	(137)	2.2	10.2	12.4	40.1	40.9	6.6	47.4	100.0	3.4
35-39세	(150)	0.7	9.3	10.0	44.7	37.3	8.0	45.3	100.0	3.4
거주지역										
장안구	(105)	2.9	8.6	11.4	51.4	29.5	7.6	37.1	100.0	3.3
권선구	(146)	0.7	9.6	10.3	46.6	40.4	2.7	43.2	100.0	3.3
팔달구	(60)	5.0	10.0	15.0	43.3	33.3	8.3	41.7	100.0	3.3
영통구	(138)	3.6	5.1	8.7	36.2	47.1	8.0	55.1	100.0	3.5
취업상태										
취업	(449)	2.7	8.0	10.7	44.1	39.0	6.2	45.2	100.0	3.4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20)	1.7	5.0	6.7	45.8	41.7	5.8	47.5	100.0	3.5
대학교 재학	(54)	5.6	14.8	20.4	50.0	24.1	5.6	29.6	100.0	3.1
대학교 졸업 이상	(275)	2.5	8.0	10.5	42.2	40.7	6.5	47.3	100.0	3.4

■ 임금과 수입 만족도

○ 임금과 수입에 대한 만족도 평균은 2.9로 보통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보통이다' 라는 응답이 44.1%로 가장 많이 나타남

(단위 : %)



<그림 4-198> 현직장 임금과 수입 만족도

○ 성별에 관계없이 남녀 모두 평균 2.9로 보통보다 낮게 나타남

- 부정 응답률은 남성이 31.9%, 여성이 28.6%로 남성이 더 불만이 많은 것으로 보임

○ 25~34세의 평균은 보통에 미치지 못했고 나머지 연령대의 평균은 3.0으로 보통인 것으로 나타남

○ 영통구 거주자의 평균이 3.1로 평균 2.8인 권선구 및 팔달구 거주자에 비해 높게 나타남

○ 대학교 재학생의 평균은 2.8로 다른 학력 응답자의 평균인 2.9에 비해 약간 낮게 나타남

<표 4-207> 응답자 특성별 현직장 임금과 수입 만족도

(단위 :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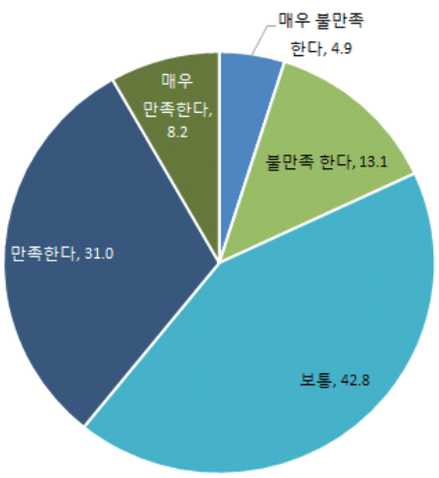
	사례수 (명)	매우 불만족 한다	←	①+②	보통이다	→	매우 만족한다	④+⑤	계	평균
전체	**(449)**	**7.6**	**22.9**	**30.5**	**44.1**	**21.6**	**3.8**	**25.4**	**100.0**	**2.9**
성별										
남성	(257)	8.2	23.7	31.9	43.6	19.5	5.1	24.5	100.0	2.9
여성	(192)	6.8	21.9	28.6	44.8	24.5	2.1	26.6	100.0	2.9
연령대										
20-24세	(55)	3.6	23.6	27.3	47.3	20.0	5.5	25.5	100.0	3.0
25-29세	(107)	10.3	24.3	34.6	43.9	18.7	2.8	21.5	100.0	2.8
30-34세	(137)	7.3	25.5	32.8	43.8	20.4	2.9	23.4	100.0	2.9
35-39세	(150)	7.3	19.3	26.7	43.3	25.3	4.7	30.0	100.0	3.0
거주지역										
장안구	(105)	8.6	17.1	25.7	47.6	21.9	4.8	26.7	100.0	3.0
권선구	(146)	7.5	28.8	36.3	43.2	18.5	2.1	20.5	100.0	2.8
팔달구	(60)	10.0	25.0	35.0	45.0	18.3	1.7	20.0	100.0	2.8
영통구	(138)	5.8	20.3	26.1	42.0	26.1	5.8	31.9	100.0	3.1
취업상태										
취업	(449)	7.6	22.9	30.5	44.1	21.6	3.8	25.4	100.0	2.9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20)	5.0	22.5	27.5	49.2	20.0	3.3	23.3	100.0	2.9
대학교 재학	(54)	9.3	25.9	35.2	44.4	16.7	3.7	20.4	100.0	2.8
대학교 졸업 이상	(275)	8.4	22.5	30.9	41.8	23.3	4.0	27.3	100.0	2.9

■ 고용 안정성 만족도

○ 고용 안정성에 대한 만족도 평균은 3.2로 보통은 약간 넘는 것으로 나타남

- '보통이다' 라는 응답이 42.8%로 가장 많이 나타남

(단위 : %)



<그림 4-199> 현직장 고용의 안정성 만족도

○ 남성의 평균은 3.2, 여성의 평균은 3.3으로 남성이 약간 더 낮은 값을 보임

- 긍정 응답률과 부정 응답률 모두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남

○ 25~34세의 평균이 나머지 연령대의 평균인 3.3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영통구 거주자의 평균이 3.4로 타 지역 거주자에 비해 높게 나타남

○ 대학교 재학생의 평균은 2.9로 가장 낮고, 대학교 졸업 이상 응답자의 평균이 3.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4-208> 응답자 특성별 현직장 고용의 안정성 만족도

(단위 :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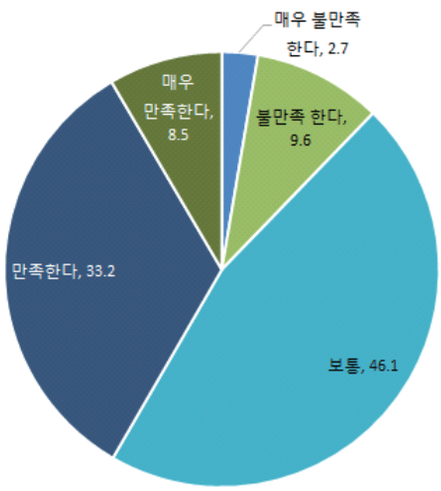
	사례수 (명)	매우 불만족 한다	←	①+②	보통이다	→	매우 만족한다	④+⑤	계	평균
전체	**(449)**	**4.9**	**13.1**	**18.0**	**42.8**	**31.0**	**8.2**	**39.2**	**100.0**	**3.2**
성별										
남성	(257)	5.1	10.9	16.0	48.6	26.8	8.6	35.4	100.0	3.2
여성	(192)	4.7	16.1	20.8	34.9	36.5	7.8	44.3	100.0	3.3
연령대										
20-24세	(55)	1.8	9.1	10.9	52.7	32.7	3.6	36.4	100.0	3.3
25-29세	(107)	9.3	12.1	21.5	40.2	30.8	7.5	38.3	100.0	3.1
30-34세	(137)	3.6	17.5	21.2	38.0	32.1	8.8	40.9	100.0	3.2
35-39세	(150)	4.0	11.3	15.3	45.3	29.3	10.0	39.3	100.0	3.3
거주지역										
장안구	(105)	7.6	9.5	17.1	46.7	25.7	10.5	36.2	100.0	3.2
권선구	(146)	2.1	20.5	22.6	46.6	24.7	6.2	30.8	100.0	3.1
팔달구	(60)	8.3	13.3	21.7	41.7	28.3	8.3	36.7	100.0	3.2
영통구	(138)	4.3	8.0	12.3	36.2	42.8	8.7	51.4	100.0	3.4
취업상태										
취업	(449)	4.9	13.1	18.0	42.8	31.0	8.2	39.2	100.0	3.2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20)	2.5	16.7	19.2	48.3	29.2	3.3	32.5	100.0	3.1
대학교 재학	(54)	9.3	14.8	24.1	51.9	20.4	3.7	24.1	100.0	2.9
대학교 졸업 이상	(275)	5.1	11.3	16.4	38.5	33.8	11.3	45.1	100.0	3.3

■ 일의 자율성과 권한 만족도

○ 일의 자율성과 권한에 대한 만족도 평균은 3.4로 보통을 넘는 것으로 나타남

- '보통이다' 라는 응답이 46.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긍정 응답률도 41.6%로 나타남

(단위 : %)



<그림 4-200> 현직장 일의 자율성과 권한 만족도

○ 남성의 평균은 3.4, 여성의 평균은 3.3으로 남성이 약간 더 높은 값을 보임

- 긍정 응답률과 부정 응답률 모두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남

○ 20~24세의 평균은 3.2로 가장 낮고 30대의 평균은 3.4로 가장 높아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일의 자율성과 권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음

○ 영통구 거주자의 평균이 3.5로 타 지역 거주자의 평균인 3.3에 비해 높게 나타남

○ 대학교 재학생의 평균은 3.1로 가장 낮고, 대학교 졸업 이상 응답자의 평균이 3.5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4-209> 응답자 특성별 현직장 일의 자율성과 권한 만족도

(단위 :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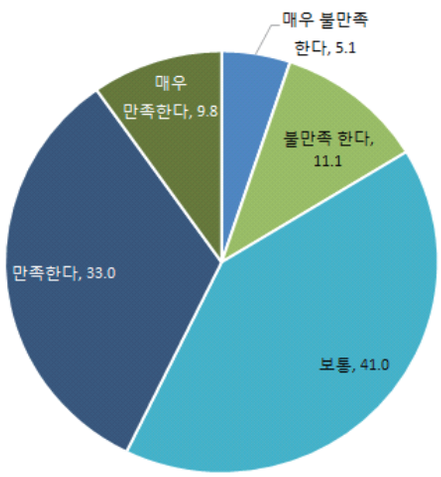
	사례수 (명)	매우 불만족 한다	←	①+②	보통이다	→	매우 만족한다	④+⑤	계	평균
전체	**(449)**	**2.7**	**9.6**	**12.2**	**46.1**	**33.2**	**8.5**	**41.6**	**100.0**	**3.4**
성별										
남성	(257)	3.1	6.6	9.7	49.8	31.9	8.6	40.5	100.0	3.4
여성	(192)	2.1	13.5	15.6	41.1	34.9	8.3	43.2	100.0	3.3
연령대										
20-24세	(55)	3.6	12.7	16.4	52.7	23.6	7.3	30.9	100.0	3.2
25-29세	(107)	4.7	11.2	15.9	42.1	35.5	6.5	42.1	100.0	3.3
30-34세	(137)	2.9	8.0	10.9	43.1	35.0	10.9	46.0	100.0	3.4
35-39세	(150)	0.7	8.7	9.3	49.3	33.3	8.0	41.3	100.0	3.4
거주지역										
장안구	(105)	2.9	11.4	14.3	46.7	28.6	10.5	39.0	100.0	3.3
권선구	(146)	1.4	10.3	11.6	52.7	30.8	4.8	35.6	100.0	3.3
팔달구	(60)	3.3	10.0	13.3	50.0	23.3	13.3	36.7	100.0	3.3
영통구	(138)	3.6	7.2	10.9	37.0	43.5	8.7	52.2	100.0	3.5
취업상태										
취업	(449)	2.7	9.6	12.2	46.1	33.2	8.5	41.6	100.0	3.4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20)	3.3	10.8	14.2	52.5	28.3	5.0	33.3	100.0	3.2
대학교 재학	(54)	5.6	13.0	18.5	55.6	16.7	9.3	25.9	100.0	3.1
대학교 졸업 이상	(275)	1.8	8.4	10.2	41.5	38.5	9.8	48.4	100.0	3.5

■ 일하는 시간(근로시간, 근무일수) 만족도

○ 일하는 시간(근로시간, 근무일수)에 대한 만족도 평균은 3.3으로 보통을 넘는 것으로 나타남

- 긍정 응답률이 42.8%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단위 : %)



<그림 4-201> 현직장 일하는 시간(근로시간, 근무일수) 만족도

○ 성별에 관계없이 남녀 모두 평균이 3.3인 것으로 나타남

- 긍정 응답률과 부정 응답률 모두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남

○ 25~29세의 평균은 3.2로 가장 낮고 35~39세의 평균은 3.4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영통구 거주자의 평균이 3.5로 타 지역 거주자의 평균에 비해 높게 나타남

○ 대학교 재학생의 평균은 3.1로 가장 낮고, 대학교 졸업 이상 응답자의 평균이 3.4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4-210> 응답자 특성별 현직장 일하는 시간(근로시간, 근무일수) 만족도

(단위 :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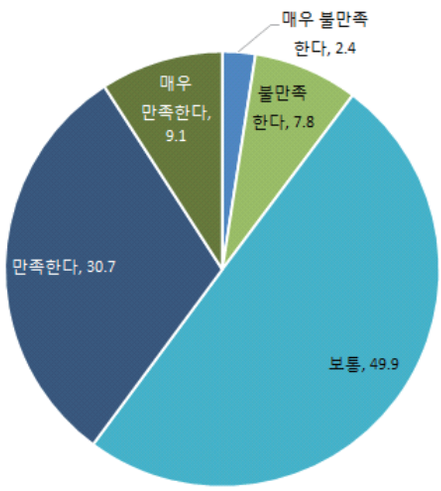
	사례수 (명)	매우 불만족 한다	←	①+②	보통이다	→	매우 만족한다	④+⑤	계	평균
전체	**(449)**	**5.1**	**11.1**	**16.3**	**41.0**	**33.0**	**9.8**	**42.8**	**100.0**	**3.3**
성별										
남성	(257)	6.6	9.3	16.0	41.6	33.1	9.3	42.4	100.0	3.3
여성	(192)	3.1	13.5	16.7	40.1	32.8	10.4	43.2	100.0	3.3
연령대										
20-24세	(55)	5.5	7.3	12.7	54.5	20.0	12.7	32.7	100.0	3.3
25-29세	(107)	6.5	13.1	19.6	35.5	41.1	3.7	44.9	100.0	3.2
30-34세	(137)	4.4	10.2	14.6	46.0	29.9	9.5	39.4	100.0	3.3
35-39세	(150)	4.7	12.0	16.7	35.3	34.7	13.3	48.0	100.0	3.4
거주지역										
장안구	(105)	7.6	13.3	21.0	43.8	27.6	7.6	35.2	100.0	3.1
권선구	(146)	3.4	13.0	16.4	43.2	31.5	8.9	40.4	100.0	3.3
팔달구	(60)	6.7	18.3	25.0	40.0	20.0	15.0	35.0	100.0	3.2
영통구	(138)	4.3	4.3	8.7	37.0	44.2	10.1	54.3	100.0	3.5
취업상태										
취업	(449)	5.1	11.1	16.3	41.0	33.0	9.8	42.8	100.0	3.3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20)	5.0	11.7	16.7	47.5	30.0	5.8	35.8	100.0	3.2
대학교 재학	(54)	9.3	5.6	14.8	55.6	22.2	7.4	29.6	100.0	3.1
대학교 졸업 이상	(275)	4.4	12.0	16.4	35.3	36.4	12.0	48.4	100.0	3.4

■ 사무실의 물리적 근무환경 만족도

○ 사무실(작업장)의 물리적 근로환경(시설 안전, 위생상태 등)에 대한 만족도 평균은 3.4로 보통을 넘는 것으로 나타남

- '보통이다' 라는 응답이 49.9%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단위 : %)



<그림 4-202> 현직장 사무실(작업장)의 물리적 근로환경 만족도

○ 남성의 평균은 3.3, 여성의 평균은 3.4로 여성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남

- 긍정 응답률과 부정 응답률 모두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남

○ 대학교 재학생의 평균은 3.2로 가장 낮고, 대학교 졸업 이상 응답자의 평균이 3.4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4-211> 응답자 특성별 현직장 사무실(작업장)의 물리적 근로환경 만족도

(단위 :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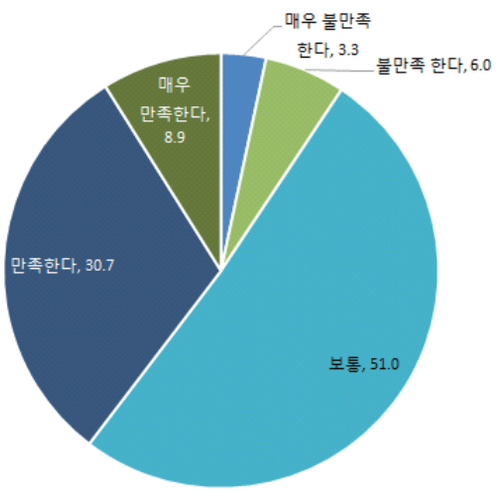
	사례수 (명)	매우 불만족 한다	←	①+②	보통이다	→	매우 만족한다	④+⑤	계	평균
전체	**(449)**	**2.4**	**7.8**	**10.2**	**49.9**	**30.7**	**9.1**	**39.9**	**100.0**	**3.4**
성별										
남성	(257)	2.7	8.9	11.7	51.8	28.8	7.8	36.6	100.0	3.3
여성	(192)	2.1	6.3	8.3	47.4	33.3	10.9	44.3	100.0	3.4
연령대										
20-24세	(55)	1.8		1.8	65.5	18.2	14.5	32.7	100.0	3.4
25-29세	(107)	4.7	6.5	11.2	46.7	36.4	5.6	42.1	100.0	3.3
30-34세	(137)	1.5	7.3	8.8	49.6	31.4	10.2	41.6	100.0	3.4
35-39세	(150)	2.0	12.0	14.0	46.7	30.7	8.7	39.3	100.0	3.3
거주지역										
장안구	(105)	2.9	7.6	10.5	48.6	29.5	11.4	41.0	100.0	3.4
권선구	(146)	1.4	9.6	11.0	61.0	21.9	6.2	28.1	100.0	3.2
팔달구	(60)	3.3	11.7	15.0	46.7	25.0	13.3	38.3	100.0	3.3
영통구	(138)	2.9	4.3	7.2	40.6	43.5	8.7	52.2	100.0	3.5
취업상태										
취업	(449)	2.4	7.8	10.2	49.9	30.7	9.1	39.9	100.0	3.4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20)	2.5	6.7	9.2	59.2	22.5	9.2	31.7	100.0	3.3
대학교 재학	(54)	5.6	5.6	11.1	59.3	18.5	11.1	29.6	100.0	3.2
대학교 졸업 이상	(275)	1.8	8.7	10.5	44.0	36.7	8.7	45.5	100.0	3.4

■ 직장동료 간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만족도

○ 직장동료(상사 포함) 간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에 대한 만족도 평균은 3.4로 보통을 넘는 것으로 나타남

- '보통이다' 라는 응답이 51.0%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단위 : %)



<그림 4-203> 현직장 직장동료 간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만족도

○ 남성의 평균은 3.3, 여성의 평균은 3.4로 여성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남

- 긍정 응답률과 부정 응답률 모두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남

○ 고등학교 이하 졸업 응답자의 평균이 3.4로 다른 학력 응답자에 비해 높게

<표 4-212> 응답자 특성별 현직장 직장동료 간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만족도

(단위 : %, 점)

	사례수 (명)	매우 불만족 한다	←	①+②	보통이다	→	매우 만족한다	④+⑤	계	평균
전체	**(449)**	**3.3**	**6.0**	**9.4**	**51.0**	**30.7**	**8.9**	**39.6**	**100.0**	**3.4**
성별										
남성	(257)	3.5	5.1	8.6	53.3	30.0	8.2	38.1	100.0	3.3
여성	(192)	3.1	7.3	10.4	47.9	31.8	9.9	41.7	100.0	3.4
연령대										
20-24세	(55)	1.8	3.6	5.5	54.5	29.1	10.9	40.0	100.0	3.4
25-29세	(107)	4.7	5.6	10.3	48.6	33.6	7.5	41.1	100.0	3.3
30-34세	(137)	2.9	5.8	8.8	54.7	26.3	10.2	36.5	100.0	3.4
35-39세	(150)	3.3	7.3	10.7	48.0	33.3	8.0	41.3	100.0	3.4
거주지역										
장안구	(105)	2.9	8.6	11.4	49.5	27.6	11.4	39.0	100.0	3.4
권선구	(146)	2.1	6.2	8.2	65.8	19.9	6.2	26.0	100.0	3.2
팔달구	(60)	5.0	8.3	13.3	48.3	21.7	16.7	38.3	100.0	3.4
영통구	(138)	4.3	2.9	7.2	37.7	48.6	6.5	55.1	100.0	3.5
취업상태										
취업	(449)	3.3	6.0	9.4	51.0	30.7	8.9	39.6	100.0	3.4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20)	1.7	5.0	6.7	53.3	28.3	11.7	40.0	100.0	3.4
대학교 재학	(54)	5.6	3.7	9.3	55.6	29.6	5.6	35.2	100.0	3.3
대학교 졸업 이상	(275)	3.6	6.9	10.5	49.1	32.0	8.4	40.4	100.0	3.3

마. 현 직장 이외의 직업

■ 부업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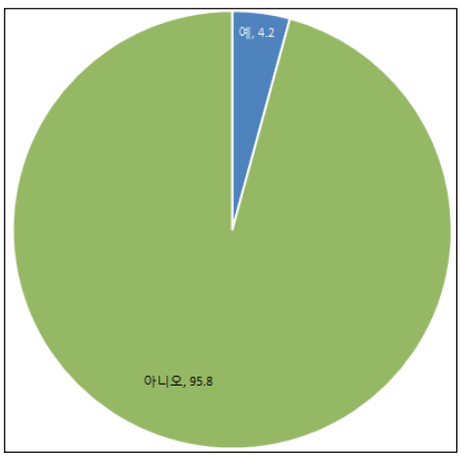
○ 응답자들의 4.2%가 부업을 갖고 있다고 응답함

○ 성별에 따라서 긍정 응답률은 남성 4.7%, 여성 3.6%로 남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대의 긍정 응답률이 30대에 비해 높은 경향을 보임

○ 권선구 거주자의 긍정 응답률은 7.5%로 가장 높았고 팔달구와 영통구 거주자의 긍정 응답률은 2%에 미치지 못함

○ 대학교 재학생의 긍정 응답률은 7.4%로 다른 학력 응답자에 비해 높게 나타남



<그림 4-204> 일자리 이외에 다른 일 병행 여부

<표 4-213> 응답자 특성별 일자리 이외에 다른 일 병행 여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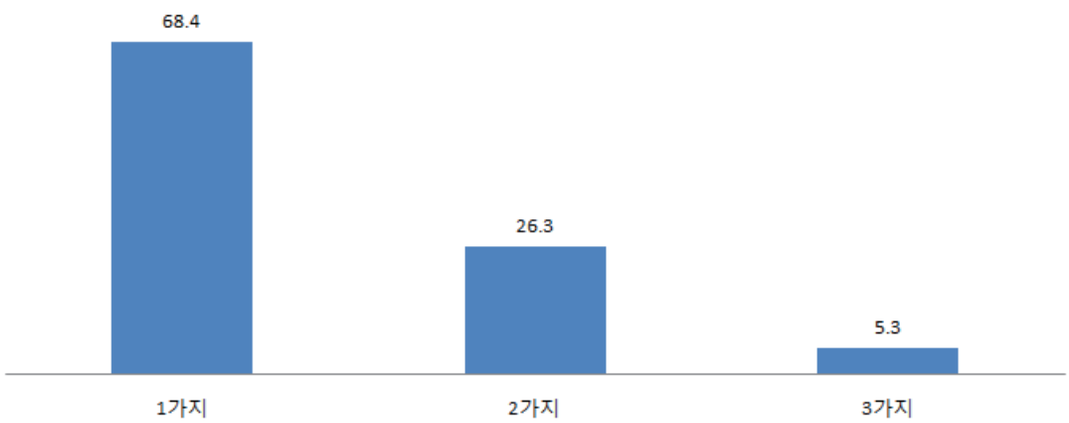
	사례수 (명)	예	아니오	계
전체	**(449)**	**4.2**	**95.8**	**100.0**
성별				
남성	(257)	4.7	95.3	100.0
여성	(192)	3.6	96.4	100.0
연령대				
20-24세	(55)	5.5	94.5	100.0
25-29세	(107)	5.6	94.4	100.0
30-34세	(137)	2.9	97.1	100.0
35-39세	(150)	4.0	96.0	100.0
거주지역				
장안구	(105)	4.8	95.2	100.0
권선구	(146)	7.5	92.5	100.0
팔달구	(60)	1.7	98.3	100.0
영통구	(138)	1.4	98.6	100.0
취업상태				
취업	(449)	4.2	95.8	100.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20)	2.5	97.5	100.0
대학교 재학	(54)	7.4	92.6	100.0
대학교 졸업 이상	(275)	4.4	95.6	100.0

■ 병행하는 일자리 수

○ 병행하는 일자리 수는 1가지인 경우가 68.4%로 가장 많았음

- 이어서 2가지 26.3%, 3가지 5.3%로 나타남

(단위 : %)



<그림 4-205> 병행하는 일자리 수

○ 남성은 1가지의 부업을 갖고 있는 경우가 75.0%로 가장 높았는데, 여성은 1가지의 부업을 갖고 있는 경우가 57.1%, 2가지의 부업을 갖고 있는 경우가 42.9%로 나타남

○ 20~24세의 경우에는 1가지의 부업만을 갖고 있었는데 30~34세는 3가지의 부업을 갖고 있는 비율이 전체의 1/4, 즉 25.0%로 나타남

○ 장안구 거주자의 경우에는 2가지의 부업을 갖고 있는 경우가 60%로 1가지의 부업만을 갖고 있는 경우보다 많았으며 영통구는 이 두 경우가 일대일, 즉 각 50%의 비율로 나타남

○ 학력에 따라 보았을 때, 3가지의 부업을 갖고 있는 경우는 대학교 졸업 이상 응답자 뿐이었음

<표 4-214> 응답자 특성별 병행하는 일자리 수

(단위 : %, 가지)

	사례수 (명)	1가지	2가지	3가지	계	평균
전체	**(19)**	**68.4**	**26.3**	**5.3**	**100.0**	**1.4**
성별						
남성	(12)	75.0	16.7	8.3	100.0	1.3
여성	(7)	57.1	42.9		100.0	1.4
연령대						
20-24세	(3)	100.0			100.0	1.0
25-29세	(6)	66.7	33.3		100.0	1.3
30-34세	(4)	50.0	25.0	25.0	100.0	1.8
35-39세	(6)	66.7	33.3		100.0	1.3
거주지역						
장안구	(5)	40.0	60.0		100.0	1.6
권선구	(11)	81.8	9.1	9.1	100.0	1.3
팔달구	(1)	100.0			100.0	1.0
영통구	(2)	50.0	50.0		100.0	1.5
취업상태						
취업	(19)	68.4	26.3	5.3	100.0	1.4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3)	66.7	33.3		100.0	1.3
대학교 재학	(4)	75.0	25.0		100.0	1.3
대학교 졸업 이상	(12)	66.7	25.0	8.3	100.0	1.4

■ 이직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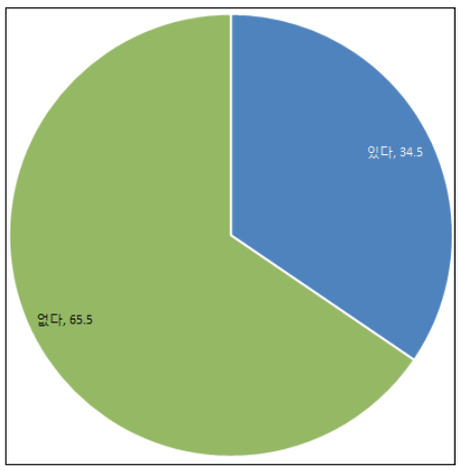
○ 응답자들의 34.5%가 이직 의향이 있다고 응답함

○ 성별에 따라서 긍정 응답률은 남성 39.3%, 여성 28.1%로 남성이 더 이직 의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25~29세의 응답률이 43.9%로 가장 높았고 35~39세의 응답률이 29.3%로 가장 낮게 나타남

○ 팔달구 거주자의 긍정 응답률은 48.3%로 가장 높았고 영통구 거주자의 긍정 응답률은 25.4%로 가장 낮았음

○ 대학교 재학생의 긍정 응답률은 40.7%로 가장 높았고,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응답자의 긍정 응답률은 20.8%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임



<그림 4-206> 이직 의향

<표 4-215> 응답자 특성별 이직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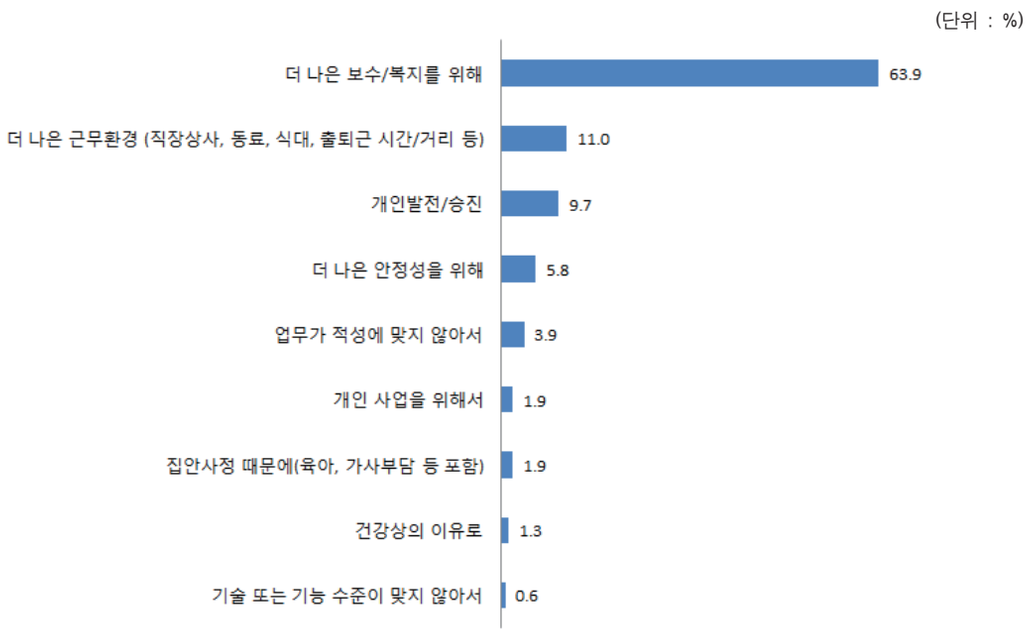
(단위 : %)

	사례수 (명)	있다	없다	계
전체	**(449)**	**34.5**	**65.5**	**100.0**
성별				
남성	(257)	39.3	60.7	100.0
여성	(192)	28.1	71.9	100.0
연령대				
20-24세	(55)	32.7	67.3	100.0
25-29세	(107)	43.9	56.1	100.0
30-34세	(137)	33.6	66.4	100.0
35-39세	(150)	29.3	70.7	100.0
거주지역				
장안구	(105)	36.2	63.8	100.0
권선구	(146)	36.3	63.7	100.0
팔달구	(60)	48.3	51.7	100.0
영통구	(138)	25.4	74.6	100.0
취업상태				
취업	(449)	34.5	65.5	100.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20)	20.8	79.2	100.0
대학교 재학	(54)	40.7	59.3	100.0
대학교 졸업 이상	(275)	39.3	60.7	100.0

■ 이직 희망 이유

○ 이직을 희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더 나은 보수/복지를 위해’로 나타남 (응답률 63.9%)

- 이어서 ‘더 나은 근무환경 (직장상사, 동료, 식대, 출퇴근 시간/거리 등)’ 11.0%, ‘개인발전/승진’ 9.7%, ‘더 나은 안정성을 위해’ 5.8%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4-207> 이직을 희망하는 주된 이유

○ 성별에 관계없이 ‘더 나은 보수/복지를 위해’ 이직을 희망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남 (남성 응답률 67.3%, 여성 응답률 57.4%)

- 여성의 2순위는 ‘더 나은 근무환경’이었고, 남성의 2순위는 ‘개인발전/승진’으로 나타남

○ 연령에 관계없이 ‘더 나은 보수/복지를 위해’ 이직을 희망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남

- 25~29세의 응답 비율이 53.2%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본 연령대의 2순위는 ‘개인발전/승진’으로 나타남 (응답률 17.0%)

○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더 나은 보수/복지를 위해’ 이직을 희망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남

○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응답자의 경우 ‘더 나은 보수/복지를 위해’ 이직을 희망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88.0%로 매우 높게 나타남

<표 4-216> 응답자 특성별 이직을 희망하는 주된 이유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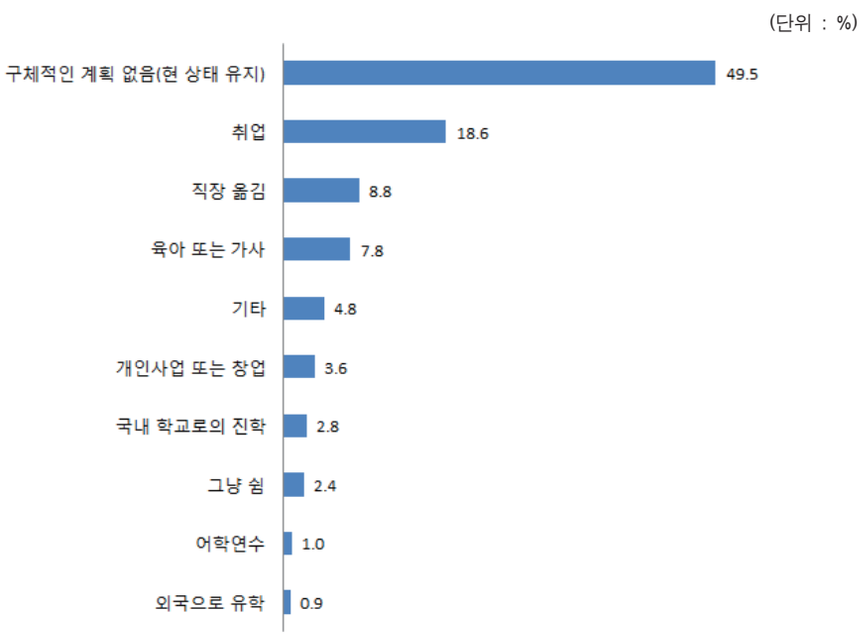
	사례수 (명)	더 나은 보수/복지를 위해	더 나은 근무환경 (직장상사, 동료, 식대, 출퇴근 시간/거리 등)	개인발전/승진	더 나은 안정성을 위해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	개인 사업을 위해서	집안사정 때문에(육아, 가사부담 등 포함)	건강상의 이유로	기술 또는 기능 수준이 맞지 않아서	계
전체	**(155)**	**63.9**	**11.0**	**9.7**	**5.8**	**3.9**	**1.9**	**1.9**	**1.3**	**0.6**	**100.0**
성별											
남성	(101)	67.3	8.9	10.9	5.0	4.0	3.0	1.0			100.0
여성	(54)	57.4	14.8	7.4	7.4	3.7		3.7	3.7	1.9	100.0
연령대											
20-24세	(18)	72.2	5.6	11.1	5.6					5.6	100.0
25-29세	(47)	53.2	10.6	17.0	10.6	6.4		2.1			100.0
30-34세	(46)	71.7	15.2	2.2	2.2	6.5		2.2			100.0
35-39세	(44)	63.6	9.1	9.1	4.5		6.8	2.3	4.5		100.0
거주지역											
장안구	(38)	52.6	7.9	15.8	13.2	2.6	2.6	5.3			100.0
권선구	(53)	73.6	9.4	7.5	1.9	1.9	1.9	1.9		1.9	100.0
팔달구	(29)	62.1	13.8	6.9	6.9	3.4	3.4		3.4		100.0
영통구	(35)	62.9	14.3	8.6	2.9	8.6			2.9		100.0
취업상태											
취업	(155)	63.9	11.0	9.7	5.8	3.9	1.9	1.9	1.3	0.6	100.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25)	88.0		8.0		4.0					100.0
대학교 재학	(22)	68.2	4.5	18.2		4.5				4.5	100.0
대학교 졸업 이상	(108)	57.4	14.8	8.3	8.3	3.7	2.8	2.8	1.9		100.0

(4) 취업 준비 및 구직 활동

가. 향후 1년 계획

○ 향후 1년 계획을 묻는 질문에 ‘구체적인 계획 없음(현 상태 유지)’라고 응답한 비율이 49.5%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이어서 ‘취업’ 18.6%, ‘직장 옮김’ 8.8%, ‘육아 또는 가사’ 7.5%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4-208> 향후 1년 계획

○ 성별에 관계없이 향후 1년간 현 상태를 유지하겠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남(남성 응답률 54.5%, 여성 응답률 44.2%)

- ‘육아 또는 가사’의 경우 남성은 1.9%에 불과한 데 반해 여성은 14.0%로 나타남

○ 25~29세는 현상태를 유지하고 싶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지만 39.8%로 다른 연령에 비해 적은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고, 취업을 하겠다는 응답은 27.4%로 나타남

- 20~24세의 응답 비율은 취업이 27.9%, 진학이 5.9%, 유학이 1.8%로 다른 연령에 비해 높게 나타남

○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현상태를 유지하고자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나 장안구와 팔달구 거주자는 각각 22.0%, 30.2%의 비율로 취업을 하고자 한다고 응답함

- 육아 또는 가사를 하겠다는 응답은 권선구 거주자가 9.0%, 영통구가 8.1%로 높게 나타났고 개인사업 또는 창업을 하고자 한다는 응답은 장안구 거주자가 8.2%로 가장 높았음

○ 학력에 관계없이 현상태를 유지하고자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나 대학교 재학생의 1/3은 향후 1년 동안 취업을 할 계획이라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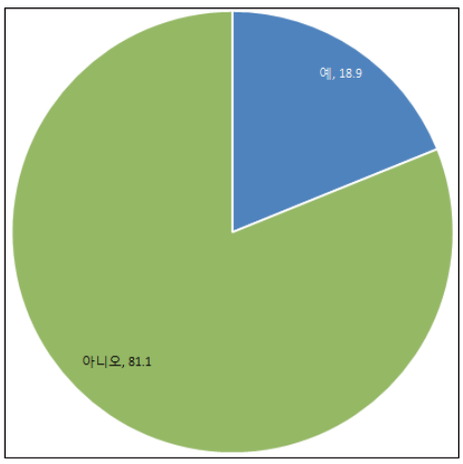
<표 4-217> 응답자 특성별 향후 1년 계획

(단위 : %)

	사례수(명)	구체적인 계획 없음(현 상태 유지)	취업	직장 옮김	육아 또는 가사	기타	개인사업 또는 창업	국내 학교로의 진학	그냥 쉼	어학연수	외국으로 유학	계
전체	**(800)**	**49.5**	**18.6**	**8.8**	**7.8**	**4.8**	**3.6**	**2.8**	**2.4**	**1.0**	**0.9**	**100.0**
성별												
남성	(415)	54.5	15.2	11.1	1.9	5.3	4.8	2.9	2.4	1.2	0.7	100.0
여성	(385)	44.2	22.3	6.2	14.0	4.2	2.3	2.6	2.3	0.8	1.0	100.0
연령대												
20-24세	(219)	47.9	27.9	4.1		5.5	1.4	5.9	4.1	1.4	1.8	100.0
25-29세	(186)	39.8	27.4	12.4	1.6	6.5	4.3	2.7	3.2	1.6	0.5	100.0
30-34세	(185)	54.6	11.4	11.4	10.8	4.3	4.3	1.1	1.1	0.5	0.5	100.0
35-39세	(210)	55.2	7.6	8.1	18.6	2.9	4.8	1.0	1.0	0.5	0.5	100.0
거주지역												
장안구	(182)	36.3	22.0	10.4	6.6	5.5	8.2	3.8	4.9	1.1	1.1	100.0
권선구	(245)	51.8	15.5	10.6	9.0	4.1	2.4	2.4	1.6	1.6	0.8	100.0
팔달구	(126)	35.7	30.2	11.9	6.3	7.1	4.0	2.4	1.6		0.8	100.0
영통구	(247)	64.0	13.4	4.0	8.1	3.6	1.2	2.4	1.6	0.8	0.8	100.0
취업상태												
취업	(449)	63.7	3.8	13.6	3.8	4.0	5.8	2.2	2.0	0.9	0.2	100.0
미취업	(351)	31.3	37.6	2.6	12.8	5.7	0.9	3.4	2.8	1.1	1.7	100.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59.2	10.7	6.5	4.7	4.7	5.9	4.1	3.0	1.2		100.0
대학교 재학	(231)	44.2	33.3	4.8		5.6	1.7	4.8	3.5	0.4	1.7	100.0
대학교 졸업 이상	(400)	48.5	13.5	12.0	13.5	4.3	3.8	1.0	1.5	1.3	0.8	100.0

나. 취업 준비 여부

- 응답자들의 18.9%가 취업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함
- 성별에 따라서 긍정 응답률은 남성 16.6%, 여성 21.3%로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남
- 20대의 응답률이 30대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남
- 팔달구 거주자의 긍정 응답률은 34.1%로 가장 높았고 영통구 거주자의 긍정 응답률은 13.0%로 가장 낮았음
- 취업자의 4.2%, 미취업자의 37.6%만이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대학교 재학생의 긍정 응답률은 34.6%로 가장 높았고,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응답자의 긍정 응답률은 11.2%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임



<그림 4-209> 취업 준비 여부

<표 4-218> 응답자 특성별 취업 준비 여부

(단위 : %)

	사례수 (명)	예	아니오	계
전체	**(800)**	**18.9**	**81.1**	**100.0**
성별				
남성	(415)	16.6	83.4	100.0
여성	(385)	21.3	78.7	100.0
연령대				
20-24세	(219)	30.1	69.9	100.0
25-29세	(186)	26.9	73.1	100.0
30-34세	(185)	8.1	91.9	100.0
35-39세	(210)	9.5	90.5	100.0
거주지역				
장안구	(182)	20.9	79.1	100.0
권선구	(245)	15.5	84.5	100.0
팔달구	(126)	34.1	65.9	100.0
영통구	(247)	13.0	87.0	100.0
취업상태				
취업	(449)	4.2	95.8	100.0
미취업	(351)	37.6	62.4	100.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11.2	88.8	100.0
대학교 재학	(231)	34.6	65.4	100.0
대학교 졸업 이상	(400)	13.0	87.0	100.0

다. 구직 활동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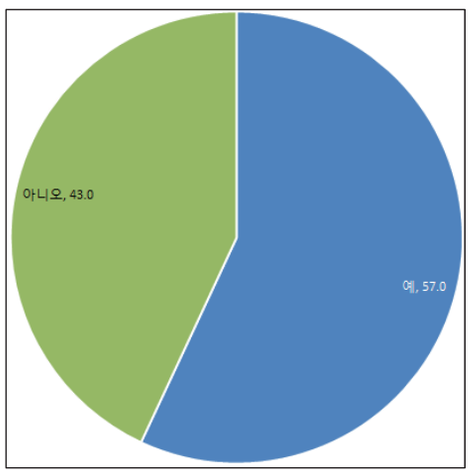
○ 응답자들의 57.0%가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함

○ 성별에 따라서 긍정 응답률은 남성 58.0%, 여성 56.1%로 남성이 더 높게 나타남

○ 30~34세의 응답률이 80.0%로 가장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영통구 거주자의 긍정 응답률이 68.8%로 가장 높았고 장안구 거주자의 긍정 응답률은 44.7%로 가장 낮았음

○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응답자의 긍정 응답률은 73.7%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임



<그림 4-210> 구직활동 여부

<표 4-219> 응답자 특성별 구직활동 여부

(단위 : %)

	사례수 (명)	예	아니오	계
전체	**(151)**	**57.0**	**43.0**	**100.0**
성별				
남성	(69)	58.0	42.0	100.0
여성	(82)	56.1	43.9	100.0
연령대				
20-24세	(66)	48.5	51.5	100.0
25-29세	(50)	58.0	42.0	100.0
30-34세	(15)	80.0	20.0	100.0
35-39세	(20)	65.0	35.0	100.0
거주지역				
장안구	(38)	44.7	55.3	100.0
권선구	(38)	52.6	47.4	100.0
팔달구	(43)	62.8	37.2	100.0
영통구	(32)	68.8	31.3	100.0
취업상태				
취업	(19)	73.7	26.3	100.0
미취업	(132)	54.5	45.5	100.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9)	73.7	26.3	100.0
대학교 재학	(80)	51.3	48.8	100.0
대학교 졸업 이상	(52)	59.6	40.4	100.0

(5) 스펙 준비 및 영향 인식

가. 취업 스펙 준비

■ 학점 등 학교 성적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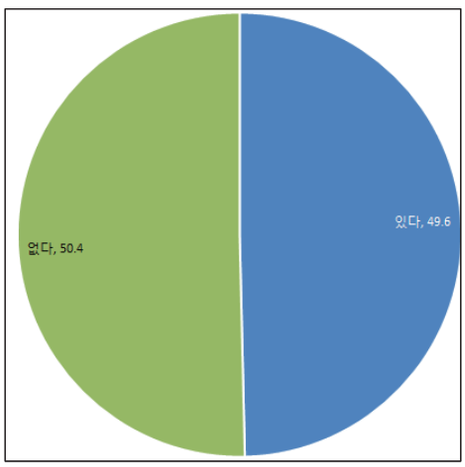
○ 응답자들의 49.6%가 취업 스펙으로 학교 성적 관리를 했다고 있다고 응답함

○ 성별에 따라서 긍정 응답률은 남성 48.2%, 여성 51.2%로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남

○ 20대의 응답률이 30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는데 연령대가 어려질수록 더 성적 관리를 열심히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취업자의 43.4%, 미취업자의 57.5%가 취업 스펙으로 학교 성적 관리를 한 것으로 나타남

○ 대학교 재학생의 긍정 응답률은 66.2%로 가장 높았고,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응답자의 긍정 응답률은 13.0%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임



<그림 4-211> 성적 관리 유무

<표 4-220> 응답자 특성별 성적 관리 유부

(단위 : %)

	사례수 (명)	있다	없다	계
전체	**(800)**	**49.6**	**50.4**	**100.0**
성별				
남성	(415)	48.2	51.8	100.0
여성	(385)	51.2	48.8	100.0
연령대				
20-24세	(219)	61.6	38.4	100.0
25-29세	(186)	55.4	44.6	100.0
30-34세	(185)	43.2	56.8	100.0
35-39세	(210)	37.6	62.4	100.0
거주지역				
장안구	(182)	45.6	54.4	100.0
권선구	(245)	51.0	49.0	100.0
팔달구	(126)	46.8	53.2	100.0
영통구	(247)	52.6	47.4	100.0
취업상태				
취업	(449)	43.4	56.6	100.0
미취업	(351)	57.5	42.5	100.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13.0	87.0	100.0
대학교 재학	(231)	66.2	33.8	100.0
대학교 졸업 이상	(400)	55.5	44.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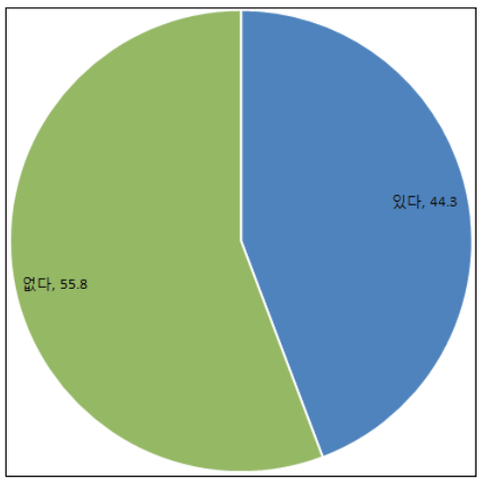
■ 외국어

○ 응답자들의 49.6%가 취업 스펙으로 외국어 (토익, 토플, 영어회화 능력, 제2외국어 능력, 한자 능력 등) 준비를 했다고 있다고 응답함

○ 성별에 따라서 긍정 응답률은 남성 43.9%, 여성 44.7%로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남

○ 20대의 응답률이 30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는데 연령대가 어려질수록 더 외국어 준비를 열심히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취업자의 39.2%, 미취업자의 50.7%가 취업 스펙으로 외국어 준비를 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4-212> 외국어 스펙 유무

○ 대학교 재학생의 긍정 응답률은 58.0%로 가장 높았고,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응답자의 긍정 응답률은 10.7%로 매우 낮은 수치를 보임

<표 4-221> 응답자 특성별 외국어 스펙 유무

(단위 : %)

	사례수 (명)	있다	없다	계
전체	**(800)**	**44.3**	**55.8**	**100.0**
성별				
남성	(415)	43.9	56.1	100.0
여성	(385)	44.7	55.3	100.0
연령대				
20-24세	(219)	51.1	48.9	100.0
25-29세	(186)	48.9	51.1	100.0
30-34세	(185)	42.2	57.8	100.0
35-39세	(210)	34.8	65.2	100.0
거주지역				
장안구	(182)	35.7	64.3	100.0
권선구	(245)	44.1	55.9	100.0
팔달구	(126)	46.0	54.0	100.0
영통구	(247)	49.8	50.2	100.0
취업상태				
취업	(449)	39.2	60.8	100.0
미취업	(351)	50.7	49.3	100.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10.7	89.3	100.0
대학교 재학	(231)	58.0	42.0	100.0
대학교 졸업 이상	(400)	50.5	49.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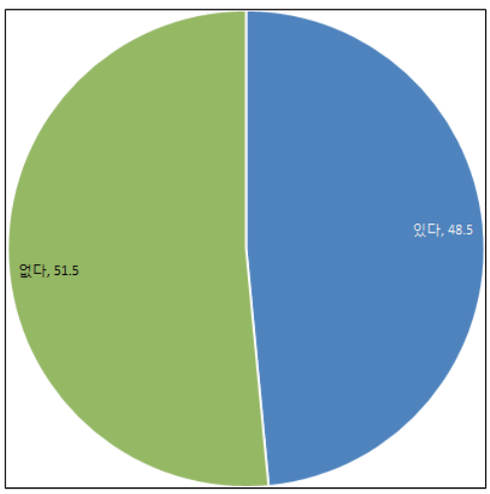
■ 자격증

○ 응답자들의 48.5%가 취업 스펙으로 자격증 (컴퓨터 관련, 업무(직무) 관련 등) 준비를 했다고 있다고 응답함

○ 성별에 따라서 긍정 응답률은 남성 48.7%, 여성 48.3%로 남성이 약간 높게 나타남

○ 20대의 응답률이 30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는데 연령대가 어려질수록 더 자격증 준비를 열심히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취업자의 49.0%, 미취업자의 47.9%가 취업 스펙으로 자격증 준비를 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4-213> 자격증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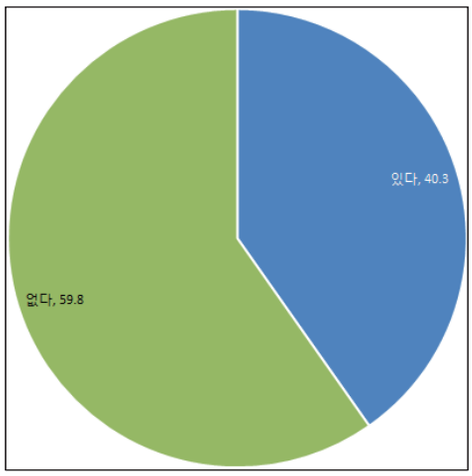
○ 대학교 재학생의 긍정 응답률은 56.3%로 가장 높았고,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응답자의 긍정 응답률은 24.9%로 낮은 수치를 보임

<표 4-222> 응답자 특성별 자격증 유무

(단위 : %)

	사례수 (명)	있다	없다	계
전체	**(800)**	**48.5**	**51.5**	**100.0**
성별				
남성	(415)	48.7	51.3	100.0
여성	(385)	48.3	51.7	100.0
연령대				
20-24세	(219)	52.5	47.5	100.0
25-29세	(186)	52.2	47.8	100.0
30-34세	(185)	49.2	50.8	100.0
35-39세	(210)	40.5	59.5	100.0
거주지역				
장안구	(182)	51.6	48.4	100.0
권선구	(245)	52.2	47.8	100.0
팔달구	(126)	50.8	49.2	100.0
영통구	(247)	41.3	58.7	100.0
취업상태				
취업	(449)	49.0	51.0	100.0
미취업	(351)	47.9	52.1	100.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24.9	75.1	100.0
대학교 재학	(231)	56.3	43.7	100.0
대학교 졸업 이상	(400)	54.0	46.0	100.0

■ 경험



<그림 4-214> 해외경험, 직무경험 등 경험 유무

○ 응답자들의 40.3%가 취업 스펙으로 경험 (어학연수 등 해외경험, 인턴, 아르바이트 등 직무경험 등)을 쌓았다고 응답함

○ 성별에 따라서 긍정 응답률은 남성 38.8%, 여성 41.8%로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남

○ 20대의 응답률이 30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는데 연령대가 어려질수록 더 자격증 준비를 열심히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취업자의 38.8%, 미취업자의 42.2%가 취업 스펙으로 경험을 쌓은 것으로 나타남

○ 대학교 재학생의 긍정 응답률은 48.9%로 가장 높았고,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응답자의 긍정 응답률은 19.5%로 낮은 수치를 보임

<표 4-223> 응답자 특성별 해외경험, 직무경험 등 경험 유무

(단위 : %)

	사례수 (명)	있다	없다	계
전체	**(800)**	**40.3**	**59.8**	**100.0**
성별				
남성	(415)	38.8	61.2	100.0
여성	(385)	41.8	58.2	100.0
연령대				
20-24세	(219)	47.0	53.0	100.0
25-29세	(186)	46.2	53.8	100.0
30-34세	(185)	37.8	62.2	100.0
35-39세	(210)	30.0	70.0	100.0
거주지역				
장안구	(182)	44.5	55.5	100.0
권선구	(245)	43.3	56.7	100.0
팔달구	(126)	43.7	56.3	100.0
영통구	(247)	32.4	67.6	100.0
취업상태				
취업	(449)	38.8	61.2	100.0
미취업	(351)	42.2	57.8	100.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19.5	80.5	100.0
대학교 재학	(231)	48.9	51.1	100.0
대학교 졸업 이상	(400)	44.0	56.0	100.0

■ 수상경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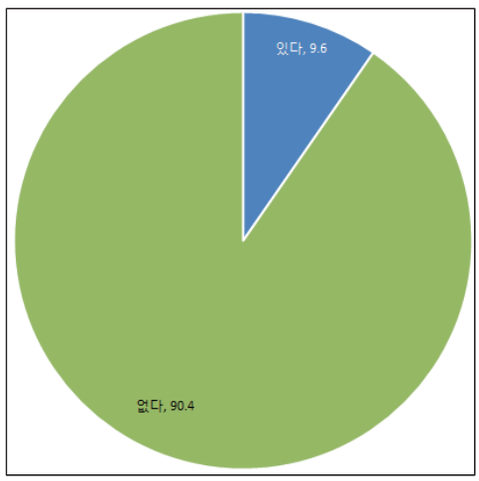
○ 응답자들의 9.6%가 취업 스펙으로 공모전 등 수상경력이 있다고 응답함

○ 성별에 따라서 긍정 응답률은 남성 10.8%, 여성 8.3%로 여성이 더 낮게 나타남

○ 20대의 응답률이 30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는데 연령대가 어려질수록 더 자격증 준비를 열심히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취업자의 8.5%, 미취업자의 11.1%가 취업 스펙으로 경험을 쌓은 것으로 나타남

○ 대학교 재학생의 긍정 응답률은 16.0%로 가장 높았고,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응답자의 긍정 응답률은 3.6%로 낮은 수치를 보임



<그림 4-215> 수상경력 유무

<표 4-224> 응답자 특성별 수상경력 유무

(단위 : %)

	사례수 (명)	있다	없다	계
전체	**(800)**	**9.6**	**90.4**	**100.0**
성별				
남성	(415)	10.8	89.2	100.0
여성	(385)	8.3	91.7	100.0
연령대				
20-24세	(219)	14.6	85.4	100.0
25-29세	(186)	11.8	88.2	100.0
30-34세	(185)	7.0	93.0	100.0
35-39세	(210)	4.8	95.2	100.0
거주지역				
장안구	(182)	9.9	90.1	100.0
권선구	(245)	13.1	86.9	100.0
팔달구	(126)	7.9	92.1	100.0
영통구	(247)	6.9	93.1	100.0
취업상태				
취업	(449)	8.5	91.5	100.0
미취업	(351)	11.1	88.9	100.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3.6	96.4	100.0
대학교 재학	(231)	16.0	84.0	100.0
대학교 졸업 이상	(400)	8.5	91.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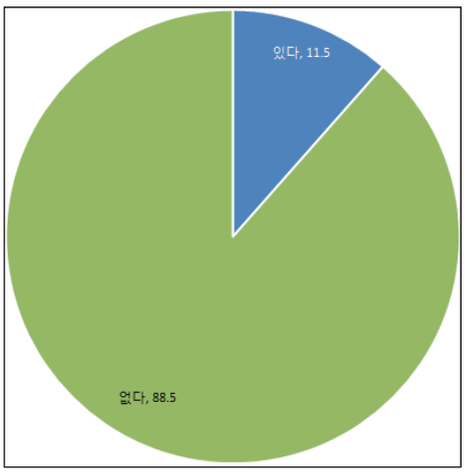
■ 석·박사학위

○ 응답자들의 11.5%가 취업 스펙으로 석·박사학위가 있다고 응답함

○ 성별에 따라서 긍정 응답률은 남성 12.8%, 여성 10.0%로 여성이 더 낮게 나타남

○ 30~34세의 응답률이 14.6%로 가장 높고 차순은 25~29세의 13.4%인 것으로 나타남

○ 취업자의 11.8%, 미취업자의 11.1%가 취업 스펙으로 석·박사학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4-216> 석·박사학위 유무

<표 4-225> 응답자 특성별 석·박사학위 유무

(단위 : %)

	사례수 (명)	있다	없다	계
전체	**(800)**	**11.5**	**88.5**	**100.0**
성별				
남성	(415)	12.8	87.2	100.0
여성	(385)	10.1	89.9	100.0
연령대				
20-24세	(219)	8.7	91.3	100.0
25-29세	(186)	13.4	86.6	100.0
30-34세	(185)	14.6	85.4	100.0
35-39세	(210)	10.0	90.0	100.0
거주지역				
장안구	(182)	13.2	86.8	100.0
권선구	(245)	13.9	86.1	100.0
팔달구	(126)	8.7	91.3	100.0
영통구	(247)	9.3	90.7	100.0
취업상태				
취업	(449)	11.8	88.2	100.0
미취업	(351)	11.1	88.9	100.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1.2	98.8	100.0
대학교 재학	(231)	11.3	88.7	100.0
대학교 졸업 이상	(400)	16.0	84.0	100.0

■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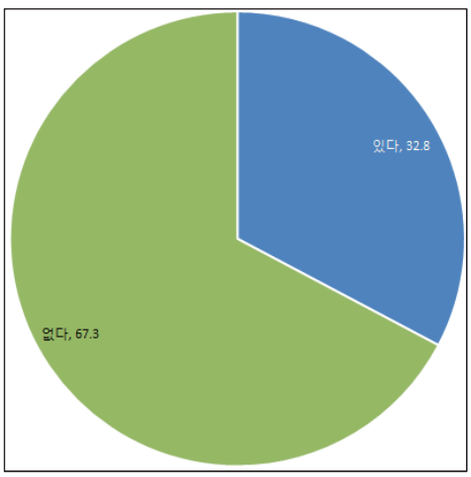
○ 응답자들의 32.8%가 취업 스펙으로 활동 (봉사활동 경험, 동아리활동 등)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 성별에 따라서 긍정 응답률은 남성 33.0%, 여성 32.5%로 여성이 더 낮게 나타남

○ 20대의 응답률이 30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는데 연령대가 어려질수록 더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취업자의 28.6%, 미취업자의 38.2%가 취업 스펙으로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남

○ 대학교 재학생의 긍정 응답률은 46.9%로 가장 높았고,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응답자의 긍정 응답률은 10.1%로 낮은 수치를 보임



<그림 4-217> 봉사활동 경험, 동아리활동 등 활동 스펙 유무

<표 4-226> 응답자 특성별 봉사활동 경험, 동아리활동 등 활동 스펙 유무

(단위 : %)

	사례수 (명)	있다	없다	계
전체	**(800)**	**32.8**	**67.3**	**100.0**
성별				
남성	(415)	33.0	67.0	100.0
여성	(385)	32.5	67.5	100.0
연령대				
20-24세	(219)	41.1	58.9	100.0
25-29세	(186)	41.4	58.6	100.0
30-34세	(185)	30.8	69.2	100.0
35-39세	(210)	18.1	81.9	100.0
거주지역				
장안구	(182)	31.9	68.1	100.0
권선구	(245)	34.3	65.7	100.0
팔달구	(126)	34.9	65.1	100.0
영통구	(247)	30.8	69.2	100.0
취업상태				
취업	(449)	28.5	71.5	100.0
미취업	(351)	38.2	61.8	100.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10.1	89.9	100.0
대학교 재학	(231)	45.9	54.1	100.0
대학교 졸업 이상	(400)	34.8	65.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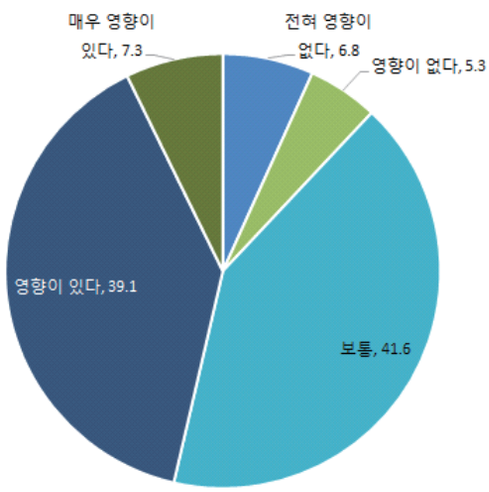
나. 취업에의 영향 정도

■ 학교 성적 관리 영향 정도

○ 학점 등 학교 성적 관리의 취업에의 영향 정도 평균은 3.3으로 보통을 넘는 것으로 나타남

- 긍정 응답률이 46.4%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단위 : %)



<그림 4-218> 성적 관리 영향 정도

○ 남성의 평균은 3.4, 여성의 평균은 3.3으로 남성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남 (남성 긍정응답률 48.7%, 여성 긍정응답률 43.9%)

○ 20~24세의 평균이 3.5로 가장 높고 35~39세의 평균은 3.2로 가장 낮게 나타남

- 35~39세의 경우 다른 연령대와 달리 긍정응답률보다 '보통이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취업자들의 평균은 3.3, 미취업자들의 평균은 3.4로 취업자의 평균이 약간 더 낮게 나타남

- 부정응답률은 취업자가 16.6%, 미취업자가 7.4%로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임

○ 대학교 재학생의 평균은 3.5, 대학교 졸업 이상 응답자의 평균은 3.4로 나타난데 반해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응답자의 평균은 3.0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응답자의 부정 응답률은 21.3%로 다른 학력 응답자에 비해 높게 나타남

<표 4-227> 응답자 특성별 성적 관리 영향 정도

(단위 :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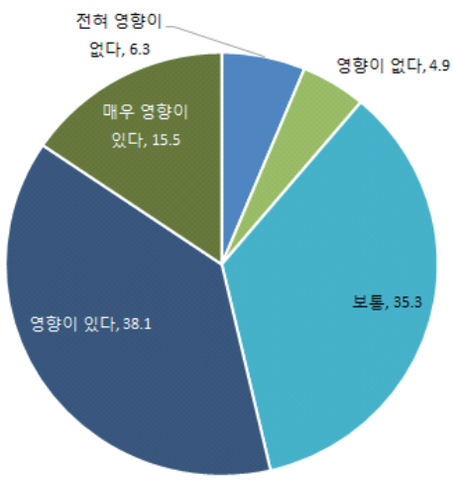
	사례수 (명)	전혀 영향이 없다	←	①+②	보통이다	→	매우 영향이 있다	④+⑤	계	평균
전체	**(800)**	**6.8**	**5.3**	**12.0**	**41.6**	**39.1**	**7.3**	**46.4**	**100.0**	**3.3**
성별										
남성	(415)	5.5	5.8	11.3	40.0	41.4	7.2	48.7	100.0	3.4
여성	(385)	8.1	4.7	12.7	43.4	36.6	7.3	43.9	100.0	3.3
연령대										
20-24세	(219)	5.0	2.7	7.8	39.3	42.5	10.5	53.0	100.0	3.5
25-29세	(186)	7.5	4.8	12.4	40.3	40.3	7.0	47.3	100.0	3.3
30-34세	(185)	8.6	5.4	14.1	41.1	38.9	5.9	44.9	100.0	3.3
35-39세	(210)	6.2	8.1	14.3	45.7	34.8	5.2	40.0	100.0	3.2
거주지역										
장안구	(182)	15.4	8.2	23.6	38.5	32.4	5.5	37.9	100.0	3.0
권선구	(245)	0.4	3.7	4.1	46.1	40.8	9.0	49.8	100.0	3.5
팔달구	(126)	3.2	2.4	5.6	53.2	34.9	6.3	41.3	100.0	3.4
영통구	(247)	8.5	6.1	14.6	33.6	44.5	7.3	51.8	100.0	3.4
취업상태										
취업	(449)	8.9	6.7	15.6	37.9	39.9	6.7	46.5	100.0	3.3
미취업	(351)	4.0	3.4	7.4	46.4	38.2	8.0	46.2	100.0	3.4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17.8	3.6	21.3	39.6	35.5	3.6	39.1	100.0	3.0
대학교 재학	(231)	2.6	3.5	6.1	44.6	40.3	9.1	49.4	100.0	3.5
대학교 졸업 이상	(400)	4.5	7.0	11.5	40.8	40.0	7.8	47.8	100.0	3.4

■ 외국어 영향 정도

○ 외국어 (토익, 토플, 영어회화 능력, 제2외국어 능력, 한자능력 등)의 취업에의 영향 정도 평균은 3.5로 보통을 넘는 것으로 나타남

- 긍정 응답률이 53.6%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단위 : %)



<그림 4-219> 외국어 영향 정도

○ 성별에 관계없이 남녀 모두 평균 3.5로 보통을 넘는 수치로 나타남 (남성 긍정응답률 51.1%, 여성 긍정응답률 56.4%)

○ 20~24세의 평균이 3.6으로 가장 높고 35~39세의 평균은 3.4로 가장 낮게 나타남

- 35~39세의 경우 다른 연령대와 달리 긍정응답률이 5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취업자들의 평균은 3.4, 미취업자들의 평균은 3.6으로 취업자의 평균이 약간 더 낮게 나타남

- 부정응답률은 취업자가 14.7%, 미취업자가 6.6%로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임

○ 대학교 재학생과 대학교 졸업 이상 응답자의 평균은 3.6으로 나타난데 반해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응답자의 평균은 3.2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응답자의 부정 응답률은 20.1%로 다른 학력 응답자에 비해 높게 나타남

<표 4-228> 응답자 특성별 외국어 영향 정도

(단위 :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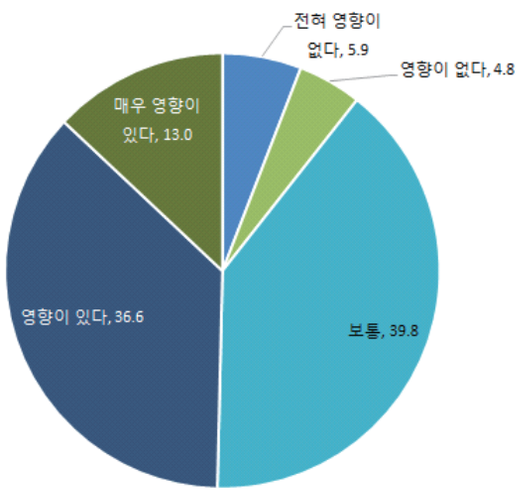
	사례수 (명)	전혀 영향이 없다	←	①+②	보통이다	→	매우 영향이 있다	④+⑤	계	평균
전체	**(800)**	**6.3**	**4.9**	**11.1**	**35.3**	**38.1**	**15.5**	**53.6**	**100.0**	**3.5**
성별										
남성	(415)	5.3	5.1	10.4	38.6	37.6	13.5	51.1	100.0	3.5
여성	(385)	7.3	4.7	11.9	31.7	38.7	17.7	56.4	100.0	3.5
연령대										
20-24세	(219)	4.1	3.7	7.8	37.4	36.1	18.7	54.8	100.0	3.6
25-29세	(186)	7.5	4.3	11.8	31.2	39.8	17.2	57.0	100.0	3.5
30-34세	(185)	8.1	3.8	11.9	34.1	36.8	17.3	54.1	100.0	3.5
35-39세	(210)	5.7	7.6	13.3	37.6	40.0	9.0	49.0	100.0	3.4
거주지역										
장안구	(182)	14.8	8.2	23.1	33.0	30.8	13.2	44.0	100.0	3.2
권선구	(245)		2.4	2.4	35.5	45.3	16.7	62.0	100.0	3.8
팔달구	(126)		4.0	4.0	44.4	35.7	15.9	51.6	100.0	3.6
영통구	(247)	9.3	5.3	14.6	32.0	37.7	15.8	53.4	100.0	3.5
취업상태										
취업	(449)	8.7	6.0	14.7	33.2	38.5	13.6	52.1	100.0	3.4
미취업	(351)	3.1	3.4	6.6	37.9	37.6	17.9	55.6	100.0	3.6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16.6	3.6	20.1	36.1	31.4	12.4	43.8	100.0	3.2
대학교 재학	(231)	2.2	3.5	5.6	40.3	35.5	18.6	54.1	100.0	3.6
대학교 졸업 이상	(400)	4.3	6.3	10.5	32.0	42.5	15.0	57.5	100.0	3.6

■ 자격증 영향 정도

○ 자격증 (컴퓨터 관련, 업무(직무) 관련 등)의 취업에의 영향 정도 평균은 3.5로 보통을 넘는 것으로 나타남

- 긍정 응답률이 49.6%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단위 : %)



<그림 4-220> 자격증 영향 정도

○ 남성의 평균은 3.4, 여성의 평균은 3.5로 여성이 더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남성 긍정응답률 47.7%, 여성 긍정응답률 51.7%)

○ 20~24세의 평균이 3.6으로 가장 높고 30대의 평균은 3.4로 가장 낮게 나타남

- 20대에 비해 30대의 긍정 응답률이 더 낮게 나타나고 있음

○ 취업자들의 평균은 3.4, 미취업자들의 평균은 3.6으로 취업자의 평균이 약간 더 낮게 나타남

- 부정응답률은 취업자가 12.9%, 미취업자가 7.7%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대학교 재학생의 평균은 3.6으로 가장 높고, 대학교 졸업 이상 응답자의 평균은 3.5로 나타난데 반해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응답자의 평균은 3.3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응답자의 부정 응답률은 18.9%로 다른 학력 응답자에 비해 높게 나타남

<표 4-229> 응답자 특성별 자격증 영향 정도

(단위 :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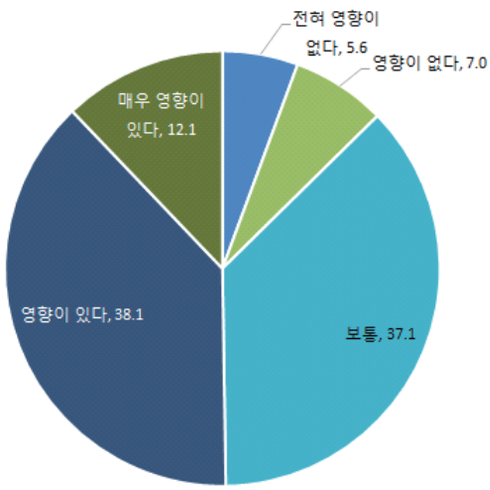
	사례수 (명)	전혀 영향이 없다	←	①+②	보통이다	→	매우 영향이 있다	④+⑤	계	평균
전체	**(800)**	**5.9**	**4.8**	**10.6**	**39.8**	**36.6**	**13.0**	**49.6**	**100.0**	**3.5**
성별										
남성	(415)	5.5	4.6	10.1	42.2	37.6	10.1	47.7	100.0	3.4
여성	(385)	6.2	4.9	11.2	37.1	35.6	16.1	51.7	100.0	3.5
연령대										
20-24세	(219)	4.1	2.3	6.4	39.7	36.5	17.4	53.9	100.0	3.6
25-29세	(186)	7.0	4.8	11.8	38.2	33.3	16.7	50.0	100.0	3.5
30-34세	(185)	6.5	4.3	10.8	40.5	40.5	8.1	48.6	100.0	3.4
35-39세	(210)	6.2	7.6	13.8	40.5	36.2	9.5	45.7	100.0	3.4
거주지역										
장안구	(182)	12.1	6.0	18.1	39.0	30.8	12.1	42.9	100.0	3.2
권선구	(245)		2.0	2.0	39.2	45.7	13.1	58.8	100.0	3.7
팔달구	(126)	2.4	4.8	7.1	42.1	39.7	11.1	50.8	100.0	3.5
영통구	(247)	8.9	6.5	15.4	39.7	30.4	14.6	44.9	100.0	3.4
취업상태										
취업	(449)	7.6	5.3	12.9	38.1	38.5	10.5	49.0	100.0	3.4
미취업	(351)	3.7	4.0	7.7	41.9	34.2	16.2	50.4	100.0	3.6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16.0	3.0	18.9	31.4	37.9	11.8	49.7	100.0	3.3
대학교 재학	(231)	2.6	3.5	6.1	44.2	32.9	16.9	49.8	100.0	3.6
대학교 졸업 이상	(400)	3.5	6.3	9.8	40.8	38.3	11.3	49.5	100.0	3.5

■ 경험 영향 정도

○ 경험 (어학연수 등 해외경험, 인턴, 아르바이트 등 직무경험 등)의 취업에의 영향 정도 평균은 3.4로 보통을 넘는 것으로 나타남

- 긍정 응답률이 50.3%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단위 : %)



<그림 4-221> 경험 영향 정도

○ 남성의 평균은 3.4, 여성의 평균은 3.5로 여성이 더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남성 긍정응답률 47.7%, 여성 긍정응답률 53.0%)

○ 20대의 평균 3.5로 가장 높고 35~39세의 평균은 3.3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35~39세의 긍정응답률이 가장 낮고, 부정응답률은 가장 높음

○ 취업자들의 평균은 3.4, 미취업자들의 평균은 3.5로 취업자의 평균이 약간 더 낮게 나타남

- 부정응답률은 취업자가 15.1%, 미취업자가 9.4%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대학교 재학생과 대학교 졸업 이상 응답자의 평균은 3.5로 나타난데 반해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응답자의 평균은 3.2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응답자의 부정 응답률은 18.9%로 다른 학력 응답자에 비해 높게 나타남

<표 4-230> 응답자 특성별 경험 영향 정도

(단위 :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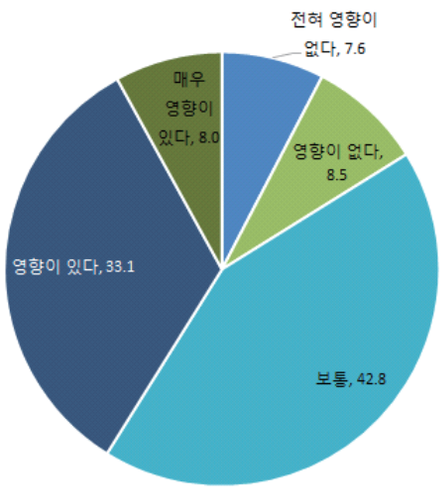
	사례수 (명)	전혀 영향이 없다	←	①+②	보통이다	→	매우 영향이 있다	④+⑤	계	평균
전체	**(800)**	**5.6**	**7.0**	**12.6**	**37.1**	**38.1**	**12.1**	**50.3**	**100.0**	**3.4**
성별										
남성	(415)	4.8	7.7	12.5	39.8	37.1	10.6	47.7	100.0	3.4
여성	(385)	6.5	6.2	12.7	34.3	39.2	13.8	53.0	100.0	3.5
연령대										
20-24세	(219)	4.1	5.5	9.6	37.4	38.8	14.2	53.0	100.0	3.5
25-29세	(186)	5.4	6.5	11.8	38.2	32.8	17.2	50.0	100.0	3.5
30-34세	(185)	7.0	7.0	14.1	30.8	46.5	8.6	55.1	100.0	3.4
35-39세	(210)	6.2	9.0	15.2	41.4	34.8	8.6	43.3	100.0	3.3
거주지역										
장안구	(182)	11.5	11.5	23.1	33.0	30.8	13.2	44.0	100.0	3.2
권선구	(245)	0.8	5.3	6.1	38.0	43.3	12.7	55.9	100.0	3.6
팔달구	(126)	1.6	5.6	7.1	42.1	37.3	13.5	50.8	100.0	3.6
영통구	(247)	8.1	6.1	14.2	36.8	38.9	10.1	49.0	100.0	3.4
취업상태										
취업	(449)	7.3	7.8	15.1	36.1	38.5	10.2	48.8	100.0	3.4
미취업	(351)	3.4	6.0	9.4	38.5	37.6	14.5	52.1	100.0	3.5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13.6	5.3	18.9	33.7	37.3	10.1	47.3	100.0	3.2
대학교 재학	(231)	2.6	7.4	10.0	38.1	38.5	13.4	51.9	100.0	3.5
대학교 졸업 이상	(400)	4.0	7.5	11.5	38.0	38.3	12.3	50.5	100.0	3.5

■ 수상경력 영향 정도

○ 공모전 등 수상경력의 취업에의 영향 정도 평균은 3.3으로 보통을 넘는 것으로 나타남

- 긍정 응답률이 41.1%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단위 : %)



<그림 4-222> 수상경력 영향 정도

○ 남성의 평균은 3.2, 여성의 평균은 3.3으로 여성이 더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남성 긍정응답률 39.5%, 여성 긍정응답률 42.9%)

○ 20대의 평균 3.4로 가장 높고 35~39세의 평균은 3.1로 가장 낮게 나타남

- 35~39세의 부정응답률은 20.5%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높음

○ 취업자들의 평균은 3.1, 미취업자들의 평균은 3.4로 취업자의 평균이 더 낮게 나타남

- 부정응답률은 취업자가 20.5%, 미취업자가 10.5%로 2배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대학교 재학생의 평균은 3.5로 나타난데 반해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응답자의 평균은 3.0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응답자의 부정 응답률은 24.9%로 다른 학력 응답자에 비해 높게 나타남

<표 4-231> 응답자 특성별 수상경력 영향 정도

(단위 :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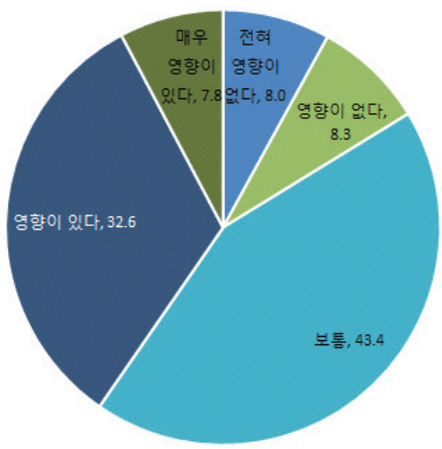
	사례수 (명)	전혀 영향이 없다	←	①+②	보통이다	→	매우 영향이 있다	④+⑤	계	평균
전체	**(800)**	**7.6**	**8.5**	**16.1**	**42.8**	**33.1**	**8.0**	**41.1**	**100.0**	**3.3**
성별										
남성	(415)	7.2	8.0	15.2	45.3	32.0	7.5	39.5	100.0	3.2
여성	(385)	8.1	9.1	17.1	40.0	34.3	8.6	42.9	100.0	3.3
연령대										
20-24세	(219)	4.1	8.7	12.8	38.4	37.4	11.4	48.9	100.0	3.4
25-29세	(186)	7.5	9.1	16.7	47.8	26.9	8.6	35.5	100.0	3.2
30-34세	(185)	10.3	4.3	14.6	43.2	37.8	4.3	42.2	100.0	3.2
35-39세	(210)	9.0	11.4	20.5	42.4	30.0	7.1	37.1	100.0	3.1
거주지역										
장안구	(182)	15.9	9.3	25.3	42.9	23.6	8.2	31.9	100.0	3.0
권선구	(245)	1.2	7.3	8.6	40.8	39.6	11.0	50.6	100.0	3.5
팔달구	(126)	3.2	7.1	10.3	43.7	38.1	7.9	46.0	100.0	3.4
영통구	(247)	10.1	9.7	19.8	44.1	31.2	4.9	36.0	100.0	3.1
취업상태										
취업	(449)	10.7	9.8	20.5	41.2	31.4	6.9	38.3	100.0	3.1
미취업	(351)	3.7	6.8	10.5	44.7	35.3	9.4	44.7	100.0	3.4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18.3	6.5	24.9	37.3	30.8	7.1	37.9	100.0	3.0
대학교 재학	(231)	2.2	7.8	10.0	41.6	38.1	10.4	48.5	100.0	3.5
대학교 졸업 이상	(400)	6.3	9.8	16.0	45.8	31.3	7.0	38.3	100.0	3.2

■ 활동 영향 정도

○ 활동 (봉사활동 경험, 동아리활동 등)의 취업에의 영향 정도 평균은 3.1로 보통을 약간 넘는 것으로 나타남

- '보통이다' 라는 응답이 56.0%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단위 : %)



<그림 4-223> 활동 영향 정도

○ 남성의 평균은 3.0, 여성의 평균은 3.1로 남성의 평균이 약간 더 낮게 나타남

○ 20~24세의 평균이 3.2로 가장 높고 30대의 평균은 3.0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취업자들의 평균은 3.0, 미취업자들의 평균은 3.2로 취업자의 평균이 더 낮게 나타남

- 부정응답률은 취업자가 20.9%, 미취업자가 16.5%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대학교 재학생의 평균은 3.3으로 나타난데 반해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응답자의 평균은 2.8로 보통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응답자의 부정 응답률은 27.8%로 다른 학력 응답자에 비해 높게 나타남

<표 4-232> 응답자 특성별 활동 영향 정도

(단위 :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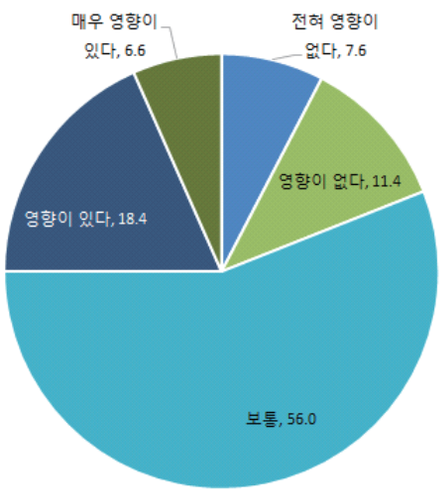
	사례수 (명)	전혀 영향이 없다	←	①+②	보통이다	→	매우 영향이 있다	④+⑤	계	평균
전체	**(800)**	**8.0**	**8.3**	**16.3**	**43.4**	**32.6**	**7.8**	**40.4**	**100.0**	**3.2**
성별										
남성	(415)	6.7	7.2	14.0	46.5	32.5	7.0	39.5	100.0	3.3
여성	(385)	9.4	9.4	18.7	40.0	32.7	8.6	41.3	100.0	3.2
연령대										
20-24세	(219)	5.0	7.8	12.8	46.6	32.9	7.8	40.6	100.0	3.3
25-29세	(186)	9.1	11.8	21.0	41.9	27.4	9.7	37.1	100.0	3.2
30-34세	(185)	10.3	3.8	14.1	41.6	36.2	8.1	44.3	100.0	3.3
35-39세	(210)	8.1	9.5	17.6	42.9	33.8	5.7	39.5	100.0	3.2
거주지역										
장안구	(182)	17.0	13.2	30.2	41.8	20.9	7.1	28.0	100.0	2.9
권선구	(245)		4.1	4.1	41.2	44.5	10.2	54.7	100.0	3.6
팔달구	(126)	3.2	4.8	7.9	49.2	35.7	7.1	42.9	100.0	3.4
영통구	(247)	11.7	10.5	22.3	43.7	27.9	6.1	34.0	100.0	3.1
취업상태										
취업	(449)	10.7	8.5	19.2	40.3	33.0	7.6	40.5	100.0	3.2
미취업	(351)	4.6	8.0	12.5	47.3	32.2	8.0	40.2	100.0	3.3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18.3	4.1	22.5	35.5	34.9	7.1	42.0	100.0	3.1
대학교 재학	(231)	3.0	6.9	10.0	50.6	32.5	6.9	39.4	100.0	3.3
대학교 졸업 이상	(400)	6.5	10.8	17.3	42.5	31.8	8.5	40.3	100.0	3.3

■ 석·박사학위 영향 정도

○ 석·박사학위의 취업에의 영향 정도 평균은 3.2로 보통을 약간 넘는 것으로 나타남

- '보통이다' 라는 응답이 43.4%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단위 : %)



<그림 4-224> 석·박사학위 영향 정도

○ 남성의 평균은 3.3, 여성의 평균은 3.2로 남성의 평균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남 (남성 긍정응답률 39.5%, 여성 긍정응답률 41.3%)

○ 취업자들의 평균은 3.2, 미취업자들의 평균은 3.3으로 취업자의 평균이 더 낮게 나타남

- 부정응답률은 취업자가 19.2%, 미취업자가 12.5%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대학교 재학생과 대학교 졸업 이상 응답자의 평균은 3.3으로 나타난데 반해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응답자의 평균은 3.1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응답자의 부정 응답률은 22.5%로 다른 학력 응답자에 비해 높게 나타남

<표 4-233> 응답자 특성별 석·박사학위 영향 정도

(단위 :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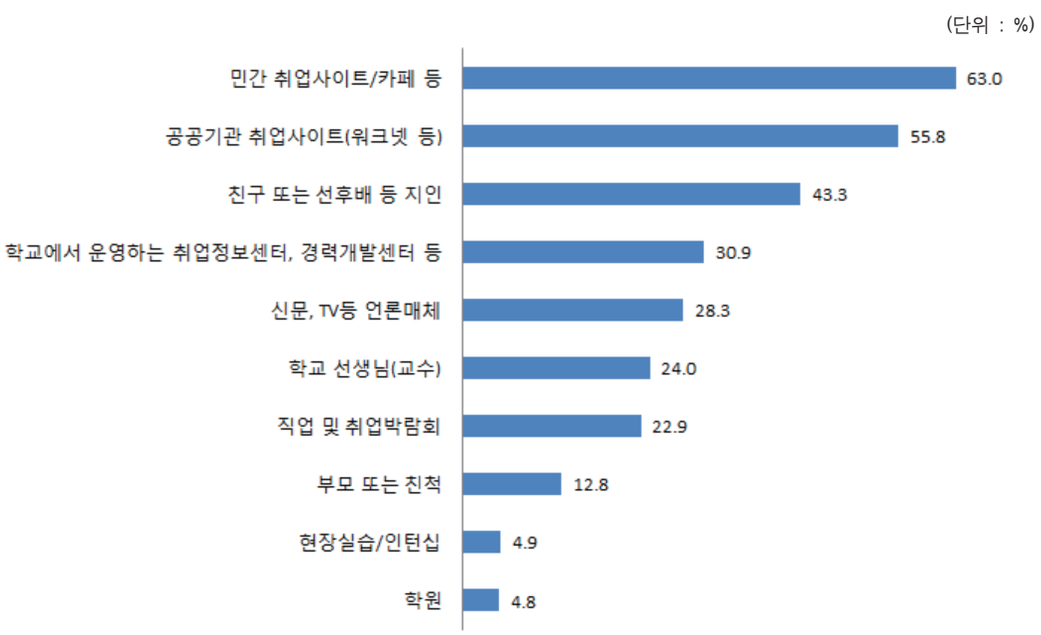
	사례수 (명)	전혀 영향이 없다	←	①+②	보통이다	→	매우 영향이 있다	④+⑤	계	평균
전체	**(800)**	**7.6**	**11.4**	**19.0**	**56.0**	**18.4**	**6.6**	**25.0**	**100.0**	**3.1**
성별										
남성	(415)	8.0	11.8	19.8	55.2	18.1	7.0	25.1	100.0	3.0
여성	(385)	7.3	10.9	18.2	56.9	18.7	6.2	24.9	100.0	3.1
연령대										
20-24세	(219)	6.4	10.0	16.4	53.9	19.2	10.5	29.7	100.0	3.2
25-29세	(186)	6.5	11.3	17.7	58.6	15.1	8.6	23.7	100.0	3.1
30-34세	(185)	9.2	9.2	18.4	58.9	20.5	2.2	22.7	100.0	3.0
35-39세	(210)	8.6	14.8	23.3	53.3	18.6	4.8	23.3	100.0	3.0
거주지역										
장안구	(182)	17.6	12.6	30.2	50.0	13.7	6.0	19.8	100.0	2.8
권선구	(245)	2.0	8.6	10.6	58.0	23.7	7.8	31.4	100.0	3.3
팔달구	(126)	0.8	11.1	11.9	60.3	18.3	9.5	27.8	100.0	3.2
영통구	(247)	9.3	13.4	22.7	56.3	16.6	4.5	21.1	100.0	2.9
취업상태										
취업	(449)	9.4	11.6	20.9	57.9	16.9	4.2	21.2	100.0	3.0
미취업	(351)	5.4	11.1	16.5	53.6	20.2	9.7	29.9	100.0	3.2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16.6	11.2	27.8	52.1	18.3	1.8	20.1	100.0	2.8
대학교 재학	(231)	4.8	8.2	13.0	55.0	21.2	10.8	32.0	100.0	3.3
대학교 졸업 이상	(400)	5.5	13.3	18.8	58.3	16.8	6.3	23.0	100.0	3.1

(6) 구직 경험

가. 구직 정보 경로

○ 구직 정보를 ‘민간 취업사이트/카페 등’에서 얻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63.0%로 가장 높게 나타남[2)]

- 이어서 ‘공공기관 취업사이트(워크넷 등)’ 55.8%, ‘학교 선생님(교수)’ 43.3%, ‘학교에서 운영하는 취업정보센터, 경력개발센터 등’ 30.9%, ‘신문, TV등 언론매체’ 28.3%, ‘친구 또는 선후배 등 지인’ 24.0%, ‘부모 또는 친척’ 22.9%, ‘직업 및 취업박람회’ 12.8%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4-225> 구직정보를 얻는 경로(1+2+3순위)

○ 성별에 관계없이 ‘민간 취업사이트/카페 등’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남성 응답률 62.7%, 여성 응답률 63.4%)

○ 20~24세는 ‘공공기관 취업사이트(워크넷 등)’에서 정보를 얻는다는 비율이 53.9%로 가장 높았고, 기타 연령대에서는 ‘민간 취업사이트/카페 등’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2) 1, 2, 3순위를 모두 합한 결과임

○ 취업자들은 ‘민간 취업사이트/카페 등’에서 정보를 얻는다는 응답이 67.0%, 미취업자들은 ‘공공기관 취업사이트(워크넷 등)’에서 정보를 얻는다는 비율이 59.8%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응답자들과 대학교 졸업 이상 응답자들은 ‘민간 취업사이트/카페 등’에서 정보를 얻는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대학교 재학생들은 ‘공공기관 취업사이트(워크넷 등)’에서 정보를 얻는다는 비율이 57.6%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응답자의 경우, 학교에서 운영하는 취업정보센터, 경력개발센터와 지인을 통해 정보를 얻는 비율은 낮았고 직업 및 취업박람회와 현장실습 및 인턴십을 통해 정보를 얻는 비율은 다른 학력 응답자들의 2배가 넘는 수치를 보임

<표 4-234> 응답자 특성별 구직정보를 얻는 경로(1+2+3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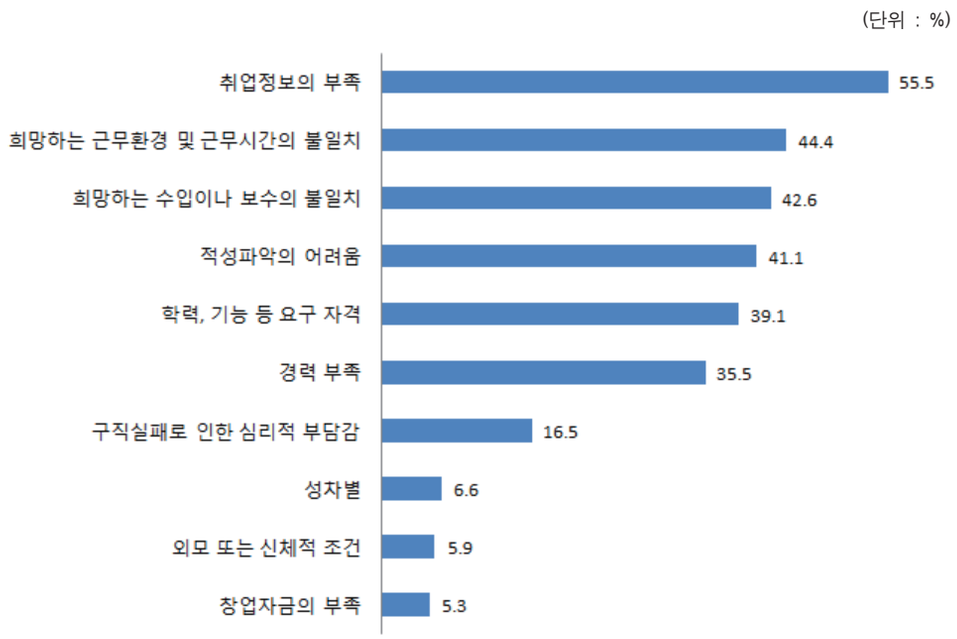
(단위 : %)

	사례수 (명)	민간 취업 사이트/카페 등	공공기관 취업사이트(워크넷 등)	학교 선생님(교수)	학교에서 운영하는 취업정보센터, 경력개발센터 등	신문, TV 등 언론매체	친구 또는 선후배 등 지인	부모 또는 친척	직업 및 취업박람회	학원	현장실습/인턴십	계
전체	**(800)**	**63.0**	**55.8**	**43.3**	**30.9**	**28.3**	**24.0**	**22.9**	**12.8**	**4.9**	**4.8**	**100.0**
성별												
남성	(415)	62.7	51.6	47.2	29.4	26.3	24.1	26.0	14.2	6.0	3.4	100.0
여성	(385)	63.4	60.3	39.0	32.5	30.4	23.9	19.5	11.2	3.6	6.2	100.0
연령대												
20-24세	(219)	46.1	53.9	43.4	40.2	30.1	35.2	22.8	13.7	3.2	4.1	100.0
25-29세	(186)	67.7	59.1	42.5	30.1	24.7	19.9	21.5	12.4	4.8	7.0	100.0
30-34세	(185)	74.6	53.5	41.1	25.4	25.4	17.3	26.5	11.9	5.9	3.2	100.0
35-39세	(210)	66.2	56.7	45.7	26.7	31.9	21.9	21.0	12.9	5.7	4.8	100.0
거주지역												
장안구	(182)	56.0	50.0	48.9	29.7	30.8	33.0	12.1	9.9	7.7	6.6	100.0
권선구	(245)	66.1	60.4	43.3	29.8	24.5	21.6	24.1	13.9	4.1	5.3	100.0
팔달구	(126)	61.9	56.3	39.7	28.6	29.4	18.3	27.8	16.7	3.2	6.3	100.0
영통구	(247)	65.6	55.1	40.9	34.0	29.6	22.7	27.1	11.7	4.5	2.0	100.0
취업상태												
취업	(449)	67.0	52.6	47.7	25.6	24.3	22.5	24.9	12.0	5.8	5.8	100.0
미취업	(351)	57.8	59.8	37.6	37.6	33.3	25.9	20.2	13.7	3.7	3.4	100.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58.0	48.5	52.1	14.2	32.5	19.5	20.7	23.1	7.1	10.7	100.0
대학교 재학	(231)	50.6	57.6	42.0	43.7	28.1	32.0	22.1	11.7	3.9	2.2	100.0
대학교 졸업 이상	(400)	72.3	57.8	40.3	30.5	26.5	21.3	24.3	9.0	4.5	3.8	100.0

나. 취업 준비 및 구직 활동 어려움

○ 취업 준비 및 구직 활동 중에 가장 어려운 점은 ‘취업정보의 부족’ 인 것으로 나타남[3] (응답률 55.5%)

- 이어서 ‘적성파악의 어려움’ 44.4%, ‘학력, 기능 등 요구 자격’ 42.6%, ‘희망하는 근무환경 및 근무시간 불일치’ 41.1%, ‘희망하는 수입이나 보수의 불일치’ 39.1%, ‘경력 부족’ 35.5%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4-226> 취업준비/구직활동 시 어려웠던 점(1+2+3순위)

○ 성별에 관계없이 ‘취업정보의 부족’ 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남성 응답률 59.0%, 여성 응답률 51.7%)

○ 20대는 ‘취업정보의 부족’ 이 가장 어렵다고 응답한 반면, 30대는 ‘적성파악의 어려움’ 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답함

- 30~34세의 경우 ‘적성파악의 어려움’ 과 ‘학력, 기능 등 요구 자격’ 이 동일하게 53.5%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임

○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취업정보의 부족’ 이 가장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3) 1, 2, 3순위를 모두 합한 결과임

○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응답자들과 대학교 재학생들은 '취업정보의 부족'이, 대학교 졸업 이상 응답자들은 '적성파악의 어려움'이 가장 힘들다고 응답함

-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응답자의 경우, 구직실패로 인한 심리적 부담감이나 창업자금의 부족은 다른 학력 응답자에 비해 적은 데 반해 성차별과 외모 또는 신체적 조건은 어려운 요소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4-235> 응답자 특성별 취업준비/구직활동 시 어려웠던 점(1+2+3순위)

(단위 : %)

	사례수(명)	취업정보의 부족	적성파악의 어려움	학력, 기능 등 요구 자격	희망하는 근무환경 및 근무시간의 불일치	희망하는 수입이나 보수의 불일치	경력 부족	구직실패로 인한 심리적 부담감	창업자금의 부족	성차별	외모 또는 신체적 조건	계
전체	**(2,340)**	**55.5**	**44.4**	**42.6**	**41.1**	**39.1**	**35.5**	**16.5**	**6.6**	**5.9**	**5.3**	**100.0**
성별												
남성	(1,212)	59.0	41.4	43.9	40.7	39.5	34.5	15.7	5.8	5.3	6.3	100.0
여성	(1,128)	51.7	47.5	41.3	41.6	38.7	36.6	17.4	7.5	6.5	4.2	100.0
연령대												
20-24세	(636)	68.5	32.4	33.8	41.6	44.7	39.7	12.8	9.1	5.0	2.7	100.0
25-29세	(547)	57.0	36.6	41.9	38.7	43.5	37.6	19.4	5.9	7.5	5.9	100.0
30-34세	(542)	47.0	53.5	53.5	37.8	34.6	28.1	20.5	6.5	5.9	5.4	100.0
35-39세	(615)	48.1	55.7	42.9	45.7	33.3	35.7	14.3	4.8	5.2	7.1	100.0
거주지역												
장안구	(516)	49.5	39.0	39.6	42.9	34.1	33.0	19.8	11.5	4.9	9.3	100.0
권선구	(722)	64.1	44.9	46.5	42.9	40.0	29.8	13.5	4.9	5.7	2.4	100.0
팔달구	(371)	50.8	38.9	35.7	43.7	42.1	42.9	21.4	4.8	11.1	3.2	100.0
영통구	(731)	53.8	50.6	44.5	36.8	40.5	39.3	14.6	5.7	4.0	6.1	100.0
취업상태												
취업	(1,308)	54.6	46.8	47.2	39.4	35.2	33.2	15.4	6.2	6.7	6.7	100.0
미취업	(1,032)	56.7	41.3	36.8	43.3	44.2	38.5	17.9	7.1	4.8	3.4	100.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487)	59.8	44.4	40.2	39.1	38.5	31.4	8.3	4.7	11.2	10.7	100.0
대학교 재학	(676)	66.2	32.9	35.5	39.4	46.8	42.4	13.0	9.1	3.0	4.3	100.0
대학교 졸업 이상	(1,177)	47.5	51.0	47.8	43.0	35.0	33.3	22.0	6.0	5.3	3.5	100.0

(7) 취업 희망

가. 희망 직업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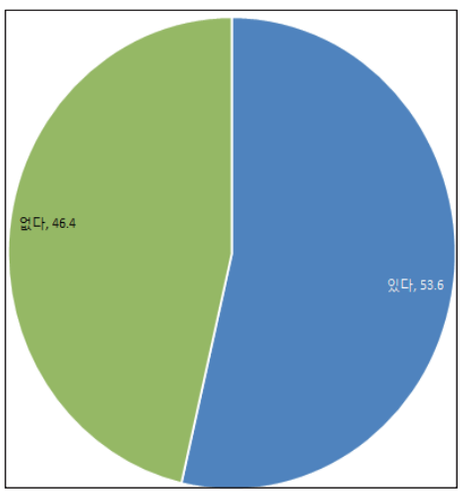
○ 응답자들의 53.6%가 희망하는 직업이 있다고 응답함

○ 성별에 따라서 긍정 응답률은 남성 54.9%, 여성 52.2%로 남성이 더 높게 나타남

○ 20대의 응답률이 30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는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더 희망 직업이 없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취업자의 46.3%, 미취업자의 63.0%가 희망하는 직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대학교 재학생의 긍정 응답률은 68.8%로 가장 높았고,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응답자의 긍정 응답률은 41.4%로 가장 낮았음



<그림 4-227> 희망하는 직업 여부

<표 4-236> 응답자 특성별 희망하는 직업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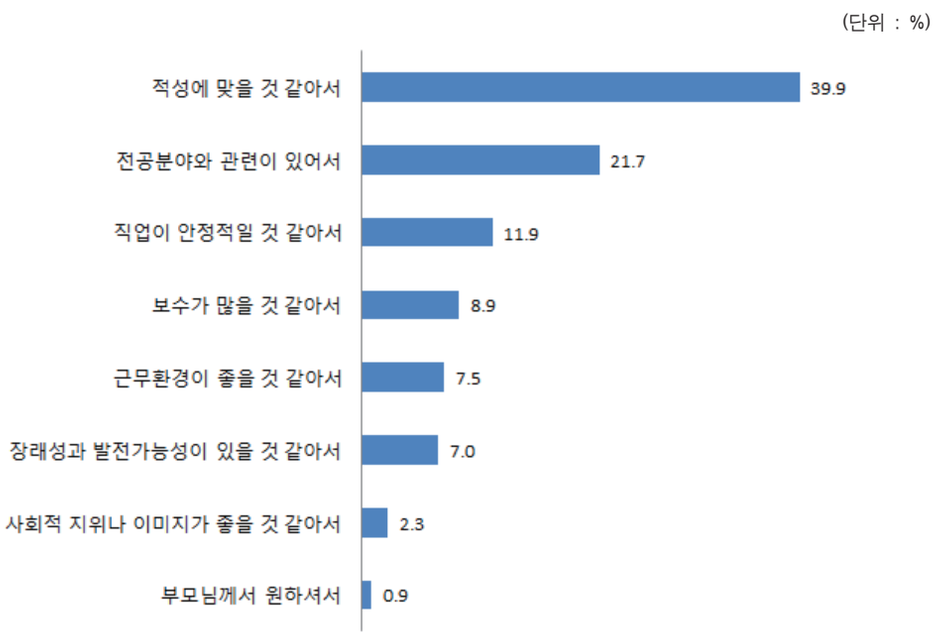
(단위 : %)

	사례수 (명)	있다	없다	계
전체	**(800)**	**53.6**	**46.4**	**100.0**
성별				
남성	(415)	54.9	45.1	100.0
여성	(385)	52.2	47.8	100.0
연령대				
20-24세	(219)	64.8	35.2	100.0
25-29세	(186)	64.5	35.5	100.0
30-34세	(185)	48.1	51.9	100.0
35-39세	(210)	37.1	62.9	100.0
거주지역				
장안구	(182)	54.9	45.1	100.0
권선구	(245)	62.0	38.0	100.0
팔달구	(126)	65.9	34.1	100.0
영통구	(247)	38.1	61.9	100.0
취업상태				
취업	(449)	46.3	53.7	100.0
미취업	(351)	63.0	37.0	100.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41.4	58.6	100.0
대학교 재학	(231)	68.8	31.2	100.0
대학교 졸업 이상	(400)	50.0	50.0	100.0

나. 직업 희망 이유

○ 희망 직업을 희망하는 이유에 대해 ‘적성에 맞을 것 같아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39.9%로 가장 높았음

- 이어서 ‘전공분야와 관련이 있어서’ 21.7%, ‘직업이 안정적일 것 같아서’ 11.9%,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4-228> 희망하는 이유

○ 성별에 관계없이 ‘적성에 맞을 것 같아서’ 희망 직업을 희망한다고 응답함 (남성 응답률 39.9%, 여성 응답률 39.8%)

○ 연령에 관계없이 ‘적성에 맞을 것 같아서’ 희망 직업을 희망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20~24세의 경우 ‘보수가 많을 것 같아서’나 ‘근무환경이 좋을 것 같아서’ 직업을 희망하는 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적성에 맞을 것 같아서’ 희망 직업을 희망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학력에 관계없이 ‘적성에 맞을 것 같아서’ 희망 직업을 희망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대학교 재학생의 경우 ‘전공분야와 관련이 있어서’ 직업을 희망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른 학력 응답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응답자는 직업의 안정성을 비교적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표 4-237> 응답자 특성별 희망하는 이유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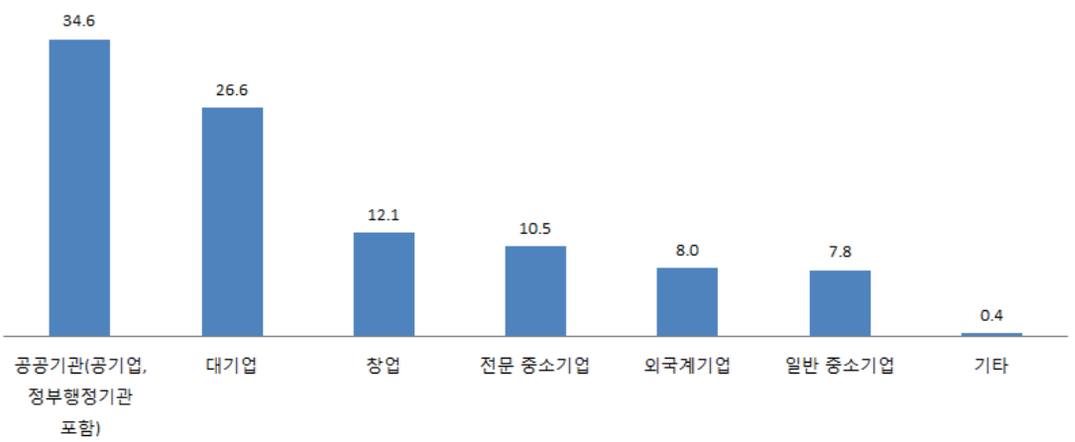
	사례수 (명)	적성에 맞을 것 같아서	전공분야와 관련이 있어서	직업이 안정적일 것 같아서	보수가 많을 것 같아서	근무환경이 좋을 것 같아서	장래성과 발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사회적 지위나 이미지가 좋을 것 같아서	부모님께서 원하셔서	계
전체	**(429)**	**39.9**	**21.7**	**11.9**	**8.9**	**7.5**	**7.0**	**2.3**	**0.9**	**100.0**
성별										
남성	(228)	39.9	22.4	10.1	9.2	5.3	9.6	2.2	1.3	100.0
여성	(201)	39.8	20.9	13.9	8.5	10.0	4.0	2.5	0.5	100.0
연령대										
20-24세	(142)	37.3	29.6	10.6	5.6	4.2	8.5	2.8	1.4	100.0
25-29세	(120)	45.0	17.5	10.8	12.5	6.7	5.0	2.5		100.0
30-34세	(89)	39.3	21.3	13.5	7.9	11.2	4.5	2.2		100.0
35-39세	(78)	37.2	14.1	14.1	10.3	10.3	10.3	1.3	2.6	100.0
거주지역										
장안구	(100)	40.0	23.0	10.0	8.0	8.0	7.0	3.0	1.0	100.0
권선구	(152)	40.1	23.7	13.8	11.2	5.3	3.9	0.7	1.3	100.0
팔달구	(83)	33.7	25.3	12.0	7.2	7.2	10.8	2.4	1.2	100.0
영통구	(94)	44.7	13.8	10.6	7.4	10.6	8.5	4.3		100.0
취업상태										
취업	(208)	40.4	16.8	11.1	14.4	5.3	7.7	3.4	1.0	100.0
미취업	(221)	39.4	26.2	12.7	3.6	9.5	6.3	1.4	0.9	100.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70)	47.1	15.7	4.3	14.3	4.3	10.0	4.3		100.0
대학교 재학	(159)	37.1	28.3	11.3	6.9	5.7	6.9	2.5	1.3	100.0
대학교 졸업 이상	(200)	39.5	18.5	15.0	8.5	10.0	6.0	1.5	1.0	100.0

다. 희망 기업 유형

○ 가장 많은 수의 응답자가 희망하는 기업 유형은 ‘공공기관(공기업, 정부행정 기관 포함)’인 것으로 나타남 (응답률 34.6%)

- 이어서 ‘대기업’ 26.6%, ‘창업’ 12.1%, ‘전문 중소기업’ 10.5% 등의 순으로 나타남

(단위 : %)



<그림 4-229> 일하고 싶은 기업 유형

○ 남성은 공공기관보다는 대기업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비율이 더 높았고, 여성은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이 41.3%로 가장 높았음

○ 20~24세의 경우 36.5%가 대기업에서 일하고 싶다고 응답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고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모두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24세는 창업에 대한 관심이 다른 연령대보다 적었음

○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싶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는데 창업에 대한 관심은 취업자가 미취업자의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 학력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응답자는 대기업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비율이 28.4%로 가장 높았고, 나머지 학력에서는 모두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응답자는 창업에 대한 관심이 다른 학력 응답자에 비해 많았으며 일반 중소기업을 희망하는 경우도 나머지의 2배 이상으로 나타남

<표 4-238> 응답자 특성별 일하고 싶은 기업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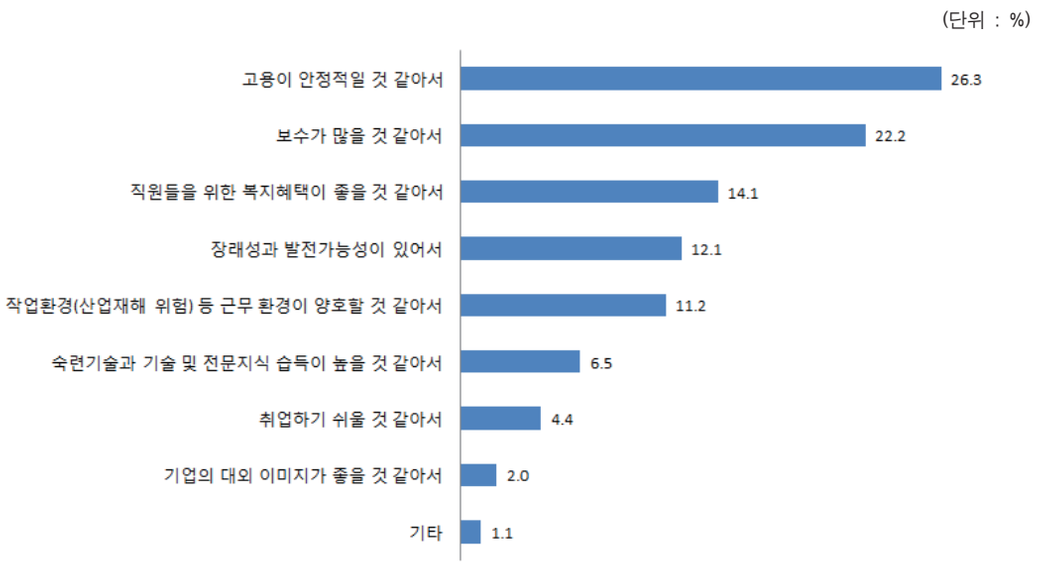
(단위 : %)

	사례수 (명)	공공기관 (공기업, 정부행정 기관 포함)	대기업	창업	전문 중소기업	외국계기업	일반 중소기업	기타	계
전체	**(800)**	**34.6**	**26.6**	**12.1**	**10.5**	**8.0**	**7.8**	**0.4**	**100.0**
성별									
남성	(415)	28.4	29.9	13.7	13.3	8.2	6.3	0.2	100.0
여성	(385)	41.3	23.1	10.4	7.5	7.8	9.4	0.5	100.0
연령대									
20-24세	(219)	33.3	36.5	4.1	8.2	9.1	7.8	0.9	100.0
25-29세	(186)	40.3	21.0	10.8	12.4	9.1	6.5		100.0
30-34세	(185)	32.4	27.6	17.3	10.3	5.9	6.5		100.0
35-39세	(210)	32.9	20.5	17.1	11.4	7.6	10.0	0.5	100.0
거주지역									
장안구	(182)	35.7	17.0	18.1	8.8	7.7	11.5	1.1	100.0
권선구	(245)	43.7	19.2	10.6	8.6	9.4	8.2	0.4	100.0
팔달구	(126)	34.9	27.0	8.7	15.1	6.3	7.9		100.0
영통구	(247)	24.7	40.9	10.9	11.3	7.7	4.5		100.0
취업상태									
취업	(449)	31.0	25.4	15.8	11.8	8.2	7.8		100.0
미취업	(351)	39.3	28.2	7.4	8.8	7.7	7.7	0.9	100.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20.7	28.4	21.3	10.1	5.3	14.2		100.0
대학교 재학	(231)	38.5	33.8	3.5	8.7	9.1	5.6	0.9	100.0
대학교 졸업 이상	(400)	38.3	21.8	13.3	11.8	8.5	6.3	0.3	100.0

라. 기업 희망 이유

○ 희망 기업을 선택한 이유로는 ‘고용이 안정적일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26.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이어서 ‘보수가 많을 것 같아서’ 22.2%, ‘직원들을 위한 복지혜택이 좋을 것 같아서’ 14.1%, ‘장래성과 발전기능성이 있어서’ 12.1%, ‘작업환경(산업재해 위험) 등 근무 환경이 양호할 것 같아서’ 11.2%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4-230> 그 기업유형을 선택한 주된 이유

○ 여성이 고용의 안정성을 가장 높은 비율로 선택한 반면 남성은 보수가 많을 것 같아서 기업유형을 희망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음

○ 20~24세의 경우 28.6%가 보수 때문에 특정 기업 유형을 희망한다고 응답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고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모두 고용의 안정성 때문에 그 기업유형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24세는 그 밖에도 다른 연령대와 달리 근무환경과 기술 및 지식 습득도 중요시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고용의 안정성이 주된 이유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취업자 응답률 28.0%, 미추업자 응답률 24.3%)

○ 학력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응답자와 대학교 재학생은 보수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대학교 졸업 이상 응답자는 고용의 안정성이 주된 이유라고 답함

<표 4-239> 응답자 특성별 그 기업유형을 선택한 주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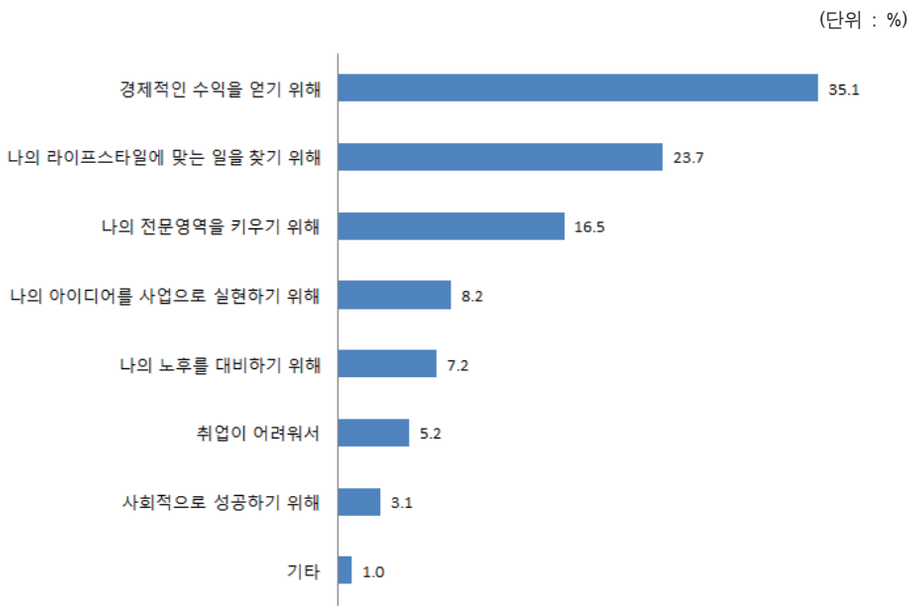
(단위 : %)

	사례수 (명)	고용이 안정적일 것 같아서	보수가 많을 것 같아서	직원들을 위한 복지혜택이 좋을 것 같아서	장래성과 발전가능성이 있어서	작업환경 (산업재해 위험) 등 근무 환경이 양호할 것 같아서	숙련기술과 기술 및 전문지식 습득이 높을 것 같아서	취업하기 쉬울 것 같아서	기업의 대외 이미지가 좋을 것 같아서	기타	계
전체	**(703)**	**26.3**	**22.2**	**14.1**	**12.1**	**11.2**	**6.5**	**4.4**	**2.0**	**1.1**	**100.0**
성별											
남성	(358)	25.4	25.7	12.3	13.1	8.7	9.2	2.2	2.5	0.8	100.0
여성	(345)	27.2	18.6	15.9	11.0	13.9	3.8	6.7	1.4	1.4	100.0
연령대											
20-24세	(210)	22.4	28.6	10.5	10.5	12.4	10.5	2.4	2.4	0.5	100.0
25-29세	(166)	25.9	16.9	12.0	16.9	11.4	7.2	5.4	3.0	1.2	100.0
30-34세	(153)	29.4	19.0	20.3	8.5	11.8	4.6	3.3	1.3	2.0	100.0
35-39세	(174)	28.7	22.4	14.9	12.6	9.2	2.9	6.9	1.1	1.1	100.0
거주지역											
장안구	(149)	28.9	20.1	11.4	13.4	9.4	8.1	4.7	1.3	2.7	100.0
권선구	(219)	29.7	20.5	13.2	13.2	9.1	6.4	5.5	1.4	0.9	100.0
팔달구	(115)	24.3	14.8	15.7	14.8	13.9	7.8	5.2	1.7	1.7	100.0
영통구	(220)	22.3	29.1	15.9	8.6	13.2	5.0	2.7	3.2		100.0
취업상태											
취업	(378)	28.0	21.2	15.6	13.2	9.8	5.8	2.9	2.1	1.3	100.0
미취업	(325)	24.3	23.4	12.3	10.8	12.9	7.4	6.2	1.8	0.9	100.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33)	21.1	29.3	8.3	12.0	8.3	9.0	8.3	3.0	0.8	100.0
대학교 재학	(223)	22.0	26.9	10.8	9.9	14.3	10.3	3.1	1.8	0.9	100.0
대학교 졸업 이상	(347)	31.1	16.4	18.4	13.5	10.4	3.2	3.7	1.7	1.4	100.0

마. 창업 결심의 이유

○ 창업을 결심한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 인 것으로 나타남 (응답률 35.1%)

- 이어서 ‘나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일을 찾기 위해’ 23.7%, ‘나의 전문영역을 키우기 위해’ 16.5%, ‘나의 아이디어를 사업으로 실현하기 위해’ 8.2%, ‘나의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7.2%, ‘취업이 어려워서’ 5.2%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4-231> 창업 생각을 갖게 된 가장 큰 이유

○ 남성은 경제적 수익을 얻기 위해 창업을 하고자 한다고 답한 비율이 43.9%로 가장 높았고, 여성은 본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일을 하기 위해 창업을 고려했다고 40.4%가 응답함

○ 25~29세의 경우 본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일을 찾기 위해 창업을 생각하게 되었다고 답한 비율이 35.0%로 가장 높았고,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경제적 수익을 얻기 위해 창업을 생각하게 되었다고 가장 높은 비율로 답함

- 20대의 경우 사회적 성공을 위해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는 전무했으며, 35~39세의 경우 본인의 전문영역을 키우거나 본인의 아이디어를 사업으로 실현하기 위해 창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음

○ 취업자는 경제적 수익을 위해 창업을 하고 싶다고 한 비율이 39.4%로 가장 높았고, 미취업자는 본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일을 찾고 싶어 창업을 생각했다는 응답과 본인의 전문 영역을 키우기 위해 창업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응답이 각각 26.9%로 가장 높았음

○ 학력에 관계없이 경제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 창업 생각을 가졌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 대학교 재학생의 경우에는 본인의 아이디어를 사업으로 실현하고자 창업을 생각하는 경우가 전체 응답자의 1/4을 차지해 다른 학력 응답자에 비해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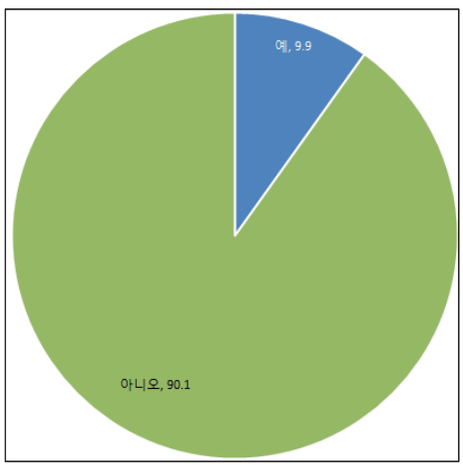
<표 4-240> 응답자 특성별 창업 생각을 갖게 된 가장 큰 이유

(단위 : %)

	사례 수 (명)	경제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	나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일을 찾기 위해	나의 전문영역을 키우기 위해	나의 아이디어를 사업으로 실현하기 위해	나의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취업이 어려워서	사회적으로 성공하기 위해	기타	계
전체	**(97)**	**35.1**	**23.7**	**16.5**	**8.2**	**7.2**	**5.2**	**3.1**	**1.0**	**100.0**
성별										
남성	(57)	43.9	12.3	15.8	12.3	7.0	5.3	3.5		100.0
여성	(40)	22.5	40.0	17.5	2.5	7.5	5.0	2.5	2.5	100.0
연령대										
20-24세	(9)	33.3	11.1	22.2	22.2		11.1			100.0
25-29세	(20)	20.0	35.0	20.0	5.0	20.0				100.0
30-34세	(32)	31.3	21.9	21.9	12.5		6.3	6.3		100.0
35-39세	(36)	47.2	22.2	8.3	2.8	8.3	5.6	2.8	2.8	100.0
거주지역										
장안구	(33)	45.5	15.2	12.1	9.1	9.1	6.1	3.0		100.0
권선구	(26)	23.1	23.1	34.6	3.8	3.8	7.7	3.8		100.0
팔달구	(11)	18.2	45.5	9.1	9.1	9.1	9.1			100.0
영통구	(27)	40.7	25.9	7.4	11.1	7.4		3.7	3.7	100.0
취업상태										
취업	(71)	39.4	22.5	12.7	8.5	8.5	4.2	4.2		100.0
미취업	(26)	23.1	26.9	26.9	7.7	3.8	7.7		3.8	100.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36)	47.2	25.0	11.1	2.8		8.3	5.6		100.0
대학교 재학	(8)	37.5	25.0	12.5	25.0					100.0
대학교 졸업 이상	(53)	26.4	22.6	20.8	9.4	13.2	3.8	1.9	1.9	100.0

바. 창업 경험

- 응답자들의 9.9%가 창업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 성별에 따라서 긍정 응답률은 남성 12.8%, 여성 6.8%로 남성이 더 높게 나타남
- 30대의 응답률이 20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는데 연령대가 낮을수록 창업 경험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영통구 거주자의 12.1%가 창업 경험이 있다고 응답해 가장 많았고 팔달구 거주자는 4.8%로 가장 적었음
- 취업자의 14.9%, 미취업자의 3.4%가 창업 경험이 있어 큰 차이를 보임



<그림 4-232> 창업 여부

- 대학교 재학생의 긍정 응답률은 3.9%로 가장 낮았고,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응답자의 긍정 응답률은 17.8%로 가장 높았음

<표 4-241> 응답자 특성별 창업 여부

(단위 : %)

	사례수 (명)	예	아니오	계
전체	**(800)**	**9.9**	**90.1**	**100.0**
성별				
남성	(415)	12.8	87.2	100.0
여성	(385)	6.8	93.2	100.0
연령대				
20-24세	(219)	1.4	98.6	100.0
25-29세	(186)	6.5	93.5	100.0
30-34세	(185)	14.6	85.4	100.0
35-39세	(210)	17.6	82.4	100.0
거주지역				
장안구	(182)	9.9	90.1	100.0
권선구	(245)	10.2	89.8	100.0
팔달구	(126)	4.8	95.2	100.0
영통구	(247)	12.1	87.9	100.0
취업상태				
취업	(449)	14.9	85.1	100.0
미취업	(351)	3.4	96.6	100.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17.8	82.2	100.0
대학교 재학	(231)	3.9	96.1	100.0
대학교 졸업 이상	(400)	10.0	90.0	100.0

사. 고시 준비 경험

○ 응답자들의 약 1/4인 24.4%가 고시 준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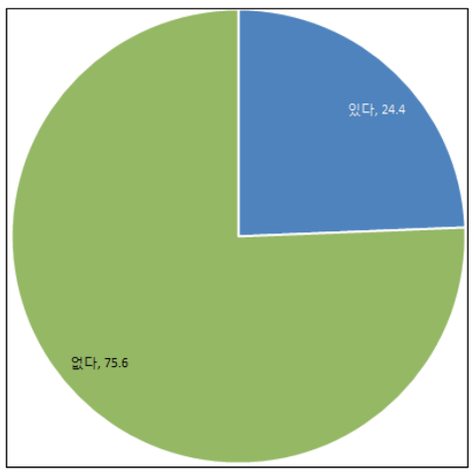
○ 성별에 따라서 긍정 응답률은 남성 19.5%, 여성 29.6%로 여성이 10% 정도 더 높게 나타남

○ 25~29세의 긍정 응답률이 31.7%로 가장 높았고 35~39세의 응답률이 21.0%로 가장 낮았음

○ 팔달구 거주자의 35.7%가 고시 준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해 가장 많았고 영통구 거주자는 18.2%로 가장 낮았음

○ 취업자의 21.8%, 미취업자의 27.6%가 고시 준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대학교 졸업 이상 응답자의 긍정 응답률은 29.8%로 가장 높았고,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응답자의 긍정 응답률은 7.7%로 매우 낮았음



<그림 4-233>
공무원/공사/교원/국가자격시험 준비 경험 여부

<표 4-242> 응답자 특성별 공무원/공사/교원/국가자격시험 준비 경험 여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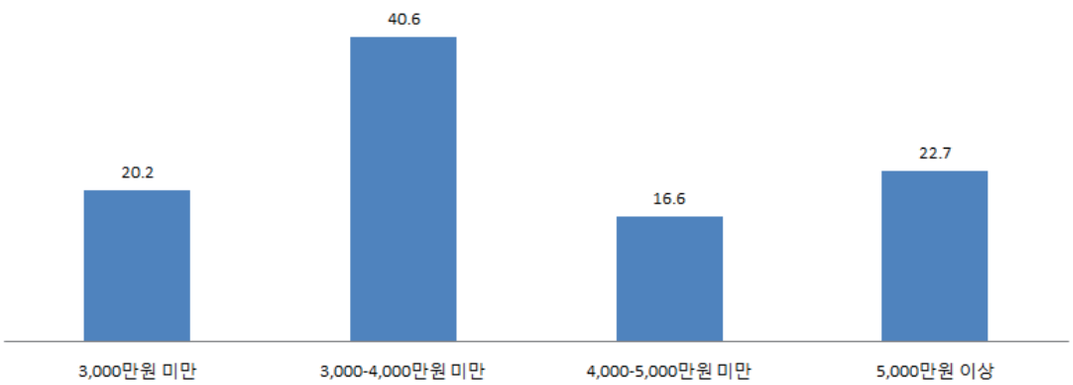
	사례수 (명)	있다	없다	계
전체	**(800)**	**24.4**	**75.6**	**100.0**
성별				
남성	(415)	19.5	80.5	100.0
여성	(385)	29.6	70.4	100.0
연령대				
20-24세	(219)	21.9	78.1	100.0
25-29세	(186)	31.7	68.3	100.0
30-34세	(185)	23.8	76.2	100.0
35-39세	(210)	21.0	79.0	100.0
거주지역				
장안구	(182)	23.1	76.9	100.0
권선구	(245)	25.7	74.3	100.0
팔달구	(126)	35.7	64.3	100.0
영통구	(247)	18.2	81.8	100.0
취업상태				
취업	(449)	21.8	78.2	100.0
미취업	(351)	27.6	72.4	100.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7.7	92.3	100.0
대학교 재학	(231)	27.3	72.7	100.0
대학교 졸업 이상	(400)	29.8	70.3	100.0

아. 희망 소득

○ 응답자들의 평균 희망 연봉은 5113.2만원인 것으로 나타남

- 3,000~4,000만원이 40.6%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5,000만원 이상 22.7%, 3,000만원 미만 20.2%, 4,000~5,000만원 미만 16.6% 순으로 나타남

(단위 : %)



<그림 4-234> 희망 연봉

○ 남성의 희망연봉의 평균은 4373.1만원으로 여성의 희망연봉인 5911.0만원에 비해 낮게 나타남

- 남성의 경우 5,000만원 이상의 연봉을 희망하는 경우가 1/3을 차지해 가장 많았고, 여성의 49.5%는 3,000~4,000만원 미만의 연봉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24세의 평균 희망 연봉은 8,032.9만원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매우 높았고 25~29세의 평균 희망 연봉은 3,577.3만원으로 가장 낮았음

- 35~39세의 경우 희망 연봉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가 36.2%로 가장 높았고, 나머지 연령대는 3,000~4,000만원 미만의 연봉을 희망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음

○ 팔달구 거주자의 평균 희망 연봉은 11,528.2만원으로 다른 지역 거주자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남

○ 취업자의 평균 희망 연봉은 4,151.2만원이고 미취업자의 평균은 6,343.8만원으로 미취업자의 평균 희망 연봉이 취업자의 희망 연봉보다 약 1.5배 정도 높았음

○ 대학교 재학생의 평균 희망 연봉은 7,894.7만원으로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응답자의 평균인 3,731.1만원의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243> 응답자 특성별 희망 연봉

(단위 : %, 만원)

	사례수 (명)	3,000만원 미만	3,000-4,000 만원 미만	4,000-5,000 만원 미만	5,000만원 이상	계	평균
전체	**(799)**	**20.2**	**40.6**	**16.6**	**22.7**	**100.0**	**5113.2**
성별							
남성	(415)	12.0	32.3	22.4	33.3	100.0	4373.1
여성	(384)	28.9	49.5	10.4	11.2	100.0	5911.0
연령대							
20-24세	(218)	28.0	44.5	12.8	14.7	100.0	8032.9
25-29세	(186)	22.6	45.7	18.3	13.4	100.0	3577.3
30-34세	(185)	13.5	42.7	17.8	25.9	100.0	4091.9
35-39세	(210)	15.7	30.0	18.1	36.2	100.0	4328.4
거주지역							
장안구	(182)	18.7	40.1	14.8	26.4	100.0	4048.1
권선구	(245)	19.6	40.4	16.3	23.7	100.0	3858.4
팔달구	(125)	28.0	43.2	12.8	16.0	100.0	11528.2
영통구	(247)	17.8	39.7	20.2	22.3	100.0	3870.1
취업상태							
취업	(449)	17.4	33.6	19.2	29.8	100.0	4151.2
미취업	(350)	23.7	49.4	13.4	13.4	100.0	6343.8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21.3	39.6	18.9	20.1	100.0	3731.1
대학교 재학	(230)	23.9	47.0	14.8	14.3	100.0	7894.7
대학교 졸업 이상	(400)	17.5	37.3	16.8	28.5	100.0	4090.8

(8) 직업 선택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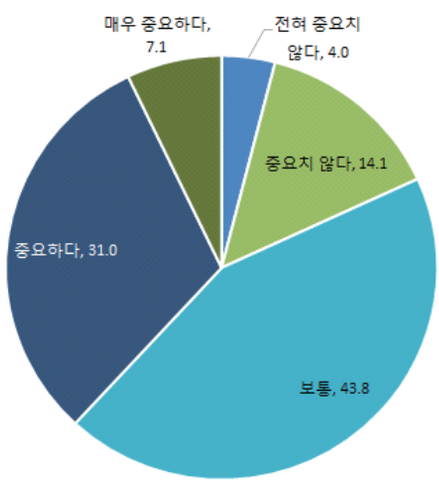
가. 직업 선택시 중요한 기준

■ 혼자 작업 가능 여부

○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 일하기보다는 혼자 일할 수 있다’ 는 점을 직업 선택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평균 점수는 3.2인 것으로 나타남

- ‘보통이다’ 라는 응답이 43.8%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단위 : %)



<그림 4-235> 업무 독립성 중요도

○ 남성의 평균은 3.2, 여성의 평균은 3.3으로 여성의 평균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남 (남성 긍정응답률 35.9%, 여성 긍정응답률 40.5%)

○ 30~34세의 평균이 3.3으로 가장 높았고 나머지 연령대의 평균은 모두 3.2로 나타남

- 25~34세는 ‘보통이다’ 라는 응답보다 긍정응답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영통구 거주자의 평균이 3.4로 가장 높고 장안구 거주자의 평균은 3.0으로 가장 낮았음

○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평균은 모두 3.2로 나타남

○ 대학교 재학생과 대학교 졸업 이상 응답자의 평균은 3.2로 나타난데 반해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응답자의 평균은 3.4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4-244> 응답자 특성별 업무 독립성 중요도

(단위 :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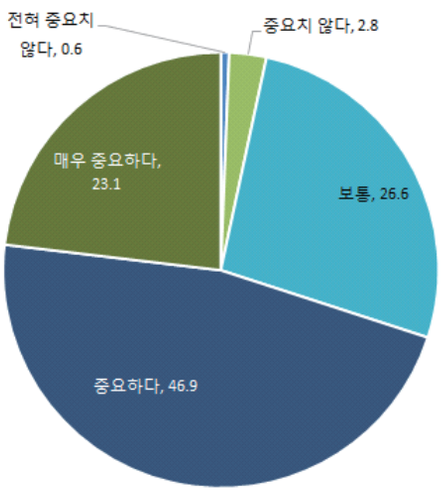
	사례수 (명)	전혀 중요치 않다	←	①+②	보통이다	→	매우 중요하다	④+⑤	계	평균
전체	**(800)**	**4.0**	**14.1**	**18.1**	**43.8**	**31.0**	**7.1**	**38.1**	**100.0**	**3.2**
성별										
남성	(415)	4.8	14.0	18.8	45.3	29.6	6.3	35.9	100.0	3.2
여성	(385)	3.1	14.3	17.4	42.1	32.5	8.1	40.5	100.0	3.3
연령대										
20-24세	(219)	3.7	14.2	17.8	47.5	26.5	8.2	34.7	100.0	3.2
25-29세	(186)	5.4	15.1	20.4	38.7	33.3	7.5	40.9	100.0	3.2
30-34세	(185)	3.8	12.4	16.2	40.0	36.2	7.6	43.8	100.0	3.3
35-39세	(210)	3.3	14.8	18.1	47.6	29.0	5.2	34.3	100.0	3.2
거주지역										
장안구	(182)	8.2	17.0	25.3	46.2	22.0	6.6	28.6	100.0	3.0
권선구	(245)	3.7	13.5	17.1	42.4	33.9	6.5	40.4	100.0	3.3
팔달구	(126)	1.6	17.5	19.0	50.0	21.4	9.5	31.0	100.0	3.2
영통구	(247)	2.4	10.9	13.4	40.1	39.7	6.9	46.6	100.0	3.4
취업상태										
취업	(449)	4.5	13.6	18.0	41.4	33.6	6.9	40.5	100.0	3.2
미취업	(351)	3.4	14.8	18.2	46.7	27.6	7.4	35.0	100.0	3.2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3.6	10.7	14.2	43.8	30.8	11.2	42.0	100.0	3.4
대학교 재학	(231)	4.8	15.2	19.9	42.9	29.0	8.2	37.2	100.0	3.2
대학교 졸업 이상	(400)	3.8	15.0	18.8	44.3	32.3	4.8	37.0	100.0	3.2

■ 금전적 보상

○ ‘금전적으로 보상이 충분하다’ 는 점을 직업 선택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평균 점수는 3.9로 높게 나타남

- 긍정 응답률이 70.0%로 높게 나타남

(단위 : %)



<그림 4-236> 충분한 금전적 보상 중요도

○ 남성의 평균은 3.8, 여성의 평균은 3.9로 여성의 평균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남 (남성 긍정 응답률 67.2%, 여성 긍정응답률 73.0%)

○ 20대의 평균이 3.8이고 35~39세의 평균이 4.0으로 가장 높았음

- 긍정 응답률 역시 35~39세가 74.3%로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음

○ 취업자의 평균은 4.0, 미취업자의 평균은 3.8로 취업자가 미취업자에 비해 금전적 보상을 더 중요시하는 것으로 보임

○ 대학교 재학생과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응답자의 평균은 3.8로 나타난데 반해 대학교 졸업 이상 응답자의 평균은 4.0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긍정 응답률 역시 대학교 졸업 이상 응답자가 76.0%로 다른 학력보다 높았음

<표 4-245> 응답자 특성별 충분한 금전적 보상 중요도

(단위 :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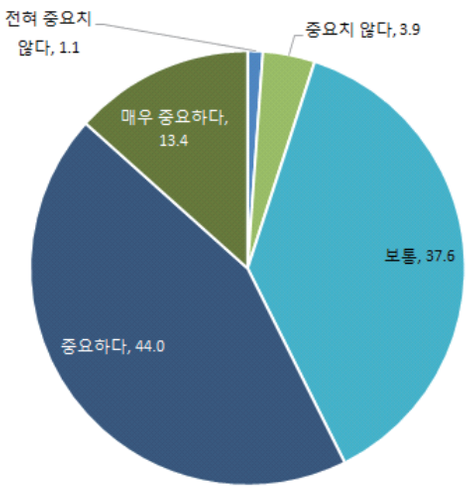
	사례수 (명)	전혀 중요치 않다	←	①+②	보통이다	→	매우 중요하다	④+⑤	계	평균
전체	**(800)**	**0.6**	**2.8**	**3.4**	**26.6**	**46.9**	**23.1**	**70.0**	**100.0**	**3.9**
성별										
남성	(415)	1.2	3.4	4.6	28.2	44.6	22.7	67.2	100.0	3.8
여성	(385)		2.1	2.1	24.9	49.4	23.6	73.0	100.0	3.9
연령대										
20-24세	(219)	1.4	1.8	3.2	28.8	46.6	21.5	68.0	100.0	3.8
25-29세	(186)	0.5	4.8	5.4	26.9	45.2	22.6	67.7	100.0	3.8
30-34세	(185)	0.5	2.7	3.2	27.0	44.3	25.4	69.7	100.0	3.9
35-39세	(210)		1.9	1.9	23.8	51.0	23.3	74.3	100.0	4.0
거주지역										
장안구	(182)	0.5	2.7	3.3	21.4	53.8	21.4	75.3	100.0	3.9
권선구	(245)	0.8	2.9	3.7	30.6	38.8	26.9	65.7	100.0	3.9
팔달구	(126)		3.2	3.2	31.0	39.7	26.2	65.9	100.0	3.9
영통구	(247)	0.8	2.4	3.2	24.3	53.4	19.0	72.5	100.0	3.9
취업상태										
취업	(449)	0.2	2.7	2.9	22.7	46.1	28.3	74.4	100.0	4.0
미취업	(351)	1.1	2.8	4.0	31.6	47.9	16.5	64.4	100.0	3.8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0.6	3.0	3.6	32.5	44.4	19.5	63.9	100.0	3.8
대학교 재학	(231)	1.3	3.0	4.3	31.6	43.3	20.8	64.1	100.0	3.8
대학교 졸업 이상	(400)	0.3	2.5	2.8	21.3	50.0	26.0	76.0	100.0	4.0

■ 타인으로부터의 인정

○ ‘타인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직업 선택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평균 점수는 3.6으로 보통보다 높게 나타남

- 긍정 응답률이 57.4%로 높게 나타남

(단위 : %)



<그림 4-237> 타인의 인정 중요도

○ 남성의 평균은 3.6, 여성의 평균은 3.7로 여성의 평균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남 (남성 긍정 응답률 54.5%, 여성 긍정응답률 60.5%)

○ 20~24세의 평균이 3.5로 가장 낮고 25~29세와 35~39세의 평균이 3.7로 가장 높았음

- 긍정 응답률은 35~39세가 63.8%로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음

○ 취업자의 평균은 3.7, 미취업자의 평균은 3.6으로 취업자가 미취업자에 비해 약간 더 높은 평균값을 보임

○ 대학교 졸업 이상 응답자의 평균은 3.7로 다른 학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긍정 응답률 역시 대학교 졸업 이상 응답자가 64.0%로 다른 학력보다 높았음

<표 4-246> 응답자 특성별 타인의 인정 중요도

(단위 :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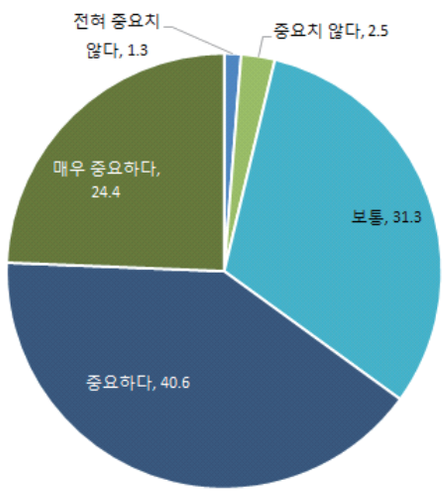
	사례수 (명)	전혀 중요치 않다	←	①+②	보통이다	→	매우 중요하다	④+⑤	계	평균
전체	**(800)**	**1.1**	**3.9**	**5.0**	**37.6**	**44.0**	**13.4**	**57.4**	**100.0**	**3.6**
성별										
남성	(415)	1.2	5.1	6.3	39.3	41.0	13.5	54.5	100.0	3.6
여성	(385)	1.0	2.6	3.6	35.8	47.3	13.2	60.5	100.0	3.7
연령대										
20-24세	(219)	1.8	5.0	6.8	41.6	40.2	11.4	51.6	100.0	3.5
25-29세	(186)		5.4	5.4	35.5	44.6	14.5	59.1	100.0	3.7
30-34세	(185)	1.6	2.2	3.8	41.1	40.0	15.1	55.1	100.0	3.6
35-39세	(210)	1.0	2.9	3.8	32.4	51.0	12.9	63.8	100.0	3.7
거주지역										
장안구	(182)	1.6	4.9	6.6	41.2	37.4	14.8	52.2	100.0	3.6
권선구	(245)	0.4	2.4	2.9	37.6	43.7	15.9	59.6	100.0	3.7
팔달구	(126)	1.6	4.8	6.3	38.1	36.5	19.0	55.6	100.0	3.7
영통구	(247)	1.2	4.0	5.3	34.8	53.0	6.9	59.9	100.0	3.6
취업상태										
취업	(449)	1.3	3.1	4.5	36.3	43.9	15.4	59.2	100.0	3.7
미취업	(351)	0.9	4.8	5.7	39.3	44.2	10.8	55.0	100.0	3.6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1.8	1.8	3.6	46.2	33.1	17.2	50.3	100.0	3.6
대학교 재학	(231)	0.9	7.4	8.2	40.7	39.8	11.3	51.1	100.0	3.5
대학교 졸업 이상	(400)	1.0	2.8	3.8	32.3	51.0	13.0	64.0	100.0	3.7

■ 고용의 안정성

○ ‘고용이 안정되어 있어서 정년까지 일할 수 있다’ 는 점을 직업 선택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평균 점수는 3.8로 높게 나타남

- 긍정 응답률이 65.0%로 높게 나타남

(단위 : %)



<그림 4-238> 고용의 안정성 중요도

○ 남성의 평균은 3.8, 여성의 평균은 3.9로 여성의 평균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남 (남성 긍정응답률 61.7%, 여성 긍정응답률 68.6%)

○ 20~24세의 평균이 3.8로 가장 낮고 나머지 연령대의 평균은 모두 3.9로 나타남

○ 취업자의 평균은 3.9, 미취업자의 평균은 3.8로 취업자가 미취업자에 비해 약간 더 높은 평균값을 보임

○ 대학교 졸업 이상 응답자의 평균은 3.9로 다른 학력에 비해 약간 높게 나타남

- 긍정 응답률 역시 대학교 졸업 이상 응답자가 70.5%로 다른 학력보다 높았음

<표 4-247> 응답자 특성별 고용의 안정성 중요도

(단위 :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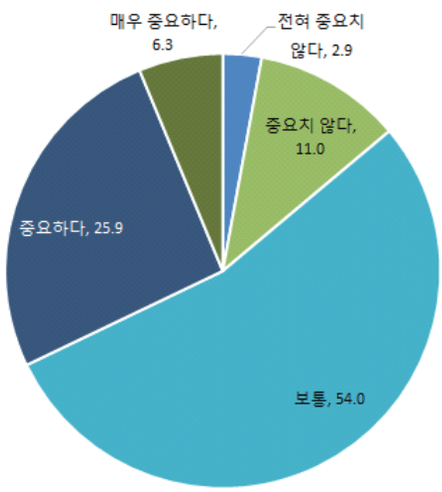
	사례수 (명)	전혀 중요치 않다	←	①+②	보통이다	→	매우 중요하다	④+⑤	계	평균
전체	**(800)**	**1.3**	**2.5**	**3.8**	**31.3**	**40.6**	**24.4**	**65.0**	**100.0**	**3.8**
성별										
남성	(415)	1.9	3.1	5.1	33.3	40.5	21.2	61.7	100.0	3.8
여성	(385)	0.5	1.8	2.3	29.1	40.8	27.8	68.6	100.0	3.9
연령대										
20-24세	(219)	0.9	2.7	3.7	32.9	44.3	19.2	63.5	100.0	3.8
25-29세	(186)	0.5	3.2	3.8	31.2	38.7	26.3	65.1	100.0	3.9
30-34세	(185)	1.6	2.2	3.8	28.6	42.7	24.9	67.6	100.0	3.9
35-39세	(210)	1.9	1.9	3.8	31.9	36.7	27.6	64.3	100.0	3.9
거주지역										
장안구	(182)	2.7	3.8	6.6	28.0	39.6	25.8	65.4	100.0	3.8
권선구	(245)	0.4	1.2	1.6	30.6	41.6	26.1	67.8	100.0	3.9
팔달구	(126)	3.2	3.2	6.3	29.4	33.3	31.0	64.3	100.0	3.9
영통구	(247)		2.4	2.4	35.2	44.1	18.2	62.3	100.0	3.8
취업상태										
취업	(449)	1.3	2.4	3.8	29.6	40.3	26.3	66.6	100.0	3.9
미취업	(351)	1.1	2.6	3.7	33.3	41.0	21.9	63.0	100.0	3.8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1.2	4.1	5.3	38.5	34.3	21.9	56.2	100.0	3.7
대학교 재학	(231)	0.9	3.5	4.3	33.8	42.9	19.0	61.9	100.0	3.8
대학교 졸업 이상	(400)	1.5	1.3	2.8	26.8	42.0	28.5	70.5	100.0	3.9

■ 업무의 유연성

○ ‘업무가 정형화되지 않고 변화가 많다’ 는 점을 직업 선택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평균 점수는 3.2로 보통을 약간 넘는 것으로 나타남

- ‘보통이다’ 라는 응답이 54.0%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단위 : %)



<그림 4-239> 업무의 유연성 중요도

○ 성별에 관계없이 남녀 모두 평균이 3.2로 나타남

○ 30~34세의 평균이 3.1로 가장 낮고 35~39세의 평균이 3.3으로 가장 높음

○ 취업자의 평균은 3.3, 미취업자의 평균은 3.2로 취업자가 미취업자에 비해 약간 더 높은 평균값을 보임

○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응답자의 평균은 3.4로 다른 학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4-248> 응답자 특성별 업무의 유연성 중요도

(단위 :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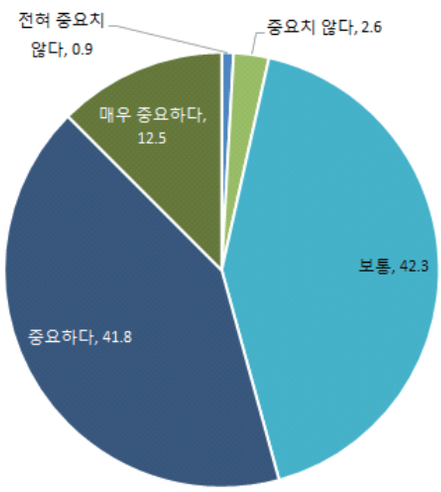
	사례수 (명)	전혀 중요치 않다	←	①+②	보통이다	→	매우 중요하다	④+⑤	계	평균
전체	**(800)**	**2.9**	**11.0**	**13.9**	**54.0**	**25.9**	**6.3**	**32.1**	**100.0**	**3.2**
성별										
남성	(415)	3.6	8.4	12.0	55.9	26.5	5.5	32.0	100.0	3.2
여성	(385)	2.1	13.8	15.8	51.9	25.2	7.0	32.2	100.0	3.2
연령대										
20-24세	(219)	2.3	12.3	14.6	53.9	26.5	5.0	31.5	100.0	3.2
25-29세	(186)	3.2	10.8	14.0	53.8	24.7	7.5	32.3	100.0	3.2
30-34세	(185)	5.9	12.4	18.4	50.3	24.9	6.5	31.4	100.0	3.1
35-39세	(210)	0.5	8.6	9.0	57.6	27.1	6.2	33.3	100.0	3.3
거주지역										
장안구	(182)	4.4	15.4	19.8	54.9	22.5	2.7	25.3	100.0	3.0
권선구	(245)	2.0	9.8	11.8	53.9	26.5	7.8	34.3	100.0	3.3
팔달구	(126)	2.4	8.7	11.1	57.1	19.0	12.7	31.7	100.0	3.3
영통구	(247)	2.8	10.1	13.0	51.8	31.2	4.0	35.2	100.0	3.2
취업상태										
취업	(449)	2.9	10.0	12.9	52.1	28.1	6.9	35.0	100.0	3.3
미취업	(351)	2.8	12.3	15.1	56.4	23.1	5.4	28.5	100.0	3.2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3.0	7.1	10.1	51.5	27.2	11.2	38.5	100.0	3.4
대학교 재학	(231)	3.0	11.3	14.3	54.5	26.8	4.3	31.2	100.0	3.2
대학교 졸업 이상	(400)	2.8	12.5	15.3	54.8	24.8	5.3	30.0	100.0	3.2

■ 업무의 자율성

○ ‘자율적으로 업무를 해나갈 수 있다’ 는 점을 직업 선택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평균 점수는 3.6으로 보통을 넘는 것으로 나타남

- 긍정 응답률이 54.3%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단위 : %)



<그림 4-240> 업무의 자율성 중요도

○ 성별에 관계없이 남녀 모두 평균이 3.6으로 나타남

○ 35~39세의 평균이 3.7로 다른 연령대의 평균인 3.6에 비해 약간 높게 나타남

○ 취업자의 평균은 3.7, 미취업자의 평균은 3.5로 취업자가 미취업자에 비해 더 높은 평균값을 보임

○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응답자의 평균은 3.7로 다른 학력의 평균인 3.6에 비해 약간 높게 나타남

<표 4-249> 응답자 특성별 업무의 자율성 중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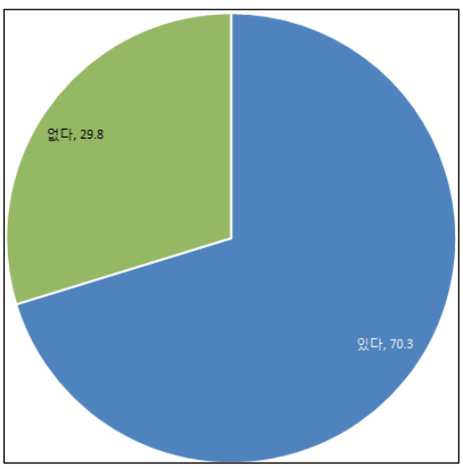
(단위 : %, 점)

	사례수 (명)	전혀 중요치 않다	←	①+②	보통이다	→	매우 중요하다	④+⑤	계	평균
전체	**(800)**	**0.9**	**2.6**	**3.5**	**42.3**	**41.8**	**12.5**	**54.3**	**100.0**	**3.6**
성별										
남성	(415)	0.7	2.4	3.1	43.1	41.0	12.8	53.7	100.0	3.6
여성	(385)	1.0	2.9	3.9	41.3	42.6	12.2	54.8	100.0	3.6
연령대										
20-24세	(219)	1.8	3.2	5.0	42.5	39.3	13.2	52.5	100.0	3.6
25-29세	(186)	0.5	3.2	3.8	41.9	42.5	11.8	54.3	100.0	3.6
30-34세	(185)	1.1	2.2	3.2	44.3	40.0	12.4	52.4	100.0	3.6
35-39세	(210)		1.9	1.9	40.5	45.2	12.4	57.6	100.0	3.7
거주지역										
장안구	(182)	2.2	3.3	5.5	39.6	42.9	12.1	54.9	100.0	3.6
권선구	(245)	0.4	1.2	1.6	43.7	40.0	14.7	54.7	100.0	3.7
팔달구	(126)	0.8	4.0	4.8	46.8	32.5	15.9	48.4	100.0	3.6
영통구	(247)	0.4	2.8	3.2	40.5	47.4	8.9	56.3	100.0	3.6
취업상태										
취업	(449)	0.4	1.8	2.2	38.1	46.5	13.1	59.7	100.0	3.7
미취업	(351)	1.4	3.7	5.1	47.6	35.6	11.7	47.3	100.0	3.5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0.6	0.6	46.2	36.1	17.2	53.3	100.0	3.7
대학교 재학	(231)	1.7	3.5	5.2	44.6	36.8	13.4	50.2	100.0	3.6
대학교 졸업 이상	(400)	0.8	3.0	3.8	39.3	47.0	10.0	57.0	100.0	3.6

(9) 아르바이트

가. 아르바이트 경험

- 응답자들의 70.3%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었음
- 성별에 따라서 긍정 응답률은 남성 71.1%, 여성 69.4%로 남성이 더 높게 나타남
- 20~24세의 긍정 응답률이 77.6%로 가장 높았고 35~39세의 응답률이 60.5%로 가장 낮아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아르바이트 경험이 적었음
- 장안구 거주자의 79.1%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해 가장 많았고 영통구 거주자는 60.3%로 가장 낮았음
- 취업자의 68.8%, 미취업자의 72.1%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해 미취업자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 대학교 재학생의 긍정 응답률은 78.4%로 가장 높았고,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응답자의 긍정 응답률은 54.4%로 낮았음



<그림 4-241>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

<표 4-250> 응답자 특성별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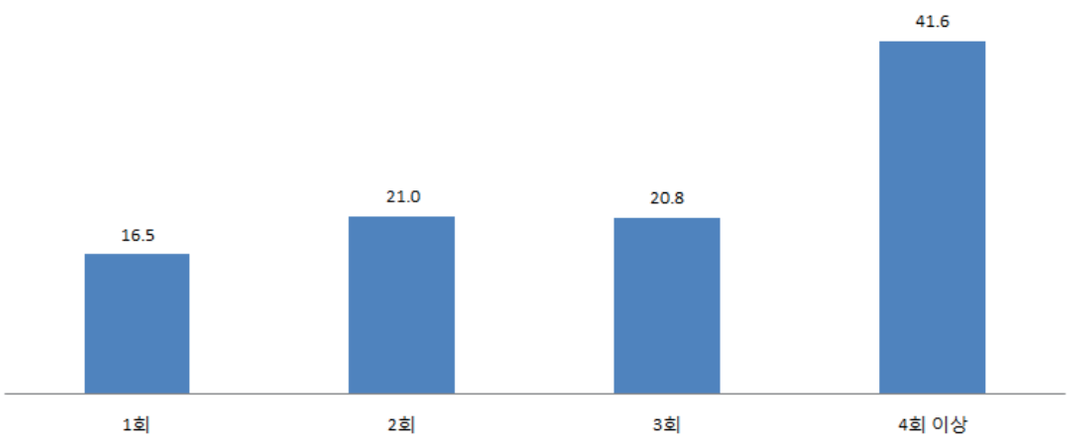
	사례수 (명)	있다	없다	계
전체	**(800)**	**70.3**	**29.8**	**100.0**
성별				
남성	(415)	71.1	28.9	100.0
여성	(385)	69.4	30.6	100.0
연령대				
20-24세	(219)	77.6	22.4	100.0
25-29세	(186)	75.8	24.2	100.0
30-34세	(185)	67.0	33.0	100.0
35-39세	(210)	60.5	39.5	100.0
거주지역				
장안구	(182)	79.1	20.9	100.0
권선구	(245)	72.2	27.8	100.0
팔달구	(126)	73.0	27.0	100.0
영통구	(247)	60.3	39.7	100.0
취업상태				
취업	(449)	68.8	31.2	100.0
미취업	(351)	72.1	27.9	100.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54.4	45.6	100.0
대학교 재학	(231)	78.4	21.6	100.0
대학교 졸업 이상	(400)	72.3	27.8	100.0

■ 아르바이트 횟수

○ 응답자들의 평균 아르바이트 횟수는 4.1회인 것으로 나타남

- 4회 이상이 41.6%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3회 28.0%, 2회 21.0%, 1회 16.5% 순으로 나타남

(단위 : %)



<그림 4-242> 아르바이트 횟수

○ 남성의 평균은 4.5회, 여성의 평균은 3.7회로 남성이 더 아르바이트 횟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20~24세의 평균 아르바이트 횟수는 3.3회로 가장 적었고 30~39세의 평균이 4.9회로 높게 나타남

○ 권선구 거주자의 아르바이트 횟수 평균이 3.7회로 가장 적었고 장안구와 팔달구 거주자의 경우 4.5회로 가장 많았음

○ 취업자의 평균은 4.4회이고 미취업자의 평균은 3.8회로 나타남

○ 대학교 재학생의 평균은 3.7회로 가장 적었고, 대학교 졸업 이상 응답자의 평균은 4.5회로 높게 나타남

<표 4-251> 응답자 특성별 아르바이트 횟수

(단위 : %,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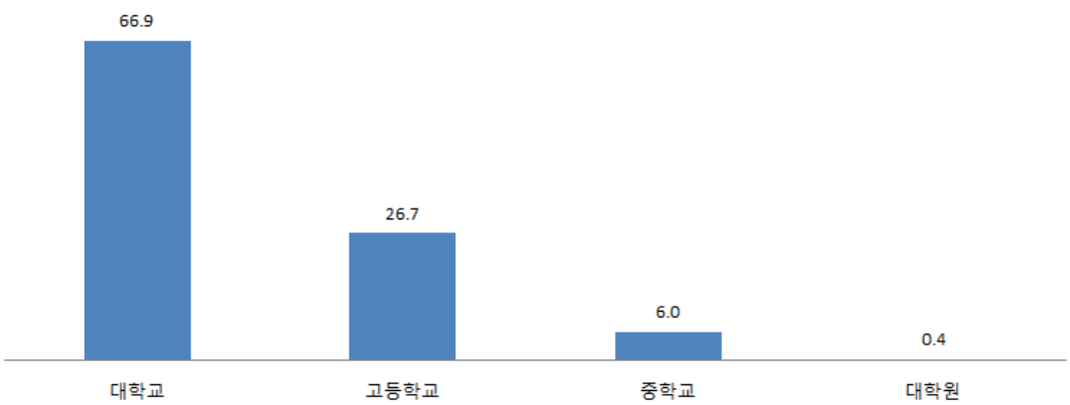
	사례수 (명)	1회	2회	3회	4회 이상	계	평균
전체	**(562)**	**16.5**	**21.0**	**20.8**	**41.6**	**100.0**	**4.1**
성별							
남성	(295)	14.2	19.0	19.0	47.8	100.0	4.5
여성	(267)	19.1	23.2	22.8	34.8	100.0	3.7
연령대							
20-24세	(170)	20.6	21.8	27.1	30.6	100.0	3.3
25-29세	(141)	12.8	18.4	17.0	51.8	100.0	4.6
30-34세	(124)	14.5	21.0	19.4	45.2	100.0	4.9
35-39세	(127)	17.3	22.8	18.1	41.7	100.0	4.0
거주지역							
장안구	(144)	6.3	24.3	21.5	47.9	100.0	4.5
권선구	(177)	22.0	23.2	16.9	37.9	100.0	3.7
팔달구	(92)	21.7	17.4	20.7	40.2	100.0	4.5
영통구	(149)	16.8	17.4	24.8	40.9	100.0	4.1
취업상태							
취업	(309)	13.3	23.3	18.4	45.0	100.0	4.4
미취업	(253)	20.6	18.2	23.7	37.5	100.0	3.8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92)	20.7	21.7	23.9	33.7	100.0	3.8
대학교 재학	(181)	19.3	18.8	23.8	38.1	100.0	3.7
대학교 졸업 이상	(289)	13.5	22.1	18.0	46.4	100.0	4.5

나. 최초 아르바이트 시작 시기

○ 아르바이트를 최초로 시작한 시기는 대학교가 66.9%로 가장 많았음

- 이어서 고등학교 26.7%, 중학교 6.0%, 대학원 0.4% 순으로 나타남

(단위 : %)



<그림 4-243> 최초 아르바이트 시작 시기

○ 성별에 관계없이 모두 대학교 때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남성의 경우 중학교 시절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비율이 7.5%로 여성의 4.5%보다 높게 나타남

○ 연령에 관계없이 대학교 때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고등학교 때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경우는 25~29세가 29.1%로 가장 높았고 중학교는 20~24세가 7.1%로 가장 많았음

○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대학교 때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영통구가 그 비율이 75.8%로 다른 지역 거주자에 비해 높았음

<표 4-252> 응답자 특성별 최초 아르바이트 시작 시기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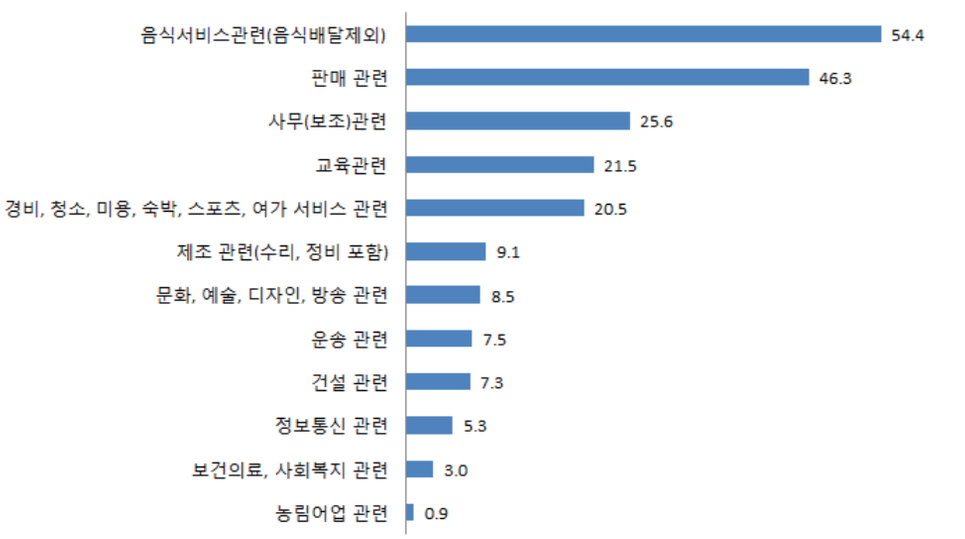
	사례수 (명)	대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대학원	계
전체	**(562)**	**66.9**	**26.7**	**6.0**	**0.4**	**100.0**
성별						
남성	(295)	66.8	25.4	7.5	0.3	100.0
여성	(267)	67.0	28.1	4.5	0.4	100.0
연령대						
20-24세	(170)	68.8	23.5	7.1	0.6	100.0
25-29세	(141)	66.0	29.1	4.3	0.7	100.0
30-34세	(124)	66.1	27.4	6.5		100.0
35-39세	(127)	66.1	27.6	6.3		100.0
거주지역						
장안구	(144)	62.5	29.2	8.3		100.0
권선구	(177)	65.5	28.8	5.1	0.6	100.0
팔달구	(92)	62.0	29.3	7.6	1.1	100.0
영통구	(149)	75.8	20.1	4.0		100.0
취업상태						
취업	(309)	60.8	31.7	7.4		100.0
미취업	(253)	74.3	20.6	4.3	0.8	100.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92)	20.7	60.9	17.4	1.1	100.0
대학교 재학	(181)	75.1	21.5	3.3		100.0
대학교 졸업 이상	(289)	76.5	19.0	4.2	0.3	100.0

다. 경험한 아르바이트 종류

○ 경험한 아르바이트의 종류로는 음식서비스 관련(음식배달 제외)이 54.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 이어서 판매 관련 46.3%, 사무(보조)관련 25.6%, 교육관련 21.5%, 경비, 청소, 미용, 숙박, 스포츠, 여가 서비스 관련 20.5% 등의 순으로 나타남

(단위 : %)



<그림 4-244> 아르바이트 종류

○ 성별에 관계없이 모두 음식서비스 관련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가 가장 많았음 (남성 응답률(52.9%, 여성 응답률 56.2%)

○ 20~24세와 35~39세는 음식서비스 관련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25~34세는 판매 관련 아르바이트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음식서비스 관련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가 가장 많았음

○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응답자와 대학교 재학생은 음식관련 아르바이트 경험이 가장 많았고, 대학교 졸업 이상 응답자는 판매 관련 아르바이트 경험이 가장 많았음

<표 4-253> 응답자 특성별 아르바이트 종류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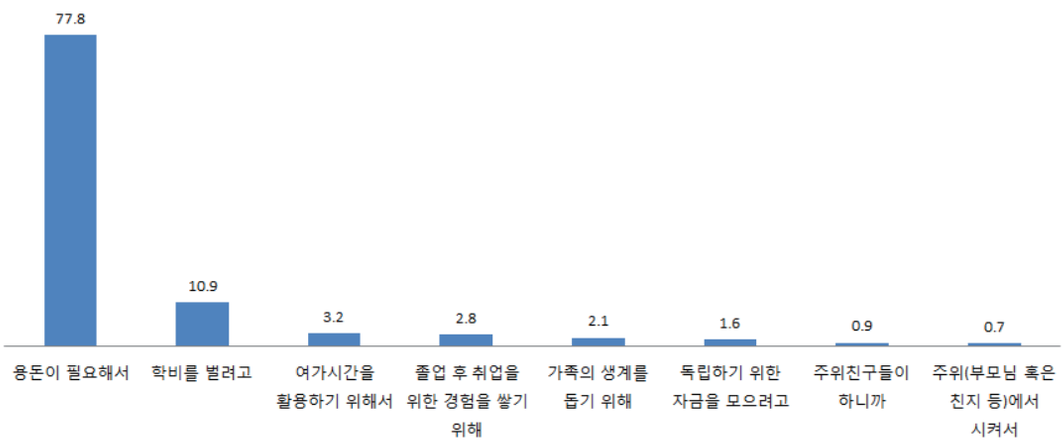
	사례 수 (명)	음식서비스관련 (음식배달제외)	판매 관련	사무(보조)관련	교육관련	경비, 청소, 미용, 숙박, 스포츠, 여가 서비스 관련	제조 관련(수리, 정비 포함)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 관련	운송 관련	건설 관련	정보통신 관련	보건의료, 사회복지 관련	농림어업 관련
전체	**(1,180)**	**54.4**	**46.3**	**25.6**	**21.5**	**20.5**	**9.1**	**8.5**	**7.5**	**7.3**	**5.3**	**3.0**	**0.9**
성별													
남성	(679)	52.9	45.4	24.7	20.7	27.1	12.5	10.5	12.5	13.6	6.8	2.4	1.0
여성	(501)	56.2	47.2	26.6	22.5	13.1	5.2	6.4	1.9	0.4	3.7	3.7	0.7
연령대													
20-24세	(289)	65.9	36.5	16.5	18.2	12.4	4.7	8.8	2.9	1.8	1.8		0.6
25-29세	(348)	48.2	57.4	36.2	29.8	24.1	11.3	9.2	11.3	9.9	6.4	2.8	
30-34세	(281)	49.2	50.0	25.0	19.4	29.0	12.1	10.5	8.1	8.9	8.1	4.8	1.6
35-39세	(262)	51.2	43.3	26.8	18.9	18.9	9.4	5.5	8.7	10.2	6.3	5.5	1.6
거주지역													
장안구	(326)	52.1	45.1	31.3	19.4	24.3	10.4	12.5	10.4	9.7	3.5	6.3	1.4
권선구	(356)	55.9	48.0	22.0	16.9	22.0	7.9	7.9	6.2	3.4	7.3	2.3	1.1
팔달구	(212)	46.7	32.6	32.6	35.9	20.7	14.1	12.0	10.9	12.0	9.8	2.2	1.1
영통구	(286)	59.7	53.7	20.1	20.1	14.8	6.0	3.4	4.0	6.7	2.0	1.3	
취업상태													
취업	(680)	54.4	47.9	26.5	18.4	24.9	11.3	7.4	8.7	9.1	7.1	3.6	0.6
미취업	(500)	54.5	44.3	24.5	25.3	15.0	6.3	9.9	5.9	5.1	3.2	2.4	1.2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73)	60.9	58.7	12.0	6.5	20.7	5.4	3.3	9.8	8.7		1.1	1.1
대학교 재학	(365)	63.0	41.4	22.7	24.3	17.7	5.5	9.4	6.6	5.5	3.3	1.7	0.6
대학교 졸업 이상	(642)	47.1	45.3	31.8	24.6	22.1	12.5	9.7	7.3	8.0	8.3	4.5	1.0

라. 아르바이트 이유

○ 아르바이트를 한 가장 큰 이유는 ‘용돈이 필요해서’인 것으로 나타남 (응답률 77.8%)

- 이어서 ‘학비를 벌려고’ 10.9%가 차순으로 나타남

(단위 : %)



<그림 4-245> 아르바이트를 한 주된 이유

○ 성별에 관계없이 모두 용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가 가장 많았음 (남성 응답률 76.3%, 여성 응답률 79.4%)

- 학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는 남성이 13.6%, 여성이 7.9%로 남성이 더 높게 나타났고 가족의 생계를 돕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응답한 경우도 남성이 3.1%, 여성이 1.1%로 남성이 더 높았음

○ 연령에 관계없이 모두 용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가 가장 많았음

- 35~39세의 경우 졸업 후 취업을 위해 경험을 쌓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응답과 가족의 생계를 돕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응답이 다른 연령에 비해 높게 나타난 반면, 25~29세는 학비를 벌기 위해 또는 여가시간을 활용하거나 독립자금을 모으려고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비율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게 나타남

○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용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가 가장 많았음 (취업자 응답률 73.8%, 미취업자 응답률 82.6%)

○ 학력에 관계없이 모두 용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가 가장 많았음

- 가족의 생계를 돕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다른 학력에 비해 3배 이상 높게 나타남

<표 4-254> 응답자 특성별 아르바이트를 한 주된 이유

(단위 : %)

	사례수 (명)	용돈이 필요해서	학비를 벌려고	여가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졸업 후 취업을 위한 경험을 쌓기 위해	가족의 생계를 돕기 위해	독립하기 위한 자금을 모으려고	주위친구들이 하니까	주위(부모님 혹은 친지 등)에서 시켜서	계
전체	**(562)**	**77.8**	**10.9**	**3.2**	**2.8**	**2.1**	**1.6**	**0.9**	**0.7**	**100.0**
성별										
남성	(295)	76.3	13.6	2.4	2.4	3.1	1.0	0.7	0.7	100.0
여성	(267)	79.4	7.9	4.1	3.4	1.1	2.2	1.1	0.7	100.0
연령대										
20-24세	(170)	83.5	7.1	3.5	1.2	1.2	1.2	1.2	1.2	100.0
25-29세	(141)	71.6	14.9	5.0	2.8	2.1	2.1	0.7	0.7	100.0
30-34세	(124)	82.3	10.5	2.4	1.6	1.6	1.6			100.0
35-39세	(127)	72.4	11.8	1.6	6.3	3.9	1.6	1.6	0.8	100.0
거주지역										
장안구	(144)	81.9	6.9	2.1	3.5	2.8	2.1	0.7		100.0
권선구	(177)	76.8	15.8	2.3	0.6	2.3	1.1		1.1	100.0
팔달구	(92)	71.7	12.0	6.5	4.3	2.2	2.2		1.1	100.0
영통구	(149)	78.5	8.1	3.4	4.0	1.3	1.3	2.7	0.7	100.0
취업상태										
취업	(309)	73.8	14.6	1.9	2.9	2.6	1.9	1.3	1.0	100.0
미취업	(253)	82.6	6.3	4.7	2.8	1.6	1.2	0.4	0.4	100.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92)	76.1	4.3		4.3	7.6	2.2	3.3	2.2	100.0
대학교 재학	(181)	81.8	9.4	3.9	1.1	2.2	1.1	0.6		100.0
대학교 졸업 이상	(289)	75.8	13.8	3.8	3.5	0.3	1.7	0.3	0.7	100.0

4. 비움채움

1) 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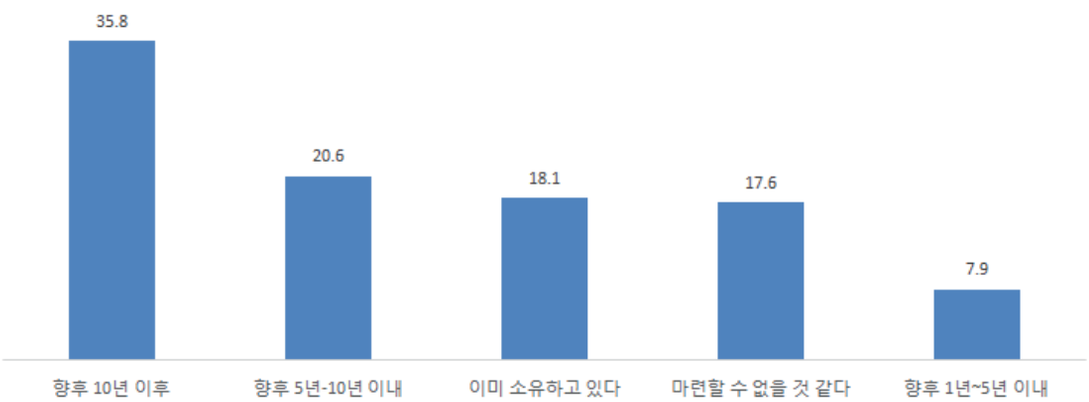
(1) 주거 마련

가. 본인 명의 주거 마련 기대 시기

○ 본인 명의의 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시기에 대해 묻는 질문에 응답자들의 35.8%가 향후 10년 이후 라고 응답함

- ‘마련할 수 없을 것 같다’ 라고 응답한 비율은 17.6%로 수원 청년들은 전반적으로 빠른 시기 내에 주거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이미 자가를 소유하고 있는 비율은 18.1%로 나타남

(단위 : %)



<그림 4-246> 본의 명의 주거 마련 기대 시기

○ 남녀 모두 ‘향후 10년 이후’ 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그 외의 항목에 대한 응답률은 모두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보아, 여성이 자가 마련에 대해 남성보다 긍정적인 것을 알 수 있음

○ 35~39세는 자가를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46.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향후 10년 이후에 자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음

○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자가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향후 10년 후에 본인 명의의 집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자가 소유 비율은 영통구 거주자가 23.1%로 타 지역 거주자에 비해 높았는데 이는 팔달구의 11.9%에 약 2배임

○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향후 10년 후에 본인 명의의 집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자가 소유 비율은 취업자가 22.9%로 미취업자의 12.0%에 비해 2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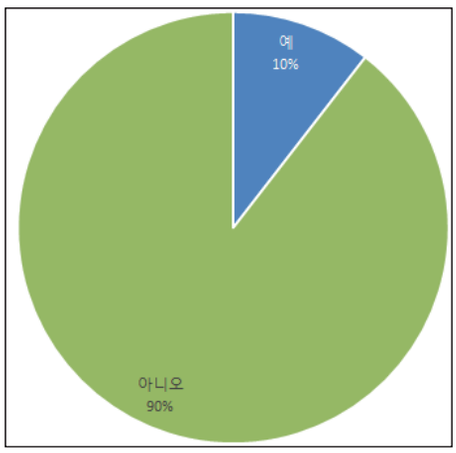
○ 대학교 졸업 이상 응답자는 본인 명의의 짐을 이미 소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9.8%로 가장 높았고, 나머지는 향후 10년 이후에 자가 소유의 집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표 4-255> 응답자 특성별 본인 명의의 집 마련 시기

(단위 : %)

	사례수 (명)	향후 10년 이후	향후 5년-10년 이내	이미 소유하고 있다	마련할 수 없을 것 같다	향후 1년~5년 이내	계
전체	**(800)**	**35.8**	**20.6**	**18.1**	**17.6**	**7.9**	**100.0**
성별							
남성	(415)	38.6	19.3	16.9	16.6	8.7	100.0
여성	(385)	32.7	22.1	19.5	18.7	7.0	100.0
연령대							
20-24세	(219)	55.7	23.3	1.4	16.4	3.2	100.0
25-29세	(186)	40.9	22.6	3.8	23.7	9.1	100.0
30-34세	(185)	28.6	21.1	20.5	18.4	11.4	100.0
35-39세	(210)	16.7	15.7	46.2	12.9	8.6	100.0
거주지역							
장안구	(182)	34.1	27.5	13.7	18.1	6.6	100.0
권선구	(245)	34.3	18.4	19.6	20.8	6.9	100.0
팔달구	(126)	32.5	27.0	11.9	15.1	13.5	100.0
영통구	(247)	40.1	14.6	23.1	15.4	6.9	100.0
취업상태							
취업	(449)	31.4	19.6	22.9	16.3	9.8	100.0
미취업	(351)	41.3	21.9	12.0	19.4	5.4	100.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45.0	19.5	13.6	18.9	3.0	100.0
대학교 재학	(231)	52.8	22.5	1.3	17.3	6.1	100.0
대학교 졸업 이상	(400)	22.0	20.0	29.8	17.3	11.0	100.0

(2) 공동 주거



<그림 4-247> 공동주거 여부

- 공동 주거 여부에 대해 묻는 질문에 응답자들의 10.5%만이 '예'라고 답함
- 성별에 따라서 긍정 응답률은 남성 11.1%, 여성 9.9%로 남성의 경우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5~29세에서 긍정 응답률이 11.8%로 가장 높았고, 30~34세에서 9.2%로 가장 낮음
- 장안구 거주자가 긍정 응답률이 14.8%로 가장 높았고, 영통구 거주자가 6.9%로 가장 낮음
- 취업자의 10.9%, 미취업자의 10.0%가 '예'라고 답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응답자의 긍정 응답률이 11.8%로 가장 높았고 대학교 재학생 10.0%, 대학교 졸업 이상 응답자 10.3%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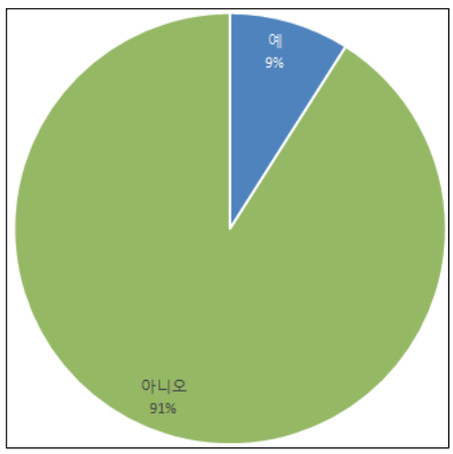
<표 4-256> 응답자 특성별 공동주거 여부

(단위 : %)

	사례수 (명)	예	아니오	계
전체	**(800)**	**10.5**	**89.5**	**100.0**
성별				
남성	(415)	11.1	88.9	100.0
여성	(385)	9.9	90.1	100.0
연령대				
20-24세	(219)	9.6	90.4	100.0
25-29세	(186)	11.8	88.2	100.0
30-34세	(185)	9.2	90.8	100.0
35-39세	(210)	11.4	88.6	100.0
거주지역				
장안구	(182)	14.8	85.2	100.0
권선구	(245)	9.8	90.2	100.0
팔달구	(126)	12.7	87.3	100.0
영통구	(247)	6.9	93.1	100.0
취업상태				
취업	(449)	10.9	89.1	100.0
미취업	(351)	10.0	90.0	100.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11.8	88.2	100.0
대학교 재학	(231)	10.0	90.0	100.0
대학교 졸업 이상	(400)	10.3	89.8	100.0

가. 공동 주거 의향

- 공동 주거 의향에 대해 묻는 질문에 응답자들의 9.0%만이 '예'라고 답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 성별에 따라서 긍정 응답률은 남성 6.7%, 여성 11.4%로 남성이 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더 부정적인 경향을 보임
- 장안구 거주자가 긍정 응답률이 10.4%로 가장 높았고, 영통구 거주자가 7.7%로 가장 낮음
- 취업자의 7.1%, 미취업자의 11.4%가 '예'라고 답해 미취업자가 취업자에 비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 대학교 재학생의 긍정 응답률이 10.4%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4-248> 공동주거 의향

<표 4-257> 응답자 특성별 공동주거 의향

(단위 : %)

	사례수 (명)	예	아니오	계
전체	**(800)**	**9.0**	**91.0**	**100.0**
성별				
남성	(415)	6.7	93.3	100.0
여성	(385)	11.4	88.6	100.0
연령대				
20-24세	(219)	13.2	86.8	100.0
25-29세	(186)	10.2	89.8	100.0
30-34세	(185)	8.1	91.9	100.0
35-39세	(210)	4.3	95.7	100.0
거주지역				
장안구	(182)	10.4	89.6	100.0
권선구	(245)	9.8	90.2	100.0
팔달구	(126)	7.9	92.1	100.0
영통구	(247)	7.7	92.3	100.0
취업상태				
취업	(449)	7.1	92.9	100.0
미취업	(351)	11.4	88.6	100.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10.1	89.9	100.0
대학교 재학	(231)	10.4	89.6	100.0
대학교 졸업 이상	(400)	7.8	92.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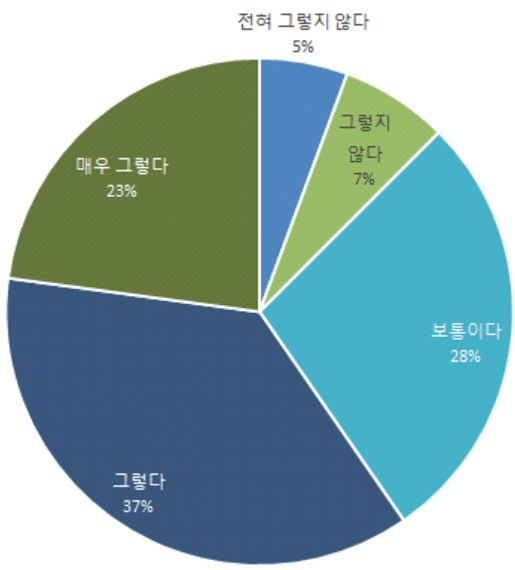
(3) 주거에 대한 인식 및 가치관

가. 자가 소유 집의 필요성

○ ‘내 명의의 집(자가 소유)은 꼭 있어야 한다’ 에 대한 동의 여부 평균은 3.6으로 보통을 넘는 것으로 나타남

-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반수가 넘는 59.6%로 가장 높음

(단위 : %)



<그림 4-249> 자가 소유 집의 필요성

○ 남녀 모두 평균이 보통을 넘는 것으로 나타남

- 성별에 관계없이 남녀 모두 긍정 응답률이 가장 높음 (남성 59.5%, 여성 59.7%)

○ 연령에 관계없이 모두 평균이 보통을 넘었는데, 20대의 평균보다 30대의 평균이 더 높아 자가 소유 집에 대한 필요성을 더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전 연령대의 긍정 응답률이 모두 5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남

○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모두 평균이 보통을 넘었는데, 특히 영통구의 평균이 3.8로 가장 높았음

- 전 지역에서 긍정 응답률이 가장 높고, 특히 영통구 거주자의 70.9%가 자가 소유 집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평균이 보통을 넘었는데, 취업자의 평균이 미취업자의 평균보다 높게 나타남

-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긍정 응답률이 가장 높음 (취업자 62.6%, 미취업자 55.8%)

○ 학력에 관계없이 모두 평균이 보통을 넘었는데, 대학교 재학생의 평균이 3.5로 가장 낮고 나머지 응답자의 평균은 3.7인 것으로 나타남

- 전 학력에서 긍정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특히 대학교 졸업 이상 응답자의 긍정 응답률이 63.5%로 가장 높았음

<표 4-258> 응답자 특성별 자가 소유 집의 필요성

(단위 : %, 점)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	①+②	보통이다	→	매우 그렇다	④+⑤	계	평균
전체	**(800)**	**5.6**	**6.9**	**12.5**	**27.9**	**36.8**	**22.9**	**59.6**	**100.0**	**3.6**
성별										
남성	(415)	5.3	6.5	11.8	28.7	36.1	23.4	59.5	100.0	3.7
여성	(385)	6.0	7.3	13.2	27.0	37.4	22.3	59.7	100.0	3.6
연령대										
20-24세	(219)	5.5	6.8	12.3	35.6	33.3	18.7	52.1	100.0	3.5
25-29세	(186)	4.8	8.6	13.4	32.3	37.6	16.7	54.3	100.0	3.5
30-34세	(185)	5.9	9.2	15.1	21.6	37.8	25.4	63.2	100.0	3.7
35-39세	(210)	6.2	3.3	9.5	21.4	38.6	30.5	69.0	100.0	3.8
거주지역										
장안구	(182)	3.8	8.2	12.1	35.2	30.8	22.0	52.7	100.0	3.6
권선구	(245)	4.5	8.6	13.1	29.8	34.3	22.9	57.1	100.0	3.6
팔달구	(126)	14.3	7.9	22.2	25.4	24.6	27.8	52.4	100.0	3.4
영통구	(247)	3.6	3.6	7.3	21.9	49.8	21.1	70.9	100.0	3.8
취업상태										
취업	(449)	4.5	6.9	11.4	26.1	36.1	26.5	62.6	100.0	3.7
미취업	(351)	7.1	6.8	14.0	30.2	37.6	18.2	55.8	100.0	3.5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6.5	4.7	11.2	29.0	36.1	23.7	59.8	100.0	3.7
대학교 재학	(231)	6.5	6.5	13.0	34.2	35.1	17.7	52.8	100.0	3.5
대학교 졸업 이상	(400)	4.8	8.0	12.8	23.8	38.0	25.5	63.5	100.0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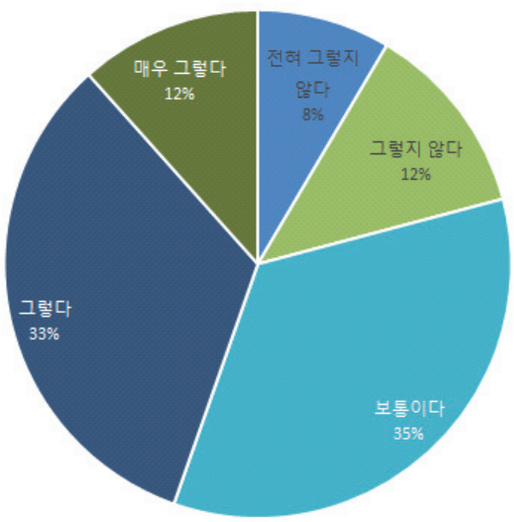
나. 주거 마련에 대한 희망

■ 자력으로 집 마련 가능성

○ ‘나의 능력과 노력으로 내가 원하는 집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에 대한 동의 여부 평균은 3.3으로 보통을 넘는 것으로 나타남

-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44.6%로 가장 높음

(단위 : %)



<그림 4-250> 자력으로 집 마련 가능성

○ 남녀 모두 평균이 보통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자력으로 집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성별에 관계없이 남녀 모두 긍정 응답률이 가장 높음 (남성 44.3%, 여성 44.9%)

○ 연령에 관계없이 모두 평균이 보통을 넘었는데, 20~24세의 평균이 3.4로 가장 높았고 25~29세의 평균이 3.1로 가장 낮게 나타남

- 25~29세의 경우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38.7%로 가장 많이 나왔고,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긍정 응답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모두 평균이 보통을 넘었는데, 특히 영통구의 평균이 3.5로 가장 높았음

- 전 지역에서 긍정 응답률이 가장 높고, 특히 영통구 거주자의 반수가 넘는 55.5%가 자력으로 집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함

○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평균이 보통을 넘음

-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긍정 응답률이 가장 높음 (취업자 46.8%, 미취업자 41.9%)

○ 학력에 관계없이 모두 평균이 보통을 넘음

- 전 학력에서 긍정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특히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응답자의 긍정 응답률이 47.9%로 가장 높았음

<표 4-259> 응답자 특성별 자력으로 집 마련 가능성

(단위 :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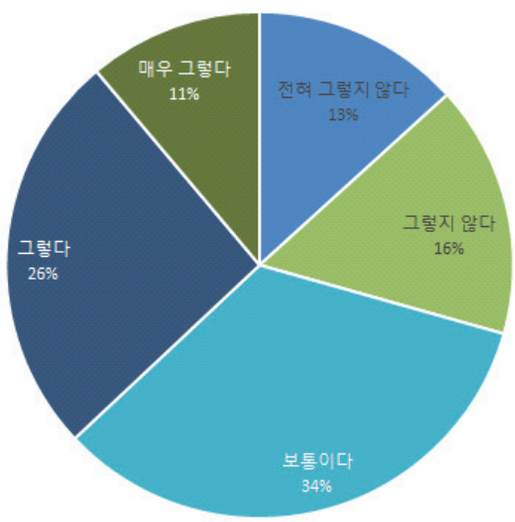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	①+②	보통이다	→	매우 그렇다	④+⑤	계	평균
전체	**(800)**	**8.5**	**12.4**	**20.9**	**34.5**	**33.0**	**11.6**	**44.6**	**100.0**	**3.3**
성별										
남성	(415)	6.7	11.1	17.8	37.8	33.7	10.6	44.3	100.0	3.3
여성	(385)	10.4	13.8	24.2	30.9	32.2	12.7	44.9	100.0	3.2
연령대										
20-24세	(219)	5.0	11.4	16.4	36.1	37.4	10.0	47.5	100.0	3.4
25-29세	(186)	7.5	17.2	24.7	38.7	27.4	9.1	36.6	100.0	3.1
30-34세	(185)	10.8	9.7	20.5	30.3	33.5	15.7	49.2	100.0	3.3
35-39세	(210)	11.0	11.4	22.4	32.9	32.9	11.9	44.8	100.0	3.2
거주지역										
장안구	(182)	9.9	13.2	23.1	35.7	30.2	11.0	41.2	100.0	3.2
권선구	(245)	10.2	14.7	24.9	35.9	29.4	9.8	39.2	100.0	3.1
팔달구	(126)	9.5	15.1	24.6	36.5	23.8	15.1	38.9	100.0	3.2
영통구	(247)	5.3	8.1	13.4	31.2	43.3	12.1	55.5	100.0	3.5
취업상태										
취업	(449)	8.5	12.5	20.9	32.3	33.0	13.8	46.8	100.0	3.3
미취업	(351)	8.5	12.3	20.8	37.3	33.0	8.8	41.9	100.0	3.2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8.9	10.7	19.5	32.5	35.5	12.4	47.9	100.0	3.3
대학교 재학	(231)	6.9	10.4	17.3	38.5	33.8	10.4	44.2	100.0	3.3
대학교 졸업 이상	(400)	9.3	14.3	23.5	33.0	31.5	12.0	43.5	100.0	3.2

■ 부모님의 도움 없이 집 마련 가능성

○ ‘부모님 도움 없이 내가 원하는 집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에 대한 동의 여부 평균은 3.1로 보통을 약간만 넘는 것으로 나타남

-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37.0%로 가장 높음

(단위 : %)



<그림 4-251> 부모님의 도움 없이 집 마련 가능성

○ 남성의 평균은 3.1, 여성의 평균은 3.0으로 전반적으로 보통인 것으로 볼 수 있음

- 성별에 관계없이 남녀 모두 긍정 응답률이 가장 높음 (남성 37.8%, 여성 36.1%)

○ 20~24세의 평균은 2.9로 보통에 약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응답률 역시 20~24세의 경우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36.1%로 가장 많이 나왔고,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긍정 응답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장안구와 팔달구 거주자의 평균은 각각 2.8과 2.9로 보통에 약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장안구와 팔달구 거주자는 부정 응답률이 각각 40.7%, 35.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권선구는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37.6%, 영통구는 긍정 응답률이 44.9%로 최다 응답률로 나타남

○ 취업자의 평균은 3.1, 미취업자의 평균은 3.0으로 전반적으로 보통인 것으로 볼 수 있음

- 취업자는 긍정 응답률이 39.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미취업자는 '보통이다'라는 응답률이 35.9%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대학교 재학생들의 평균은 2.9로 보통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대학교 재학생은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36.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4-260> 응답자 특성별 부모님의 도움 없이 집 마련 가능성

(단위 : %, 점)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	①+②	보통이다	→	매우 그렇다	④+⑤	계	평균
전체	**(800)**	**13.3**	**16.1**	**29.4**	**33.6**	**25.9**	**11.1**	**37.0**	**100.0**	**3.1**
성별										
남성	(415)	12.3	14.9	27.2	34.9	25.5	12.3	37.8	100.0	3.1
여성	(385)	14.3	17.4	31.7	32.2	26.2	9.9	36.1	100.0	3.0
연령대										
20-24세	(219)	13.2	21.9	35.2	36.1	21.5	7.3	28.8	100.0	2.9
25-29세	(186)	11.8	14.0	25.8	31.7	33.3	9.1	42.5	100.0	3.1
30-34세	(185)	14.6	11.9	26.5	33.0	25.9	14.6	40.5	100.0	3.1
35-39세	(210)	13.3	15.7	29.0	33.3	23.8	13.8	37.6	100.0	3.1
거주지역										
장안구	(182)	17.0	23.6	40.7	26.9	22.5	9.9	32.4	100.0	2.8
권선구	(245)	10.2	16.3	26.5	37.6	24.1	11.8	35.9	100.0	3.1
팔달구	(126)	20.6	15.1	35.7	34.1	18.3	11.9	30.2	100.0	2.9
영통구	(247)	9.7	10.9	20.6	34.4	34.0	10.9	44.9	100.0	3.3
취업상태										
취업	(449)	13.8	14.5	28.3	31.8	27.8	12.0	39.9	100.0	3.1
미취업	(351)	12.5	18.2	30.8	35.9	23.4	10.0	33.3	100.0	3.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16.0	17.2	33.1	30.2	27.2	9.5	36.7	100.0	3.0
대학교 재학	(231)	14.3	16.9	31.2	36.4	25.1	7.4	32.5	100.0	2.9
대학교 졸업 이상	(400)	11.5	15.3	26.8	33.5	25.8	14.0	39.8	100.0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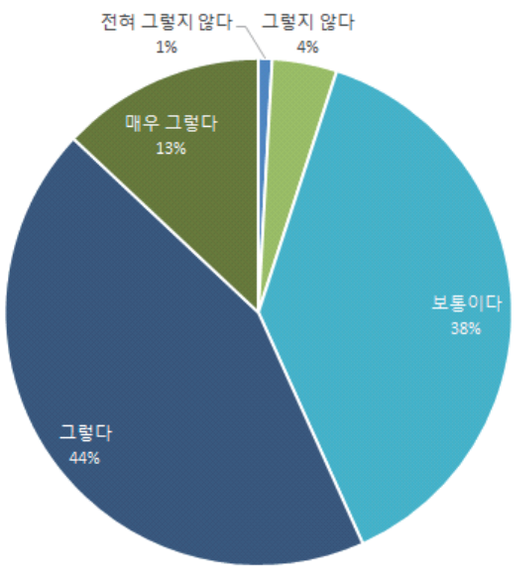
다. 거주 지역에 대한 인식

■ 거주지역 청결도

○ 거주 지역 청결도에 대한 평균은 3.6으로 보통을 넘는 것으로 나타남

-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56.8%로 가장 높음

(단위 : %)



<그림 4-252> 거주지역 청결도

○ 남성의 평균은 3.7, 여성의 평균은 3.6으로 모두 보통을 넘는 것으로 나타남

- 성별에 관계없이 남녀 모두 긍정 응답률이 가장 높음 (남성 57.3%, 여성 56.1%)

○ 연령에 관계없이 모두 평균이 3.6~3.7로 보통을 넘는 수치로 나타남

- 응답률 역시 연령과 무관하게 긍정 응답률이 모두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남

○ 장안구와 권선구 거주자의 평균은 3.5, 팔달구 거주자의 평균은 3.6이고 영통구 거주자의 평균은 3.9로 높은 수치를 보임

- 전 지역에서 긍정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영통구 거주자의 긍정 응답률은 74.9%로 다른 지역 거주자들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평균값은 모두 3.6으로 보통은 넘는 것으로 나타남

- 취업자, 미취업자 모두 긍정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남

○ 학력에 관계없이 모두 보통 이상의 평균을 나타냈는데, 대학교 졸업 응답자들의 평균이 3.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4-261> 응답자 특성별 거주지역 청결도

(단위 :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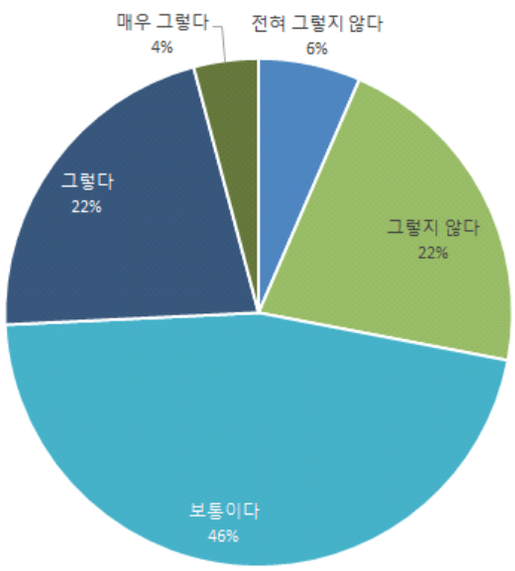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	①+②	보통이다	→	매우 그렇다	④+⑤	계	평균
전체	**(800)**	**0.9**	**4.1**	**5.0**	**38.3**	**43.8**	**13.0**	**56.8**	**100.0**	**3.6**
성별										
남성	(415)	1.0	3.1	4.1	38.6	43.1	14.2	57.3	100.0	3.7
여성	(385)	0.8	5.2	6.0	37.9	44.4	11.7	56.1	100.0	3.6
연령대										
20-24세	(219)	1.4	4.1	5.5	38.4	43.8	12.3	56.2	100.0	3.6
25-29세	(186)	1.1	3.8	4.8	38.7	41.9	14.5	56.5	100.0	3.7
30-34세	(185)	0.5	3.8	4.3	38.4	47.0	10.3	57.3	100.0	3.6
35-39세	(210)	0.5	4.8	5.2	37.6	42.4	14.8	57.1	100.0	3.7
거주지역										
장안구	(182)	1.1	6.6	7.7	43.4	37.9	11.0	48.9	100.0	3.5
권선구	(245)	0.8	4.9	5.7	47.3	33.9	13.1	46.9	100.0	3.5
팔달구	(126)	1.6	5.6	7.1	41.3	34.9	16.7	51.6	100.0	3.6
영통구	(247)	0.4	0.8	1.2	23.9	62.3	12.6	74.9	100.0	3.9
취업상태										
취업	(449)	0.2	3.8	4.0	40.5	42.8	12.7	55.5	100.0	3.6
미취업	(351)	1.7	4.6	6.3	35.3	45.0	13.4	58.4	100.0	3.6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0.6	3.6	4.1	47.9	38.5	9.5	47.9	100.0	3.5
대학교 재학	(231)	1.3	5.6	6.9	36.4	42.9	13.9	56.7	100.0	3.6
대학교 졸업 이상	(400)	0.8	3.5	4.3	35.3	46.5	14.0	60.5	100.0	3.7

■ 인근 지역과 집값 비교

○ ‘인근 지역보다 집값(전세 보증금/월세)이 낮은 편이다’ 에 대한 동의 여부 평균은 3.0으로 보통으로 나타남

- ‘보통이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46.3%로 가장 높음

(단위 : %)



<그림 4-253> 인근 지역과 집값 비교

○ 남성의 평균은 3.0, 여성의 평균은 2.9로 보통 또는 그에 약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성별에 관계없이 남녀 모두 ‘보통이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남성 47.7%, 여성 44.7%)

○ 35~39세의 평균은 2.9로 보통에 약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응답률은 연령에 관계없이 모두 ‘보통이다’ 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장안구와 영통구 거주자의 평균은 2.9로 보통에 약간 미치지 못하고 나머지 지역 거주자의 평균은 3.0으로 보통인 것으로 나타남

- 응답률은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모두 ‘보통이다’ 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장안구 거주자의 응답률이 52.2%로 가장 높았음

○ 취업자의 평균은 3.0, 미취업자의 평균은 2.9로 보통 또는 그에 약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응답률은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보통이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미취업자의 응답률이 49.3%로 취업자의 43.9%보다 높았음

○ 대학교 졸업 이상 응답자의 평균은 2.9로 보통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응답률은 학력에 관계없이 모두 ‘보통이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대학교 재학생의 응답률이 50.2%로 가장 높았음

<표 4-262> 응답자 특성별 인근 지역과 집값 비교

(단위 :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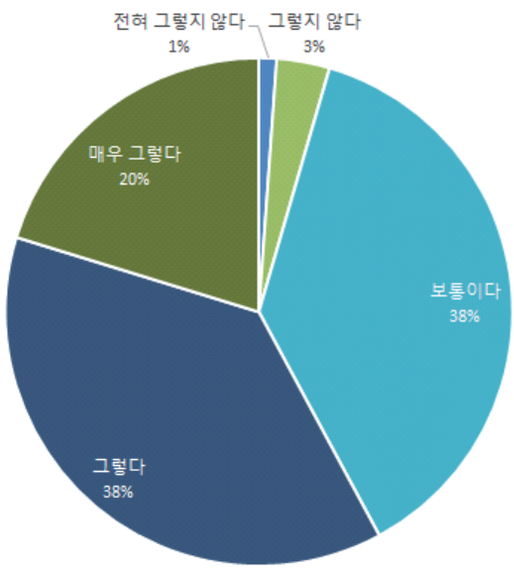
	사례수(명)	전혀 그렇지 않다	←	①+②	보통이다	→	매우 그렇다	④+⑤	계	평균
전체	**(800)**	**6.5**	**21.5**	**28.0**	**46.3**	**21.6**	**4.1**	**25.8**	**100.0**	**3.0**
성별										
남성	(415)	5.3	19.5	24.8	47.7	21.9	5.5	27.5	100.0	3.0
여성	(385)	7.8	23.6	31.4	44.7	21.3	2.6	23.9	100.0	2.9
연령대										
20-24세	(219)	4.6	21.9	26.5	49.8	21.0	2.7	23.7	100.0	3.0
25-29세	(186)	5.9	21.0	26.9	45.2	22.0	5.9	28.0	100.0	3.0
30-34세	(185)	5.4	21.1	26.5	45.9	24.3	3.2	27.6	100.0	3.0
35-39세	(210)	10.0	21.9	31.9	43.8	19.5	4.8	24.3	100.0	2.9
거주지역										
장안구	(182)	7.7	19.2	26.9	52.2	18.1	2.7	20.9	100.0	2.9
권선구	(245)	3.3	24.9	28.2	45.7	20.0	6.1	26.1	100.0	3.0
팔달구	(126)	4.8	23.8	28.6	48.4	17.5	5.6	23.0	100.0	3.0
영통구	(247)	9.7	18.6	28.3	41.3	27.9	2.4	30.4	100.0	2.9
취업상태										
취업	(449)	6.9	21.6	28.5	43.9	23.4	4.2	27.6	100.0	3.0
미취업	(351)	6.0	21.4	27.4	49.3	19.4	4.0	23.4	100.0	2.9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6.5	18.9	25.4	46.2	23.7	4.7	28.4	100.0	3.0
대학교 재학	(231)	4.8	19.5	24.2	50.2	21.6	3.9	25.5	100.0	3.0
대학교 졸업 이상	(400)	7.5	23.8	31.3	44.0	20.8	4.0	24.8	100.0	2.9

■ 거주 지역 인프라

○ ‘일상적인 생활을 위해 멀리 이동할 필요가 없다(마트, 은행, 병원 등)’에 대한 동의 여부 평균은 3.7로 보통보다 높게 나타남

-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반수가 넘는 57.9%로 가장 높음

(단위 : %)



<그림 4-254> 거주 지역 인프라

○ 남성의 평균은 3.6, 여성의 평균은 3.8로 모두 보통을 넘는 평균값이고 특히 여성이 더 긍정적으로 나타남

- 성별에 관계없이 남녀 모두 긍정 응답률이 가장 높음 (남성 51.8%, 여성 64.4%)

○ 연령에 관계없이 모두 평균이 보통 이상인데 특히 20~24세의 평균이 3.8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응답률은 연령에 관계없이 모두 긍정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남

○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모두 평균이 보통 이상인데 특히 팔달구 거주자의 평균이 3.9로 높게 나타남

- 응답률은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모두 긍정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취업자의 평균은 3.7, 미취업자의 평균은 3.8로 모두 보통이 넘는 값을 가짐

- 응답률은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긍정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남

○ 학력에 관계없이 모두 평균이 보통 이상인데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응답자의 평균은 3.6이고 나머지의 평균은 모두 3.8로 높게 나타남

- 응답률은 학력에 관계없이 모두 긍정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대학교 졸업 이상 응답자의 응답률이 61.0%로 가장 높았음

<표 4-263> 응답자 특성별 거주 지역 인프라

(단위 : %, 점)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	①+②	보통이다	→	매우 그렇다	④+⑤	계	평균
전체	**(800)**	**1.1**	**3.4**	**4.5**	**37.6**	**37.6**	**20.3**	**57.9**	**100.0**	**3.7**
성별										
남성	(415)	1.4	3.6	5.1	43.1	33.7	18.1	51.8	100.0	3.6
여성	(385)	0.8	3.1	3.9	31.7	41.8	22.6	64.4	100.0	3.8
연령대										
20-24세	(219)	0.5	4.1	4.6	32.0	40.2	23.3	63.5	100.0	3.8
25-29세	(186)	2.7	2.7	5.4	33.3	40.9	20.4	61.3	100.0	3.7
30-34세	(185)	1.6	3.2	4.9	42.7	31.9	20.5	52.4	100.0	3.7
35-39세	(210)		3.3	3.3	42.9	37.1	16.7	53.8	100.0	3.7
거주지역										
장안구	(182)	1.1	3.8	4.9	34.1	40.1	20.9	61.0	100.0	3.8
권선구	(245)	1.6	4.1	5.7	42.4	33.5	18.4	51.8	100.0	3.6
팔달구	(126)		3.2	3.2	34.1	32.5	30.2	62.7	100.0	3.9
영통구	(247)	1.2	2.4	3.6	37.2	42.5	16.6	59.1	100.0	3.7
취업상태										
취업	(449)	1.1	3.3	4.5	39.9	38.3	17.4	55.7	100.0	3.7
미취업	(351)	1.1	3.4	4.6	34.8	36.8	23.9	60.7	100.0	3.8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1.8	3.6	5.3	44.4	37.3	13.0	50.3	100.0	3.6
대학교 재학	(231)	0.9	3.0	3.9	38.1	35.1	22.9	58.0	100.0	3.8
대학교 졸업 이상	(400)	1.0	3.5	4.5	34.5	39.3	21.8	61.0	100.0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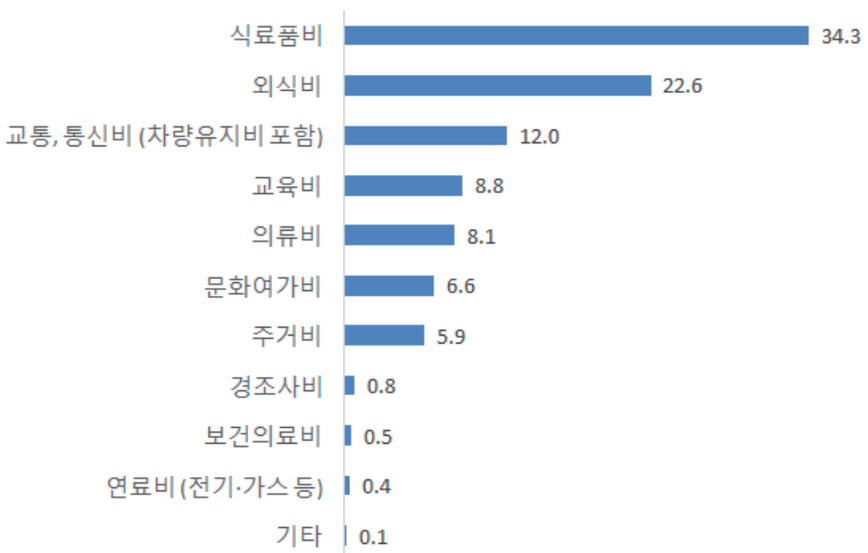
2) 소비 및 부채

(1) 소비 항목

가. 최대 소비 항목

○ 최대 소비 항목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들의 34.3%가 식료품비라고 응답함. 외식비 22.6%, 교통, 통신비 (차량유지비 포함) 12.0%, 교육비 8.8%, 의류비 8.1%, 문화비 6.6%, 주거비 5.9% 등의 순으로 나타남

(단위 : %)



<그림 4-255> 최대 소비 항목

○ 성별에 관계없이 남녀 모두 식료품비에 가장 많은 소비를 한다고 응답함. 2순위인 외식까지는 남녀가 동일하나 3순위부터 성별 간 차이가 드러나는데 남성의 3순위는 교통, 통신비(차량 유지비 포함)인 것으로 나타났고(17.3%) 여성의 3순위는 의류비 (12.7%)였음

○ 25~29세는 다른 연령대와 달리 식료품비(25.8%)보다 외식비(26.3%)에 대한 소비가 큰 것으로 나타나 외식 빈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됨. 35~39세의 경우에는 다른 연령대와 달리 3순위가 교통, 통신비(6.7%)가 아닌 교육비(18.1%)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녀 유무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1순위 식료품비, 2순위 외식비인 것은 동일하게 나타나고 3순위에서 타 지역과 달리 영통구 거주자만이 교통, 통신비보다 교육비에 더 큰 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각 항목당 순위는 동일한 것으로 나타남

○ 학력에 관계없이 1순위 식료품비, 2순위 외식비인 것은 동일하게 나타나고 3순위에서 대학교 졸업 이상 응답자만이 교통, 통신비보다 교육비에 더 큰 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4-264> 응답자 특성별 최대 소비 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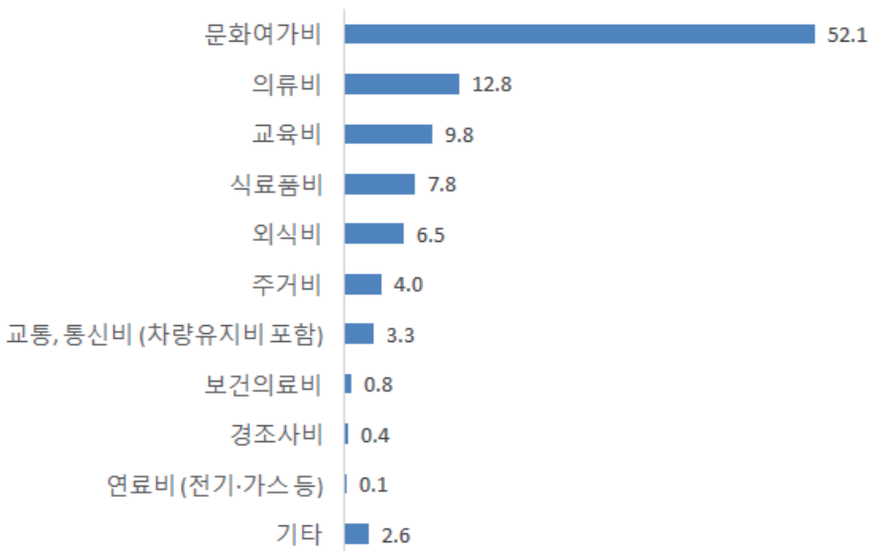
(단위 : %)

	사례수(명)	식료품비	외식비	교통, 통신비(차량 유지비 포함)	교육비	의류비	문화여가비	주거비	경조사비	보건의료비	연료비(전기·가스 등)	기타	계
전체	**(800)**	**34.3**	**22.6**	**12.0**	**8.8**	**8.1**	**6.6**	**5.9**	**0.8**	**0.5**	**0.4**	**0.1**	**100.0**
성별													
남성	(415)	31.3	22.7	17.3	7.2	3.9	8.0	8.2	0.7	0.2	0.2	0.2	100.0
여성	(385)	37.4	22.6	6.2	10.4	12.7	5.2	3.4	0.8	0.8	0.5		100.0
연령대													
20-24세	(219)	29.2	26.0	19.2	5.0	10.0	8.7	1.4		0.5			100.0
25-29세	(186)	25.8	26.3	12.4	7.5	12.9	7.5	5.4	0.5	0.5	0.5	0.5	100.0
30-34세	(185)	40.5	20.5	9.2	3.8	8.1	6.5	8.6	1.6	0.5	0.5		100.0
35-39세	(210)	41.4	17.6	6.7	18.1	1.9	3.8	8.6	1.0	0.5	0.5		100.0
거주지역													
장안구	(182)	37.4	22.0	13.7	8.2	4.4	7.7	3.8	1.6	1.1			100.0
권선구	(245)	34.7	22.4	11.8	5.7	9.4	5.7	7.3	1.2	0.8	0.8		100.0
팔달구	(126)	31.7	18.3	17.5	11.9	7.1	8.7	4.8					100.0
영통구	(247)	32.8	25.5	8.1	10.5	10.1	5.7	6.5			0.4	0.4	100.0
취업상태													
취업	(449)	34.7	24.3	8.9	6.2	9.4	6.7	7.1	1.1	0.7	0.7	0.2	100.0
미취업	(351)	33.6	20.5	16.0	12.0	6.6	6.6	4.3	0.3	0.3			100.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35.5	18.9	13.6	4.7	10.1	6.5	8.3	0.6	0.6	0.6	0.6	100.0
대학교 재학	(231)	28.6	25.5	18.2	6.1	10.4	7.4	3.5		0.4			100.0
대학교 졸업 이상	(400)	37.0	22.5	7.8	12.0	6.0	6.3	6.3	1.3	0.5	0.5		100.0

나. 지출을 늘리고 싶은 항목

○ 지출을 늘리고 싶은 항목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들의 반수가 넘는 52.1%가 문화여가비라고 응답함. 이어서 의류비 12.8%, 교육비 9.8%, 식료품비 7.8%, 외식비 6.5% 등의 순으로 나타나 1순위 응답인 문화여가비와 큰 격차를 보임

(단위 : %)



<그림 4-256> 지출을 늘리고 싶은 항목

○ 성별에 관계없이 남녀 모두 문화여가비에 대한 지출을 늘리고 싶다고 응답했는데 남성이 54.7%, 여성이 49.4%로 남성이 더 높은 응답률을 보임

○ 연령에 관계없이 모두 50%가 넘는 비율로 문화여가비에 대한 지출을 늘리고 싶다고 응답했는데 30~34세의 응답률이 55.7%로 가장 높았음

○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모두 문화여가비에 대한 지출을 늘리고 싶다고 응답했는데 권선구 거주자의 응답률이 58.8%로 가장 높았고 영통구 거주자의 응답률은 47.8%로 가장 낮았음

○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50%가 넘는 비율로 문화여가비에 대한 지출을 늘리고 싶다고 응답함

○ 학력에 관계없이 모두 50%가 넘는 비율로 문화여가비에 대한 지출을 늘리고 싶다고 응답함

<표 4-265> 응답자 특성별 지출을 늘리고 싶은 항목

(단위 : %)

	사례수(명)	문화여가비	의류비	교육비	식료품비	외식비	주거비	교통, 통신비(차량유지비 포함)	기타	보건의료비	경조사비	연료비(전기•가스 등)	계
전체	**(800)**	**52.1**	**12.8**	**9.8**	**7.8**	**6.5**	**4.0**	**3.3**	**2.6**	**0.8**	**0.4**	**0.1**	**100.0**
성별													
남성	(415)	54.7	11.3	8.9	6.5	8.4	2.2	4.3	3.4			0.2	100.0
여성	(385)	49.4	14.3	10.6	9.1	4.4	6.0	2.1	1.8	1.6	0.8		100.0
연령대													
20-24세	(219)	50.7	24.2	5.0	7.3	6.8	0.9	2.3	1.4	1.4			100.0
25-29세	(186)	52.7	12.4	8.1	5.9	5.9	4.8	5.9	3.2	0.5	0.5		100.0
30-34세	(185)	55.7	8.1	9.7	8.6	6.5	4.3	3.2	2.2	0.5	0.5	0.5	100.0
35-39세	(210)	50.0	5.2	16.2	9.0	6.7	6.2	1.9	3.8	0.5	0.5		100.0
거주지역													
장안구	(182)	50.5	16.5	9.9	5.5	4.9	3.8	2.7	4.4	1.1	0.5		100.0
권선구	(245)	58.8	9.8	8.2	6.1	6.1	4.1	3.3	2.4	0.8		0.4	100.0
팔달구	(126)	50.0	13.5	15.9	4.0	7.1	4.0	1.6	2.4	0.8	0.8		100.0
영통구	(247)	47.8	12.6	8.1	13.0	7.7	4.0	4.5	1.6	0.4	0.4		100.0
취업상태													
취업	(449)	51.2	10.2	8.5	8.2	8.2	4.9	3.8	2.9	1.1	0.7	0.2	100.0
미취업	(351)	53.3	16.0	11.4	7.1	4.3	2.8	2.6	2.3	0.3			100.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52.1	8.9	9.5	8.3	9.5	3.6	4.1	1.8	1.8	0.6		100.0
대학교 재학	(231)	52.8	21.2	6.5	7.4	6.1	0.9	3.5	0.9	0.9			100.0
대학교 졸업 이상	(400)	51.8	9.5	11.8	7.8	5.5	6.0	2.8	4.0	0.3	0.5	0.3	100.0

(2) 소비 가치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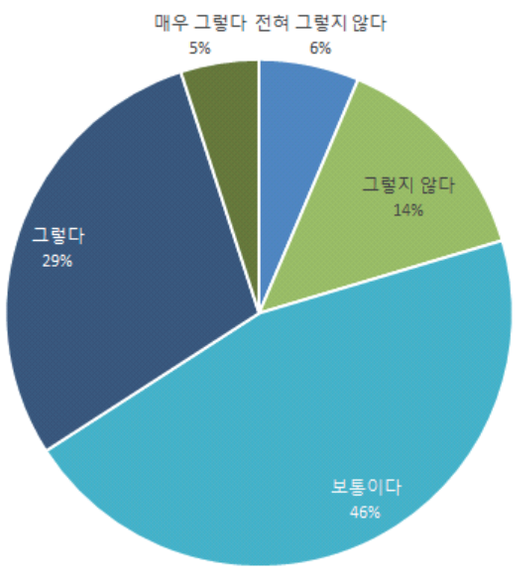
가. 소비 가치

나. 계획적 소비 정도

○ 본인이 계획적인 소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동의 여부 평균은 3.1로 보통보다 약간 높게 나타남

- '보통이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45.5%로 가장 높음

(단위 : %)



<그림 4-257> 계획적 소비 정도

○ 성별과 무관하게 남녀 모두 평균은 3.1로 보통을 약간 넘음

- '보통이다' 라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이 49.2%, 여성이 41.6%로 남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긍정 응답률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게 나타나 여성이 더 계획적인 소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에 관계없이 모두 평균이 보통 이상인데 특히 25~29세의 평균이 3.2로 약간 높게 나타남

- 응답률은 연령에 관계없이 모두 '보통이다' 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영통구 거주자의 평균이 3.3으로 가장 높았고 팔달구 거주자의 평균은 2.9로 보통에 약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응답률은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모두 ‘보통이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영통구 거주자의 경우 긍정 응답률이 43.7%로 높은 편임

○ 취업여부에 관계없이 평균은 모두 3.1로 보통을 약간 넘는 것으로 나타남

- 모두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긍정 응답률은 취업자가 35.6%, 미취업자가 32.2%로 취업자가 더 높은 값을 나타냄

○ 학력에 관계없이 모두 평균이 보통을 약간 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266> 응답자 특성별 계획적 소비 정도

(단위 : %, 점)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	①+②	보통이다	→	매우 그렇다	④+⑤	계	평균
전체	**(800)**	**6.4**	**14.0**	**20.4**	**45.5**	**29.1**	**5.0**	**34.1**	**100.0**	**3.1**
성별										
남성	(415)	6.3	12.3	18.6	49.2	27.0	5.3	32.3	100.0	3.1
여성	(385)	6.5	15.8	22.3	41.6	31.4	4.7	36.1	100.0	3.1
연령대										
20-24세	(219)	5.5	12.8	18.3	48.4	28.3	5.0	33.3	100.0	3.1
25-29세	(186)	5.4	12.9	18.3	47.8	27.4	6.5	33.9	100.0	3.2
30-34세	(185)	8.1	12.4	20.5	45.9	28.6	4.9	33.5	100.0	3.1
35-39세	(210)	6.7	17.6	24.3	40.0	31.9	3.8	35.7	100.0	3.1
거주지역										
장안구	(182)	5.5	19.2	24.7	49.5	21.4	4.4	25.8	100.0	3.0
권선구	(245)	7.3	15.5	22.9	40.4	30.6	6.1	36.7	100.0	3.1
팔달구	(126)	13.5	14.3	27.8	50.0	17.5	4.8	22.2	100.0	2.9
영통구	(247)	2.4	8.5	10.9	45.3	39.3	4.5	43.7	100.0	3.3
취업상태										
취업	(449)	6.0	14.0	20.0	44.3	31.0	4.7	35.6	100.0	3.1
미취업	(351)	6.8	14.0	20.8	47.0	26.8	5.4	32.2	100.0	3.1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10.1	11.2	21.3	43.2	29.6	5.9	35.5	100.0	3.1
대학교 재학	(231)	7.4	13.0	20.3	50.2	23.8	5.6	29.4	100.0	3.1
대학교 졸업 이상	(400)	4.3	15.8	20.0	43.8	32.0	4.3	36.3	100.0	3.2

(3) 경제적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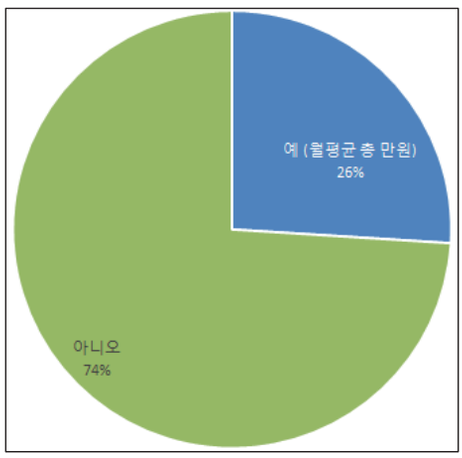
가. 가족으로부터의 고정적 지원 여부

○ 가족으로부터의 고정적 지원을 받는지 여부에 대해 응답자들의 26.0%가 ‘예’라고 답함

○ 긍정 응답률은 남성 26.2%, 여성 23.6%로 남성이 지원을 받는 경우가 더 많았음

○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지원을 받는 경우가 줄어들었는데, 20대에서 30대로 넘어가게 되면 그 확률이 1/4 정도로 급감하여 30대 후반과 20대 초반은 10배 이상 차이가 남

○ 권선구 거주자가 부정 응답률이 77.1%로 가장 높았고, 팔달구 거주자는 긍정 응답률 28.6%로 가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비율이 가장 높았음



<그림 4-258> 가족으로부터의 고정적 지원 여부

○ 취업자의 5.8%, 미취업자의 51.9%가 ‘예’라고 답해 매우 큰 차이를 보임

○ 대학교 재학생의 경우는 고정적 지원을 받는 비율이 반수를 넘는 65.4%였고,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응답자는 14.8%, 대학교 졸업 이상 응답자는 8.0%만이 지원을 받고 있었음

<표 4-267> 응답자 특성별 가족으로부터의 고정적 지원 여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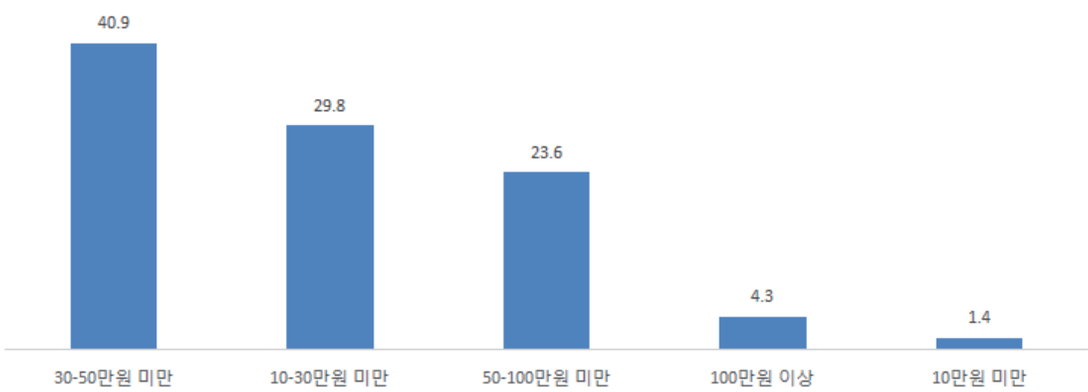
	사례수 (명)	예	아니오	계
전체	**(800)**	**26.0**	**74.0**	**100.0**
성별				
남성	(415)	28.2	71.8	100.0
여성	(385)	23.6	76.4	100.0
연령대				
20-24세	(219)	63.0	37.0	100.0
25-29세	(186)	25.8	74.2	100.0
30-34세	(185)	6.5	93.5	100.0
35-39세	(210)	4.8	95.2	100.0
거주지역				
장안구	(182)	28.0	72.0	100.0
권선구	(245)	22.9	77.1	100.0
팔달구	(126)	28.6	71.4	100.0
영통구	(247)	26.3	73.7	100.0
취업상태				
취업	(449)	5.8	94.2	100.0
미취업	(351)	51.9	48.1	100.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14.8	85.2	100.0
대학교 재학	(231)	65.4	34.6	100.0
대학교 졸업 이상	(400)	8.0	92.0	100.0

나. 지원 받는 금액

○ 가족에게 받는 지원금 평균은 37.0만원으로 나타남

- 지원 받는 금액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들의 40.9%가 30~5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함. 이어서 10~30만원 미만이 29.8%, 50~100만원 미만이 23.6% 등의 순으로 나타남

(단위 : %)



<그림 4-259> 지원 받는 금액

○ 남성의 평균 지원금은 39.1만원, 여성의 평균 지원금은 34.1만원으로 남성이 더 많은 지원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성별에 관계없이 남녀 모두 30~50만원 미만의 지원금을 받는다고 응답했는데 남성이 36.8%, 여성이 46.2%로 여성이 더 높은 응답률을 보임

○ 30대는 50만원 이상의 평균 지원금을 받고 20대는 30만원대의 평균 지원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장안구 거주자가 받는 지원금의 평균이 41.4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나머지 지역 거주자의 평균 지원금은 30만원대로 나타남

○ 취업자가 가족으로부터 받는 지원금의 평균은 50.6만원, 미취업자의 평균 지원금은 35.0만원으로 취업자가 미취업자에 비해 더 많은 지원금을 받고 있었음

○ 대학교 졸업 이상 응답자가 평균 43.8만원의 가장 높은 평균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4-268> 응답자 특성별 지원 받는 금액

(단위 : %, 만원)

	사례수 (명)	10만원 미만	10-30만원 미만	30-50만원 미만	50-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계	평균
전체	**(208)**	**1.4**	**29.8**	**40.9**	**23.6**	**4.3**	**100.0**	**37.0**
성별								
남성	(117)	0.9	29.1	36.8	27.4	6.0	100.0	39.1
여성	(91)	2.2	30.8	46.2	18.7	2.2	100.0	34.1
연령대								
20-24세	(138)	1.4	26.8	48.6	21.0	2.2	100.0	35.2
25-29세	(48)		39.6	29.2	29.2	2.1	100.0	34.4
30-34세	(12)	8.3	16.7	16.7	33.3	25.0	100.0	53.8
35-39세	(10)		40.0	20.0	20.0	20.0	100.0	53.5
거주지역								
장안구	(51)	2.0	29.4	35.3	25.5	7.8	100.0	41.4
권선구	(56)	1.8	46.4	26.8	21.4	3.6	100.0	32.8
팔달구	(36)		27.8	52.8	16.7	2.8	100.0	34.2
영통구	(65)	1.5	16.9	50.8	27.7	3.1	100.0	38.6
취업상태								
취업	(26)		38.5	19.2	19.2	23.1	100.0	50.6
미취업	(182)	1.6	28.6	44.0	24.2	1.6	100.0	35.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25)	4.0	52.0	20.0	20.0	4.0	100.0	30.8
대학교 재학	(151)	0.7	23.8	49.7	23.8	2.0	100.0	36.5
대학교 졸업 이상	(32)	3.1	40.6	15.6	25.0	15.6	100.0	4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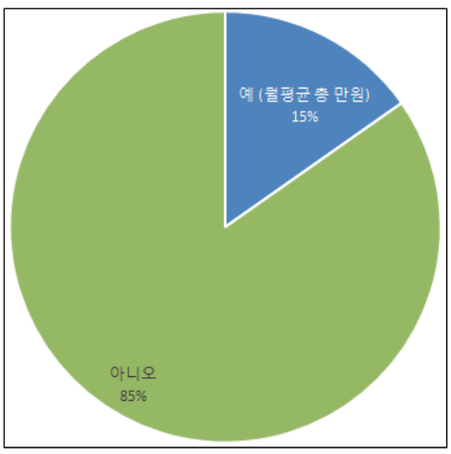
다. 가족에게의 고정적 지원 여부

○ 가족에게의 고정적 지원 여부에 대해 묻는 질문에 응답자들의 15.3%가 ‘예’라고 답함

○ 성별에 따라서 긍정 응답률은 남성 14.2%, 여성 16.4%로 여성이 가족에게 고정적인 지원을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지원을 하는 경우가 증가하는데, 20대 초반과 30대 후반의 경우 3배 정도의 차이가 남

○ 장안구 거주자가 가족에게 지원을 하는 경우가 18.7%로 가장 높았고, 권선구 거주자가 가족에게 지원을 하는 비율이 12.7%로 가장 낮았음



<그림 4-260> 가족에게의 고정적 지원 여부

○ 취업자의 22.5%, 미취업자의 6.0%가 ‘예’라고 답해 매우 큰 차이를 보임

○ 대학교 재학생의 경우는 가족에게 고정적 지원을 하는 비율이 6.4%에 불과했고,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응답자는 14.2%, 대학교 졸업 이상 응답자는 21.0%가 가족에게 고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4-269> 응답자 특성별 가족에게의 고정적 지원 여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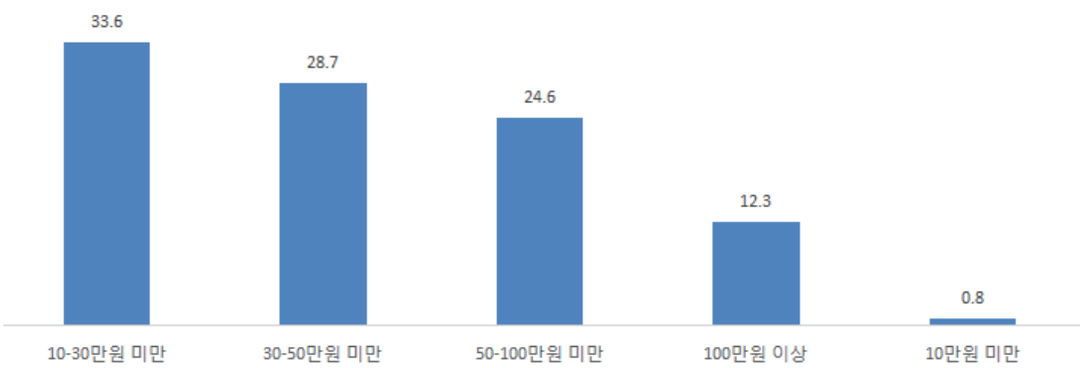
	사례수 (명)	예	아니오	계
전체	**(800)**	**15.3**	**84.8**	**100.0**
성별				
남성	(415)	14.2	85.8	100.0
여성	(385)	16.4	83.6	100.0
연령대				
20-24세	(219)	7.3	92.7	100.0
25-29세	(186)	17.7	82.3	100.0
30-34세	(185)	16.8	83.2	100.0
35-39세	(210)	20.0	80.0	100.0
거주지역				
장안구	(182)	18.7	81.3	100.0
권선구	(245)	12.7	87.3	100.0
팔달구	(126)	13.5	86.5	100.0
영통구	(247)	16.2	83.8	100.0
취업상태				
취업	(449)	22.5	77.5	100.0
미취업	(351)	6.0	94.0	100.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14.2	85.8	100.0
대학교 재학	(231)	6.1	93.9	100.0
대학교 졸업 이상	(400)	21.0	79.0	100.0

라. 지원하는 금액

○ 가족에게 하는 지원금 평균은 44.2만원으로 나타남

- 지원 하는 금액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들의 33.6%가 10~3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함. 이어서 30~50만원 미만이 28.7%, 50~100만원 미만이 24.6% 등의 순으로 나타남

(단위 : %)



<그림 4-261> 지원 하는 금액

○ 남성의 평균 지원금은 52.7만원, 여성의 평균 지원금은 36.2만원으로 남성이 더 많이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성별에 따라 대체로 여성의 지원 비율이 더 높은데 100만원 이상의 경우는 남성이 16.9%로 여성의 7.9%의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남

○ 30~34세의 지원금 평균이 61.0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0대는 30만원대의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영통구 거주자의 지원금의 평균이 50.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장안구 거주자의 평균 지원금이 38.8만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취업자가 가족에게 지원하는 금액의 평균은 47.2만원, 미취업자의 평균 지원금은 29.6만원으로 취업자가 미취업자에 비해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었음

○ 대학교 재학생이 지원하는 금액의 평균이 63.6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대학교 재학생의 경우 가족에게 100만원 이상 지원하고 있는 경우가 28.8%로 다른 학력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4-270> 응답자 특성별 지원하는 금액

(단위 : %, 만원)

	사례수 (명)	10만원 미만	10-30만원 미만	30-50만원 미만	50-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계	평균
전체	**(122)**	**0.8**	**33.6**	**28.7**	**24.6**	**12.3**	**100.0**	**44.2**
성별								
남성	(59)	1.7	32.2	20.3	28.8	16.9	100.0	52.7
여성	(63)		34.9	36.5	20.6	7.9	100.0	36.2
연령대								
20-24세	(16)		31.3	50.0	12.5	6.3	100.0	33.8
25-29세	(33)	3.0	36.4	33.3	18.2	9.1	100.0	37.1
30-34세	(31)		29.0	19.4	32.3	19.4	100.0	61.0
35-39세	(42)		35.7	23.8	28.6	11.9	100.0	41.3
거주지역								
장안구	(34)		44.1	29.4	11.8	14.7	100.0	38.8
권선구	(31)		45.2	19.4	19.4	16.1	100.0	41.3
팔달구	(17)	5.9	35.3	29.4	23.5	5.9	100.0	44.6
영통구	(40)		15.0	35.0	40.0	10.0	100.0	50.8
취업상태								
취업	(101)		31.7	27.7	25.7	14.9	100.0	47.2
미취업	(21)	4.8	42.9	33.3	19.0		100.0	29.6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24)		29.2	33.3	25.0	12.5	100.0	45.6
대학교 재학	(14)		21.4	21.4	28.6	28.6	100.0	63.6
대학교 졸업 이상	(84)	1.2	36.9	28.6	23.8	9.5	100.0	4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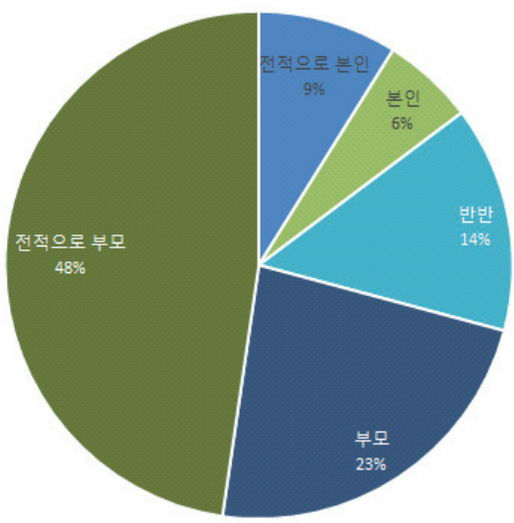
(4) 생애 사건비용 부담 주체

■ 대학등록금 마련 계획

○ 대학등록금 마련 계획에 대한 평균은 3.9로 본인보다는 부모님이 더 많이 부담할 것이라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부모/전적으로 부모' 라고 응답한 비율이 반수가 넘는 55.9%로 가장 높음

(단위 : %)



<그림 4-262> 대학등록금 마련 계획

○ 남성 평균 4.0, 여성 평균 3.9로 모두 본인보다는 부모님이 더 많이 부담할 것이라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남성 응답률 55.7%, 여성 응답률 56.1%)

○ 연령별로 보았을 때 20~24세의 평균이 4.2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나머지 연령대에서도 3.8~3.9의 평균값으로 부모님의 더 많이 부담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팔달구와 영통구 거주자의 평균은 4.0이 넘는 수치를 보였고, 장안구 거주자의 평균이 가장 낮은 3.7이었음

- 장안구 거주자의 응답률이 46.2%로 유일하게 50%에 미치지 못함

○ 취업자의 평균은 3.8, 미취업자의 평균은 4.1로 취업자에 비해 미취업자가 대학등록금 마련시 부모님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더 크게 나타남 (취업자 응답률 49.2%, 미취업자 응답률 64.4%)

○ 대학교 재학생의 평균은 4.1, 대학교 졸업 이상 응답자의 평균은 3.9로 나타남

<표 4-271> 응답자 특성별 대학등록금 마련 계획

(단위 :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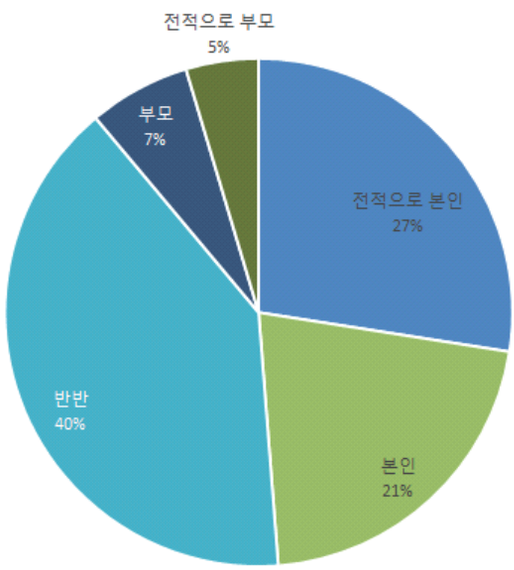
	사례수 (명)	전적으로 본인	←	①+②	반반	→	전적으로 부모	④+⑤	해당 없음	계	평균
전체	**(800)**	**7.0**	**4.6**	**11.6**	**11.4**	**18.3**	**37.6**	**55.9**	**21.1**	**100.0**	**3.9**
성별											
남성	(415)	7.2	4.6	11.8	11.8	16.1	39.5	55.7	20.7	100.0	4.0
여성	(385)	6.8	4.7	11.4	10.9	20.5	35.6	56.1	21.6	100.0	3.9
연령대											
20-24세	(219)	6.4	2.7	9.1	9.6	10.5	51.6	62.1	19.2	100.0	4.2
25-29세	(186)	5.4	7.0	12.4	14.5	19.4	32.3	51.6	21.5	100.0	3.8
30-34세	(185)	8.1	3.8	11.9	9.7	22.7	35.1	57.8	20.5	100.0	3.9
35-39세	(210)	8.1	5.2	13.3	11.9	21.4	30.0	51.4	23.3	100.0	3.8
거주지역											
장안구	(182)	11.0	4.4	15.4	17.6	11.5	34.6	46.2	20.9	100.0	3.7
권선구	(245)	8.2	6.9	15.1	11.0	18.4	33.1	51.4	22.4	100.0	3.8
팔달구	(126)	7.1	4.8	11.9	11.1	19.0	38.9	57.9	19.0	100.0	4.0
영통구	(247)	2.8	2.4	5.3	7.3	22.7	43.7	66.4	21.1	100.0	4.3
취업상태											
취업	(449)	8.5	4.2	12.7	11.4	17.8	31.4	49.2	26.7	100.0	3.8
미취업	(351)	5.1	5.1	10.3	11.4	18.8	45.6	64.4	14.0	100.0	4.1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100.0	100.0	0.0
대학교 재학	(231)	7.8	6.5	14.3	12.1	14.7	58.9	73.6		100.0	4.1
대학교 졸업 이상	(400)	9.5	5.5	15.0	15.8	28.0	41.3	69.3		100.0	3.9

■ 결혼비용 마련 계획

○ 결혼비용 마련 계획에 대한 평균은 2.4로 부모님보다는 본인이 더 많이 부담할 것이라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본인/전적으로 본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9.5%로 가장 높음

(단위 : %)



<그림 4-263> 결혼비용 마련 계획

○ 성별에 관계없이 남녀 모두 평균 2.4로 부모님보다는 본인이 더 많이 부담할 것이라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남성 응답률 43.9%, 여성 응답률 34.8%)

○ 연령별로 보았을 때 20~24세의 평균이 2.2로 본인이 부담하겠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35~39세의 평균은 2.7로 반반에서 본인이 조금 더 부담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팔달구 거주자의 평균은 2.2로 본인 부담 가능성이 타 지역 거주자에 비해 가장 높았음

○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평균 2.4로 나타남

○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응답자와 대학교 재학생의 평균은 2.3, 대학교 졸업 이상 응답자의 평균은 2.5로 나타남

<표 4-272> 응답자 특성별 결혼비용 마련 계획

(단위 :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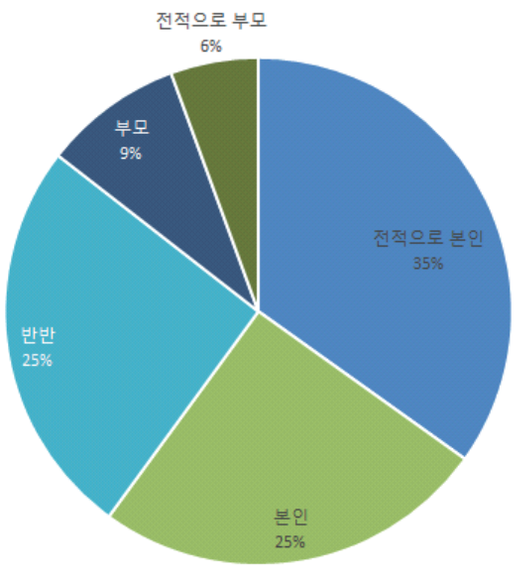
	사례수 (명)	전적으로 본인	←	①+②	반반	→	전적으로 부모	④+⑤	해당 없음	계	평균
전체	**(800)**	**22.3**	**17.3**	**39.5**	**32.5**	**5.3**	**3.8**	**9.0**	**19.0**	**100.0**	**2.4**
성별											
남성	(415)	24.1	19.8	43.9	28.9	6.7	4.1	10.8	16.4	100.0	2.4
여성	(385)	20.3	14.5	34.8	36.4	3.6	3.4	7.0	21.8	100.0	2.4
연령대											
20-24세	(219)	22.4	19.6	42.0	27.9	1.8	0.9	2.7	27.4	100.0	2.2
25-29세	(186)	22.0	18.8	40.9	26.3	5.9	1.6	7.5	25.3	100.0	2.3
30-34세	(185)	25.4	18.9	44.3	31.4	4.9	4.9	9.7	14.6	100.0	2.4
35-39세	(210)	19.5	11.9	31.4	43.8	8.6	7.6	16.2	8.6	100.0	2.7
거주지역											
장안구	(182)	25.8	13.2	39.0	33.0	7.1	2.7	9.9	18.1	100.0	2.4
권선구	(245)	27.8	19.6	47.3	26.9	5.3	4.1	9.4	16.3	100.0	2.3
팔달구	(126)	26.2	15.9	42.1	30.2	2.4	2.4	4.8	23.0	100.0	2.2
영통구	(247)	12.1	18.6	30.8	38.9	5.3	4.9	10.1	20.2	100.0	2.6
취업상태											
취업	(449)	22.9	17.1	40.1	30.7	7.1	2.9	10.0	19.2	100.0	2.4
미취업	(351)	21.4	17.4	38.7	34.8	2.8	4.8	7.7	18.8	100.0	2.4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24.3	13.0	37.3	32.0	5.3	2.4	7.7	23.1	100.0	2.3
대학교 재학	(231)	21.2	19.5	40.7	32.5	1.3	2.6	3.9	22.9	100.0	2.3
대학교 졸업 이상	(400)	22.0	17.8	39.8	32.8	7.5	5.0	12.5	15.0	100.0	2.5

■ 주택구입 비용 마련 계획

○ 결혼비용 마련 계획에 대한 평균은 2.3으로 부모님보다는 본인이 더 많이 부담할 것이라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본인/전적으로 본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5.6%로 가장 높음

(단위 : %)



<그림 4-264> 주택구입 비용 마련 계획

○ 남성 평균 2.3, 여성 평균 2.2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본인 부담 정도를 약간 더 크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부모님이 본인보다 더 많이 부담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 12.3%, 여성 9.6%로 남성이 더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보았을 때 20~24세의 평균이 2.1로 본인이 부담하겠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그 외 연령대의 평균은 2.3으로 본인 부담 가능성이 조금 낮았음

○ 팔달구 거주자의 평균은 2.0로 본인 부담 가능성이 타 지역 거주자에 비해 가장 높았음

○ 취업자 평균 2.3, 미취업자 평균 2.2로 미취업자가 취업자에 비해 본인 부담 정도를 약간 더 크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응답자와 대학교 재학생의 평균 2.2에 비해 대학교 졸업 이상 응답자의 평균은 2.3으로 나타나 본인 부담 가능성이 조금 낮았음

<표 4-273> 응답자 특성별 주택구입 비용 마련 계획

(단위 :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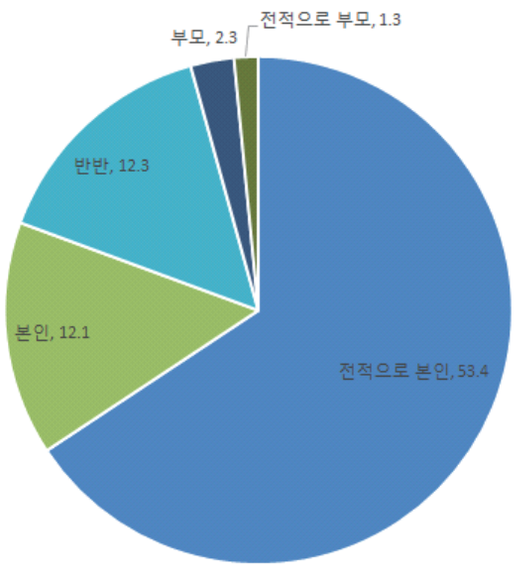
	사례수 (명)	전적으로 본인	←	①+②	반반	→	전적으로 부모	④+⑤	해당 없음	계	평균
전체	**(800)**	**26.5**	**19.1**	**45.6**	**19.4**	**6.8**	**4.3**	**11.0**	**24.0**	**100.0**	**2.3**
성별											
남성	(415)	27.5	20.0	47.5	21.4	8.2	4.1	12.3	18.8	100.0	2.3
여성	(385)	25.5	18.2	43.6	17.1	5.2	4.4	9.6	29.6	100.0	2.2
연령대											
20-24세	(219)	28.8	21.9	50.7	18.3	4.1	3.7	7.8	23.3	100.0	2.1
25-29세	(186)	20.4	21.5	41.9	22.0	5.4	4.3	9.7	26.3	100.0	2.3
30-34세	(185)	26.5	20.0	46.5	16.2	8.6	4.3	13.0	24.3	100.0	2.3
35-39세	(210)	29.5	13.3	42.9	21.0	9.0	4.8	13.8	22.4	100.0	2.3
거주지역											
장안구	(182)	27.5	14.3	41.8	25.3	6.6	4.9	11.5	21.4	100.0	2.3
권선구	(245)	26.5	21.6	48.2	24.1	4.5	4.1	8.6	19.2	100.0	2.2
팔달구	(126)	31.7	13.5	45.2	14.3	6.3	2.4	8.7	31.7	100.0	2.0
영통구	(247)	23.1	23.1	46.2	13.0	9.3	4.9	14.2	26.7	100.0	2.3
취업상태											
취업	(449)	25.2	19.6	44.8	20.3	7.3	3.8	11.1	23.8	100.0	2.3
미취업	(351)	28.2	18.5	46.7	18.2	6.0	4.8	10.8	24.2	100.0	2.2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27.2	14.2	41.4	17.2	2.4	5.3	7.7	33.7	100.0	2.2
대학교 재학	(231)	28.1	23.8	51.9	19.9	4.3	3.9	8.2	19.9	100.0	2.2
대학교 졸업 이상	(400)	25.3	18.5	43.8	20.0	10.0	4.0	14.0	22.3	100.0	2.3

■ 분가 독립 후 생활비용 마련 계획

○ 분가 독립 후 생활비용 마련 계획에 대한 평균은 1.6으로 부모님보다는 본인이 전적으로 부담할 것이라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본인/전적으로 본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5.5%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단위 : %)



<그림 4-265> 분가 독립 후 생활비용 마련 계획

○ 성별에 관계없이 남녀 모두 평균 1.6으로 본인이 전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응답률은 남성이 68.7%, 여성이 62.1%로 남성이 더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보았을 때 20대의 평균(1.6~1.8)이 30대의 평균(1.5)보다 더 높게 나타나 연령이 올라가면 본인 부담 정도도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남

○ 팔달구 거주자의 평균은 1.5로 본인 부담 가능성이 타 지역 거주자에 비해 가장 높았음

○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평균이 모두 1.6으로 나타남

○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응답자의 평균은 1.7인데 반해 대학교 졸업 이상 응답자의 평균은 1.5로 나타나 본인 부담 정도가 약간 더 높게 나타남

<표 4-274> 응답자 특성별 분가 독립 후 생활비용 마련 계획

(단위 : %, 점)

	사례수 (명)	전적으로 본인	←	①+②	반반	→	전적으로 부모	④+⑤	해당 없음	계	평균
전체	**(800)**	**53.4**	**12.1**	**65.5**	**12.3**	**2.3**	**1.3**	**3.5**	**18.8**	**100.0**	**1.6**
성별											
남성	(415)	55.7	13.0	68.7	13.0	1.7	1.9	3.6	14.7	100.0	1.6
여성	(385)	50.9	11.2	62.1	11.4	2.9	0.5	3.4	23.1	100.0	1.6
연령대											
20-24세	(219)	54.3	10.5	64.8	12.3	1.8	1.4	3.2	19.6	100.0	1.6
25-29세	(186)	43.0	17.2	60.2	15.6	1.6	1.6	3.2	21.0	100.0	1.8
30-34세	(185)	57.3	10.8	68.1	11.9	2.7	0.5	3.2	16.8	100.0	1.5
35-39세	(210)	58.1	10.5	68.6	9.5	2.9	1.4	4.3	17.6	100.0	1.5
거주지역											
장안구	(182)	55.5	5.5	61.0	17.0	2.7	1.6	4.4	17.6	100.0	1.7
권선구	(245)	55.1	16.7	71.8	11.8	2.9	0.8	3.7	12.7	100.0	1.6
팔달구	(126)	56.3	7.1	63.5	14.3				22.2	100.0	1.5
영통구	(247)	48.6	15.0	63.6	8.1	2.4	2.0	4.5	23.9	100.0	1.6
취업상태											
취업	(449)	51.4	13.4	64.8	12.5	3.1	0.9	4.0	18.7	100.0	1.6
미취업	(351)	55.8	10.5	66.4	12.0	1.1	1.7	2.8	18.8	100.0	1.6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46.2	13.6	59.8	13.0	2.4	2.4	4.7	22.5	100.0	1.7
대학교 재학	(231)	54.5	10.8	65.4	15.2	0.9	1.3	2.2	17.3	100.0	1.6
대학교 졸업 이상	(400)	55.8	12.3	68.0	10.3	3.0	0.8	3.8	18.0	100.0	1.5

(5) 소비 행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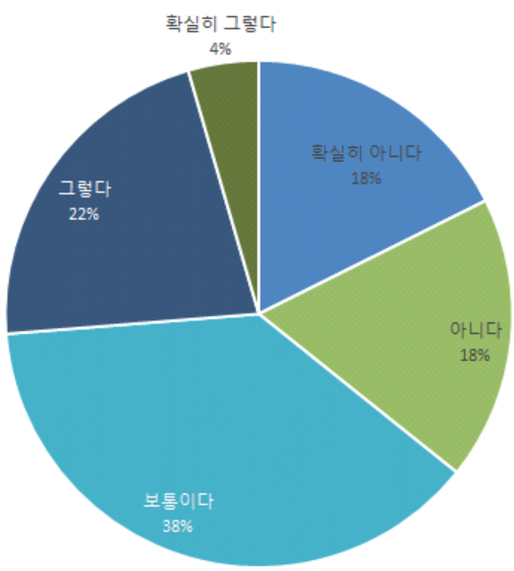
가. 소비 습관

■ 특정 브랜드 선호 정도

○ ‘즐겨 구입하는 브랜드가 정해져 있다’에 대한 동의 여부 평균은 2.8로 보통보다 약간 낮게 나타남

-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38.0%로 가장 높음

(단위 : %)



<그림 4-266> 특정 브랜드 선호 정도

○ 여성의 평균은 2.8, 남성의 평균은 2.7로 여성이 약간 높지만 모두 보통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긍정 응답률은 남성이 22.9%, 여성이 29.9%로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났고 반면 부정 응답률은 남성이 36.6%, 여성이 34.8%로 남성이 더 높게 나타나 여성이 선호하는 브랜드가 있을 가능성이 더 높음

○ 20대의 평균은 2.7, 30대의 평균은 2.8로 30대가 약간 더 높지만 모두 보통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24세는 부정 응답률이 39.3%로 가장 높았고,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많았음

○ 영통구 거주자의 평균이 2.9로 가장 높았고 장안구와 팔달구 거주자의 평균은 2.7로 가장 낮았음

- 권선구 거주자의 경우 부정 응답률이 38.4%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타 지역에 비해 긍정 응답률이 29.0%로 높은 편임

○ 취업자 평균 2.8, 미취업자 평균 2.7로 취업자가 약간 더 높지만 모두 보통에는 미치지 못함

- 취업자는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39.4%로 가장 높았는데, 미취업자는 부정 응답률이 40.2%로 가장 높았음

○ 대학교 졸업 이상 응답자의 평균이 2.9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4-275> 응답자 특성별 특정 브랜드 선호 정도

(단위 :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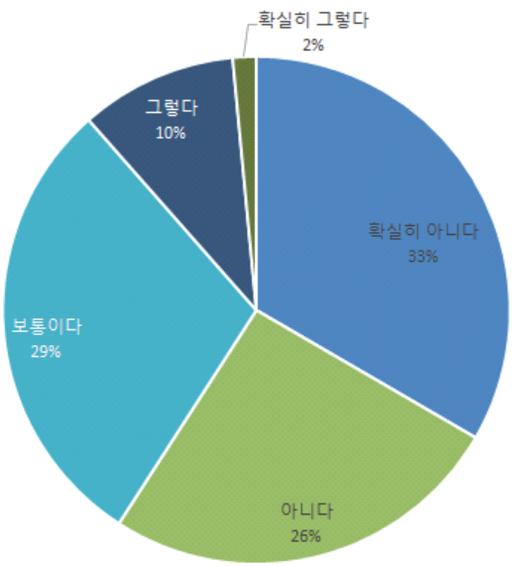
	사례수 (명)	확실히 아니다	←	①+②	보통이다	→	확실히 그렇다	④+⑤	계	평균
전체	**(800)**	**17.6**	**18.1**	**35.8**	**38.0**	**21.8**	**4.5**	**26.3**	**100.0**	**2.8**
성별										
남성	(415)	18.1	18.6	36.6	40.5	18.3	4.6	22.9	100.0	2.7
여성	(385)	17.1	17.7	34.8	35.3	25.5	4.4	29.9	100.0	2.8
연령대										
20-24세	(219)	21.0	18.3	39.3	33.8	21.5	5.5	26.9	100.0	2.7
25-29세	(186)	18.3	19.9	38.2	39.8	19.4	2.7	22.0	100.0	2.7
30-34세	(185)	15.7	16.2	31.9	40.5	22.7	4.9	27.6	100.0	2.8
35-39세	(210)	15.2	18.1	33.3	38.6	23.3	4.8	28.1	100.0	2.8
거주지역										
장안구	(182)	20.3	15.9	36.3	42.3	17.6	3.8	21.4	100.0	2.7
권선구	(245)	18.0	20.4	38.4	32.7	24.9	4.1	29.0	100.0	2.8
팔달구	(126)	23.8	13.5	37.3	38.9	15.1	8.7	23.8	100.0	2.7
영통구	(247)	12.1	19.8	32.0	39.7	25.1	3.2	28.3	100.0	2.9
취업상태										
취업	(449)	16.5	15.8	32.3	39.4	24.1	4.2	28.3	100.0	2.8
미취업	(351)	19.1	21.1	40.2	36.2	18.8	4.8	23.6	100.0	2.7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21.3	16.6	37.9	37.9	17.2	7.1	24.3	100.0	2.7
대학교 재학	(231)	20.8	22.1	42.9	33.3	19.5	4.3	23.8	100.0	2.6
대학교 졸업 이상	(400)	14.3	16.5	30.8	40.8	25.0	3.5	28.5	100.0	2.9

■ 신제품 선호 정도

○ ‘신제품(전자제품 등)이 출시되면 남들보다 먼저 산다’에 대한 동의 여부 평균은 2.2로 낮게 나타남

- 부정 응답률이 59.1%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단위 : %)



<그림 4-267> 신제품 선호 정도

○ 여성의 평균은 2.1, 남성의 평균은 2.3으로 여성이 더 낮은 평균값을 보임 (남성 부정 응답률 55.4%, 여성 부정 응답률 63.1%)

○ 20~24세의 평균은 2.0, 30대의 평균은 2.3으로 30대가 약간 더 높게 나타남

- 20~24세의 부정 응답률이 66.2%로 가장 높음

○ 팔달구 거주자의 평균이 1.9로 가장 낮았음 (팔달구 거주자 부정 응답률 71.4%)

○ 취업자 평균 2.3, 미취업자 평균 2.0로 미취업자가 더 낮게 나타남 (취업자 부정 응답률 51.9%, 미취업자 부정 응답률 66.4%)

○ 대학교 재학생의 평균이 2.0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표 4-276> 응답자 특성별 신제품 선호 정도

(단위 :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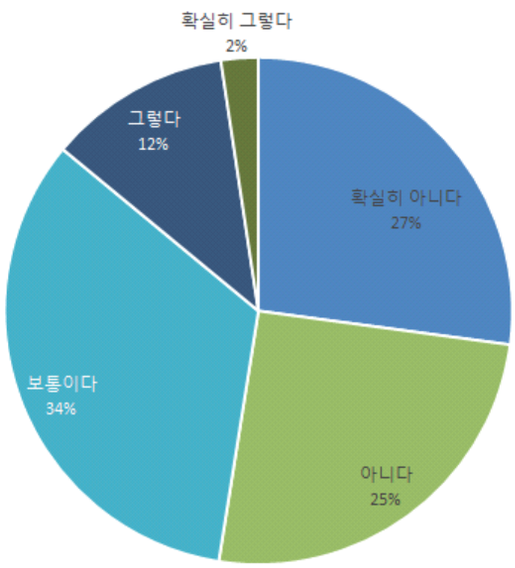
	사례수 (명)	확실히 아니다	←	①+②	보통이다	→	확실히 그렇다	④+⑤	계	평균
전체	**(800)**	**33.4**	**25.8**	**59.1**	**29.4**	**10.0**	**1.5**	**11.5**	**100.0**	**2.2**
성별										
남성	(415)	31.1	24.3	55.4	30.6	12.8	1.2	14.0	100.0	2.3
여성	(385)	35.8	27.3	63.1	28.1	7.0	1.8	8.8	100.0	2.1
연령대										
20-24세	(219)	41.6	24.7	66.2	24.7	8.7	0.5	9.1	100.0	2.0
25-29세	(186)	36.6	24.7	61.3	27.4	9.7	1.6	11.3	100.0	2.2
30-34세	(185)	28.1	27.6	55.7	29.2	12.4	2.7	15.1	100.0	2.3
35-39세	(210)	26.7	26.2	52.9	36.2	9.5	1.4	11.0	100.0	2.3
거주지역										
장안구	(182)	39.6	20.9	60.4	31.3	6.0	2.2	8.2	100.0	2.1
권선구	(245)	32.2	22.9	55.1	32.2	11.0	1.6	12.7	100.0	2.3
팔달구	(126)	48.4	23.0	71.4	18.3	7.9	2.4	10.3	100.0	1.9
영통구	(247)	22.3	33.6	55.9	30.8	13.0	0.4	13.4	100.0	2.4
취업상태										
취업	(449)	28.7	23.2	51.9	34.7	11.6	1.8	13.4	100.0	2.3
미취업	(351)	39.3	29.1	68.4	22.5	8.0	1.1	9.1	100.0	2.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32.5	21.9	54.4	30.2	13.6	1.8	15.4	100.0	2.3
대학교 재학	(231)	42.0	24.7	66.7	26.0	6.5	0.9	7.4	100.0	2.0
대학교 졸업 이상	(400)	28.8	28.0	56.8	31.0	10.5	1.8	12.3	100.0	2.3

■ 외국 제품 선호 정도

○ ‘물건을 구입할 때 외국 제품을 선호한다’ 에 대한 동의 여부 평균은 2.4로 보통에 미치지 못함

- 부정 응답률이 52.5%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단위 : %)



<그림 4-268> 외국 제품 선호 정도

○ 여성의 평균은 2.3, 남성의 평균은 2.4로 여성이 더 낮은 평균값을 보임 (남성 부정 응답률 51.3%, 여성 부정 응답률 53.8%)

○ 20대의 평균은 2.3, 30대의 평균은 2.4~2.5로 30대가 약간 더 높게 나타남

○ 팔달구 거주자의 평균이 2.2로 가장 낮고 영통구 거주자의 평균은 2.5로 상대적으로 높았음

○ 취업자 평균 2.4, 미취업자 평균 2.3으로 미취업자가 더 낮게 나타남 (취업자 부정 응답률 50.3%, 미취업자 부정 응답률 55.3%)

○ 대학교 재학생의 평균이 2.5로 다른 학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4-277> 응답자 특성별 외국 제품 선호 정도

(단위 :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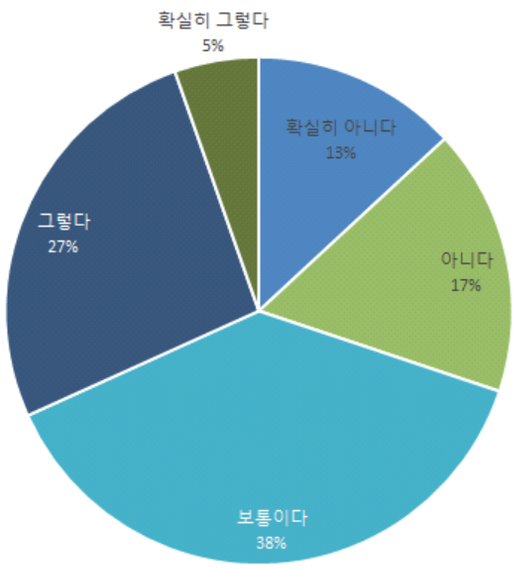
	사례수 (명)	확실히 아니다	←	①+②	보통이다	→	확실히 그렇다	④+⑤	계	평균
전체	**(800)**	**27.1**	**25.4**	**52.5**	**33.5**	**11.6**	**2.4**	**14.0**	**100.0**	**2.4**
성별										
남성	(415)	25.3	26.0	51.3	35.4	10.8	2.4	13.3	100.0	2.4
여성	(385)	29.1	24.7	53.8	31.4	12.5	2.3	14.8	100.0	2.3
연령대										
20-24세	(219)	32.0	24.2	56.2	30.6	12.3	0.9	13.2	100.0	2.3
25-29세	(186)	30.6	22.6	53.2	34.4	9.1	3.2	12.4	100.0	2.3
30-34세	(185)	22.2	27.6	49.7	33.0	14.1	3.2	17.3	100.0	2.5
35-39세	(210)	23.3	27.1	50.5	36.2	11.0	2.4	13.3	100.0	2.4
거주지역										
장안구	(182)	30.8	17.6	48.4	42.3	7.1	2.2	9.3	100.0	2.3
권선구	(245)	26.9	23.7	50.6	35.5	12.7	1.2	13.9	100.0	2.4
팔달구	(126)	40.5	20.6	61.1	23.8	11.9	3.2	15.1	100.0	2.2
영통구	(247)	17.8	35.2	53.0	30.0	13.8	3.2	17.0	100.0	2.5
취업상태										
취업	(449)	24.5	25.8	50.3	35.0	11.8	2.9	14.7	100.0	2.4
미취업	(351)	30.5	24.8	55.3	31.6	11.4	1.7	13.1	100.0	2.3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30.2	24.9	55.0	32.5	9.5	3.0	12.4	100.0	2.3
대학교 재학	(231)	32.9	23.4	56.3	31.2	10.8	1.7	12.6	100.0	2.3
대학교 졸업 이상	(400)	22.5	26.8	49.3	35.3	13.0	2.5	15.5	100.0	2.5

■ 충동 구매 정도

○ ‘가끔 충동적으로 구매를 한다’ ‘가끔 충동적으로 구매를 한다’에 대한 동의 여부 평균은 2.9로 보통에 약간 미치지 못함

- ‘보통이다’의 응답률이 38.1%로 가장 높고, 긍정 응답률 31.8%, 부정 응답률 30.1% 순으로 나타남

(단위 : %)



<그림 4-269> 충동 구매 정도

○ 여성의 평균은 3.1, 남성의 평균은 2.8로 여성이 더 높은 평균값을 보임

- 여성의 경우 긍정 응답률이 38.7%로 가장 높았고, 남성은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38.1%, 부정 응답률이 36.6%로 긍정 응답률보다 높았음

○ 20대의 평균은 2.9, 30대의 평균은 3.0으로 30대가 약간 더 높게 나타남

○ 장안구와 권선구 거주자의 평균은 각각 3.0로 팔달구와 영통구 거주자의 평균 2.8보다 약간 높게 나타남

○ 취업자 평균은 3.0, 미취업자의 평균은 2.9로 미취업자가 약간 낮게 나타남

○ 대학교 재학생의 평균이 3.0으로 다른 학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간 높게 나타남

<표 4-278> 응답자 특성별 충동 구매 정도

(단위 :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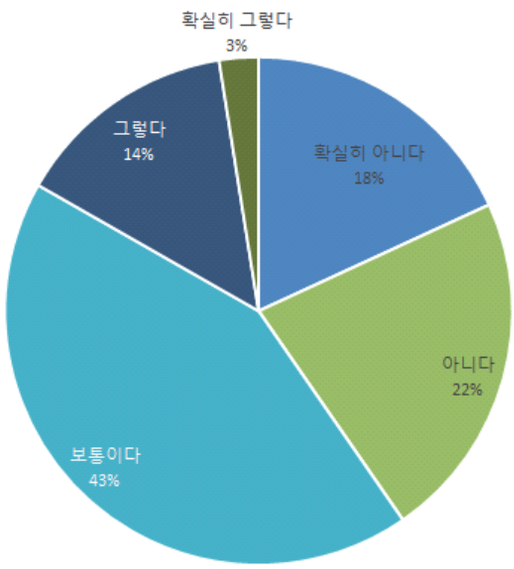
	사례수 (명)	확실히 아니다	←	①+②	보통이다	→	확실히 그렇다	④+⑤	계	평균
전체	**(800)**	**13.1**	**17.0**	**30.1**	**38.1**	**26.4**	**5.4**	**31.8**	**100.0**	**2.9**
성별										
남성	(415)	15.9	20.7	36.6	38.1	21.0	4.3	25.3	100.0	2.8
여성	(385)	10.1	13.0	23.1	38.2	32.2	6.5	38.7	100.0	3.1
연령대										
20-24세	(219)	15.1	16.0	31.1	35.2	27.4	6.4	33.8	100.0	2.9
25-29세	(186)	16.7	15.6	32.3	35.5	29.6	2.7	32.3	100.0	2.9
30-34세	(185)	10.3	19.5	29.7	40.5	22.7	7.0	29.7	100.0	3.0
35-39세	(210)	10.5	17.1	27.6	41.4	25.7	5.2	31.0	100.0	3.0
거주지역										
장안구	(182)	9.9	15.4	25.3	44.5	24.2	6.0	30.2	100.0	3.0
권선구	(245)	12.7	16.7	29.4	31.0	32.7	6.9	39.6	100.0	3.0
팔달구	(126)	22.2	13.5	35.7	29.4	28.6	6.3	34.9	100.0	2.8
영통구	(247)	11.3	20.2	31.6	44.9	20.6	2.8	23.5	100.0	2.8
취업상태										
취업	(449)	12.0	16.0	28.1	37.9	27.4	6.7	34.1	100.0	3.0
미취업	(351)	14.5	18.2	32.8	38.5	25.1	3.7	28.8	100.0	2.9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17.2	17.2	34.3	36.1	22.5	7.1	29.6	100.0	2.9
대학교 재학	(231)	16.0	17.3	33.3	37.2	23.4	6.1	29.4	100.0	2.9
대학교 졸업 이상	(400)	9.8	16.8	26.5	39.5	29.8	4.3	34.0	100.0	3.0

■ 유행 습득 정도

○ ‘새로운 패션과 유행은 빨리 받아들인다’에 대한 동의 여부 평균은 2.6으로 보통에 미치지 못함

- ‘보통이다’의 응답률이 42.9%로 가장 높고, 부정 응답률은 40.4%로 차순으로 나타남

(단위 : %)



<그림 4-270> 유행 습득 정도

○ 여성의 평균은 2.7, 남성의 평균은 2.5로 여성이 더 높은 평균값을 보임

- 여성의 경우 ‘보통이다’가 44.9%로 가장 높았고, 남성은 부정 응답률이 44.1%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연령에 관계없이 모두 평균이 2.6으로 나타남

○ 영통구 거주자의 평균이 2.7로 가장 높고 팔달구 거주자의 평균이 2.5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취업자 평균은 2.7, 미취업자의 평균은 2.5로 미취업자가 더 낮게 나타남

- 취업자의 경우 ‘보통이다’가 46.3%로 가장 높았고, 미취업자는 부정 응답률이 45.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학력에 관계없이 모두 평균이 2.6으로 나타남

<표 4-279> 응답자 특성별 유행 습득 정도

(단위 :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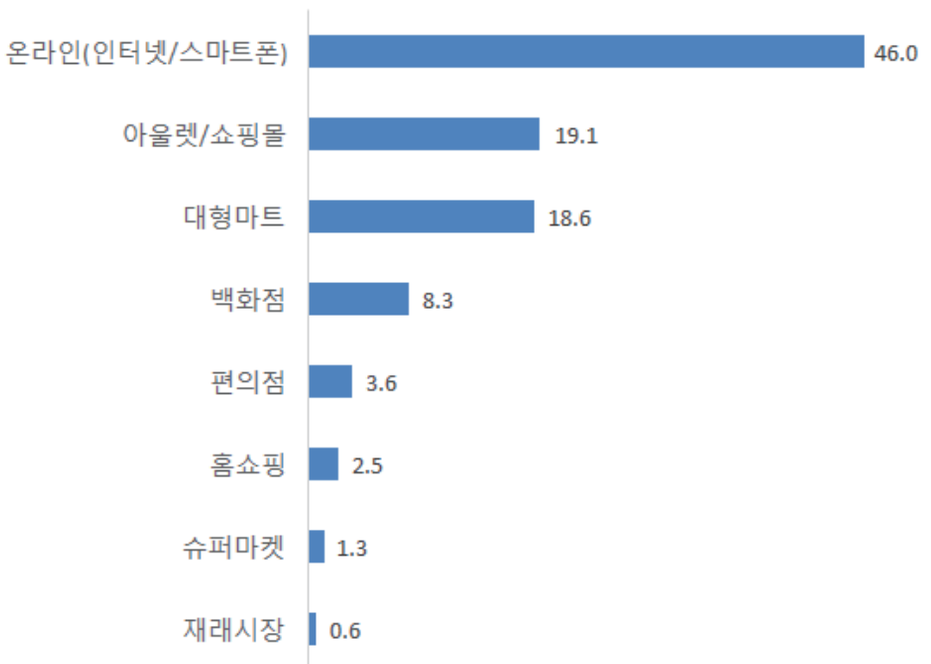
	사례수 (명)	확실히 아니다	←	①+②	보통이다	→	확실히 그렇다	④+⑤	계	평균
전체	**(800)**	**18.1**	**22.3**	**40.4**	**42.9**	**14.3**	**2.5**	**16.8**	**100.0**	**2.6**
성별										
남성	(415)	21.0	23.1	44.1	41.0	12.5	2.4	14.9	100.0	2.5
여성	(385)	15.1	21.3	36.4	44.9	16.1	2.6	18.7	100.0	2.7
연령대										
20-24세	(219)	19.2	23.7	42.9	34.7	18.7	3.7	22.4	100.0	2.6
25-29세	(186)	20.4	16.7	37.1	50.0	11.3	1.6	12.9	100.0	2.6
30-34세	(185)	17.3	23.2	40.5	43.2	14.6	1.6	16.2	100.0	2.6
35-39세	(210)	15.7	24.8	40.5	44.8	11.9	2.9	14.8	100.0	2.6
거주지역										
장안구	(182)	18.1	20.3	38.5	44.5	12.6	4.4	17.0	100.0	2.6
권선구	(245)	18.4	20.4	38.8	45.3	13.5	2.4	15.9	100.0	2.6
팔달구	(126)	27.8	16.7	44.4	40.5	12.7	2.4	15.1	100.0	2.5
영통구	(247)	13.0	28.3	41.3	40.5	17.0	1.2	18.2	100.0	2.7
취업상태										
취업	(449)	17.1	19.6	36.7	46.3	14.7	2.2	16.9	100.0	2.7
미취업	(351)	19.4	25.6	45.0	38.5	13.7	2.8	16.5	100.0	2.5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22.5	17.2	39.6	45.0	12.4	3.0	15.4	100.0	2.6
대학교 재학	(231)	19.5	23.8	43.3	36.8	16.9	3.0	19.9	100.0	2.6
대학교 졸업 이상	(400)	15.5	23.5	39.0	45.5	13.5	2.0	15.5	100.0	2.6

나. 주요 상품 구매처

○ 수원 청년들의 주요 상품 구매처는 온라인 (인터넷/스마트폰)인 것으로 나타남 (46.0%)

- 차순으로는 아울렛/쇼핑몰 19.1%, 대형마트 18.6%, 백화점 8.3% 등이 있음

(단위 : %)



<그림 4-271> 주요 상품 구매처

○ 남녀 모두 온라인 쇼핑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여성의 경우 반수가 넘는 52.7%가 온라인 쇼핑을 이용한다고 응답함

- 여성은 2순위가 아울렛/쇼핑몰(18.7%)로 나타난 데 반해 남성은 2순위로 21.9%가 대형마트에서 주로 상품을 구매한다고 응답함

○ 연령에 관계없이 온라인 쇼핑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대의 경우에는 이용률이 50%를 넘고, 35~39세의 이용률은 34.8%로 2순위인 대형마트의 29.0%와 20대만큼의 큰 격차를 보이지 않음

○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온라인 쇼핑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장안구와 팔달구 거주자는 대형마트를, 권선구와 영통구 거주자는 아울렛/쇼핑몰을 2순위로 응답함

○ 취업자는 온라인 쇼핑 39.0%, 대형마트 21.8%, 아울렛/쇼핑몰 21.6% 등의 순으로 상품을 주로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나 비교적 분산되어 있는데 반해 미취업자의 경우에는 55.0%가 온라인 쇼핑을 이용한다고 응답함

○ 학력에 관계없이 온라인 쇼핑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학교 재학생이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는 비율이 56.3%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4-280> 응답자 특성별 주요 상품 구매처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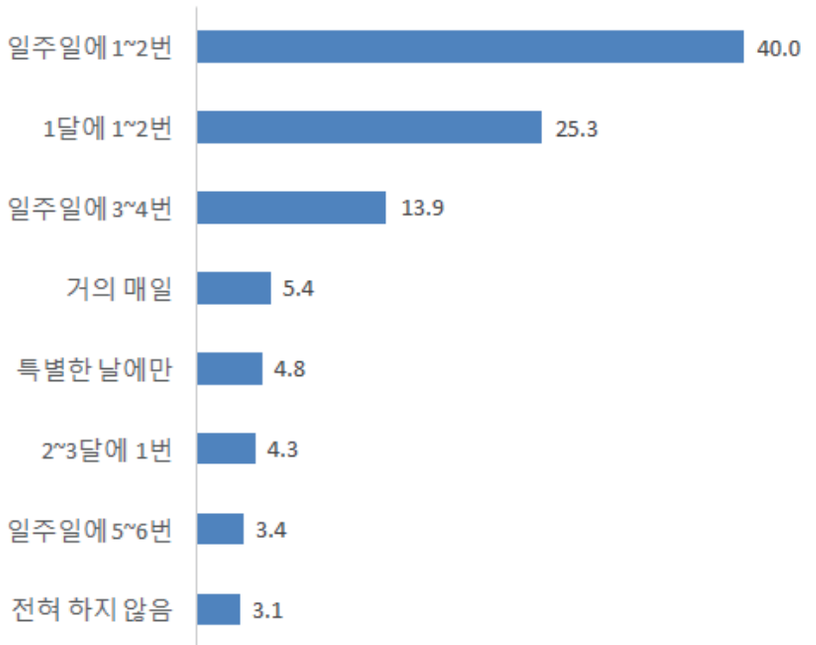
	사례수 (명)	온라인 (인터넷/스마트폰)	아울렛/쇼핑몰	대형마트	백화점	편의점	홈쇼핑	슈퍼마켓	재래시장	계
전체	**(800)**	**46.0**	**19.1**	**18.6**	**8.3**	**3.6**	**2.5**	**1.3**	**0.6**	**100.0**
성별										
남성	(415)	39.8	19.5	21.9	8.7	5.3	3.1	1.2	0.5	100.0
여성	(385)	52.7	18.7	15.1	7.8	1.8	1.8	1.3	0.8	100.0
연령대										
20-24세	(219)	54.3	19.2	10.0	8.7	4.6	0.9	1.8	0.5	100.0
25-29세	(186)	50.5	14.0	12.9	9.7	6.5	4.3	1.1	1.1	100.0
30-34세	(185)	44.3	20.0	22.7	8.1	2.7	0.5	0.5	1.1	100.0
35-39세	(210)	34.8	22.9	29.0	6.7	1.0	4.3	1.4		100.0
거주지역										
장안구	(182)	41.2	17.0	19.8	9.3	4.4	3.8	1.6	2.7	100.0
권선구	(245)	43.3	22.4	17.6	9.8	3.3	2.0	1.6		100.0
팔달구	(126)	50.0	11.1	16.7	11.9	7.1	2.4	0.8		100.0
영통구	(247)	50.2	21.5	19.8	4.0	1.6	2.0	0.8		100.0
취업상태										
취업	(449)	39.0	21.6	21.8	9.1	3.8	2.9	1.1	0.7	100.0
미취업	(351)	55.0	16.0	14.5	7.1	3.4	2.0	1.4	0.6	100.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39.1	19.5	20.7	6.5	8.3	3.6	2.4		100.0
대학교 재학	(231)	56.3	16.5	12.1	8.7	3.5	2.2	0.4	0.4	100.0
대학교 졸업 이상	(400)	43.0	20.5	21.5	8.8	1.8	2.3	1.3	1.0	100.0

다. 외식 빈도

○ 수원 청년들의 외식 빈도는 일주일에 1~2번이 40.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이어서 1달에 1~2번 25.3%, 일주일에 3~4번 13.9%, 거의 매일 5.4% 등의 순으로 나타남

(단위 : %)



<그림 4-272> 외식 빈도

○ 남녀 모두 일주일에 1~2번 외식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남성 응답률 42.4%, 여성 응답률 37.4%)

○ 연령에 관계없이 일주일에 1~2번 외식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20대의 경우에는 30%대의 응답률을 보였고, 30대는 40% 이상의 응답률을 보임

- 거의 매일 외식을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5~29세가 9.1%로 가장 높았고 전혀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30~34세가 6.5%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일주일에 1~2번 외식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영통구 거주자의 응답률이 47.4%로 가장 높았음

○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일주일에 1~2번 외식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취업자 응답률 44.1%, 미취업자 응답률 34.8%)

○ 학력에 관계없이 일주일에 1~2번 외식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학교 졸업 이상 응답자의 응답률이 44.5%로 가장 높았음

<표 4-281> 응답자 특성별 외식 빈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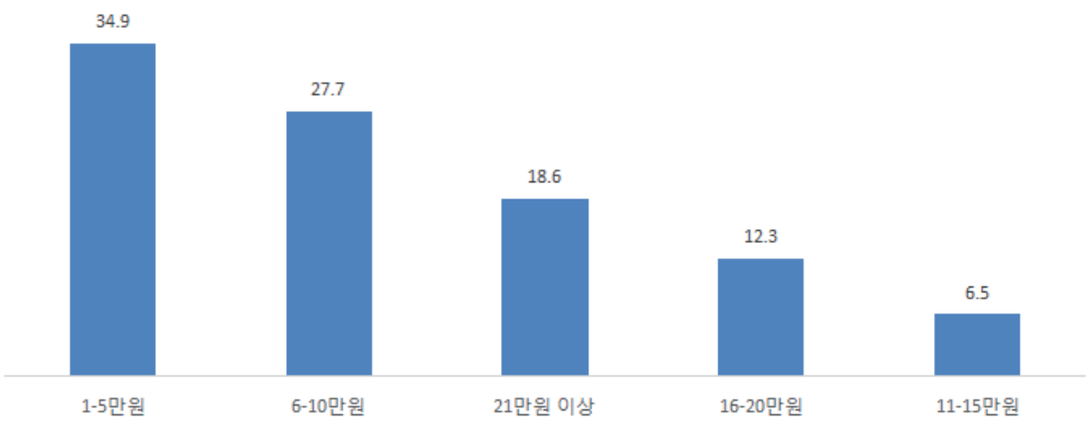
	사례수 (명)	일주일에 1~2번	1달에 1~2번	일주일에 3~4번	거의 매일	특별한 날에만	2~3달에 1번	일주일에 5~6번	전혀 하지 않음	계
전체	**(800)**	**40.0**	**25.3**	**13.9**	**5.4**	**4.8**	**4.3**	**3.4**	**3.1**	**100.0**
성별										
남성	(415)	42.4	23.9	12.5	5.1	5.8	4.3	3.6	2.4	100.0
여성	(385)	37.4	26.8	15.3	5.7	3.6	4.2	3.1	3.9	100.0
연령대										
20-24세	(219)	36.5	28.8	12.8	6.8	5.9	5.0	4.1		100.0
25-29세	(186)	34.9	23.7	14.0	9.1	5.9	4.8	3.8	3.8	100.0
30-34세	(185)	42.2	24.3	14.1	2.2	1.6	4.3	4.9	6.5	100.0
35-39세	(210)	46.2	23.8	14.8	3.3	5.2	2.9	1.0	2.9	100.0
거주지역										
장안구	(182)	39.6	19.8	15.4	8.8	7.1	4.9	2.2	2.2	100.0
권선구	(245)	37.1	33.1	12.7	2.9	4.5	4.1	3.7	2.0	100.0
팔달구	(126)	31.7	22.2	11.1	5.6	6.3	6.3	5.6	11.1	100.0
영통구	(247)	47.4	23.1	15.4	5.3	2.4	2.8	2.8	0.8	100.0
취업상태										
취업	(449)	44.1	22.0	14.9	6.2	3.1	2.4	2.9	4.2	100.0
미취업	(351)	34.8	29.3	12.5	4.3	6.8	6.6	4.0	1.7	100.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34.9	27.8	11.2	5.9	4.7	3.0	2.4	10.1	100.0
대학교 재학	(231)	35.9	27.7	14.7	5.6	6.9	5.2	3.5	0.4	100.0
대학교 졸업 이상	(400)	44.5	22.8	14.5	5.0	3.5	4.3	3.8	1.8	100.0

라. 한 달 평균 외식 비용

○ 1인 한 달 기준 외식 비용의 평균은 15.5만원으로 나타남

- 1인 한 달 기준 외식 비용은 1~5만원인 경우가 34.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6~10만원 27.7%, 21만원 이상 18.6%, 16~20만원 12.3%, 11~15만원 6.5% 순으로 나타남

(단위 : %)



<그림 4-273> 한 달 평균 외식 비용

○ 남성의 한 달 평균 외식비는 15.8만원, 여성은 15.3만원으로 남성이 더 많은 비용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남녀 모두 1~5만원인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21만원 이상의 외식비를 쓰는 경우는 남성이 17.6%, 여성이 19.6%로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남

○ 25~29세의 한 달 평균 외식비가 17.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30~34세의 외식비가 15.8만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25~29세의 경우 한 달 평균 외식비로 6~10만원, 11~15만원, 16~20만원을 사용한다는 응답이 각각 다른 연령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남

○ 장안구 거주자의 한 달 평균 외식비가 17.2만원으로 가장 높고 팔달구 거주자의 평균 외식비는 14.6만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장안구 거주자의 경우 한 달 평균 외식비를 21만원 이상 쓴다는 응답이 23.9%로 3순위를 차지함

○ 취업자의 한 달 평균 외식비는 18.3만원, 미취업자는 12.0만원으로 취업자가 더 많은 비용을 외식으로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남

- 21만원 이상의 외식비를 소비하는 경우가 취업자는 24.4%, 미취업자는 11.2%로 2배가 넘는 차이를 보임

○ 대학교 재학생의 한 달 평균 외식비가 12.4만원으로 가장 낮았고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응답자는 16.7만원, 대학교 졸업 이상 응답자는 16.8만원으로 나타남

<표 4-282> 응답자 특성별 한 달 평균 외식 비용

(단위 : %, 만원)

	사례수 (명)	1-5만원	6-10만원	11-15만원	16-20만원	21만원 이상	계	평균
전체	**(786)**	**34.9**	**27.7**	**6.5**	**12.3**	**18.6**	**100.0**	**15.5**
성별								
남성	(408)	34.6	27.7	6.9	13.2	17.6	100.0	15.8
여성	(378)	35.2	27.8	6.1	11.4	19.6	100.0	15.3
연령대								
20-24세	(218)	39.4	27.5	8.7	8.3	16.1	100.0	12.9
25-29세	(183)	26.8	29.5	7.7	16.4	19.7	100.0	17.0
30-34세	(176)	35.8	27.8	5.1	13.1	18.2	100.0	15.8
35-39세	(209)	36.4	26.3	4.3	12.4	20.6	100.0	16.7
거주지역								
장안구	(180)	30.0	26.1	5.6	14.4	23.9	100.0	17.2
권선구	(243)	39.1	22.6	7.0	13.2	18.1	100.0	15.3
팔달구	(117)	46.2	22.2	6.8	7.7	17.1	100.0	14.6
영통구	(246)	28.9	36.6	6.5	12.2	15.9	100.0	14.9
취업상태								
취업	(439)	28.0	26.2	6.2	15.3	24.4	100.0	18.3
미취업	(347)	43.5	29.7	6.9	8.6	11.2	100.0	12.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58)	34.8	21.5	5.7	18.4	19.6	100.0	16.7
대학교 재학	(230)	37.0	33.9	10.0	6.5	12.6	100.0	12.4
대학교 졸업 이상	(398)	33.7	26.6	4.8	13.3	21.6	100.0	16.8

(6) 부채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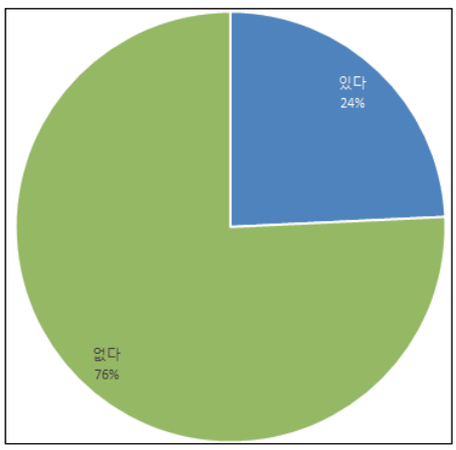
가. 부채 유무

○ 부채 여부에 대해 묻는 질문에 응답자들의 24.3%가 '있다' 라고 답함

○ 성별에 따른 긍정 응답률은 남성 23.6%, 여성 24.9%로 여성이 부채가 있는 경우가 더 많았음

○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부채가 있는 경우가 증가하는데, 20~24세의 긍정 응답률은 8.7%인데 반해 35~39세의 긍정 응답률은 40.5%로 4배 이상의 차이가 남

○ 장안구 거주자가 부채가 있는 경우가 33.0%로 가장 높았고, 팔달구 거주자의 부채 비율이 15.9%로 가장 낮았음



<그림 4-274> 부채 유무

○ 취업자의 긍정 응답률이 31.8%, 미취업자의 긍정 응답률이 14.5%로 2배 이상 차이가 남

○ 대학교 재학생의 경우 부채가 있는 비율이 11.7%였으나 대학교 졸업 이상 응답자의 경우는 부채율이 30.8%로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임

<표 4-283> 응답자 특성별 부채 유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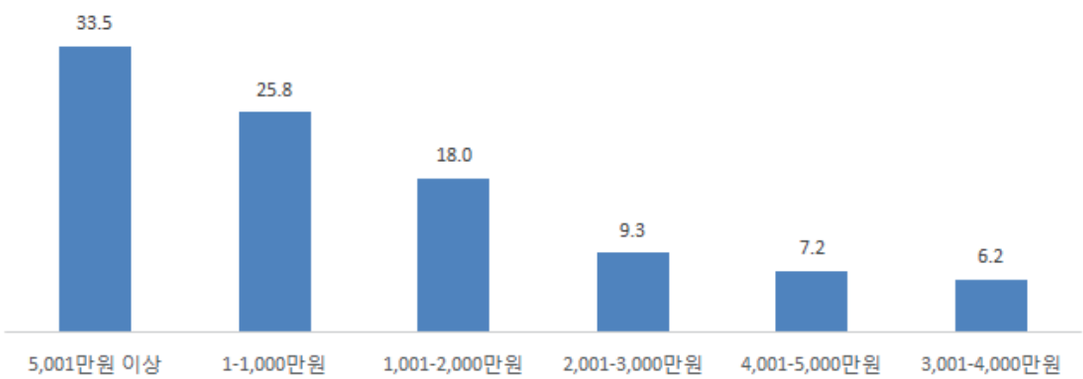
	사례수 (명)	있다	없다	계
전체	**(800)**	**24.3**	**75.8**	**100.0**
성별				
남성	(415)	23.6	76.4	100.0
여성	(385)	24.9	75.1	100.0
연령대				
20-24세	(219)	8.7	91.3	100.0
25-29세	(186)	11.8	88.2	100.0
30-34세	(185)	36.8	63.2	100.0
35-39세	(210)	40.5	59.5	100.0
거주지역				
장안구	(182)	33.0	67.0	100.0
권선구	(245)	28.2	71.8	100.0
팔달구	(126)	15.9	84.1	100.0
영통구	(247)	18.2	81.8	100.0
취업상태				
취업	(449)	31.8	68.2	100.0
미취업	(351)	14.5	85.5	100.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26.0	74.0	100.0
대학교 재학	(231)	11.7	88.3	100.0
대학교 졸업 이상	(400)	30.8	69.3	100.0

나. 부채 액수

○ 수원시 청년의 부채 금액의 평균은 6,301.1만원으로 나타남

- 부채 금액이 5,001만원 이상인 경우가 33.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1,000만원 이하 25.8%, 1,001~2,000만원 18.0%, 2001~3000만원 9.3% 등의 순으로 나타남

(단위 : %)



<그림 4-275> 부채 금액

○ 남성의 부채액 평균은 6,922.9만원, 여성 평균은 5,666.4만원으로 남성이 더 많은 부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남녀 모두 평균 부채액이 5,001만원 이상인 경우가 가장 많은데, 남성은 38.8%, 여성은 28.1%가 여기에 해당함

○ 연령이 높아질수록 부채액도 커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20~24세의 부채액이 평균 2,552.6만원인 반면 35~39세의 부채액은 평균 8,457.6만원으로 3.3배 정도의 차이를 보임

- 20대의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평균 부채액을 갖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30대는 평균 부채액이 5,001만원 이상인 경우가 가장 많았음

○ 권선구 거주자의 평균 부채액이 6,932.6만원 가장 높고 팔달구 거주자의 평균 부채액은 4,416.5만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대부분의 지역에서 평균 부채액이 5,001만원인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난데 반해 유일하게 팔달구 거주자만이 1,000만원 이하의 부채액을 갖고 있는 경우가 45.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취업자의 평균 부채액은 6,747.1만원, 미취업자는 5,050.4만원으로 취업자가 더 많은 부채액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취업자의 경우는 5,001만원 이상의 부채액을 갖고 있는 경우가 35.7%로 가장 많았고, 미취업자는 1,000만원 이하의 부채액을 갖고 있는 경우가 31.4%로 가장 높았음

○ 대학교 재학생의 평균 부채액은 1,751.5만원이고 대학교 졸업 이상 응답자의 평균 부채액은 7,879.8만원으로 4.5배 정도의 차이를 보임

- 대학교 졸업 응답자는 평균 부채액이 5,001만원 이상인 경우가 45.5%로 가장 많았음

<표 4-284> 응답자 특성별 부채 액수

(단위 : %, 만원)

	사례수(명)	1-1,000만원	1,001-2,000만원	2,001-3,000만원	3,001-4,000만원	4,001-5,000만원	5,001만원 이상	계	평균
전체	**(194)**	**25.8**	**18.0**	**9.3**	**6.2**	**7.2**	**33.5**	**100.0**	**6301.1**
성별									
남성	(98)	25.5	14.3	11.2	4.1	6.1	38.8	100.0	6922.9
여성	(96)	26.0	21.9	7.3	8.3	8.3	28.1	100.0	5666.4
연령대									
20-24세	(19)	63.2	21.1		5.3		10.5	100.0	2552.6
25-29세	(22)	59.1	18.2	9.1			13.6	100.0	3487.7
30-34세	(68)	27.9	20.6	7.4	5.9	8.8	29.4	100.0	5562.9
35-39세	(85)	7.1	15.3	12.9	8.2	9.4	47.1	100.0	8457.6
거주지역									
장안구	(60)	28.3	13.3	6.7	6.7	6.7	38.3	100.0	6439.7
권선구	(69)	26.1	23.2	8.7	4.3	2.9	34.8	100.0	6932.6
팔달구	(20)	45.0	20.0	5.0	5.0		25.0	100.0	4416.5
영통구	(45)	13.3	15.6	15.6	8.9	17.8	28.9	100.0	5985.6
취업상태									
취업	(143)	23.8	19.6	7.7	4.9	8.4	35.7	100.0	6747.1
미취업	(51)	31.4	13.7	13.7	9.8	3.9	27.5	100.0	5050.4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44)	27.3	22.7	9.1	11.4	11.4	18.2	100.0	4679.5
대학교 재학	(27)	55.6	22.2	11.1	3.7	3.7	3.7	100.0	1751.5
대학교 졸업 이상	(123)	18.7	15.4	8.9	4.9	6.5	45.5	100.0	7879.8

3) 건강 및 영양

(1) 신체 건강 및 정신 건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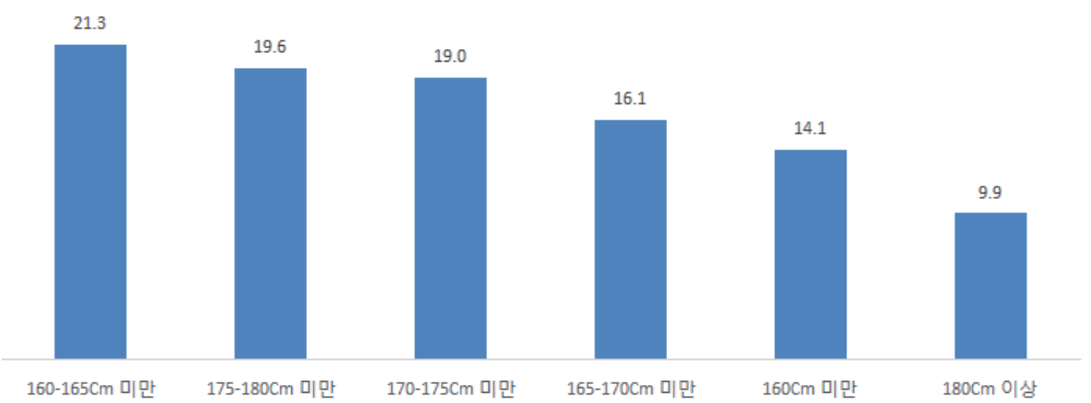
가. 키 및 몸무게

■ 키

○ 수원시 청년의 평균 키는 168.6cm로 나타남

- 키가 160~165cm 미만인 경우가 21.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175~180cm 19.6%, 170~175cm 19.0%, 165~170cm 16.1% 등의 순으로 나타남

(단위 : %)



<그림 4-276> 키

○ 남성의 평균 키는 174.9cm, 여성의 평균키는 161.8cm인 것으로 나타남

- 남성은 175~180cm인 경우가 37.8%로 가장 높고, 여성은 160~165cm 미만인 경우가 42.1%로 가장 높게 나타남

○ 25~29세의 평균 키가 169.3cm로 가장 크게 나타남

- 20~34세의 경우에는 키가 160~165cm인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35~39세는 175~180cm인 경우가 20.0%로 가장 높았음

○ 장안구 거주자의 평균 키가 169.3cm로 가장 크고 팔달구 거주자의 평균 키는 167.7cm로 가장 작게 나타남

○ 취업자의 평균 키는 169.3cm, 미취업자의 평균 키는 167.8cm로 취업자의 평균 키가 더 크게 나타남

○ 대학교 재학생의 평균 키가 169.7cm로 가장 크고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응답자의 평균 키가 167.9cm로 가장 작게 나타남

<표 4-285> 응답자 특성별 키

(단위 : %,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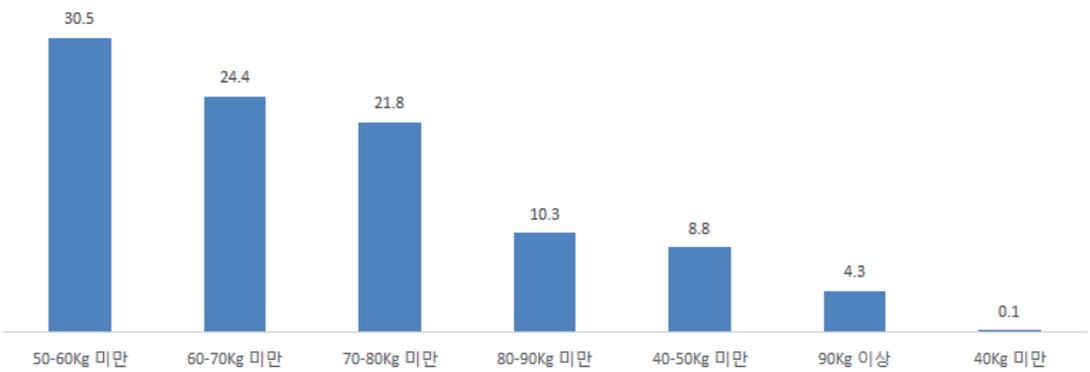
	사례수 (명)	160Cm 미만	160-165Cm 미만	165-170Cm 미만	170-175Cm 미만	175-180Cm 미만	180Cm 이상	계	평균
전체	**(800)**	**14.1**	**21.3**	**16.1**	**19.0**	**19.6**	**9.9**	**100.0**	**168.6**
성별									
남성	(415)	0.7	1.9	8.2	32.3	37.8	19.0	100.0	174.9
여성	(385)	28.6	42.1	24.7	4.7			100.0	161.8
연령대									
20-24세	(219)	13.7	21.9	16.0	19.2	20.1	9.1	100.0	168.6
25-29세	(186)	12.4	21.0	16.7	16.7	19.4	14.0	100.0	169.3
30-34세	(185)	14.1	24.3	14.6	20.5	18.9	7.6	100.0	168.1
35-39세	(210)	16.2	18.1	17.1	19.5	20.0	9.0	100.0	168.4
거주지역									
장안구	(182)	13.7	14.8	20.3	19.8	19.8	11.5	100.0	169.3
권선구	(245)	15.5	21.6	14.3	16.7	20.8	11.0	100.0	168.6
팔달구	(126)	15.1	23.0	16.7	23.0	13.5	8.7	100.0	167.7
영통구	(247)	12.6	24.7	14.6	18.6	21.5	8.1	100.0	168.6
취업상태									
취업	(449)	12.9	19.4	14.7	20.3	22.3	10.5	100.0	169.3
미취업	(351)	15.7	23.6	17.9	17.4	16.2	9.1	100.0	167.8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15.4	25.4	13.6	19.5	17.8	8.3	100.0	167.9
대학교 재학	(231)	12.1	18.2	13.9	21.6	21.6	12.6	100.0	169.7
대학교 졸업 이상	(400)	14.8	21.3	18.5	17.3	19.3	9.0	100.0	168.3

■ 몸무게

○ 수원시 청년의 평균 몸무게는 64.6kg으로 나타남

- 몸무게가 50~60kg 미만인 경우가 30.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60~70kg 24.4%, 70~80kg 21.8%, 80~90kg 10.3% 등의 순으로 나타남

(단위 : %)



<그림 4-277> 몸무게

○ 남성의 평균 몸무게는 73.1kg, 여성의 평균 몸무게는 55.5kg인 것으로 나타남

- 여성은 반수 이상인 56.6%가 50~60kg 미만에 분포해 있는 데 반해 남성은 70~80kg이 38.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50kg미만은 남성이 0,5%이고 여성이 17.7%인데 90kg 이상은 남성이 7.7%이고 여성은 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평균 몸무게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35~39세의 평균 몸무게가 66.2kg으로 가장 무겁게 나타남

○ 장안구 거주자의 평균 몸무게가 65.0kg으로 가장 무거운 것으로 나타남

○ 취업자의 평균 몸무게는 66.3kg, 미취업자의 평균 몸무게는 62.6kg으로 취업자의 평균 몸무게가 더 무거운 것으로 나타남

- 70kg 이상은 취업자가 미취업자보다 높은 비율을 보임

○ 대학교 재학생의 평균 몸무게는 63.4kg으로 가장 가볍고 대학교 졸업 이상 응답자의 평균 몸무게가 65.2kg으로 가장 무겁게 나타남

<표 4-286> 응답자 특성별 몸무게

(단위 : %, 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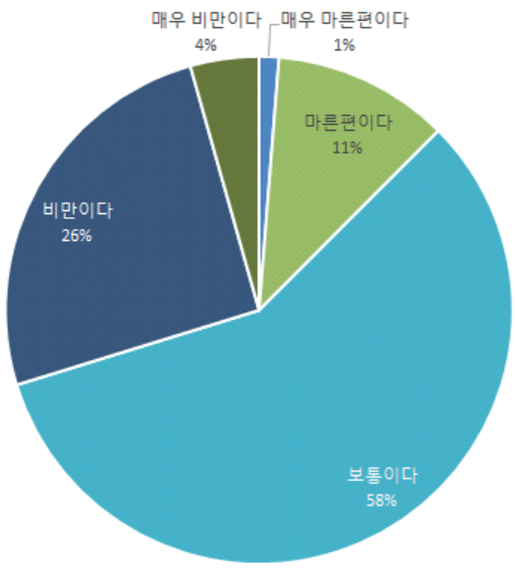
	사례수 (명)	40Kg 미만	40-50Kg 미만	50-60Kg 미만	60-70Kg 미만	70-80Kg 미만	80-90Kg 미만	90Kg 이상	계	평균
전체	**(800)**	**0.1**	**8.8**	**30.5**	**24.4**	**21.8**	**10.3**	**4.3**	**100.0**	**64.6**
성별										
남성	(415)		0.5	6.3	28.9	38.3	18.3	7.7	100.0	73.1
여성	(385)	0.3	17.7	56.6	19.5	3.9	1.6	0.5	100.0	55.5
연령대										
20-24세	(219)	0.5	13.7	29.7	30.1	18.3	5.5	2.3	100.0	61.8
25-29세	(186)		8.6	32.8	19.4	24.2	10.2	4.8	100.0	65.0
30-34세	(185)		7.0	29.2	24.3	18.9	14.6	5.9	100.0	65.9
35-39세	(210)		5.2	30.5	22.9	25.7	11.4	4.3	100.0	66.2
거주지역										
장안구	(182)	0.5	11.0	26.4	27.5	19.8	11.5	3.3	100.0	64.4
권선구	(245)		10.2	28.6	22.9	22.0	10.2	6.1	100.0	65.0
팔달구	(126)		7.9	30.2	29.4	18.3	9.5	4.8	100.0	64.8
영통구	(247)		6.1	35.6	21.1	24.7	9.7	2.8	100.0	64.4
취업상태										
취업	(449)	0.2	9.1	26.1	20.5	25.8	12.7	5.6	100.0	66.3
미취업	(351)		8.3	36.2	29.3	16.5	7.1	2.6	100.0	62.6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10.7	30.2	20.7	20.1	11.8	6.5	100.0	64.9
대학교 재학	(231)		10.0	28.6	30.7	21.6	7.4	1.7	100.0	63.4
대학교 졸업 이상	(400)	0.3	7.3	31.8	22.3	22.5	11.3	4.8	100.0	65.2

나. 본인 체형에 대한 인식

○ 본인의 체형 정도에 대한 평균은 3.2로 보통을 약간 넘는 것으로 나타남

- '보통이다'의 응답률이 57.8%로 가장 높고, 비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29.8%로 그렇지 않은 경우의 12.5%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남

(단위 : %)



<그림 4-278> 본인의 체형 정도

○ 성별에 관계없이 남녀 모두 평균 3.2로 보통을 약간 넘는 것으로 나타남 (남성 '보통이다' 응답률 53.7%, 여성 '보통이다' 응답률 62.1%)

○ 20대의 평균은 3.0~3.2인데 비해 30대의 평균은 3.3으로 30대가 자신이 비만이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영통구 거주자의 평균이 3.1로 가장 낮고 권선구와 팔달구 거주자의 평균이 3.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취업자 평균은 3.3, 미취업자의 평균은 3.1로 미취업자가 더 낮게 나타남

○ 대학교 재학생의 평균이 3.1로 가장 낮고, 대학교 졸업 이상 응답자의 평균이 3.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4-287> 응답자 특성별 본인의 체형 정도

(단위 :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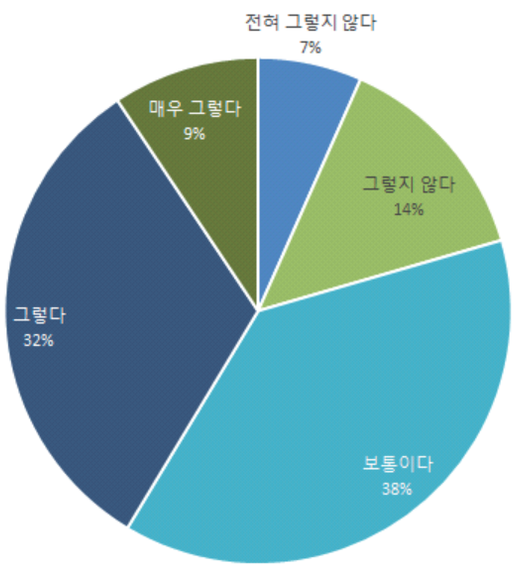
	사례수 (명)	매우 마른편이다	마른편이다	①+②	보통이다	비만이다	매우 비만이다	④+⑤	계	평균
전체	**(800)**	**1.3**	**11.3**	**12.5**	**57.8**	**25.4**	**4.4**	**29.8**	**100.0**	**3.2**
성별										
남성	(415)	1.4	12.5	14.0	53.7	28.4	3.9	32.3	100.0	3.2
여성	(385)	1.0	9.9	10.9	62.1	22.1	4.9	27.0	100.0	3.2
연령대										
20-24세	(219)	3.2	11.9	15.1	67.1	13.7	4.1	17.8	100.0	3.0
25-29세	(186)		15.1	15.1	53.8	28.0	3.2	31.2	100.0	3.2
30-34세	(185)	1.1	10.3	11.4	52.4	30.3	5.9	36.2	100.0	3.3
35-39세	(210)	0.5	8.1	8.6	56.2	31.0	4.3	35.2	100.0	3.3
거주지역										
장안구	(182)	2.2	12.1	14.3	54.4	26.9	4.4	31.3	100.0	3.2
권선구	(245)	0.8	9.8	10.6	55.1	27.8	6.5	34.3	100.0	3.3
팔달구	(126)	0.8	11.1	11.9	54.0	29.4	4.8	34.1	100.0	3.3
영통구	(247)	1.2	12.1	13.4	64.8	19.8	2.0	21.9	100.0	3.1
취업상태										
취업	(449)	0.7	11.1	11.8	54.8	29.2	4.2	33.4	100.0	3.3
미취업	(351)	2.0	11.4	13.4	61.5	20.5	4.6	25.1	100.0	3.1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2.4	8.9	11.2	57.4	26.0	5.3	31.4	100.0	3.2
대학교 재학	(231)	1.3	10.8	12.1	69.7	14.7	3.5	18.2	100.0	3.1
대학교 졸업 이상	(400)	0.8	12.5	13.3	51.0	31.3	4.5	35.8	100.0	3.3

다. 주관적 건강 수준

○ ‘나는 신체적으로 건강하다고 느낀다’에 대한 동의 정도 평균은 3.2로 보통을 약간 넘는 것으로 나타남

- 긍정 응답률이 41.4%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단위 : %)



<그림 4-279> 주관적 건강 수준

○ 남성의 평균은 3.3, 여성의 평균은 3.1로 남성이 자신을 더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남성 긍정 응답률 42.4%, 여성 긍정 응답률 40.5%)

○ 20~24세의 평균은 3.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30~34세의 평균은 3.1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영통구 거주자의 평균은 3.6으로 가장 높았고 팔달구 거주자의 평균이 2.9로 가장 낮게 나타나 자시의 건강 수준에 대해 비교적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취업자 평균은 3.2, 미취업자의 평균은 3.3으로 취업자가 더 낮게 나타남

○ 대학교 재학생의 평균은 다른 학력에 비해 높은 3.4로 주관적 건강 수준을 가장 높게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288> 응답자 특성별 주관적 건강 수준

(단위 :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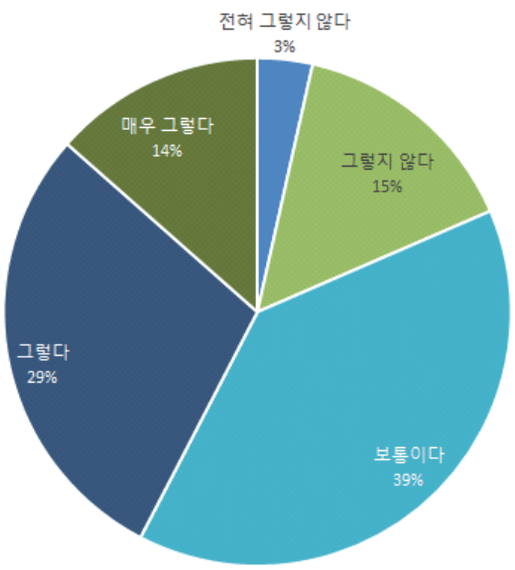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	①+②	보통이다	→	매우 그렇다	④+⑤	계	평균
전체	**(800)**	**6.6**	**13.9**	**20.5**	**38.1**	**32.0**	**9.4**	**41.4**	**100.0**	**3.2**
성별										
남성	(415)	4.6	11.1	15.7	42.2	31.6	10.6	42.2	100.0	3.3
여성	(385)	8.8	16.9	25.7	33.8	32.5	8.1	40.5	100.0	3.1
연령대										
20-24세	(219)	4.6	11.0	15.5	41.1	30.1	13.2	43.4	100.0	3.4
25-29세	(186)	6.5	17.7	24.2	31.7	34.4	9.7	44.1	100.0	3.2
30-34세	(185)	9.2	15.1	24.3	38.9	30.8	5.9	36.8	100.0	3.1
35-39세	(210)	6.7	12.4	19.0	40.0	32.9	8.1	41.0	100.0	3.2
거주지역										
장안구	(182)	7.7	17.6	25.3	49.5	18.7	6.6	25.3	100.0	3.0
권선구	(245)	6.9	11.4	18.4	40.4	37.6	3.7	41.2	100.0	3.2
팔달구	(126)	11.1	20.6	31.7	41.3	16.7	10.3	27.0	100.0	2.9
영통구	(247)	3.2	10.1	13.4	25.9	44.1	16.6	60.7	100.0	3.6
취업상태										
취업	(449)	7.6	13.6	21.2	37.4	33.0	8.5	41.4	100.0	3.2
미취업	(351)	5.4	14.2	19.7	39.0	30.8	10.5	41.3	100.0	3.3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10.7	11.2	21.9	32.5	33.7	11.8	45.6	100.0	3.2
대학교 재학	(231)	3.0	13.9	16.9	39.4	30.7	13.0	43.7	100.0	3.4
대학교 졸업 이상	(400)	7.0	15.0	22.0	39.8	32.0	6.3	38.3	100.0	3.2

라. 스트레스 정도

○ ‘나는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를 잘 받는 편이다’에 대한 동의 정도 평균은 3.3으로 보통을 넘는 것으로 나타남

- 긍정 응답률이 42.4%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단위 : %)



<그림 4-280> 스트레스 정도

○ 남성의 평균은 3.2, 여성의 평균은 3.4로 여성이 더 스트레스를 잘 받는 것으로 나타남 (남성 긍정 응답률 37.1%, 여성 긍정 응답률 48.1%)

○ 연령에 관계없이 모두 평균이 3.3으로 나타나 보통을 넘음

○ 권선구 거주자의 평균이 3.5로 가장 높았고 영통구 거주자의 평균은 3.2로 가장 낮게 나타남

-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장안구와 달리 나머지 지역에서는 긍정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취업자 평균은 3.4, 미취업자의 평균은 3.3으로 취업자가 더 스트레스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취업자는 긍정 응답률이 45.4%로 가장 높게 나타난 데 반해 미취업자는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41.9%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대학교 재학생의 평균은 3.3으로 다른 학력들에 비해 약간 더 낮게 나타남

- 대학교 재학생의 경우에는 다른 학력들과 달리 '보통이다' 라고 응답한 경우가 42.0%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4-289> 응답자 특성별 스트레스 정도

(단위 :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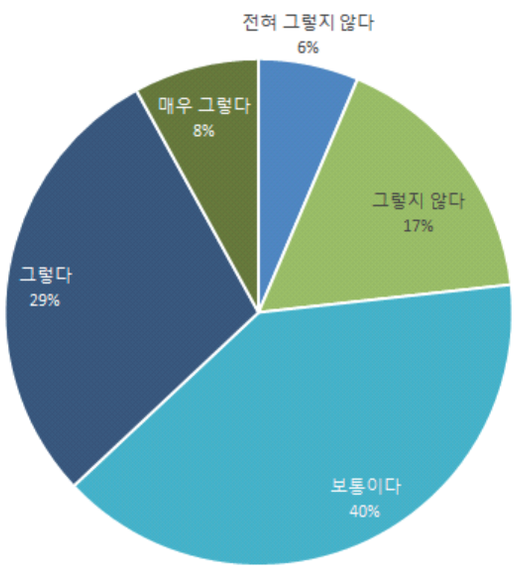
	사례수(명)	전혀 그렇지 않다	←	①+②	보통이다	→	매우 그렇다	④+⑤	계	평균
전체	**(800)**	**3.5**	**15.0**	**18.5**	**39.1**	**28.9**	**13.5**	**42.4**	**100.0**	**3.3**
성별										
남성	(415)	3.4	17.1	20.5	42.4	26.3	10.8	37.1	100.0	3.2
여성	(385)	3.6	12.7	16.4	35.6	31.7	16.4	48.1	100.0	3.4
연령대										
20-24세	(219)	4.1	12.8	16.9	43.8	25.6	13.7	39.3	100.0	3.3
25-29세	(186)	2.7	18.3	21.0	34.9	30.1	14.0	44.1	100.0	3.3
30-34세	(185)	2.7	13.5	16.2	42.7	28.6	12.4	41.1	100.0	3.3
35-39세	(210)	4.3	15.7	20.0	34.8	31.4	13.8	45.2	100.0	3.3
거주지역										
장안구	(182)	4.9	13.7	18.7	42.3	25.3	13.7	39.0	100.0	3.3
권선구	(245)	1.2	9.4	10.6	42.0	35.5	11.8	47.3	100.0	3.5
팔달구	(126)	5.6	15.9	21.4	34.1	29.4	15.1	44.4	100.0	3.3
영통구	(247)	3.6	21.1	24.7	36.4	24.7	14.2	38.9	100.0	3.2
취업상태										
취업	(449)	3.6	14.0	17.6	37.0	31.2	14.3	45.4	100.0	3.4
미취업	(351)	3.4	16.2	19.7	41.9	25.9	12.5	38.5	100.0	3.3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5.9	11.2	17.2	38.5	30.2	14.2	44.4	100.0	3.4
대학교 재학	(231)	3.0	16.9	19.9	42.0	24.7	13.4	38.1	100.0	3.3
대학교 졸업 이상	(400)	2.8	15.5	18.3	37.8	30.8	13.3	44.0	100.0	3.4

마. 숙면 정도

○ ‘나는 평소 숙면을 취하는 편이다’에 대한 동의 정도 평균은 3.2로 보통을 약간 넘는 것으로 나타남

-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39.8%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단위 : %)



<그림 4-281> 숙면 정도

○ 성별에 관계없이 남녀 모두 평균 3.2로 나타남

- 남성은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42.7%, 여성은 긍정 응답률이 38.7%로 가장 높게 나타남

○ 20대의 평균은 3.2로 30대보다 높게 나타나 20대의 숙면 정도가 더 양호한 것으로 보임

○ 영통구 거주자의 평균이 3.4로 가장 높았고 장안구 거주자의 평균은 2.9로 보통에 약간 미치지 못하는 수치를 보임

- 장안구와 팔달구 거주자는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반면, 권선구와 영통구 거주자는 긍정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평균 3.2로 나타남

- 취업자는 긍정 응답률이 38.3%로 가장 높게 나타난 데 반해 미취업자는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43.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대학교 졸업 이상 응답자의 평균은 3.1로 다른 학력들에 비해 약간 낮게 나타남

-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응답자의 경우에는, ‘보통이다’ 라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타난 다른 학력들과 달리 긍정 응답률이 42.6%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4-290> 응답자 특성별 숙면 정도

(단위 :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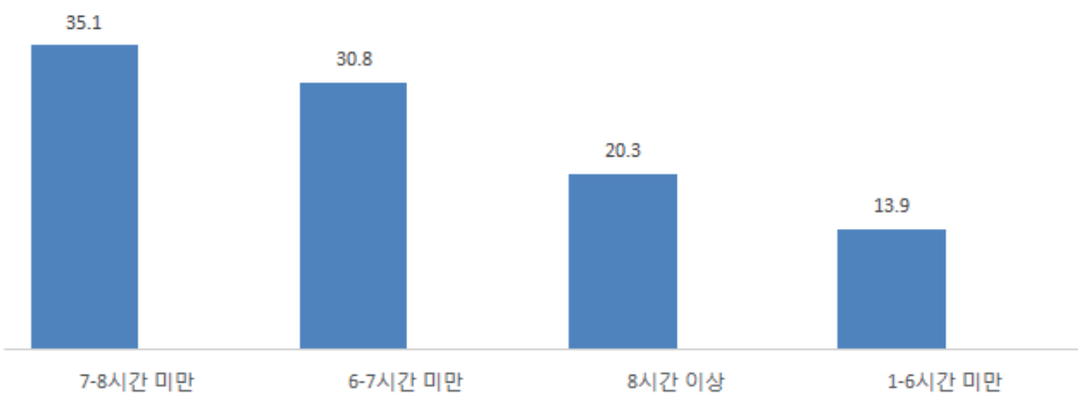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	①+②	보통이다	→	매우 그렇다	④+⑤	계	평균
전체	**(800)**	**6.4**	**16.9**	**23.3**	**39.8**	**29.0**	**8.0**	**37.0**	**100.0**	**3.2**
성별										
남성	(415)	6.0	15.9	21.9	42.7	27.7	7.7	35.4	100.0	3.2
여성	(385)	6.8	17.9	24.7	36.6	30.4	8.3	38.7	100.0	3.2
연령대										
20-24세	(219)	4.6	12.3	16.9	43.4	33.3	6.4	39.7	100.0	3.2
25-29세	(186)	6.5	18.8	25.3	36.0	29.0	9.7	38.7	100.0	3.2
30-34세	(185)	8.6	20.0	28.6	37.3	27.0	7.0	34.1	100.0	3.0
35-39세	(210)	6.2	17.1	23.3	41.4	26.2	9.0	35.2	100.0	3.1
거주지역										
장안구	(182)	5.5	26.9	32.4	44.0	17.6	6.0	23.6	100.0	2.9
권선구	(245)	8.2	13.1	21.2	38.8	32.7	7.3	40.0	100.0	3.2
팔달구	(126)	10.3	17.5	27.8	40.5	22.2	9.5	31.7	100.0	3.0
영통구	(247)	3.2	13.0	16.2	37.2	37.2	9.3	46.6	100.0	3.4
취업상태										
취업	(449)	6.7	17.8	24.5	37.2	30.3	8.0	38.3	100.0	3.2
미취업	(351)	6.0	15.7	21.7	43.0	27.4	8.0	35.3	100.0	3.2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11.8	11.2	23.1	34.3	34.9	7.7	42.6	100.0	3.2
대학교 재학	(231)	3.9	13.9	17.7	47.2	28.6	6.5	35.1	100.0	3.2
대학교 졸업 이상	(400)	5.5	21.0	26.5	37.8	26.8	9.0	35.8	100.0	3.1

■ 수면시간

○ 수원시 청년의 평균 수면시간은 6.7시간으로 나타남

- 7~8시간 이 35.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6~7시간 30.8%, 8시간 이상 20.3%, 1~6시간 13.9% 순으로 나타남

(단위 : %)



<그림 4-282> 수면시간

○ 성별에 관계없이 남녀 모두 평균 수면 시간이 6.7시간인 것으로 나타남

○ 30~34세의 평균 수면 시간이 6.5시간으로 가장 짧았고 나머지 연령의 평균 수면시간은 모두 6.7~6.8시간인 것으로 나타남

○ 팔달구 거주자의 평균 수면시간이 6.4시간으로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남

○ 취업자의 평균 수면시간은 6.7시간, 미취업자의 평균 수면시간은 6.8시간으로 취업자의 평균 수면시간이 미취업자보다 약간 더 짧은 것으로 나타남

○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응답자의 평균 수면 시간은 6.6시간으로 가장 짧고, 대학교 재학생의 평균 수면 시간이 6.8시간으로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남

<표 4-291> 응답자 특성별 수면 시간

(단위 : %,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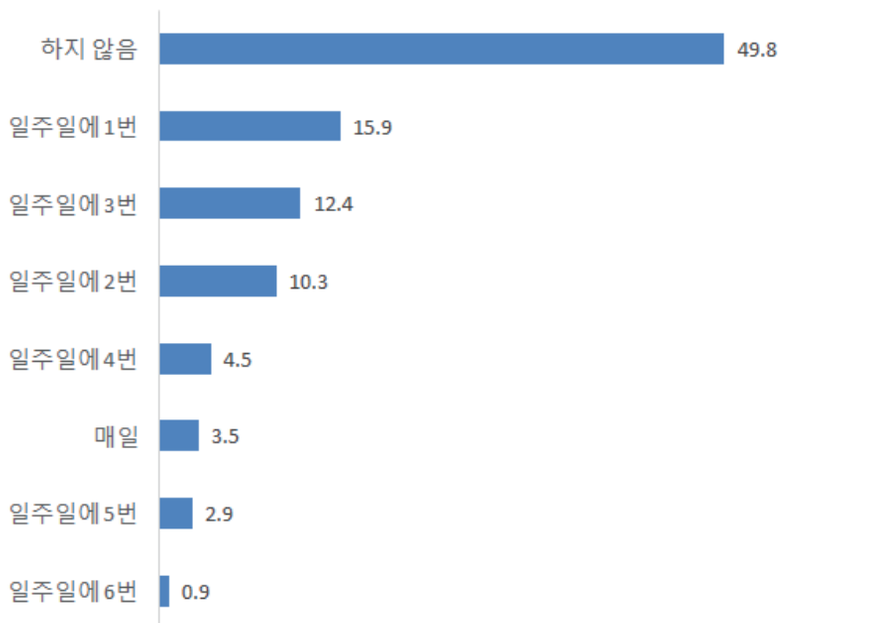
	사례수 (명)	1-6시간 미만	6-7시간 미만	7-8시간 미만	8시간 이상	계	평균
전체	**(800)**	**13.9**	**30.8**	**35.1**	**20.3**	**100.0**	**6.7**
성별							
남성	(415)	13.5	31.8	33.7	21.0	100.0	6.7
여성	(385)	14.3	29.6	36.6	19.5	100.0	6.7
연령대							
20-24세	(219)	14.6	22.8	37.4	25.1	100.0	6.8
25-29세	(186)	15.1	26.3	39.8	18.8	100.0	6.7
30-34세	(185)	13.0	41.1	30.3	15.7	100.0	6.5
35-39세	(210)	12.9	33.8	32.9	20.5	100.0	6.7
거주지역							
장안구	(182)	13.7	33.5	31.9	20.9	100.0	6.7
권선구	(245)	14.3	26.5	37.6	21.6	100.0	6.8
팔달구	(126)	19.8	41.3	21.4	17.5	100.0	6.4
영통구	(247)	10.5	27.5	42.1	19.8	100.0	6.8
취업상태							
취업	(449)	14.0	34.3	33.6	18.0	100.0	6.7
미취업	(351)	13.7	26.2	37.0	23.1	100.0	6.8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17.8	27.2	39.6	15.4	100.0	6.6
대학교 재학	(231)	13.0	24.7	38.1	24.2	100.0	6.8
대학교 졸업 이상	(400)	12.8	35.8	31.5	20.0	100.0	6.7

바. 규칙적 운동 빈도

○ 수원시 청년들의 평균 운동 빈도는 일주일에 1.1회인 것으로 나타남

-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49.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일주일에 1번 15.9%, 일주일에 3번 12.4%, 일주일에 2번 10.3% 등으로 나타남

(단위 : %)



<그림 4-283> 규칙적 운동 빈도

○ 남성의 주간 평균 운동 빈도는 1.3회, 여성은 0.9회로 남성이 더 높은 운동 빈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남

- 성별에 관계없이 남녀 모두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남성 응답률 40.0%, 여성 응답률 60.3%) 나머지 항목에 대한 응답률은 남성이 더 높게 나타나 남성이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비율이 여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보임

○ 20대의 주간 평균 운동 빈도가 30대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35~39세의 주간 평균 운동 빈도는 0.9회로 일주일 중 하루도 운동을 하지 않고 있음

- 규칙적으로 운동하지 않는 비율은 30대가 20대에 비해 약 10%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항목은 대체로 20대가 더 높게 나타나 20대의 규칙적인 운동 빈도가 더 높은 것으로 보임

○ 장안구와 권선구 거주자의 주간 평균 운동 빈도는 1.3으로 팔달구와 영통구 거주자의 운동 빈도인 0.9번보다 높게 나타남

○ 취업자의 주간 평균 운동 빈도는 1.1번, 미취업자의 운동 빈도는 1.2로 미취업자가 취업자에 비해 약간 높게 나타남

○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응답자의 주간 평균 운동 빈도는 0.9번으로 가장 적고, 대학교 재학생의 평균 운동 빈도는 1.3번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4-292> 응답자 특성별 규칙적 운동 빈도

(단위 : %, 번)

	사례수 (명)	하지 않음	일주일에 1번	일주일에 3번	일주일에 2번	일주일에 4번	매일	일주일에 5번	일주일에 6번	계	평균
전체	**(800)**	**49.8**	**15.9**	**12.4**	**10.3**	**4.5**	**3.5**	**2.9**	**0.9**	**100.0**	**1.1**
성별											
남성	(415)	40.0	18.3	14.0	13.0	6.0	4.1	3.1	1.4	100.0	1.3
여성	(385)	60.3	13.2	10.6	7.3	2.9	2.9	2.6	0.3	100.0	0.9
연령대											
20-24세	(219)	45.2	19.2	11.9	11.9	4.6	4.1	2.7	0.5	100.0	1.1
25-29세	(186)	44.1	12.4	15.6	11.8	6.5	3.2	4.3	2.2	100.0	1.4
30-34세	(185)	56.2	13.0	8.1	8.1	4.9	4.3	4.3	1.1	100.0	1.0
35-39세	(210)	53.8	18.1	13.8	9.0	2.4	2.4	0.5		100.0	0.9
거주지역											
장안구	(182)	47.8	13.7	9.9	10.4	8.2	3.8	4.9	1.1	100.0	1.3
권선구	(245)	48.2	14.7	16.7	10.2	4.1	1.2	4.1	0.8	100.0	1.3
팔달구	(126)	50.8	16.7	11.1	7.1	5.6	7.1	1.6		100.0	0.9
영통구	(247)	52.2	18.2	10.5	11.7	1.6	3.6	0.8	1.2	100.0	0.9
취업상태											
취업	(449)	50.6	14.7	14.9	10.2	4.5	3.6	1.1	0.4	100.0	1.1
미취업	(351)	48.7	17.4	9.1	10.3	4.6	3.4	5.1	1.4	100.0	1.2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64.5	7.1	11.8	7.7	1.8	3.0	3.6	0.6	100.0	0.9
대학교 재학	(231)	39.0	22.1	12.1	11.7	6.5	5.2	2.2	1.3	100.0	1.3
대학교 졸업 이상	(400)	49.8	16.0	12.8	10.5	4.5	2.8	3.0	0.8	100.0	1.1

사. 흡연 여부 및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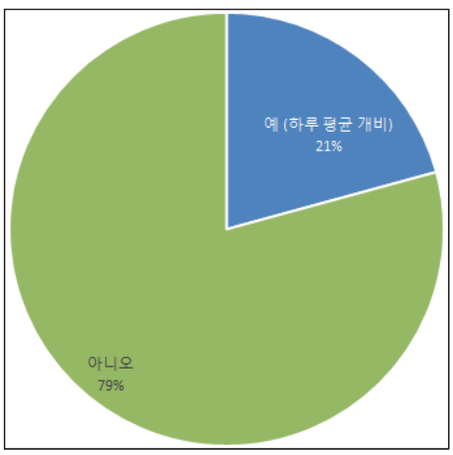
■ 흡연 여부

○ 흡연 여부에 대해 묻는 질문에 응답자들의 20.8%가 '예'라고 답함

○ 성별에 따라서 긍정 응답률은 남성 34.5%, 여성 6.0%로 남성 흡연자가 여성 흡연자에 비해 월등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흡연율이 증가하는데, 20대의 흡연율은 20%를 넘지 않는 데 반해 30대의 흡연율은 모두 20% 이상으로 나타남

○ 장안구 거주자의 흡연율이 27.5%로 가장 높았고, 팔달구 거주자의 흡연율이 16.7%로 가장 낮았음



<그림 4-284> 흡연 여부

○ 취업자의 흡연율이 25.6%, 미취업자의 흡연율이 14.5%로 1.5배 이상의 차이를 보임

○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응답자의 흡연율이 29.6%로 나머지 학력에 비해 1.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4-293> 응답자 특성별 흡연 여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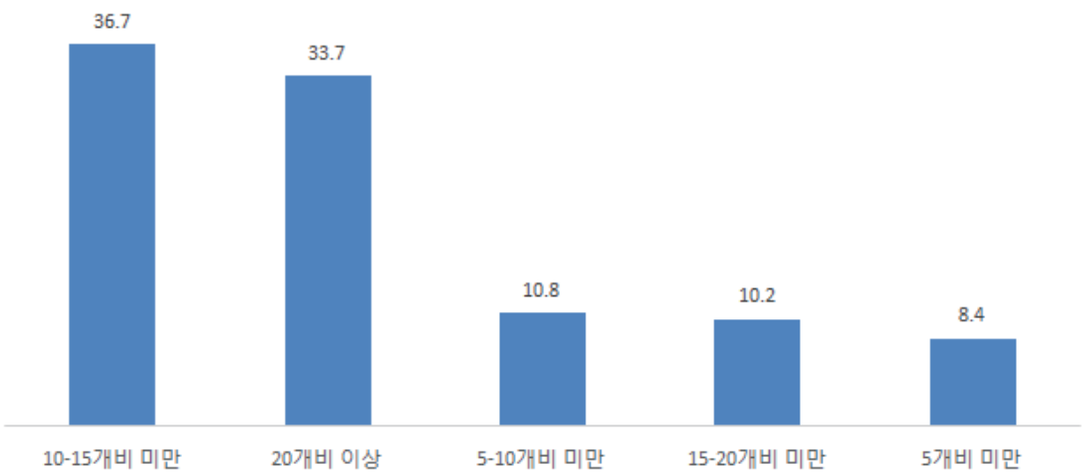
	사례수 (명)	예	아니오	계
전체	**(800)**	**20.8**	**79.3**	**100.0**
성별				
남성	(415)	34.5	65.5	100.0
여성	(385)	6.0	94.0	100.0
연령대				
20-24세	(219)	17.8	82.2	100.0
25-29세	(186)	19.9	80.1	100.0
30-34세	(185)	22.2	77.8	100.0
35-39세	(210)	23.3	76.7	100.0
거주지역				
장안구	(182)	27.5	72.5	100.0
권선구	(245)	20.4	79.6	100.0
팔달구	(126)	16.7	83.3	100.0
영통구	(247)	18.2	81.8	100.0
취업상태				
취업	(449)	25.6	74.4	100.0
미취업	(351)	14.5	85.5	100.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29.6	70.4	100.0
대학교 재학	(231)	18.6	81.4	100.0
대학교 졸업 이상	(400)	18.3	81.8	100.0

■ 흡연 량

○ 수원시 청년의 평균 흡연 량은 13.4개비로 나타남

- 10~15개비 미만이 36.7%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20개비 이상 33.7%, 5~10개비 미만 10.8%, 15~20개비 미만 10.2% 등으로 나타남

(단위 : %)



<그림 4-285> 흡연 량

○ 남성의 평균 흡연 량은 14.4개비로 여성의 평균 흡연 량 7.1개비의 2배가 넘는 수치임

- 여성은 10~15개비 미만으로 흡연한다는 응답이 39.1%로 가장 높았고, 남성은 20개비 이상 피운다는 응답이 39.2%로 가장 높았음

○ 20대는 11.8~11.9개비를 평균적으로 피는 데 반해 30~34세는 평균 13.5개비, 35~39세는 평균 15.7개비를 피우는 것으로 나타남

- 20대는 10~15개비를 피운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나 30대는 20개비 이상 피운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 팔달구 거주자의 평균 흡연 량이 12.6개비로 가장 적고 권선구 거주자의 평균 흡연 량이 14.3개비로 가장 높음

- 20개비 이상 피운다는 응답이 42.0%로 가장 높은 권선구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지역 거주자들은 모두 10~15개비 미만으로 피운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수치로 나타남

○ 취업자의 평균 흡연 량은 14.1개비, 미취업자의 평균 흡연 량은 11.7개비로 취업자의 평균 흡연 량이 미취업자보다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취업자는 20개비 이상 피운다는 응답이 39.1%로 가장 높았고 미취업자는 10~15개비 미만으로 피운다는 응답이 43.1%로 가장 높았음

○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응답자의 평균 흡연 량은 15.4개비로 가장 많고, 대학교 재학생의 평균 흡연 량은 11.6개비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 대학교 재학생은 10~15개비 미만을 피운다고 응답한 경우가 58.1%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 학력에서는 모두 20개비 이상 피운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음

<표 4-294> 응답자 특성별 흡연 량

(단위 : %, 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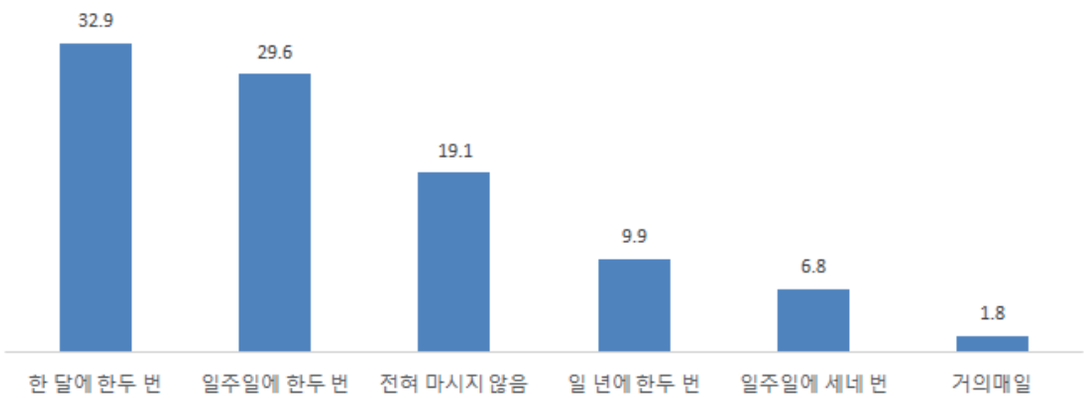
	사례수 (명)	5개비 미만	5-10개비 미만	10-15개비 미만	15-20개비 미만	20개비 이상	계	평균
전체	**(166)**	**8.4**	**10.8**	**36.7**	**10.2**	**33.7**	**100.0**	**13.4**
성별								
남성	(143)	5.6	7.7	36.4	11.2	39.2	100.0	14.4
여성	(23)	26.1	30.4	39.1	4.3		100.0	7.1
연령대								
20-24세	(39)	2.6	12.8	56.4	7.7	20.5	100.0	11.9
25-29세	(37)	16.2	16.2	32.4	5.4	29.7	100.0	11.8
30-34세	(41)	17.1	4.9	24.4	9.8	43.9	100.0	13.5
35-39세	(49)		10.2	34.7	16.3	38.8	100.0	15.7
거주지역								
장안구	(50)	6.0	10.0	42.0	14.0	28.0	100.0	13.5
권선구	(50)	4.0	14.0	26.0	14.0	42.0	100.0	14.3
팔달구	(21)	14.3	4.8	38.1	14.3	28.6	100.0	12.6
영통구	(45)	13.3	11.1	42.2		33.3	100.0	12.7
취업상태								
취업	(115)	7.8	8.7	33.9	10.4	39.1	100.0	14.1
미취업	(51)	9.8	15.7	43.1	9.8	21.6	100.0	11.7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50)	4.0	12.0	26.0	10.0	48.0	100.0	15.4
대학교 재학	(43)	4.7	16.3	58.1	2.3	18.6	100.0	11.6
대학교 졸업 이상	(73)	13.7	6.8	31.5	15.1	32.9	100.0	13.1

아. 음주 빈도

○ 수원시 청년의 평균 음주 빈도는 ‘한 달에 한두 번’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한 달에 한두 번’이 32.9%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일주일에 한두 번’ 29.6%, ‘전혀 마시지 않음’ 19.1% 등의 순으로 나타남

(단위 : %)



<그림 4-286> 음주 빈도

○ 성별에 관계없이 남녀 모두 ‘한 달에 한두 번’ 음주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는데, 남성은 2순위가 ‘일주일에 한두 번’인데 반해 여성은 2순위로 ‘일주일에 한두 번’과 ‘전혀 마시지 않음’이 같은 비율로 나타남

○ 35~39세는 ‘한 달에 한두 번’과 ‘일주일에 한두 번’이 29.0%의 동일한 비율로 1순위인 것으로 나타남

○ 장안구와 영통구 거주자는 ‘일주일에 한두 번’이 ‘한 달에 한두 번’보다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남

○ 취업자는 ‘일주일에 한두 번’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미취업자는 ‘한 달에 한두 번’이 가장 높게 나타남

○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응답자의 평균 음주 빈도는 ‘일주일에 한두 번’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나머지 학력에서는 ‘한 달에 한두 번’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4-295> 응답자 특성별 음주 빈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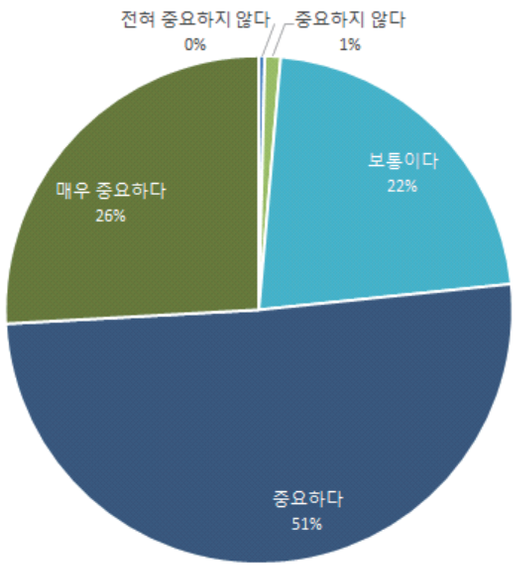
	사례수 (명)	한 달에 한 두 번	일주일에 한 두 번	전혀 마시지 않음	일 년에 한 두 번	일주일에 세 네 번	거의매일	계
전체	**(800)**	**32.9**	**29.6**	**19.1**	**9.9**	**6.8**	**1.8**	**100.0**
성별								
남성	(415)	34.5	33.5	13.3	8.2	8.2	2.4	100.0
여성	(385)	31.2	25.5	25.5	11.7	5.2	1.0	100.0
연령대								
20-24세	(219)	37.4	35.2	11.0	9.6	5.9	0.9	100.0
25-29세	(186)	34.4	25.3	22.0	10.8	5.9	1.6	100.0
30-34세	(185)	30.3	28.1	24.3	8.6	7.6	1.1	100.0
35-39세	(210)	29.0	29.0	20.5	10.5	7.6	3.3	100.0
거주지역								
장안구	(182)	29.1	30.2	18.1	10.4	9.3	2.7	100.0
권선구	(245)	35.1	26.9	19.2	9.8	7.8	1.2	100.0
팔달구	(126)	34.1	22.2	24.6	11.9	5.6	1.6	100.0
영통구	(247)	32.8	35.6	17.0	8.5	4.5	1.6	100.0
취업상태								
취업	(449)	30.1	33.6	17.4	7.6	8.9	2.4	100.0
미취업	(351)	36.5	24.5	21.4	12.8	4.0	0.9	100.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18.9	40.2	23.7	7.1	5.3	4.7	100.0
대학교 재학	(231)	43.7	29.0	11.3	10.4	4.8	0.9	100.0
대학교 졸업 이상	(400)	32.5	25.5	21.8	10.8	8.5	1.0	100.0

자. 외모의 중요도

○ 외모의 중요도 대한 평균은 4.0으로 높게 나타남

- 긍정 응답률이 76.6%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단위 : %)



<그림 4-287> 외모의 중요도

○ 남성의 평균은 3.9, 여성의 평균은 4.1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외모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남성 긍정 응답률 72.0%, 여성 긍정 응답률 81.6%)

○ 25~29세의 평균은 4.1, 나머지 연령의 평균은 4.0으로 전반적으로 전 연령에서 외모를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남

○ 영통구 거주자의 평균이 3.9로 가장 낮았고 나머지 지역 거주자의 평균은 4.0~4.1인 것으로 나타남

○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평균 4.0으로 나타남 (취업자 긍정 응답률 78.2%, 미취업자 긍정 응답률 74.6%)

○ 대학교 재학생의 평균이 3.9로 가장 낮았고 나머지 학력에서는 평균이 모두 4.0으로 나타남

- 긍정 응답률은 대학교 졸업 이상 응답자가 80.3%로 가장 높았음

<표 4-296> 응답자 특성별 외모의 중요도

(단위 :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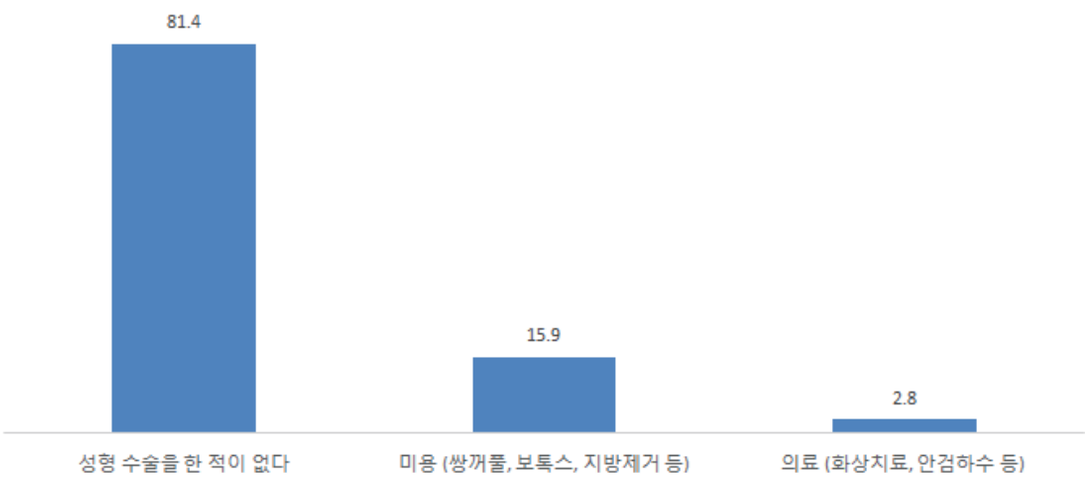
	사례수 (명)	전혀 중요하지 않다	←	①+②	보통이다	→	매우 중요하다	④+⑤	계	평균
전체	**(800)**	**0.4**	**1.0**	**1.4**	**22.0**	**50.8**	**25.9**	**76.6**	**100.0**	**4.0**
성별										
남성	(415)	0.7	0.5	1.2	26.7	49.2	22.9	72.0	100.0	3.9
여성	(385)		1.6	1.6	16.9	52.5	29.1	81.6	100.0	4.1
연령대										
20-24세	(219)		0.9	0.9	26.5	48.9	23.7	72.6	100.0	4.0
25-29세	(186)		0.5	0.5	22.0	43.0	34.4	77.4	100.0	4.1
30-34세	(185)	1.1	1.6	2.7	17.3	60.0	20.0	80.0	100.0	4.0
35-39세	(210)	0.5	1.0	1.4	21.4	51.4	25.7	77.1	100.0	4.0
거주지역										
장안구	(182)		1.1	1.1	18.7	53.8	26.4	80.2	100.0	4.1
권선구	(245)	0.4	0.4	0.8	20.0	44.5	34.7	79.2	100.0	4.1
팔달구	(126)	1.6	1.6	3.2	25.4	42.9	28.6	71.4	100.0	4.0
영통구	(247)		1.2	1.2	24.7	58.7	15.4	74.1	100.0	3.9
취업상태										
취업	(449)	0.7	0.9	1.6	20.3	50.3	27.8	78.2	100.0	4.0
미취업	(351)		1.1	1.1	24.2	51.3	23.4	74.6	100.0	4.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0.6	1.2	1.8	23.7	44.4	30.2	74.6	100.0	4.0
대학교 재학	(231)		0.9	0.9	27.3	48.1	23.8	71.9	100.0	3.9
대학교 졸업 이상	(400)	0.5	1.0	1.5	18.3	55.0	25.3	80.3	100.0	4.0

차. 성형 수술 경험

○ 성형수술 여부가 없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성형 수술을 한 적이 없다’가 81.4%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미용(쌍꺼풀, 보톡스, 지방제거 등’ 15.9%, ‘의료(화상치료, 안검하수 등)’ 2.8% 등의 순으로 나타남

(단위 : %)



<그림 4-288> 성형수술 여부

○ 여성 중 미용 관련 성형수술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27.8%로 남자의 4.8%에 비해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미용 관련 성형수술 경험이 있는 것은 35~39세가 18.1%로 가장 높았고 의료 관련 성형수술 경험은 25~29세가 4.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장안구와 권선구 거주자는 미용 관련 성형수술 경험이 있는 경우가 20%가 넘었고, 팔달구는 8.7%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취업자는 미용 관련 성형수술 경험 16.5%, 의료 관련 성형수술 경험 2.9%로 미취업자의 15.1%, 2.6%보다 각각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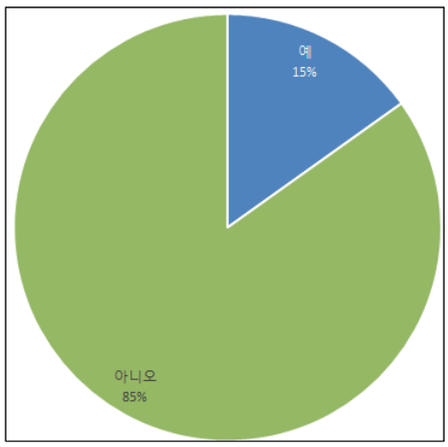
○ 미용 및 의료 관련 성형수술 경험 모두 대학교 졸업 이상 응답자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반면 대학교 재학생은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임

<표 4-297> 응답자 특성별 성형수술 여부

(단위 : %)

	사례수 (명)	성형 수술을 한 적이 없다	미용 (쌍꺼풀, 보톡스, 지방제거 등)	의료 (화상치료, 안검하수 등)	계
전체	**(800)**	**81.4**	**15.9**	**2.8**	**100.0**
성별					
남성	(415)	91.8	4.8	3.4	100.0
여성	(385)	70.1	27.8	2.1	100.0
연령대					
20-24세	(219)	84.5	14.2	1.4	100.0
25-29세	(186)	79.0	16.7	4.3	100.0
30-34세	(185)	82.2	14.6	3.2	100.0
35-39세	(210)	79.5	18.1	2.4	100.0
거주지역					
장안구	(182)	75.8	20.3	3.8	100.0
권선구	(245)	74.7	22.0	3.3	100.0
팔달구	(126)	86.5	8.7	4.8	100.0
영통구	(247)	89.5	10.1	0.4	100.0
취업상태					
취업	(449)	80.6	16.5	2.9	100.0
미취업	(351)	82.3	15.1	2.6	100.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81.1	16.6	2.4	100.0
대학교 재학	(231)	85.7	12.1	2.2	100.0
대학교 졸업 이상	(400)	79.0	17.8	3.3	100.0

카. 우울감 여부



<그림 4-289> 우울감 여부

- 우울감 여부에 대해 묻는 질문에 응답자들의 15.1%가 '예'라고 답함
- 성별에 따라서 긍정 응답률은 남성 11.6%, 여성 19.0%로 여성이 우울감을 느끼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25~29세의 우울감이 18.8%로 가장 높았고 20~24세가 11.9%로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임
- 권선구 거주자의 우울감이 17.1%로 가장 높았고, 영통구 거주자의 우울감이 13.0%로 가장 낮았음
- 취업자의 우울감이 14.9%, 미취업자의 우울감이 15.4%로 미취업자가 취업자에 비해 더 우울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대학교 졸업 이상 응답자의 우울감이 16.3%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고학력일수록 우울감을 느끼는 정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표 4-298> 응답자 특성별 우울감 여부

(단위 : %)

	사례수 (명)	예	아니오	계
전체	**(800)**	**15.1**	**84.9**	**100.0**
성별				
남성	(415)	11.6	88.4	100.0
여성	(385)	19.0	81.0	100.0
연령대				
20-24세	(219)	11.9	88.1	100.0
25-29세	(186)	18.8	81.2	100.0
30-34세	(185)	16.2	83.8	100.0
35-39세	(210)	14.3	85.7	100.0
거주지역				
장안구	(182)	15.9	84.1	100.0
권선구	(245)	17.1	82.9	100.0
팔달구	(126)	14.3	85.7	100.0
영통구	(247)	13.0	87.0	100.0
취업상태				
취업	(449)	14.9	85.1	100.0
미취업	(351)	15.4	84.6	100.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13.0	87.0	100.0
대학교 재학	(231)	14.7	85.3	100.0
대학교 졸업 이상	(400)	16.3	83.8	100.0

(2) 영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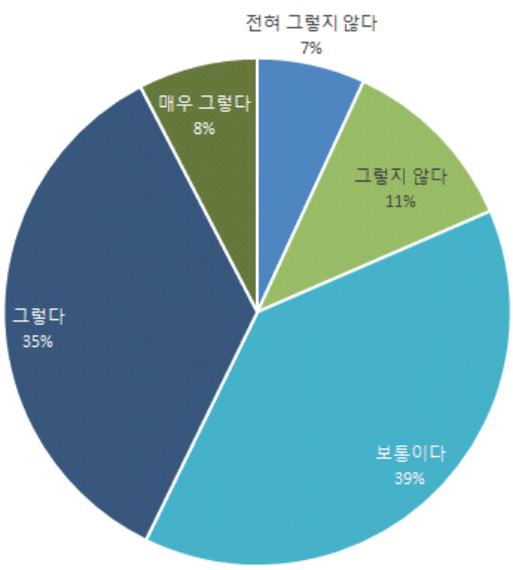
가. 식습관

■ 규칙적 식사

○ ‘나는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는 편이다’에 대한 동의 정도 평균은 3.3으로 보통을 넘는 것으로 나타남

- 긍정 응답률이 42.8%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단위 : %)



<그림 4-290> 규칙적 식사

○ 남성의 평균은 3.3, 여성의 평균은 3.2로 나타남 (남성 긍정 응답률 42.9%, 여성 긍정 응답률 42.6%)

○ 20대의 평균은 3.2, 30대의 평균은 3.3으로 30대가 약간 더 높은 평균값을 보임

○ 영통구 거주자의 평균이 3.5로 가장 높았고 장안구 거주자의 평균은 2.9로 보통에 약간 미치지 못하는 수치를 보임

- 장안구와 팔달구 거주자는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반면, 권선구와 영통구 거주자는 긍정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취업자의 평균은 3.3, 미취업자의 평균은 3.2로 모두 보통 이상으로 나타남 (취업자 긍정 응답률 44.3%, 미취업자 긍정 응답률 40.7%)

○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응답자의 평균은 3.1로 가장 낮고 대학교 졸업 이상 응답자의 평균은 3.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고학력일수록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대학교 재학생들은 다른 응답자들과 달리 '보통이다' 라는 응답이 42.9%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4-299> 응답자 특성별 규칙적 식사

(단위 :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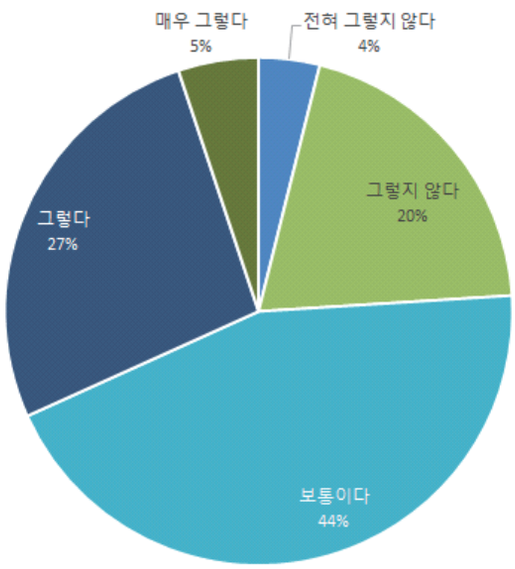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	①+②	보통이다	→	매우 그렇다	④+⑤	계	평균
전체	**(800)**	**6.9**	**11.6**	**18.5**	**38.8**	**35.1**	**7.6**	**42.8**	**100.0**	**3.3**
성별										
남성	(415)	5.3	10.6	15.9	41.2	34.9	8.0	42.9	100.0	3.3
여성	(385)	8.6	12.7	21.3	36.1	35.3	7.3	42.6	100.0	3.2
연령대										
20-24세	(219)	6.8	15.5	22.4	38.8	32.0	6.8	38.8	100.0	3.2
25-29세	(186)	7.0	11.3	18.3	38.2	37.6	5.9	43.5	100.0	3.2
30-34세	(185)	9.7	8.6	18.4	36.2	37.3	8.1	45.4	100.0	3.3
35-39세	(210)	4.3	10.5	14.8	41.4	34.3	9.5	43.8	100.0	3.3
거주지역										
장안구	(182)	9.9	14.8	24.7	52.2	20.3	2.7	23.1	100.0	2.9
권선구	(245)	7.8	11.8	19.6	34.3	39.2	6.9	46.1	100.0	3.3
팔달구	(126)	9.5	12.7	22.2	42.1	22.2	13.5	35.7	100.0	3.2
영통구	(247)	2.4	8.5	10.9	31.6	48.6	8.9	57.5	100.0	3.5
취업상태										
취업	(449)	6.7	10.2	16.9	38.8	36.1	8.2	44.3	100.0	3.3
미취업	(351)	7.1	13.4	20.5	38.7	33.9	6.8	40.7	100.0	3.2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11.2	13.0	24.3	33.1	37.3	5.3	42.6	100.0	3.1
대학교 재학	(231)	6.1	12.6	18.6	42.9	31.6	6.9	38.5	100.0	3.2
대학교 졸업 이상	(400)	5.5	10.5	16.0	38.8	36.3	9.0	45.3	100.0	3.3

■ 과일 및 야채 섭취

○ ‘나는 과일 및 야채를 많이 섭취하는 편이다’ 에 대한 동의 정도 평균은 3.1로 보통을 약간 넘는 것으로 나타남

- ‘보통이다’ 라는 응답이 44.3%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단위 : %)



<그림 4-291> 과일 및 야채 섭취

○ 남성의 평균은 3.0, 여성의 평균은 3.2로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남

○ 25~29세의 평균이 3.0으로 가장 낮고 35~39세의 평균이 3.2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영통구 거주자의 평균이 3.2로 가장 높았고 장안구 거주자의 평균은 2.9로 보통에 약간 미치지 못하는 수치를 보임

- 다른 지역과 달리 영통구 거주자는 긍정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평균은 모두 3.1로 나타남

○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응답자의 평균은 3.0으로 가장 낮고 대학교 졸업 이상 응답자의 평균은 3.2로 가장 높게 나타나 고학력일수록 과일 및 야채 섭취를 많이 하는 편인 것으로 나타남

<표 4-300> 응답자 특성별 과일 및 야채 섭취

(단위 :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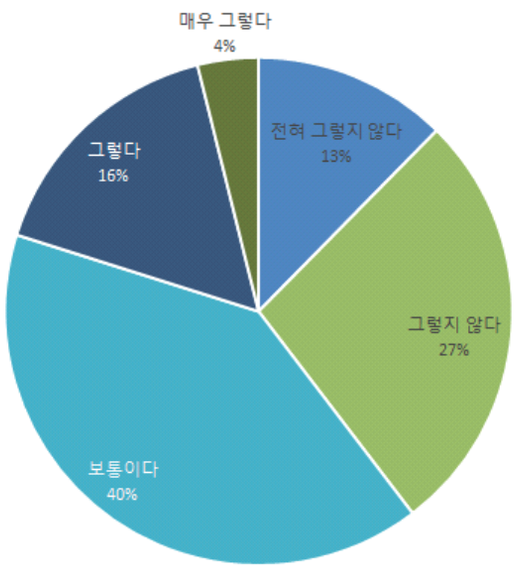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	①+②	보통이다	→	매우 그렇다	④+⑤	계	평균
전체	**(800)**	**3.9**	**20.1**	**24.0**	**44.3**	**26.6**	**5.1**	**31.8**	**100.0**	**3.1**
성별										
남성	(415)	2.7	23.1	25.8	47.0	22.7	4.6	27.2	100.0	3.0
여성	(385)	5.2	16.9	22.1	41.3	30.9	5.7	36.6	100.0	3.2
연령대										
20-24세	(219)	1.8	20.5	22.4	47.9	26.5	3.2	29.7	100.0	3.1
25-29세	(186)	5.9	26.3	32.3	38.7	23.7	5.4	29.0	100.0	3.0
30-34세	(185)	5.4	15.1	20.5	47.6	25.9	5.9	31.9	100.0	3.1
35-39세	(210)	2.9	18.6	21.4	42.4	30.0	6.2	36.2	100.0	3.2
거주지역										
장안구	(182)	4.4	27.5	31.9	45.6	18.7	3.8	22.5	100.0	2.9
권선구	(245)	4.5	18.4	22.9	46.9	23.3	6.9	30.2	100.0	3.1
팔달구	(126)	7.1	16.7	23.8	48.4	20.6	7.1	27.8	100.0	3.0
영통구	(247)	1.2	18.2	19.4	38.5	38.9	3.2	42.1	100.0	3.2
취업상태										
취업	(449)	4.5	19.8	24.3	43.9	26.1	5.8	31.8	100.0	3.1
미취업	(351)	3.1	20.5	23.6	44.7	27.4	4.3	31.6	100.0	3.1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7.7	23.1	30.8	37.3	26.6	5.3	32.0	100.0	3.0
대학교 재학	(231)	2.6	21.6	24.2	45.9	26.8	3.0	29.9	100.0	3.1
대학교 졸업 이상	(400)	3.0	18.0	21.0	46.3	26.5	6.3	32.8	100.0	3.2

■ 체중 관리를 위한 식단 조절

○ ‘나는 체중관리를 위해 식단을 자주 조절하는 편이다’에 대한 동의 정도 평균은 2.7로 보통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40.3%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단위 : %)



<그림 4-292> 체중 관리를 위한 식단 조절

○ 남성의 평균은 2.6, 여성의 평균은 2.8로 모두 보통에 미치지 못하는 값이지만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나 여성이 남성에 비해 체중 관리에 신경을 쓴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20~24세의 평균이 2.8로 가장 높고 나머지 연령의 평균은 모두 2.7로 나타남

- 20대에서는 부정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난 데 반해 30대는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연령별로 비교해 보았을 때 긍정 응답률은 22.4%로 20~24세가 가장 높았음

○ 권선구와 영통구 거주자의 평균이 2.8로 가장 높았고 장안구와 팔달구 거주자의 평균은 2.6으로 낮았음

- 장안구와 팔달구 거주자는 부정 응답률이, 권선구와 영통구 거주자는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권선구 거주자의 경우에는 긍정 응답률이 25.3%로 다른 지역 거주자들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평균은 모두 2.7로 나타남

- 미취업자는 부정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취업자는 미취업자에 비해 식단 조절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경우가 많았음

○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응답자의 평균은 2.6으로 가장 낮고 대학교 재학생의 평균은 2.8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4-301> 응답자 특성별 체중 관리를 위한 식단 조절

(단위 :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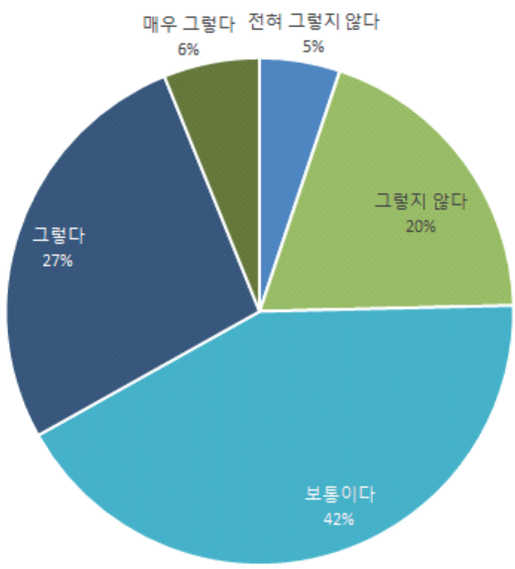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	①+②	보통이다	→	매우 그렇다	④+⑤	계	평균
전체	**(800)**	**12.4**	**27.3**	**39.6**	**40.3**	**16.3**	**3.9**	**20.1**	**100.0**	**2.7**
성별										
남성	(415)	12.3	31.6	43.9	41.4	12.3	2.4	14.7	100.0	2.6
여성	(385)	12.5	22.6	35.1	39.0	20.5	5.5	26.0	100.0	2.8
연령대										
20-24세	(219)	12.3	26.9	39.3	38.4	16.4	5.9	22.4	100.0	2.8
25-29세	(186)	12.9	28.0	40.9	38.2	18.8	2.2	21.0	100.0	2.7
30-34세	(185)	13.5	26.5	40.0	40.0	15.1	4.9	20.0	100.0	2.7
35-39세	(210)	11.0	27.6	38.6	44.3	14.8	2.4	17.1	100.0	2.7
거주지역										
장안구	(182)	14.8	31.3	46.2	37.4	13.2	3.3	16.5	100.0	2.6
권선구	(245)	12.2	23.7	35.9	38.8	20.8	4.5	25.3	100.0	2.8
팔달구	(126)	16.7	31.7	48.4	31.7	13.5	6.3	19.8	100.0	2.6
영통구	(247)	8.5	25.5	34.0	48.2	15.4	2.4	17.8	100.0	2.8
취업상태										
취업	(449)	12.7	24.5	37.2	42.1	18.3	2.4	20.7	100.0	2.7
미취업	(351)	12.0	30.8	42.7	37.9	13.7	5.7	19.4	100.0	2.7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16.6	27.8	44.4	37.9	14.8	3.0	17.8	100.0	2.6
대학교 재학	(231)	8.2	28.6	36.8	42.0	15.2	6.1	21.2	100.0	2.8
대학교 졸업 이상	(400)	13.0	26.3	39.3	40.3	17.5	3.0	20.5	100.0	2.7

■ 과식 정도

○ ‘나는 과식을 자주하는 편이다’ 에 대한 동의 정도 평균은 3.1로 보통을 약간 넘는 것으로 나타남

- ‘보통이다’ 라는 응답이 42.3%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단위 : %)



<그림 4-293> 과식 정도

○ 성별에 관계없이 남녀 평균 모두 3.1로 나타남

○ 25~29세의 평균이 3.2로 가장 높고 나머지 연령의 평균은 모두 3.1로 나타남

○ 권선구 거주자의 평균이 3.2로 가장 높았고 팔달구와 영통구 거주자의 평균이 3.0으로 가장 낮았음

- 권선구 거주자는 타 지역과 달리 긍정 응답률이 39.2%로 가장 많이 응답되었음

○ 취업자의평균은 3.2, 미취업자의 평균은 3.0으로 취업자가 과식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대학교 재학생의 과식 정도는 3.0으로 다른 학력에 비해 낮게 나타남

<표 4-302> 응답자 특성별 과식 정도

(단위 :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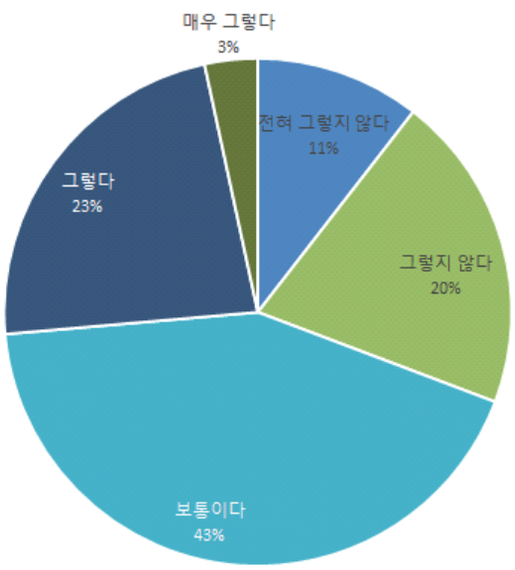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	①+②	보통이다	→	매우 그렇다	④+⑤	계	평균
전체	**(800)**	**5.1**	**19.5**	**24.6**	**42.3**	**27.0**	**6.1**	**33.1**	**100.0**	**3.1**
성별										
남성	(415)	4.8	18.6	23.4	42.7	28.4	5.5	34.0	100.0	3.1
여성	(385)	5.5	20.5	26.0	41.8	25.5	6.8	32.2	100.0	3.1
연령대										
20-24세	(219)	4.6	21.9	26.5	43.8	23.3	6.4	29.7	100.0	3.1
25-29세	(186)	4.3	18.8	23.1	38.7	32.8	5.4	38.2	100.0	3.2
30-34세	(185)	7.0	18.4	25.4	40.0	27.0	7.6	34.6	100.0	3.1
35-39세	(210)	4.8	18.6	23.3	45.7	25.7	5.2	31.0	100.0	3.1
거주지역										
장안구	(182)	4.4	19.2	23.6	42.3	26.4	7.7	34.1	100.0	3.1
권선구	(245)	5.7	18.0	23.7	37.1	33.5	5.7	39.2	100.0	3.2
팔달구	(126)	10.3	18.3	28.6	37.3	27.0	7.1	34.1	100.0	3.0
영통구	(247)	2.4	21.9	24.3	49.8	21.1	4.9	25.9	100.0	3.0
취업상태										
취업	(449)	4.9	16.7	21.6	41.0	30.1	7.3	37.4	100.0	3.2
미취업	(351)	5.4	23.1	28.5	43.9	23.1	4.6	27.6	100.0	3.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7.7	17.8	25.4	37.9	26.6	10.1	36.7	100.0	3.1
대학교 재학	(231)	3.9	22.1	26.0	46.8	22.1	5.2	27.3	100.0	3.0
대학교 졸업 이상	(400)	4.8	18.8	23.5	41.5	30.0	5.0	35.0	100.0	3.1

■ 야식 여부

○ ‘나는 야식을 자주 먹는다’ 에 대한 동의 정도 평균은 2.9로 보통에 약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보통이다’ 라는 응답이 42.9%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단위 : %)



<그림 4-294> 야식 여부

○ 남성의 평균은 2.9, 여성의 평균은 2.8로 남성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남

○ 20~24세의 평균이 2.8로 가장 낮고 나머지 연령의 평균은 모두 2.9로 나타남

○ 권선구 거주자의 평균이 3.0으로 가장 높았고 팔달구 거주자의 평균이 2.7로 가장 낮았음

- 팔달구 거주자는 타 지역과 달리 부정 응답률이 39.7%로 가장 많이 응답되었음

○ 취업자의평균은 3.0, 미취업자의 평균은 2.7로 취업자가 야식을 먹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응답자의 경우 평균이 3.1이었으며 나머지 학력은 평균이 2.8로 나타남

<표 4-303> 응답자 특성별 야식 여부

(단위 : %, 점)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	①+②	보통이다	→	매우 그렇다	④+⑤	계	평균
전체	**(800)**	**10.5**	**20.3**	**30.8**	**42.9**	**23.0**	**3.4**	**26.4**	**100.0**	**2.9**
성별										
남성	(415)	7.5	19.5	27.0	48.0	22.9	2.2	25.1	100.0	2.9
여성	(385)	13.8	21.0	34.8	37.4	23.1	4.7	27.8	100.0	2.8
연령대										
20-24세	(219)	10.5	18.3	28.8	49.3	19.6	2.3	21.9	100.0	2.8
25-29세	(186)	12.9	19.9	32.8	37.1	26.3	3.8	30.1	100.0	2.9
30-34세	(185)	9.7	21.1	30.8	41.6	24.3	3.2	27.6	100.0	2.9
35-39세	(210)	9.0	21.9	31.0	42.4	22.4	4.3	26.7	100.0	2.9
거주지역										
장안구	(182)	10.4	20.9	31.3	40.1	23.6	4.9	28.6	100.0	2.9
권선구	(245)	9.8	16.7	26.5	42.4	27.8	3.3	31.0	100.0	3.0
팔달구	(126)	19.0	20.6	39.7	38.9	16.7	4.8	21.4	100.0	2.7
영통구	(247)	6.9	23.1	30.0	47.4	21.1	1.6	22.7	100.0	2.9
취업상태										
취업	(449)	9.1	18.9	28.1	40.1	27.2	4.7	31.8	100.0	3.0
미취업	(351)	12.3	21.9	34.2	46.4	17.7	1.7	19.4	100.0	2.7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	10.1	13.0	23.1	41.4	27.2	8.3	35.5	100.0	3.1
대학교 재학	(231)	9.5	21.2	30.7	48.9	18.2	2.2	20.3	100.0	2.8
대학교 졸업 이상	(400)	11.3	22.8	34.0	40.0	24.0	2.0	26.0	100.0	2.8

제5장 영역별 주요 지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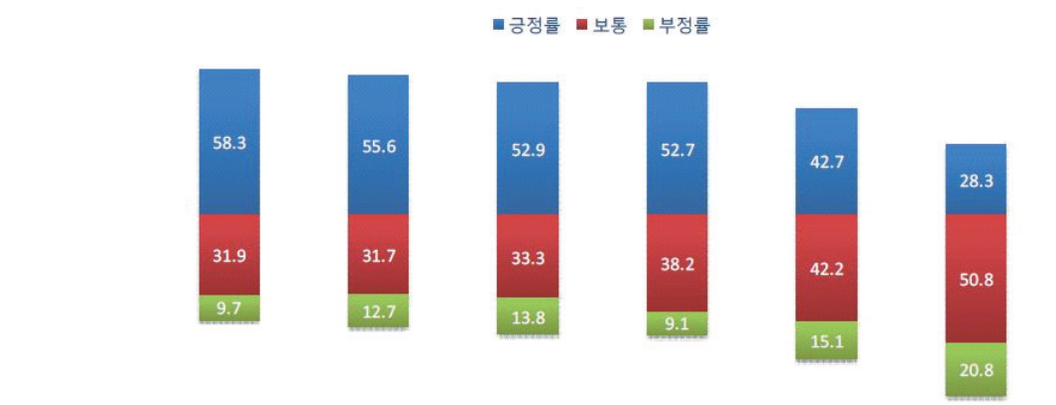
제1절 청년다움

1. 청년정책

1) 청년정책 참여

○ 수원시 청년들이 가장 많이 참여한 정책은 직업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199명(24.9%)이 경험한 적이 있으며, 차순으로 연수체험(직장체험, 인턴)은 189명(23.6%)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장려금 지원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72명 중 42명(58.3%)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으나, 단기일자리 제공 사업의 경우는 120명 중 34명(28.3%) 만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함



	장려금 지원사업	직업훈련사업	연수체험 (직장체험, 인턴)	해외취업 및 인턴사업	직업진로지도 및 취업지원프로그램	단기 일자리 제공 사업
정책 참여율	9.0	15.8	23.6	6.9	24.9	15.0

<그림 5-1> 정책 참여율 및 도움정도

2) 수원시 청년정책 참여

○ 수원시에서 추진하는 청년정책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전체 800명 중 37명(4.6%)으로 확인됨

- 참여해 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 37명 중 27명(73.0%)은 인턴 또는 취업지원 등 일자리와 관련된 청년정책인 것으로 나타남

3) 수원시 청년정책 인식

■ 인지도

○ 수원시에서 추진하는 청년정책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 800명 중 44명(5.5%)으로 확인됨

■ 참여의지

○ 수원시에서 추진하는 청년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 800명 중 201명(26.3%)으로 확인됨

■ 필요성

○ 수원시의 청년정책이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 800명 중 204명(25.5%)으로 확인됨

○ 청년정책의 참여 유무에 따라 청년정책에 대한 참여의지와 필요성에 대해 큰 차이를 보임

<표 5-1> 정책참여 유무에 따른 참여의지 및 필요성 인식

문항	참여 유무	평균	표준편차	t value
참여의지	있음	3.57	.835	4.191***
	없음	2.80	1.097	
필요성	있음	3.49	.837	3.512***
	없음	2.88	1.042	

- 청년정책에 참여한 응답자는 참여의지와 필요성의 평균점수가 3.57점, 3.49점으로 비참여 응답자의 2.80점, 2.88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수원시의 청년정책에 참여한 경험이 향후 참여의지와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된 결과로 판단할 수 있음

○ 청년정책에 대한 참여의지에 대해 연령별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필요성에 대해서는 성별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청년정책에 대한 참여의지는 20~24세와 25~29세의 평균점수가 약 3점에 가까워 30~34세, 35~39세의 연령에 비해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하고 있음

<표 5-2> 연령별 청년정책 참여의지

문항	집단구분	평균	표준편차	F value	크기
참여의지	20~24세(a)	2.99	1.098	7.096***	c, d > a, b
	25~29세(b)	3.04	1.136		
	30~34세(c)	2.68	1.105		
	35~39세(d)	2.64	1.008		

- 수원시 청년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남성은 2.76점, 여성은 3.06점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더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음

<표 5-3> 성별에 따른 청년정책 필요성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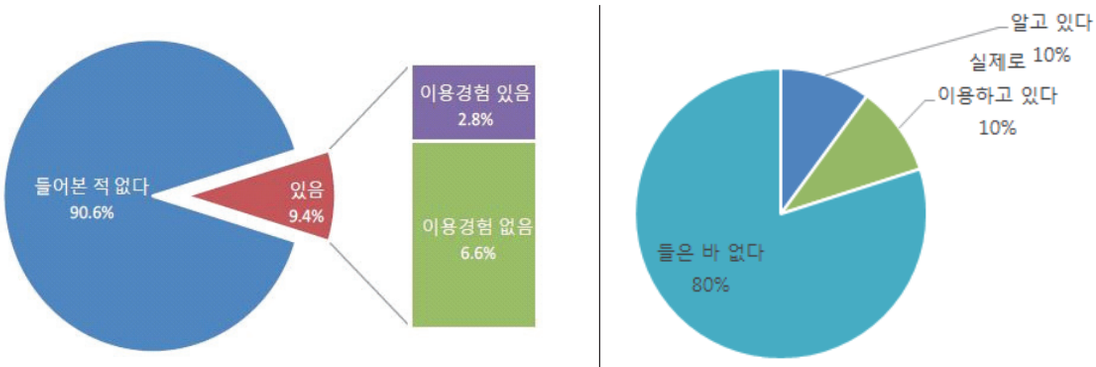
문항	집단구분	평균	표준편차	t value
필요성	남(a)	2.76	1.045	-4.199***
	여(b)	3.06	1.014	

4) 수원시 청년바람지대

○ 수원시 청년공간인 청년바람지대(청바지)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전체 800명 중 75명(9.4%)로 확인됨

- 청년바람지대(청바지)에 대해 들어본 응답자 75명 중 22명(2.8%)이 이용경험이 있었으며, 53명(6.6%)은 이용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FGI 결과에서도 청년 공간에 대한 인지도는 낮았으며, 공간 이용 조건의 까다로움 등 제약에 대한 의견이 있었음

<그림 5-2> 청년바람지대(청바지) 인식 및 이용 경험



설문조사 결과 FGI 결과

5) 청년실업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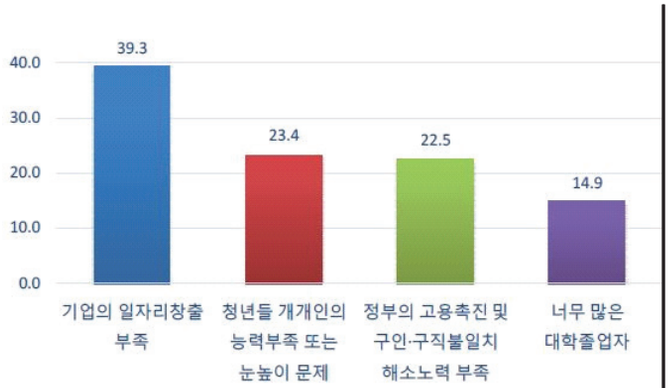
○ 청년들의 실업에 관한 근본적 원인에 대해 물은 결과, 기업의 일자리창출 부족 때문이라는 응답이 314건(39.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청년들 개개인의 능력부족 또는 눈높이 문제(187명, 23.4%), 정부의 고용촉진 및 구인·구직불일치 해소노력 부족(180명, 22.5%), 너무 많은 대학졸업자(119명, 14.9%)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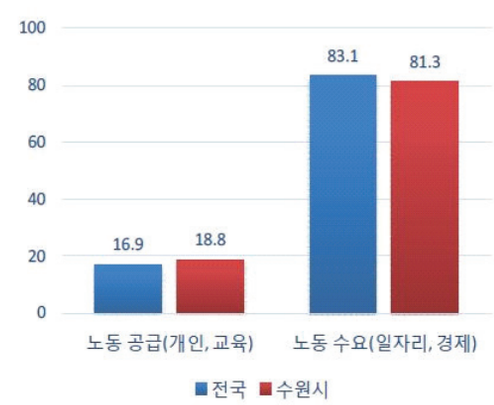
6) 청년 고용위기 해법

○ 청년 고용위기 해법으로 노동 수요 측면의 정책(일자리, 경제)이 노동 공급 측면의 정책(개인, 교육) 보다 중요하다는 응답이 81.3%로 나타남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6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에서는 청년 고용위기 해법으로 노동 수요 측면의 정책(일자리, 경제)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83.1%로 나타나, 수원시 청년들의 경우는 노동 공급 측면의 정책(개인, 교육)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그림 5-3> 청년실업의 원인



<그림 5-4> 고용위기 해법

7) 청년 정책에 대한 의견

○ 기존의 청년 정책에 대한 인식에서는 부정적인 의견들이 다수 제시되었음

- 본인에게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 정책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게 됨

- 수원에 거주하더라도 주민등록 상의 주소가 타지역인 경우 정책 지원 자격이 되지 않음
- 소득분위에 따라서 저소득층 위주로 정책적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의 청년들이 지원을 받지 못함

- 청년정책으로 제시되는 사업들은 사업을 위한 사업이란 생각이 들게 하며 실효성은 떨어지는 경우가 많음
- 지원받는 과정에서 준비해야 할 요구 사항이 너무 많아 참여를 제한하게 됨
- 청년 창업·스타트업의 경우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지 않고 참여자들의 스펙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음

○ 청년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 금전적인 지원보다는 직업 훈련·체험·교육 등 전공·적성을 스스로 파악할 수 있도록 많은 경험의 기회 제공과 이를 직업과 매칭해주는 과정이 필요
- 많은 청년들이 중소기업에서 일하게 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참여와 관련해서는 시의 개입을 축소하고 청년들의 권한을 확대해 청년들 스스로 할 수 있는 정책 필요
- 정책 관계자들이 청년들에 대해 장기적으로 책임감을 갖는 자세가 필요함

8) 필요한 청년정책

○ 수원시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방형 문항에 대해 총 619개의 응답이 나왔으며, 일자리 창출이 225개(40.1%), 취업교육 프로그램 및 정보 제공이 106개(18.9%), 진로교육 및 진로지도가 60개(10.7%) 순으로 높은 응답을 보임

<그림 5-5> 수원청년 정책욕구

※ 지면 제약상 해당응답이 20개 이상인 정책 항목만을 대상으로 제시하였음

<표 5-4> 수원청년 정책욕구(다중응답)

항목	N	%
일자리 창출	225	40.1
취업교육 프로그램 및 정보 제공	106	18.9
진료교육, 진로지도	60	10.7
일자리 환경	58	10.3
중소기업 정책 활성화	55	9.8
내부귀인	27	4.8
구직 지원금 지원	24	4.3
창업 지원	23	4.1
주거 지원 정책 활성화	22	3.9
교육기회 균등화(기초교육)	5	.9
결혼 및 육아 정책 활성화	4	.7
대출금리 완화	3	.5
일자리 양극화 해소	3	.5
기성세대 인식변화 필요	2	.4
생활안정 지원	1	.2
실업급여 확대	1	.2
합계	619	110.3

<표 5-5>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정책욕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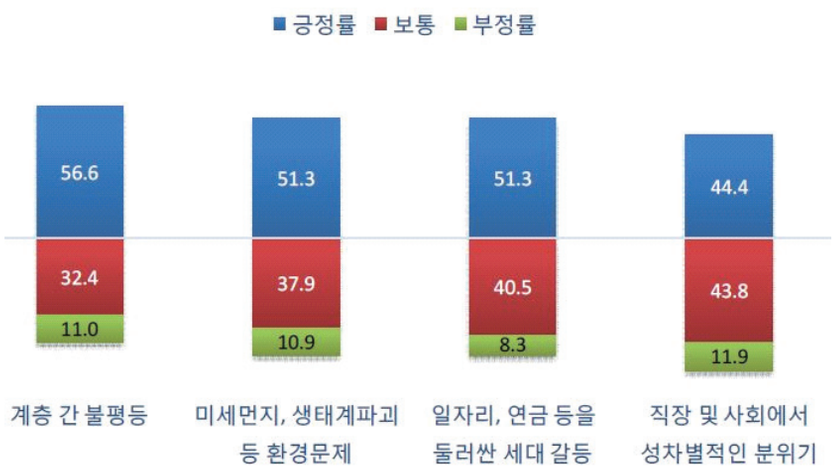
		일자리 창출	취업교육 프로그램 및 정보 제공	진로교육, 진로지도	일자리 환경	중소기업 정책 활성화	내부귀인	구직 지원금 지원	창업 지원	주거 지원 정책 활성화
성별	남성	109	53	29	29	28	15	10	16	14
		37.8%	18.4%	10.1%	10.1%	9.7%	5.2%	3.5%	5.6%	4.9%
	여성	116	53	31	29	27	12	14	7	8
		42.5%	19.4%	11.4%	10.6%	9.9%	4.4%	5.1%	2.6%	2.9%
연령	20-24세	46	32	21	17	13	3	11	7	4
		32.6%	22.7%	14.9%	12.1%	9.2%	2.1%	7.8%	5.0%	2.8%
	25-29세	47	26	15	16	10	2	10	4	8
		35.6%	19.7%	11.4%	12.1%	7.6%	1.5%	7.6%	3.0%	6.1%
	30-34세	66	20	8	19	11	5	2	7	5
		51.2%	15.5%	6.2%	14.7%	8.5%	3.9%	1.6%	5.4%	3.9%
	35-39세	66	28	16	6	21	17	1	5	5
		41.5%	17.6%	10.1%	3.8%	13.2%	10.7%	.6%	3.1%	3.1%
주관적 계층	저	106	39	27	36	27	11	15	15	14
		38.4%	14.1%	9.8%	13.0%	9.8%	4.0%	5.4%	5.4%	5.1%
	중	104	58	30	17	26	14	8	7	6
		41.6%	23.2%	12.0%	6.8%	10.4%	5.6%	3.2%	2.8%	2.4%
	고	15	9	3	5	2	2	1	1	2
		42.9%	25.7%	8.6%	14.3%	5.7%	5.7%	2.9%	2.9%	5.7%
합계		225	106	60	58	55	27	24	23	22

2. 사회문제 인식 및 차며

1) 사회문제 인식

■ 관심수준

○ 주요 네 가지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 수준을 조사한 결과, 계층 간 불평등이 453명(56.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5-6> 주요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 수준

○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여성은 남성에 비해 사회적 자원을 적게 보유하고 있으며, 따라서 동일한 하나의 사회문제를 성별에 따라 다르게 지각할 가능성이 존재함

<표 5-6> 성별에 따른 주요 사회문제 관심 수준

문항	성별	평균	표준편차	t value
계층 간 불평등	남	3.48	1.009	-2.881**
	여	3.68	.881	
환경 문제	남	3.40	1.006	-3.883***
	여	3.66	.873	
세대 갈등	남	3.46	.913	-1.919
	여	3.58	.835	
직장 내 성차별	남	3.19	.899	-6.865***
	여	3.62	.873	

- 직장 내 성차별 이슈에 대해 여성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관심 수준을 지니고 있으며, 이어서 환경문제, 계층 간 불평등에 대해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평균값을 보임

○ 주관적 계층의식에 따라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의 정도가 다른지 확인한 결과, 계층 간 불평등, 세대 갈등, 직장 내 성차별에 대한 인식의 수준 차이를 보임

- 사후검증(Scheffe검증) 결과, 집단 간 평균차이에 의해 집단 구분이 되는 영역은 계층 간 불평등으로 본인의 계층을 보통(중), 높음(고)이라고 인식하는 집단에 비해 낮음(저)이라고 인식하는 집단의 경우 계층 간 불평등에 대한 관심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5-7> 주관적 계층의식에 따른 주요 사회문제 관심 수준

문항	주관적 계층	평균	표준편차	F value	크기
계층 간 불평등	저(a)	3.76	.935	11.020***	a > b, c
	중(b)	3.44	.914		
	고(c)	3.44	1.167		
환경 문제	저(a)	3.58	.930	1.470	NA
	중(b)	3.50	.943		
	고(c)	3.36	1.144		
세대 갈등	저(a)	3.65	.875	7.289***	NA
	중(b)	3.41	.841		
	고(c)	3.44	1.050		
직장 내 성차별	저(a)	3.51	.911	4.452*	NA
	중(b)	3.32	.893		
	고(c)	3.29	.9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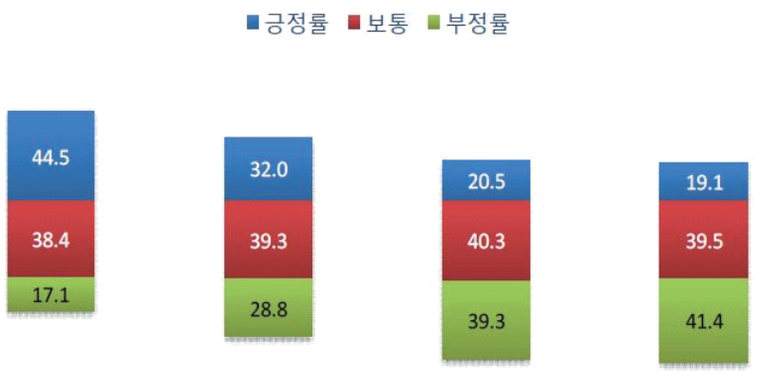
2) 사회문제 참여

○ 사회문제에 대한 참여방식과 의도를 물은 결과, 정치·사회 문제에 대해 주변 사람과 이야기하기가 536명(67.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참여경험 및 참여의향

○ 네 가지 유형의 참여 방식에 대해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정치·사회문제에 대해 주변 사람과 이야기하기가 가장 높은 44.5%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서명운동 참여하기(32.0%), 블로그/SNS/온라인게시판(20.5%), 시위, 집회 등 참여(19.1%)의 순으로 나타남

- 전국 청년의 참여의향과 비교해 보면, 서명운동 참여하기와 블로그/SNS/온라인게시판 등에 의견 올리기는 수원시 청년들의 참여의향이 전국 청년에 비해 다소 낮지만, 시위, 집회 등에 참여하기에 대해서는 수원시 청년들의 참여의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나타남



<그림 5-7> 참여방식별 경험 및 참여의향

자료 : '전국 참여의향'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6년 청년 사회 · 경제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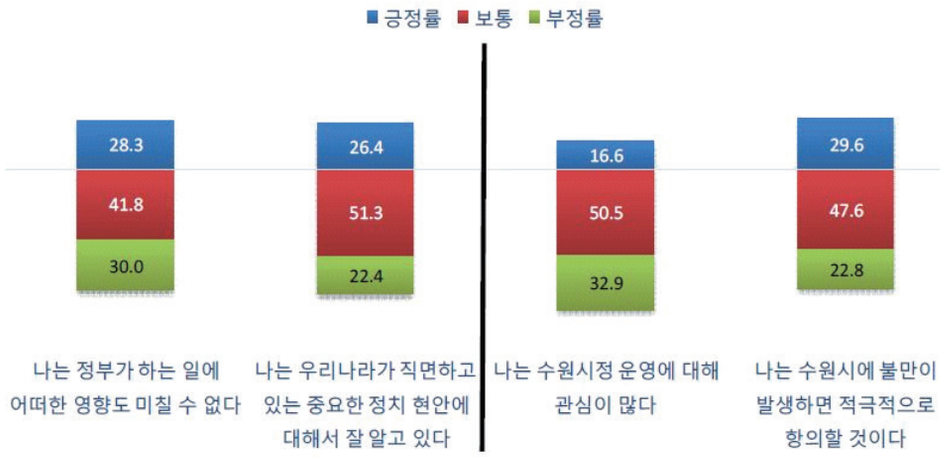
<표 5-8> 참여방식별 경험 및 참여의향

	정치사회 문제에 대해 주변 사람과 이야기 하기	서명운동 참여하기 (온라인 서명 포함)	블로그/SNS/온라인 게시판 등에 의견 올리기	시위, 집회 등에 참여하기
참여경험	67.0	41.4	24.3	18.6
전국 참여경험	NA	34.2	33.5	12.7

3) 관심과 역량수준

○ 사회참여에 대한 관심과 역량의 수준을 물은 결과 다음과 같이 확인됨

- 수원시정운영에 대해 관심이 있다는 긍정응답률은 16.6%, 부정응답률은 32.9%로 나타남
- 정치에 대한 역량(항의, 현안이슈 등)의 긍정응답률은 약 26.4% ~ 29.6%로 나타남



<그림 5-8> 사회참여에 대한 관심과 역량의 수준

○ 사회참여에 대한 관심과 역량의 수준을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연령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 정부가 하는 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의견이 가장 우세한 연령집단은 35~39세였으며, 20~24세의 경우는 다른 연령에 비해 정치 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의 정치현안에 대한 인지정도는 30대가 20대에 비해 좋은 것으로 나타남
- 수원시정 운영에 대한 관심 정도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20대에 비해 30대가 상대적으로 시정운영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수원시에 불만이 발생할 시에 불만을 제기하겠다는 의견도 높은 연령집단일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지만, 20~24세의 집단만이 유의미하게 다른 집단에 비해 낮은 불만제기 의향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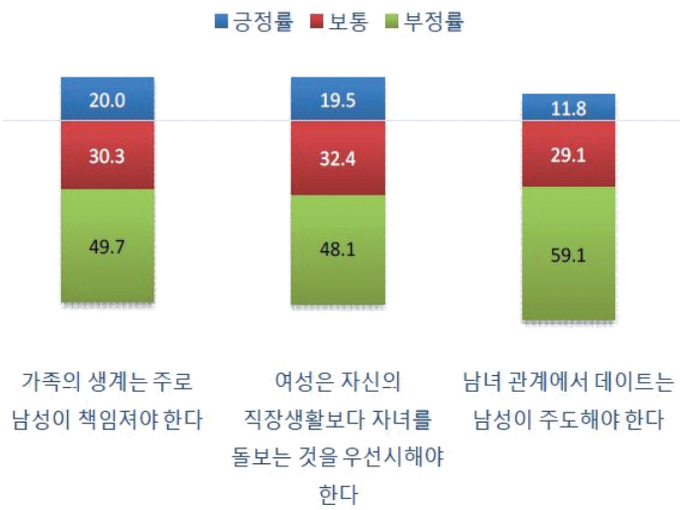
<표 5-9> 연령별 사회참여 관심 및 역량 수준

문항	연령	평균	표준편차	F value	크기
정치 효능감(R)	20~24세(a)	2.75	1.055	5.035**	c, d > a
	25~29세(b)	3.06	.990		
	30~34세(c)	2.97	1.013		
	35~39세(d)	3.10	.985		
정치현안 인지	20~24세(a)	2.89	.868	5.031**	c, d > a
	25~29세(b)	3.03	.788		
	30~34세(c)	3.12	.854		
	35~39세(d)	3.18	.839		
수원시정 관심도	20~24세(a)	2.53	.890	12.673***	d > b, a c > a
	25~29세(b)	2.72	.844		
	30~34세(c)	2.91	.826		
	35~39세(d)	3.00	.821		
불만제기 의향	20~24세(a)	2.80	1.028	8.451***	b, c, d > a
	25~29세(b)	3.11	.851		
	30~34세(c)	3.15	.900		
	35~39세(d)	3.21	.851		

4) 성역할 고정관념

○ 성역할 고정관념과 관련한 세 가지 이슈에 대해 조사한 결과, 남성이 생계부양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문항에 160명(20.0%)이 긍정적으로 응답함

- 성역할 고정관념의 긍정률은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연인관계에서의 성역할 고정관념에 비해 가정 내에서의 성역할 고정관념(생계부양, 자녀 양육)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양상을 보임



<그림 5-9>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동의 수준

○ 전반적으로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긍정률은 다소 낮은 편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보다 구체적으로 성별에 따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성별에 의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남성은 여성에 비해 생계부양자로서의 역할, 그리고 데이트 시 남성의 주도적 역할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임
- 한편 여성이 직장생활보다는 자녀를 돌봐야 한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남녀에 의한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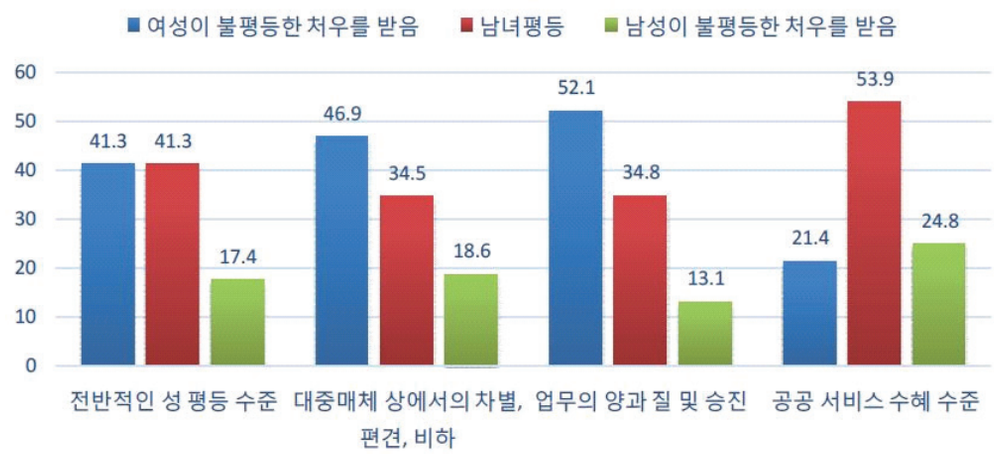
<표 5-10> 성별에 따른 성역할 고정관념

문항	성별	평균	표준편차	t value
남성의 생계책임	남	2.63	1.120	4.240***
	여	2.29	1.099	
여성의 자녀 돌봄	남	2.51	1.074	1.058
	여	2.43	1.191	
데이트 시 남성 주도	남	2.32	1.057	2.844**
	여	2.11	1.014	

- 하지만 남성과 여성 모두 평균값이 3점 미만으로 나타나 대체로 고정관념에 기반한 성 역할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5) 성평등 인식

○ 남성과 여성 간 평등 수준에 관한 네 가지 문항을 물은 결과 다음과 같이 확인됨



<그림 5-10> 성 평등에 관한 인식

○ 공공 서비스 수혜 수준을 제외한 나머지 세 영역에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불평등한 처우를 받는 것으로 확인됨

-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여성은 남성에 비해 자신들이 차별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확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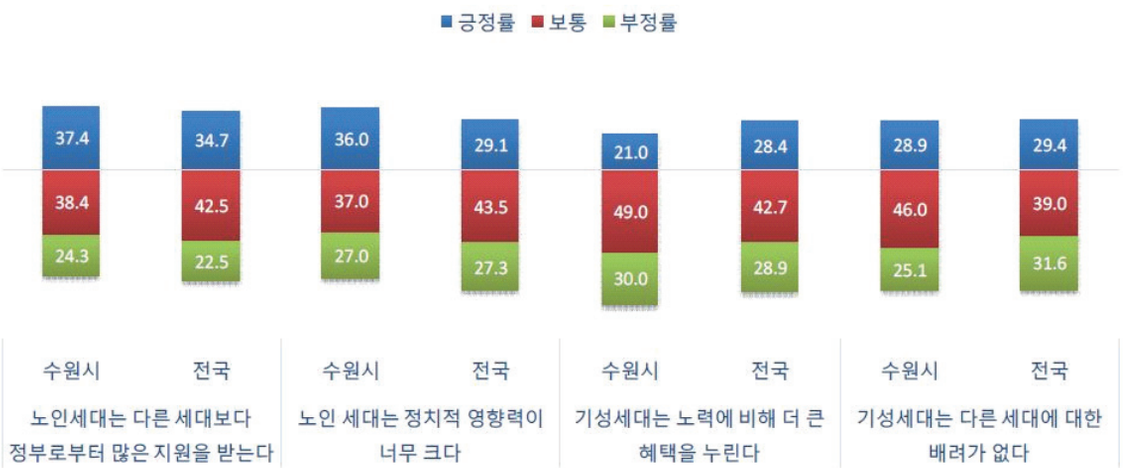
<표 5-11> 성별에 따른 성 평등에 관한 인식

문항	성별	평균	표준편차	t value
전반적 성평등	남	2.96	.770	8.887***
	여	2.43	.908	
대중매체의 차별	남	2.94	.884	9.402***
	여	2.34	.927	
업무 및 승진 관련 차별	남	2.72	.840	6.461***
	여	2.31	.939	
공공서비스 수혜 수준	남	3.23	.751	7.564***
	여	2.80	.843	

- 특히 여성만을 대상으로 분석했을 때, 전체 응답자의 약 60% 내외는 공공 서비스 수혜 수준을 제외한 나머지 세 영역에 대해 여성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고 응답함
- 반면 남성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약 50% 내외가 남녀가 평등하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남성보다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는 응답빈도가 약간 더 높게 나타남

6) 세대 인식

○ 기성세대 및 노인세대에 대한 인식은 다음과 같이 확인됨



<그림 5-11> 세대갈등 수준에 대한 인식

3. 지역 정체성

1) 거주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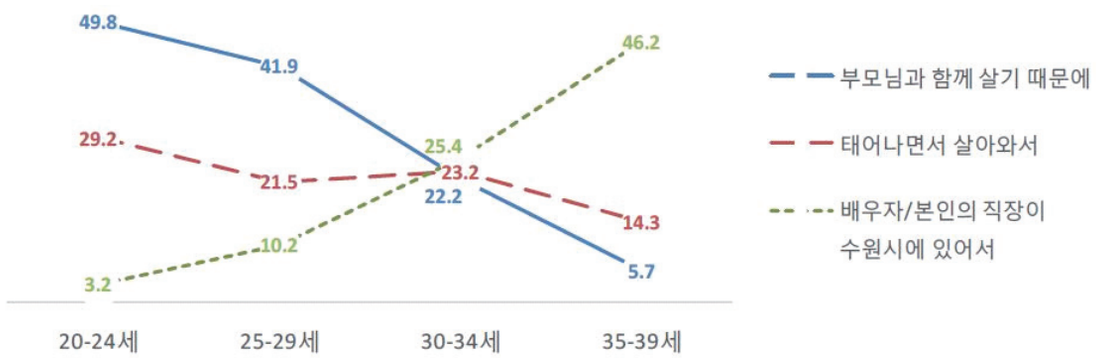
○ 수원시에 거주하는 이유에 대해 물은 결과, 부모님과 함께 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240건(30.0%), 태어나면서 살아와서라는 응답이 177건(22.1%), 배우자/본인의 직장이 수원시에 있어서라는 응답이 170건(21.3%)의 순으로 확인됨

<그림 5-12> 수원시에 거주하는 이유

■ 연령대별 거주이유

○ 상위 3개의 응답을 대상으로 청년의 연령대에 따라 비교해 보니 차이가 나타남

- 연령대가 증가함에 따라 배우자/본인의 직장이 수원시에 있어서라는 응답은 가파르게 증가(3.2% → 46.2%)하고 있으며, 반면 부모님과 함께 살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급격히 감소함(49.8% → 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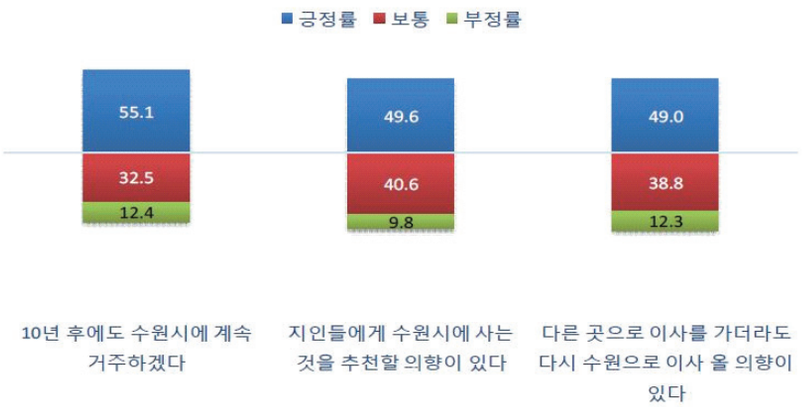
<그림 5-13> 연령대별 수원시에 거주하는 이유

2) 수원시에 대한 인식

○ 수원시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을 선호수준과 애착심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으며, 분석 결과 각 문항은 모두 평균(3점) 이상의 값으로 확인됨

■ 선호수준

○ 수원시에 대한 지속적인 거주의도, 추천의향 등의 선호수준을 조사한 결과, 약 50% 내외에 해당하는 청년들이 긍정적 응답을 보임



<그림 5-14> 수원시에 대한 선호수준

○ 수원시에 대한 인식을 구별로 분석한 결과 몇 가지 차이들이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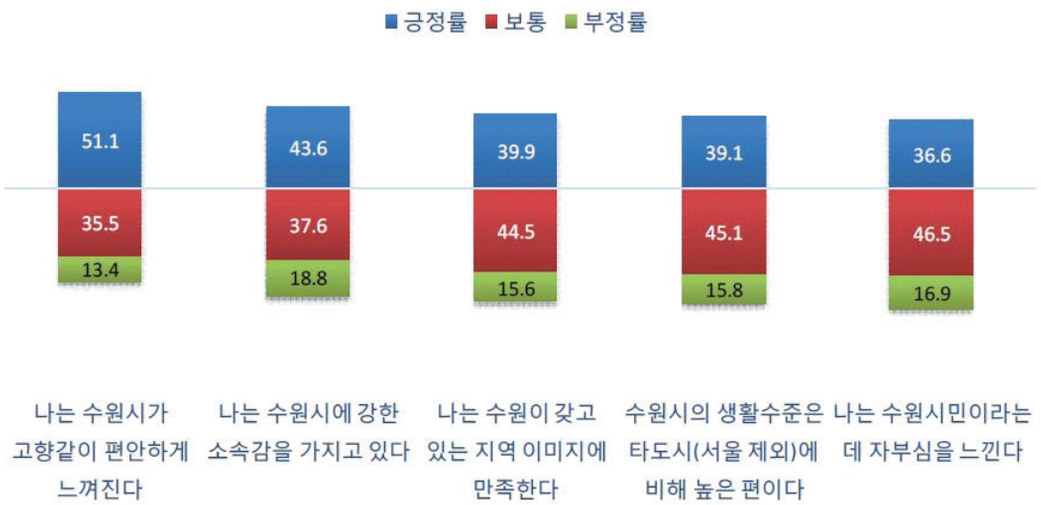
- 거주지속의 경우, 장안구와 팔달구에 비해 영통구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외적환경의 변화가 없으면 수원시에 지속적으로 거주하겠다는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남
- 지인추천의 경우, 권선구와 영통구가 팔달구에 비해 추천 의향이 높은 것으로 확인됨
- 영통구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재이사 의향이 팔달구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5-12> 거주지역별 수원시에 대한 인식

문항	거주지역	평균	표준편차	F value	크기
거주 지속	장안구(a)	3.43	1.042	5.669**	d > a, c
	권선구(b)	3.56	1.013		
	팔달구(c)	3.37	1.086		
	영통구(d)	3.75	.879		
지인 추천	장안구(a)	3.50	.859	4.461**	b, d > c
	권선구(b)	3.54	.993		
	팔달구(c)	3.25	.946		
	영통구(d)	3.61	.838		
재이사 의향	장안구(a)	3.49	.890	3.075*	d > c
	권선구(b)	3.46	1.006		
	팔달구(c)	3.26	1.067		
	영통구(d)	3.58	.902		

■ 애착심

○ 수원시에 대한 소속감, 만족감 등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1/3 이상은 긍정적 응답을 보였으며, 부정적 응답은 모두 20% 미만의 값으로 확인됨



<그림 5-15> 수원시에 대한 애착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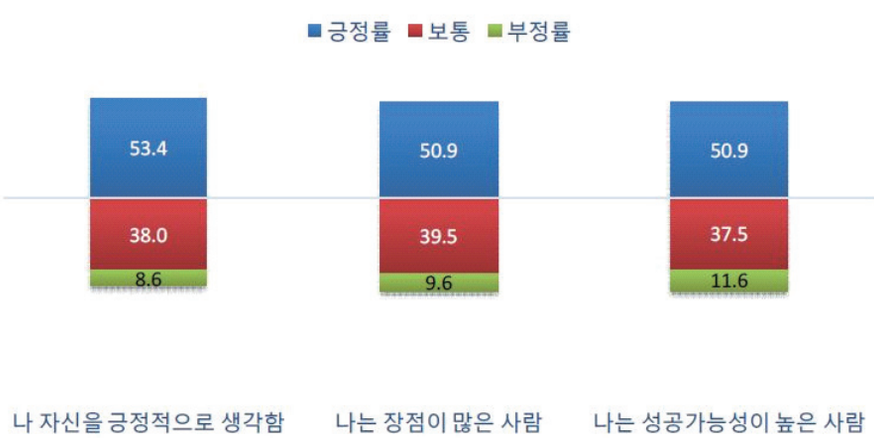
4. 자아 정체성

1) 자아정체성

○ 청년들의 자아정체성을 측정하기 위해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 계층에 대한 인식, 성공의 조건 등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음

■ 자기평가

○ 수원시 청년들의 절반 이상은 자기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으며, 부정적 응답률은 10% 내외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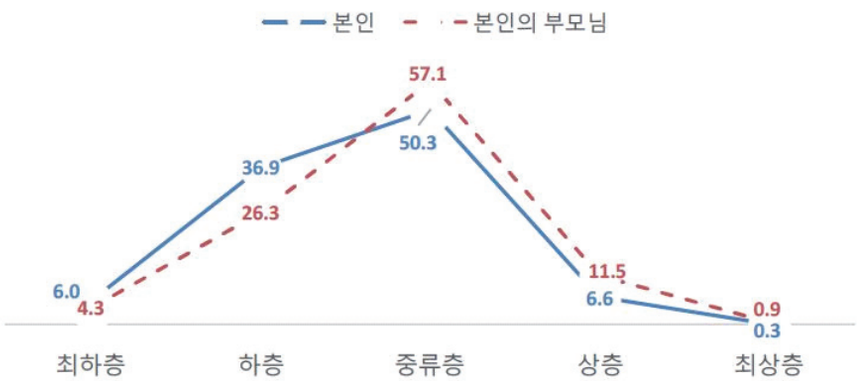


<그림 5-16> 수원시 청년들의 자기평가인식

■ 계층인식

○ 우리 사회에서 자신의 계층이 어느 수준에 해당하는지 물은 결과 약 절반은 중류층이라 답하였으며, 하층/최하층이라 답한 응답률은 약 42.9%로 나타남

- 한편 본인 부모님의 계층에 대해서도 질문한 결과, 본인의 계층수준과 유사한 패턴으로 확인되었음



<그림 5-17> 본인 및 본인의 부모님 계층인식

■ 성공조건

○ 우리 사회에서 성공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조건이 무엇인지 물은 결과, 노력과 성실성이라는 응답이 176명(22.0%), 재력 170명(21.3%), 집안 배경 154명(19.3%), 인맥 111명(13.9%)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5-18> 성공하는데 필요한 조건

○ 성공하는데 필요한 조건은 본인이 자신의 계층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일 가능성이 있음

- 본인에 대한 계층 인식을 세 집단(저중고)으로 구분한 후, 이들 집단 간 응답을 순위별로 비교하였음
- 본인의 계층을 저 집단으로 지각한 경우, 성공하는데 필요한 조건으로 재력, 집안배경이라 응답한 반면, 중·고 집단에서는 성공에 필요한 첫 조건으로 노력과 성실성이라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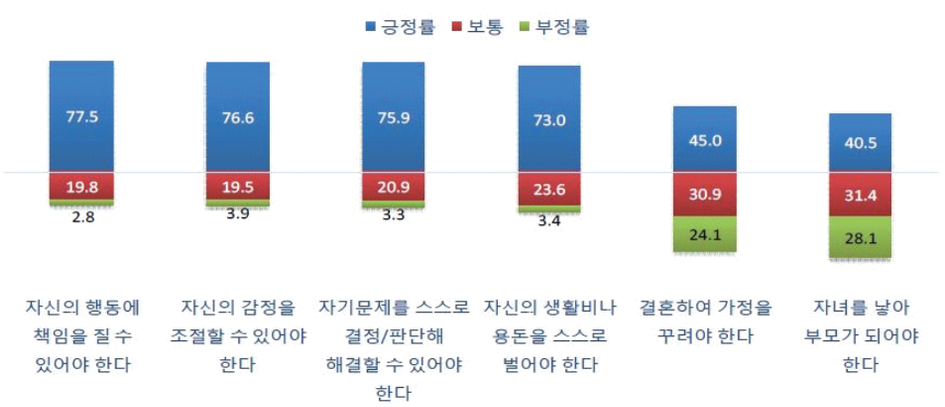
<표 5-13> 주관적 계층의식에 따른 성공조건

항목	계층 저 집단 (N=343)	중 집단 (N=402)	고 집단 (N=55)
노력/성실성	3순위 (16.9%)	**1순위 (24.6%)**	**1순위 (34.5%)**
재력	**1순위 (29.4%)**	3순위 (16.2%)	5순위 (7.3%)
집안배경	2순위 (23.3%)	2순위 (16.7%)	4순위 (12.7%)
인맥	4순위 (13.4%)	4순위 (13.9%)	2순위 (16.4%)
학벌/학력	5순위 (9.0%)	5순위 (12.4%)	2순위 (16.4%)

2) 성인기 이행의 자격요건

○ 성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조건에 따라 차이를 보임

- 분석 결과,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 감정 조절, 스스로 문제해결, 경제적 독립 영역에 대하여 73.0% ~ 77.5%의 긍정응답률로 나타났으며, 반면 결혼과 자녀의 유무는 성인기 이행에 있어 상대적으로 낮은 긍정응답률(40.5% ~ 45.0%)을 보임



<그림 5-19> 성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자격요건

○ 연령대가 높을수록 성인기 이행에 관한 각 요건들에 대하여 긍정 응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분석 결과 모든 요건들에 대해 집단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됨 (공간 제약상 1~3순위 자격요건만 제시함)

- 나머지 세 자격요건인 자신의 생활비나 용돈을 스스로 벌어야 한다(t=-3.575***), 결혼하여 가정을 꾸려야 한다(t=-4.033***), 자녀를 낳아 부모가 되어야 한다(t=-3.910***)에 대해서도 연령대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됨

<표 5-14> 연령별 성인의 자격요건 인식

문항	연령대	평균	표준편차	t value
자신의 행동에 책임	20대	4.05	.882	-2.867**
	30대	4.26	.849	
자신의 감정을 조절	20대	3.92	.898	-2.946**
	30대	4.13	.814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	20대	3.97	.859	-2.237*
	30대	4.13	.8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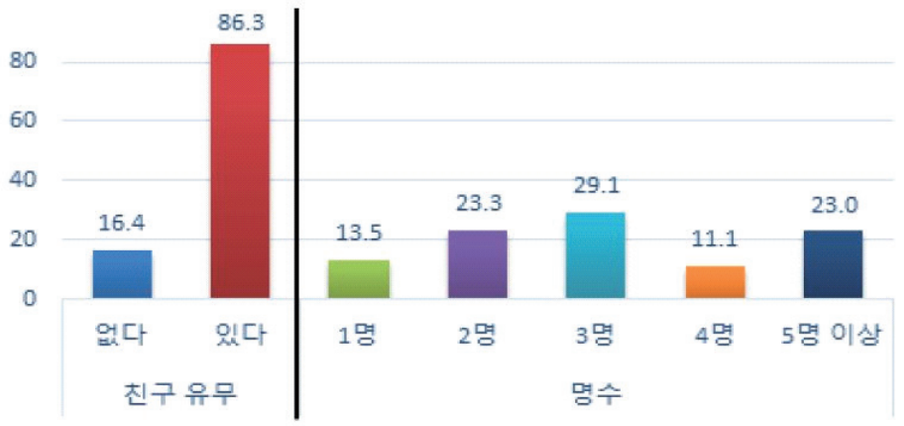
제2절 즐거움

1. 관계

1) 친구 및 지인관계

○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기댈 수 있는 친구가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 800명 중 669명(83.6%)이 존재한다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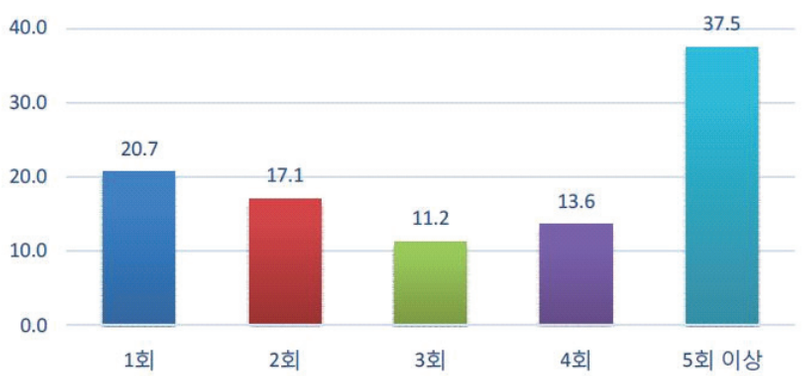
- (친구의 수) 친구가 존재하는 응답자에게 몇 명의 친구가 있느냐고 물었으며, 3명(29.1%), 2명(23.3%)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5-20> 친구 유무 및 친구의 수

■ 지인과의 만남

○ 한 달 평균 친구나 지인과 얼마나 자주 만나는지 물었으며, 5회 이상 만난다는 응답(37.5%)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1회(20.7%), 2회(17.1%)의 순으로 확인됨



<그림 5-21> 친구 및 지인과의 만남 횟수(한 달 평균)

○ 성별에 따라 친구 및 지인의 수와 만남 횟수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친구의 수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더 많지만, 만남 횟수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친구의 수에 대한 성별 차이를 보면, 남성은 5명 이상이 28.6%로 가장 높고, 여성은 3명이 32.9%로 나타나고 있어, 여성은 주로 소수 중심의 관계형성이 나타나고 있음 (x^2 =16.060**)

<표 5-15> 성별에 따른 사회적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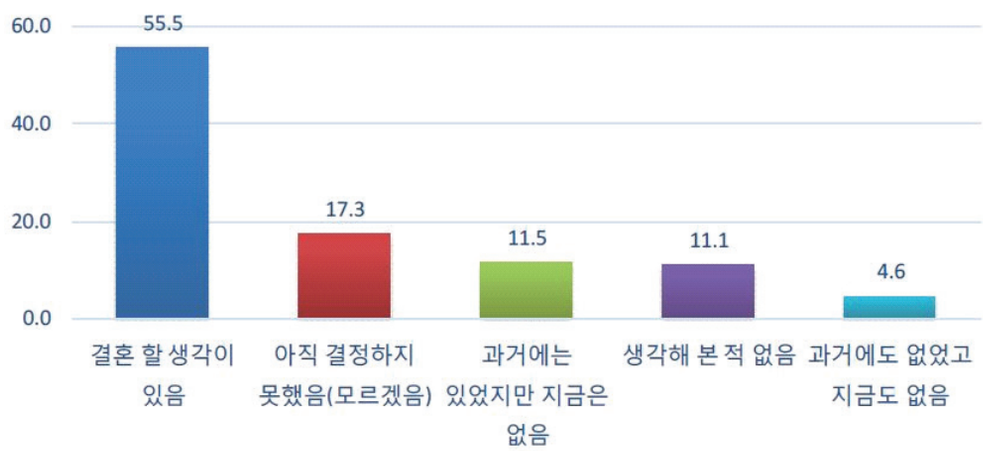
문항	성별	1	2	3	4	5이상	계(행)
친구의 수	남	39(11.1%)	80(22.9%)	90(25.7%)	41(11.7%)	100(28.6%)	350
	녀	51(16.0%)	76(23.8%)	105(32.9%)	33(10.3%)	54(16.9%)	319
만남 횟수	남	77(19.1%)	70(17.4%)	48(11.9%)	52(12.9%)	156(38.7%)	403
	녀	83(22.4%)	62(16.7%)	39(10.5%)	53(14.3)	134(36.1%)	371

2) 연애 및 결혼관

○ 수원시 청년들은 평균 3.2회 연애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연애 대상과 혼전 동거 경험은 전체 응답자 800명 중 106명(13.3%)이 있다고 응답함

○ 미취업이나 직장 불안정 등의 이유로 연애를 망설인 적이 있는지 물은 결과 283명(35.4%)이 그렇다고 응답함

○ 결혼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기혼자를 제외한 전체 응답자 539명 중 299명(55.5%)은 그렇다고 응답함



<그림 5-22> 결혼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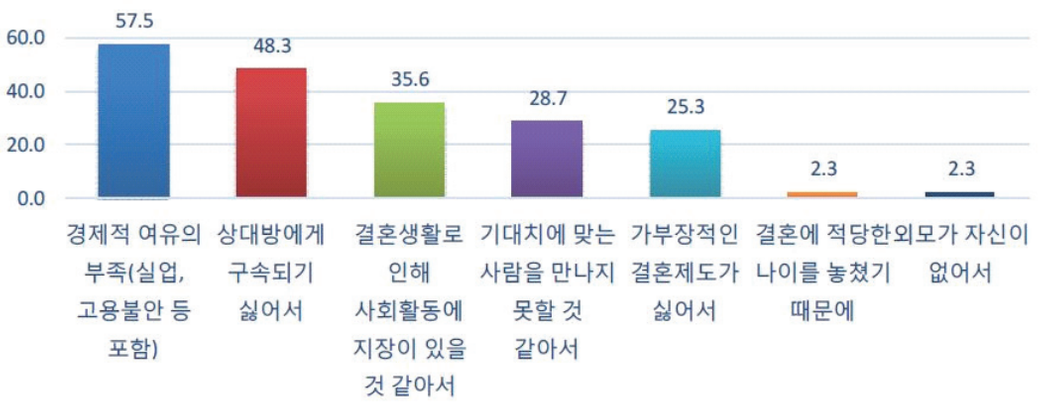
■ 결혼 적령기

○ 결혼할 의향이 있다면, 만 몇 세에 할 예정인지 물었으며, 평균 약 32세인 것으로 나타남

- 남성과 여성 모두 30~34세에 결혼하기를 희망한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2순위로 남성은 34~39세(24.9%), 여성은 25~29세(32.5%)로 차이를 보임

■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

○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물은 결과, 경제적 여유의 부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57.5%), 이어서 상대방에게 구속되기 싫어서(48.3%), 결혼생활로 인해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35.6%), 기대치에 맞는 사람을 만나지 못할 것 같아서(28.7%), 가부장적인 결혼제도가 싫어서(25.3%)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5-23>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1+2순위)

○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는 성별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영역임

- 남녀 모두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로 경제적 여유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2순위에서는 큰 차이를 보임
- 남성은 상대방에게 구속되기 싫어서라는 응답이 2순위로 나타났으나, 여성은 결혼생활로 인해 사회활동이 지장이 있을 것 같다는 응답이 2순위로 나타남
- 한편 남녀 모두 상대방에게 구속되기 싫어서라는 응답이 상위권에 있으며, 이는 현 청년들의 개인주의적 성향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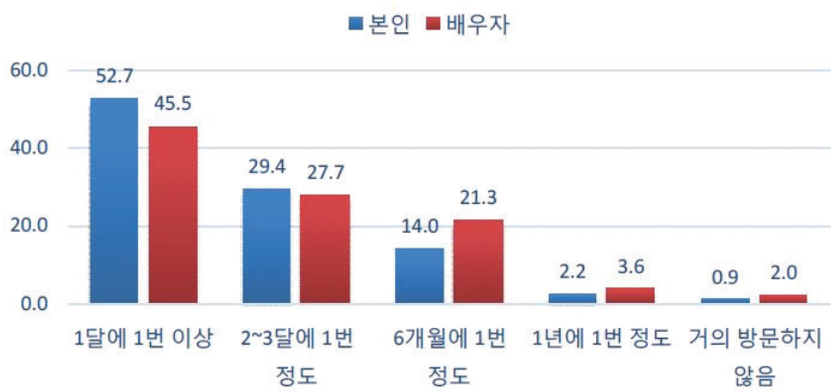
<표 5-16> 성별에 따른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1+2순위)

항목	남성 (N=37)	여성 (N=50)
경제적 여유 부족	**1순위 (67.6%)**	**1순위 (50.0%)**
상대방에게 구속되기 싫어서	2순위 (62.2%)	3순위 (38.0%)
결혼생활로 인해 사회활동이 지장	4순위 (21.6%)	2순위 (46.0%)
기대치에 맞는 사람을 만나지 못할까봐	3순위 (29.7%)	5순위 (28.0%)
가부장적인 결혼제도가 싫어서	5순위 (10.8%)	4순위 (36.0%)
결혼에 적당한 나이를 놓쳐서	6순위 (5.4%)	NA
외모가 자신이 없어서	7순위 (2.7%)	6순위 (2.0%)

3) 가족 관계

■ 본인의 부모 방문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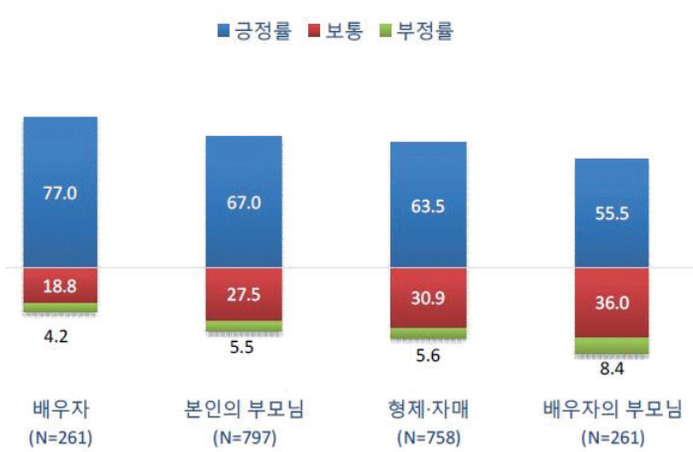
○ 본인의 부모님 댁을 방문하는 횟수를 물은 결과 1달에 1번 이상 방문하는 경우가 52.7%로 가장 높게 나타남[4)]



<그림 5-24>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님 댁 방문 빈도

■ 관계 만족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에 대한 만족 수준을 물은 결과 배우자에 대한 만족도의 긍정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5-25> 가족 관계에 대한 만족도

4) '부모님과 동거', '계시지 않음', '해당 없음'은 결측으로 처리한 후의 결과임을 밝힘(N=408)

○ 성별에 따른 가족관계 만족도 평균차이 검증을 한 결과, 배우자, 본인의 부모님, 형제·자매에 대한 만족도는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 배우자의 부모님에 대한 관계만족도는 남성과 여성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데, 남성에 비해 여성이 배우자의 부모님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t=2.013*)

<표 5-17> 성별에 따른 가족 관계 만족도

문항	성별	평균	표준편차	t value
배우자	남	4.19	.820	1.509
	여	4.03	.897	
본인의 부모님	남	3.94	.969	-1.273
	여	4.02	.940	
배우자의 부모님	남	3.80	.928	2.013*
	여	3.56	.969	
형제·자매	남	3.82	.946	-1.588
	여	3.92	.913	

2. 여가문화

1) 여가활동

○ 수원시 청년들의 여가시간 및 활동에 대해 물은 결과 다음과 같이 확인됨

- (평균 여가시간 및 비용) 수원시 청년들은 평일 약 3시간, 휴일에는 약 5.8시간의 여가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평균 약 23.1만원을 여가에 지출하고 있음
- (여가 종류) 평일에는 인터넷 검색/채팅과 관련된 여가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 휴일에는 휴식활동(산책, 목욕/사우나, 낮잠 등)이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5-26> 평일에 즐기는 여가활동 순위

※ 지면 제약상 5% 미만에 해당하는 활동은 포함하지 않았음

<그림 5-27> 휴일에 즐기는 여가활동 순위

2) 예술 활동

■ 관람 여부

○ 다양한 문화예술 중 관람한 경험이 있는지를 물었으며, 분석 결과 영화는 응답자의 89.4%가 경험이 있다고 답함

- 문화체육관광부의 '2016년 문화향수실태조사'에서는 영화(73.3%), 대중음악/연예(14.6%), 연극(13.0%) 순으로 관람률이 높았으며, 청년 관람률도 수원시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 이어서 미술전시회(26.6%), 연극(25.6%), 뮤지컬(25.1%), 대중음악(23.0%) 등의 순으로 응답함
- 가장 높은 관람률을 보인 영화와 그 다음 순위인 미술전시회 간 상당한 격차가 존재함

<그림 5-28> 문화예술 관람 여부

○ 성별에 따른 문화예술 관람 여부를 확인해 본 결과, 다른 문화예술 영역에서는 집단 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미술전시회, 연극, 뮤지컬에서만 성별 차이가 발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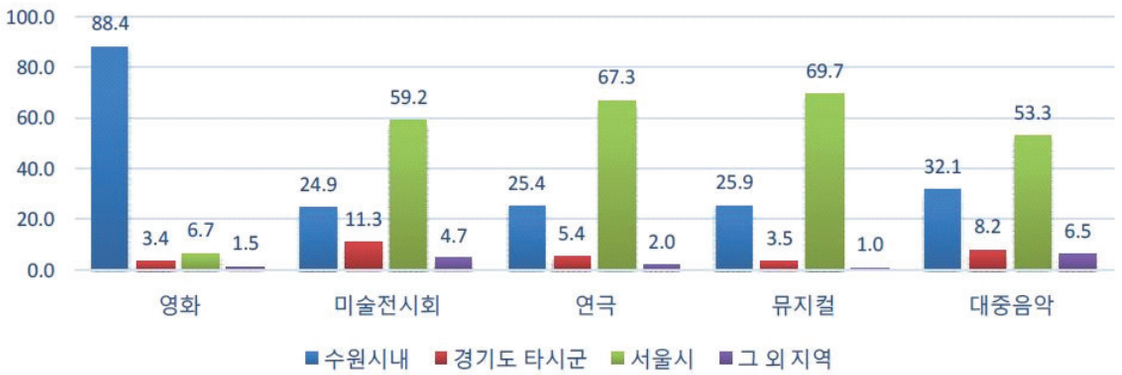
- 영화의 경우 남성과 여성 모두 관람율이 높고 문학행사만 여성보다 남성의 관람률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남성 14.2%, 여성 13.8%), 다른 문화예술의 경우에는 대체로 남성에 비해 여성의 관람빈도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 5-18> 성별에 따른 문화예술 관람 여부

문항		남성	여성	x^2
미술전시회	있다	90(21.7%)	325(78.3%)	10.764**
	없다	123(31.9%)	262(68.1%)	
연극	있다	85(20.5%)	330(79.5%)	11.968***
	없다	120(31.2%)	265(68.8%)	
뮤지컬	있다	82(19.8%)	333(80.2)	13.199***
	없다	119(30.9%)	266(69.1%)	

■ 관람 지역

○ 영화 관람은 대부분 수원시내에서 발생하나, 그 외 미술전시회, 연극, 뮤지컬, 대중음악 등은 모두 서울시로 방문하여 관람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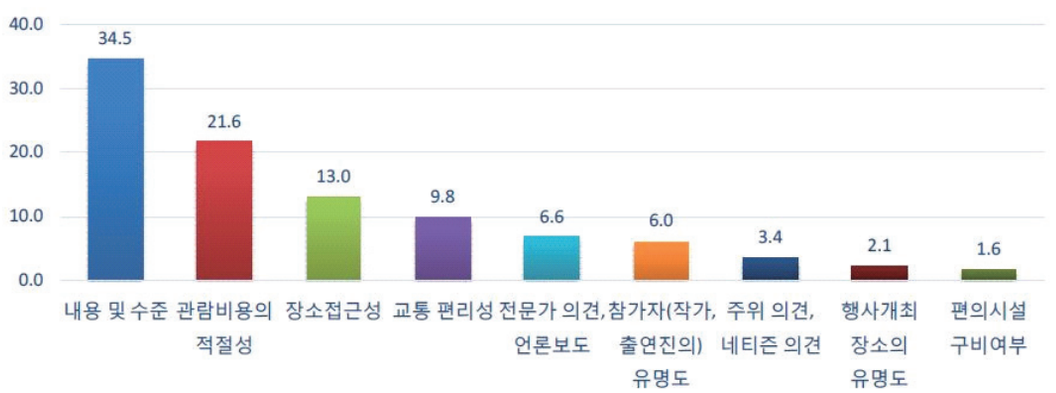
<그림 5-29> 문화예술 관람 지역

※ 지면 제약상 관람 여부 비율이 20% 이상인 문화예술 항목만을 대상으로 지역별 비교분석을 하였음

■ 관람 시 판단기준

○ 응답자들은 문화예술 공연의 내용 및 수준(34.5%)이 관람 결정시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이라 응답함

- 이어서 관람비용의 적절성(21.6%), 장소접근성(13.0%)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5-30> 관람 시 판단기준

3. 미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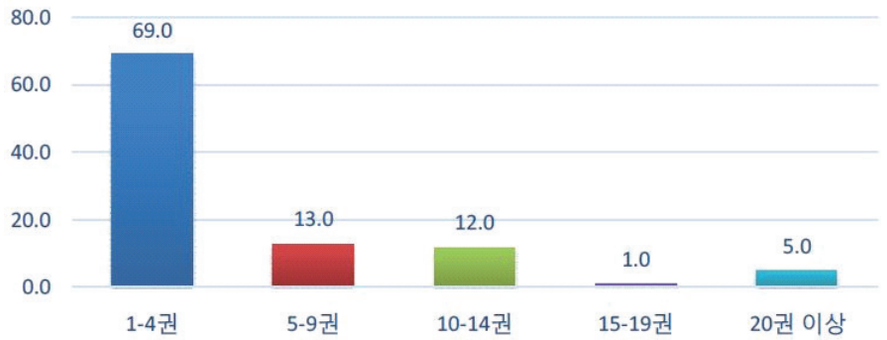
1) 독서 실태

■ 독서량

○ 지난 1년 간 수원시 청년들의 독서량은 약 4.7권인 것으로 확인됨

○ 지난 1년 간 1~4권의 책을 읽었다는 응답자는 69.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9권은 13.0%, 10~14권은 12.0%의 순으로 확인됨

- 문화체육관광부의 '2015년 국민독서실태조사' 에서는 우리나라 성인의 독서량은 평균 9.1권 인 것으로 확인됨
- 수원시 청년조사 결과(4.7권)와 비교해보면 독서량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파악됨



<그림 5-31> 지난 1년 동안 독서량(권)

2) 통신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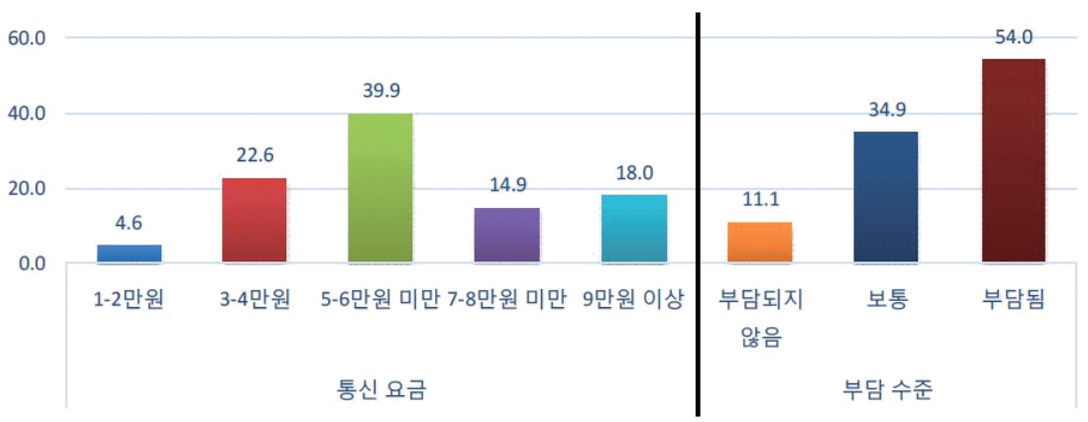
■ 통신요금

○ 수원시 청년들의 월평균 통신요금은 약 5만 9천원으로 확인됨

○ 월평균 통신요금이 5~6만원(39.9%)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3~4만원(22.6%), 9만원 이상(18.0%), 7~8만원(14.9%)의 순으로 나타남

■ 부담 수준

○ 전체 응답자의 54.0%는 통신요금이 부담된다고 응답함



<그림 5-32> 월평균 통신요금(만원)과 부담 수준

■ 어플리케이션

○ 주로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의 종류와 순위는 아래와 같음

<그림 5-33> 자주 이용하는 어플리케이션(1+2+3순위)

※ 지면 제약상 어플리케이션 활용 비율이 15% 미만인 것은 그림에 포함하지 않았음

제3절 발돋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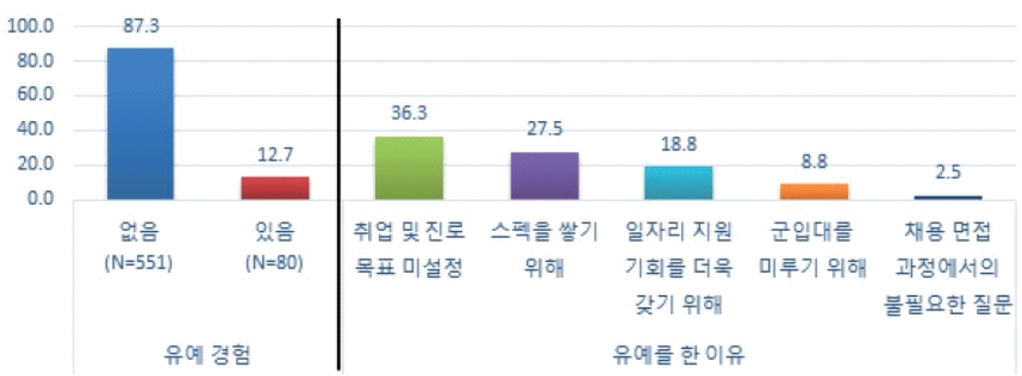
1. 교육

1) 휴학 · 졸업 · 대출

○ 대학에 진학한 청년(N=631)들을 대상으로 휴학, 졸업, 학비 등에 대해 조사함

■ 졸업유예

○ 수원시 청년들의 약 12.7%는 졸업을 의도적으로 늦춘 경험이 있었으며, 그 이유로는 취업 및 진로목표를 설정하지 못해서(36.3%)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5-34> 졸업유예 경험 및 이유

■ 휴학기간 및 이유

○ 대학에 진학한 청년 중, 휴학을 해 본적이 있는 응답자는 181명(28.7%)이며, 약 절반에 해당하는 응답자(49.7%)가 총 2학기 정도의 휴학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 휴학 기간은 1학기가 23.2%, 2학기 49.7%, 3학기 7.7%, 4학기 17.1% 등으로 나타남

○ 휴학을 하는 이유로는 어학연수(19.9%), 취업준비(18.8%), 자격증/고시(17.7%)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5-35> 휴학 이유

■ 학비부담 주체

○ 학비에 대한 부담은 주로 부모(78.6%)의 도움에 의존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어서 본인(8.2%), 학자금 대출(6.2%), 장학금(5.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학자금 대출

○ 대학에 진학한 청년 63명 중, 138명은 학자금 대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들의 평균 대출금액은 1,042만원으로 확인됨

- 학자금 대출 유형은 취업 후 상환 방식이 가장 높게 나타남(37.0%)

<그림 5-36> 학자금 대출 유형

2) 대학시절 사교육 경험

○ 대학시절 사교육을 경험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영어는 전국 청년[5]과 유사하고 취업준비교육은 전국청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교육 경험율이 높은 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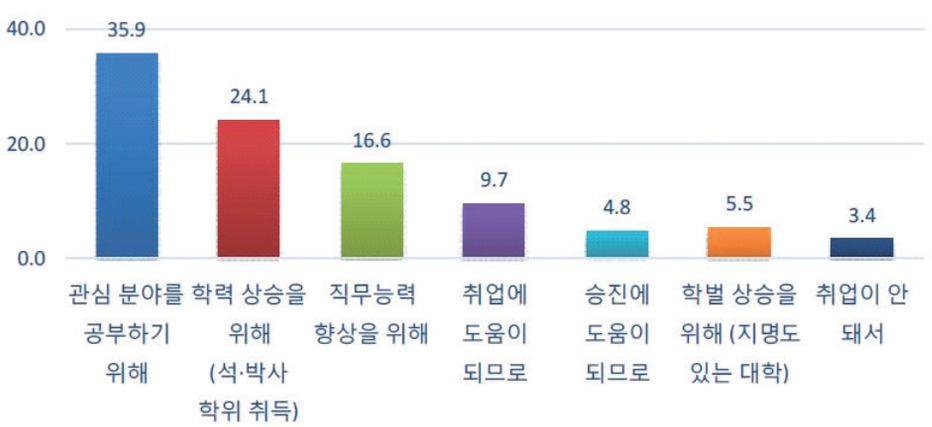
- 전공공부와 제2외국어의 사교육 경험은 전국 청년에 비해 수원시 청년의 경험율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5-37> 대학시절 사교육 경험 여부

3) 대학원 진학 및 이유

○ 대학에 진학한 학생 중 약 23.0%는 대학원 진학에 관심을 보임

○ 대학원에 진학하는 이유를 물은 결과, 관심분야 공부가 35.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력상승 24.1%, 직무능력 향상 16.6%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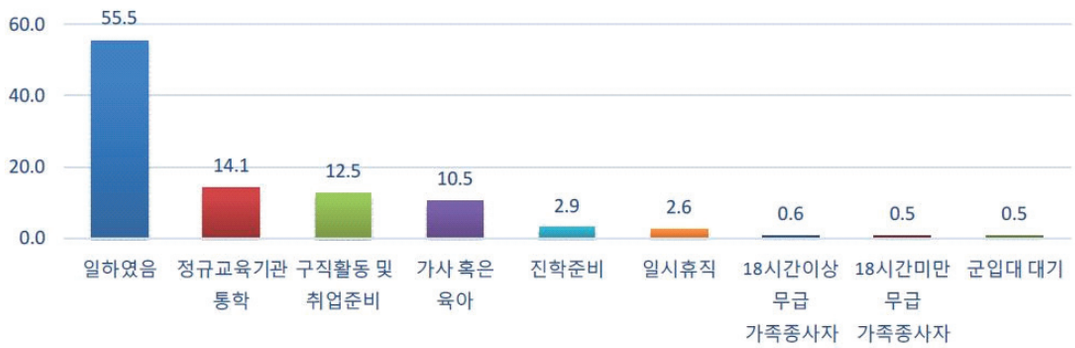
<그림 5-38> 대학원에 진학하는 이유

5) 전국 청년 데이터는 '2016년 청년 사회 · 경제 실태조사' 보고서 자료 참고

2. 경제활동상태

1) 경제활동 현황

○ 지난 1년간 수원시 청년들은 일을 하였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55.5%), 정규교육기관 통학(14.1%), 구직활동 및 취업준비(12.5%), 가사 혹은 육아(10.5%)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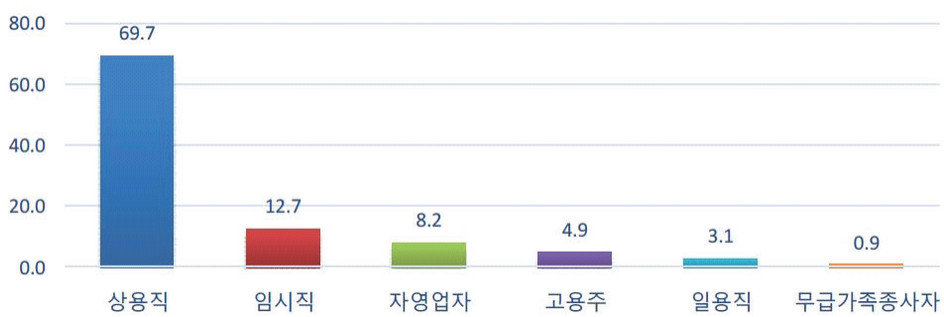


<그림 5-39> 수원시 청년들의 경제활동 현황

■ 종사상 지위

○ 취업자의 경우(449명) 종사상 지위는 상용직이 69.7%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그 외 임시직 12.7%, 자영업자 8.2%, 고용주 4.9% 등의 순으로 확인됨



<그림 5-40> 취업자들의 종사상 지위

■ 종사상 지위별 평균 근속기간

○ 전체 취업자들의 평균 재직기간은 약 3.53년으로 확인되었음

-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직 3.98년, 자영업자 3.78년, 무급가족종사자 2.75년, 고용주 2.55년, 일용직 2.43년, 임시직 1.65년으로 확인되며, 이들 집단 간 차이는 유의미하게 분석됨 (F=4.318***)

■ 종사상 지위별 평균 출퇴근시간

○ 전체 취업자들의 평균 출퇴근 시간은 약 51.5분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 종사상 지위별로는 고용주 18.8분, 무급가족종사자 26분, 자영업자 32분, 임시직 42분, 일용직 50분, 상용직 58분으로 확인되며, 종사상 지위별 출퇴근시간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F=5.144***)

■ 종사상 지위별 근로시간

○ 주당 정규 근로시간은 고용주와 자영업자가 약 52시간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 무급가족종사자는 20시간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종사상 지위별 평균 근로시간 또는 초과 근로시간에 차이가 있는지 추가 분석함

- 종사상 지위에 따라 주동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수에는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주로 고용주, 자영업자의 평균값이 높게 나타남
- 반면 초과 근로시간이나 초과 근로일수는 종사상 지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표 5-19> 종사상 지위별 경제활동 실태

종사상 지위	주당 근로시간	주당 초과 근로시간	주당 근로일수	주당 초과 근로일수
상용직	38.08	7.58	5.11	1.78
임시직	29.58	5.00	4.70	2.25
일용직	32.86	4.75	4.71	1.33
고용주	52.05	2.00	5.73	3.00
자영업자	51.59	11.88	5.76	1.50
무급가족종사자	20.75	2.00	4.75	2.00
기타	27.50	4.00	4.00	2.50
F value	12.569***	.633	13.243***	.556

■ 노동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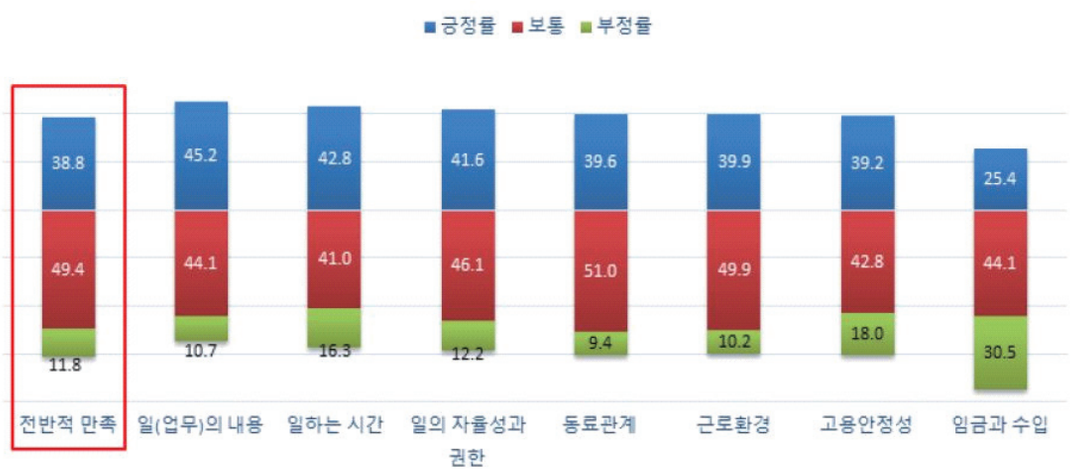
○ 취업자 449명 중 5.6%만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되며, 가입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42.5%, 노조가 없거나 가입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는 51.9%로 나타남

2) 전체 취업자 : 일자리 만족

○ 수원시 청년(취업자)들의 일자리에 대한 전반적 만족 수준은 3.3점으로 보통 이상인 것으로 확인됨

■ 현 직장의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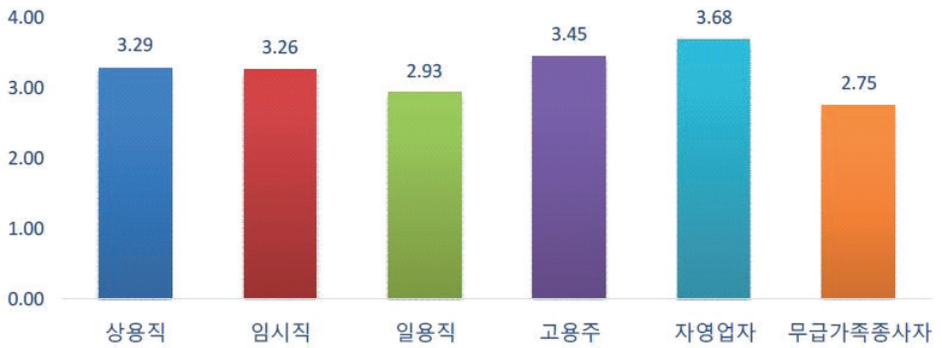
○ 각 항목별 만족도 수준을 측정한 결과, 임금과 수입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영역에서 긍정응답률이 약 40%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5-41> 현 직장에 대한 항목별 만족도

■ 종사상 지위별 만족도

○ 자영업자의 만족도는 3.6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고용주 3.45점, 상용직 3.29점, 임시직 3.26점, 일용직 2.93점, 무급가족종사자 2.75점의 순으로 확인됨 (F=5.075***)



<그림 5-42> 종사상 지위별 현 직장에 대한 전반적 만족

3) 전체 취업자 : 이직의향 및 이유

○ 수원시 청년 취업자들의 약 1/3은 이직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 중 63.9%는 더 나은 보수/복지를 위해서라고 응답함

■ 현 직장의 이직의도

○ 전체 응답자 449명 중 155명(34.5%)은 이직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294명(65.5%)은 이직 의향이 없다고 응답함

■ 종사상 지위별 이직의도

○ 종사상 지위별 이직의도의 빈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종사상 지위에 따라 이직의도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됨

○ 종사상 지위별 이직의도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로 분석됨

<표 5-20> 종사상 지위별 이직의도

종사상 지위	이직의도		계(행)
	있다	없다	
상용직	115 (36.7%)	198 (63.3%)	313
임시직	26 (45.6%)	31 (54.4%)	57
일용직	5 (35.7%)	9 (64.3%)	14
고용주	2 (9.1%)	20 (90.9%)	22
자영업자	2 (5.4%)	35 (94.6%)	37
무급가족종사자	3 (75.0%)	1 (25.0%)	4
기타	2 (100.0%)	0 (0.0%)	2
계(열)	155	294	449

※ 빈도 우측의 %는 행 %를 의미

- 카이제곱(x^2)은 30.658이며, 유의확률 p는 .000 이하로 확인되었으므로, 종사상 지위별로 이직의도에는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음

4) 고용주 및 자영업자 : 창업

○ 수원시 청년 창업자 59명 중 창업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11명(18.6%)으로 확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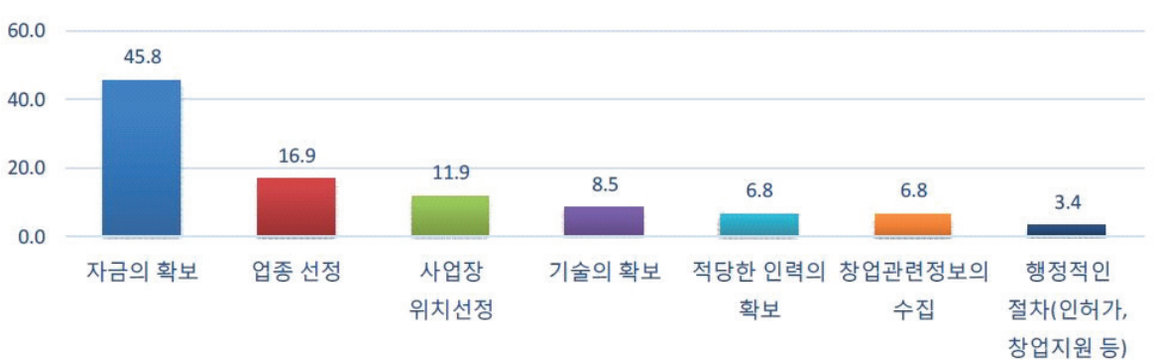
■ 창업동기

○ 고용주 및 자영업자들은 본인이 좋아하는 업종이라서 사업을 시작했다는 문항에 37.3%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임

<그림 5-43> 사업을 시작한 이유

■ 창업 중 애로사항

○ 창업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으로 자금의 확보라는 응답이 전체의 45.8%로 나타남



<그림 5-44> 창업과정 중 어려웠던 점

5) 미취업자 : 원인과 현황

○ 미취업자 중 학생을 제외한 응답자 217명을 대상으로 현재 미취업 상태인 이유와 경제적 문제의 해결 방안에 대하여 조사함

■ 원인

○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이유로서 가사일 또는 육아 때문에 라는 응답이 32.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한편 성별을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가사일 또는 육아 때문에 라는 응답은 남성이 0명, 여성은 70명으로 극단적인 대조를 보임 (남성 전체 응답자 71명, 여성 전체 응답자 146명)
- 남성은 원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일자리가 없어서(28.2%)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도 가사일 또는 육아 때문에 라는 응답을 제외하고 남성과 동일한 문항이 가장 높게 나타남(15.1%)

<그림 5-45> 현재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주된 이유

■ 경제적 문제의 해결방법

○ 경제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물은 결과, 부모 또는 형제의 지원(55.3%), 배우자의 소득(23.4%), 예전에 모아둔 저축(10.5%), 실업급여(2.0%) 등의 순으로 확인됨

■ 취업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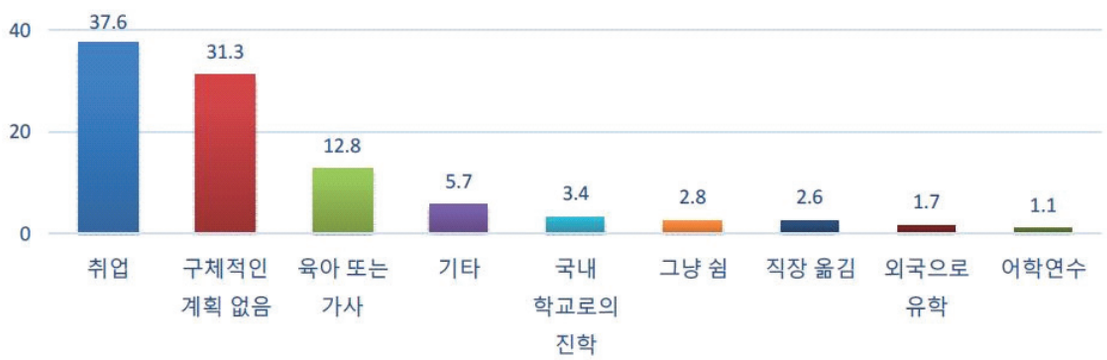
○ 미취업자 351명 중 132명(37.6%)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3. 취업 및 이직 준비

1) 향후 계획

○ 향후 1년간 계획에 대해 물은 결과, 현 상태를 유지(구체적인 계획 없음)하겠다는 응답이 49.5%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한편 미취업자 351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취업(37.6%), 구체적인 계획 없음(31.3%), 육아 또는 가사(12.8%)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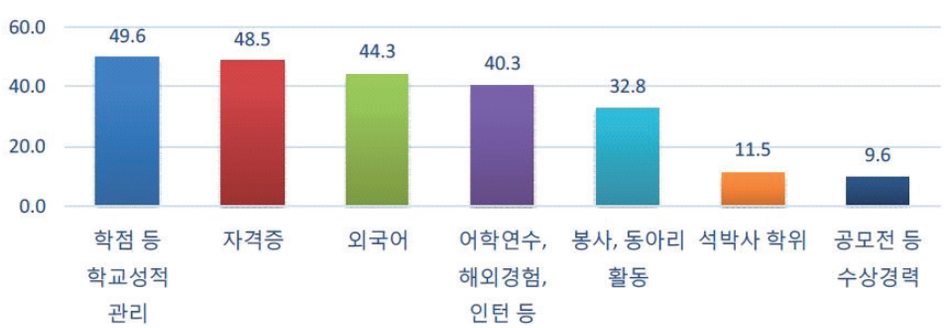
<그림 5-46> 미취업자들의 향후 계획(N=351)

2) 취업역량

○ 수원시 청년의 약 절반은 학점, 자격증, 외국어 등의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

■ 보유 역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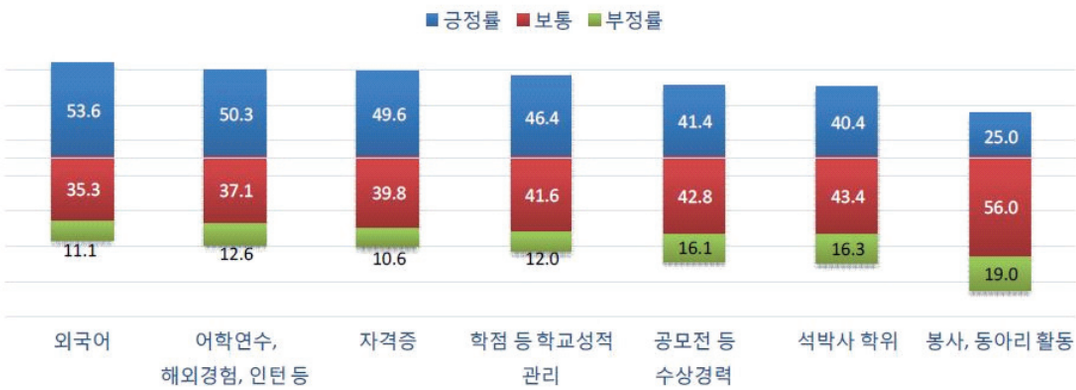
○ 다음의 각 취업역량(스펙) 중 본인이 지니고 있는 역량이 무엇인지 물었으며, 학점 등 학교성적 관리가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보유한 역량으로 확인됨



<그림 5-47> 수원시 청년들이 보유하고 있는 취업역량(스펙)

■ 필요 역량

○ 각 취업역량이 취업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 물었으며, 외국어라는 긍정응답률이 53.6%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5-48> 각 취업역량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력 수준

3) 구직활동

○ 수원시 청년들은 주로 취업사이트를 통해 구직정보를 얻고 있으나, 이들에게 필요한 취업정보는 여전히 불충분한 것으로 확인됨

■ 정보획득

○ 수원시 청년들은 취업을 위해 민간 취업사이트/카페(63.0%), 공공기관 취업사이트(55.8%), 친구 또는 선후배(43.3%)로부터 정보를 획득하는 것으로 확인됨

<그림 5-49> 구직정보 획득 경로(1+2+3순위)

■ 취업준비 중 어려웠던 점

○ 취업정보의 부족(55.5%), 희망하는 근무환경 및 근무시간 불일치(44.4%), 희망하는 수입이나 보수의 불일치(42.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취업자와 미취업자의 정보획득 경로를 추가 분석하였음

- 취업자와 미취업자의 취업에 대한 정보획득 경로 중 친구 또는 선후배, 민간 취업사이트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취업자의 경우 그 빈도수가 높게 확인됨

<표 5-21> 취업여부별 취업정보 획득경로

정보제공 주체	취업 여부		계
	취업자	미취업자	
학교 선생님(교수)	101	91	192
취업정보센터 등	115	132	247
신문, TV 등	109	117	226
부모 또는 친척	54	48	102
친구 또는 선후배	214	132	346
공공기관 취업사이트	236	210	446
민간 취업사이트	301	203	504
직업/취업박람회	112	71	183
학원	26	12	38
현장실습/인턴십	26	13	39
총계	449	351	800

※ 다중응답이며, 백분율과 총계는 응답자를 기반으로 하였음

4) 원하는 일자리 유형

○ 수원시 청년들은 공기업이나 정부행정기관 등의 일자리 유형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됨

■ 희망 일자리

○ 응답자들은 공공기관(34.6%)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어서 대기업(26.6%), 창업(12.1%)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5-50> 일하고 싶은 기업유형

○ 취업자와 미취업자의 희망 일자리 유형을 추가 분석하였음

- 취업자와 미취업자 모두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선호하는 수준에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미취업자들은 취업자들에 비해 중소기업이나 창업에 다소 낮은 빈도값을 보임

<표 5-22> 취업여부별 일하고 싶은 기업유형

기관 유형	취업 여부		계
	취업자	미취업자	
대기업	114	99	213
공공기관	139	138	277
외국계기업	37	27	64
일반 중소기업	35	27	62
전문 중소기업	53	31	84
창업	71	26	97
기타	0	3	3
총계	449	351	800

■ 희망 일자리를 선택한 이유

○ 창업과 기타를 선택한 응답자를 제외한 나머지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그러한 일자리 유형을 선택한 이유를 물은 결과, 고용의 안정성(26.3%), 보수(22.2%) 때문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그림 5-51> 희망 일자리 유형의 선택 이유(창업, 기타 응답자 제외)

■ 창업동기

○ 창업을 하겠다는 응답자 97명을 대상으로 그와 같은 생각을 갖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물은 결과, 경제적인 수익 창출(35.1%), 나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일을 찾기 위해(23.7%)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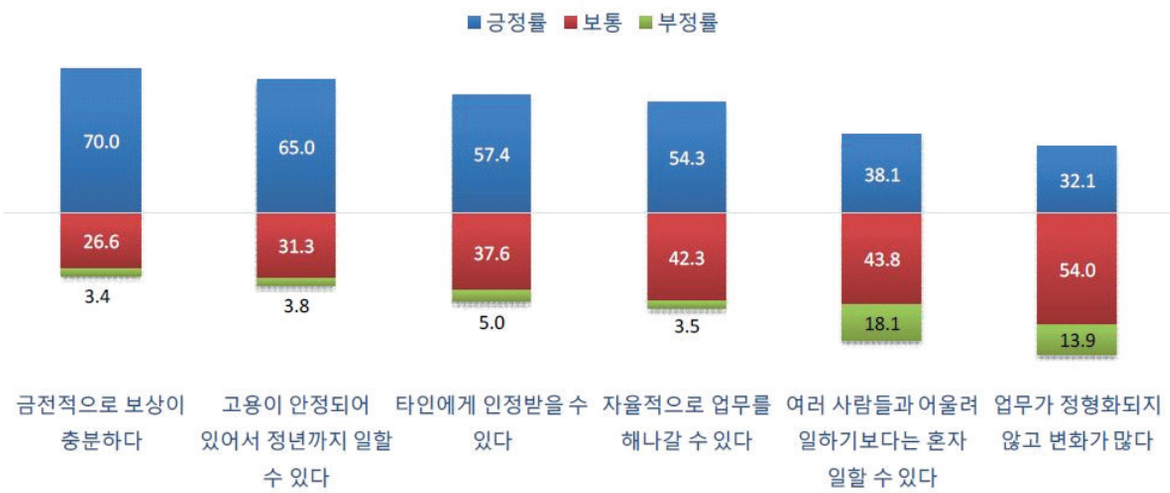
<그림 5-52> 창업하자는 생각을 갖게 된 이유(창업 선택자만)

■ 희망 임금

○ 취업이나 창업을 통해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을 물은 결과, 평균 5,113만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확인됨

■ 희망하는 직업특성

○ 수원시 청년들은 금전적인 보상과 고용의 안정성을 직업 선택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판단하고 있음



<그림 5-53> 직업선택 시 주요 고려사항

4. 아르바이트

1) 아르바이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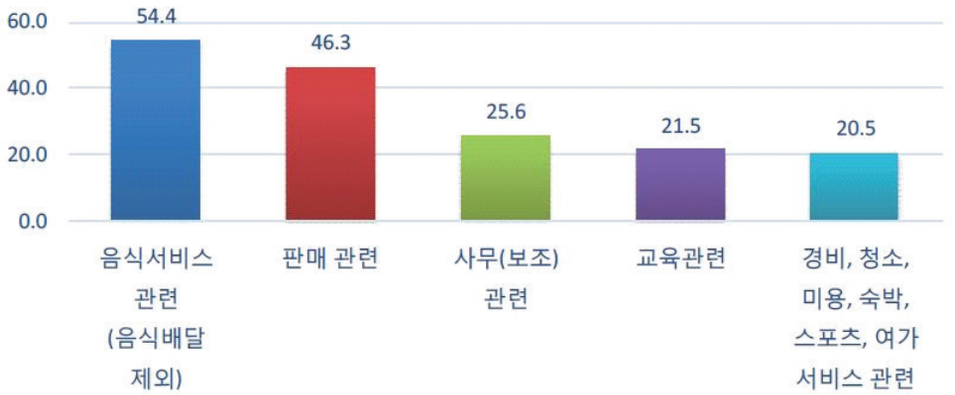
○ 수원시 청년들은 평균 4.1회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으며, 주로 음식과 판매관련 업종에서 일을 한 것으로 확인됨

■ 경험유무 및 횟수

○ 전체 응답자 800명 중 562명(70.3%)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적으로 4.1회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아르바이트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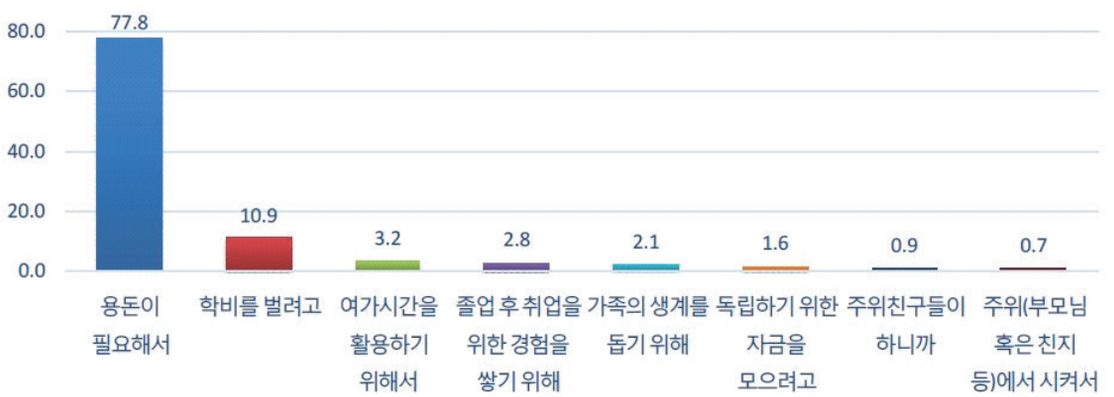
○ 음식서비스 관련(배달 제외) 아르바이트가 54.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판매관련 46.3%, 사무보조 25.6% 등의 순으로 확인됨



<그림 5-54> 경험했던 아르바이트 유형(복수응답)

■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이유

○ 아르바이트를 한 이유로 용돈이 필요해서라는 응답이 77.8%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학비를 벌기 위해 10.9%, 여가시간 활용 3.2%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5-55> 아르바이트를 한 이유

제4절 비움채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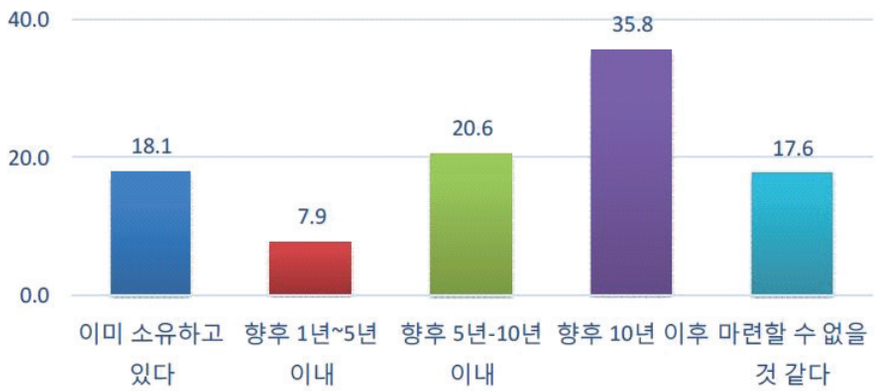
1. 주거

1) 자가 계획

○ 전체 응답자 800명 중 145명은 이미 자가를 소유하고 있는데 자가 소유자의 기혼자임

■ 필요 시간

○ 향후 10년 이후에 본인명의의 집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항목에 가장 높은 응답률(35.8%)을 보임



<그림 5-56> 자가 마련을 위해 필요한 시간

○ 본인이 지각한 주관적 계층 수준과 자가 계획 간 관련성을 추가 분석하였음

- 주관적 계층 수준에 따라 자가를 이미 소유한 경우나 향후 자가를 마련하는데 필요한 시간에 의미 있는 차이는 없으나(실제빈도와 기대빈도가 유사), 앞으로도 자가를 마련하지 못할 것이라는 문항에서는 실제빈도와 기대빈도 간 상당한 차이가 발생함(x^2 =49.757***)

<표 5-23> 주관적 계층의식에 따른 자가 마련을 위해 필요 시간

자가 마련 필요 시간	주관적 계층			계
	저	중	고	
이미 소유	50(62.2)	83(72.9)	12(10.0)	145
향후 1~5년 내	20(27.0)	33(31.7)	10(4.3)	63
향후 5~10년 내	66(70.7)	86(82.9)	13(11.3)	165
향후 10년 이후	113(122.6)	156(143.7)	17(19.7)	286
마련하지 못함	94(60.5)	44(70.9)	3(9.7)	141
총계	343	402	55	800

※ 괄호안의 값은 기대빈도 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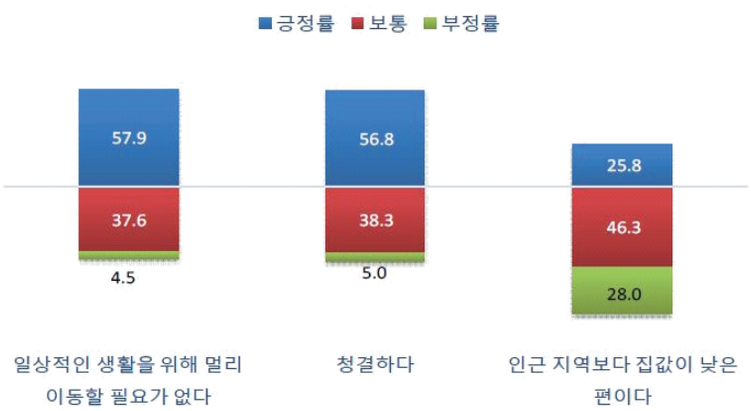
■ 공동주거 인식

○ 향후 공동주거를 할 의향에 대해 물은 결과, 약 9.0%에 해당하는 응답자들은 긍정적으로 답함

2) 거주지 인식

○ 현 거주지역에 대해 이동편리성, 청결성, 집값에 대한 인식을 물었으며, 집값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확인됨

- (인식 수준) 집값에 대한 인식은 다른 항목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정응답률이 높게 나타남



<그림 5-57> 현 거주지역에 대한 인식

○ 수원시의 구별로 거주지에 대한 인식을 추가 분석하였음

- 이동성의 경우, 팔달구가 권선구에 비해 보다 편리한 것으로 나타남
- 청결성의 경우, 영통구가 나머지 세 구에 비해 그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됨
- 집값의 경우 각 구별로 응답자들의 지각 수준에 차이는 없음

<표 5-24> 거주지별 현 거주지역에 대한 인식

문항	거주지역	평균	표준편차	F value	크기
이동성	장안구(a)	3.76	.865	2.841*	c > b
	권선구(b)	3.63	.885		
	팔달구(c)	3.90	.875		
	영통구(d)	3.71	.814		
청결성	장안구(a)	3.51	.819	9.764***	d > a, b, c
	권선구(b)	3.53	.812		
	팔달구(c)	3.60	.887		
	영통구(d)	3.64	.644		
집값	장안구(a)	2.89	.885	.573	NA
	권선구(b)	3.01	.910		
	팔달구(c)	2.95	.911		
	영통구(d)	2.95	.976		

2. 소비 및 부채

1) 소비 및 부채 현황

○ 수원시 청년들의 소비는 주로 식료품비에 집중되어 있으며, 향후 재정상황이 좋아질 경우 문화여가비에 투자할 것으로 응답함

■ 지출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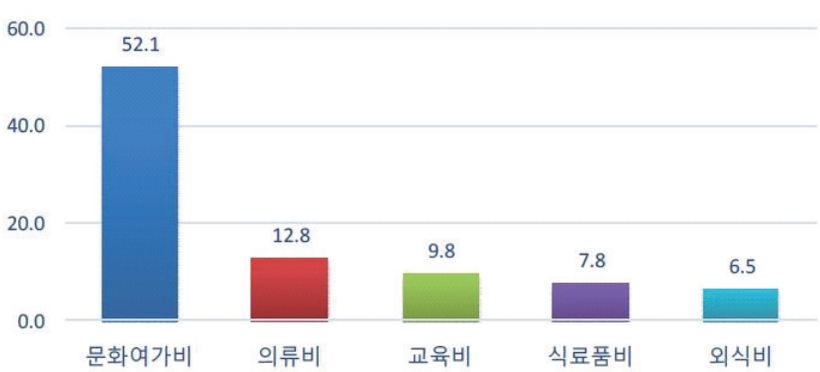
○ 주요 지출항목에 대해 물은 결과, 식료품비(34.3%), 외식비(22.6%), 교통 및 통신비(12.0%) 등의 순으로 확인됨

<그림 5-58> 주요 지출 항목

※ 응답비율 5% 미만은 생략함

■ 희망 지출항목

○ 재정상황이 개선될 경우, 약 52.1%의 응답자가 문화여가비에 지출할 것이라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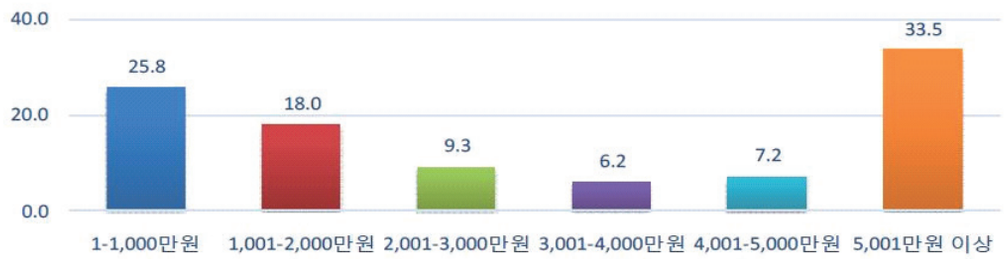


<그림 5-59> 재정상황 개선 시, 지출을 증가할 항목

■ 부채 수준

○ 부채가 있는 응답자(N=194)들은 평균 6,301만원의 부채를 지님

- 5,001만원 이상이라는 응답이 33.5%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1~1,000만원 25.8%, 1,001~2,000만원 18.0%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5-60> 부채 수준 현황

2) 경제적 지원

○ 부모, 형제를 포함하여 가족으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거나, 지원하는지를 물음

○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는다는 응답자는 208명이었으며, 평균 37만원인 것으로 확인됨

○ 경제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응답자는 122명이었으며, 평균 44.2만원으로 나타남

○ 경제적 지원(받음/제공) 유형과 연령대 간 관계를 추가 분석하였음

- 연령대에 따라 지원 받음의 유무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30대의 경우 아니오라고 응답한 실제빈도가 기대빈도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x^2=241.791***)
- 연령대에 따라 지원 제공의 유무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25~29세 이상의 경우 예라고 응답한 실제빈도가 기대빈도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x^2=15.578***)
- 경제적 지원과 연령대가 관련성이 있는 이유는 연령대가 증가함에 따라 응답자들의 취업 상태가 호전되기 때문으로 확인됨(20대의 취업률은 40.0%, 30대는 73.0%)

<표 5-25> 연령별 경제적 지원여부

연령대	지원 받음		지원 제공	
	예	아니오	예	아니오
20~24세	138(56.9)	81(162.1)	16(33.4)	203(185.6)
25~29세	48(48.4)	138(137.6)	33(28.4)	153(157.6)
30~34세	12(48.1)	173(136.9)	31(28.2)	154(156.8)
35~39세	10(54.6)	200(155.4)	42(32.0)	168(17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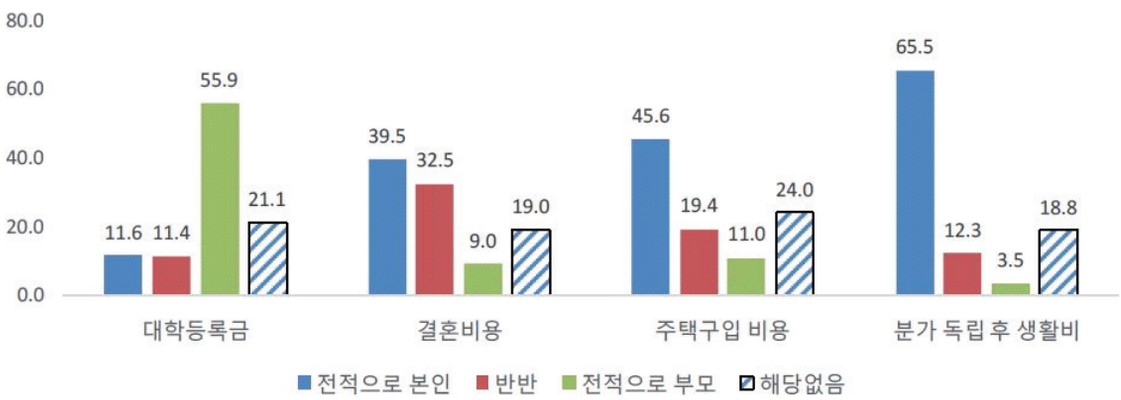
※ 괄호안의 값은 기대빈도 값임

3) 미래 계획

○ 청년들의 미래 계획의 일환으로서 주요한 사건들에 대하여 그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물었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비용마련

○ 대학등록금을 제외한 나머지 결혼비용, 주택구입비용, 독립 후 생활비는 모두 전적으로 본인이 마련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5-61> 주요 항목에 대한 비용마련 계획

3. 건강 및 영양

1) 건강에 대한 자기인식

■ 자기인식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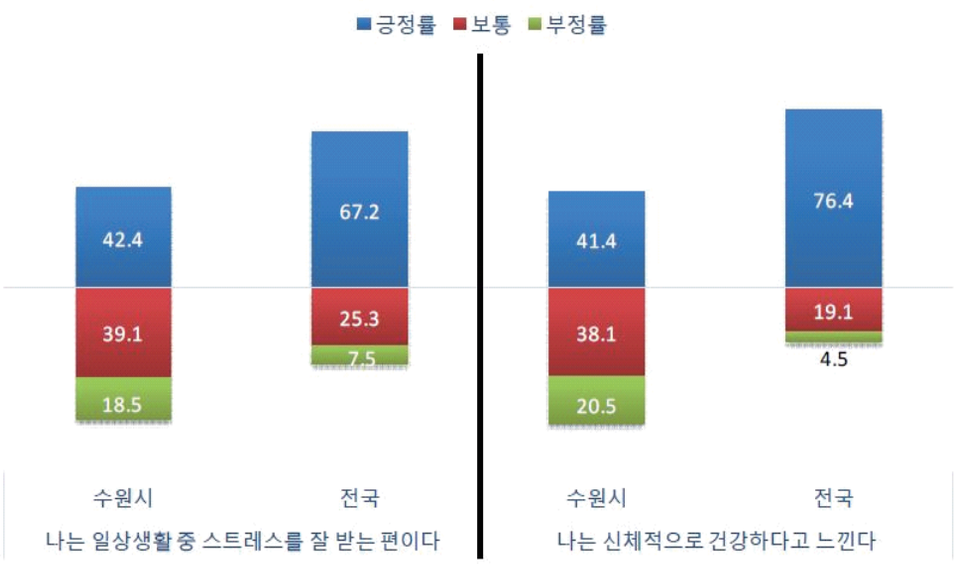
○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를 잘 받는다는 긍정 응답률은 42.4%로 약 절반에 가깝게 나타났으며, 한편 신체적으로 건강하다는 긍정 응답률도 41.4%로 높게 나타남

■ 스트레스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6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에서는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 정도에 대해 67.2%가 느끼는 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7.5%가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하여 수원시 청년들의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 정도가 전국 조사에 비해 낮게 나타남

■ 주관적 건강수준

○ 현재 본인의 건강에 대한 생각은 '2016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에서는 76.4%가 주관적으로 건강한 편으로 인식하였으며, 4.5%만이 건강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는데, 수원시 청년들은 20.5%가 건강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건강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편임



<그림 5-62>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 수준

○ 응답자들의 평균 수면시간은 약 6.7시간으로 확인됨

○ 응답자들의 일주일 당 운동 횟수는 약 1.1회로 나타남

○ 전체 응답자 800명 중 166명(20.8%)은 흡연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평균 흡연량은 하루 평균 13.4개비로 확인됨

○ 음주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9.1%로 나타났으며, 한 달에 한두번 32.9%, 일주일에 한두번 29.6%의 순으로 나타남

○ 주관적 건강 인식과 계층 인식 간에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들이 지각하는 건강에 대한 인식 수준은 주관적 계층 수준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스스로를 높은 계층이라 지각하는 응답자는 본인의 건강 수준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응답하고 있으며, 반면 스트레스는 덜 받는다고 지각함

<표 5-26> 주관적 계층의식에 따른 주관적 건강 인식

문항	주관적 계층	평균	표준편차	F value	크기
건강함	저(a)	3.07	1.118	9.419***	c > a
	중(b)	3.34	.910		
	고(c)	3.55	1.015		
스트레스	저(a)	3.53	1.008	13.637***	a, b > c
	중(b)	3.23	.949		
	고(c)	2.93	1.120		
숙면	저(a)	3.10	1.099	.992	NA
	중(b)	3.18	.918		
	고(c)	3.27	1.008		

○ 수면 시간과 운동 횟수는 응답자들의 주관적 건강 인식과 관련성을 보이고 있음
- 수면 시간과 운동 횟수는 응답자들의 건강함, 숙면 문항과 정적(+) 관련성을 지님
- 한편 스트레스와는 부적(-) 관계로 나타남
- 청년들의 적절한 수면 시간 확보와 운동을 위한 여건을 마련할 경우, 이들의 주관적 건강 인식 수준은 증가할 것으로 확인됨

<표 5-27> 수면시간 및 운동횟수와 주관적 건강 인식의 상관관계

문항	건강함	스트레스	숙면
수면 시간	.143***	-.115***	.298***
운동 횟수	.181***	-.100**	.093**

2) 체질량지수

○ 수원시 청년들의 체질량지수(BMI)[6]를 계산한 결과, 정상체중이 454명(56.8%)로 가장 많았으며, 과체중이 138명(17.3%)로 나타남
- 성별에 따른 집단 간 차이가 매우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여성은 정상체중이 269명(69.9%), 저체중이 48명(12.5%) 순으로 나타난데 비해 남성은 정상체중이 185명(44.6%), 비만 103명(24.8%)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임

6) 체질량지수를 구하는 공식은 BMI(Body Mass Index)=$\frac{\text{몸무게}(kg)}{\text{키}(m)^2}$로, 저체중(18.5미만), 정상체중(18.5~23), 과체중(23~25), 비만(25~30), 고도비만(30이상)으로 구분됨

<표 5-28> 집단별 체질량지수(BMI) 분포

(단위: 명, %)

		저체중	정상체중	과체중	비만	고도비만	x^2
전체		55(6.9)	454(56.8)	138(17.3)	126(15.8)	27(3.4)	-
성별	남성	7(1.7)	185(44.6)	100(24.1)	103(24.8)	20(4.8)	130.071***
	여성	48(12.5)	269(69.9)	38(9.9)	23(6.0)	7(1.8)	
연령대	20~24세	22(10.0)	156(71.2)	20(9.1)	15(6.8)	6(2.7)	52.582***
	25~29세	15(8.1)	102(54.8)	34(18.3)	28(15.1)	7(3.8)	
	30~34세	9(4.9)	92(49.7)	35(18.9)	44(23.8)	5(2.7)	
	35~39세	9(4.3)	104(49.5)	49(23.3)	39(18.6)	9(4.3)	
주관적 계층	저	18(5.2)	178(51.9)	61(17.8)	69(20.1)	17(5.0)	17.127*
	중	33(8.2)	244(60.7)	66(16.4)	50(12.4)	9(2.2)	
	고	4(7.3)	32(58.2)	11(20.0)	7(12.7)	1(1.8)	

3) 주관적 체형

○ 수원시 청년들의 주관적인 체형 인식은 전체 평균 3.20(.742)점으로 나타나 대체로 보통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음

- 성별에 따라 체질량지수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주관적 체형 인식은 집단간 차이를 보이지 않음
- 연령에 따라서는 30대가 20대에 비해 다소 본인의 체형을 비만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관적 계층에 따라서는 스스로를 낮은 계층이라고 인식한 경우에 상대적으로 본인의 체형을 비만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남

<표 5-29> 집단별 주관적 체형 인식

		평균	표준편차	t/F value	크기
전체		3.20	.742	-	-
성별	남성	3.21	.792	.138	NA
	여성	3.20	.721		
연령대	20~24세(a)	3.04	.741	6.113***	c, d > a
	25~29세(b)	3.19	.724		
	30~34세(c)	3.30	.775		
	35~39세(d)	3.30	.700		
주관적 계층	저(a)	3.37	.830	15.235***	a > b, c
	중(b)	3.09	.632		
	고(c)	3.04	.719		

제6장 결론

제1절 정책적 함의

1. 조사결과의 시사점

1) 청년다움

■ 청년정책 인지와 사회참여 의지 간의 차이

○ 수원시에서 추진하는 청년정책에 대해 알고 있다고 한 응답자는 5.5%인데 반해 청년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싶다고 응답한 사람은 26.3%로 나타나고 있음

- 현재 청년정책에 참여자가 한정된 것은 제한적인 정책홍보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청년정책 추진 과정에서 청년에 대한 홍보채널 강화를 통해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하여야 함

- 단, 청년들의 정책 참여에 있어 시공간적 한계를 고려하여 참여방식 등을 결정할 필요가 있음

■ 관심이 높은 중앙정부 정책과 참여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정책 간의 괴리

○ 청년들은 국가적으로 주요한 정치현안에 대한 관심도(긍정률 26.4%)가 높은 반면 수원시정 운영에는 비교적 관심도(긍정률 16.6%)가 떨어짐

- 정부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청년들이 28.3%로 많은 편이지만, 수원시에 불만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항의하겠다는 의견(29.6%)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국가적 아젠다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참여를 통해 정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현실인식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공공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청년들이 수원시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정책적 활동반경을 제공할 경우 긍정적 참여와 사회적 관심을 증폭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임

2) 즐거움

■ 연애 및 결혼 의지와 경제적 문제

○ 미혼인 청년의 55.5%가 결혼할 생각이 있으나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가 경제적 여유의 부족(57.5%)임

- 연애에 있어서도 미취업이나 직장 불안정 등의 이유로 연애를 망설인 경험이 35.4%에 이르고 있음

○ 연애나 결혼과 같은 문제 또한 경제적 문제와 연동되어 있으므로 청년 일자리 문제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 해결의 시발점이라는 것을 재확인하였음

■ 여가 및 문화활동

○ 여가활동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59.6%가 긍정하고 있으나 여가활동을 충분히 하고 있거나 만족한다는 비율은 각각 30.8%, 32.0%에 불과함

- 여가활동의 종류 또한 평일은 인터넷 검색/채팅, 휴일은 휴식의 빈도가 가장 높아 주로 '가벼운(casual) 여가'를 중심을 여가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 '진지한(serious) 여가'와의 조화를 통한 최적의 여가생활 스타일 개발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7)]
- 독서량은 1년간 약 4.7권으로 전국 평균 9.1권에 비해 매우 낮은 편임

○ 문화예술 관람의 경우 전국 평균(2016 문화향수실태조사)에 비해 높게 나오고 있어 문화예술 관람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편이라고 할 수 있음

- 여가활동 종류에 있어서도 전국 평균(2016년 국민여가활동조사)에 비해 문화예술 관람이 차지하는 비율은 높은 편임
- 관람을 결정하는 기준은 문화예술 공연의 내용 및 수준이 가장 높은데 영화를 제외한 다른 문화예술의 관람지역은 서울이 가장 많아 수원에서는 만족할 만한 문화예술 공연 등이 잘 제공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청년들의 여가의 질을 높이고 문화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다양하고도 수준높은 문화예술 관람・체험・참여 프로그램들의 접근성을 높여 청년들이 쉽게 접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7) 스테빈스(Stebbins, 1982)는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여가생활스타일을 개발하는데 있어 "진지한 여가"(serious leisure)와 "가벼운 여가"(casual leisure) 활동 간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하였는데, 진지한 여가는 사람들이 상당한 수준의 노력, 흥미, 그리고 충족감을 느끼게 하는 아마추어 활동, 취미 또는 자원봉사활동과 같은 체계적인 추구활동을 의미하며, 가벼운 여가는 즉각적이며 내재적 보상이 있고 상대적으로 단기간 동안 즐거움을 주는 활동으로 특별한 훈련이 필요하지 않은 여가활동을 의미함

3) 발돋움

■ 대학생의 전공과 사회적 일자리의 미스매치

○ 대학생들의 졸업유예 경험은 12.7%가 존재하며, 그 이유로서 취업 및 진로 목표의 미설정(36.3%) 등을 이유로 꼽고 있음

- 고등교육 수요공급의 미스매치 통계(한국고용정보원, 2015)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전기·전자, 기계·금속, 건축, 토목·도시, 농림·수산 등은 수요대비 인력이 부족하지만, 경영·경제, 중등교육, 사회과학, 생물·화학·환경, 생활과학 등은 수요대비 인력이 초과공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고등교육과 사회의 일자리수요 간의 미스매치 현상이 대학생의 졸업유예 현상으로 귀결되고 있음을 의미하지만, 대학생들은 이러한 사회적 불합치에 대한 자발적 대응으로서 해외여행(19.9%) 등을 통해 간접적인 취업 및 진로 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 청년 취업자 중에서도 34.5%가 이직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으나, 이직에 대한 욕구는 현실에서의 어려움에 대한 반대급부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실질적인 이직을 위한 타 직업영역에 대한 정확한 정보 구득에는 한계가 존재함

○ 따라서 공공영역에서 해외여행 등과 같은 간접적으로 견문을 넓히는 방식 보다는 실질적인 직업 및 진로의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좀 더 효과적으로 취업 및 진로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해보임

■ 창업에 대한 환상과 현실 간의 격차

○ 청년들에게 창업은 경제적 수익을 위한 방안으로 인식(35.1%)되고, 개개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업무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23.7%)하고 있음

- 사회적으로 청년창업에 대한 많은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수원시의 청년창업자는 18.6%만이 창업훈련 경험이 있으며, 창업자금의 마련을 가장 어려운 점(45.8%)으로 꼽고 있음
- 이는 실제로 창업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대와 달리 창업의 현실이 녹녹치 않음을 보여주고 있음

○ 창업선택에 따른 체험기회 제공을 통해 창업에 대한 무분별한 기대심리보다는 현실적인 창업에 대한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음

4) 비움채움

■ 대학등록금은 사회적 책임, 생활비 등은 개인의 책임

○ 청년들의 부채상환과 비용충당 측면을 보면 대학등록금은 부모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55.9%로 높은 반면, 결혼비용, 주택구입 비용, 독립 후의 생활비 등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은 편임

- 대학진학률이 매우 높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법적인 의무교육과는 별개로 대학교육에 대해 의무적인 성격이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임
- 이로 인해 대학등록금은 개인의 선택에 따른 비용지출이 아니라는 인식 속에 대학등록금은 부모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대학등록금에 대한 부채상환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됨

- 대학등록금은 부모의 책임보다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른 현상으로 공공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지원이 요구됨

■ 심신 건강

○ 청년들의 건강 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편으로 보이나 위험적인 요소가 자리하고 있음

- 일상에서의 스트레스 정도가 전국 청년(67.2%)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절대적인 수치는 42.4%로 낮지 않음
- 한편 우울감을 느끼는 비율은 15.1%로 전국 조사(2015 국민건강영양조사)의 19~39세의 12.6%에 비해 약간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음
- 건강에 대한 인식은 20.5%가 부정적으로 느끼고 있어 전국 평균 4.5%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음
- 특히 스스로를 낮은 계층으로 인식하는 청년일수록 스트레스 정도나 건강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경향을 보여줌

○ 예방적 차원에서 청년들의 심신건강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정책방향 요약

■ 청년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청년들의 경제적 불안정성에 대한 정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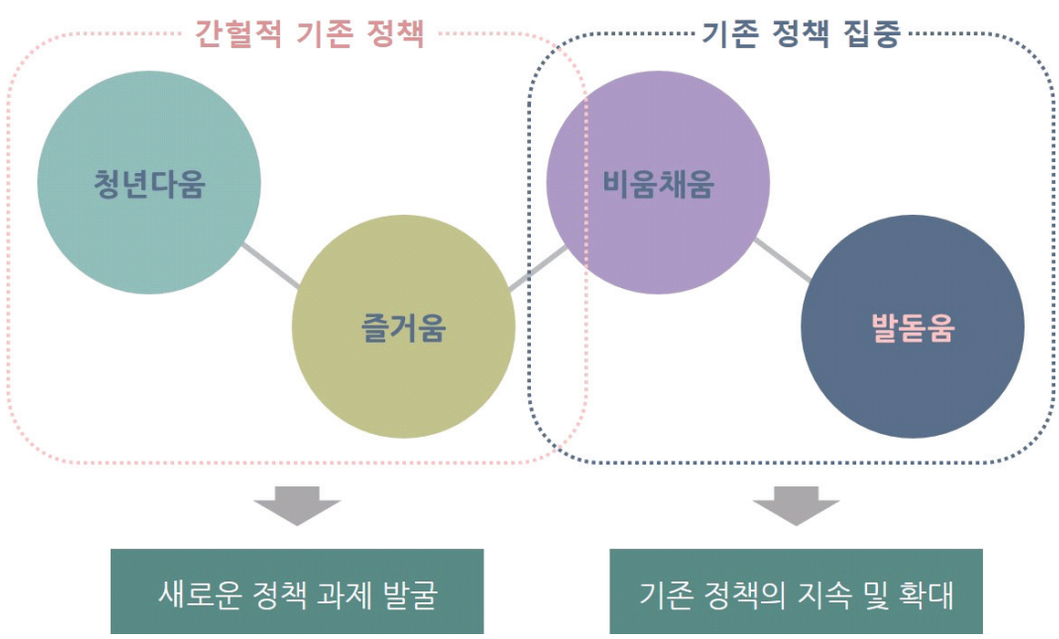
○ 경제와 관련되어 있는 발돋움 및 비움채움 영역의 정책들을 확대해 나가야 함

- 기존의 청년정책 또한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비롯 부채, 주거 등 청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에 집중되어 있음
- 발돋움 및 비움채움 영역의 기존 정책들은 지속해 나가는 한편 수혜대상이나 조건 등에서 문턱을 낮춰 확대해 나가야 함

■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삶의 전 영역에서의 청년정책 필요

○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던 청년다움 및 즐거움 영역에서 청년정책을 개발해야 함

- 비록 일자리나 부채 등과 같은 경제문제가 최우선 과제이기는 하나 다양한 영역에서 청년들의 욕구가 존재하고 있음
- 또한 아직까지는 문제점으로 부각되지 않았을지라도 위험한 징후가 보이고 관심을 가져야 할 영역들이 나타나고 있음
- 지금까지는 청년정책이 경제문제에 집중되어 있음으로 해서 정책이 삶의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는데 미흡한 측면이 있었음



<그림 6-1> 정책 운영방향

제2절 향후 과제

1. 향후 과제

■ 청년다움 : 청년들의 사회·정책 참여 활성화

○ 청년활동가 양성 및 활동지원 강화

- 청년활동가 육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청년아카데미 등 일반 청년들과의 간극 해소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 수원시 청년정책네트워크 강화
- 전국 단위 청년활동가 네트워크 조직 참여 지원
- 전국 청년활동가 컨퍼런스 개최 등을 통한 사례 학습 및 이니셔티브 확보

○ 청년과의 소통 강화

- 정책홍보 및 청년들의 참여를 위한 홈페이지, SNS 등 청년 의견수렴 공간 활성화
- SNS 소통 전담 인력 배치
- 정책오디션 등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 확대
- 주기적인 청년실태조사 실시를 통한 청년현황 파악

■ 즐거움 : 지역의 '청년문화' 형성을 위한 토대 구축

○ 지역 기반의 청년문화활동 토대 조성

- 지역기반으로 활동하는 청년문화인력 조사 및 발굴
- 청년예술가 및 문화기획자 지원 확대
- 청년예술가 네트워크 및 기성 지역예술인과의 협력 체제 구축
- 청년문화 페스티벌, 거리공연 등 청년예술가들의 발표 공간 확대

○ 청년들의 여가 및 문화활동 활성화

- 온라인 동아리, 직장인 동아리 등 청년들 특성에 맞는 생활문화활동을 위한 지원 확대
- 시립예술단 등의 기획 프로그램으로 청년들이 선호할 수 있는 공연·전시 등 제공

■ 발돋움 : 직업을 통해 재능과 열정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기존 사업의 개선을 통한 지속 및 확대

- 기존 사업의 대상을 저소득층 중심에서 중산층까지 확대
- 맞춤형 교육, 현장 체험, 현장학습, 청년인턴 등 취업 관련 교육프로그램 지원

- 경력단절 여성, 장애인 등을 위한 취업프로그램 계속 지원
- 청년 해외취업 프로그램 지속 운영
- 전통시장 청년 상인점포 개설, 영동시장 청년몰, 청년창업 푸드트럭 등 지원확대

○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한 관련 플랫폼 개선 및 강화
- 수원JOBS 지속 운영
- 청년인력 뱅크제 등의 DB 활성화 및 매치 프로그램 확대

○ 구직활동 보조
- 취업준비청년의 교통비 및 정장 지원
- 길거리캐스팅제와 같은 다양한 방식의 구인구직 프로그램 운영

■ 비움채움 : 건강한 삶 및 자립적 생활을 위한 기반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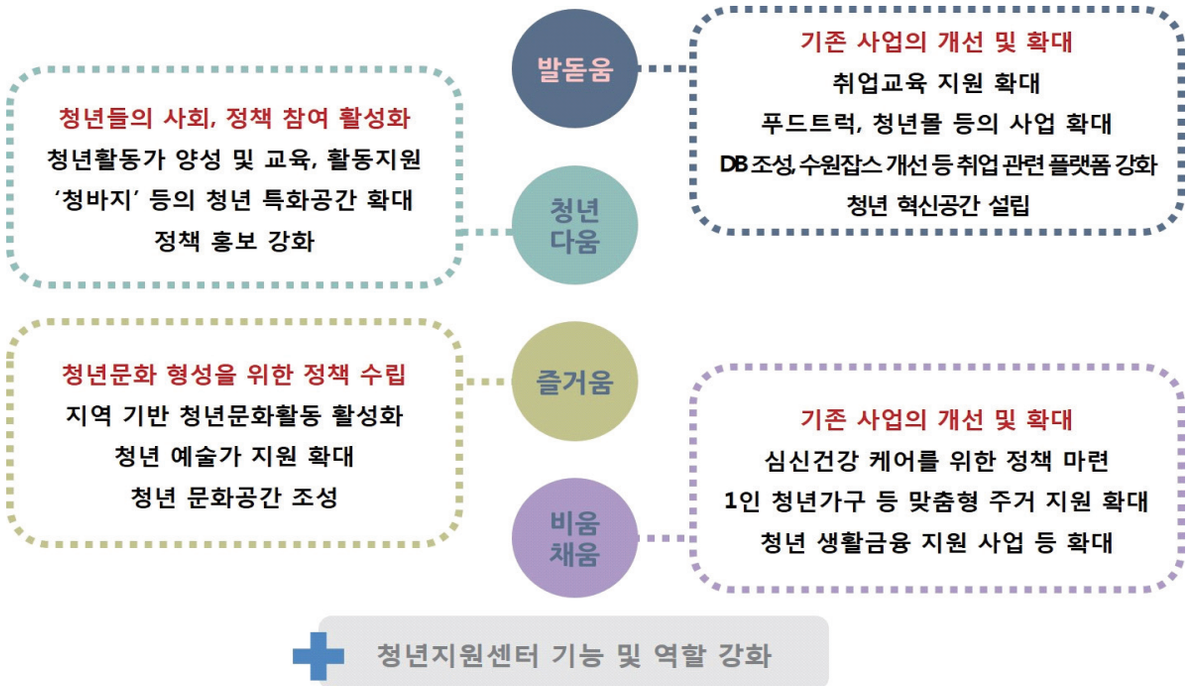
○ 기존사업의 개선을 통한 지속 및 확대
- 청년 생활금융 지원체계 구축 사업 확대
-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속
- 「수원의 宿」 장학관 사업 지속
- 청년부채 감소, 장학금 지원, 청년통장, 청년임차인 보호 등과 같은 청년의 금융역량 및 경제적 자립기반 강화 사업 지속

○ 심신건강 케어를 위한 프로그램 도입
- 청년들의 다양한 고민해소를 위한 수원CURE 활동 지속
- 스트레스 관리 등 마음건강 자가진단 및 공공서비스 이용 안내를 위한 매뉴얼 제작·배포

■ 청년정책의 실행 및 운영을 위한 인프라 조성

○ 다양한 성격의 청년 특화공간 조성 확대
- 청년 네트워크의 허브로서의 ‘청년바람지대’ 홍보 강화 및 이용 활성화
- IT 플랫폼, 교육플랫폼, 창업 및 코워킹 중심의 혁신공간 설립
- 공방, 작업실, 연습실 등 문화활동을 위한 공유공간 조성

○ 청년지원센터 기능 및 역할 강화
- 청년정책의 핵심 실행기관으로서의 위상 강화
- 다양하게 조성되는 청년공간의 조정 및 운영자로서의 기능 부여


발돋움
기존 사업의 개선 및 확대
취업교육 지원 확대
푸드트럭, 청년몰 등의 사업 확대
DB조성, 수원잡스 개선 등 취업 관련 플랫폼 강화
청년 혁신공간 설립
청년들의 사회, 정책 참여 활성화
청년활동가 양성 및 교육, 활동지원
'청바지' 등의 청년 특화공간 확대
정책 홍보 강화
청년 다움
즐거움
청년문화 형성을 위한 정책 수립
지역 기반 청년문화활동 활성화
청년 예술가 지원 확대
청년 문화공간 조성
비움 채움
기존 사업의 개선 및 확대
심신건강 케어를 위한 정책 마련
1인 청년가구 등 맞춤형 주거 지원 확대
청년 생활금융 지원 사업 등 확대
청년지원센터 기능 및 역할 강화

<그림 6-2> 향후 정책과제

| 참고 문헌 |

<국문 자료>

김강호 (2015), 경기도 청년노동환경 실태 조사 보고서, 경기청년유니온

김기헌 외(3명)(2016), 2016년 청년 사회· 경제 실태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기헌 외(2017), <청년 사회 · 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도환 외(2015), 2015 한국미디어패널 조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김영민(2017), 구직자 실태조사 결과와 청년취업지원정책의 방향, 청년유니온

오은실 외(2016), <EU 주요 국가의 청년고용 현황 및 시사점>, 한국은행

이선이 외(2명)(2013), 성인기 이행과정에 대한 연구, 아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정수남 외(3명)(2012), '청춘' 밖의 청춘, 그들의 성인기 이행과 자아정체성: 빈곤 청년을 대상으로, 문화와 사회 12, pp.35-103.

최계연 (2014), <빚쟁이 청년들 : 청년부채 실태조사 및 대안 제시>, 월간 복지동향

최유진 외(8명)(2016), 2016 양성평등 실태조사 분석 연구, 여성가족부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조사분석센터 (2015), 2015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6), 2016 국민여가활동조사,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6), 2016 문화향수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출판연구소(2015), 2015 국민독서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대학알리미 (www.academyinfo.go.kr/)

위클리오늘 (http://www.weekly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48369)

질병관리본부국민건강영양조사 (https://knhanes.cdc.go.kr/knhanes/index.do)

통계로 보는 수원 (stat.suwon.go.kr/)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61748.html)

한국고용정보원 (http://survey.keis.or.kr/)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http://www.nypi.re.kr/)

<영문 자료>

Arnett, J.J.(2000). Emerging Adulthood:A Theory of development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American Psychologist, Vol.55, No.5.

_____(2004). Emerging adulthood: The winding road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_____(2006). Emerging adulthood in Europe : A response to bynner, Journal of Youth Studies, Vol.9, No.1.

Hamalainen, R.P. and T.O. Seppalainen, (1986) The Analytic Network Process in Energy Policy Planning Science, Socio-Economic Planning Sciences, Vol.20, No.6, pp.399-405

Stebbins, R. A.(1982). Serious Leisure: A conceptual statement. Pacific Sociological Review. 25(2), 251-272.

ID				

2017년 수원시 청년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국리서치는 수원시와 수원시정연구원의 의뢰로 수원에 거주하는 청년실태 및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의 결과는 수원시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한 내용은 통계법 제 33조 및 제 34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철저히 보호되고, 오직 통계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시어 설문에 응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조사 주관	수원시정연구원
조사 수행	한국리서치 최서우 연구원 (02-3014-1019, swchoi@hrc.co.kr)
연구 책임	수원시정연구원 최지연 연구위원(031-220-8055, choi.jiyoun@suwon.re.kr)

Screening Questions

SQ1.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SQ2.	만 나이	만( )세 → **만19세부터 ~ 만39세만 조사 진행**			
SQ3.	거주지역	① 수원	→ **SQ3-1로 이동**	② 수원 이외 지역	→ **조사종료**
SQ3-1.	주민등록상 주소	③ 수원	→ **SQ4로 이동**	④ 수원 이외 지역	→ **조사종료**
SQ4	거주지역(행정구)	① 장안구	② 팔달구	③ 권선구	④ 영통구

1. 청년 정책

문1. 귀하는 **청년실업의 근본적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기업의 일자리창출 부족
② 너무 많은 대학졸업자
③ 청년들 개개인의 능력부족 또는 눈높이 문제
④ 정부의 고용촉진 및 구인·구직불일치 해소노력 부족
⑤ 기타(적어주세요 :)

문2. 귀하는 다음의 정책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참여해 본 경험이 있다면, **직업 선택 및 취업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습니까? → **문2-1에서 경험이 있는 응답자만 문2-2 응답할 것**

구분	문2-1. 경험유무		문2-2. 도움정도				
	있다	없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	보통 이다	→	많은 도움이 되었다
1) 연수체험(직장체험, 인턴) 사업	①	②	①	②	③	④	⑤
2) 단기 일자리 제공 사업	①	②	①	②	③	④	⑤
3) 해외취업, 인턴사업	①	②	①	②	③	④	⑤
4) 직업훈련사업	①	②	①	②	③	④	⑤
5) 장려금 지원 사업	①	②	①	②	③	④	⑤
6) 직업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①	②	①	②	③	④	⑤
7) 기타(적어주세요:)	①	②	①	②	③	④	⑤

문3. 귀하는 청년 고용위기 해법으로 노동공급 측면의 정책(개인, 교육)과 노동수요 측면의 정책(일자리, 경제)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노동 공급(개인, 교육)
② 노동 수요(일자리, 경제)

문4. 귀하는 청년 고용위기 해결을 위해 **노동 공급(개인, 교육) 측면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진로교육 내실화와 진로지도 활성화
② 독일이나 스위스식의 일과 학습 병행제도 활성화
③ 고학력화로 인한 대졸자 과다 배출 억제
④ 청년들의 고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학교의 취업지원 강화
⑤ 대기업과 공공부문에 대한 높은 선호도(청년 눈높이) 제고
⑥ 청년들의 능력 향상과 핵심역량 수준 제고
⑦ 미취업 청소년 및 청년 대상 수당, 배당, 급여 지급
⑧ 기타(적어주세요 :)

문5. 귀하는 청년 고용위기 해결을 위해 **노동수요(일자리, 경제) 측면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대기업 청년 일자리 확대
② 공공부문 채용 확대
③ 청년 창업/창직 지원을 통한 일자리 확대
④ 경제민주화와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괜찮은 중소기업 일자리 확대
⑤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확대
⑥ 임금피크제를 통한 청년 일자리 확대
⑦ 해외취업 지원을 통한 청년 일자리 확대
⑧ 기타(적어주세요 :)

문6. 귀하는 다음의 **출산 대책 중 어떤 부분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출산장려금 확대
② 출산 휴가 장려 및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③ 임신 및 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④ 자녀의 교육비 부담 완화
⑤ 가구의 소득 증대
⑥ 가구의 주거 부담 완화
⑦ 여성의 경력단절 부담 완화
⑧ 기타(적어주세요 :)

문7. 귀하는 다음의 **육아 대책 중 어떤 부분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무상보육교육비 확대
② 육아 휴직 장려 및 급여 확대
③ 방과후 서비스 확대
④ 아동수당 신설
⑤ 자녀의 교육비 부담 완화
⑥ 가구의 소득 증대
⑦ 가구의 주거 부담 완화
⑧ 여성의 경력단절 부담 완화
⑨ 기타(적어주세요 :)

문8. 귀하는 취업을 하지 않은 청년들에게 **일정 금액의 수당이나 배당,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반대한다	←	보통이다	→	매우 찬성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9. 다음은 수원시의 **청년 정책에 관한 문항**입니다. 각 항목에 대하여 응답하여 주십시오.

※ 수원시 청년 정책 예시 : 청!심!환!(청년 심신안정 환경) 프로그램 운영, 「수원의 宿」 장학관 사업, 대학생 및 청년층 인턴 사업 등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 이다	→	매우 그렇다
1) 수원시에서 추진하는 청년정책에 대해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수원시에서 추진하는 청년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3) 수원시 청년정책은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들이다	①	②	③	④	⑤

문10. 귀하는 수원시에서 추진하는 **청년정책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 문10-1로 이동**
② 없다 **→ 문11로 이동**

문10-1. 참여해 본 경험이 있으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었는지 생각나는 대로 적어주십시오.

문11. 귀하는 청년들을 위해 **수원시에서 운영하는 공간(청년바람지대, 청바지)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 문11-1로 이동**
② 없다 **→ 문12로 이동**

문11-1. 귀하는 **공간(청년바람지대, 청바지)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② 없다

문12. 귀하는 현재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의견을 자유롭게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십시오.

2. 사회 참여

문13. 귀하는 귀하의 또래가 **사회문제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관심이 없다	←	보통이다	→	매우 관심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문13-1. **(13번 문항에서 ①, ② 응답자만)** 사회문제에 **관심이 없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학벌과 스펙 쌓기 위주의 교육
② 취미, 연애 등 개인생활
③ 인터넷, 방송, 신문 등 언론의 유도
④ 청년의 정치참여에 호의적이지 않은 분위기
⑤ 관심은 있어도 바꿀 수 없다는 무력감
⑥ 취업난으로 인한 여유 부족
⑦ 기타(적어주세요 :)

문14. 귀하는 다음의 각 **사회 문제에 대하여 평소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습니까?

구분	전혀 관심이 없다	←	보통이다	→	매우 관심이 있다
1) 직장 및 사회에서 성차별적인 분위기	①	②	③	④	⑤
2) 계층 간 불평등	①	②	③	④	⑤
3) 미세먼지, 생태계파괴 등 환경문제	①	②	③	④	⑤
4) 일자리, 연금 등을 둘러싼 세대 갈등	①	②	③	④	⑤

문15. 귀하는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 이다	→	매우 그렇다
1) 가족의 생계는 주로 남성이 책임져야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여성은 자신의 직장 생활보다는 어린 자녀를 돌보는 것을 더 우선시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남녀(이성) 관계에서 데이트는 남성이 주도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16. 귀하는 현재 우리 사회의 **남성과 여성 간 평등 수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분	여성이 불평등한 처우를 받음				남성이 불평등한 처우를 받음
	매우 불평등	←	남녀 평등	→	매우 불평등
1) 전반적인 성 평등 수준	①	②	③	④	⑤
2) 대중매체 상에서의 차별, 편견, 비하	①	②	③	④	⑤
3) 업무의 양과 질 및 승진	①	②	③	④	⑤
4) 공공 서비스 수혜 수준	①	②	③	④	⑤

문17. 귀하는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보통 이다	→	매우 동의한다
1) 나는 정부가 하는 일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정치 현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수원시정 운영에 대해 관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수원시에 불만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항의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문18. 귀하는 다음 **활동을 경험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향후 **참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문18-1에 상관없이 문18-2 응답할 것

구분	문18-1. 경험유무		문18-2. 참여의도				
	있다	없다	절대 참여 하지 않는다	←	보통 이다	→	확실히 참여한다
1) 정치·사회 문제에 대해 주변 사람과 이야기하기	①	②	①	②	③	④	⑤
2) 블로그/SNS/온라인 게시판 등에 의견 올리기	①	②	①	②	③	④	⑤
3) 서명운동 참여하기(온라인 서명 포함)	①	②	①	②	③	④	⑤
4) 시위, 집회 등에 참여하기	①	②	①	②	③	④	⑤

문19. 귀하는 평소에 **지지하는 정당**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문20. 귀하는 다음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매우 그렇다
기성세대 (4·50대)	1) 노력에 비해 더 큰 혜택을 누린다	①	②	③	④	⑤
	2) 다른 세대에 대한 배려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노인 (70세 이상)	3) 다른 세대보다 정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4) 정치적 영향력이 너무 크다	①	②	③	④	⑤

3. 지역 정체성

문21. 귀하께서 **수원시에 거주하게 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배우자/본인의 직장이 수원시에 있어서
② 배우자/본인의 직장까지 교통이 편리해서
③ 가족/친인척과 가까이 살기 위해서(자녀양육 등의 이유로)
④ 태어나면서 살아와서
⑤ 교육 때문에 (자녀의 교육, 본인의 교육)
⑥ 부모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⑦ 편의시설(병원, 은행, 할인마트 등)
⑧ 투자가치가 있어서
⑨ 경제적 여건상 가장 적합한 곳이라서
⑩ 기타(적어주세요 :)

문22. 귀하는 다음의 항목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 이다	→	매우 그렇다
1) 외적환경 변화(이직 등)가 없는 한 10년 후에도 수원시에 계속 거주하겠다	①	②	③	④	⑤
2) 지인들에게 수원시에 사는 것을 추천할 의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다시 수원으로 이사 올 의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수원시에 강한 소속감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수원시가 고향같이 편안하게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수원시민이라는 데 자부심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수원이 갖고 있는 지역 이미지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8) 수원시의 생활수준은 타도시(서울 제외)에 비해 높은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4. 자아 정체성

문23. 귀하의 전반적인 생활을 고려할 때 **현재 삶에서 각 항목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구분	매우 불만족 한다	←	보통 이다	→	매우 만족한다
1) 자신의 건강상태	①	②	③	④	⑤
2) 자신의 재정상태	①	②	③	④	⑤
3) 가정생활	①	②	③	④	⑤
4) 사회생활	①	②	③	④	⑤

문24. 귀하는 우리사회에서 **어느 계층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최하층	←	중류층	→	최상층	해당없음
1) 본인	①	②	③	④	⑤	
2) 본인의 부모님	①	②	③	④	⑤	⑨
3) 배우자의 부모님	①	②	③	④	⑤	⑨

문25.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성공하는 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타고난 자질 · 끼
② 학벌 · 학력
③ 집안 배경
④ 재력
⑤ 노력 · 성실성
⑥ 인맥 (학연 · 지연 · 혈연 등)
⑦ 외모
⑧ 운
⑨ 기타(적어주세요 :)

문26. 귀하는 평소에 본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 이다	→	매우 그렇다
1) 나는 장점이 많은 사람이라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성공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나 자신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의 삶에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내가 성인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문27. 귀하는 성인이 되기 위해 **다음의 자격들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전혀 필요없다	←	보통 이다	→	매우 필요하다
1) 자신의 생활비나 용돈을 스스로 벌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결혼하여 가정을 꾸려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자녀를 낳아 부모가 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자기문제를 스스로 결정 및 판단해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관계

문28. 귀하는 친구들 중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기댈 수 있고 당신의 곤란한 상황을 외면하지 않을 친구**가 있습니까?

① 없다
② 있다 ( ) 명

문29. 귀하는 한 달 평균 **친구 및 지인과 얼마나 자주 만나**십니까?

약 ( ) 회

문30. 귀하는 **친구 및 지인과의 관계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 불만족 한다	←	보통이다	→	매우 만족 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31. 귀하는 지금까지 **총 몇 번의 연애 경험**이 있습니까?

약 ( ) 회

문32. 귀하는 **연애 대상과 혼전 동거 경험**이 있습니까?

① 없다
② 있다

문33. 귀하는 미취업이나 **직업(직장) 불안정 때문에 연애를 망설**인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문34. 귀하는 **결혼을 할 생각**이 있습니까?

① 결혼 할 생각이 있음 → **문34-1로 이동**
② 과거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음 → **문34-2로 이동**
③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음 → **문34-2로 이동**
④ 생각해 본 적 없음 → **문35로 이동**
⑤ 아직 결정하지 못했음(모르겠음) → **문35로 이동**
⑥ 결혼하였음(기혼자) → **문35로 이동**

문34-1. 결혼하실 의향이 있다면, **대략 만 몇 세에 하실 예정**입니까?

만 ( ) 세 → **문35로 이동**

문34-2. 귀하가 **현재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이유**가 무엇인지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 **문35로 이동**

1순위	( )	2순위	( )

① 경제적 여유의 부족(실업, 고용불안 등 포함)
② 결혼생활로 인해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③ 결혼에 적당한 나이를 놓쳤기 때문에
④ 상대방에게 구속되기 싫어서
⑤ 기대치에 맞는 사람을 만나지 못할 것 같아서
⑥ 가부장적인 결혼제도가 싫어서
⑦ 외모가 자신이 없어서
⑧ 건강·장애 때문에
⑨ 기타(적어주세요 :)

문35. 귀하는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 이다	→	매우 그렇다
1) 나의 직업 및 학과 선택에 부모님의 영향이 컸다	①	②	③	④	⑤
2) 현재 나의 삶은 부모님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았다.	①	②	③	④	⑤

문36. 귀하는 **부모님 댁을 얼마나 자주 방문**하십니까?

본인의 부모님	( )	배우자의 부모님	( )

① 1달에 1번 이상 → **문37로 이동**
② 2~3달에 1번 정도 → **문37로 이동**
③ 6개월에 1번 정도 → **문37로 이동**
④ 1년에 1번 정도 → **문37로 이동**
⑤ 거의 방문하지 않음 → **문37로 이동**
⑥ 부모님과 동거 → **문36-1로 이동**
⑦ 부모님 안계심 → **문37로 이동**
⑧ 해당 없음 → **문37로 이동**

문 36-1. **(36번 문항에서 ⑥ 부모님과 동거 응답자만)** 현재 분가하지 않고 **함께 살고 계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내가 아직 미혼이라서
②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해서
③ 가사나 자녀양육에 부모의 도움이 필요해서
④ 따로 살 집을 마련할 수 없어서
⑤ 부모님이 사실 곳이 마땅치 않아서
⑥ 부모님을 돌봐 드려야 해서
⑦ 부모님이 함께 사는 것을 원하셔서
⑧ 부모님과 함께 사는 집이 더 편리해서
⑨ 기타(적어주세요 :)

문37. 귀하는 각각의 관계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구분	매우 불만족 한다	←	보통 이다	→	매우 만족한다	해당 없음
1) 본인의 부모님	①	②	③	④	⑤	⑨
2) 배우자의 부모님	①	②	③	④	⑤	⑨
3) 배우자	①	②	③	④	⑤	⑨
4) 형제· 자매	①	②	③	④	⑤	⑨

6. 여가문화

문38. 지난 **1년 동안 귀하의 하루 평균 여가 시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 **『여가 시간』**이란 일하고 남은 시간에 생리적 필수시간(취침, 식사시간)을 제외한 자유 시간을 의미합니다.

1) 평일 하루 평균 ( ) 시간
2) 휴일 하루 평균 ( ) 시간

문39. 귀하는 여가 시간에 **주로 어떠한 여가활동**을 하십니까? 평일과 휴일 각각 1개씩만 고르세요.

평일 주요 여가활동	( )	휴일 주요 여가활동	( )

① 클럽활동(CA, 동아리활동, 동호회 등)
② 인터넷 검색/채팅
③ 게임 (인터넷, PSP, 스마트폰)
④ TV시청
⑤ 독서(신문, 만화책, 인터넷 도서 등)
⑥ 영화, 비디오 감상
⑦ 음악 감상
⑧ 문화예술 참여 (그림그리기, 악기연주, 사진촬영 등)
⑨ 운동(직접 운동으로 헬스, 각종 스포츠, 댄스교습 등)
⑩ 문화예술(연극, 무용, 영화 등), 운동경기 (스포츠경기장 방문) 등 관람
⑪ 봉사활동
⑫ 관광(유적방문, 풍경관람, 캠핑, 해외여행, 온천/해수욕, 테마파크, 지역축제 등)
⑬ 휴식활동 (산책, 목욕/사우나, 낮잠 등)
⑭ 기타(적어주세요 :)

문40.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여가생활을 위해 한 달 평균 얼마를 지출**하셨습니까?

약 ( ) 만원

문41. 귀하는 다음의 항목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보통 이다	→	매우 동의한다
1) 여가활동은 나의 삶에서 다른 활동에 비해 중요한 부분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현재 여가활동을 충분히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전반적인 여가생활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42.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휴가나 사적인 방문(여행)을 위해서 집을 떠나 주무신 날**이 모두 며칠이나 됩니까?

※ 직장이나 학교에서의 MT, 워크샵 등 공식 일정에 의한 여행, 외박 등은 제외하고 응답해 주십시오.

1) 국내 약 ( ) 일
2) 해외 약 ( ) 일

문43. 귀하는 **여가활동을 주로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① 혼자
② 그 외 가족/친지
③ 연인(교제하는 이성친구)
④ 동호회 회원
⑤ 배우자/자녀
⑥ 친구
⑦ 직장동료
⑧ 기타(적어주세요 :)

문44. 귀하는 **여가활동을 위한 동호회에 가입**하고 계십니까?

① 예 **→ 문44-1로 이동**
② 아니오 **→ 문45로 이동**

문44-1. **동아리(동호회)는 어떤 활동**입니까? 2개 이상일 경우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① 체육활동
② 문학활동
③ 예술(미술, 음악) 활동
④ 컴퓨터 관련 활동
⑤ 종교활동
⑥ 봉사활동
⑦ 사회참여활동
⑧ 기타취미활동

문45. 다음은 지난 1년 동안 귀하께서 경험하신 문화예술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음 각각의 항목별로 귀하의 문화예술 경험에 대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45-1에서 관람 경험이 있는 응답자만 문45-2에 응답할 것**

구분	문45-1. 관람여부		문45-2. 관람지역			
	예	아니오	수원시내	경기도 타시군	서울시	그 외 지역
1) 문학행사 (시화전, 도서전시회, 작가와의 대화)	①	②	①	②	③	④
2) 미술전시회 (사진·서예·건축·디자인 포함)	①	②	①	②	③	④
3) 서양음악(클래식, 서양악기 관련)	①	②	①	②	③	④
4) 전통예술(국악, 풍물, 민속극)	①	②	①	②	③	④
5) 연극	①	②	①	②	③	④
6) 뮤지컬	①	②	①	②	③	④
7) 무용(서양무용, 한국무용, 현대무용)	①	②	①	②	③	④
8) 영화	①	②	①	②	③	④
9) 대중음악(가요콘서트), 연예(방송 프로그램 등)	①	②	①	②	③	④

문46. 귀하께서 문화예술행사를 관람하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① 예술행사의 내용 및 수준
② 참가자(작가, 출연진의) 유명도
③ 교통 편리성
④ 예술행사에 대한 전문가 의견, 언론보도
⑤ 장소접근성(가까움)
⑥ 관람비용의 적절성
⑦ 행사개최 장소의 유명도
⑧ 편의시설 구비여부(놀이방 등)
⑨ 예술행사에 대한 주위 의견, 네티즌 의견
⑩ 기타(적어주세요 :)

7. 미디어

문47. 지난 한 달 동안 귀하가 가장 **자주 접한 뉴스매체 2가지**를 골라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① 종이신문
② 인터넷신문 또는 포털
③ 텔레비전
④ 라디오
⑤ SNS 등 소셜미디어
⑥ 기타(적어주세요 :)

문48.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책**(e-book 포함)**을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 강의교재, 수험서, 교과서, 만화책, 잡지는 제외하고 응답해 주십시오.

( )권

문49. 귀하는 **지난 3개월 동안 인터넷에서 다음과 같은 활동**을 얼마나 자주 하셨습니까?

구분	전혀 하지 않았다	←	보통이다	→	매우 적극적으로 하였다
1) 인터넷 동호회/카페/클럽 활동	①	②	③	④	⑤
2) 인터넷 뉴스/토론 게시판 이용	①	②	③	④	⑤
3) 인터넷 지식 서비스 이용	①	②	③	④	⑤
4) SNS(Social Network Service)활동	①	②	③	④	⑤

문50. 귀하께서 현재 사용 중인 **IT 기기가 있습**니까? 있다면 **몇 대 사용**하고 있는지도 응답해 주십시오.

1) 일반휴대폰 ( ) 대
2) 스마트폰 ( ) 대
3) 태블릿 / 패드 ( ) 대
4) 웨어러블 기기 ( ) 대
5) 기타(적어주세요 :) ( ) 대

문51. 귀하께서 사용하시는 **월평균 통신요금(기기 할부금 제외)은 얼마**입니까?

※ 지난 3개월 동안 월평균 요금을 기준으로 콘텐츠·정보이용료, 소액결제 내역, 기기 할부금은 제외하고 응답해 주십시오. 사용하는 기기가 여러 대인 경우 요금을 합산해 주십시오.

약 ( ) 만 ( ) 천원

문51-1. 귀하의 **통신 요금 납부**에 대해 **어느 정도의 부담**을 느끼십니까?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	보통이다	→	매우 부담된다
①	②	③	④	⑤

문52. 귀하의 스마트 기기에 설치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 종류 중 자주 이용하는 순서대로 3개** 적어 주십시오.

※ 스마트 기기의 자체 기능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직접 접속을 통한 이용은 제외하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이용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① 책/만화(웹툰)
② 교육(외국어, 인터넷 수능 등)
③ 게임
④ 지출관리/금융거래
⑤ 쇼핑
⑥ 생활정보/날씨(건강관리 포함)
⑦ 음악
⑧ 방송/동영상
⑨ 사진/카메라
⑩ 내비게이션/지리 위치· 교통정보
⑪ 뉴스
⑫ 소셜네트워킹(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 등)
⑬ 인스턴트메신저(카카오톡, 마이피플 등)
⑭ 스포츠
⑮ 여행
⑯ 유틸리티/도구/일정관리/배경화
⑰ 레퍼런스/참고자료
⑱ 포털애플리케이션(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8. 교육

※ 문53~문62는 대학에 진학한 분들만 응답해 주십시오

문53. 귀하가 **현재 다니고 있거나 과거에 최종적으로 다니신 대학**의 소재지는 어디이며, 언제 입학(편입) 및 졸업하셨습니까?

※ 대학원이 아닌 2-3년제 또는 4년제 대학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1) 소재지 ( ) 특별시/광역시/도
2) 입학(편입) ( ) 년 ( ) 월
3) 졸업 ( ) 년 ( ) 월 □ 졸업하지 않음

문54. 귀하의 대학 **전공계열**은 무엇입니까?

① 인문계열
② 사회계열(상경계열 포함)
③ 자연계열
④ 공학계열
⑤ 의/약학계열
⑥ 교육계열
⑦ 예체능계열
⑧ 사관학교(육사, 해사, 공사), 경찰대
⑨ 기타(적어주세요 :)

문55. 귀하는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을 하셨습니까?

① 복수전공
② 부전공
③ 복수전공/부전공 모두
④ 기타(심화전공, 연계전공 등)
⑤ 해당사항 없음(단일전공)

문56. 귀하는 **대학원에 진학하셨거나, 진학할 의사**가 있습니까?

① 예 **→ 문56-1로 이동**
② 아니오 **→ 문57로 이동**

문56-1. **대학원에 진학한(혹은 진학하려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② 승진에 도움이 되므로
③ 취업에 도움이 되므로
④ 학벌 상승을 위해 (지명도 있는 대학)
⑤ 학력 상승을 위해 (석•박사 학위 취득)
⑥ 관심 분야를 공부하기 위해
⑦ 취업이 안 돼서
⑧ 기타(적어주세요 :)

문57. 귀하는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이수하고도 **졸업을 늦춘 경험**이 있습니까?

① 예 **→ 문57-1로 이동**
② 아니오 **→ 문58로 이동**
③ 학교에 졸업 유예 제도가 없었음 **→ 문58로 이동**

문57-1. **졸업유예를 하신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스펙을 쌓기 위해
② 취업 및 진로 목표 미설정
③ 군입대를 미루기 위해
④ 일자리 지원 기회를 더욱 갖기 위해 (특정년도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를 선발하므로)
⑤ 채용 면접과정에서의 불필요한 질문(예: 졸업 후 무엇을 했냐 등)을 피하기 위해
⑥ 기타(적어주세요 :)

문58. 귀하는 현재 **휴학 중이거나 휴학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 군입대 및 대학원 휴학은 제외하고 응답해 주십시오.*

① 있다 총 ( ) 학기 **→ 문58-1로 이동**
② 없다 **→ 문59로 이동**

문58-1. 귀하가 **휴학을 한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① 어학연수/해외여행
② 편입학 및 재수준비
③ 자격증 및 고시준비
④ 대학원(유학) 준비
⑤ 취업 및 취업준비
⑥ 아르바이트
⑦ 경제적인 이유로(학비가 없어서)
⑧ 건강상의 이유로
⑨ 인턴 등 대외활동
⑩ 기타(적어주세요 :)

문59. 다음은 대학 시절 경험한 **사교육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별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구분	받음	받지 않음
1) 전공 공부(복수전공, 이중전공, 부전공 포함)를 위한 사교육	①	②
2) 영어 사교육	①	②
3) 제2외국어(영어 제외) 사교육	①	②
4) 여타 취업 준비를 위한 사교육	①	②
5) 기타(적어주세요 :)	①	②

문60. 귀하가 **재학 또는 졸업한 대학의 각 항목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구분	매우 불만족 한다	←	보통이다	→	매우 만족한다
1) 전반적인 만족도	①	②	③	④	⑤
2) 특별활동(동아리 및 소학회)	①	②	③	④	⑤
3) 취업가능성	①	②	③	④	⑤
4) 등록금	①	②	③	④	⑤

문61. 귀하의 **학비는 주로 누가 부담**하셨습니까?

① 부모
② 형제, 자매
③ 친척
④ 장학금
⑤ 본인
⑥ 배우자
⑦ 조부모
⑧ 학자금 대출
⑨ 기타(적어주세요 :)

문62. 귀하는 대학(학부) 재학 중 **등록금 납부를 위해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은행과 제2금융권 대출 및 기타 대출을 포함해 응답해 주십시오.

① 예 총 ( ) 만원 **→ 문62-1로 이동**
② 아니오 **→ 문65로 이동**

문62-1. **주된 학자금 대출 유형**은 무엇입니까?

① 학자금 대출 보증
② 든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취업 후 소득 발생 시점부터 상환)
③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거치기간 동안 이자 납부 후 상환)
④ 제1금융권 (은행) 및 제2금융권 대출
⑤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대출 (졸업/수료 후 2년 뒤부터 상환)
⑥ 기타(적어주세요 :)

문62-2. 학자금 대출금의 **원금이나 이자를 제때에 납부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문62-3. 학자금 대출금의 **원금이나 이자납부에 대해 어느 정도의 부담**을 느끼십니까?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	보통이다	→	매우 부담된다
①	②	③	④	⑤

※ 문63~문64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분 (고졸 이하 및 재수생 등 비진학자)들만 응답해 주십시오

문63. 귀하가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고졸 학력을 취득하지 못해서
② 빨리 취업하여 돈을 벌고 싶었기 때문에
③ 진학하고 싶었으나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④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에 성적이 부족해서
⑤ 대학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⑥ 고등학교 시절, 졸업 후에 대해 아무런 생각이 없어서
⑦ 기타(적어주세요 :)

문64. 귀하는 추후 **대학에 진학할 의사**가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9. 경제활동상태

문65. 귀하는 **지난 1주간 주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 **「무급가족종사자」**란 일정한 보수 없이 자기 가족의 일원이 경영하는 사업체나 농장을 돕는 사람을 말합니다.
○ **「일시휴직」**이란 자신이나 가족의 병, 사고, 연가, 교육, 휴가, 노사분규, 원료부족 및 일기불순에 따른 조업중단 등으로 자기가 다니고 있는, 또는 자기가 경영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로 일시휴직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직장에 복귀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① 일하였음 → **취업자 유형(문68~문86)**
② 18시간이상 무급 가족종사자 → **취업자 유형(문68~문86)**
③ 18시간미만 무급 가족종사자 → **미취업자 유형(문66~문67)**
④ 일시휴직 → **미취업자 유형(문66~문67)**
⑤ 가사 혹은 육아 → **미취업자 유형(문66~문67)**
⑥ 구직활동 및 취업준비 → **미취업자 유형(문66~문67)**
⑦ 진학준비 → **미취업자 유형(문66~문67)**
⑧ 군입대 대기 → **미취업자 유형(문66~문67)**
⑨ 정규교육기관 통학 → **미취업자 유형(문66~문67)**
⑩ 기타(적어주세요 :) → **미취업자 유형(문66~문67)**

※ 문66~문67은 문65에서 ③~⑩ 응답자(미취업자)만 응답해 주십시오

문66. 현재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원하는 조건(전공, 경력, 임금수준, 근로조건)의 일자리가 없어서
② 단순히 일자리가 없어서
③ 기능, 학력, 능력이 부족하여
④ 여성, 고령자,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 때문에
⑤ 가사일 또는 육아 때문에
⑥ 건강상 이유로
⑦ 진학을 위해
⑧ 학생이기 때문에
⑨ 당분간 쉬고 싶어서 /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
⑩ 기타(적어주세요 :)

문67. 귀하는 현재 **경제적인 문제를 주로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① 부모 또는 형제의 지원
② 예전에 모아둔 저축
③ 배우자의 소득
④ 종교기관, 국가 등의 지원금
⑤ 장학금, 연구 관련 지원비 등
⑥ 실업급여
⑦ 대출
⑧ 기타(적어주세요 :)

※ 문68~문82은 문65에서 ①~② 응답자(취업자)만 응답해 주십시오

문68. 귀하는 **현 직장에서 얼마나 근무**하셨습니까? 수습 및 인턴 기간도 포함하여 응답합니다.

( ) 년 ( ) 개월

문69. 현재 **일하시는 곳의 위치**는 어떻게 됩니까?

( ) 시/도 ( ) 구/군

문70. 귀하가 댁에서 현 직장까지 **출퇴근하실 때 이용하시는 주된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

① 자가용
② 버스
③ 전철
④ 자전거
⑤ 도보
⑥ 기타(적어주세요 :)

문71. 귀하의 댁에서 현 직장까지의 **출퇴근시간(왕복 기준)은 몇 분**이십니까?

( ) 분

문72. **현 직장은 다음 중 어디**에 속합니까?

① 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
② 외국인회사
③ 공공기관 및 공기업
④ 정부부처(공무원(예: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 군인)
⑤ (재단, 사단)법인단체
⑥ 사회적 기업
⑦ 특정회사나 사업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음
⑧ 기타(적어주세요 :)

문73. 귀하의 **현재 종사상 지위**는 무엇입니까?

○ 상용직
-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정규직원
- 회사의 소정 채용절차에 의하여 입사한 사람으로 인사관리 규정을 적용받는 직원
-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자로 퇴직금 및 상여금 등 각종 수당 수혜자

○ 임시직
- 일정한 사업완료의 필요에 의하여 고용된 자(사업완료가 1년 미만)
- 단순 업무 보조원으로서 상여금 등 제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람
-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도 퇴직금 비수혜자

○ 일용직
-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
- 매일매일 고용되어 근로의 대가로 일급 또는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는 사람

○ 고용주
- 한 사람 이상의 유급종업원을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으로 소규모라도 임금을 주는 종업원을 채용하고 있는 경우

○ 자영업자
- 일이 자기 책임하의 독립적인 형태로 수행되며 유급종업원 없이 자기 혼자 또는 무급가족과 함께 일을 하는 자 또는 전문적인 일을 독립적으로 수행 및 경영하는 자

○ 무급가족종사자
- 일정한 보수 없이 자기가족(동일 가구 내)의 일원이 경영하는 사업체에서 적어도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자

① 상용직 → **문74로 이동**
② 임시직 → **문74로 이동**
③ 일용직 → **문74로 이동**
④ 고용주 → **문73-1로 이동**
⑤ 자영업자 → **문73-1로 이동**
⑥ 무급가족종사자 → **문75로 이동**
⑦ 기타(적어주세요 :) → **문74로 이동**

문73-1. **(73번 문항에서 ④ 고용주, ⑤ 자영업자 응답자만)** 이 **사업을 시작한 주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① 적당한 임금근로 일자리를 발견할 수 없어서
② 좋아하는 업종이어서
③ 누군가(직장상사 등)의 간섭이 싫어서
④ 일하는 시간이 자유로운 편이어서
⑤ 가정과 가까운 곳에서 일하려고
⑥ 배우자(또는 친지, 친척)의 일이라 함께 해야 하므로
⑦ 가업(또는 집안에서 하도록 정해진 일)이어서
⑧ 친구나 친지의 추천으로
⑨ 기타(적어주세요 :)

문73-2. **(73번 문항에서 ④ 고용주, ⑤ 자영업자 응답자만)** **창업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① 자금의 확보
② 기술의 확보
③ 적당한 인력의 확보
④ 행정적인 절차(인허가, 창업지원 등)
⑤ 업종 선정
⑥ 사업장 위치선정
⑦ 창업관련정보의 수집

문73-3. **(73번 문항에서 ④ 고용주, ⑤ 자영업자 응답자만)** 이 사업체를 시작하기 위하여 **창업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응답 후 문75로 이동

① 받은 적 있다
② 받은 적 없다

문74. 귀하의 현재 **고용형태**는 무엇입니까?

① 정규직 → **문75로 이동**
② 비정규직(기간제, 파견, 용역 등) → **문74-1로 이동**

문74-1. **(74번 문항에서 ② 비정규직 응답자만)** 귀하께서 **비정규직으로 일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정규직으로 일하길 원했으나 일자리가 없어서
② 비정규직으로 경력을 쌓는 것이 미래에 좋은 일자리를 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③ 일하고자 하는 직업이 대부분 비정규직이어서
④ 육아 등의 가사부담으로 전일제 정규직에서 일하기 힘들어서
⑤ 학업으로 인해 전일제 정규직에서 일하기 힘들어서
⑥ 일정한 직장에 얽매이지 않고 좀 더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어서
⑦ 기타(적어주세요 :)

문75. 현재 하시는 **일은 본인의 전공 분야와 어느 정도 일치**하십니까?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	보통	→	매우 일치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76. 현재 일자리에 **적응하는 데 어려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① 업무내용습득
② 상사-동료와의 관계
③ 적성·흥미와 불일치
④ 기대했던 수준(임금, 복지, 근로시간 등)과의 격차
⑤ 차별(성, 학력, 지역 등)
⑥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⑦ 고용 또는 직장의 불안정성
⑧ 육체적 건강 또는 체력의 문제
⑨ 기타(적어주세요 :)
⑩ 어려움이 없었음

문77. 귀하께서 **현 직장에 들어가게 된 경로**는 무엇입니까? 특별한 절차 없이 입사하게 된 경우 '⑧ 기타'로 응답해 주십시오.

① (공개)채용시험에 합격하여
② 회사측의 특별채용(스카우트)에 의하여
③ 학교(학원) 선생님의 소개 및 추천으로
④ 가족, 친지 및 지인의 소개 및 추천으로
⑤ 그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의 소개 및 추천으로
⑥ 개인사업 시작(가족사업 참여)
⑦ 취업박람회를 통하여
⑧ 기타(적어주세요 :)

문78. 현 일자리에서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는 어떻게 됩니까?

○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정규근로시간과 평균 초과근로시간으로 나누어집니다. 정규근로시간의 경우 1주간 사업체가 규정한 정규근로시간으로, 초과근로시간의 경우는 1주 평균 초과근로시간으로 응답합니다.
○ 비임금근로자의 경우(자영업주 등) 정규초과 근로시간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 정규 근로시간에 기입하여 주십시오.
○ 주당 근로일수는 정규근로일수와 초과근로일수로 나뉘어 있으며, 휴일근무는 초과근로일수로 들어가고, 야근은 포함되지 않으며 통상적 1주간 평균으로 응답합니다.
○ 토요일 격주 근무의 경우, 주당 정규근로일수를 5.5일로 기입합니다.

1) 주당 정규 근로시간 ( ) 시간
2) 주당 평균 초과 근로시간 ( ) 시간
3) 주당 정규 근로일수 ( ) 시간
4) 주당 평균 초과 근로일수 ( ) 시간

문79. 귀하는 **직장 내 또는 직장 이외의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습니까?

※ 예) 직장 이외 노조 : 지역노조, 산별노조 등

① 가입하였다
② 가입하지 않았다
③ 가입할 수 없다 (노조가 없거나 가입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포함)

문80. 다음은 **현직장 만족도** 측정항목입니다. 각 항목별 만족정도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매우 불만족 한다	←	보통 이다	→	매우 만족한다
1) 전반적인 만족정도	①	②	③	④	⑤
2) 하고 있는 일(업무)의 내용	①	②	③	④	⑤
3) 임금과 수입	①	②	③	④	⑤
4) 고용의 안정성	①	②	③	④	⑤
5) 일의 자율성과 권한	①	②	③	④	⑤
6) 일하는 시간(근로시간, 근무일수)	①	②	③	④	⑤
7) 사무실(작업장)의 물리적 근로환경(시설 안전, 위생상태 등)	①	②	③	④	⑤
8) 직장동료(상사 포함) 간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①	②	③	④	⑤

문81. 귀하는 현재 주된 **일자리 이외에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까?

※ 수입을 목적으로 임시로 하는 아르바이트를 포함해 응답해 주십시오.

① 예 총 ( ) 가지
② 아니오

문82. 귀하는 현 직장을 그만두고 **이직할 의향**이 있습니까?

① 있다 → **문82-1로 이동**
② 없다 → **문83으로 이동**

문82-1. **이직을 희망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더 나은 보수/복지를 위해
② 개인발전/승진
③ 더 나은 근무환경 (직장상사, 동료, 식대, 출퇴근 시간/거리 등)
④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
⑤ 더 나은 안정성을 위해
⑥ 기술 또는 기능 수준이 맞지 않아서
⑦ 개인 사업을 위해서
⑧ 건강상의 이유로
⑨ 집안사정 때문에(육아, 가사부담 등 포함)
⑩ 기타(적어주세요 :)

10. 취업 및 이직 준비

※ 취업준비에는 이직 및 전직을 위한 것까지 포함됩니다. 문83~문93은 직장 유무에 상관없이 응답해 주십시오.

문83. 귀하의 **향후 1년간 계획**은 무엇입니까? 주된 계획 한 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① 직장 옮김
② 취업
③ 국내 학교로의 진학
④ 외국으로 유학
⑤ 어학연수
⑥ 개인사업 또는 창업
⑦ 그냥 쉼
⑧ 육아 또는 가사
⑨ 구체적인 계획 없음(현 상태 유지)
⑩ 기타(적어주세요 :)

문84. 귀하는 **현재 취업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 **『취업준비』**란 이력서 제출, 입사시험 응시, 구직사이트 등록 등 구체적으로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취업관련 정보 공유, 면접 준비를 위한 그룹(집단) 스터디, 취업을 위한 공사/공무원 시험 등의 준비, 인턴 경험 등 취업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말합니다.

① 예 **→ 문84-1로 이동**
② 아니오 **→ 문85로 이동**

문84-1. 귀하는 **취업준비 중 구직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 **『구직활동』**이란 이력서 제출, 입사시험 응시, 구직사이트 등록 등 구체적으로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① 예
② 아니오

문85. 귀하가 취업을 위해 지금까지 **준비했거나 현재 준비하고 있는 스펙은 무엇**입니까?
각 항목이 취업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85-1에 상관없이 문85-2에 응답할 것**

구분	문85-1. 스펙유무		문85-2. 영향정도				
	있다	없다	전혀 영향이 없다	←	보통이다	→	매우 영향이 있다
1) 학점 등 학교 성적 관리	①	②	①	②	③	④	⑤
2) 외국어 (토익, 토플, 영어회화 능력, 제2외국어 능력, 한자능력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3) 자격증 (컴퓨터 관련, 업무(직무) 관련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4) 경험 (어학연수 등 해외경험, 인턴, 아르바이트 등 직무경험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5) 공모전 등 수상경력	①	②	①	②	③	④	⑤
6) 석·박사학위	①	②	①	②	③	④	⑤
7) 활동 (봉사활동 경험, 동아리활동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8) 기타(적어주세요:)	①	②	①	②	③	④	⑤

문86. 귀하가 **취업을 위해 구직정보를 얻는 주된 경로 3가지**를 순서대로 선택하여 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① 학교 선생님(교수)
② 학교에서 운영하는 취업정보센터, 경력개발센터 등
③ 신문, TV등 언론매체
④ 부모 또는 친척
⑤ 친구 또는 선후배 등 지인
⑥ 공공기관 취업사이트(워크넷 등)
⑦ 민간 취업사이트/카페 등
⑧ 직업 및 취업박람회
⑨ 학원
⑩ 현장실습/인턴십
⑪ 기타(적어주세요 :)

문87. 귀하께서 **취업준비 및 구직활동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 3가지**를 순서대로 선택하여 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① 취업정보의 부족
② 적성파악의 어려움
③ 성차별
④ 학력, 기능 등 요구 자격
⑤ 경력 부족
⑥ 외모 또는 신체적 조건
⑦ 희망하는 근무환경 및 근무시간의 불일치
⑧ 희망하는 수입이나 보수의 불일치
⑨ 구직실패로 인한 심리적 부담감
⑩ 창업자금의 부족
⑪ 기타(적어주세요 :)

문88. 귀하는 **희망하는 직업**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 **문88-1로 이동**
② 없다 → **문89로 이동**

문88-1. 그 일을 **희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적성에 맞을 것 같아서
② 전공분야와 관련이 있어서
③ 보수가 많을 것 같아서
④ 사회적 지위나 이미지가 좋을 것 같아서
⑤ 장래성과 발전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⑥ 부모님께서 원하셔서
⑦ 근무환경이 좋을 것 같아서
⑧ 직업이 안정적일 것 같아서
⑨ 기타(적어주세요 :)

문89. 귀하께서 **일하고 싶은 기업유형**은 무엇입니까?

○ **『전문 중소기업』**이란 기업규모는 중소기업에 속하지만, 분야(서비스업, 건설업, 금융보험업 등)별로 매출액 상위 순위를 차지하거나 중소기업의 육성을 촉진시키려는 정부시책에 따라 선정된 중소기업을 말하며, **『일반중소기업』**은 전문 중소기업을 제외하고 대기업에 비해 규모가 작은 기업을 말합니다.

① 대기업 → **문89-1로 이동**
② 공공기관(공기업, 정부행정기관 포함) → **문89-1로 이동**
③ 외국계기업 → **문89-1로 이동**
④ 일반 중소기업 → **문89-1로 이동**
⑤ 전문 중소기업 → **문89-1로 이동**
⑥ 창업 → **문89-2로 이동**
⑦ 기타(적어주세요 :) → **문89-1로 이동**

문89-1. **그 기업유형을 선택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보수가 많을 것 같아서
② 작업환경(산업재해 위험) 등 근무 환경이 양호할 것 같아서
③ 숙련기술과 기술 및 전문지식 습득이 높을 것 같아서
④ 장래성과 발전가능성이 있어서
⑤ 직원들을 위한 복지혜택이 좋을 것 같아서
⑥ 기업의 대외 이미지가 좋을 것 같아서
⑦ 고용이 안정적일 것 같아서
⑧ 취업하기 쉬울 것 같아서
⑨ 기타(적어주세요 :)

문89-2. **창업하자는 생각을 갖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경제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
② 사회적으로 성공하기 위해
③ 나의 아이디어를 사업으로 실현하기 위해
④ 나의 전문영역을 키우기 위해
⑤ 취업이 어려워서
⑥ 나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일을 찾기 위해
⑦ 지인이 함께 창업하자고 권유해서
⑧ 나의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⑨ 기타(적어주세요 :)

문90. 현재 **창업 중이거나 창업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문91. 귀하는 **현재까지 공무원 또는 공단(공사), 교원 임용 시험, 국가전문자격시험 준비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문92. 귀하가 취업(또는 창업)을 통해 **최소한 받고자 하는 임금(또는 소득)은 연 얼마** 정도 입니까?

연봉 ( ) 만원

문93. 귀하는 **직업선택 시 다음 각 항목들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전혀 중요치 않다	←	보통 이다	→	매우 중요 하다
1)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 일하기보다는 혼자 일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금전적으로 보상이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⑤
3) 타인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고용이 안정되어 있어서 정년까지 일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업무가 정형화되지 않고 변화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6) 자율적으로 업무를 해나갈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아르바이트

문94. 귀하는 **아르바이트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과외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동시에 진행한 경우는 2회에 해당합니다. 또한 과외 3개를 동시 진행한 경우도 3회에 해당합니다.

① 있다 총 ( ) 회 **→ 문95로 이동**
② 없다 **→ 문98로 이동**

문95. 귀하의 **최초 아르바이트 시작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① 중학교
② 고등학교
③ 대학교
④ 대학원

문96. 귀하가 하셨던 **아르바이트 종류**는 무엇이었습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골라** 주십시오.

① 사무(보조)관련
② 교육관련
③ 보건의료, 사회복지 관련
④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 관련
⑤ 운송 관련
⑥ 판매 관련
⑦ 경비, 청소, 미용, 숙박, 스포츠, 여가 서비스 관련
⑧ 음식서비스관련(음식배달제외)
⑨ 건설 관련
⑩ 제조 관련(수리, 정비 포함)
⑪ 정보통신 관련
⑫ 농림어업 관련

문97. 귀하가 **아르바이트를 한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가족의 생계를 돕기 위해
② 학비를 벌려고
③ 용돈이 필요해서
④ 독립하기 위한 자금을 모으려고
⑤ 여가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⑥ 졸업 후 취업을 위한 경험을 쌓기 위해
⑦ 주위(부모님 혹은 친지 등)에서 시켜서
⑧ 주위친구들이 하니까
⑨ 기타(적어주세요 :)

12. 주거

문98. 귀하는 **본인 명의의 집을 언제쯤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① 이미 소유하고 있다 ③ 향후 5년-10년 이내 ⑤ 마련할 수 없을 것 같다
② 향후 1년~5년 이내 ④ 향후 10년 이후

문99. 귀하는 **공동주거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공동 주거』**란 다수가 한 집에 살면서 방은 따로 쓰고 거실과 욕실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거 형태를 의미합니다.

① 예 ② 아니오

문100. 귀하는 **향후 공동주거를 할 의향**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문101. 다음은 평소 **집에 대해 귀하가 갖고 계신 생각**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 이다	→	매우 그렇다
1) 내 명의의 집(자가 소유)은 꼭 있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의 능력과 노력으로 내가 원하는 집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3) 부모님 도움 없이 내 명의의 집(자가 소유)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102. 귀하의 거주지역에 대한 다음의 항목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 이다	→	매우 그렇다
1) 청결하다	①	②	③	④	⑤
2) 인근 지역보다 집값(전세 보증금/월세)이 낮은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 일상적인 생활을 위해 멀리 이동할 필요가 없다(마트, 은행, 병원 등)	①	②	③	④	⑤

13. 소비 및 부채

문103. 귀하의 전반적인 소비생활 중 **지출이 가장 큰 항목**은 무엇입니까?

① 식료품비 ⑤ 교통, 통신비 (차량유지비 포함) ⑨ 경조사비
② 외식비 ⑥ 문화여가비 ⑩ 주거비
③ 의류비 ⑦ 보건의료비 ⑪ 기타(적어주세요 :)
④ 교육비 ⑧ 연료비 (전기 · 가스 등)

문104. 만약 귀하의 재정상황이 지금보다 좋아진다면, **어떤 항목의 지출을 가장 먼저 늘리**시겠습니까?

① 식료품비 ⑤ 교통, 통신비 (차량유지비 포함) ⑨ 경조사비
② 외식비 ⑥ 문화여가비 ⑩ 주거비
③ 의류비 ⑦ 보건의료비 ⑪ 기타(적어주세요 :)
④ 교육비 ⑧ 연료비 (전기 · 가스 등)

문105. 소득 및 주변 여건을 고려했을 때, **귀하는 계획적인 소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	→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문106. 귀하는 현재 부모, 형제를 포함하여 가족으로부터 매달 고정적으로 생활비(용돈) 등의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 배우자 간의 생활비 및 용돈의 제공 등은 제외하고 응답해 주십시오.

① 예 월평균 총 ( ) 만원
② 아니오

문107. 귀하는 현재 부모, 형제를 포함하여 가족에게 매달 고정적으로 생활비(용돈) 등의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 배우자 간의 생활비 및 용돈의 제공 등은 제외하고 응답해 주십시오.

① 예 월평균 총 ( ) 만원
② 아니오

문108. 귀하는 다음 항목의 **비용을 어떻게 마련**하셨거나, 혹은 **마련하실 계획**이십니까?

구분	전적으로 본인	←	반반	→	전적으로 부모	해당 없음
1) 대학등록금	①	②	③	④	⑤	⑨
2) 결혼비용	①	②	③	④	⑤	⑨
3) 주택구입 비용	①	②	③	④	⑤	⑨
4) 분가 독립 후 생활비	①	②	③	④	⑤	⑨

문109. 다음은 **구매활동 및 쇼핑**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와 가까운 것을 선택해 주십시오.

구분	확실히 아니다	←	보통 이다	→	확실히 그렇다
1) 즐겨 구입하는 브랜드가 정해져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신제품(전자제품 등)이 출시되면 남들보다 먼저 산다	①	②	③	④	⑤
3) 물건을 구입할 때 외국 제품을 선호한다	①	②	③	④	⑤
4) 가끔 충동적으로 구매를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새로운 패션과 유행은 빨리 받아들인다	①	②	③	④	⑤

문110. 귀하가 지난 1년간 주로 **이용하셨던 구매처**는 어디입니까?

① 백화점
② 아울렛/쇼핑몰
③ 대형마트
④ 편의점
⑤ 슈퍼마켓
⑥ 재래시장
⑦ 홈쇼핑
⑧ 온라인(인터넷/스마트폰)
⑨ 기타(적어주세요 :)

문111.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자주 외식**을 하셨습니까?

※ 직장/학교에서의 점심식사 및 배달음식은 제외하고 응답해 주십시오.

① 거의 매일
② 일주일에 5~6번
③ 일주일에 3~4번
④ 일주일에 1~2번
⑤ 1달에 1~2번
⑥ 2~3달에 1번
⑦ 특별한 날에만
⑧ 전혀 하지 않음

문112. 귀하는 **외식을 위해 1인 기준으로 한 달에 평균 얼마를 지출**하십니까?

약 ( ) 만원

문113. 귀하는 **현재 부채**가 있습니까? 부채에는 신용카드 연체, 은행대출, 사채 등이 포함됩니다.

① 있다 총 ( ) 만원
② 없다

14. 건강 및 영양

문114. 귀하의 **키와 몸무게**는 얼마입니까?

1) 키 약 (.) Cm
2) 몸무게 약 (.) Kg

문115. 귀하는 현재 **본인의 체형**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마른 편이다	약간 마른 편이다	보통이다	약간 비만이다	매우 비만이다
①	②	③	④	⑤

문116. 귀하는 다음의 항목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 이다	→	매우 그렇다
1) 나는 신체적으로 건강하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를 잘 받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평소 숙면을 취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문117. 귀하는 **평일 하루 평균 수면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 학생인 경우 학기 중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 시간 ( ) 분

문118. 귀하는 **규칙적인 운동을 얼마나 자주** 하고 계십니까?

※ 1회 운동 시 30분 이상 한 경우에 해당하며, 직업, 학업, 집안일, 봉사활동, 학교 체육수업 등과 관련한 신체활동은 제외합니다.

① 하지 않음
② 일주일에 1번
③ 일주일에 2번
④ 일주일에 3번
⑤ 일주일에 4번
⑥ 일주일에 5번
⑦ 일주일에 6번
⑧ 매일

문119. 귀하는 **담배**를 피우십니까?

① 예 하루 평균 ( ) 개비
② 아니오

문120. 귀하는 **술을 얼마나 자주** 마십니까?

① 전혀 마시지 않음
② 일 년에 한두 번
③ 한 달에 한두 번
④ 일주일에 한두 번
⑤ 일주일에 세네 번
⑥ 거의매일

문121. 귀하는 **우리 인생에서 외모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중요하지 않다	←	보통이다	→	매우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122. 만약 귀하께서 **성형 수술을 하신 적이 있다면,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① 의료 (화상치료, 안검하수 등)
② 미용 (쌍꺼풀, 보톡스, 지방제거 등)
③ 성형 수술을 한 적이 없다

문123. 최근 1년 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 등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문124. 다음은 귀하의 식습관과 관련된 문항입니다. 해당되는 곳을 선택해 주십시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 이다	→	매우 그렇다
1) 나는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과일 및 야채를 많이 섭취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체중관리를 위해 식단을 자주 조절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과식을 자주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야식을 자주 먹는다.	①	②	③	④	⑤

DQ. 응답자 특성

DQ1. 귀하가 거주하고 계시는 **주택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① 단독주택
② 아파트
③ 연립주택
④ 다세대주택
⑤ 기타(적어주세요 :)

DQ2 귀하가 거주하고 계시는 **주택의 형태**는 무엇입니까?

① 본인 소유
② 본인 전세
③ 본인 월세
④ 부모 가구주
⑤ 하숙
⑥ 기숙사/관사
⑦ 고시원
⑧ 기타(적어주세요 :)

DQ3. 귀하가 거주하고 계시는 **주택의 규모**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10평 미만
② 10~19평
③ 20~29평
④ 30~39평
⑤ 40~49평
⑥ 50~59평
⑦ 60~69평
⑧ 70평 이상

DQ4. 귀가구의 **구성원**은 어떻게 되십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 주십시오.

① 배우자
② 미혼자녀
③ 부모(배우자쪽 포함)
④ 조부모(배우자쪽 포함)
⑤ 형제·자매
⑥ 기타 친인척
⑦ 기타 동거인(적어주세요 :)

DQ5. 귀가구의 **구성원은 총 몇 명**입니까?

본인 포함 총 ( ) 명

DQ6. 귀하는 **가구주** 입니까?

① 본인이 가구주임 → **DQ7로 이동**
② 본인이 가구주가 아님 → **DQ6-1로 이동**

DQ6-1. 그렇다면, 귀하는 **가구주와 어떤 관계**입니까?

① 배우자
② 미혼자녀
③ 부모(배우자쪽 포함)
④ 조부모(배우자쪽 포함)
⑤ 형제·자매
⑥ 기타 친인척
⑦ 기타 동거인(적어주세요 :)

DQ7. 귀하는 **자동차를 보유**하고 계십니까?

① 예 ( ) 대
② 아니요

DQ8.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① 고위관리직 (기업체경영주, 기업체간부, 고급공무원, 사회단체 간부)
② 전문직 (의사, 변호사, 교수, 교사, 언론인, 예술가, 프로그래머)
③ 준전문직 (건축도안사, 컴퓨터보조원, 임상병리사, 준교사, 운동선수 등)
④ 사무직 (회사원, 은행원, 전화교환원 등)
⑤ 서비스/판매직
⑥ 농업, 어업, 축산업, 임업
⑦ 기능직 (건축관련 기능직, 정비원, 세공원 등)
⑧ 장치 및 기계 관련직 (장치 조작원, 기계조작원, 운전기사 등)
⑨ 단순노무직 (환경미화원, 아파트관리원, 노무자 등)
⑩ 전업주부
⑪ 학생
⑫ 무직
⑬ 기타(적어주세요 :)

DQ9. 귀하의 **최종학력**은 무엇입니까?

① 무학 → **DQ10으로 이동**
② 초등학교 → **DQ9-1로 이동**
③ 중학교 → **DQ9-1로 이동**
④ 고등학교 → **DQ9-1로 이동**
⑤ 대학(4년제 미만) → **DQ9-1로 이동**
⑥ 대학교(4년제 이상) → **DQ9-1로 이동**
⑦ 대학원 석사 → **DQ9-1로 이동**
⑧ 대학원 박사 → **DQ9-1로 이동**

DQ9-1. 귀하의 **학력 이수여부**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졸업
② 재학
③ 수료
④ 휴학
⑤ 중퇴

DQ10. 귀하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① 개신교
② 천주교
③ 불교
④ 무교
⑤ 기타(적어주세요 :)

DQ11. 귀하의 **출생지역은 어디**입니까?

1) 국내 ( ) 시/도 ( ) 구/시/군
2) 국외 국가명: ( )

DQ12. 귀하의 **결혼 상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기혼 → **DQ12-1로 이동**
② 이혼 → **DQ12-1로 이동**
③ 사별 → **DQ12-1로 이동**
④ 미혼 → **DQ13으로 이동**

DQ12-1. 귀하는 **언제 결혼**하셨습니까?

만 ( ) 세 (초혼기준)

DQ12-2. **(DQ12번 문항에서 ① 기혼 응답자만)** 귀하의 **배우자는 직업**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DQ12-3. **(DQ12번 문항에서 ① 기혼 응답자만)** 귀하의 **배우자의 최종학력**은 무엇입니까?

① 무학 → **DQ12-5로 이동**
② 초등학교 → **DQ12-4로 이동**
③ 중학교 → **DQ12-4로 이동**
④ 고등학교 → **DQ12-4로 이동**
⑤ 대학(4년제 미만) → **DQ12-4로 이동**
⑥ 대학교(4년제 이상) → **DQ12-4로 이동**
⑦ 대학원 석사 → **DQ12-4로 이동**
⑧ 대학원 박사 → **DQ12-4로 이동**

DQ12-4. **(DQ12번 문항에서 ① 기혼 응답자만)** 귀하의 배우자의 **학력 이수여부**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졸업
② 재학
③ 수료
④ 휴학
⑤ 중퇴

DQ12-5. **(DQ12번 문항에서 ① 기혼 응답자만)** 귀하의 배우자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① 개신교
② 천주교
③ 불교
④ 무교
⑤ 기타(적어주세요 :)

DQ13. 귀하는 **자녀가 있으**십니까?

① 있다 ( )명, 첫 자녀는 ( )년도 출산
② 없다

DQ14. 귀하는 **향후 자녀를 출산할 의향**이 있습니까?

※ 현재 자녀가 있는 분도 응답해 주십시오.

① 있다
② 없다

DQ15. 귀하의 **월평균 소득**은 얼마입니까? **세금 공제 전 금액**을 응답해 주십시오.

※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을 포함한 금액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① 소득 없음
② 월평균 100만원 미만
③ 월평균 100만원 ~ 200만원 미만
④ 월평균 200만원 ~ 300만원 미만
⑤ 월평균 300만원 ~ 400만원 미만
⑥ 월평균 400만원 ~ 500만원 미만
⑦ 월평균 500만원 ~ 600만원 미만
⑧ 월평균 600만원 ~ 700만원 미만
⑨ 월평균 700만원 ~ 800만원 미만
⑩ 월평균 800만원 ~ 900만원 미만
⑪ 월평균 900만원 ~ 1,000만원 미만
⑫ 월평균 1,000만원 이상
⑬ 모르겠음

DQ16. 귀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얼마입니까? **세금 공제 전 금액**을 응답해 주십시오.

※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을 포함한 금액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① 소득 없음
② 월평균 100만원 미만
③ 월평균 100만원 ~ 200만원 미만
④ 월평균 200만원 ~ 300만원 미만
⑤ 월평균 300만원 ~ 400만원 미만
⑥ 월평균 400만원 ~ 500만원 미만
⑦ 월평균 500만원 ~ 600만원 미만
⑧ 월평균 600만원 ~ 700만원 미만
⑨ 월평균 700만원 ~ 800만원 미만
⑩ 월평균 800만원 ~ 900만원 미만
⑪ 월평균 900만원 ~ 1,000만원 미만
⑫ 월평균 1,000만원 이상
⑬ 모르겠음